

19세기 말~20세기 초
서양인이 본 한국

Journals from the Late 19th
and Early 20th Centuries

Korea Through Western Eyes

19세기 말~20세기 초

서양인이 본 한국

Journals from the Late 19th
and Early 20th Centuries

Korea Through Western Eyes

일러두기

- 1 이 책은 국립중앙박물관이 소장한 19세기 말~20세기 초 서양 신문과 잡지를 대상으로 한국 관련 기사를 선정, 번역하여 소개한 자료집입니다.
- 2 이 책에서 소개하는 기사의 정보는 기사 제목, 신문 및 잡지 명, 발행 국, 발행 연도, 쪽수, 유물 번호, 크기 순서로 정리하였습니다.
- 3 신문 및 잡지의 크기는 세로×가로이며, 단위는 센티미터(cm)입니다.
- 4 번역문에서 한자는 첨자로 병기했으며, 간단한 설명은 ()로, 긴 설명은 각주로, 원 저자의 설명은 —으로 처리하였습니다.
- 5 인명과 지명의 표기는 국립국어원의 외래어 표기법, 두산백과 등을 참조했으며, 원문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6 원문의 'Korea, Corea, Corée'는 시기와 문맥에 따라 조선, 대한제국, 한국 등으로 번역하였습니다.
'명성황후'는 시기에 구분 없이 '명성황후'로 표기하였습니다.
- 7 신문 및 잡지의 원문 이미지에서 관련 기사가 아닌 부분은 흐리게 처리하였습니다.
- 8 본문에 등장하는 인명은 뒤에 '인명 색인'을 마련하여 참고하도록 하였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
역사자료총서 17
(대한제국 자료집 2)

Historical Materials in
Custody of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Vol. 17

Contents

PART II
1880년대

PART III
1890년대

PART I

1860~70년대

갑신정변과 김옥균

7	조선인 김옥균 (하퍼스 위클리 1894. 08. 18.)	60
---	------------------------------------	----

조선 특사 파견과 한국 기행

8	일본으로 간 조선 특사 (더 일러스트레이티드 런던 뉴스 1881. 03. 19.)	64
9	조선 사절단 (하퍼스 위클리 1888. 01. 28.)	66
10	조선 여행 (더 일러스트레이티드 런던 뉴스 1886. 04. 03.)	69
11	조선, 원산에서 중국 함대 (더 그래픽 1887. 04. 02.)	72
12	중국 함대와 함께 (더 일러스트레이티드 런던 뉴스 1887. 11. 26.)	73
13	조선의 대신 (더 일러스트레이티드 런던 뉴스 1894. 09. 01.)	74
14	한국, 조선 땅 (하퍼스 위클리 1889. 01. 12.)	76

청일전쟁

15	은자의 왕국에 대한 권리 주장 (더 그래픽 1894. 07. 14.)	90
16	조선의 분규 (더 그래픽 1894. 08. 04.)	92
17	조선 스케치 (더 일러스트레이티드 런던 뉴스 1894. 08. 11.)	95
18	조선의 ‘사건’ (하퍼스 위클리 1894. 08. 04.)	98
19	조선의 상황 (하퍼스 위클리 1894. 12. 01.)	101
20	조선 소식 (르 프티 파리지앵 1894. 08. 12.)	105
21	조선에서 (르 프티 주르날 1894. 09. 03.)	108

을미사변

22	조선 왕비 시해 사건 (르 주르날 일뤼스트레 1895. 10. 27.)	112
23	조선의 왕비, 서울에서 살해되다 (르 프티 파리지앵 1895. 10. 27.)	115
24	조선의 비극 (릴뤼스트라시옹 1895. 11. 02.)	116

서구 문명 수용과 외교 관계

25	한국의 첫 번째 철도 (하퍼스 위클리 1898. 01. 29.)	118
26	한국의 전차 (하퍼스 위클리 1899. 07. 15.)	121
27	극동 지역의 위기 (하퍼스 위클리 1904. 01. 30.)	123
28	조선과 조선인 (하퍼스 위클리 1897. 07. 24.)	131
29	한국, 황해로의 관문 (더 일러스트레이티드 런던 뉴스 1898. 03. 19.)	135

한국 기행

30	한국에 온 영국 군대 (더 일러스트레이티드 런던 뉴스 1898. 03. 19.)	137
31	조선 (하퍼스 위클리 1894. 08. 04.)	138
32	말 타고 한국 유람 (하퍼스 위클리 1898. 01. 15.)	140
33	서울 탐방 (더 그래픽 1894. 08. 04.)	147
34	돼지 꼬리 머리와 정수리 머리 매듭 (더 일러스트레이티드 런던 뉴스 1894. 09. 08.)	150
35	애도의 나라 (하퍼스 위클리 1895. 01. 05.)	153
36	조선 그리고 조선인(1) (주르날 데 부야야주 1894. 09. 02.)	160
37	조선 그리고 조선인(2) (주르날 데 부야야주 1894. 09. 09.)	165
38	조선 그리고 조선인(3) (주르날 데 부야야주 1894. 09. 16.)	172

병인양요

1	조선 탐사 (릴뤼스트라시옹 1867. 01. 19.)	22
2	조선 탐사 (릴뤼스트라시옹 1867. 01. 26.)	26

신미양요

3	신미양요 (하퍼스 위클리 1871. 09. 09.)	30
4	조선에 있는 미 해군 (하퍼스 위클리 1894. 08. 18.)	34
5	아시아 해상에 있는 미 해군 (하퍼스 뉴 먼슬리 매거진, 연대 미상)	49

미지의 나라

6	아시아 동쪽에 위치한 조선의 모습 (더 일러스트레이티드 런던 뉴스 1865. 01. 07.)	56
---	--	----

PART IV

1900년대

러일전쟁		고종 황제의 폐위·군대 해산과 저항		한국에서의 일본인		한국에 처음 선보인 자동차가 초래한 결과		일본에서 한국으로		한국에서의 모험	
39	전쟁의 전리품으로서의 한국 (더 아메리칸 먼슬리 리뷰 오브 리뷰스, 연대 미상)	178	50	1900년 만국박람회, 한국관 (르 프티 주르날 1900. 12. 16.)	225	60	한국에서의 일본인 (릴뤼스트라시옹 1907. 08. 10.)	268	69	은둔의 왕국을 찾은 본지 사진 기자 (더 그래픽 1909. 12. 04.)	287
40	극동 지역 소식 (릴뤼스트라시옹 1904. 02. 13.)	194	51	오늘날의 한국 (하퍼스 위클리 1900. 08. 25.)	227	61	새로운 영토 조선을 경비하는 일본 (더 일러스트레이티드 런던 뉴스 1910. 09. 17.)	270	70	가까운 장래에 사라질 것들 (주르날 데 부아야주 1911. 12. 14.)	288
41	한국의 운명 (하퍼스 위클리 1904. 02. 20.)	195	52	한국과 황제 (하퍼스 먼슬리 매거진, 연대 미상)	233	62	일본에 간 한국 황태자 (릴뤼스트라시옹 1908. 02. 29.)	271	71	가련하고 정다운 나라, 한국 (릴뤼스트라시옹 1904. 05. 14.)	290
42	평화로운 서울 (더 그래픽 1904. 02. 20.)	199	53	한국 그리고 황제 (라 비 일뤼스트레 1904. 01. 29.)	246	한국 기행					
43	전쟁의 전개 상황 (하퍼스 위클리 1904. 03. 05.)	200	54	서울에서 (르 프티 파리지앵 1905. 10. 08.)	253	63	조용한 아침의 나라에 등장한 자동차 (더 그래픽 1909. 02. 20.)	273	72	고요한 아침의 나라 (르 프티 주르날 1907. 08. 04.)	293
44	한국에 온 일본군 (릴뤼스트라시옹 1904. 04. 23.)	208	55	이희, 전 대한제국 황제의 폐위 (더 일러스트레이티드 런던 뉴스 1907. 07. 27.)	255	64	한국에 처음 선보인 자동차가 초래한 결과 (르 프티 주르날 1909. 03. 07.)	274	73	한국 궁정에서 (라 비 일뤼스트레 1904. 03. 25.)	297
45	화염에 싸인 궁 (더 그래픽 1904. 06. 11.)	213	56	퇴위한 대한제국 황제 이희 (더 아메리칸 먼슬리 리뷰 오브 리뷰스 1907. 08.)	257	65	일본에서 한국으로 (하퍼스 위클리 1904. 04. 16.)	276	74	미국 여성의 한국 방문－8회 (레슬리스 위클리 1906. 01. 25.)	300
46	압록강 전투 (릴뤼스트라시옹 1904. 07. 02.)	214	57	한국의 쿠데타 (더 일러스트레이티드 런던 뉴스 1907. 09. 14.)	259	66	어두운 한국에 복음을 전하다 (더 크리스천 헤럴드 1909. 03. 11.)	283	75	한국에서의 모험 (주르날 데 부아야주 1901. 04. 06.)	305
47	한국 스파이의 최후 (하퍼스 위클리 1904. 05. 28.)	217	58	혼란에 빠진 한국 (르 프티 주르날 1907. 08. 04.)	260	67	한국의 새해 풍습 (더 그래픽 1902. 02. 08.)	285	인명 색인		
48	스파이의 사형 (더 일러스트레이티드 런던 뉴스 1904. 06. 25.)	221	59	서울 사건 (릴뤼스트라시옹 1907. 09. 07.)	263	68	한국 해안가 시골의 모습 (더 그래픽 1904. 03. 05.)	286			
의병 항쟁											
49	사형수를 대상으로 한 사격 연습 (르 프티 파리지앵 1904. 12. 18.)	222									

서윤희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사

- 머리말
- 수록 신문·잡지 소개 및 역사적 의미
- 서양인이 본 한국의 근대사
- 서양인이 보고 들은 한국과 한국인
- 맺음말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사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사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사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사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사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사

I. 머리말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사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사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사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사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사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사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사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사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사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사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사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사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사

19세기 말~20세기 초

서양인이 본

한국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사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사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사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사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사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사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사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사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사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사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사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사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사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사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사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사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사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사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사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사

『19세기 말~20세기 초 서양인이 본 한국』(역사자료총서 17, 대한제국자료집

2)에는 총 75건의 신문과 잡지 기사를 수록하였다. 시기를 1860~70

년대, 1880년대, 1890년대, 1900년대로 구분한 다음, 주요 사건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1860~70년대는 병인양

요와 신미양요, 1880년대는 갑신정변, 조선 특사 파견, 1890년대에는

청일전쟁, 을미사변, 서구 문명의 수용과 외교 관계, 1900년대에는

러일전쟁, 의병 항쟁, 고종 황제와 그의 폐위, 군대 해산과 저항

등의 소주제로 묶었다. 또한 시대별로 서양인들의 한국 기행과 그들

이 바라본 한국인의 풍습, 특성을 다룬 글을 넣어 한국과 한국인에

대한 시각의 변화상을 담고자 하였다.

본 글은 크게 세 장으로 구성하였다. 먼저 자료집에 수록한 75건의

글이 실린 서양의 신문·잡지를 간략히 소개하였다. 다음으로 시대

별 주요 사건에 대해 서양인들이 어떻게 인식했는지를 관련 기사의

구체적인 내용을 통해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시대별로 서양인들의

의 한국 기행과 그들이 바라본 한국인의 특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II. 수록 신문·잡지 소개 및 역사적 의미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사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사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사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사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사

잡지는 2017년 12월 현재 총 249점이다. 이들은 국립중앙박물관이

2005년 용산으로 이전, 개관을 앞두고 역사관을 신설하면서, 또

2012년 이후 대한제국실에 필요한 전시품을 확충하면서 구입한 것

들이다. 자료들 중에는 해당 호의 전체 기사가 모두 온전한 것도 있

지만, 한국 관련 글이나 삽화만 부분적으로 있는 것도 있어서 원 기

사의 발행 연도 등 출처를 알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자료집에는 249점 중에서 중복된 자료 등을 제외하고 75점을 선정

하여 수록하였다. 다만 러일전쟁 관련 기사는 매우 많아 단일 주제

만으로도 책을 엮을 수 있는 분량이기 때문에, 본 자료집에서는 러

일전쟁의 원인과 경과를 다룬 기사만을 선정하였다. 선정한 75점은

1865년부터 1911년 12월까지의 기사이다. 나라별로는 영국 2종 21점,

미국 5종 25점, 프랑스 6종 29점이다.

영국 자료는 『더 일러스트레이티드 런던 뉴스(The Illustrated London

News)』와 『더 그래픽(The Graphic)』의 2종이다. 『더 일러스트레이티드

런던 뉴스』는 허버트 잉그럼(Herbert Ingram, 1811~1860)이 1842년 5월

14일(토요일)에 창간한 뒤로 160여 년이 지난 2003년에 폐간되었다.

주간지 역사상 처음으로 삽화를 수록하였고 1800년대에 매주 30

만 부 이상 판매되었던 대중적인 잡지였다. 잉그럼은 ‘그림 저널리즘

(pictorial journalism)’의 아버지라 불릴 정도로 사회 개혁을 선호하였

고 보스턴을 대표하는 자유당 정치가이기도 하였다. 그에 의해 잡지

에 사회적·정치적 이슈를 풍자하는 삽화가 처음으로 실리기 시작하

여 큰 인기를 누렸다.

『더 그래픽』은 윌리엄 루손 토머스(William Luson Thomas, 1830~1900)가

1869년 12월 4일(토요일)에 창간하였다. 토머스는 이전에 『더 일러스

트레이티드 런던 뉴스』의 간행에 참여하면서 여론 형성에 그림(사진

의 영향력을 확산하고 자신의 개혁적 성향을 잡지에 담고자 『더 그

래픽』을 창간하였다. 그는 당시 빈곤과 범죄 등 빅토리아 시대의 여

러 문제점을 삽화를 통해 알리고 해결하고자 했다. 그런 만큼 잡지

의 주된 독자는 중산층이었고 타 신문에 비해 자극적인 이미지를

자주 실었다. 이런 이유로 『더 그래픽』은 5펜스였던 『더 일러스트레

이티드 런던 뉴스』보다 비싼 6펜스에 판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고

급 품질의 우수한 일러스트 주간지로서 자리를 굳혔다.

미국 신문과 잡지는 총 5종이다. 대부분의 기사는 『하퍼스 위클리

(Harper’s Weekly)』와 『하퍼스 (뉴) 먼슬리 매거진(Harper’s (New) Monthly

Magazine)』에 수록되었고, 그 외에 『더 아메리칸 먼슬리 리뷰 오브

리뷰스(The American Monthly Review of Reviews)』, 『더 크리스천 헤럴드

(The Christian Herald)』, 『레슬리스 위클리(Leslie’s Weekly)』 등이 있다.

『하퍼스 위클리』는 뉴욕에서 발행된 정치 비평의 주간 저널이다. 플

레처 하퍼(Fletcher Harper, 1806~1877)가 형제들과 함께 설립한 하퍼 앤

브라더스(Harper & Brothers) 출판사에서 1857년부터 1916년까지 발행

하였다. 이 주간지는 국내외 뉴스, 소설, 다양한 주제의 에세이와 유

머, 풍자화 등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풍자화의 비중이 커서 당대 명

망 있는 삽화가들이 활동하였다. 미국 정치 만화의 아버지로 불리

는 토머스 네스트(Thomas Nast, 1840~1902)도 1862년에 입사하여 20년

이상 미국 정치인 대상의 풍자화를 그렸다. 남북전쟁 당시 풍자화로

명성을 얻어 미국 최고의 저널로 자리매김했고 매주 약 20만 부를

발행하기도 했다. 『하퍼스 (뉴) 먼슬리 매거진』은 『하퍼스 위클리』의

자매지로 1850년 6월부터 발간되기 시작하여 2017년 현재까지도

발간되고 있다. 미국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월간지이다.

『더 아메리칸 먼슬리 리뷰 오브 리뷰스』는 영국의 개혁적인 저널리

스트 윌리엄 토머스 스테드(William Thomas Stead, 1849~1912)가 발간한

월간지로, 1937년까지 발행되었다. 그는 세계적인 출판 제국을 꿈꾸

며 런던(1891, 리뷰 오브 리뷰스), 뉴욕(1892, 아메리칸 먼슬리 리뷰 오브 리뷰스),

멜버른(1893, 오스트레일리안 리뷰 오브 리뷰스) 등 세 곳에서 잡지를 발간

하였다. 1890년대부터 1920년대까지 미국 개혁과 관련한 최고의 자

료를 제공하였으며, 영국과 미국의 진보주의자들이 연대하는 데 기

여했다. 1937년에 폐간되었다.

『더 크리스천 헤럴드』는 기독교의 복음을 전하는 미국 주간지로 영

국 신문의 미국판을 만들려는 목적에서 조지프 스펄전(Joseph Spur-

geon)에 의해 뉴욕에서 1878년에 발행되었다. 『레슬리스 위클리』는

프랭크 레슬리(Frank Leslie, 1821~1880)가 1855년에 창간하여 1922년까

지 발행한 문학 및 뉴스 잡지이다.

프랑스 자료는 『르 프티 파리지앵(Le Petit Parisien)』, 『르 프티 주르날

(Le Petit Journal)』, 『릴뤼스트라시옹(L’Illustration)』, 『르 주르날 일뤼스

트레(Le Journal Illustré)』, 『주르날 데 부아야주(Journal des Voyages)』, 『라

비 일뤼스트레(La Vie Illustrée)』 등 6종이다.

『르 프티 파리지앵』은 1876년으로부터 1944년까지 발행되었다. 한

때 세계에서 가장 높은 발행 부수를 기록하기도 했으나 제2차 세계

대전 중에는 나치에 협력했던 비쉬 정권의 목소리를 대변하여 비판

을 받기도 하였다. 20세기 이전에는 매우 정치적인 성격을 띠었으나

그 이후에는 금융, 패션 등 대중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뉴스를 제공하여 프랑스 저널리즘을 대중 매체로 이끄는 데 선도적 역할을 하였다. 그 결과 『르 프티 파리지앵』은 1920년대에는 200만 독자를 거느린 거대 신문이 될 수 있었다.

『르 프티 주르날』은 모이스 폴리도르 밀로(Moise Polydore Millaud)가 1863년에 창간하여 1944년까지 발행한 보수적인 일간지로 『르 프티 파리지앵』, 『르 마탱(Le Matin)』, 『르 주르날(Le Journal)』과 더불어 프랑스 4대 일간지로 꼽혔다. 저녁에 발행되는 석간으로 삼접이나 공장 노동자들이 퇴근하면서 많이 구독하였다. 18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200만 부까지 발행되어 세계에서 가장 많이 발간되는 신문으로 기록되기도 하였다. 그런데 이 신문이 1894년 프랑스 참모 본부에서 일어난 ‘드레퓔스 사건’에 대해 적극적으로 변론하지 않는 것에 실망한 독자들이 『르 프티 파리지앵』으로 옮겨가면서 1900년대 들어 성장세가 둔화되었다.

『릴뤼스트라시옹』은 에두아르 차통(Édouard Charton)이 1843년 창간하여 1944년까지 100여 년 동안 존속한 주간지이다. 특히 이 주간지는 1891년 프랑스에서 처음으로 잡지에 사진을 게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르 주르날 일뤼스트레』는 1864년부터 1899년까지 발간된 주간지이다. 75센트에 판매되었던 『릴뤼스트라시옹』과 경쟁하기 위해 10센트에 판매하였는데 1899년에 채색 삽화를 넣은 『르 프티 주르날』이 발간되면서 경쟁에서 밀려 폐간되었다. 『주르날 데 부아 야주』는 1877년에 처음 발행되어 1949년까지 간행된 여행 전문 주간지이다. 기사 대부분은 세계 여러 나라의 사실적인 여행기와 기상 천외한 허구적 이야기로 꾸며졌다. 『라 비 일뤼스트레』는 1898년에 창간되어 1911년까지 발행되었다. 이 신문은 사진 이미지를 제공하여 사실을 전달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다.

이상의 신문과 잡지들은 19세기 말~20세기 초 영국·미국·프랑스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특히 이 시기는 신문과 잡지에 수록하는 이미지가 그림에서 실제 사진으로 넘어가는 때였고, 사진은 사건의 순간을 포착하며 현장성, 사실성을 높이는 데 매우 중요하게 취급되었다. 때문에 우리나라와 관련한 기사뿐만 아니라 사진 자료는 당대의 우리 역사를 생생하게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III. 서양인이 본 한국의 근대사

1 1860~70년대 — 제너럴셔먼호 사건, 병인양요, 신미양요

18세기 후반부터 한반도 해안에는 이양선이 빈번하게 출몰하며 한국과 서양의 충돌로 여러 사건을 야기하였다. 대표적으로 프랑스·미국과 연관된 병인양요 丙寅洋擾와 신미양요 辛未洋擾가 그것이다. 이들 사건에 대한 각국 언론의 반응을 살펴보면 대략 다음과 같다.

먼저, 병인양요는 1866년 9월 프랑스 선교사가 숨진 병인박해를 빌미로 프랑스 극동함대 사령관 로즈 제독이 군함을 이끌고 강화도를 침략하며 발발하였다. 4개월 뒤 프랑스 신문 『릴뤼스트라시옹』은 1867년 1월 19일자와 26일자에 「조선 탐사」라는 제목으로 이 사건을 자세하게 다뤘다. 프랑스군은 한국인들의 잔인한 해적질에 사죄를 받기 위한 것이었을 뿐 결코 적대 행위를 하지 않았으면서 침략의 정당성을 주장하였다. 또한 한국인들의 해적질은 폭군의 쇄국정책에서 비롯되었다면서, 유럽이 한국에서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한국이 서양 세계에 대한 경계심을 풀게 해야 한다고 조언하였다. 프랑스가 한국을 침략한 것이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신문은 자국의 행동을 정당화하며 한국인들에 대해 왜곡된 기사를 실었다.

그로부터 5년 뒤인 1871년 6월 미국이 제너럴셔먼호 사건을 빌미로 한국을 개항시키려고 무력 침략한 신미양요가 일어났다. 이에 미국 신문 『하퍼스 위클리』는 1871년 9월 9일자에 「신미양요」라는 기사를, 20여 년이 지난 1894년 8월 18일자로 청일전쟁 중에 「조선에 있는 미 해군」을 게재하였다. 자매 월간지인 『하퍼스 뉴 먼슬리 매거진』은 1898년 이후에 발행된 신문에 「아시아 해상에 있는 미 해군」이란 제목으로 신미양요의 전모를 사진과 삽화를 곁들여 자세히 다뤘다.

이들은 하나같이 제너럴셔먼호 사건과 신미양요는 한국의 야만적인 공격에 정당하게 대응한 것이라는 입장이었다. 특히 1871년 9월 9일자 기사에서는 악천후로 표류한 선박을 한국이 인도적 차원에서 도와주지 않고 오히려 외국인을 살육하는 등 미개한 행동을 하였다며 본국의 한국 침략을 정당화하였다. 더욱이 신미양요 이후 동양의 폐쇄적인 나라인 한국을 자신들의 힘으로 서구 문명의 품으로 들어오게 하여 미개인들을 교화했다고 기술하고 있다. 『하퍼스 뉴 먼슬리 매거진』은 흥선대원군에 의해 쇄국정책이 비롯되었지만, 로저스 사령관의 응징으로 1882년 미국과 한국의 조약 체결이

가능하였다고 평가하였다. 그로 인해 미국의 성조기가 서울에서 나부끼게 되었고, 학교·병원·전기·철도·기술의 도입이 가능하게 되어 한국이 고립과 미개함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고 선전하였다.

2 1880년대 — 갑신정변, 조선의 특사 파견

1880년대 조선은 고요한 아침의 나라, 은둔의 나라에서 벗어나 조금씩 새로운 세계를 접해가고 있었다. 1880년 제2차 수신사로 김홍집을 일본에 파견하고, 1881년 신사유람단과 영선사를 파견하는 등 외국 문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다. 나아가 1883년에 미국에 보빙사를 파견하였고, 1887년에는 미국 워싱턴에 주미 한국 공사관을 세워 초대 공사로 박정양을 보냈다. 아울러 한국은 일본과 중국 외에 서양 열강들과 조약 체결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1882년 미국을 비롯하여 1883년 영국·독일, 1884년 러시아, 1886년 프랑스 등과 수호통상조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한국에 외국 상선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었고 제물포와 원산은 개항장으로서 모습을 갖추 나갔다.

먼저 『하퍼스 위클리』는 갑신정변 甲申政變에 주목하여 1894년 8월 18일자에 로저스가 쓴 「조선인 김옥균」이란 제목의 글을 실었다. 이 글에서는 당시 한국의 정세를, 개방을 원하는 민씨 가문과 보수주의를 고집하는 흥선대원군의 대립 구도로 설명하였다. 흥선대원군의 사주를 받은 사람들이 임오군란 壬午軍亂을 일으켰고, 그 일로 흥선대원군이 납치되어 중국으로 보내졌으며, 1884년 김옥균 등의 개화파가 주도하여 갑신정변이 발생하였다고 하였다. 흥미로운 점은 고종이 갑신정변을 지원했고, 명성황후가 김옥균의 암살을 사주하였다고 밝힌 내용이다. 또 김옥균을 한국에서 가장 총명한 인물로 평가하면서 앞선 사상을 갖고 있었지만 한국을 중국 방식으로 개혁하려는 오류를 범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내용은 역사적인 사실과 부합하지 않으며 잘못 파악한 것이다.

『더 일러스트레이티드 런던 뉴스』와 『더 그래픽』은 삽화를 통해 당시의 한국 상황을 전해준다. 『더 일러스트레이티드 런던 뉴스』 1886년 4월 3일자에는 제물포항에 정박한 영국·러시아·미국·일본·중국 군함들의 활기찬 모습을 묘사하였고, 1894년 9월 1일자 「조선의 대신」에는 1887년 당시 외무독관이던 조병식이 교자를 타고 행차하는 전통적인 모습과 유럽식 연회에서 전통 옷을 입고 외교관들에게 샴페인을 대접하는 삽화를 넣었다. 『더 그래픽』은 1887년 4월 2일자 삽화에서 원산항의 분주한 모습을 사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한편, 『하퍼스 위클리』는 1888년 1월 28일자에 미국 초대 공사 박정양과 관련하여 「조선 사절단」 기사를 실었다. 사절단이 1888년 1월에 미국 워싱턴에 도착하였음을 알리고 이들의 옷차림, 걸음걸이, 갓 쓴 모습을 전하며 미국인들에게 커다란 관심과 흥미를 불러일으켰다고 하였다. 이들의 방미는 미국의 직접적인 후원에 의해서 가능했음을 강조하면서 중국이 한국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개입하려는 의도라고 해석하였다. 또한 전구, 개틀링 기관총 등 미국의 발명품들이 서울에 확산된 것은 미국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한 것이라 풀이하였다.

3 1890년대

1) 청일전쟁과 을미사변

한국이 점차 세계 무대로 진출하기 시작하였지만 정부는 외국 세력에 의존함으로써 존립을 꾀하려 하였고 주변 정세는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었다. 국가 재정은 더욱 궁핍해지고 농민의 고통 또한 점차 심화되어 갔다. 농민들은 양반들에 대한 저항과 반외세의 정서 속에 동학에 의지하며 ‘보국안민 輔國安民’을 내세운 동학농민운동을 일으켰다. 정부는 중국에 구원병을 요청함으로써 결국 1894년 7월 25일에 일어나는 청일전쟁에 발미를 제공하게 되었다.

외국 신문들은 청일전쟁에 관심을 가지고 기사를 쏟아냈다. 영국 신문 『더 그래픽』은 최신식 육해군 시스템을 보유한 일본의 우세를 점쳤다. 1894년 7월 14일자 「은자의 왕국에 대한 권리 주장」에서는 청일전쟁의 근본 원인을 동학농민운동에서 찾았고, 당시 고종에 대해서는 선진 문물에 우호적이지만 대부분의 시간을 제례祭禮에 보낸 다며 비판하였다. 8월 4일자의 「조선의 분규」에서는 청일전쟁이 선전포고도 없이 일어났으며 ‘교활한 동양인’이라고 표현하는 등 동양을 알보는 유럽인의 인식을 노골적으로 드러내었다. 『더 일러스트레이티드 런던 뉴스』는 1894년 8월 11일자 「조선 스케치」에서 한국에서 청일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정작 한국인들은 국제 정세에 아무런 관심이 없고 다만 평온한 상태가 방해 받는 것에 대해서만 놀라고 분노한다고 지적하였다.

『하퍼스 위클리』는 청일전쟁으로 인해 서구에서 극동의 작은 나라인 한국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1894년 8월 4일자 「조선의 사건」에서는 청일전쟁의 결과를 쉽게 예단하지 않고 앞으로 영국 등 유럽 6개국 간 자국의 이익을 위한 총력전이 될 것이라 내

다봤다.

그런데 1894년 11월 일본이 중국의 뤄순을 점령하자, 『하퍼스 위클리』는 12월 1일자 「조선의 상황」 기사에서 “현재 조선에는 일본의 영향력이 가장 지배적이며, 이는 조선을 위해서도 세계를 위해서도 최선일 뿐만 아니라 이러한 상태는 지속되어야만 한다.”며 일본에 힘을 실어 주었다. 더욱이 러시아보다 일본의 지휘를 받는 것이 한국의 발전을 위해서도 좋다며 노골적으로 일본을 지지하였다.

한편, 『르 프티 파리지앵』은 1894년 8월 12일자 「조선 소식」에서 이론적으로 한국은 중국의 속국이지만 일본과의 개항 조약으로 일본에 종속되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청일전쟁이 확정되면 심각한 영향을 초래할 것이라 우려하기도 하였다. 『르 프티 주르날』은 1894년 9월 3일자 「조선에서」를 통해 청일전쟁의 원인을 국제적인 시각에서 분석하였다. 한국이 일본과 통상조약을 맺은 이래 미국·영국 등과 교역을 시작하자 러시아가 한국의 동해안에, 중국이 서해안에, 일본이 남해안에 각각 진출하여 점차 한국 내 영향력을 늘려간 것이 청일전쟁의 원인이라 분석하였다. 두 프랑스 신문은 청일전쟁이 불행한 비극적인 사건임에는 틀림없지만 그 결과로 한국에는 많은 변화가 생길 것이라는 긍정적 시각에서 접근하고 있다.

청일전쟁이 끝난 뒤 승리한 일본은 중국으로부터 랴오둥반도를 할양받지만, 러시아 등의 삼국 간섭으로 1895년 4월 중국에 다시 반환하였다. 그러자 한국 내에서는 친러 정책이 추진되었고 이에 한국에 대한 영향력이 위축된 일본이 1895년 10월 명성황후를 시해하는 을미사변乙未事變을 일으켰다. 『르 주르날 일뤼스트레』, 『르 프티 파리지앵』, 『릴뤼스트라시옹』은 이 사건을 자세하게 다루었다. 이들 프랑스 신문은 고종을 나약한 왕으로 기술한 반면 명성황후는 매우 영리하고 막강한 권력을 가진 결단력 있는 인물로 묘사하였다. 고종은 왕비가 살아 있을 때 그녀의 도움으로 왕위를 지킬 수 있었다며 당시 정국을 흥선대원군과 명성황후, 친중파와 친일파 간의 양강 구도로 설명하였다. 그리고 을미사변을 친일파의 승리이자 한국 내 일본의 주둔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삼았고 일본의 입장을 두둔하기까지 하였다.

2) 한국의 서구 문명, 기차와 전차

1890년대 신문에서는 한국의 정치 상황뿐만 아니라 풍경도 담았다. 서양의 근대 문물이 전래되면서 철도와 전차도 한국에 들어왔고 서

양 언론은 이에 주목하였다. 1896년 미국인 모스가 경인선 부설 허가를 받고 이듬해 공사를 시작하였으나 재정난으로 경인선 부설권을 일본에 넘긴 뒤 1899년 9월 개통되었다.

이 즈음에 『하퍼스 위클리』는 1898년 1월 29일자에 「한국의 첫 번째 철도」라는 기사를 실었다. 한국은 향후 상업적 활용 가치가 높다면서 철도 부설권을 얻은 모스에 의해 철도 건설 공사가 시작되는 과정을 자세하게 다루었다. 이제 철도는 강력한 문명의 힘으로 작용하여 폭정과 무지의 낡은 질서를 타파하게 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아울러 유구한 역사, 고유의 글자와 천혜의 자연을 가진 한국에 가장 필요한 것은 제대로 된 국가 운영이라는 조언을 하기도 하였다.

또한 서울 시내에 1899년 5월부터 서대문에서 홍릉까지 오가는 전차가 처음으로 등장하였다. 『하퍼스 위클리』는 1899년 7월 15일자 「한국의 전차」에서 “은자의 왕국이 문명을 향해 내딛는 첫 번째 발걸음”이란 의미를 부여하였다. 그런데 개통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전차 바퀴에 어린아이가 끼어 죽자 화가 난 사람들이 전차와 발전소를 부숴 버린 사건이 발생했다며, 새로운 문명과 여성에 대한 진보적 발걸음이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3) 한국의 외교

1890년대는 한국과 중국이 대등한 관계로 조약을 맺은 시기이기도 하다. 1899년 9월에 체결한 한청통상조약은 한국과 중국이 처음으로 대등한 관계로 맺은 근대 조약이다.

미국의 『하퍼스 위클리』는 1904년 1월 30일자 「극동 지역의 위기 - 한국에서 보고 겪은 일」에서 1890년 대왕대비인 신정왕후가 사망하여 중국이 조문단을 파견한 일에 대해 기록하였다. 당시 한국 정부는 속국이 아닌 독립국으로서 조문을 받고자 하였기에, 고종은 중국의 조문단을 궁궐에서 맞고 싶어 했다. 그러나 양측의 힘겨루기 끝에 결국 고종은 영은문까지 나아가 조문단을 맞이해야 했고, 심지어는 서울 대문의 열쇠를 조문단 숙소였던 태평관에 보관해야 했다고 기술하였다. 독립국의 왕처럼 보이려고 애쓰는 고종의 모습이 우습게 보인다면서, 한국은 여전히 중국의 그늘에 가려져 있다고 하였다.

한편, 신문들은 청일전쟁 이후 한국을 둘러싼 일본·중국 외에도 러시아·영국·독일 등 해상무역 강국의 갈등을 기사화했다. 『하퍼스 위

클리』의 1897년 7월 24일자 「조선과 조선인」, 『더 일러스트레이티드 런던 뉴스』의 1898년 3월 19일자 「한국, 황해로의 관문」 기사가 그렇다. 특히 「조선과 조선인」에서는 한국이 문호를 개방한 뒤의 가장 큰 수혜자는 바로 한국이라고 하였다. 한국은 임진왜란 이후 침체되었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영향력 아래 있는 것이 한국인에게는 과거의 어느 때보다도 더 좋다는 것이다.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중국의 영향력으로부터 한국을 해방시키기 위해서라며 내정 간섭을 하였지만, 실은 한반도에서의 지배적인 영향력 확보를 위해서라는 객관적인 평가를 내놓았다.

4 1900년대

1) 러일전쟁과 의병 항쟁

1904년 2월 러일전쟁이 발발하였다. 한반도와 만주를 둘러싼 신생 제국주의 일본과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러시아와의 전쟁은 제국주의의 세계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었다. 러일전쟁이 발발하기 전에 작성된 『더 아메리칸 먼슬리 리뷰 오브 리뷰스』의 「전쟁의 전리품으로서의 한국」은 한국을 둘러싼 러·일 간의 세력 다툼과 그 사이에 영국·프랑스·미국의 이해관계를 잘 보여준다. 두 나라의 직접적인 대립은 러시아가 만주 지역에서 철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러시아는 부동항의 출구로서 한국이 필요한 반면 일본은 자국 내의 과밀한 인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러한 시기에 한국의 미래는 현명한 통치제도와 외국이 주도하는 야심찬 프로젝트의 중립성에 달려 있다고 평가하였다.

러일전쟁 발발 직전의 모습은 『릴뤼스트라시옹』 1904년 2월 13일자 「극동 지역 소식」에서 대규모 일본군이 한국에 상륙하여 작전을 펼치는 장면에서 읽을 수 있다. 『하퍼스 위클리』는 1904년 2월 20일자 「한국의 운명」에서 비판적인 시각으로 한국의 처지를 기술하였다. 기사에 따르면, 한국은 매우 흥미롭고 가치가 높은 당당한 역사를 가진 나라이지만 정치적 병폐와 수직적 갈취 구조를 벗어나지 못했고, 근대 국가 이론을 받아들이지 않은 문제점이 있다고 하였다. 똑똑하고 뛰어난 재능을 가졌지만 불행한 운명을 타고난 한국이 일본에 합병되는 것은 슬픈 일이라며 안타까워했다.

러일전쟁 중에 『하퍼스 위클리』는 1904년 3월 5일자 「전쟁의 전개 상황」에서 러일전쟁의 발발 배경과 1903년 10월부터 1904년 2월 25

일까지 전쟁의 경과를 자세히 다뤘다. 『릴뤼스트라시옹』은 1904년 4월 23일자의 「한국에 온 일본군」에서 한국에 파병된 일본군 관련 내용을 실었다. 한국에 일본군 배치가 완료되었고 많은 한국인이 무기와 식량을 운반하는 짐꾼으로 징용되었다는 점을 흥미롭게 지적하였다.

『더 그래픽』은 1904년 6월 11일자에 경운궁 화재를 삽화로 보도하였다. 러일전쟁 중이던 1904년 4월 14일 화재로 경운궁의 함녕전·중화전 등 주요 전각이 불에 탔는데 일본의 소행으로 의심된다고 하였다. 『릴뤼스트라시옹』은 일본군이 1904년 5월 랴오둥반도에 상륙한 뒤인 1904년 7월 2일자 「압록강 전투」 기사를 통해 일본이 뛰어난 대포를 갖춘 덕에 압록강 전투에서 승리의 기선을 잡았다고 하였다.

신문 자료 중에서 가장 흥미로운 기사는 『하퍼스 위클리』 1904년 5월 28일자에 실린 「한국 스파이의 최후」이다. 일본군의 정보를 빼내 러시아군에게 넘기려다 붙잡힌 김사종이란 인물의 스파이 행각을 로버트 던이 소개하고 있다. 그는 김사종이 사형 당할 당시의 상황과 사형장에 몰려든 한국인들의 모습을 특징적으로 묘사하였다. 김사종의 눈이 가려질 때 한국인들은 긴 담뱃대에 불을 붙였고, 총알이 발사되어 그의 머리가 떨어질 때에는 노골적으로 웃기까지 하였다면서, 같은 한국인들이 김사종에 대해 보여주는 무관심과 경멸감을 담아내었다. 이와 관련한 기사가 『더 일러스트레이티드 런던 뉴스』 1904년 6월 25일자에 삽화로도 실렸다.

한편 러일전쟁 당시 일본군에 저항한 의병운동 관련 기사도 보도되었다. 『르 프티 파리지앵』은 1904년 12월 18일자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실었다. 서울 인근에 살고 있던 농부 세 명이 서울에서 의주로 향하는 철로에서 선로 변경 장치를 발견하고 이를 조작하였는데, 순찰 중이던 일본 헌병에게 발각되어 군사법원에서 러시아를 위한 행동이라며 사형 판결을 받았다. 일본은 이를 언론에 알릴 목적에서 사형장인 서울 공덕리까지 공인 사진사들을 인력거로 데려와 처형 장면을 찍도록 하였다. 당시 기사에 따르면, 이들은 나무 십자가에 묶인 채 60미터 거리에서 일본군의 조준 사격에 의해 처형되었는데, 기사에서는 그들의 주검이 일본군의 사격 연습 대상일 뿐이었다고 기술하였다. 이들 세 명은 김성삼金聖三·이춘근李春勤·안순서安順瑞이다. 이와 관련한 내용이 1904년 9월 21일자 『대한매일신보』에 실려 있다. 이에 따르면 이들은 1904년 9월 21일 경의선 부설 작업을 지연

시키려다 일본군에게 붙잡혀 총살당했다고 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들의 공훈을 기려 1991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2) 고종 황제와 강제 퇴위

고종은 1897년 대내외에 자주독립국가임을 천명하고 대한제국을 선포하였다. 『하퍼스 위클리』의 1900년 8월 25일자 「오늘날의 한국」에는 대한제국을 선포할 당시의 한국 사정을 잘 묘사하고 있다. 명성황후가 시해되자 고종은 불안 증세를 보였고 결국 아관파천을 단행하였다. 한편 독립협회의 힘으로 8,000여 명이 응집한 만민공동회에 대해서도 자세히 서술하였고 한국 내에서 높아가는 미국의 영향력을 비중 있게 다뤘다.

고종 황제는 광무개혁을 추진하였으며 개혁의 성과를 국내외에 알리고자 1900년에 파리 만국박람회에 대한제국의 전시관을 만들고 한국 제품들을 보내 전시하였다. 『르 프티 주르날』은 1900년 12월 16일자에 파리 만국박람회 한국관의 모습을 삽화로 전하고 있다. 또한 『하퍼스 먼슬리 매거진』의 「한국과 황제」에서는 대한제국 황제의 알현실과 알현 과정 그리고 대기실의 모습을 비교적 자세하게 묘사하였다. 이 글의 정확한 날짜는 알 수 없지만 아마도 러시아 공사관에서 나와 경운궁으로 환궁한 뒤의 일로 보인다. 알현실은 한국식 건물에 프랑스산 카펫, 한국 의자와 유럽 의자, 미국산 스톱브, 이집트산 담배와 유리잔, 일본산 광천수 등으로 꾸며진 유럽풍 방이었다. 이는 당시 대한제국이 여러 나라와 교류하고 있었음을 사실적으로 보여준다. 고종 황제는 훈장을 단 곤룡포에 익선관 차림이었는데, 자주 웃고 쾌활하며 국제 관계에도 큰 관심을 갖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라 비 일뤼스트레』는 고종의 초상화를 그린 네덜란드 화가 네지에르의 인터뷰 기사를 1904년 1월 29일자 「한국 그리고 황제」에 실었다. 네지에르는 1902년 6월 서울에 머물렀는데 황실 측의 부탁으로 경운궁에 들어가 곤룡포에 익선관을 쓰고 훈장을 달고 있는 고종 황제의 초상화를 그리게 되었다고 한다. 이와 더불어 황제의 행차 광경, 황제의 권한, 서울의 모습뿐만 아니라 일본이 한국 정부에 어떻게 권력을 행사하는지, 프랑스인의 영향력 등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르 프티 파리지앵』은 1905년 10월 8일자에 미국 대통령 루스벨트의 딸이 세계일주 여행 중에 한국에 들렀고 고종 황제를 알현하였으며 식사까지 초대받았다는 내용의 흥미로운 기사를 실었다.

러일전쟁이 발발한 뒤 고종 황제의 절대 권력과 광무개혁이 퇴색해가는 과정을 담은 글도 눈에 띈다. 『더 일러스트레이티드 런던 뉴스』 1907년 7월 27일자, 『더 아메리칸 먼슬리 리뷰 오브 리뷰스』가 대표적이다. 이에 따르면, 고종 황제는 을사늑약의 무효를 선언하고 만국평화회의에 특사를 보내 일본의 한국 지배가 부당함을 열강에 호소하였지만 실패하였고 결국 그 이유로 퇴위했다고 보도하였다. 이로써 황위가 순종에게 양위되었고, 일본이 한국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에는 논란의 여지가 없다는 입장을 피력하였다. 당시 일본의 한국 지배에 대한 미국과 영국의 입장을 대변한 것으로 보인다.

3) 군대 해산과 저항

1907년 7월 일제의 강요에 의해 고종 황제가 폐위되었을 뿐만 아니라 군대마저 해산되자 여러 신문에서 이와 관련한 기사를 쏟아냈다. 『르 프티 주르날』은 1907년 8월 4일자 「혼란에 빠진 한국」에서 일본은 과도한 인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제로 한국을 보호령으로 만들었으며 이에 항의하는 고종을 폐위시키고 일본의 꼭두각시 역할을 수행할 이척李堦을 황제로 임명하였다고 하였다.

『릴뤼스트라시옹』은 조국의 독립과 국가의 존재를 보존하기 위해 무력을 행사한 한국인들의 의병 활동에 주목하였다. 1907년 8월 10일자 「한국에서의 일본인」에서는 의병 봉기가 거세어질수록 일본인들의 탄압은 가혹해졌고 한국인들은 재판도 받지 못한 채 처형되었다고 하였다. 특히 담양에서 활동했던 의병이 붙잡혀 처형당했는데, 일본군의 50미터 사격 연습 과녁으로 이용되었다고 하였다. 1907년 9월 7일자 「서울 사건」은 한국군의 움직임을 비교적 자세히 다뤘다. 한국군이 해산을 요구받게 되어 ‘반란’을 일으키자 일본군은 경운궁으로 향하는 길목과 종각 사거리에 기관총을 설치하였고, 두 나라 군대 간의 충돌 과정에서 도망치는 한국 병사들을 뒤쫓는 일본군의 인간 사냥이 이어졌다고 기술하였다. 또한 1908년 2월 29일자 「일본에 간 한국 황태자」에 순종 황제의 이복동생인 영친왕 이은李垕이 일본으로 유학을 떠난다는 기사를 실었다. 순종 황제가 즉위한 뒤 영친왕 이은은 후사가 없는 순종의 뒤를 이을 황태자가 되었다. 1907년 10월 일본 요시히토 황태자가 한국을 방문하였고, 그해 12월 이토 히로부미가 황태자의 대후견인으로 임명된 후에 황태자는 그와 함께 일본으로 유학을 떠났다. 몇 년 후 일본의 왕자가 되어 대한제국 황위에 오를 것이라고 하였다. 하지만 그는 1926년 6월 순종

황제가 승하한 뒤에 영친왕으로 그 뒤를 이었다.

IV. 서양인이 보고 들은 한국과 한국인

1 1860~70년대 한국 기행

1860~70년대 이전의 한국은 서양인들에게는 실제로 가서 본 사람이 거의 없는 미지의 나라, 베일 속에 가려진 은둔의 나라였다. 영국 신문 『더 일러스트레이티드 런던 뉴스』 1865년 1월 7일자 「아시아 동쪽에 위치한 조선의 모습」에서는 한국의 수도를 ‘김포’로 표기할 정도로 한국에 대한 정보가 불확실했다. 그럼에도 ‘실제 다녀왔던 사람의 글’이라며 제목을 달아 서양인들에게 틀린 정보를 사실처럼 전달하였다.

『하퍼스 위클리』의 1894년 8월 18일자 「조선에 있는 미 해군」은 1860~70년대 한국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어 당시 서양인들에게 한국이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이에 따르면, “아무도 조선이나 조선의 생산품 혹은 조선인들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었고, 백인들 중 은밀한 방문이 아닌 제대로 조선을 갔다 온 사람은 없었다.”고 하면서도 많은 사람이 그곳의 모든 사정을 알고 있다며 한국에 대해 기술하였다. “조선은 부가 넘쳐나고 경치는 그림처럼 매우 아름다우며 길은 거의 지나가기가 불가능하고 주민들은 키가 거인처럼 크고 힘은 장사예다 사나움은 마치 호랑이와 같고 무기는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발명품 같고, 그들의 사격술은 윌리엄 텔에 견줄 만하며 그들의 지략은 한계가 없고 그들의 용기는 테르모필레의 역사적인 방어와 맞먹는다.”라고 하였다. 한국인들은 지략과 용기를 갖췄기 때문에 그들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은연중에 드러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

『릴뤼스트라시옹』은 1867년 1월 26일자 「조선 탐사」에서 연구되지도 않고 잘 알려지지도 않은 한국에 대한 소식을 “교황 파견 선교사들의 서신 모음”을 참고하여 알게 되었다고 하였다. 선교사들이 한국 곳곳에 교회를 설립해 포교 활동을 하면서 한국의 소식을 전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신문 자료를 통해 당시 서양인들의 한국에 대한 인식 정도를 가늠할 수 있다. 한국은 한반도에 사는 몽골족으로 중국에 조공을 바치며 외국인들에게 문을 굳게 닫은 나라이고, 영국보다 조금

큰 땅덩어리에 산악 지대가 많은 지형의 나라로 이해하였다. 이들이 가장 흥미를 느낀 것은 흰옷과 갓이었고, 남성들에 대해서는 키가 크고 중국인보다 훨씬 호감 가는 생김새를 갖추었다고 언급하였다.

2 1880년대 한국 기행

1880년대는 부산·원산·인천 등지에 개항장이 생기고 여러 나라들과 통상조약을 체결한 뒤라 외국인들의 입국이 비교적 자유로워지면서 이전과는 달라진 양상을 보인다. 한국을 실제로 여행하는 서양인들이 늘어났고 이들에 의해 한국의 사실적인 모습이 기록으로 담겼다. 한국의 지형부터 행정구역, 역사, 문화, 수도 서울, 조선의 왕, 조선인의 특성 등 왜곡된 표현도 많지만 보다 사실적인 모습을 담고자 노력하였다. 이제 한국의 풍경에서는 한국의 것만이 아닌, 서양적인 모습들도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였다. 제물포항과 원산항에 서양의 상선들이 정박하고, 개항장에는 서양 상점과 서양 물품들이 모습을 나타내었으며, 그들로 인해 돈을 벌게 되는 사람들도 생겨나게 되었다.

영국 기자 히스는 『더 일러스트레이티드 런던 뉴스』 1886년 4월 3일자 「조선 여행」에 1885년 한국을 방문했던 일을 기록으로 남겼다. 그는 상하이를 거쳐 제물포에 도착하였는데, 당시 제물포에 정박해 있던 영국·러시아·미국·일본·중국 등의 군함을 보면서 매우 활기를 띤 항구라고 여겼다. 또한 제물포에서 서울로 향하는 길의 풍경은 너무나도 아름다웠고, 돈을 받지도 않고 밤에 횃불을 밝혀줬다며 한국인들의 친절을 감명 깊게 그렸다.

『하퍼스 위클리』 1889년 1월 12일자에는 주한 미국 공사관 서기관을 지낸 찰스 사이에 롱 베이가 1880년대 한국의 모습을 자세하게 묘사한 글 「한국, 조선 땅」이 실렸다. 그는 자신이 서울에 근무하면서 알게 된 한국의 실제 모습을 비교적 사실에 가깝게 묘사하고 있다. 그가 묘사한 1880년대 한국을 살펴보면 토속적인 어촌에 불과했던 제물포에 외국인 거주지가 조성되고, 맥주와 럼주 등 다양한 서양 물품을 파는 상점과 외국인이 운영하는 호텔도 생겨났다. 5천 년의 역사를 지닌 한국은 더 이상 은둔의 나라가 아니며, 이미 미국과 유럽으로 두 명의 대사를 보낸 자유 진보주의의 나라로서 세계로의 진출을 꾀하고 있다고 보았다. 훌륭한 명성과 지성을 갖춘 태조가 조선을 개창한 이래, 위대한 조선의 위대한 왕을 알현하게 된 경험에 대한 만족을 표현하고 있다.

3 1890년대 한국 기행

1890년은 한국이 개항한 지도 15년이 지난 때이다. 결코 변할 것 같지 않던 쇄국의 나라, 한국이 조금씩 변해갔다. 한국을 찾는 서양인들도 예전과 달리 어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고 이를 통해 한국에 대한 기록이 더욱 풍부해졌다. 다만, 그들이 파악한 한국인의 특성은 자신들이 갖고 있던 편견을 정당화시키는 것에 불과했다는 한계가 있다.

미국인 육군 대위 아서는 『하퍼스 위클리』 1894년 12월 1일자 「조선의 상황」이란 글에서 한국인의 특성에 주목했다. 그는 한국인의 두드러진 특성으로 무관심을 꼽으며, 이런 무관심이 조선을 발전이 없는 상태로 만들었다고 하였다. 한국으로 오는 외국인은 『경국대전』에 따라 모두 사형에 처해졌고 이로 인해 한국 고유의 예법과 관습을 지켜왔다고 하였다. 한국인의 또 다른 특성으로 부도덕성, 야만적 미개함, 무력함, 쇠락한 문명 등을 거론하였다. 특히 한국에 개와 호랑이가 많다는 것이 흥미롭다고 지적하였다.

『하퍼스 위클리』 1898년 1월 15일자에는 잭슨이 쓴 「말 타고 한국 유람」이라는 글이 실렸는데, 제물포와 서울을 거쳐 원산으로 가는 여정을 담고 있다. 한국의 풍경과 한국인들을 아름답고 흥미롭게 기술하고 있지만, 한국인을 알보는 표현도 곳곳에 보인다. 그는 점차 한국이 매력적으로 느껴진다면에서도, 원산의 활기찬 일본인 마을을 언급하면서 한국은 일본과 함께할 때 희망적이라는 견해를 드러낸다. 한국의 전통 문화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글들도 눈에 띈다. 프랑스 신문 『주르날 데 부아야주』는 1894년 9월 2일, 9일, 16일자에 3회에 걸쳐 프랑스인 드메의 한국 여행기를 「조선 그리고 조선인」이란 주제로 실었다. 그는 특히 한국에서 고령의 관료에게 베푸는 기로연耆老宴이나 가난하고 의지할 데 없는 사람들을 돌보는 공공 구제를 매우 좋은 전통이라 소개하였다. 또한 어릴 때부터 덕德을 알고 배우도록 『삼강행실도』를 전국에 배포하는 것도 높이 평가하였다. 그러나 한국에 대한 호감을 드러내면서 한국은 이미 일본의 손아귀에 들어갔다고 단정적으로 말하기도 하였다. 한편 『더 일러스트레이티드 런던 뉴스』 1898년 3월 19일자에 실린 삽화는 러시아 공사관이나 서울에 온 영국 군인들의 모습 등 1890년대 서울의 모습을 잘 담고 있다.

한국에 대해 부정확하거나 부정적인 측면이 숨겨져 있는 기사들도 있다. 『하퍼스 위클리』 1894년 8월 4일자에 실린 「조선」에서는 한국

은 공공 교육도, 깊은 신앙심도, 무역도 별로라고 폄해하였다. 특히 전근대적인 경제 체제를 보여주는 엽전을 사용하고 있다며 비꼬기도 하였다. 동학농민운동에 대해서는 가난하고 노예 같은 삶을 영위하던 백성들이 무자비한 조정의 폭정에 반기를 든 것이라 평하였다. 『르 프티 파리지앵』은 1894년 8월 12일자 「조선 소식」에서 얼굴을 가리며 밤에만 외출하는 불쌍한 여인의 삶을 이야기하며 한국에서 여행하기의 불편함에 대해 토로하였다. 『더 그래픽』은 1894년 8월 24일자 「서울 탐방」에서 제물포에서 서울로 가는 길의 아름다운 풍경을 묘사하였지만 한국의 예술은 중국과 일본의 예술을 모방한 것에 불과하며 그 이상은 없다고 단정하였다. 그러면서도 한국에서는 중국에서의 극심한 빈곤은 보이지 않고 흰옷을 입은 사람들의 모습이 깨끗하고 단정해 보이며, 엄청난 크기의 가체를 쓴 여자들의 모습이 신기하다고 썼다.

비록 서양의 물품과 문화가 들어오고는 있었지만 전통의 의식주를 바꾼다는 것은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다. 서양인들은 한국인의 머리와 흰옷, 갓, 담뱃대에 관심을 가지며 흥미롭게 보았다. 한국인들의 독특한 복식의 연원을 찾아보려는 기사도 있다. 『더 일러스트레이티드 런던 뉴스』 1894년 9월 8일자 「돼지 꼬리 머리와 정수리 머리 매듭」에는 한국인의 독특한 상투 머리가 중국의 돼지 꼬리 머리와 유사하다고 언급하였다. 『하퍼스 위클리』는 1895년 1월 5일자 「에도의 나라」에서 더러운 환경에서도 한국인들이 흰옷을 입고 갓을 쓰는 이유를 중국 조문 의례의 관행 때문이라며 근거 없는 설명을 하기도 하였다.

4 1900년대 한국 기행

1900년대에 들어서면 서양 문물의 유입이 늘어나면서 변화된 한국의 모습을 묘사하는 기록이 주목된다. 특히 이전 시기와 구별되는 완전히 다른 풍광 가운데 하나가 바로 자동차의 등장이다. 1909년 2월 20일자 『더 그래픽』, 같은 해 3월 7일자 『르 프티 주르날』은 한국에 자동차가 처음 선보이자 평소에는 매우 무관심한 표정의 한국인들이 흥비백산하는 모습을 삽화로 보여주고 있다. 이 외에도 『하퍼스 위클리』는 1904년 4월 16일자 「일본에서 한국으로」에서 부산항, 제물포항, 서울을 본 인상을 담고 있다. 제물포 부두 근처 언덕 위의 영국 영사관, 당구대, 테니스장, 도서관을 갖춘 클럽의 모습, 제물포에서 서울까지 놓인 경인선, 남녀 모두가 이용하는 서울의 전

차, 한미전기회사의 빨간 벽돌 건물, 서양식의 웅장한 교회와 공사관 건물 등 이국적 모습을 삽화로 담아내었다.

『더 크리스천 헤럴드』 1909년 3월 11일자의 「어두운 한국에 복음을 전하다」는 한국에 처음으로 건너온 선교사들의 모습을 보여준다. 당시 선교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한국의 각 가정에 성경을 전달하는 것이었다. 특히 한국에 살고 있는 일본인들은 일본에서 ‘밀려난’ 사람들로써 도덕관과 인생관이 느슨하기 때문에 반드시 복음서가 필요하다고 진단하여 적극적으로 선교 활동을 펼쳤다.

그런가 하면 1900년대가 되어도 한국인들의 변하지 않는 모습과 풍습도 있다. 『더 그래픽』은 1902년 2월 8일자에서 설날의 민속놀이 가운데 석전石戰을 소개하였고, 1904년 3월 5일자에는 흰옷을 입고 갓을 쓰고 담뱃대를 문 채 밀밭을 지나는 한국인을 묘사한 삽화를 넣었다. 『주르날 데 부아야주』는 1911년 12월 14일자 「가까운 장래에 사라질 것들 - 한국의 모자」에서 다양한 형태의 갓을 소개하면서 그 유래를 전한다. 기원전 어떤 임금이 백성들의 폭력성을 억누르기 위해 외출할 때에는 자기軋로 만든 모자를 쓰도록 하고, 만약 이를 깨뜨리면 큰 벌을 내릴 것이라고 했다고 한다. 모자를 깨뜨리지 않으려고 백성들은 진중하게 되었고, 이후 모자는 자기에서 말총으로 변했다는 것이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이지만 흥미롭다. 『틸뤼스트라시옹』의 1904년 5월 14일자 기사에는 한국인의 특색 있는 의식으로 장례식과 결혼식을 소개하였다. 『르 프티 주르날』 1907년 8월 4일자의 「고요한 아침의 나라」에서는 한국의 유일한 매력은 맑은 날씨이며 한국인은 무기력하고 천성적으로 나태하고 지저분하다고 하였다.

그 밖에도 여성이나 춤 등의 한국 문화에 대한 상반된 해석도 있다. 『라 비 일뤼스트레』 1904년 3월 25일자 「한국 궁정에서」는 앵거스 해밀턴이 고종의 형인 이재선의 초대로 궁 연회의 예행연습을 보고 쓴 글이다. 그는 한국의 춤 동작에 대해서는 유연하고 우아하며 환상적이라 묘사하였다. 그들의 동작에는 힘과 논리가 있고 시선은 수줍고 태도는 절제되어 있으며 모든 자세에는 예술적 섬세함이 깃들었다고 하였다.

반면, 『레슬리스 위클리』 1906년 1월 25일자 「미국 여성의 한국 방문 - 8회 ‘은둔의 나라’의 작고 못생긴 여자들」에서는 한국 여성에 대한 노골적인 반감을 드러냈다. 한국 특파원이었던 엘리너 프랭클린의 글로, 한국 여성은 세상에서 가장 매력적이지 않으며 예쁘다고

할 만한 얼굴이 단 한 명도 없다고 부정적으로 서술했다. 한국 여성은 못생겼다고 이렇게까지 단언하는 이유는 외모에 정신세계가 반영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소개하는 『주르날 데 부아야주』는 1901년 4월 6일자 「한국에서의 모험」에서 한국과 관련하여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를 소개하였다. 엘리스 대령 부녀가 한국 여행 중에 겪은 일화로 한국 노인의 황당한 손님맞이에 대한 것인데, 조선에서 벌여졌다고는 할 수 없는 허무맹랑한 이야기이다. 한국을 지구상에 존재하는 완전히 기묘한 나라로 묘사하면서 한국 여행 후에는 얼굴이 지저분한 사람만 봐도 한국 사람일 거라고 생각하는 편견을 갖게 되었다고 말하였다. 『주르날 데 부아야주』가 사실적인 여행기와 더불어 소설적인 이야기도 함께 실기 때문에 허무맹랑한 한국 관련 이야기가 실리게 된 것 같다. 이 기사를 통해 당시 많은 사람이 한국에 관해 잘못된 편견을 가졌을 것이라는 것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V. 맺음말

이상에서 1860년대부터 1900년대까지 한국을 바라보는 서양인의 다양한 시각을 살펴볼 수 있었다. 1860~70년대 한국은 서양인들에게는 사전 정보가 거의 없는 미지의 나라였다. 병인양요와 신미양요를 통해 서양 세력을 충격적으로 접한 조선은 더욱 폐쇄적이 되었다. 개항 이후 1880년대에는 서양 열강들과 통상조약을 체결하면서 개항장에 외국 상선들이 오가고 외국인 상점이 생겼으며 외국 물품들이 유입되었다. 1890년대는 철도와 전차가 신설되면서 서울의 모습도 크게 변화되었다. 공사관 건물, 호텔 등이 들어서고 외국인들이 거주하게 되었다.

한편으로는 일본을 포함한 서양 열강들의 이권 다툼이 더욱 치열해졌다. 청일전쟁과 을미사변으로 한국은 더 이상 평화롭지 못했다. 더욱이 1900년대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한국에서의 영향력을 더욱 강화하였다. 결국 1905년 11월 을사늑약이 체결되었고 1907년 7월에 고종이 강제 퇴위를 당하고 말았다. 일본은 한국을 식민지 상태로 만들어 나갔다.

한편 우리에게 1860년대부터 1900년대까지는 놀라울 정도로 급변하는 시기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예전에는 보지도 듣지도 상상

하지도 못했던 근대적 물품들이 쏟아져 들어왔다. 그럼에도 한국인들은 의식주에서는 극히 전통적인 삶의 방식을 고집스럽게 지켜가고 있었다. 서양인들은 이런 한국과 한국인의 문화를 신기해하면서 도 비문명적이라는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이 자료집에 실린 기사들을 보면 서양인들의 시각도 천차만별이다. 특히 한국인의 일상적인 삶의 모습인 흰옷과 한복, 담뱃대, 갓, 진흙으로 지은 초가집, 온돌 등을 매우 이국적으로 바라보았다. 이에 대해 5천 년 역사를 지닌 한국의 고유한 문화라 인정하며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시각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서양인들은 자신들의 문화를 우수한 것으로, 한국의 문화는 빨리 개선해야 하는 미개한 것으로 상정하는 문명론적인 시각에서 바라보았다. 정치적으로는 세계 정세 속에서 일본이 한국을 지배하리라고 예견하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일본의 침략을 방조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편이 미개한 한국을 위해서 훨씬 좋다고까지 말하였다.

이번 자료집의 발간은 몇 가지 점에서 의미가 크다. 첫째, 그동안 불분명하게 사용되었던 삽화나 사진들의 출처를 알 수 있게 되었고 그 연유와 맥락도 알 수 있게 되었다. 둘째는 새로운 사실들을 알 수 있는 기사도 적지 않다. 1890년 조대비의 국상에 조문 온 중국 사신들을 맞이할 때에 한국이 자주국임을 내세우고자 했던 외교적 신경전, 러일전쟁 당시 러시아의 스파이라며 일본에게 총살당한 한국인, 일본이 한국 침략을 목적으로 부설하던 철도 공사를 방해하였다는 명목으로 총살당한 의병 등은 지금까지 잘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들이다. 셋째, 19세기 말에서부터 20세기 초 서양인들이 한국을 다녀간 후 쓴 저서들이 적지 않게 번역되었지만, 한국 관련 신문 기사들을 각 시대별·사건별로 모아 완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 기사들 중에는 사실무근인 것도 있지만 그 행간에는 현재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글들도 적지 않다. 이 자료집은 단지 100여 년 전 서양인의 한국 인식을 살펴보려는 데에만 목적이 있지는 않다. ‘과거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는 말을 되새기려는 의미도 있다. 100여 년 전 한국은 자신을 둘러싼 환경과 세계에 너무 무지하였다. 자신을 꼭꼭 감추는 것, 문을 닫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였다. 부국강병의 근대적 자주국의 면모를 갖추지 못해 일본과 서구 열강에 휘둘렸고 결국 국망의 아픔까지 겪었다.

오늘날 우리는 세계화된 시대에 살고 있다. 그렇지만 과연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고 있는가. 새로운 시대는 어떤 시대가 될 것인가.

가. 그리고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해야 하는가. 100여 년 전 서양인의 한국 인식을 보면서 다시금 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ABSTRACT

Seo, Yunhee

Curator,
National Museum of Korea

During the late 19th century and early 20th centuries, Joseon society experienced several drastic sea changes. The country, which had perceived China as the biggest country in the world, watched with horror Western ships come and go in its waters. Joseon persistently adhered to the closed-door policy, rejecting requests from Western powers for opening up to trade. In so doing, Korea engaged in battles with France in 1886 (Byeongin Yangyo, the Foreign Disturbances of 1866) and with the U.S. in 1871(Shinmi Yangyo, the Foreign Disturbances of 1871). When King Gojong regained control over the government in 1876, the treaty of Ganghwa was signed with Japan, which at last opened the hermit kingdom up to Japan and then to Western countries. As a result, missionaries, journalists, painters, anthropologists, writers, and merchants began to travel to the Korean Peninsula. After returning to their home countries, they wrote articles in the forms of travelogues, reports, stories, and news articles about what they saw and felt during their stays in Korea.

This publication includes a collection of 75 articles published in western newspapers and magazines currently stored in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The selection was carefully made in order to reflect on the modern history of Korea as seen through Western eyes. While the authors appreciated the long history and

Journals from the Late 19th and Early 20th Centuries

Korea through Western Eyes

unique culture of Korea, they viewed Koreans as barbarians and thus Korean society as a subject that should be civilized as soon as possible.

This book is broken into sections such as Byeongin Yangyo, Shinmi Yangyo, Gapsin Coup of 1884, Sino-Japanese War, the Eulmi Incident of 1895, Russo-Japanese War, the abdication of King Gojong, the disbandment of the military, and the uprisings of the Righteous Armies. These articles clearly show that Korea fell prey to the world powers like Japan, China, Russia, the U.K., the U.S., and France as they vied to expand their interests in the Far East. In particular, some articles speculated on the future of Korea with regard to Japan's blatant colonial ambitions.

Many of the books written by Western authors who visited Korea from the end of 19th and early 20th centuries have been translated into Korean. However, this is the first work of its kind that presents the translations of the full texts of Western newspaper and magazine articles, most composed around 150 years ago, about Korea. The significance of this project is great because this book introduces us to the stories, big and small, that allow us to better understand the lesser known parts of history. Also, it has value in identifying the sources for the illustrations and pictures that have thus far been circulated with no clear references.

19세기 말~20세기 초
서양인이 본 한국

Journals from the Late 19th
and Early 20th Centuries

Korea Through Western Eyes

PART I

1860~70년대

병인양요

조선 탐사
릴뤼스트라시옹
1867. 01. 19.

조선 탐사
릴뤼스트라시옹
1867. 01. 26.

신미양요

신미양요
하퍼스 위클리
1871. 09. 09.
조선에 있는 미 해군
하퍼스 위클리
1894. 08. 18.

아시아 해상에 있는 미 해군
하퍼스 뉴 먼슬리 매거진
연대 미상

미지의 나라

아시아 동쪽에 위치한
조선의 모습
더 일러스트레이티드
런던 뉴스
1865. 01. 07.

t. Kemberly. Com. M'Crea. Com. Blake. Capt. Cooper. Secretary to Admiral. Capt. Nichols. Admiral John Rodgers. Staff Lient

COUNCIL OF WAR ON BOARD THE FLAG-SHIP "COLORADO."

조선 탐사

“프랑스에서 중국과 일본보다 멀지만
두 나라와 비슷한 이웃 국가,
어쩌면 형제 국가의
이야기입니다.”

강화(조선), 1866년 10월 22일

편집장님 귀하

『릴뤼스트라시옹』은 흥미로운 사건이라면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난 일도 독자에게 알리고 싶어 하는 것을 알기에 주저 없이 이 서신을 보냅니다. 프랑스에서 중국과 일본보다 멀지만 두 나라와 비슷한 이웃 국가, 어쩌면 형제 국가의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유럽에서는 ‘조선’이라는 나라 이름만 들어봤을 것입니다. 선

교사회 신부 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이 먼 타향까지 누가 올 생각이나 하였겠습니까? 뱃사람들에게도 물에 잠긴 이 주변 땅은 쓸모없는 곳이었습니다. 조선은 최근에 우리가 성공적으로 탐사한 중국이나 일본만큼 문을 굳게 닫고 있던 나라입니다. 따라서 프랑스와의 통상도 당연히 없었습니다. 거래의 안전이 최소한도 보장되지 않고 전함도 가지 않는 곳에는 상인들도 발을 들이지 않기 때문이죠. 반대로 조선인들은 국내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중국의 배보다 더 잘 만든 배(정크선)에 선구(船具)를 잘 갖추고 배를 능숙하게 몰아 바다로 나갑니다. 해적질을 하는 모습이 마치 매일 말레이시아 바다를 누비는 대담한 해적과도 같습니다. 중국의 동해안(황해)은 모두 이런 형태의 약탈로 고통을 받았습니다. 상하이와 닝보의 통상도 아주 지독한 곤욕을 겪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조선의 해적들이 유럽이나 미주의 선박을 공격하는 것을 선호하였다는 점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1866년) 8월 9일, 미국의 제너럴셔먼호가 선주¹ 프레스턴의 지휘하에 즈푸(엔타이)에서 출항하였습니다. 배 위에는 한 명의 중국인 조타수와 두 명의 영국인 호가스와 토머스² — 후자는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서보다는 문헌학 연구가로 더 잘 알려져 있다. —가 타고 있었습니다. 왕궁이 있는 수도 서울(한성부)까지 연결된 장강³(대동강)에 다다랐을 때, 조선의 배들이 접근해 셔먼호를 둘러싸고 거칠게 나포하였습니다. 토머스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조선인들은 선원들과 승객들을 선실 간이침대에 묶고, 약탈을 마친 뒤에 떠나면서 배에 불을 질러 그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을 잔인하게 죽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⁴ 지금까지는 조선인들이 단순히 약탈과 노략질만 해왔기 때문에 이 끔찍한 행위는 더욱 잔인하게 다가왔습니다. 한 예로 지난 6월 카를린 선장이 이끄는 서프라이즈호⁵도 약탈을 당하긴 하였지만 아직도 멀쩡히 상하이 인근에서 항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중국 해안선을 따라 선박을 끌고 온 로즈 해군 소장은 이 같은 해적질에 대해 자발적이든 강제로든 명백한 사죄를 받아내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이에 로즈 해군 소장은 중형 군함인 프리모게호, 소형 쾌속 전투함인 데를레드호와 포함 타르디프호를 이끌고 즈푸에서 출발하였고, 9월 22일 장강(한강)에 도착하였습니다. 항해에 심각한 어려움이 있었고 데를레드호가 침몰한 일도 있었지만, 즉시 수리되어 곧바로 강어

귀에 있는 강화도를 지나 조선의 수도 서울까지 3천 리를 달렸습니다. 확실한 것은 이 같은 군함들의 행렬로 인해 조선인들 사이에 두려움이 확산되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우리 쪽에선 적대 행위를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강을 따라 올라가는 동안 돈을 지불하면 비축할 식량과 신선한 먹거리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내려갈 때는 상당수의 정크선⁶이 길을 막아섰습니다. 우리는 대포 몇 발로 성가실 수밖에 없는 조선인들의 적대적 계약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정찰을 마치고 나서 즈푸로 돌아가 탐사를 준비하였고, 그 후 중요한 거점지인 강화성을 손에 넣을 수 있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강화도는 강어귀에 있는 섬입니다. 조선 통상에 필수적인 창고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특히 엄청난 양의 쌀이 이곳을 통해 보급되는데, 극동 지역에서 쌀은 우리네 밀과도 같은 주식입니다. 외국에서 들어오는 상품은 모두 강화도에 하역해 값을 치르고, 조선 팔도에 유통됩니다. 강화도를 공격한 것은 결정적인 신의 한 수였습니다.

로즈 해군 소장은 프리깃함인 게리에르호와 중형 군함인 라플라스호와 프리모게호, 소형 쾌속 전투함인 데를레드호와 키엔찬호 그리고 포함인 타르디프호와 레브레튼호와 함께 출격하였습니다(병인양요). 게리에르호, 라플라스호와 프리모게호는 정박과 상륙에 성공하였고, 요코하마의 소총수 부대가 상륙하는 동안 대포함들은 강화성을 지키는 총탄으로부터 아군을 엄호하였습니다. 게리에르호의 올리비에 함장이 선두에 섰습니다.

조선군의 방어에도 불구하고 올리비에 함장은 10월 15일 강화성을 점령하였고, 10월 16일 아침에는 전군을 통솔하여 강화성을 손에 넣었습니다. 4미터 높이의 두꺼운 성벽과 화승총으로 성을 보호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우리 해군은 성벽에서 화살을 쏘아대던 궁수들은 물론, 빗발치던 화살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강화부 청사의 성 앞에서 조선군의 유달리 강력한 저항에 부딪힐 뻔하였습니다. 하지만 (승리의) 기세를 몰아 단 몇 시간 만에 우리 깃발이 도시 곳곳에 휘날렸습니다. 우리는 한강 어귀를 손에 넣었고, 서울까지 올라갈 일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정복을 하러 온 것이 아니요, 정당한 사죄만을 원할 뿐이었습니다. 강화성 점령에 에너지를 쏟

은 다음에는 오직 협상만이 우리 해군의 할 일이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더 덧붙이자면 우리가 손에 넣은 대포와 수많은 소총, 각종 탄약과 보급품 외에도 강화도에서 발견한 은화가 가득 담긴 상자 20여 개로 이번 원정에 소요된 비용을 넉넉히 충당할 것입니다.

X.

이 서신은 프랑스가 조선에서 펼친 탐사의 목적을 완벽히 설명하고 있다. 이 먼 나라의 생생한 정보를 전하는 것으로 만족하겠다.

G. B.

1 원문에는 선장 ‘capitaine’으로 나와 있지만 실제로는 제너럴셔먼호의 소유주이다. **2** 항해사 겸 통역인 역할을 맡은 런던 선교회 소속의 개신교 선교사 로버트 저메인 토머스(Robert Jermain Thomas, 1840~1866)이다. **3** 원문은 ‘Kang-Kiang’으로 되어 있어 ‘장강’으로 번역하였다. 여기에서는 대동강을 말하지만, 뒤에서는 한강을 말한다. 당시 한국에 대한 지리적 지식이 매우 부족하였기 때문에 생긴 오류이다. **4** 당시 제너럴셔먼호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계속 조선으로 올라왔다. 이를 제지하던 이현익을 붙잡아 감금하였고, 폭력을 계속 가하던 중 인명 피해가 나자 박규수의 지휘하에 제너럴셔먼호에 불을 질러 격침시켰다. 제너럴셔먼호의 승무원 23명 가운데 대부분이 불에 타 죽거나 물에 빠져 죽었다. 이 사건은 이후 신미양요의 원인이 되었다. **5** 1866년(고종 3) 조선이 미국과 최초로 접촉한 사건으로, 평안도에 표착한 미국의 서프라이즈호를 구출하여 베이징으로 호송하였다. **6** 사각형 돛을 달고 바닥이 평평한 중국 배를 말한다.

EXPEDITION

DE

CORÉE

Kang-Hoa, (Corée), le
22 octobre 1866.

AU DIRECTEUR

« Sachant que l'*Illustration* tient à ce que ses lecteurs soient au courant de tous les faits intéressants qui peuvent se produire, même à l'autre bout du monde, je n'hésite pas à vous envoyer cette lettre d'un pays plus éloigné de France



01 EXPEDITION DE CORÉE. — Mise à terre du corps de débarquement à Kak-Rolje (fort de Kang-Hoa).

que la Chine et le Japon, bien qu'il ait avec ceux-ci plus d'un rapport de ressemblance, de voisinage et même de parenté.

« Jusqu'à ce jour, les Européens n'ont guère connu la Corée que de nom. A part quelques prêtres des Missions, qui donc se serait avisé de venir dans ces contrées lointaines? Même pour les marins, les atterrissements de ces parages restaient à peu près comme une lettre morte. Le pays était aussi hermétiquement fermé que la Chine et le Japon,



02 Encampement du Yamoun (habitation du gouverneur de Kang-Hoa).

avant nos dernières et glorieuses expéditions. Partant, notre commerce était nul, car les échanges ne se font guère où il n'y a point au moins l'apparence de la sécurité dans les transactions, et les navires marchands ne s'aventurent plus ou ne vont pas les vaisseaux de guerre.

« De leur côté, les Coréens ne se bornaient pas à rester chez eux. Ils sortaient, au contraire, sur des jonques mieux grées et gouvernées à la mer que les jonques chinoi-

03 Vue de Kang-Hoa. — D'après les croquis de M. H. Juler, aspirant de marine à bord du *Primauguet*.

ses. Leurs actes de piraterie rappelaient par leur audace ceux dont les mers de la Malaisie sont tous les jours le théâtre. Toutes les côtes orientales de la Chine avaient à se plaindre de ces déprédations. Le commerce de Shang-Haï et de Ning-Po souffrait cruellement. Ce qui était plus grave, c'est que les pirates coréens s'attaquaient de préférence aux navires d'Europe ou d'Amérique. Permettez-moi de vous rappeler un seul fait. Le 9 août, une goélette américaine, le *General Sherm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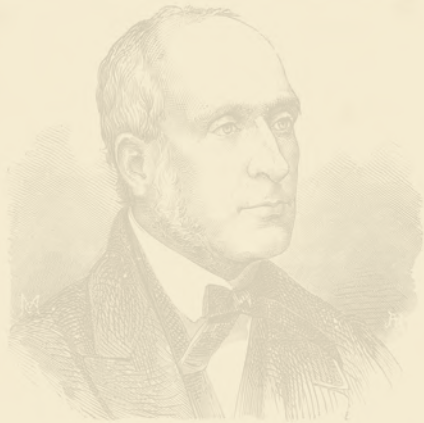
était parti de Che-Fou, sous le commandement du capitaine Preston. A bord se trouvaient un pilote chinois et deux Anglais, M. Hogarth et M. Thomas, plus connu par sa science philologique que comme ministre du saint Évangile. Arrivé dans les eaux du fleuve Kang-Kiang, qui conduit à Say-oul, capitale et résidence du roi, le navire fut abordé par des jonques coréennes, entouré et capturé de vive force. Malgré les protestations de M. Thomas, les officiers et les passagers furent attachés sur leurs couchettes dans la cabine, et, après avoir tout pillé, les Coréens, en se retirant, mirent le feu à la goélette et firent cruellement périr dans les flammes tous ceux qui la montaient. Cet acte épouvantable a d'autant plus paru atroce, que jusqu'à ce jour les Coréens s'étaient contentés de piller et de dévaster, témoin ce qui était arrivé en juin dernier à la *Surprise*, navire commandé par le capitaine Carlin, qui navigue encore dans les parages de Shang-Haï.

« De semblables pirateries exigeaient une réparation éclatante, et le contre-amiral Roze, qui commande notre station navale des côtes de la Chine, résolut de l'obtenir de gré ou de force.

« A cet effet, il partit de Tche-Fou avec la cor-

bâtée dans une île qui commande l'embouchure de la rivière. Elle est l'entrepôt nécessaire de tout le commerce coréen. Par elle surtout passent les immenses approvisionnements de riz, denrée de nécessité aussi première dans toutes ces contrées de l'extrême Orient que le blé dans votre Europe. C'est à Kang-Hoa que sont d'abord débarquées et consignées toutes les marchandises extérieures qui circulent ensuite dans tout le royaume coréen. En prenant cette ville, on frappait donc un coup sensible et décisi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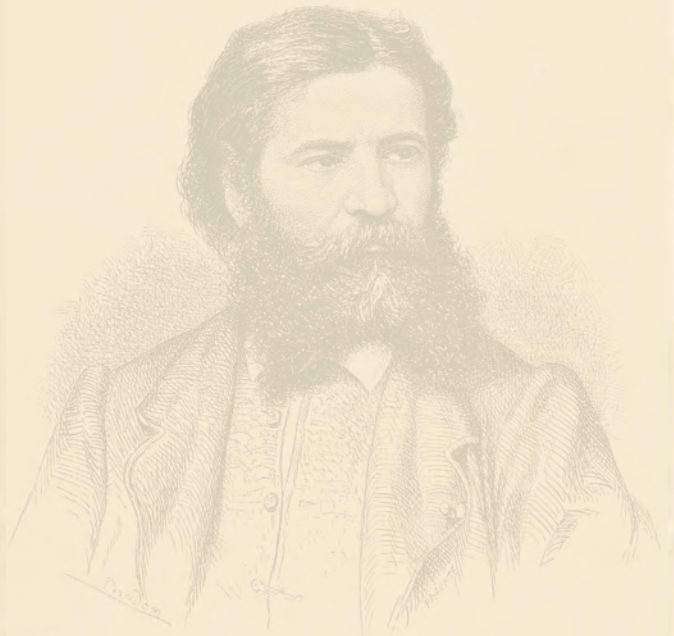
« Le contre-amiral Roze avait avec lui la frégate la *Guerrière*, les corvettes le *Laplace* et le *Primauguet*, les avisos le *Deroulède* et le *Kien-Chan*, les canonnières le *Tardif* et le *Lebrethon*. La frégate et les corvettes mirent à terre leurs compagnies de débarquement, ainsi qu'un détachement des marins-fusiliers du *Yokohama*, pendant que les canonnières s'emboïsaient de manière à protéger de leur feu l'attaque du fort qui domine la ville. Le comte d'Osevy, capitaine de frégate, conduisait cette première colonne. Malgré la défense des Coréens, il s'empara du fort le 15 octobre, et le 16 au matin, l'amiral, à la tête de toutes ses forces, emporta la place que ne put point protéger une épaisse muraille haute de quatre mètres et un feu bien nourri de mousqueterie.



Le comte Gubuchowski, nouveau gouverneur de la Gubei.

vette le *Primauguet*, l'avisos le *Deroulède* et la canonnière le *Tardif*, pour reconnaître la rivière Kang-Kiang, devant laquelle il arriva le 22 septembre. Malgré de sérieuses difficultés de navigation, qui amenèrent un instant l'échouage du *Deroulède*, promptement réparé, l'amiral put dépasser l'île de Kang-Hoa, qui commande l'embouchure de la rivière, et poursuivre sa route jusqu'à trois milles de Say-oul, capitale de la Corée. Vous dire que cette promenade armée ne répandait pas l'inquiétude dans le pays serait manquer d'exactitude. Cependant, comme on ne se livrait à aucun acte d'hostilité, on nous apporta, moyennant finances, bien entendu, des provisions et des vivres frais tant que nous remontâmes la rivière. Mais quand nous voulûmes redescendre, nous trouvâmes la route barrée par une quantité considérable de jonques qui refusèrent de nous livrer passage. Quelques coups de canon nous débarrassèrent de ces importunités obstinées qui cachaient des pièges hostiles, et, la reconnaissance opérée, nous retournâmes à Tche-Fou pour préparer l'expédition qui a fait tomber entre nos mains la ville importante de Kang-Hoa.

« Comme je crois vous l'avoir dit, cette ville est



Ernest Hébert, nouveau directeur de l'école française à Séoul. — Photographie de Daubigny.

Je ne parle point des archers, qui étaient sur les murailles; nos marins redoutent fort peu leurs flèches.

« Où nous avons failli rencontrer une résistance sérieuse, c'est devant le palais du gouverneur. Mais l'élan était donné, et en quelques heures notre drapeau flottait aux quatre coins de la ville. Nous étions maîtres de l'embouchure du Kang-Kiang, et il ne tenait qu'à nous de remonter jusqu'à Say-oul. Mais nous n'étions pas venus pour faire des conquêtes. Notre but était d'exiger de justes réparations. Après le coup énergique que nous venions de frapper, les négociations seules devaient achever l'œuvre de la marine. Permettez-moi cependant d'ajouter qu'à part des canons, des fusils en grand nombre, des munitions et des approvisionnements de toutes sortes qui sont tombés entre nos mains, nous avons trouvé à Kang-Hoa une vingtaine de caisses remplies d'argent, qui permettront de couvrir abondamment les frais de cette expédition rapide. »

X.

Cette lettre explique parfaitement le but de notre expédition en Corée. Nous nous bornerons à la compléter par quelques détails pittoresques sur ce pays lointain.

G. B.

01 조선 탐사-강화 요새에 상륙하는 부대

02 이문(강화유수부)의 침략

03 강화의 경치-프리모게호의 해군 사관학생

M. H. 쥐베르의 스케치를 바탕으로

04 조선 탐사-조선인의 유형

-프리모게호의 해군 사관학생 M. H. 쥐베르의 스케치를 바탕으로

(왼쪽부터) 서민, 전투복을 입은 공수, 관리, 무관

04 EXPEDITION DE CORÉE. — Types coréens. — D'après les croquis de M. H. Juler, aspirant de marine à bord du *Primauguet*.

Homme du peuple.

Archer en costume de guerre

Mandarin.

Soldat de l'armée régulière.

조선 탐사

“프랑스가 아시아 북부 지역의
끝까지 자유롭게 드나들기 위해서는
조선이 경계심을 늦추도록 해야 하며,
그렇게 되어야 유럽도
조선에서 필요한 상업 자원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오랫동안 유럽인들에게 중국과 일본은 극동 지방 전체를 대표해왔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그 생각의 기초가 되는 개념을 좀 더 세밀하고, 명확하고, 정확히 할 필요가 있다. 우리 선원들과 병사들이 수행하는 먼 곳에서의 대탐사는 적어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념을 명확히 해준다는 장점을 지닌다.

조선은 만주와 황해(서해), 일본해¹(동해)와 접하고 중국과도 거의 맞닿아 있어 조선반도와 중국 사이를 갈라놓는 것은 오직 이 작은 해협뿐이다. 인구 구성으로 보자면, 조선인들은 중국인과 만주 출신의 타타

L’Illustration

릴뤼스트라시옹
프랑스

1867. 01. 26.
표지, pp.52~54

구9718
36.5×26.5

르족(몽골족)의 중간 정도에 속한다. 조선인은 황인종이지만 말레이시아인과는 눈에 띄게 다른 부분도 있다. 우리 계산이 맞다면 말레이시아인이야말로 지구상에서 인구수가 가장 많은 인종일 것이다. 조선인에게는 모든 단점이 집중되어 있다. 인색하고 욕심이 많으며, 잔인하고, 자기가 강자라고 확신할 때만 용맹스럽게 군다.

다른 극동 지역과 마찬가지로 조선도 왕이 권력을 쥐고 있으며 폭군으로 군림하고 통치한다. 조선의 왕은 옛날 베이징과 제홀²의 주권을 인정하였다. 조선은 오늘날에도 계속해서 매년 조금씩 조공을 바치고 있지만, 호의를 베푸는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다른 속국들과 마찬가지로 조선은 독립국이며, 독립성을 과시할 기회는 절대 놓치지 않는다. 이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로는 로즈 함장의 탐사 동기를 들 수 있다. 1854년 혹은 1855년 즈음, 조선은 유럽과 통상을 해야만 하였다. 프랑스·네덜란드·영국·미국 등은 조선 해협 인근의 폐쇄적인 해역을 탐사하기 위해 각기 자국의 선박을 파견하였다. 차츰 조선인들은 그들을 너그럽게 대했고 교류가 늘면서 상사商社가 생겨났다. 이러한 성과는 프랑스의 깃발이 베이징 성벽에 휘날리고 우리 군대가 일본 항구 진입에 성공함으로써 가능한 것이다.

하지만 이때부터 조선인들은 점점 겁 없이 잔인하게 해적질을 하였다. 우리가 중국과 일본의 동맹국이 되는 바로 그 시점에 조선의 적대 감정이 증폭되었다. 통신문에 따르면, 이것은 모두 조선의 왕이 주도하였다고 한다. 조선의 왕은 맹렬히 쇄국을 주장하며 방해받지 않고 자신의 권한을 사용하고, 또 남용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다.

조선은 아직 잘 알려지지 않았고 깊이 연구된 적도 없다. 하지만 영국의 선박들은 오래전부터 바다 곳곳을 다니며 널리 퍼진 조선반도 주변의 섬들에 애머스트, 클리퍼드, 블론 톤, 제임스 할 등과 같은 영국식 이름을 붙였다. 조선이라는 나라와 조선인들의 풍습에 대해 궁금하다면, ‘교황 파견 선교사들의 서신 모음’을 참고하면 된다. 이 용맹스러운 선교사들은 조선 곳곳에 기관(교회)을 설립해 (조선인들의) 핍박에도 불구하고 포교 활동을 멈추지 않고 신도 수를 늘려나갔다.

선교사들의 서신을 보면, 조선은 매우 비옥한 땅으로 묘사되어 있다. 특히 비단이 많이 생산되는데 중국의 비단보다 결이 더욱 아름답고 시맥이 더 단단하다고 한다. 비단뿐만 아니라 목재도 매우 다양하여 향

료와 함께 유럽인들의 주거재 품목 중의 하나이다. 조선의 산업 분야에 대해 말하자면, Ningbo와 광저우의 작업장이나 장인, 기술자와 견줄 만한 수준은 전혀 아니다.

가장 뛰어나고 인기 있는 공예가는 모두 중국 출신이다. 중국의 공예가들은 언어 등이 조선인과 다르기 때문에 매우 확실하게 구분된다. 뿌리는 같지만, 조선말은 중국말과 전혀 다르다. 상하이와 만주에서 쓰는 중국말의 중간 정도라고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거래 시 생각을 잘 전달하고 (상대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항상 통역사를 대동하는 것이 좋다. 극동 지방에서 여러 해를 살았다고 해도 마찬가지이다.

조선의 풍습과 생활 모습은 중국의 북부 지방과 흡사하다. 그러나 (중국의 남부 지방인) 광저우나 홍콩에서 곧장 강화도나 서울로 온다면 암스테르담이나 나폴리에서 오는 것만큼 모든 것이 낯설 것이다. 조선인의 주식은 쌀이다. 수확량이 충분하지 않을 때는 중국이나 심지어 싱가포르나 피낭주에서도 조달한다. 일반 서민들은 곡주 같은 것을 항상 과음하고 술에 취해 있다. 반면, 아편 소비자는 극히 드물다.

종합해 보면, 프랑스가 아시아 북부 지역의 끝까지 자유롭게 드나들기 위해서는 조선이 경계심을 늦추도록 해야 하며, 그렇게 되어야 유럽도 조선에서 필요한 상업 자원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G. B.

¹ 저자의 관점을 유지하고자 원문에 표기된 대로 ‘일본해’라 번역하였다. ² Jehol 또는 Gehol로 표기된다. 중국 북동쪽 청더(承德)의 도시 또는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01 EXPÉDITION DE CORÉE. — 11 novembre : Engagement entre les canonnières transportant le corps de débarquement et un corps ennemi embusqué sur les rives de la rivière Kang-Kiang.

EXPÉDITION DE CORÉE

Pendant longtemps, dans les imaginations européennes, sous le nom de Chine et Japon ont été confondues toutes les contrées de l'extrême Orient. Il faut que nou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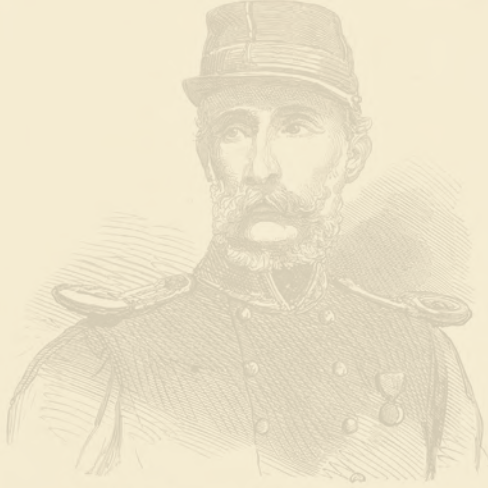
prenions l'habitude de mettre plus de précision, de netteté et d'exactitude dans nos idées et les notions qui les alimentent. A défaut d'autres, les grandes expéditions lointaines confiées à nos marins et à nos soldats auront du moins toujours cet avantage.

La Corée est une vaste presqu'île qui confine à la Ma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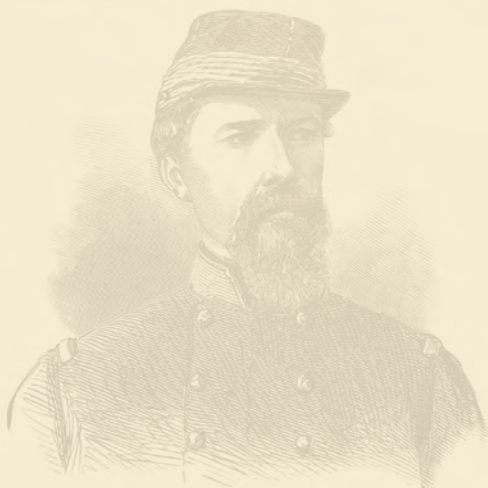
chourie, à la mer Jaune, à la mer du Japon et presque à la Chine, dont elle n'est séparée que par un bras de mer. Par sa population, elle tient le milieu entre les Chinois proprement dits et les Tartares Mandchoux. Le Coréen appartient à la race jaune; cependant on trouverait d'assez notables différences entre lui et le Malaisien, le vrai



02 Prise de Kang-Hoa. — D'après les croquis de M. H. Juber.



Le colonel P. Coronéos, chef de l'insurrection crétoise.



J. Zimbakakis, chef d'un corps de volontaires crétois.

sance. Car, ainsi que tous ses similaires, il vit parfaitement indépendant, et ne laisse échapper aucune occasion de le faire voir. Si nous avions besoin d'appuyer notre assertion par des preuves, nous les prendrions précisément dans les faits qui ont motivé l'expédition de l'amiral Roze. Depuis 1834 ou 1835, la Corée était censée ouverte au commerce européen. Français, Hollandais, Anglais, Américains, envoyaient leurs navires dans ces parages, et ne demandaient qu'à voir des mers, jusqu'à ce jour à peu près fermées, devenir hospitalières, et se multiplier les comptoirs d'échange et les factoreries. Notre drapeau flottant sur les murs de Pékin, nos visites armées dans les ports du Japon ont pré-

type de cette race qui, si l'on comptait bien, serait la plus nombreuse de celles qui couvrent notre globe. Au reste, il en a tous les défauts caractéristiques. Il est avare, cupide, cruel, et ne montre quelque bravoure que lorsqu'il se croit bien certain d'être le plus fort.

De même que dans tous les pays d'extrême Orient, en Corée, l'autorité souveraine est remise entre les mains d'un roi qui règne, gouverne et administre despotiquement. Jadis ce prince reconnaissait la suzeraineté de la cour de Pékin et de Zé-Holl. Aujourd'hui, s'il continue à payer un léger tribut annuel, c'est par pure complai-

cisément et heureusement amené ce résultat. Eh bien! c'est depuis cette époque que la piraterie coréenne se montre de plus en plus audacieuse et cruelle. Nous devenons les amis et les alliés des Chinois et des Japonais, c'est le moment que choisissent les Coréens pour donner une recrudescence d'activité à leurs sentiments hostiles. Et d'après les correspondances, tout cela est le fait du prince, qui voudrait rester dans un isolement farouche et n'avoir jamais à rendre compte à qui que ce soit de l'usage ou de l'abus qu'il fait de l'autorité dont il dispose.

Jusqu'à ce jour, la Corée est peu connue et n'a jamais

été étudiée à fond. Cependant les navires anglais ont depuis longtemps parcouru toutes ces mers et donné des noms britanniques aux divers groupes d'îles qui composent le vaste archipel de Corée. On y trouve les Amhurst, les Clifford, les Broughton, les James Hall-Quand on veut avoir quelques détails précis sur le pays et les mœurs des habitants, il faut les chercher dans le *Recueil des lettres écrites par les missionnaires apostoliques*. Ces hommes, dont on ne louera jamais assez hautement l'intrépidité, ont de nombreux établissements dans toute la contrée, et, malgré les persécutions, ils

n'ont jamais cessé de faire de la propagande et de grossir le troupeau de leurs prosélytes.

C'est dans ces lettres que nous trouvons que la Corée est un des pays les plus fertiles qui soient au monde. La soie surtout s'y récolte en abondance, et elle est d'un grain plus beau et d'une nervure plus solide encore que celle de Chine. Cela et des essences de bois très-variées et des aromates serait le principal objet des échanges avec les Européens. Quant à l'industrie, il n'y a point en Corée d'ateliers où les ouvriers et les artistes puissent lutter avec ceux de Ning-Pô et de Canton. Les artisans les meilleurs et les plus recherchés viennent tous du Céleste Empire. Et il est aisé de les reconnaître, ne serait-ce qu'à leur langage. Car, bien qu'elle soit de même famille, la langue coréenne n'est pas du tout la langue chinoise. Elle tient le milieu entre celle qu'on parle à Shang-Haï et celle de la Mandchourie. Ce qui fait que pour être sûr de bien comprendre et d'être bien compris, dans des transactions de tout ordre, il est toujours bon d'avoir avec soi un interprète, même quand on habite l'extrême Orient depuis de nombreuses années.

Les mœurs des Coréens et leurs habitudes de vivre ressemblent beaucoup à celles des Chinois des provinces septentrionales. Mais si l'on venait en droite ligne de Canton ou de Hong-Kong à Kang-Hoa ou à Say-Oul, on se trouverait tout à fait dépaycé, absolument comme si l'on venait d'Amsterdam ou de Naples. Le Coréen se nourrit principalement de riz. Quand la récolte du pays n'est pas suffisante, on en fait venir de Chine, et même de Singapour et de Pulo-Pinang. Les hommes du peuple boivent en abondance une espèce d'eau-de-vie de grain avec laquelle ils s'enivrent; mais on n'y remarque qu'exceptionnellement des fumeurs d'opium.

En somme, si nous voulons pénétrer librement jusqu'aux limites de l'Asie septentrionale, il est nécessaire que la Corée ne soit plus inhospitalière, et le commerce d'Europe trouvera des ressources dans ce pays.

G. B.



03 EXPÉDITION DE CORÉE. — Affaire du 26 octobre. — D'après un croquis de M. H. Juber.

01 조선 탐사 - 11월 11일: 장강(대동강) 위 상륙 부대가 타고 있는 포함을 적군이 기습해 전투를 벌였다.

02 강화성 점령 - M. H. 쥐베르의 스케치를 바탕으로

03 조선 탐사 - 10월 26일 사건 - M. H. 쥐베르의 스케치를 바탕으로

Harper's Weekly	1871. 09. 09. pp.840~842
하퍼스 위클리 미국	구9753 40.6×28.9

신미양요

“이번 교전이 매우 치열했던
이유는 지형상의 특징이나 해협의
모래톱과 급류 등 자연적인
요인 이외에도 적군이 수백 개의
온갖 무기로 방어에 나섰기
때문이다.”

로저스 제독이 조선의 미개인들을 상대로 감행했던 짧지만 단호한 군사 작전에 대해 독자들은 이미 주요 내용을 알고 있으므로 본란과 다음 페이지에 등장하는 삽화는 간단한 개요만으로 설명이 충분할 것이다. 본 삽화는 이번 원정에 공식 사진가로 동행한 펠리스 비토의 현장 사진을 토대로 제작되었다.

첫 번째 삽화(31쪽 도판 참조)는 매키 요새(광성진)의 내부를 보여준다. 이 요새는 이번 공격에서 목숨을 잃은 용감한 젊은 장교를 기리기 위해 그의 이름이 붙여졌다. 이번 미국의 원정은 향후 조선 해안에서 배가

난파될 경우 우리 수병들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조선과 협정을 체결하려는 목적으로 이루어졌음이 역사에 기억될 것이다.

협상의 책임자는 로 미국 공사였지만 모든 단계에서 로저스 제독과 상의하라는 지침이 내려왔다. 함대를 파견한 목적은 로 공사에게 적절한 운송 수단을 제공하고 필요할 경우 그를 보호하기 위함이었다. 미군이 공격을 받지 않는 한 교전은 벌이지 않기로 되어 있었다. 함대는 5월 말경 강화해협¹ 어귀에 도착하였다. 조선 당국과 즉시 연락이 이루어졌고 당국은 함대의 해협 탐측을 흔쾌히 허락하였다.²

탐측은 6월 1일 시작되어 순조롭게 진행되던 중, 함정이 강 모퉁이에 다다랐을 때 적들의 매복 공격을 받았다. 우리는 신속하고 용맹하게 공격을 물리쳤고 적들은 충을 버리고 퇴각하였다. 조선 정부는 이런 기만적인 공격에 대해 사과하지 않았고, 우리는 본때를 보여주어 승복을 받아내기 위해서 6월 10일 미 원정대를 파견하였다. 그 후 로저스 제독은 본국으로 보낸 공문서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금월 10일, 11일의 군사 작전으로 5개의 작은 요새를 함락시켰고, 11일 드디어 강의 매우 위험한 곳, 가장 막강한 위치에서 필사적인 방어 태세를 보였던 적의 근거지를 급습하여 함락시켰다. 이 과정에서 적군은 243명이 죽었고 50개의 깃발을 빼앗겼다. 이번 교전이 매우 치열했던 이유는 지형상의 특징이나 해협의 모래톱과 급류 등 자연적인 요인 이외에도 적군이 수백 개의 무기로 방어에 나섰기 때문이다. 이러한 위험을 극복하고 수적으로 크게 우세한 적진을 향해 개펄을 가로질러 가파른 언덕을 넘고 험준한 계곡을 건너 마침내 적의 근거지를 급습하여 함락시킨 이 용맹한 부대의 공로는 높이 치하할 만하다.”

매키 요새는 결국 함락되었다. 미 해군의 공격 부대가 성벽에서 날아오는 머스킷 포화를 뚫고 흥벽을 올라갔다. 잠시 육박전이 벌어진 뒤 조선의 노란 깃발이 내려오고 그 자리에 성조기가 펄럭였다. 조선군은 탄약이 이미 고갈되었지만, 아미규환의 전투 현장 너머로까지 울려 퍼질 만큼 죽음의 노래를 힘껏 부르며 우리 총알에는 돌로, 우리 권총에는 곤봉으로 맞서는 결사적인 용기를 발휘하며 싸우다 진압되었다.

우리 군인들은 이들의 저항에 결코 주춤하지 않고 훌륭히 싸워 결국 승리를 거두었다. 매키 중위와 세 명의 수병들이 그곳에서 죽음을 맞이하였다. 동행하였던 미 종군 사진 기자는 함락 직후 시체들이 널려

있는 처참한 요새 내부 상황을 생생하게 전달했다. 요새가 함락된 직후 화약고에 불이 붙어 순식간에 맹렬한 불길에 치솟았다. 요새 내부에는 죽은 듯 보이는 사람들이 널려 있었고 화염의 열기가 거세지자 시체더미에서 살아 있는 자들이 벌떡 일어나 줄행랑을 쳤다.

두 번째 삽화(32쪽 도판 01 참조)는 6월 11일 미 해병대에 의해 함락된 직후의 모노카시 요새(초지진)의 모습을 보여준다. 매키 중위의 초상화는 W. 커즈가 찍은 사진을 토대로 그린 것이다. 용감하고 젊은 장교였던 그는 공격 명령이 떨어지자 제일 먼저 적진에 들어갔고, 성벽 안으로 발을 내딛는 순간 총알을 맞고 창에 찔려 쓰러졌다. 매키 중위는 센터 키 출신으로 남자로서 한창때였기에 그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그의 죽음을 애통해 하였다.

본지는 미 함대가 조선에 도착한 직후, 함대 쪽으로 출항해오는 조선의 돛배 모습도 담았다. 돛배가 조선 원정 기함인 콜로라도에 다다르자 미 공사 서기관 대리 드루가 그 배에 승선하였는데, 부평부사가 보낸 전령들이 그들을 함대로 초대하였다. 조선의 전령들은 모든 것에 큰 관심을 보였다. 이들은 기함 콜로라도 구석구석에 흩어져 있던 항

아리, 빈 병, 건빵, 『하퍼스 위클리』, 그 외 미개인들이 신기해할 만한 물건들을 한 아름 안고 있었다. 그들은 우리의 호의를 완전히 신뢰했으며, 배가 떠날 때쯤 관리들이 이들을 다시 모이게 하는 데 애플 먹을 정도였다.

본지의 마지막 삽화(33쪽 도판 04 참조)는 6월 10일 공격 전에 미 기함 콜로라도 선상에서 열렸던 작전 회의 장면이다. 회의에 참석한 장교들의 이름은 삽화 아래에 나와 있고 더 이상의 설명은 필요치 않다. 함께 실린 지도를 통해 미 함대 공격으로 파괴된 총 5개 요새의 처참한 상황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1 원문에서는 'Salt Lake'로 표기하고 있다. 강화해협을 염하(鹽池)라고도 불러 이렇게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2 탐측을 흔쾌히 허락하였다고 하지만 미군은 이를 일방적으로 통고한 뒤 강화도 해협 수로의 측량과 정찰을 목적으로 두 척의 군함을 파견하였다. 당시 흥선대원군은 미군의 불법 영해 침범을 경고하고 즉시 철수를 요구하였다.



매키 요새(광성진)의 내부

THE COREAN WAR.

Our readers are already in possession of the main facts of Admiral Rodgers's short but de-
visive campaign against the Corean barbarians,
and only a brief résumé will be necessary to ex-
plain the illustrations on this and the following

page, engraved from photographs taken on the
spot by our special artist, Sr. F. BEATRO, who
accompanied the expedition as the official pho-
tographer.

The first illustration shows the interior of Fort
M'Kee, so named in honor of the gallant young
officer who was killed in the attack. It will be

remembered that the expedition was undertaken
with the purpose of effecting a treaty with the
Coreans which should secure safety to any of our
sailors who might hereafter be shipwrecked on
the Corean coast. Minister Low was charged
with the negotiation, but was instructed to con-
fer fully at every step with Admiral Rodgers.

The object of sending the fleet was to afford
suitable conveyance to Minister Low, and to
protect him if necessary; and hostilities were
not to be engaged in unless an attack was made
upon our forces.

The fleet arrived off the mouth of Salt River
about the last of May. Communication was at



01 FORT MONOCACY.



02 LIEUTENANT M'KEE.

once opened with the authorities, who readily
gave the fleet permission to make a survey of
the river. The survey was undertaken on the
1st of June, and was proceeding quietly until
the boats reached a bend in the river, where an
attack was made upon them from an ambushade.
The attack was repulsed with great promptitude
and gallantry, and the enemy was driven from
his guns and position. The Corean government
having failed to apologize for this treacherous at-
tack, an expedition was dispatched on the 10th
of June to bring the enemy to his senses and to
terms. In his official dispatch to the govern-
ment Admiral Rodgers says:

"The operations of 10th and 11th inst., which
resulted in the capture of five smaller forts, cul-
minated on the 11th in taking by assault the en-
emy's stronghold, located in a most formidable
position, at a very dangerous part of the river,
and desperately defended. Two hundred and
forty-three of the enemy's dead were counted
within and around these works, and fifty flags
were taken. The works were formidable not
only from the natural features of the land, from
shoals and violent currents in the river, but ren-
dered artificially so by hundreds of weapons of



03 COREAN JUNK, BEARING DISPATCHES TO THE FLEET.

various kinds placed by the enemy for their de-
fense. The gallant band which encountered and
overcame the perils of the navigation, which

fought its way, against vastly superior numbers,
through mud and marsh, over precipitous hills
and across difficult ravines, and finally stormed

and captured the enemy's stronghold, is worthy
of all praise. Fort M'Kee was taken by assault. The at-



04 COUNCIL OF WAR ON BOARD THE FLAG-SHIP "COLORAD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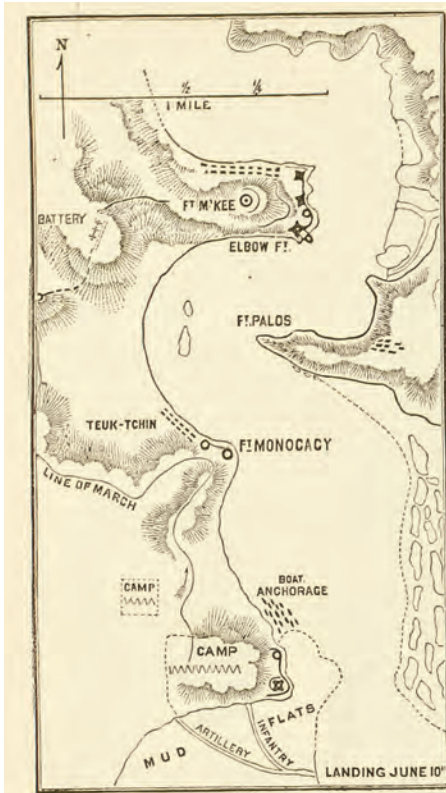
01 모노카시 요새(초지진)

02 매키 중위

03 함대와 접촉할 전령들이 타고 있는 조선 뚝배

04 기함 '콜로라도' 선상에서 이루어진 작전 회의-(왼쪽부터) 대위, 캄벌리 대령, 매크리 중령, 블레이크 중령, 쿠파 대령, 제독 전속부관, 니컬스 대령, 존 로저스 제독, 대위

05 조선의 요새 위치를 보여주는 지도



05 MAP SHOWING THE POSITION OF THE COREAN FORTS.

tacking party was met by a discharge of mus-
ketry from the ramparts, and the next instant
was climbing over the parapet. A brief hand-
to-hand conflict took place, when the yellow ban-
ner of the Coreans was drawn down and the
stars and stripes waved in its place. The am-
munition of the Coreans had become exhausted;
but, chanting a death-song, which resounded high
above the din of the combat, they met our bul-
lets with stones, our revolvers with clubs, and
with desperate courage fought until conquered.
Our men never flinched, but fought nobly, and
won the day. Lieutenant M'KEE and three
soldiers met death at this place. Our artist has
portrayed a vivid view of the interior of the fort
immediately after capture, the bodies of the dead
lying in ghastly heaps at the point where the as-
sault was made.

The powder-magazine took fire immediately
after the capture, and was soon burning fiercely.
The interior of the fort was strewn with bodies
apparently dead; but as the heat of the flames
increased, many of the supposed corpses sprang
up and ran away.

Our second illustration shows the exterior of
Fort Monocacy immediately after its capture by
the marines, on the 11th of June.

Our portrait of Lieutenant M'KEE is from a
photograph by W. KURZ. This gallant young
officer was the first to enter the citadel when
the assault was ordered, and no sooner had he
set foot within the walls than he fell dead, struck
by a bullet and pierced by a spear. Lieutenant
M'KEE was a citizen of Kentucky. He was in
the very prime of manhood, and his death was
universally regretted by all who knew him.

We also give a picture of the Corean junk
which put off to the fleet immediately after its
arrival. On its approaching the *Colorado* Mr.
DREW, acting secretary of legation, went on
board, and finding messengers from the Prefect

of Foo Ping, invited them on board the ship.
They manifested great interest in every thing.
The crew of the junk were soon dispersed about
the *Colorado*, and in every nook and corner could
be seen some Corean loading himself up with
jars, empty bottles, hard-tack, *Harper's Weekly*,
and other wonders to the uncivilized. They
showed perfect confidence in our friendliness,
and it was with difficulty the officials could get
together the junk's crew upon their departure.

Our last illustration shows the council of war
held on board the flag-ship *Colorado* before the
attack of June 10. The names of the officers
present are printed beneath the picture, and no
further explanation is required. The accom-
panying map will be useful as showing the situa-
tion of the forts—five in all—which were taken
and demolished by the fleet.

조선에 있는 미 해군

미 해군 대령, W. S. 솔리

“조선은 부가 넘쳐나고 경치는
그림처럼 매우 아름다우며 길은 거의
자나가지가 불가능하고 주민들은
키가 거인처럼 크고 힘은 장사에다
사나움은 마치 호랑이와 같고 무기는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발명품 같고…”

이 글의 목적은 우리 해군이 동양의 폐쇄적인 제국 국가들 중 마지막으로 남아 있는 곳을 우리 서구 문명의 품으로 들어오게 한 역사적인 사건을 회상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¹

약 28년 전 미국 상선 제너럴서먼호가 만주에서 남쪽 방향으로 돌출되어 황해(서해)와 일본해(동해) 사이에 위치한 조선반도의 해안에 도착하였다. 선박에는 미국 물품들이 실려 있었고 선장은 조선인들과 평화롭게 물건들을 교환하기 위해 온 것이었다. 선박이 조선에 도착하였을 당시 조선 제국은 외부 세계와 교류가 없었지만, 중국어를 알아들을

Harper’s Weekly 1894. 08. 18.
pp.779~783
하퍼스 위클리
미국 99758
41.0×28.2

수 있어 이런저런 형태로 중국과 교류를 유지하고 있었다. 당시 가장 믿을 만한 정보에 따르면, 조선은 중국 제국의 속국이었다. 양국 관계가 어떠하든, 이를테면 관계가 긴밀하든 소원하든 종속적이든 독립적이든 우호적이든 비우호적이든 간에, 우리 정부에게 전달된 믿을 만한 첫 정보는 중국에서 온 것이었다. 내용은 제너럴서먼호의 승무원들이 공격을 당해 목숨을 잃었으며, 배는 조선의 서해안에서 조선인들에 의해 불타버렸다는 것이었다. 사건이 일어난 시기와 당시 상황 그리고 정확한 위치는 알려졌지만 미국으로 전달된 내용은 없었다.

지도를 자세히 살펴보면, 조선반도는 중국과 일본 사이 남쪽 방향으로 툭 튀어나와 있고 항구를 통해 전 세계와 교역을 하는 양국의 무역로 한가운데에 위치해 있다. 교역을 할 때면 조선 해안의 빈번한 악천후로 인해 배가 난파되어 연안에 좌초될 수 있다. 정의 원칙에 따르면, 교역은 조약의 규제를 받아야 한다. 거센 바람과 악천후로 해안 지역에서 표류할 경우 인도적 차원에서 도움을 주어야 하고, 의지할 곳이 없다면 기회를 봐서 그들이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는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조선도 이런 원칙에 따라야 할 때가 되었음을 알리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세계 무역로의 한가운데에 위치한 국가로서 이제 불의의 사고로 자국의 해안에 들어온 사람들을 보호해야 하며, 그들을 살육했던 오랜 관행은 영원히 포기해야 할 때가 온 것이다.

1869년 가을 무렵, 미국 내에서 명성이 드높았던 존 로저스 해군 소장이 미국 아시아 함대를 이끌게 되었다. 그 후 함대 군사작전에서 보여준 그의 신속한 행동은 그가 이처럼 중요한 임무에 적합한 인물임을 알려주었다. 그의 작전을 상기하여 기술하는 것이 본 칼럼의 목적이다. 조선과의 교류에 관한 외교 서한 중 가장 이른 시기의 것은 상하이 항구에 있던 총영사 조지 F. 수어드와 당시 미 국무장관이었던 윌리엄 H. 수어드 경이 1868년 10월에 주고받은 것이다. 서신에서 총영사는 조선 정부와 일반 무역 조약을 체결할 경우 미국의 무역 관계에 어떤 이점이 생길지에 관해 설명하였다. 그는 이와 같은 교류가 조선의 기존 질서를 무너뜨릴 만큼 사상과 관행에 깊이 관여할지는 의문이었으나, 이익을 따져보았을 때 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였다. 오랫동안 중요한 직책을 맡아왔고 동양의 정책에 정통하였던 덕분에 그는 이번 조선 원정의 중요성을 권위 있는 공문서에 피력할 수 있었다.

총영사는 조선 원정의 첫 번째 목표를 제너럴서먼호의 손실 또는 파괴 정도를 조사하는 것과, 보고된 대로 승무원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게 사실이라면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라 믿고 있었다. 이러한 제안을 하는 이유는 그의 다음과 같은 말을 보면 보다 확실해진다. “우리 국기를 단 선박과 승무원들에게 극악무도한 일이 가해졌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데, 이를 조사하지 않고 그냥 넘어간다는 것은 옳은 일이라 할 수 없다.” 외국을 배척하는 정서가 강했던 당시 동양의 상황을 감안한다면 그가 한 말의 의미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외국 정부가 자국 국민에게 행한 부당한 행동을 그대로 봐주고 넘긴다면 막노동꾼들조차 외국인들을 비호의적인 태도로 대하게 될 것이다. 외국인 앞에서 이들이 반감을 보이며 거들먹거리고 무례하게 행동하는 것을 보면 상류층 사람들의 감정이 어떨지는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당시 동양에서 차지하는 우리의 위상과 이익을 고려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조선 해안에서 발생한 제너럴서먼호 만행 사건을 조사하는 것이었다. 1871년 로저스 제독이 강화도에 위치한 요새들을 급습, 함락시킨 뒤 동양의 모든 조약에 외국인들의 위신과 안전에 관한 내용이 크게 증가하였다는 점에 대해 본 저자는 만족한다. 1870년 텐진에서 힘없고 무고한 외국 여성 선교사들이 무참히 살해당한 사건이 발생한 후 극에 달했던 야만적인 불안 상태가 이로 인해 확실히 종식되었다. 로저스 제독의 공격은 사실상 모든 동양의 국가에게 조약의 조건을 지켜야 한다는 점을 상기시켜준 사건이었다. 또한 동양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는 기존 조약을 엄격히 준수하는 한 자신과 자신들의 이익은 자국 정부에 의해 보호받을 것이라는 확신을 심어주었다.

원래 이 임무는 로완 해군 소장에게 맡기려고 하였다. 그러나 멀리 떨어진 본국 상황, 즉 시정 조치로서 공격을 정당화할 관심이나 충분한 열의를 일으킬 명시적인 행동이 없는 상태에서 계속 되풀이 되어야 하는 일에 대해 외교적 의사소통이 지연되면서 결국 조선 해안에 주둔하는 장교로서의 그의 복무 기한이 만료되어 물러나게 되었다. 그의 후임자로 존 로저스 해군 소장을 임명한 것은 더할 나위 없는 선택이었다. 그는 대중들에게 존경을 가장 많이 받는 해군 장교였다. 그는 훈장을 받을 만한 자격이 충분하며, 분명 그보다 더 겸손하고 훌륭하게 훈장을 단 사람도 없다. 군인으로서 모든 것을 갖추었고 건전한 판단력과 보기 드문 지략을 겸비했으며, 행동은 겸손하고 성품은 온화하며 공정하지만 단호하고 융감하게 조국의 권리를 대변하고 지켰다.

그의 지휘하에 아시아 주둔지에 배치된 함대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미국 증기 호위함 콜로라도 포 52문, 초계함 알래스카 포 16문, 초계함 베니시아 포 16문, 포함 모노카시 포 10문, 포함 애슈엘릿 포 10문, 포함 팔로스 포 4문, 포함 밀레 포 1문, 보급함 아이다호 포 4문.

1870년 중반쯤 함대는 아시아 주둔지 바다에 도착하였다. 함대 내에서는 가까운 미래에 함대의 목적지가 조선 해안이 될 것이라는 끝없

는 소문이 퍼졌다. 사람들은 원하는 결과를 먼저 정해놓은 뒤 결과로 이끌 과정을 점진적으로 조정하려 한다. 마찬가지로 자연스럽게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결론이 생겨났다. 함대의 목표 지점은 바로 조선이고, 함대의 임무는 제너럴서먼호와 승무원들에게 가해진 만행을 조사하는 것이다. 이것이 일단락되면 조선 정부와 통상조약을 맺을 것이다. 이러한 일들이 아무런 충돌 없이 이루어질지는 전혀 확신이 없었지만 당시 추측 이외에 결론의 일부를 따져보는 것은 중요하지 않았다.

함대의 목적지에 관한 소문은 이윽고 중국과 일본의 조약항 연안에까지 퍼졌다. 그곳에서 외국인들은 사고 단체나 집에 모여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하였다. 논의 중에 나오는 조선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은 약간 신기하였다. 아무도 조선이나 조선의 생산품 혹은 조선인들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었고, 백인들 중 은밀한 방문이 아닌 제대로 조선을 갔다온 사람은 없었지만, 많은 사람이 그곳의 모든 사정을 알고 있었다. 조선은 부가 넘쳐나고 경치는 그림처럼 매우 아름다우며 길은 거의 지나가기가 불가능하고 주민들은 키가 거인처럼 크고 힘은 장사에다 사나움은 마치 호랑이와 같고 무기는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발명품 같고, 그들의 사격술은 윌리엄 텔에 견줄 만하며 그들의 지략은 한계가 없고 그들의 용기는 테르모필레²의 역사적인 방어와 맞먹는다는 이야기들이 도처에서 들려왔다.

아시아 함대의 미군은 훌륭한 군인들과 장비, 명령 체계를 갖추고 있었다. 대부분의 장교와 많은 군인이 불과 5년 전에 끝난 제너럴서먼호 사건 때 복무한 경험이 있었다. 그들은 당시 함대에서 복무했던 수많은 영웅과 함께하고 있었다. 총사령관은 훌륭한 인물이었고 부대 내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 중 하나였다. 함대 승무원들은 스스로를 믿었고 조선인들과 싸울 수 있으며 자신들이 뜻네기가 아님을 알고 있었다. 무엇보다 그들은 조국의 깃발을 사랑하였고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이를 지킬 것이다. 용맹한 행동으로 가족과 조국 그리고 조국의 깃발을 지킴으로써, 우리 공화국 해군의 역사를 풍요롭게 만든 하이더 엘라이선의 바니, 트리폴리에서의 디케이터, 퀴알라 배투의 다운스, 알바라도의 헌터, 타바스코의 페리, 앨버말만의 쿠싱, 대만의 매켄지 등보다 그들의 용맹함이 부족할 것이라는 생각은 아무도 하지 않았다. 외교는 실패하고 무력에 의존하게 될 것이라는 결과는 예측하기 어렵지 않았다. 총사령관의 명령에 따라 함대는 1871년 5월 초 일본 나가사키항으로 집결하였다.

기함 콜로라도가 항구에 도착하였음은 로저스 제독이 중국 특명 전권 대사 프레더릭 F. 로 경과 공사 서기인 드루와 폴스, 뒤이어 통역관 역할을 했던 중국인 두 명과 합류했다는 사실로 알 수 있었다. 이들은 모두 함대의 목표와 향후 행보를 철저히 비밀에 부쳤다. 덕분에 전년도에 상황을 우려했던 사람들 사이에서 떠돌았던 루머는 사라졌다.

그러나 결국 목표 지점은 조선이었다. 이 같은 믿음은 함대 사령관의

명령을 돌이켜 볼 때, 부대와 포병대 훈련을 선호하였던 사실로 더욱 강화되었다. 두 척 이상의 배가 모일 때마다 최대한 신속하게 보병대와 포병대를 상륙시키라는 신호가 빈번하였다. 당시 중국의 조약항에서 폭동과 반란이 자주 발생하고 국가 전반에 불안한 정세가 이어지면서 함대는 이를 구실로 군사 준비를 할 수 있었다. 중국의 이런 사정이 함대의 활동을 정당화시키기에 충분하였고 또한 적어도 제독의 진짜 의도를 숨겨주는 역할도 하였다. 조국의 오명을 씻기 위해 혹은 멀리 떨어진 동양에서 자국민과 통상을 보호하기 위해 이보다 더 잘 준비된 함대는 없었다.

5월 중순경, 함대는 나가사키항을 출항하였다. 이곳을 떠나 앞바다로 나아가며 항로는 서쪽과 북쪽으로 이어졌다. 항해 둘째 날에 조선의 해안이 시야에 들어왔다. 이제 함대 목적지에 대한 모든 불확실성이 사라졌다. 정확히 어느 곳으로 향하느냐가 유일한 불확실성이었다. 이는 함대가 정박하기 위해 소금강(강화해협) 근처에 가셔야 결정되었다.

조선 해안은 로즈 제독이 이끈 프랑스 함대가 몇 년 전 대략적으로 조사한 것을 제외하면 전체적인 조사는 이루어진 적이 없다. 함대에 제공된 해상지도에는 추정에 따른 해안 윤곽선만 나타나 있고 만의 위치가 불확실하며 강어귀의 위치도 의심스럽다. 수심 측정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서 전날 조사로 안전하다고 판명된 곳에서 매일 정박을 해야 했다. 이 일은 몇몇 작은 증기선의 항해장에게 맡겨졌고 함대의 증기선은 작업을 할 곳에 자리를 잡았다. 매일 해가 뜨자마자 작업을 시작해 해가 질 때까지 계속하기 위함이었다. 이 같은 방식으로 소금강 입구의 부아제섬(적약도)³⁾ 인근에 있는 함대 최종 정박지까지 가는 데 여러 날이 소요되었다. 이곳은 조선의 수도 서울과 가까워 로저스 제독이 정박지로 정했는데, 조선 제국 당국과 외교적으로 연락을 취하기에도 가장 유리한 곳으로 여겨졌다.

여태껏 본 적 없는 깃발을 단 막강한 군대가 그들의 바다와 제국의 문앞에 있다는 사실은 조선인들에게 경악과 놀라움을 불러일으켰다. 정박지에서 보이는 주요 언덕 꼭대기마다 봉화가 올라왔는데, 이는 의심할 여지없이 미 함대의 도착을 조선 곳곳에 알리기 위함이었다. 다음 날 정박지 서쪽에 있는 한 마을에서는 사람들이 일제히 살림살이와 가축을 이끌고 마을을 떠나고 있었다. 해상에서 만난 고깃배들은 조심스럽게 우리 함정을 피해 다급히 해안가로 도망쳤다. 모두들 함대를 피하는 바람에 대화를 시작하기가 매우 어려웠다.

조선 원정의 본래 목적은 분명 평화적인 것이다. 조선 당국과 일반적인 통상 협정을 맺고 조선 바다에 조난당한 불운한 외국 선원들의 인도적 대우를 골자로 한 조항을 포함시키는 것이다. 이것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 문명국가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는 설명할 필요도 없다. 문명국의 선박들은 날씨에 상관없이 이 해안을 지나가고 또 지나가야 한다. 함대 최고 사령관은 함대의 임무가 전적으로 평화적인 것임을 이

해시키기 위해 마주치는 조선인들이나 어부들에게 매우 우호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증기선 대원들에게 신신당부를 했다. 날씨가 잠잠할 때 해안 조사를 하던 미 증기선들이 고깃배들을 향해 한두 번 다가간 적이 있는데, 배에 탄 사람들이 화들짝 놀라 대화는 완전히 거부당했다. 해안 근처 어선들 중에는 바다에 뛰어들어 해변으로 헤엄쳐 도망가는 사람들도 있었다.

함대의 최종 정박지에서도 이처럼 함대를 피하는 모습이 보였다. 우편 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이 나라에서 대화를 시작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한강 동쪽 제방 위, 최고 수위선보다 훨씬 높이 솟은 땅에 세워진 장대 위에 공식 문서를 놓아두는 것이었다. 이 문서들은 하루 종일 그대로 있다가 어둠이 깔리면 누군가 가져갔다. 공문들은 항상 다음 날 새벽에 사라졌기 때문이다. 답장도 마찬가지로 밤에 운반되어 장대에 걸려 있으면 새벽녘에 우리가 수거하곤 하였다.

미국 공사와 사령관은 완전한 의견 일치를 본 후 행동에 옮겼다. 그들이 공동으로 작성하여 보낸 첫 문서에는 함대의 도착과 평화적인 의도, 그리고 조선 해안에 온 목적을 조선 당국에 알리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조선의 회신은 애매한 어조와 고상한 형식에 변명하는 듯한 내용이였다. 사실상 함대가 조선 해안을 떠나는 조건으로, 배가 고프면 음식을 제공할 수 있으나 자신들의 관습을 바꾸려고 온 것이라면 4천 년간 이어온 편견을 바꾸기는 어렵다는 내용이었다. 다른 서신에서는 미국의 페비거라는 사람이 조선에 와서 대화를 나눈 뒤 떠났다고 알려주며, 왜 제독은 똑같이 하지 않느냐고 되물었다. 또 다른 서신에서는 사령관에게 “1866년⁴⁾ 프랑스인이라는 민족이 조선에 와서 일(병인양요)을 벌이고 갔다. 이 나라의 국민들은 4천 년간 이어온 자신들의 문명속에서 만족하며 살고 있고 달리 원하는 것이 없다.”라고 알려왔다. 또한 우리는 다른 나라를 괴롭히지 않는데 왜 다른 나라에게 괴롭힘을 당해야 하는지, 제독의 국가는 서쪽 끝에 있고 우리는 동쪽 끝에 있는데 무슨 목적으로 수천 마일이나 되는 바닷길을 건너왔는지 물었다. 그리고 파괴된 제너럴셔먼호에 대해 조사하러 온 것인지도 물어왔다. 우리가 받은 마지막 서신에서 전체 상황의 기초를 알 수 있었다. 제너럴셔먼호 조사에 대한 언급에서 조선의 관계 단절 의지와 함께 불안감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군대가 지척에 와 있으니 사건을 바로잡으러 왔다고 걱정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였다. 잘못을 저질렀다는 의식이 두려움을 낳고 함대에 대한 전반적인 불신으로 이어졌다. 함대의 도착에 조선이 소스라치게 놀라는 반응을 보인 이유를 달리 이해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서신을 통해 조선 당국은 비록 공개적으로 다른 나라로부터 성가심을 당하고 싶지 않다고 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지리적 위치나 통치 방식과 관련해 내부적으로 많은 골치를 앓고 있었다는 추론은 타당했다.

당시 의사소통 방식은 매우 불확실하고 느리며 언제나 미답지 못하였

다. 그래서 제독은 일을 보다 원활하게 하고 서신 발송을 보다 쉽게 하는 동시에 불안함을 완화시키려 정박지가 위치한 조선 서쪽 마을을 다스리는 지방 관찰사의 허가를 받아 함대의 정박지를 소금강 위쪽, 즉 조선의 수도 서울과 보다 가까운 곳으로 옮겼다.

바다에서 조선 해안으로 들어올 때에도 그랬듯, 정박지를 옮길 때에도 옮기기 전에 먼저 조사단을 보내야 했다. 이곳의 물살이 매우 빠르고 조수 간만의 차가 20~30피트(약 6~9미터)에 이르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다. 강바닥은 바위로 울퉁불퉁하여 만조 때는 지나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평상시 배가 잠기는 깊이라면 간조 때에는 배가 좌초될 수 있다. 썰물 때마다 거대한 갯벌과 군데군데 바위로 덮인 지역이 드러나 지도 없이 강에서 이동하기란 불가능하였다. 그러나 정박지에서 수 마일 위로 올라가면 배가 충분히 잠길 만한 깊은 곳이 있었다. 실제로 정박지를 옮기기 며칠 전에 조선인 관리 몇 명이 우리 기함을 찾아왔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자 신뢰가 생긴 모양이다. 이들은 공사나 제독보다 계급이 낮았으며 공격인 임무보다는 친선의 의미로 온 것으로 보여, 우리 공사와 제독이 그들을 맞이하지 않았다. 대신 기함의 사령관과 다른 장교들이 정중함과 깍듯한 예의로 그들을 맞이했다.

조선인 관리들이 배를 구경하고 싶다고 하여 배의 기계장치, 작은 소형화기, 강력한 함포를 보여주었더니 함대의 막강한 힘에 깊은 감명을 받은 듯했다. 그들은 사교적이었고 말을 아주 잘하며 중국 정부와 조선과의 관계, 중국인들과 교역하는 방식에 대해 설명해 주었다. 또한 자신들의 왕 이름과 군대의 수, 통치 스타일 그리고 조선인에 대한 흥미로운 것들을 말해 주었다. 하지만 바깥 세상에 대해서는 무지한 것 같았다. 조선 관리들은 떠나기 전에 미 함대가 강 상류 쪽 조사에 대해 허가를 받았다는 내용을 들었다고 했다. 기함의 장교들은 이를 널리 알리고 우호적인 작업임을 설명해 달라고 부탁했다. 관리들은 자신들이 받은 대접에 매우 흠족해하며 배를 떠났다. 이들은 장교들의 부탁에 몇 번이고 그렇게 하겠다며 친절하고 우호적으로 확답을 주었다.

이들이 기함을 다녀간 후 하루 혹은 이틀이 지난 1871년 6월 1일 3시 30분에 모노카시호 사령관 E. P. 맥크리와 팔로스호의 록웰 중위는 C. M. 체스터 소령, W. W. 미드 중위, G. M. 토튼 그리고 시턴 슈뢰더 선장이 이끄는 증기선 4척과 함께 조선에 들어올 때 착수했던 조사 작업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 최고 사령관의 명령에 따라 항해를 시작하였다. 낮은 수심에도 운행이 가능한 소형 증기선이 두 척의 포함과 거리를 두고 앞서 나가며 각도를 이용하여 수심을 측정하고 위치를 파악한 후 뒤따르는 포함에 신호를 보내 수심을 알려주었다. 항로와 항해 거리 그리고 강기슭의 윤곽을 파악하는 것이 그들의 임무였다. 당시는 강물이 불어나고 있어서 배가 좌초되어도 밀물 때 빠져나갈 수 있는 시기였다. 제독은 이때를 놓치지 않았고, 빈틈없이 모든 것을 챙겼다.

의심하는 조선인들에게 우호적인 의도를 각인시키는 것이 그의 일관된 목적으로 보였다. 통역관인 콜스와 드루를 팔로스호에 탑승시켜 조사에 동행하도록 해 강 위쪽의 조선 당국이 조사의 적절성을 의심하면 그 목적을 설명하도록 하였다.

모노카시호의 맥크리 사령관이 지휘권을 맡아 가장 평화적인 방법인 서신 교환을 통해 제독의 명령을 실행하였다. 그는 공격을 당하지 않는 이상 어떠한 경우에도 무력을 사용할 수 없으나 공격을 당할 경우에는 상대를 철저히 응징할 것이다.

강의 굽은 곳을 지나자 수 마일에 이르는 탁 트인 구간이 눈에 들어왔다. 강 위 왼쪽 기슭에는 돌로 지은 요새들이 있었고 대포가 장착되어 있었지만 어떤 종류인지는 우리의 현대 전쟁 문헌에는 나와 있지 않은 것이었다. 조선에서 볼 수 있었던 대부분의 요새와 마찬가지로 이곳 요새들도 정면의 공격을 막기 위해 지어진 반면, 후방의 공격에 대한 대비는 전혀 되어 있지 않았다. 모든 요새 안에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았다. 그래서 행여나 놀라지 않도록 측량선 선원들은 자기 자리를 지키며 작업을 이어갔다.

강 상류 요새 사이의 해협은 약 300야드(약 270미터)까지 좁아졌고 요새 안 대포는 정면, 측면, 후면 중 어느 한 지점을 초토화시킬 만큼 한 방향으로 집중되었다. 그 어떤 배치도 조선의 것을 능가할 수는 없었다. 다만 요새 건설에서 한 가지 중요한 요소를 놓쳤는데 바로 전함의 동력으로 증기를 이용하는 점이다. 대포가 놓인 방향에서 일단 발사가 되면 방향을 바꿀 수 없었다. 돌췌 나란히 고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흠으로 채운 통나무 구조물 위에 고정되고 총기 발사 시 반동을 줄이기 위해 요새 석벽 뒤의 나무가 약실藥室의 지지대 역할을 하였다.

강물이 100피트(약 30미터) 높이의 어느 곳 주변을 돌아 왼쪽으로 흐르는 지점 한가운데 돌연 요새 하나가 세워져 있다. 벽은 약 8피트(약 2미터) 높이로 돌과 흙을 섞어 지었고 요새 안에는 외부에서나 볼 수 있는 발전된 해자를 모방한 참초가 있었다. 곳의 아래쪽, 하지만 강의 최고 수위선보다 높은 곳에 총안이 있는 벽이 세워져 있었다. 이 구조물의 구멍에서 50개는 족히 되는 대포들이 빼죽이 나와 있었다. 곳은 위아래로 경사가 젖으며 맨 윗부분은 돌레가 약 80피트(약 24미터)인 요새로 덮여 있어 곳 전체가 마치 원추대처럼 전망이 보인다.

요새의 왼쪽, 즉 서쪽 방향에는 70피트(약 21미터) 깊이의 협곡이 조선반도를 가로질러 곳의 북쪽 방향 강으로 뻗어 나가고 있었다. 요새는 협곡을 넘어 산 정상을 따라 이어지는 사격호와 그 외 방어물로부터 고립되어 있다. 이러한 방어물은 곳 주위에 있는 방어군이 외진 지역을 방어하다가 안전하게 요새로 후퇴할 시간을 벌 때까지 적을 저지하기 위함이다. 이 사각형 모양의 요새를 한 각도에서 보면 커다란 천막이 쳐 있고 몇 피트 앞에는 높이 솟은 대나무 막대기 위로 글자가 쓰인 노란 깃발이 펄럭였다. 나중에 우리 측 통역이 지휘관이 있는 본부를 가

리킨다고 귀띔해 주었다. 또 다른 각도에서 보면 대나무로 지은 오두막이 수없이 많이 모여 있었다. 물론 군인들을 위한 곳이었다. 요새의 성벽 위 그리고 근처 산릉선을 따라 대규모의 남자들이 동원되었지만 그들이 싸움을 위해 모인 것이라 생각되지 않았다. 그저 호기심에 모인 사람들 같았다.

오른쪽으로 강이 흐르는 험준한 절벽 위 그리고 내륙 지역에는 강 쪽으로 사격을 하기 위한 또 하나의 작은 요새가 있어 조선반도, 보다 정확히는 강화도에 있는 반대편 포대와 함께 집중 공격을 가능하게 했다. 측량선이 이 주변까지 왔을 때 우리가 봤던 남자들이 갑자기 사라지고 요새에서 신호탄이 발사되었다. 그리고 잠시 뒤 본토와 강화도 양쪽에 위치한 요새에서 측량선을 향해 맹렬한 공격이 가해졌다. 정확하게 날아온 무기가 우리 배와 보트 주변을 강타했지만 다행히 큰 피해는 입지 않았다. 간조 때는 해협이 대포의 사정거리 안에 들지만, 만조 때는 포병대가 치밀하게 배치한 대포를 피해 다른 길로 우회할 수 있었다.

측량선은 곧바로 요새에 대포를 발사하였고 교전은 전면전으로 치달았으나, 결국 가는 길마다 대포를 박살내며 조선군을 완전히 진압하였다. 이 같은 공격 중에 증기선인 코르베트함 베니시아호를 지휘한 시턴 슈뢰더 선장의 영웅적인 행동이 많은 관심을 끌었다. 당일 오전 요새 아래 지점에서 해협 수심을 측정하던 중 측량선이 증기선의 프로펠러에 영키는 일이 발생하였다. 줄을 푸는 데 시간이 꽤 걸려서 다른 배들이 요새를 지나가는 동안 베니시아호는 뒤처지게 되었다. 뱃머리에 겨우 곡사포 한 대가 장착된 작은 증기선에게는 위험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슈뢰더의 명령은 다른 선박과 함께 나아가는 것이었고 그걸로 충분하였다. 그는 망설임 없이 배를 강 상류 쪽으로 향하게 하여 포탄 세례를 뚫고 요새를 지나갔다. 이는 명령을 따르겠다는 영웅적인 결단으로서 이러한 과감한 이동을 통해 적의 공격을 교란시킬 수 있을 거라고 믿었던 것이다. 실제로 그의 부대는 물질적 피해 없이 빠져나올 수 있었다. 이는 전 세계 어느 전쟁에서도 최소한 한 계급을 승진시킬 만한 공이었다.

요새들을 지나오면서 모노카시호는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궂 주변에서 방향을 틀 때 강 아래 바위에 부딪혀 배 아랫부분이 심각하게 손상되었다. 그래서 강 하류 쪽 함대의 정박지로 돌아왔을 때에는 근처 갯벌로 옮겨져 처참히 부서진 아래 판을 보수해야 했다. 작업이 끝난 뒤 배는 중국 상하이로 보내졌고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은 여전히 아시아 함대의 유능한 순양함으로 건재하게 활동하고 있다.

미 함대는 성공적으로 요새를 통과한 후 공격하기 위해 방향을 돌렸다. 적들의 공격을 기다리지 않고 사정권에 들 때마다 엄청난 포격을 퍼붓기 시작하였다. 대포의 굉음이 배 아래까지 들렸고 높은 곳에서 는 전쟁의 포연이 요새 주변 언덕 위로 피어오르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때때로 성벽에 부딪친 포탄이 공중에서 터지는 것도 보였다. 그러나 적의 공격은 약하여 포탄이 날아오르다 함대에까지 이르지 못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그들이 저항을 멈추자 비로소 요새를 다시 지나갈 수 있었다. 우리 함대의 계속된 포격은 맹렬하였고 파괴적이었으며 지난 세월의 기억 일부를 일깨워 주었다. 강 하류 정박지에 있던 함대 선상에서는 흥분이 고조되었고 당장이라도 총공격을 개시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정박지를 둘러싸고 있는 산 정상에서는 불안해하는 조선인들의 모습이 보였다. 그들은 높은 곳에 모여 전투를 지켜보았고 분명 난공불락의 통과할 수 없는 요새라고 생각하였던 그곳을 우리 함대가 지나갔는데도 멀쩡하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하였을 것이다.

소형 측량선이 귀환한 뒤 조선군의 이유 없는 공격에 대해 보고를 하자, 최고 사령관은 이 모욕적인 행위를 되갚기 위해 이튿날 부대를 상륙시키기로 하였다. 그러나 좀 더 생각해본 결과, 조선 정부가 이번 공격을 정당한 것으로 보지 않을 수도 있고, 또한 상황이 매우 심각하긴 하지만 조선 정부가 조선군의 공격이 정부의 사주에 의한 것이 아니라 는 점을 분명히 하고 적절한 배상을 한다면 양측의 단절된 관계는 회복될 것이라는 결론에 이르렀다. 이에 이튿날 상륙 명령은 철회되었고, 공사와 최고 사령관은 외교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갖은 노력을 기울였다. 의사를 전달하는 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고 이번 불행한 사건으로 인해 관계는 더욱 꼬였지만 최소한 열흘 동안 적대적인 행위는 유보되었다.

이는 여러 이유로 현명한 판단이었다. 모노카시호 선저에 생긴 손상을 수리해야 했는데 그러려면 며칠이 걸릴 것이었다. 또한 당시 조류가 가장 높을 때라 강한 물살로 인해 항해가 위험할 수 있었다. 조선 당국이 적대적 행동을 지시하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지 않거나, 모욕적인 처사에 대해 적절한 사과를 하지 않아 작전이 반드시 필요하다 할지라도, 열흘 후 물살이 좀 더 약해질 때까지 기다려 작전 부대가 상륙하는 것이 군사적으로 유리하였다.

이러한 시간적 여유를 이용해 팔로스호는 함대의 우편물을 발송하기 위해 중국의 즈푸(옌타이)로 보내졌다. 그사이 조선의 지방 최고 관리가 사령관에게 전갈을 보내왔다. 자신들의 측량선 공격은 정당했으며, 제국의 관문을 통과하려는 자라면 그가 누구든 공격을 하는 것은 관례에 따른 것이라고 말하였다. 또한 국제적인 친교를 맺으려는 모든 시도에 저항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공문의 어조는 거만하고 태도는 도전적이었지만, 우리 측은 전달하러 온 사람들을 깎듯하게 대우하였고 기함을 두루 구경시켜 주었으며, 떠나기 전에는 와인 한 잔을 대접하였다. 이들이 속내를 털어놓을 리는 없지만 함대에 있는 동안, 6월 1일 측량선의 포탄 공격에 “적지 않은 사망자와 수십 명의 많은 부상자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알아낼 수 있었다. 이는 동양의 일반적인 표

현 방식이었다.

이 문서로 조선 정부로부터 배상을 받거나 공격이 정부와 상관없다는 얘기를 들을 것이라는 모든 희망이 사라졌다. 이제 공사와 사령관에게는 달리 의지할 것이 없었다. 외교 협상 후 마지막 호소를 함으로써 평화적으로 분쟁을 해결하고자 했던 모든 고귀한 수단을 다 써버렸다. 이제 이 문제에 중대한 순간이 다가왔다. 매우 다행스럽게도 적의 공격에 몸을 사린 적이 없는 장교가 우리 해군을 이끌고 있다. 그러한 성품에 따라, 장교는 모든 사안을 고려한 뒤 무력을 사용해 논란을 해결하기로 결심하였다. 공격 날짜는 6월 10일 오전 9시 30분으로 정해졌다. 보병대와 포 7문, 공병 부대 및 지뢰 공병을 태운 함대가 전함 모노카시호와 팔로스호 그리고 증기선 4척의 호위를 받으며 상륙하였다. 원정대가 함대를 떠나기 하루 이틀 전, 조선의 뜻배 한 척이 강 아래로 내려오더니 기함 콜로라도와 나란히 하였다. 배에는 제독에게 보내는 소 몇 마리와 많은 양의 채소 그리고 달걀이 조금 실려 있었다. 뱃사공이 가져온 문서에는 수천 마일을 건너와 먹을 것이 절실한 외국인들을 위해 보내는 것이라 적혀 있었다.

로저스 제독은 조선 당국이 함대 공격에 대한 어떠한 사과나 해명도 없었고 배상을 제안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먼저 그 사건에 대한 해명을 들을 때까지 선의의 선물은 거절할 수밖에 없다며 물품들을 돌려보냈다. 조선 정부는 미 함선 공격을 신중히 생각하여 이를 감행했던 책임자들과 논의를 할 충분한 시간이 있었지만, 어떠한 설명도 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해외 주요 공무를 담당하고 국가의 명예를 지키는 자긍심 있는 관리라면, 평화적이고 우호적인 방문단을 보내 정당한 이유 없이 공격한 것에 대한 잘못을 바로잡았을 것이다.

부대를 상륙시키기로 한 날짜와 시간이 되자, 아침 일찍부터 함대에서는 준비 작업이 한창이었다. 오전 10시경 모든 부대원들이 함선에 승선하자 상륙 지점까지 가기 위해 팔로스호가 정해진 위치로 이동하였다. 부대는 다음과 같이 편성되었다.

포함 팔로스호에 승선한 최고 사령관 H. C. 블레이크 미 해군 중령 육상 부대 지휘관 L. A. 킴벌리 미 해군 중령 부관 항해사 A. K. 베일러 미 해군 통신 장교 N. T. 휴스턴 미 해군 소위 부관 참모 W. S. 솔리 미 해군 소령 우익 부대 지휘관 사일러스 케이시 미 해군 소령 좌익 부대 지휘관 W. K. 힐러 미 해군 소령 A 중대 지휘관 O. F. 헤이어맨 미 해군 소령 A 중대 중위 C. A. 클라크 미 해군 소위 B 중대 지휘관 F. J. 드레이크 미 해군 항해사 C 중대 지휘관 G. M. 토튼 미 해군 중위 D 중대 지휘관 H. W. 매키 미 해군 중위 D 중대 중위 C. W. 침 미 해군 선장 E 중대 지휘관 B. M. 매컬베인 미 해군 중위	

F 중대 지휘관 J. H. 필스버리 미 해군 선장 G 중대 지휘관 T. C. 매클레인 미 해군 선장 H 중대 지휘관 R. M. G. 브라운 미 해군 선장 H 중대 중위 캘린더 미 해군 항해사 I 중대 지휘관 매클레인 틸턴 미 해군 대령 I 중대 중위 W. J. 맥도널드 미 해병 소위 K 중대 지휘관 J. B. 브리즈 미 해병 중위 K 중대 중위 F. M. 멀라니 미 해군 중위	
---	--

포병대
포병대 지휘관 더글러스 카셀 미 해군 소령 우측 포열 지휘관 A. S. 스노 미 해군 중위 좌측 포열 지휘관 W. W. 미드 미 해군 중위 우측 구역 지휘관 시턴 슈뢰더 미 해군 소위 우측 중앙 구역 지휘관 F. S. 바셋 미 해군 소위 좌측 중앙 구역 지휘관 N. 그린웨이미 해군 항해사 좌측 구역 지휘관 A. V. 워드햄 미 해군 선장
선발대
선발대 기타 지휘관 쿤 미 해군 선장
의무부대
전 외과의 보조 C. J. T. 웰스 미 해군 외과의 보조 라타 미 해군 외과의 보조 W. P. 코윈 기관장 A. 헨더슨 미 해군 대령 서기 D. 홀랜드 미 해군
증기선 부대
애틀랜타호 지휘관 H. F. 피킹 미 해군 소령 2등 부기관사 H. L. 슬로스 미 해군 위호켄호 지휘관 L. P. 겔러거 미 해군 항해사 베니시아 증기선 지휘관 새뮤얼 지 미군 항해사 2등 기관사 조지 H. 커니 미 해군 알래스카 증기선 지휘관 니컬러스 루스벨트 미 해군 선장 2등 부기관사 시어도어 쿠퍼 미 해군
포함 모노카시호의 장교
사령관 E. P. 매크리 미 해군 지휘관 소령 D. E. 멀란 미 해군 중위 J. T. 가드너 미 해군 선장 J. B. 스미스 미 해군 선장 T. C. 포스 미 해군 2등 부기관사 H. D. 포츠 미 해군 2등 부기관사 L. R. 하모니 미 해군 외과의 서머싯 로빈슨 미 해군 경리감 C. D. 맨스필드 미 해군
포함 팔로스호의 장교
소령 C. H. 록웰 미 해군 지휘관 소령 J. E. 존스 미 해군 선장 N. C. 풀러 미 해군 선장 J. C. 하워드 미 해군 선장 T. M. 넬슨 미 해군 선장 P. C. 밴 버스클린 미 해군 외과의 보조 F. K. 하트웰 미 해군 경리감 보조 R. K. 풀딩 미 해군 1등 부기관사 존 로 미 해군

부대는 미 해군 L. A. 김벌리 사령관의 명령에 따라 상륙하였다. 총 450명 규모에 보병 10개 중대로 이루어졌고 포 7문과 포병 약 100명이 합류하였으며 장교, 참모, 선발대, 의무부대의 수는 168명이었다.

당시 원정대의 최고 사령관은 H. C. 블레이크였고 공격할 때 기함은 포함 팔로스호였다. 사령관의 지휘하에 있는 해상 대기 부대인 포함 모노카시호에는 장교 10명과 승무원 140명이 타고 있었고, 팔로스호에는 장교 10명과 승무원 50명이 있었다. 4척의 증기선에는 장교 8명과 승무원 60명이 승선하였고, 약 40명이 부대를 상륙시키는 데 동원된 콜로라도, 알래스카, 베니시아, 모노카시 그리고 팔로스호의 보트를 호위하는 역할을 하였다. 이들은 그 후 해안가로 이동하였다.

1871년 6월 11일, 강화도 요새를 공격하는 데 참여한 부대는 지상군 장교 618명과 병사들 그리고 해상 대기 부대 장교 318명이다. 부대 편성은 부대 오른쪽 날개 혹은 오른쪽 측면은 예인선 맨 앞에 위치한 보트에 배치시키고, 왼쪽 날개 혹은 왼쪽 측면은 팔로스호 선미 쪽 예인선 뒤쪽에 자리 잡도록 하였다. 포병대가 부대의 중앙에 자리하기 때문에 대포를 실은 21척의 보트는 중앙에 배치되었다. 강 위로 진격하는 동안 작은 증기선으로 구성된 함대는 보트 함대 좌우로 배치하여 모노카시호가 마을 놓고 요새와 제방에 포격을 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미리 정해 놓은 저지대 요새 근처에 도착하자마자 팔로스호는 밧줄을 내리고 상륙을 위해 나란히 정렬하라는 신호를 보냈다. 뒤에 있는 배들은 밧줄을 풀어 던지고 왼쪽으로 90도 이동만 하면 되었다. 이 대형으로 부대는 오른쪽 측면이 강 상류로 향하게 하여 상륙을 위한 전열을 가다듬었다. 저지대 요새에 적이 있으므로, 그들의 엄청난 집중 포화를 받지 않고 우리 부대가 상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모노카시호와 팔로스호가 맹렬한 공격을 개시하였다.

함대의 목표 지점은 요새 바로 앞이었으나 최단거리로 노를 저어 간다 하더라도 부대의 대열은 너무 길었다. 해변에는 대피처로 사용할 곳이 적어 대포를 실은 보트의 상당수는 약 4분의 1마일(약 400미터) 아래에 위치한 갯벌에 상륙할 수밖에 없었다. 상륙 지점에서 부대 일부는 요새 뒤에 배치되었는데 적들은 고립을 피하려 즉시 산속으로 도망가 강 기슭에 있는 자신들의 진영으로 돌아갔다. 무를 높이의 갯벌 진흙으로 인해 왼쪽 측면을 재정비하는 데 약간 지체되긴 하였지만 혼란은 없었다. 포병과 보병으로 이루어진 포병대는 그들이 설치해 놓은 밧줄을 잡고 쉽게 헤쳐 나왔다. 오후 4시경 부대 전체가 모두 상륙하였고 전투 없이 저지대 요새를 점령하였다. 적이 퇴각한 후 산발적으로 몇 번의 포격이 있었을 뿐이다.

지휘관은 지금까지 문명세계에 이름 외에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조선이라는 나라의 도로나 지형을 알 수 있는 지도가 없었기 때문에 야간에 주둔할 곳을 찾기 위해 정찰대를 파견해야만 했다. 진격하기에는 너무 늦은 시간이었다. 강에서 100야드(약 90미터) 떨어진 곳에 처음으

로 점령했던 요새 뒤 높이 솟은 고원을 발견하고 그곳에서 머물기로 하였다. 강 위 혹은 아래에 있는 진입로는 포함의 보호를 받았고 유일한 진입로는 좁은 독길로 양옆에는 깊은 수렁이 있었다. 포병대와 몇몇 중대를 파견하여 혹시 모를 공격에 대비하도록 하고 수렁 너머에 말뚝을 박아 전초선을 만든 후, 부대는 천막을 치고 밤을 보냈다. 자정 무렵 전초선 지점에서 총성이 오갔고 전선으로부터 적이 가까이에 있다는 전갈이 도착하였다. 전초선 사이로 산발적인 총성이 있는 후 지휘관 탈턴 대령의 명령에 따라 군은 주 방위선에서 후퇴하였다.

조금 떨어져 있는 수렁의 반대편에서 포성이 자주 들렸고 시끄러운 북소리와 사람들의 환호 소리가 들리는 것으로 봐서 적이 밤에 공격해올 것으로 보였다. 그들의 도발에 우리는 포탄으로 응하였고 적에게 명중하여 시끄러웠던 소리와 적의 허세를 잠재웠다. 그날 밤 적이 어떠한 공격도 하지 않은 것은 다행한 일이었다. 우리 부대는 만반의 전투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다시 평온을 되찾은 뒤 김벌리 사령관은 새벽에 어떠한 행동을 취할지 결정하기 위해 즉시 작전회의를 소집하였다. 회의에서 합의된 내용은 이렇다. 기민한 행동이 부대 작전의 특징이 되어야 한다. 행군은 새벽에 시작해야 하며 적과 마주치면 최후까지 싸운다. 승리의 행운이 우리 부대와 함께한다면, 특히 첫 전투에서 그러하다면, 이로 인한 이점이 연이어 뒤따를 것이다. 패배한 적에게 어떠한 여유도 주어서는 안 된다. 그들이 후퇴할 힘이 있는 한 우리 부대 역시 추적하는 데 그만큼의 힘이 필요할 것이다. 도망가는 적에게 재정비할 시간을 주어서는 안 된다. 모든 타격에는 더 강한 공격이 뒤따라야 한다. 결국 최선의 방법을 논의한 끝에 그들과의 전쟁이 결정되었고 총탄, 포탄 혹은 겁이 닿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남김없이 공격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6월 11일 새벽 동이 트자마자, 아침식사를 끝낸 부대는 천막을 거두고 강 상류 쪽으로 행군하였다. 선발대가 산병선(散兵線)을 형성해 앞장섰고, 길이라 할 만한 것이 없는 탓에 부대는 선두에 대포 2문, 중앙에 대포 3문, 뒤에는 대포 2문을 끌고 4열 중대로 행군할 수밖에 없었다. 행군 중 대포와 대열이 통과할 수 있도록 길을 내기 위해 많은 곳에 선발대를 투입해야 했다. 강을 따라 이어지는 산비탈은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았고 길도 나 있지 않아 진군하는 데 상당히 애를 먹었다. 이러한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모노카시호가 격렬한 포격을 퍼부은 후, 부대는 오전 6시 30분경 첫 번째 캠프에서 4분의 3마일(약 1.2킬로미터) 떨어진 두 번째 요새를 별다른 저항 없이 함락시켰다. 이 요새는 머린 리다우트로 알려져 있고 훗날 모노카시 요새(초지진)로 불려졌다.

적들은 매우 황급히 퇴각했는지, 그릇에 담긴 아침식사가 불 위에서 여전히 끓고 있었다. 우리 부대는 지체 없이 적군의 포를 강에 던지고 요새 주변 건물에 불을 질렀다. 그러나 그날 저녁 불길이 요새 북쪽 마을에까지 번져 마을 전체가 불타버리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기도 하

였다.

부대 행렬은 강을 벗어나 보다 높은 지대를 확보하기 위해 경사진 비탈길을 올라가 수렁을 건너 무성한 덩불 속으로 들어갔다. 이번 목표 지점은 나중에 매키 요새(광성진)로 불리는 쿠드 요새이다. 강의 만곡부 지점 위에 위치하며 2마일(약 3.2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있다. 태양이 내리쬐는 더운 날씨 속에 지루한 행군이 계속되던 중 탁 트인 공간이 나왔다. 우리 측에서 봤을 때, 왼쪽과 정면에 적이 대거 숨어 있는 것이 보였다. 위치 좋은 언덕에 참호를 파고 공격을 기다리는 것 같았다. 우리 부대는 즉시 앞으로 나아가 적이 있는 곳을 향해 흩어져 전열을 갖추었다.

곧바로 적이 위치를 잘못 선점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김벌리 사령관은 적의 실수를 기회로 삼아 케이지 소령이 이끄는 우익 부대를 전진 배치시켜 보다 유리한 입지를 점하였다. 그 위치에서는 적이 패할 경우 후퇴하는 행렬이 그대로 보이고, 편자 요새 혹은 쿠드 요새를 공격하려는 적의 어떠한 시도도 차단된다. 이에 김벌리 사령관은 좌익 부대를 이동시키고 스노 중위에게 포 3문을 관리하라고 명하고, 휠러 소령이 지휘하는 A, B, F 중대에게 모든 위협을 무릅쓰고 고지를 사수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주공격을 감행하기 위해 케이지 소령이 이끄는 우익 부대가 전면에 배치되었고 우익 부대의 한두 중대가 지원에 나섰다. 부관 참모가 김벌리 사령관을 대신해 쿠드 요새의 우익 부대 작전과 최종 공격의 지휘권을 행사하였다.

매크리 사령관에게는 모노카시호와 증기선을 이끌고 쿠드 요새의 반대편에 있는 손돌목을 향해 타격하라는 신호가 본부로부터 내려왔다. 포격의 화력은 파괴적이고 엄청났다. 이로 인해 적이 강변을 따라 퇴각할 수 있는 길이 완전히 차단되었다. 그러나 불행히도 전날 밤 만조 때 이름 모를 작은 암초 위, 저지대 요새 바로 아래 정박해 있던 팔로스호가 간조 때 깊은 곳으로 빠져 좌초되고 말았다. 이 불행한 사고로 선미에 커다랗고 들쭉날쭉한 구멍이 생겨 함선에 심각한 손상을 입었다. 이는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로 지휘관은 어쩔 수 없이 다음 날 작전을 포기해야만 했다. 이 사고는 함선의 모든 장교와 수병들에게 크나 큰 실망감을 안겨주었다. 강 하류의 함선을 호위하거나 부대 후방을 보호하는 임무만 맡을 수 있기 때문이다.

모노카시호에서 포격을 가하는 동안 전열을 보강한 케이지 소령의 우익 부대는 쿠드 요새에서 약 200야드(약 180미터) 떨어진 협곡의 정상까지 진군하였다. 이때 카셀 소령은 좌익 부대의 두 중대 소속 파견대와 포 2문의 지원을 받아 완만한 고원 지대를 점령하였다. 적이 강 상류 방향으로 후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보였다. 그때 마침 김벌리 사령관으로부터 좌우익 부대 중앙에 위치하여 양 부대를 살피기에 좋은 높은 지대에 본부를 세웠다는 전갈이 왔다.

쿠드 요새로 이동하려는 휠러 소령 부대와 마주친 조선인들은 공격을

위해 사방에서 대거 집결한 듯 보였다. 하지만 전진 배치된 우리의 대포와 후장식 머스킷 총의 정확하고 치명적인 화력에 겁을 먹고 혼비백산하여 후퇴하였다. 적은(조선인들은) 몇 차례 공격을 감행하는 등 효과적으로 방어하기도 했지만, 우리의 강력한 화력에 맞서지는 못하였다. 동요한 적의 병사들은 와해되어 가장 가까운 은신처로 도망갔지만 휠러 소령의 방어선 50야드(약 45미터) 안으로는 결코 들어올 수 없었다. 휠러 소령의 진지는 후방을 방어하였다. 우리 군에게는 어떤 경우에도 사수해야 하는 중요한 위치였기에 소령은 모든 공격에 필사적으로 대응하였다.

후방의 이런 움직임을 인지한 김벌리 사령관은 신속한 합동 작전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서둘러 전방으로의 이동을 감행하였다. 강행군 끝에 우익 부대는 쿠드 요새와 협곡을 가르는 산마루에 도착했다. 가는 도중 험준한 산속, 열대의 태양 아래에서 반 마일에 걸쳐 적과 접전이 벌어졌다. 폭염 속에서도 마침내 적을 궁지에 몰아넣고, 우리의 진군 대열과 직각을 이루는 사격호를 따라 쫓혀 있던 수많은 적의 깃발을 차지하였다. 부대는 곧 있을 최종 공격 명령을 수행하기 전 잠깐 숨을 돌리며 수통에 물을 채우고 탄약통에 탄약을 채우기 위해 행군을 멈췄다.

반대편 언덕 위 요새에서는 조선인들의 장엄한 구호 소리 혹은 구슬픈 노래가 들렸다. 요새의 모든 사람이 온 힘을 다해 부르고 있는 것 같았다. 그것이 저항의 의미든 아니면 전쟁 의식에 따른 것이든 관계없이 우리 부대는 동요하지 않았다. 음악은 기괴하였고 동양의 특징이 묻어났으며 리듬은 조화롭지 못했다.

우리 군은 유리한 고지를 모두 점령했고, 부대는 완전히 휴식하고 있으며, 모노카시호는 군을 보호하기 위해 요새로 포탄을 날렸다. 후방은 휠러 소령의 부대가 사수하였고 강 상류로 나갈 수 있는 적의 유일한 퇴로는 카셀 소령이 지키고 있는 가운데 매크리 사령관으로부터 공격을 중단하라는 신호가 떨어졌다. 케이지 소령은 당시 부대에 산마루를 따라 넓게 산개 대형을 펴도록 명령하였다. 이는 후열이 약 6피트(약 1.8미터) 간격의 전투 대형을 갖추는 것으로 처음 시행되는 것이었다.

전열을 갖추는 과정에서 탈턴 대령이 이끄는 해군은 우익에 있었다. H 중대 지휘관 R. M. G. 브라운 함장, C 중대 지휘관 G. M. 토튼 중위, E 중대 지휘관 B. M. 매길베인 중위, D 중대 지휘관 H. W. 매키 중위, G 중대 지휘관 T. C. 매클레인 함장은 맨 왼쪽에, 그리고 진지 한 곳을 점령한 카셀 소령과 2문의 포는 더욱 왼쪽으로 이동함으로써 공격을 위한 전투 대열을 완성하였다.

일요일 오후 12시 40분, 부관 참모가 케이지 소령에게 적의 요새를 공격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협곡 맞은편 언덕 위에 적의 지휘관 요새가 있었다.

성곽에는 공격할 기회만 기다리는 듯 군 병력이 모여 있었고 요새 위

에는 크고 검은 글자가 새겨진 노란색의 대형 군 깃발이 펄럭이고 있었다. 성벽 안에는 결연한 의지를 가진 용감한 조선의 병사들이 있었다. 이들은 실제로 더 이상 저항할 수 없는 최후까지 버티다가 항복하였다. 죽을 때도 자신들의 진지를 적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손에 칼을 쥐고 용감하게 전사하였다. 어느 누구도 이들보다 더 용감할 수는 없을 것이다. 수적으로는 열세였으나 머스킷 총과 중포를 보유한 미군과의 전투는 시작부터 불평등한 것이었다. 성능이 뒤지는 진걸총⁵ 4정과 질 낮은 탄약으로는 아무리 병사 수가 많아도 이길 수 없다. 그렇지만 조선의 공격 부대는 제대로 갖추어져 있었고 병사들의 얼굴에는 결연한 의지가 엿보였다. 이들의 끈기와 높은 기상은 결국 그들의 지도자들에게 자신감을 북돋아 주었다.

부관 참모와 케이지 소령이 지휘하는 부대가 진격하며 산마루 위에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 성곽에서 엄청난 포탄이 떨어졌다. 다행히 부대는 넓게 펼쳐진 대형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날아오는 수많은 포탄을 뚫고 신속히 전진하며 많은 병사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 적의 포탄은 부대 대열에 못 미치거나 그보다 멀리 떨어져서 먼지 구름이 피어올랐다.

반면, 우리 병사들은 확실한 사정거리에서 화기를 사용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전진하는 병사들의 침착한 용기와 단호한 표정은 적의 입장에서서는 볼길한 징조이다. 우리 군은 공격해오는 적에게 맹렬히 맞서 그들을 무참히 응징하였다. 부대는 요새로 돌격하기 전에 요새뿐만 아니라 그 안의 모든 것을 함락시키기로 결의하였다. 우리 군이 성곽 아래 진지를 확보할 때까지 적은 전진하는 우리 군 대열을 향해 쉴 새 없이, 무자비하게 포를 쏘아댔다. 더욱이 커다란 돌로 공격을 가하였다. 이에 우리 군은 어느 정도 피해를 입었지만 흔들림 없이 전진하였다. 어느 누구도 우리를 막을 수는 없었다.

이 같은 돌격 상황에서는 보다 민첩한 장교나 병사들이 본대보다 먼저 진지를 확보하게 된다. 우리 부대도 예외는 아니었다. 모두들 똑같이 용감하고 결연한 의지를 보였지만, 그 중에 매키 중위, 부관 참모, 그리고 육군 병사 세스 앨런이 본대보다 먼저 성벽에 도달하였다. 이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요새 안 조선군은 공격 지점을 향해 남쪽에서 북쪽 방향으로 7중대 혹은 8중대로 정렬해 있었고, 뒤쪽 성벽 위에는 소총수들이 2열 횡대로 서 있었다. 뒤에 있는 보병대를 지키기 위해 맨 앞줄에 배치된 창병들은 지급된 긴 창을 가진 채 앉아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보병대는 반대편 성벽에 누군가가 접근하기 시작하자 맹렬한 공격을 퍼부었다. 바로 그 때 H. W. 매키 중위와 세스 앨런이 쓰러졌다. 매키 중위는 총알이 배와 척추를 관통해 심각한 중상을 입고 요새 안 적들 사이로 고꾸라졌다. 그러자 두세 명의 창병들이 그에게 물려졌다. 세스 앨런은 가슴과 머리에 몇 발의 총알을 맞고 성벽 위에서 바로 사망하였다. 마

치 한 시간 동안에 벌어진 사건 같지만, 사실은 순식간에 발생했다. 그 뒤를 이어 케이지 소령의 부대가 성벽을 넘었고, 토튼과 매킬베인 그리고 브라운 지휘관도 병사들을 이끌고 뒤를 따랐기 때문에 매우 짧은 시간에 벌어진 일이었다.

이와 거의 동시에 틸턴 대령과 브리즈 중위는 해병대와 함께 남쪽 벽으로 돌진하였고 매클레인 함장은 북쪽으로 돌진하였다. 그 뒤 요새에서는 백병전이 전개되었다. 케이지 소령은 병사들에게 총검을 들고 적에게 돌진하라고 명령하였다. 전투 중에는 무참한 살상이 벌어졌다. 25분간의 전투는 육박전으로 치달았고 매우 필사적이었다. 우리 군의 총검이 맨 앞 대열의 적들을 무찔러 전체 대열이 붕괴되는 순간 머스킷 총을 발사하였다. 우리는 사람이 견뎌내기 힘든 총공세를 퍼부었다. 적의 전열이 처음부터 흔들리더니 결국 무너져 내렸다.

조선군은 충격 속에 우왕좌왕하며 강 상류로 이어지는 길을 향해 산마루를 넘어 후퇴하려 하였다. 그 과정에서 전사자가 많이 발생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탈출하기 위해 절벽에서 뛰어내려 100피트(약 30미터) 아래 강으로 떨어졌다. 강바닥을 따라 절벽 아래로 피신한 사람들도 많았으나 결국 우리 군에게 추격을 당했고, 완강히 저항하다 대부분 목숨을 잃었다. 이들은 항복이 아닌 죽음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남은 대다수 병사들은 강으로 향하는 길을 확보하는 데 성공하였다. 그러나 카셀 소령의 포병대와 보병대가 맹렬하고 치명적인 공격으로 그곳의 모든 퇴각로를 차단하였다. 전쟁터는 말 그대로 두세 겹씩 쌓아 올린 시체 더미로 뒤덮였다. 퇴각의 희망이 사라지고 눈앞에서 전멸의 상황을 맞게 되자 조선군들은 강을 선택하였다. 탈출을 감행하다 물속에서 목숨을 잃었다.

요새 안에서 전투가 한창일 때, 막사에 불이 나고 퇴각이 시작되면서 적군 대부분은 극심한 공포 속에 불타는 건물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가장 끔찍한 고통 속에 죽어갔다. 우리 병사들은 온갖 수단을 동원하여 건물을 포기하라고 설득했지만, 그들은 낯선 외국인들에게 잡혀 어떤 일을 겪을지 모를 바에야 차라리 죽는 길을 선택하였다. 당시 전쟁터에 2,500여 명의 조선군이 있었던 것은 분명한데, 그날 실제로 몇 명이 죽었는지는 알 수 없다. 이들은 모두 1871년 6월 11일 강화도 전투에서 우리 군에 의해 혹은 스스로 최후를 맞았다. 근처 들판을 뒤덮었던 전쟁터의 포탄 연기가 가시자, 요새 안과 근처에서만 243구의 시신이 발견되었고 그중에는 지휘관도 있었다.

한편 퇴로 주변과 그 너머에서는 큰 부상을 당한 사람들이 들것으로 옮겨졌다. 강으로 뛰어내려 사망했거나, 떨어질 때 용케 절벽을 잡아 살아났지만 후방을 담당한 윌러 소령의 전선에서, 그리고 카셀 소령의 대대적인 공격을 받고 사망한 병사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없었다. 어쨌든 모든 전선에서 압도적인 승리였다. 우리 측의 피해를 보면 전사자 3명, 중상자 3명에 그쳤고, 그 외 부상자 7명은 모두 생명에 지장이 없

었다. 치열한 육박전도 여러 차례 치렀는데, 결과는 매번 우리 미국의 승리로 끝나서 우리의 신체 단련이 한 수 위임을 확실히 보여주었다. 윌러 소령이 이끄는 부대와 후방 요새에서 치러진 전투를 지켜본 조선군은 자신들의 패배가 확실시되자 무기와 탄약을 비롯하여 여러 장비를 버리고 가능한 한 전선에서 먼 곳으로 다급하게 허둥대며 도망갔다. 윌러는 적이 도망치는 것을 오후 2시경에 보고하였고, 잠시 뒤 요새 및 주변의 본진에 합류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요새가 함락되고 우리 깃발이 게양되자 킴벌리 사령관은 본부를 요새로 이동시켰다. 그리고 장교들을 필두로 정찰대를 내보냈다. 이들의 임무는 적의 모든 자원을 파괴하고 모든 의복과 보급품을 불태우며, 무기고의 화약이나 탄약을 파괴하고, 요새 주변의 모든 건물을 불태우는 것이었다.

오후 2시 30분경, 요새 뒤편 산비탈에서 상당한 양의 화약이 저장된 무기고가 발견되었다. 이는 겨우 죽을 고비를 넘긴 매킬베인 중위가 폭파하였다. 이 폭발로 원기둥 모양의 거대한 연기가 수직으로 200피트(약 60미터)까지 치솟았는데, 이는 부아제섬에 정착해 있던 배 위에서도 관측되었다. 이곳에서는 아직까지 우리 군의 승전보가 전해지지 않아 매우 불안해하는 분위기였다. 요새 깃대에 성조기가 휘날리는 것을 본 후에야 제독은 그날 늦은 시각 블레이크 중령의 증기선을 통해 상대 군사를 무참히 궤멸시켰다는 소식을 함대에 알렸다. 오후 3시경 부상자와 전쟁 포로를 태울 보트를 보내라는 신호가 모노카시호에 전달되었다. 노획된 적군의 깃발과 함께 많은 수의 포로와 부상병들이 배에 탑승하였다.

전투가 끝난 뒤, 매크리 사령관은 장교들에게 줄 샴페인과 점심을 갖고 직접 육지로 건너왔다. 그동안 이런 후한 점심을 이토록 맛있게 즐긴 적은 아마 단 한 번도 없었을 것이다. 오후 5시 45분, 휴 W. 매키 중위는 거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의식을 놓지 않았지만, 5시간가량 엄청난 고통에 신음하다 결국 사망하였다. 그의 늙은 태도와 용기는 단연 돋보였다. 이처럼 용감하고 젊은 장교가 능력을 막 발휘하기 시작할 무렵에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은 우리 나라에도 분명 안타깝고 불행한 일이었다.

저녁이 되자 킴벌리 사령관은 밤을 보내기 위해 그의 부대를 견고한 진지에 배치하였다. 삼엄한 전초선이 요새 서쪽 방향 조선반도 전역에 세워졌고 지원 부대가 바로 근처에 있었다. 요새 안에는 포병대가 모든 접근로를 방어할 수 있는 위치에 배치되었고 몇몇 보병 중대가 이들을 지원하였다. 모닥불을 피우고 저녁을 준비하여 함께 식사를 한 후, 부대는 다시 공격 태세를 갖추고 적의 기습 공격을 막아낼 만반의 준비를 하며 야영에 들어갔다.

전투에서 대적했던 조선 병사들은 용감하고 필사적이었다. 그들이 더 나은 무기를 가졌더라면 전투는 더 길어졌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군

은 끈기 있고 용맹스러웠기에 큰 승리를 거둘 수 있었고 이는 병사들의 인생에서 영광스러운 순간이었다. 하지만 녹초가 되어 잠이 들면 꿈속에서는 집으로 돌아가 사랑하는 이와 함께하며 승리의 영광이나 전리품은 모두 잊어버렸다.

적의 기습 공격은 없었다. 삼엄한 경계를 펴고 있는 막사의 정적은 깨지지 않았다. 실제로 조선군이 그렇게 빨리 패배의 충격을 추스를 수 있을지 의문이었다. 그들은 정말로 완패했기 때문이다. 상륙 작전의 목적은 이루었고 우리 부대가 겪은 과거의 치욕 또한 거침없이 완전히 되갚았으므로, 6월 12일 아침 최고 사령관은 부대에게 재승선하여 부아제섬에 정착해 있는 함대로 돌아올 것을 명하였다. 이에 따라 9시경 적은 보이지 않았지만 부대는 기습 공격을 당하지 않도록 경계를 유지하며 철수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1시간 반 이내에 모든 인원이 포함에 승선하여 강 아래로 향하였다.

이번 원정은 우리 함대가 외국에서 펼친 상륙 작전 중 최대 규모로 꼽힌다. 해안에서 이루어진 약 48시간 동안의 함대 작전은 기민한 움직임과 신속한 전개 그리고 완벽한 승리를 유감없이 보여주었다. 조직은 육군의 조직과 비슷했다. 다만 장교의 수가 병사 6명당 1명꼴로 많았는데, 이는 작전 중 병사들이 평정심을 잃게 되는 위기 상황에서 보다 완벽한 통제력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장교와 병사 모두 똑같이 용맹스럽고 대담했으며 전투에서 몸을 아끼지 않았기에, 이번 전투에서 어느 한 사람을 거론하는 것은 적절치 않을 것이다. 전투에서의 승리와 이후 보여준 위대한 업적은 잊을 수 없는 1871년 6월 11일 일요일 강화에 있었던 부대의 뛰어난 자질 덕분이라 할 수 있다.

이들은 해군의 명예로운 역사에 새 장을 열었고 ‘해군의 막강한 영향력’을 보여준 또 하나의 사례로 기록되었다.

1 이 글은 1871년(고종 8) 6월 미군과 조선군 간에 전투가 벌어졌던 신미양요와 관련한 것이다. **2** 테르모필레 전투(Battle of Thermopylae)는 기원전 480년 8월 또는 9월에 페르시아가 두 번째로 그리스를 침공할 당시 사흘 넘게 벌어진 전투이다. **3** 인천시 동구 만석동에 속한 섬이다. 강화해협의 거센 조류를 치방는 섬이라는 뜻으로 물치도(勿湍島)라고도 불렸다. 1866년 병인양요 때는 프랑스 함대 이름을 따서 부아제(Boisee), 1871년 신미양요 때는 섬 전체가 울창한 숲으로 덮여 있어 목도(木島: Woody Island)라고 불렸다. **4** 원문에는 1865년으로 되어 있어 바로잡았다. **5** 수레에 적재한 총기(銃架)에서 발포하는 대형 머스킷 총의 일종이다. 예전 인도, 중국 등지에서 사용하였다.

42 — 19세기 말~20세기 초 서양인이 본 한국

43 — 1860~70년대-PART I



FORT MONOCACY CAPTURED BY THE UNITED STATES FORCES ON THE MORNING OF JUNE 11, 1871.

OUR NAVY IN KOREA.

BY CAPTAIN W. S. SCHLEY, U. S. N.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recall an event in the history of our navy through which the last one of the exclusive empires of the East was brought into the fellowship of our Western civilization.

Some twenty-eight years ago an American schooner, named the *General Sherman*, visited the coast of Korea, that peninsula projecting in a southerly direction from Manchouria, and lying between the Yellow Sea and the Sea of Japan. This vessel was loaded with a cargo of Yankee notions, and the purpose of her captain was a peaceful exchange of these commodities with the Koreans. At the time of her visit this empire was not in touch with the outer world, but in some form or other maintained communication with the Chinese, whose language they understood, and according to the best available information at that period, Korea was reputed to be a tributary empire of China. Whatever their relations, whether distant or close, tributary or independent, amicable or unfriendly, the first authentic information which reached our government came through the Chinese authorities, and was, in substance, that the crew of the *General Sherman* had been assaulted and murdered, and that the vessel had been burned by the natives on the west coast of Korea. Neither the time nor the circumstances of this outrage, nor the precise locality where committed, were communicated, if they were known.

An examination of the map shows the peninsula of Korea projecting southerly between the empires of China and Japan, and lying directly in the route of commerce between two empires whose ports were open to the trade of the world. In the usual course of commercial interchange, with the frequent bad weather of those seas, it was to be expected that wrecks would occur to vessels caught near the Korean littoral. Every principle of justice required that trading should be regulated by treaty, and that those who were unfortunate in falling upon these coasts through stress of wind and weather should be regarded and cared for humanely, and the helpless returned to the protection of their government whenever opportunity should occur. Circumstances had so shaped matters that the time had come in the affairs of Korea, lying, as she did, directly athwart the route of the world's trade, when she must in time and in turn woe into line as a protector of those whom misfortune had cast upon her shores, and give up forever her older practice of slaughtering them.

Towards the fall of the year 1869 Rear-Admiral John Rodgers, an officer of brilliant reputation throughout the country, was ordered to command the United States Asiatic Squadron. His prompt action in the operations of his squadron afterwards, which this paper aims to recall and recite, sustains the wisdom of his selection for the duties of this important command.

The earliest available diplomatic correspondence on the subject of communicating with Korea took place between Consul-General George F. Seward at the port of Shanghai, China, and the Honorable William H. Seward, then Secretary of State, and dated October, 1868. In this communication the Consul-General set forth the advantages that would probably occur to the trade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if a general commercial treaty could be made with the Korean government. While there was some question in his mind whether the results of this intercourse might overthrow the then existing order of things in Korea, he yet thought that the balance of advantages would be such as to justify the attempt. His long experience at a most important post of duty, and his complete familiarity with Eastern politics, enabled him to set forth in a most excellent state paper the importance of this expedition to Korea.

The Consul-General was under the impression that the entire into the loss or destruction of the schooner *General Sherman*, and if it was found true that the crew had been wrongfully treated, as reported, then indemnity should be required. The reasons for this suggestion become apparent when he states that "It cannot be well to let pass uninvestigated a matter which there is every reason to believe may have been a very grave outrage on a vessel and persons sailing under our flag," and his fuller meaning will be com-

prehended better when it is borne in mind that at that period there was a strong anti-foreign feeling throughout the East. If the foreign powers permitted the wrongs of their subjects to go unredressed, an obvious and unfavorable change immediately took place in the demeanor even of the working coolies towards foreigners. Their anti-foreign swagger and insolent parade in the foreigners' presence indicated what the feeling was among the upper classes.

It was therefore of the first importance to our interest and standing in the East at that time to investigate this *Sherman* outrage on the coast of Korea, and the writer is satisfied that the result which Admiral Rodgers accomplished in 1871 in storming and capturing the forts on the island of Kang Hoa largely increased the prestige and safety of foreigners in all treaty ports of the Eastern empires. It surely put an end to that savage unrest which culminated in the massacre of helpless, innocent, foreign missionary women at Tien Tsin in 1870. In effect, it was a reminder to all the Eastern nations that treaty stipulations would be insisted upon, while it gave assurance to those domiciled in the East that they and their interests would be guarded by their governments so long as they conformed strictly to the stipulations of existing treaties.

It was intended to charge Rear-Admiral Rowan with this duty, but the difficulties of far-off situations, considered with the tedious delays of diplomatic communications in affairs that have to be worked over and over again in the absence of overt acts to excite attention, or to arouse sufficient enthusiasm at home to justify resort to corrective aggressive action, resulted in the expiration of service of this officer on that coast, and his relief was ordered. The choice of his successor in Rear-Admiral John Rodgers could not have been happier. No officer of the navy stood higher in public esteem. None more amply deserved the honors won, and surely no one had more modestly or more worthily worn them. Completely equipped in his profession, sound in judgment, rare in tact, modest in manner, gentle and just by nature, but most determined and fearless in standing for and defending his country's rights.

The squadron assigned to the Asiatic station under his command was composed of the following vessels, namely: United States steam-frigate *Colorado* (flag ship), 52 guns; corvette *Albatross*, 16 guns; corvette *Benicia*, 16 guns; gunboat *Monocacy*, 10 guns; gunboat *Asheolt*, 10 guns; gunboat *Palos*, 4 guns; gunboat *Millet*, 1 gun; store-ship *Idaho*, 4 guns.

Toward the middle of the year 1870 this fleet had arrived in the waters of the Asiatic station. Indefinite rumors spread throughout the ships that their destination in the near future was to be the coast of Korea. Very naturally the conclusion was at once formed in the mind of every one, by those curious processes of reasoning which are so often used to fix a desired result first, and then afterwards to adjust the progressive steps which lead up to it, that Korea was to be the objective point of this fleet, and that its mission would be first to inquire into the outrage upon the *Sherman* and her crew; this concluded, to make a commercial treaty with the government of Korea. Just how these things were to be brought about without a collision was not clear in the mind of every one, but it was not essential to consider this part of the programme except as a matter of speculation at this time.

The rumors of the squadron's destination in time reached the shore at most of the treaty ports in China and Japan, where the matter was much discussed at the clubs and in the homes of foreigners. In all these discussions it was a little curious to listen to the various opinions about Korea. Not a soul had the faintest idea of the country, its productions, or its people; no white man had ever visited it, except clandestinely, yet scores of people knew the whole situation. The country was said to abound in wealth, the scenery to be grandly picturesque, the roads were said to be almost impassable, the inhabitants to be giants in stature, their strength reputed to be herculean, their ferocity that of the tiger, their arms the latest possible inventions, and their marksmanship was said to rival that of William Tell; their resources were without limit, and their courage—well, that was only equalled by the historic defence at Thermopylae. Such were the stories that met one on all sides.

1871년 6월 11일 오전 미군이 함락한 모노카시 요새(초지진)

an exodus of its people took place, carrying their household goods and live-stock. The fishing-junks met *en route* were careful to avoid the ships, and fled precipitately inshore. The squadron was avoided so completely that it became very difficult to establish communication.

It must be borne in mind that the original object of the expedition was strictly pacific, that its purpose was to make a general commercial treaty with the Korean authorities, and to include provisions looking to the humane treatment of all luckless mariners who through any adversity should be cast away upon their shores. It hardly needs to be explained how important this feature was to the civilized trading nations of the world, whose vessels were obliged in all weathers to pass and re-pass these shores. To impress the people met *en route* to the anchorage that the mission of the squadron was entirely pacific, the commander-in-chief carefully ordered that no demonstrations, except of the friendliest character, should be made by those in the steam-bunches toward fishermen or others met by them. In one or two instances during calm weather these launches in their work of surveying came up with the fishing junks, but the inmates appeared alarmed, and communication was absolutely refused. In one instance, close to the shore, the crew of one of these junks jumped overboard and swam to the beach.

At the final anchorage of the squadron much the same avoidance was noted, and to communicate in a country where the postal facilities were closed to foreigners, resort was had to depositing official communications upon a pole stuck in the ground, well above high-water-mark on the east bank of the river. These documents would remain all day untouched, but when the cover of darkness had come the pole was visited, for the despatch was always gone at daylight. Similarly, the reply was carried during the night and fastened to this pole, that it might be collected in turn by us during the daylight.

The opening despatch of the Minister and the commander-in-chief—for they acted in complete accord—announced to the Korean authorities the arrival of the squadron, its peaceful purpose, and its object in visiting the Korean waters. The reply to this despatch was evasive in tone, somewhat lofty in style, and at the same time deprecatory. It stated, virtually, that if the squadron was hungry, food would be supplied when it was desired to leave their waters; but if it had come to change their customs, the Admiral was reminded that it would be difficult to overturn the prejudices of four thousand years. Other despatches received informed the Admiral that a man of his nation, named Febiger, had come to their country and communicated, then went away. The Admiral was asked why he did not do the same. In another communication the commander-in-chief was informed that in 1865 a people, called the French, had come, and he was referred to them for what happened. That the people of the kingdom had lived in the enjoyment of their own civilization four thousand years, and wanted no other. That they troubled no other nation, and why should they be troubled by them. That the Admiral's country was the furthest west, and theirs the furthest east, and for what purpose had he come so many thousand miles across the sea. He was asked also if he had come to inquire about the vessel destroyed, the *General Sherman*.

We have, then, in this last communication received, the

HARPER'S WEEKLY

key-note of the whole situation. The non-intercourse and alarm observed can be better understood in this inquiry about the *General Sherman*. Now that a force was at hand, it was only natural to fear that it had come to adjust that incident. The consciousness of wrong-doing in that affair had worked their fears into general distrust of the squadron, otherwise it will be difficult to understand the consternation created by its arrival. The inference was fair, from the despatches, that the Korean authorities, although professedly desiring not to be troubled by other nations, had nevertheless troubled themselves to find out considerable about their geographic positions and forms of government.

Communication in the manner described was extremely uncertain, very slow, and always unreliable. The Admiral, therefore, with a view to facilitate matters and to improve the despatch of his business, and at the same time to allay any alarm, sought and obtained authority from the Provincial Governor, an official personage of rank commanding in the village on the mainland west of the anchorage, to change the squadron's anchorage to a point higher up the Salce River, and nearer their capital, Seoul.

Before this change of position could be made it was again necessary to send a surveying party ahead, as had been done when entering from the sea; much more imperative in this latter instance, from the fact that the tidal current was of great rapidity, with a rise and fall of about twenty or thirty feet. The river-bed abounded in rocky places that might be passed over at high water, but upon which a vessel of ordinary draught would ground at low tide. Great mud flats and rocky patches were uncovered by each low tide, so that navigation of the river was impossible without some form

of chart; yet there was sufficient water for ships of deep draught several miles above the anchorage of the squadron. A couple of days before any movement was made looking to this contemplated change of anchorage several Korean officials visited the flag-ship, confidence having been gained by our continued inactivity. As these officials were of inferior rank to both the Minister and the Admiral, and as the object of their mission was apparently more friendly than official, they were not received by either the Minister or the Admiral. Instead, however, they were handed over to the commanding and other officers of the flag-ship, and by them they were shown much politeness and courtesy. Expressing a desire to look over the vessel, they were shown her machinery, her small arms, and her powerful battery, and they were much impressed with these evidences of power. They were sociable, quite communicative, and explained their relations with the Chinese government and the manner of their commerce with its people. They told the name of their king, the numbers of their army, their form of government, and other interesting matters about their people, but appeared to be ignorant of the world outside. Before leaving they were told of the authority granted to make a survey further up the river, and were asked to let it be known generally, and to explain the friendly character of the work. When these officials left the ship they appeared to be perfectly satisfied with their reception, and expressed many kindly and friendly assurances.

A day or two after these officials left the flag-ship—at 3.30 o'clock, June 1, 1871—the *Monocacy*, Commander E. P. McCrea, the *Palos*, Lieutenant C. H. Rockwell, with four steam-launches in charge of Lieutenant-Commander C. M. Ches-

ter, Lieutenant W. W. Mead, Lieutenant G. M. Totten, and Master Seaton Schroeder, got under way in obedience to the commander-in-chief's orders, to continue the survey as begun on entering from the sea. The little launches with their small draught preceded the two gunboats some distance, and as the soundings were made and located by angles, signals indicating the depth of water were made to the gunboats following. It was their part of the work to determine the courses and distances to be run and the outline of the river-banks. The tide was running flood at the time, and this instant was chosen for the reason that if the vessels grounded the rising tide would release them. Nothing seems to have been omitted by the Admiral, whose constant purpose appeared to be to impress these suspicious people with the friendliness of his purposes; therefore Mr. Cowles and Mr. Drew, the interpreters, accompanied this surveying expedition on board the *Palos* to explain its purpose if the up-river authorities should doubt its propriety.

Commander McCrea of the *Monocacy* was placed in command, and was charged to execute his instructions in the most peaceful manner and with the greatest possible despatch, but under no circumstances to make use of his force unless he was attacked, and in that event to destroy the attacking force.

Passing a bend in the river, an open stretch of several miles came into view. On the left bank, well above the water, several fortifications were constructed of stone, containing cannon mounted with some care, though of types unknown to our modern war literature. Like most of the forts found in these Eastern empires at and before this time, they were mainly intended to meet assaults from the

front, while the rear was wholly without provision for attacks of an enemy whose assault should take place from that direction. All these fortifications appeared to be manned, so to avoid surprise, the crews of the surveying vessels were at quarters for action.

The channel in the upper river between these forts narrowed to about three hundred yards, and the guns of the fortifications were so concentrated as to sweep certain points of it—front, flank, and rear. In this particular the wisest modern arrangements could not exceed those made by these Koreans; only one important feature had not been considered in the construction, and that was the use of steam as a motive power in the vessels assailing them. The guns, once fired in their established direction, could not be trained, as they were fixed in pairs, side by side, upon log structures filled in with earth, with the breech supported against trees back of the walls to cheek recoil.

At the head of this reach, where the river turned abruptly to the left around a promontory some one hundred feet high, a central citadel was constructed, surrounded by a wall of stone and earth about eight feet high, with a trench dug on its inside in imitation of the moat usually found around the exterior of civilized fortifications. At the foot of this promontory, but above the high-water-mark of the river, a wall with crenellated top had been built. From embrasures in this structure quite a half-hundred guns projected. Backward and upward this promontory sloped to the crest, which was surmounted by a citadel some eighty feet in diameter, so that the whole promontory presented a view somewhat like the frustum of a cone. To the left or westward of this citadel lay a ravine about seventy feet deep, extending across

780



미 해병대와 수병들 수중에 들어간 저지대 요새

LOWER FORT IN POSSESSION OF BLUEJACKETS AND MARINES.

the peninsula to the river, north of this promontory, and isolating it from the line of ride-pits and other defences along the hill-tops beyond the ravine. These defences were intended to hold an enemy in check until the defending forces around this promontory could have time to retreat safely into the citadel from the outlying defences.

In one angle of this quadrangular-shaped citadel a large tent was erected, and from a tall bamboo pole a few feet in front of it floated a large yellow flag containing some characters, which, our interpreters afterwards stated, were intended to indicate the headquarters of the commanding officer. In another angle of this fortification a number of thatched bamboo sheds were constructed, no doubt as quarters for the soldiers. On the walls of the forts and along the slopes of the hills, near these fortifications large groups of men were collected, but it was not imagined their purpose was hostile; it was thought to be merely curiosity.

On a bold bluff to the right going up the river, and on the mainland of Korea, another small fort was so placed as to converge its fire upon a point of the river, making a cross-fire with the batteries opposite on the peninsula, which was, in fact, the island of Kang Hoa.

When the surveying vessels had reached this vicinity the groups of men already observed suddenly disappeared, and a signal gun was fired from the citadel. Only a moment elapsed, when a furious fire was opened upon the surveying vessels from the forts situated on both the mainland and the island of Kang Hoa. A perfect storm of missiles struck about the ships and launches, but fortunately did no harm, as the guns had been ranged upon points in the channel during low water, while the increasing tide allowed the vessels to pass over a different route from that contemplated by the artillerymen in laying their guns. The surveying vessels instantly opened their batteries upon the forts, and the engagement became general until they passed completely above them, silencing their guns in passing. An incident of much interest in this attack upon the ships was the heroic behavior of Master Seaton Schroeder, in command of the steam-launch of the corvette *Benicia*. Earlier in the day, at a point below the forts, while sounding out the channel, the lead line in some manner fouled the launch's propeller; some time was taken to clear it, and this delayed the little steamer until all the other vessels had gone by the forts. It was an ugly position for a little steam-launch with only one small howitzer mounted in her bow, but Schroeder's orders were to go up with the other vessels, and this was sufficient; without hesitation he pointed her up the river, and passed the forts under a perfect cyclone of projectiles. It was an instance of heroic determination to obey his orders, and in so doing he doubtless counted upon the boldness of his manoeuvre to disarrange the enemy's fire. This did happen, for his party escaped without material damage. In any other service in the world his reward would have been promotion at least one grade.

The passing of these forts was not without severe damage to the *Monoway*, as she ran upon a submerged rock in sweeping a turn around the promontory, and seriously injured her bottom plating. When she returned to the anchorage of the squadron below, she was obliged to run on to the mud flats abreast the fleet to repair a serious rent in her bottom plates. She was sent to Shanghai, China, after the operations closed, and at this writing is still an efficient cruiser on the Asiatic station.

After the vessels had succeeded in passing the forts, they turned about to repass them. This time, however, they were the aggressors, and did not wait for the enemy's fire, but began a tremendous bombardment of each fort as it came within range. The reverberation of the heavy guns was

heard on board the vessels below, and from positions aloft the smoke of battle could be seen rising up over the hills about the fortifications. Occasionally a shell that had struck the ramparts was seen to burst in the air above them, but the fire of the enemy during this attack was feeble, and was

mainly from the guns that had not been fired at the vessels on their way up.

The forts were only repassed when they had ceased to show any further resistance. The cannonade by our vessels was furious and destructive, and it awakened some of the rec-



Charles D. Greene 1914

01 THE KOREANS ON BOARD SHIP



02 INSIDE FORT DU COUDE AFTER THE HAND-TO-HAND FIGHTING.

- 01 배 위의 조선인들
- 02 육박전을 치른 뒤 광경진 내부
- 03 48시간 군사 작전을 펼치는 지성관과 배들의 위치를 보여주는 지도

ollections of earlier years. On board the ships at the anchorage below, the excitement was intense, and the fleet was immediately prepared for general action. On the hill tops surrounding the anchorage could be seen crowds of anxious Koreans, who had gathered on these elevated places to witness the battle, and, no doubt, experienced some dismay at the spectacle of the ships returning apparently uninjured after having passed and repassed the fortifications which they had thought were impregnable and impassable.

When the little surveying fleet had returned and reports had been made of this unprovoked assault upon them, the commander-in-chief resolved to land the squadron battalion the following day to avenge this insult. But further reflection brought to his mind the conclusion that this attack might not be justified by the government of Korea, and even though the situation was grave in the extreme, it was thought that the breach might still be repaired if the act were disavowed and due reparation made. With this view the order to land next day was countermanded, and a laudable attempt was made by the Minister and commander-in-chief to arrange the matter diplomatically. As communication was slow, and made a trifle more difficult by this unfortunate incident, it was determined to postpone any hostile movement for at least ten days. For a number of reasons this was a wise determination. The injury to the bottom of the *Monoway* was to be repaired, and this would require some days. The tides, which were at full spring, made navigation a little dangerous on account of the strong current, and if operations should become imperative in consequence of failure on the part of the Korean authorities to disavow the hostile act of their officers, or to make suitable apology for the insult, the military advantage of the lesser tidal current ten days later would be more in favor of the government of Korea to deliberate fully upon this matter; as well as to have communicated with the principal authorities responsible for this attack of June 1st, and no explanation of it having been tendered, no officer, under the circumstances, charged with important public duties abroad, upholding his country's honor, could, with any self-respect, omit the opportunity to repair, in his own way, this unprovoked assault on peaceable and friendly visitors.

The appointed day and hour having arrived for landing the force designated, active preparations were begun on board all the ships of the fleet early in the day, and by 10 A.M. the entire force was afloat in the boats of the squadron and in their assigned positions astern of the *Palos*, to be towed to the point where the landing was to take place. This organization was as follows: Commander-in-chief, Commodore H. C. Blake, U.S.N., on board the gunboat *Palos*. Commanding land forces, Commander L. A. Kimberly, U.S.N. Adjutant-General, Lieutenant-Commander W. S. Schley, U.S.N. Commanding Right Wing, Lieutenant-Commander Siles Casey, U.S.N. Commanding Left Wing, Lieutenant-Commander W. R. Wheeler, U.S.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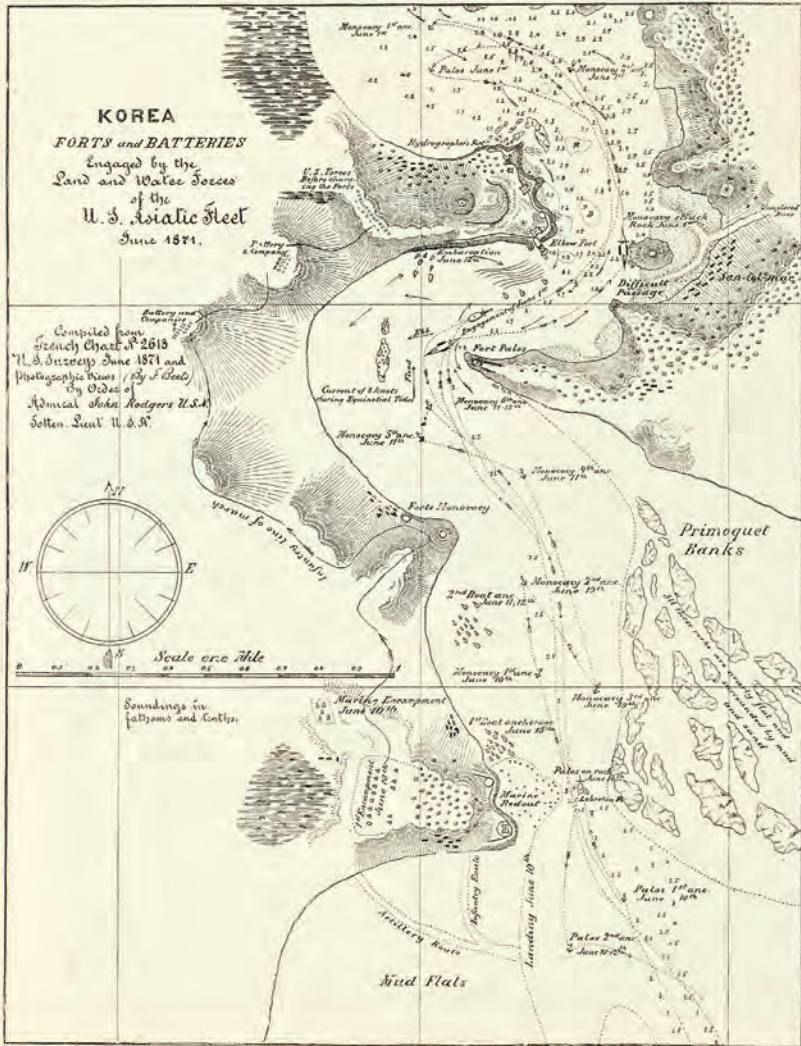
This note set at rest all hope of reparation or of disavowal on the part of the Korean government. To the Minister

and to the commander-in-chief no other recourse was left than that just appeal of notions after diplomacy has exhausted every honorable means to peacefully adjust disagreements. A critical stage in this affair was now at hand; but, most fortunately, there was at the head of the naval forces an officer who had never before in his career hesitated to accept the gauge of battle when thrown down to him by an enemy, and the narrative of what follows will indicate that he was true to his general character, and that having complied most fully with every just consideration of this matter, he determined to settle the controversy by a resort to arms. Accordingly the order was issued fixing June the 10th, at 9.30 o'clock A.M., when the squadron forces, consisting of a battalion of infantry, seven pieces of artillery, and a corps of sappers and miners, should be landed, and supported by the gunboats *Monoway* and *Palos* and four steam-launches.

A day or two before this expedition left the ships a Korean junk drifted down the river, and was directed by her crew alongside the flag-ship *Colorado*. This junk contained several cattle, a large quantity of vegetables, and some eggs, intended as a present to the Admiral. A communication brought by the master of the junk stated that these articles were sent to the foreigners who had come many thousands of miles, and who were doubtless much in need of some-

thing to eat. As there had been no apology made up to this time, no explanation offered, or no reparation tendered by the Korean authorities for the attack made upon the squadron on June the 1st, Admiral Rodgers replied that until this action could be explained he would be obliged to decline their friendly gifts, and with this assurance dismissed the junk and her cargo. Sufficient time having elapsed to enable the government of Korea to deliberate fully upon this matter, as well as to have communicated with the principal authorities responsible for this attack of June 1st, and no explanation of it having been tendered, no officer, under the circumstances, charged with important public duties abroad, upholding his country's honor, could, with any self-respect, omit the opportunity to repair, in his own way, this unprovoked assault on peaceable and friendly visitors. The appointed day and hour having arrived for landing the force designated, active preparations were begun on board all the ships of the fleet early in the day, and by 10 A.M. the entire force was afloat in the boats of the squadron and in their assigned positions astern of the *Palos*, to be towed to the point where the landing was to take place.

This organization was as follows: Commander-in-chief, Commodore H. C. Blake, U.S.N., on board the gunboat *Palos*. Commanding land forces, Commander L. A. Kimberly, U.S.N. Adjutant-General, Lieutenant-Commander W. S. Schley, U.S.N. Commanding Right Wing, Lieutenant-Commander Siles Casey, U.S.N. Commanding Left Wing, Lieutenant-Commander W. R. Wheeler, U.S.N.



03 MAP SHOWING POSITIONS OF SHIPS AND LAND FORCES ENGAGED IN THE FORTY-EIGHT HOURS' CAMPAIGN.

Commanding Company A, Lieutenant-Commander O. F. Heyerman, U.S.N. First Lieutenant Company A, Ensign C. A. Clark, U.S.N. Commanding Company B, Master F. J. Drake, U.S.N. Commanding Company C, Lieutenant G. M. Totten, U.S.N. Commanding Company D, Lieutenant H. W. McKee, U.S.N. First Lieutenant Company D, Master C. W. Culp, U.S.N. Commanding Company E, Lieutenant B. McVaine, U.S.N. Commanding Company F, Master J. H. Pillsbury, U.S.N. Commanding Company G, Master T. C. McLean, U.S.N. Commanding Company H, Master R. M. G. Brown, U.S.N. First Lieutenant Company H, Mate Calender, U.S.N. Commanding Company I, Captain McLane Tilton, U.S.M.C. First Lieutenant Company I, Second Lieutenant W. J. McDonald, U.S.M.C. Commanding Company K, First Lieutenant J. B. Reese, U.S.M.C. First Lieutenant Company K, First Lieutenant F. M. Mollany, U.S.M.C.

ARTILLERY DIVISION. Commanding Artillery, Lieutenant-Commander Douglas Cassel, U.S.N. Commanding Right Battery, Lieutenant A. S. Snow, U.S.N. Commanding Left Battery, Lieutenant W. W. Wood, U.S.N. Chief Right Section, Ensign Seaton Schroeder, U.S.N. Chief Left Section, Ensign F. S. Bassett, U.S.N. Chief Left Centre Section, Mate S. Greenway, U.S.N. Chief Left Section, Master A. V. Watkins, U.S.N.

PIONEER DIVISION. Commanding Pioneers, etc., Mate Quinn, U.S.N.

HOSPITAL CORPS. Past Assistant Surgeon C. J. T. Wells, U.S.N.

Assistant Surgeon Latta, U.S.N.

Assistant Surgeon W. P. Corwin, U.S.N.

Chief Engineer A. Henderson, U.S.N.

Captain's Clerk, D. Holland, U.S.N.

STEAM-LAUNCH DIVISION. Commanding, Lieutenant-Commander H. E. Pickens, U.S.N., in *Albatross*.

Second Assistant Engineer H. L. Sisson, U.S.N.

Commanding the *Benicia's* launch, Mate Samuel Gee, U.S.N.

Second Assistant Engineer, George H. Kearney, U.S.N.

Commanding the *Albatross's* launch, Master Nicholas Rosevelt, U.S.N.

Second Assistant Engineer, Theodore Cooper, U.S.N.

OFFICERS OF THE GUNBOAT "MONOWAY." Commander E. P. McCrea, U.S.N., commanding.

Lieutenant-Commander D. E. Mullin, U.S.N.

Lieutenant J. T. Gardner, U.S.N.

Master J. B. Smith, U.S.N.

Master T. C. Force, U.S.N.

Second Assistant Engineer, H. D. Potts, U.S.N.

Second Assistant Engineer, L. B. Harmony, U.S.N.

Surgeon Somerset Robinson, U.S.N.

Paymaster C. D. Mansfield, U.S.N.

OFFICERS OF THE GUNBOAT "PALOS." Lieutenant C. H. Rockwell, U.S.N., commanding.

Lieutenant J. E. Jones, U.S.N.

Ensign James Franklin, U.S.N.

Mate N. C. Fuller, U.S.N.

Mate J. C. Howard, U.S.N.

Mate T. M. Nelson, U.S.N.

Mate F. C. Van Buskirk, U.S.N.

Assistant Surgeon F. K. Hartwell, U.S.N.

Assistant Paymaster D. K. Paulding, U.S.N.

First Assistant Engineer John Lowe, U.S.N.

The force landed under command of L. A. Kimberly, U.S.N., comprised 10 companies of infantry, aggregating 450 men, with 7 pieces of artillery, whose crews numbered about 100 men. The officers, the staff, the pioneer and hospital forces numbered some 168 persons.

The force afloat, under the general command of Commander H. C. Blake, commander-in-chief of the expedition, whose flag-ship during the attack was the gunboat *Palos*, comprised the gunboat *Monoway* with a crew consisting of 10 officers and 140 men, with 10 officers and 50 men on board the *Palos*, the 4 steam-launches with 8 officers and 60 men, and some 40 men left to guard the boats of the *Colorado*, *Albatross*, *Benicia*, *Monoway*, and *Palos*, used in landing, and left afterwards on the beach.

The total force operating against the fortifications on Kang Hoa Island on June 11, 1871, was as follows: Land forces, 618 officers and men; force afloat, 318 officers and men—or a grand total of 936.

The battalion organization was maintained in the boats for landing, so that the right wing or right flank of the force occupied the boats at the head of the towing-line. The left wing or left flank of the force occupied the rear of the towing-line astern of the *Palos*. As the artillery occupied the centre of the battalion, the boats containing the several pieces were placed in the middle of the line of boats, consisting of some 21 or 22 in number. The little squadron of steam-launches flanked this boat squadron to the right and to the left during the advance up the river, leaving the *Monoway* free to shell the forts and banks ahead of the battalion. As soon as the position chosen near the lower fort had been reached, signal was made from the *Palos* for the boats to cast off and form line abreast for landing. In executing this order it was only necessary for the line of boats astern to cast off their painters and turn 90° to the left. This formation brought the battalion into battle-line, ready for landing, with its right flank up the river. As this lower fort was manned by the enemy, the *Monoway* and the *Palos* commenced a furious bombardment to dislodge the troops, or, failing in that, to keep down the severity of their fire in order that the battalion might land without being assailed by too heavy a fire from the fort. The objective point of the battalion was a position directly under this lower fortification, but as the line of boats was necessarily long even in the closest rowing order, and as the shelter of the beach was very limited, a number of these boats, some of them containing the artillery, were obliged to land on the mud flats some quarter of a mile below. At this point of landing a portion of the battalion was somewhat in the rear of the fortification, and the immediate effect of this manoeuvre was to cause instant retreat of the enemy back into the country and up the paths back of the line of works on the river-front to avoid being cut off before it was too late. Some little delay occurred, but no confusion whatever, in reforming the left flank on account of the mud on these flats, which in places was almost knee-deep. The artillery was easily extricated by their drag-ropes, manned by the artillerymen and infantry, so that by four o'clock in the afternoon the entire force had landed and taken possession of the lower fort without fighting, only a few desultory shots having been fired after the retreating enemy.

The commanding officer being entirely without any map showing the roads or the topography of the country, which until this time was almost unknown, except in name, to the civilized world, was obliged to send out reconnoitring parties in order to select a position for the night, it being too late after this was done to advance further. A hundred yards from the river, in the rear of the fort first occupied, an elevated plateau was discovered and seized. Approaches to it up or down the river were protected by the gunboats, while the only access to this position from the front was over a narrow causeway flanked on either side by a deep morass. After posting the artillery and the several companies in position to resist assault, and having established a line of pickets beyond this morass in the front, the battalion bivouacked for the night in a strong position. Towards midnight shots were exchanged on the picket-line, and a

message from the front reported the enemy near that position. After some desultory firing between the pickets, the commanding officer, Captain Tilton, withdrew upon the main line of defence, in accordance with his instructions.

Some distance away, on the opposite side of this morass, gunshots were frequent, and, taken with the din of the noise made by tomtoms and the hurraing of crowds of persons, it was believed to be the intention of the enemy to make a night assault. This challenge was answered by several artillery shells, which burst over or among the enemy, with the effect of checking both the noise and the demonstration. It was fortunate for the enemy that no assault was made by him that night, for the battalion was fully prepared for business.

After quiet had been restored, Commander Kimberly immediately called a council of war to determine the course of action at daybreak. At this council the consensus of opinion was that celerity of movement should characterize the battalion's work; that the line of march should begin at daybreak; wherever the enemy was met the fight was to be to the finish; if it should be the good fortune of the battalion to gain—and it meant to do so in the first struggle—the advantage was to be relentlessly followed up; no rest was to be given the defeated foes, for as long as they had strength enough to retreat, the battalion could be counted upon to have to fight as much to pursue; no time was to be given the flying forces to reform; every blow struck was to be followed by one of greater force; in fine, it was decided to make war upon them after the most approved modern methods, and to spare nothing that might be reached by shot, shell, fire, or sword.

Accordingly, as the first golden streaks of morning shot upward in the skies on that June 11th, the battalion, having already breakfasted, broke camp and started upon its march up the river, preceded by the pioneers and skirmish-line. There being no roads worthy of the name, the battalion was obliged to advance in column of fours, with two pieces of artillery ahead, three in the centre, and two in the rear, and even in this formation it was found necessary in many places to employ the pioneers to hew out a path wide enough to permit them and the artillery to pass. The country was wild and uncleared on the slopes along the river-bottom, so that the advance was considerably delayed; but, notwithstanding these obstacles, the second fort, known as Marine Redoubt, and afterwards called Fort Monocacy, about three-quarters of a mile distant from the first camp, was reached and taken almost without resistance at about 6.30 A.M., after a furious bombardment from the *Monocacy*. The enemy's retreat had been so precipitate that the morning breakfast was found to have been left boiling over the fires in their stew-pots. Not delaying longer than was necessary for the force to dismount and throw the guns into the river and set fire to the buildings in and about this fort, which, unfortunately, later in the day reached and destroyed an entire village lying to the north of this fortification, the column set out through dense undergrowth, over steep hills, and across morasses to gain the higher lands away from the river-bottom. The objective point was in this instance Fort Du Coude, after wards called Fort McKee, which lay at the elbow of the river above and some two or more miles away. After a tedious march in intensely hot weather and under a burning sun, on emerging into clear ground the enemy was discovered in force on our left and front, apparently intrenched on a commanding hill awaiting attack. The battalion was at once thrown forward into line of battle, and a skirmish-line thrown out towards the enemy's position. It was discovered almost immediately that a mistake had been made by choosing his position. Profiting by the discovery, and seizing the opportunity to improve this advantage, Commander Kimberly threw forward the right wing under Casey, who seized and held a stronger position more directly in the line of advance. This position commanded the line of retreat if defeated, and held in check any attempt of the enemy to re-engage "Horse-Shoe Citadel," or Fort Du Coude. Kimberly then moved his left up to this position, and detailed Companies A, B, F, with three pieces of artillery in charge of Lieutenant Snodgrass, the whole under the command of Lieutenant-Commander Wheeler, with directions to hold this position at all hazards. The right wing, under Casey, was then thrown forward, re-enforced by one or two companies of the left, to make the main attack. The Adjutant-General was directed to represent Commander Kimberly in the operations of this wing against, and its final assault upon, Fort Du Coude.

Signal was at once made from headquarters to Commander McCrea to open fire from the *Monocacy* and steam launches upon Fort Du Coude and San-tol-mac, opposite. This bombardment was destructive and terrific. It cut off entirely from the enemy all chance of retreat along the river-front. Unfortunately the *Pulos* anchored over a small unknown reef at high-water on the night before, just below the lower fortification, and upon which she grounded heavily with the fall tide and was careened enough to ship off into deep water. Owing to this mishap a grave injury was sustained in a large jagged hole through her bottom plating, which seriously involved her safety, and which obliged her commanding officer to forego most unwillingly any risk in the operations of the next day. This accident was a sore disappointment to all her officers and men, as it limited her further participation to guarding the boats below and to protect the rear of the battalion. During this bombardment by the *Monocacy* the re-enforced right wing, under Casey, was advanced to the brow of a ravine distant about two hundred yards from the citadel or Fort Du Coude. At this point Lieutenant-Commander Cassel, with a small detachment of men from the two left companies, supported by two pieces of artillery, was deployed to the left to occupy and hold a slightly elevated plateau commanding the only road for retreat of the enemy up the river. A message was sent from Kimberly at this moment stating that he had established his headquarters on high ground, midway between the operating wings, and with both completely under observation.

As soon as the Koreans in front of Wheeler's command observed the division of the forces for the movement upon Fort Du Coude, they appeared to gather in great numbers from all quarters to attack. The fatal accuracy of our artillery and breech-loading muskets upon their advancing lines seemed to terrify them, and they were driven back in great disorder and in much confusion. It was almost too much to expect that they would face this deadly fire from breech-loading muskets, or the terrible effect of artillery shells, although several assaults were made and effectively repulsed. The enemy was never able to get within fifty yards of Wheeler's line, when their ranks would waver and finally break, to flee in great disorder to the nearest shelter.

Wheeler's position guarded the rear, so that he was obliged, under all circumstances, to hold it as of the most

vital importance to our forces on the shore, hence his unyielding resistance to every assault upon him.

Kimberly, perceiving this movement in the rear, and being fully alive to the importance of rapid combinations, hastened the movement in the front. By forced marching the right wing reached the ridge of the ravine separating it from Fort Du Coude, having skirmished with the enemy for a distance of quite half a mile, over an irregular and rough country, under a tropical sun, and in burning heat finally drove in the enemy and captured a number of battle-flags posted along a line of rifle-pits perpendicular to our line of advance. The column halted at this point to take a breathing-spell, as well as to fill all canteens with water and all cartridge-boxes with ammunition for the final assault about to be ordered.

On the opposite side, in the fortifications on the hill, a solemn chant or dirge was being sung by the Koreans. Every soul in that fort appeared to join with enthusiasm; but whether this was meant as defiance, or whether it was in accordance with some battle custom of theirs, was all the same to the battalion. The music was weird and Oriental in character, while in rhythm it was most strikingly discordant.

The battalion being entirely rested, and all points of vantage having been seized by our forces, the *Monocacy* still firing her destructive shells into the citadel, the rear stubbornly held, and about the lines of retreat the only retreat for the enemy up river being guarded by Cassel, signal was made to Commander McCrea to cease firing.

Lieutenant-Commander Casey then ordered the battalion to deploy into open order along the crest, with the rear rank filling the interval about six feet to the rear, this being the first known instance of this formation as an accepted order of battle.

The battalion being deployed in line of battle, the marines, under Captain Tilton, were on the right, with Company H, Master R. M. G. Brown, Company C, Lieutenant G. M. Totten, Company E, Lieutenant Bloomfield McIlvaine, Company D, Lieutenant H. W. McKee, and Company G, Master T. C. McLean, on the extreme left, with Cassel and two pieces of artillery occupying a position still further to the left, completed the battle formation for the assault.

It was on Sunday, and the precise hour was 12.40 P.M., when the Adjutant-General directed Lieutenant-Commander Casey to make a charge upon the works of the enemy.

Across the ravine, on the hill, lay the citadel of the commanding general, the ramparts swarming with troops apparently eager for the coming attack. Over this fortification a large yellow standard floated, inscribed with large black letters, and within its walls there was a large and determined force of brave men, who yielded in the assault afterwards only when resistance was no longer possible. Like brave men they died, sword in hand, valiantly defending these works against their enemies, and more than that could be expected of no man. The contest was made unequal from the beginning by the use of modern breech-loading muskets and heavy modern artillery in the hands of lesser numbers of their enemy, and which no superiority of force, armed with inferior gignals and poorly made powder, could offset. The assault was a slaughter into the enemy's ranks when they struck their columns. Before starting on this charge it had been resolved to take that citadel with all in it, dead or alive. The enemy poured down upon the advancing line a ceaseless and merciless fire until it had gained a position under the ramparts, and here it was assailed with great stones, which did some damage, but which could not check its steady advance.

In such charges it always happens that some more nimble officers or men gain a position in advance of the main body, and this instance was no exception to the rule. Where all were equally valiant and resolute, it was no discredit to the others that Lieutenant McKee, the Adjutant-General, and a landsman, Seth Allen, should be the fortunate ones to reach the parapet, in the order mentioned, somewhat in advance of the main body. Within the citadel the Korean forces were drawn up in columns of seven or eight deep from the south to the north, facing the point of assault, with a double line of riflemen on the parapet behind them. The front rank was held by spearmen resting on their knees, with long lances poised to defend the column of infantry back of them, who opened a terrific fire upon those who first appeared on the parapet opposite.

It was at this moment that Lieutenant H. W. McKee and Seth Allen fell; the former was shot through the stomach and vertebra, mortally wounded, and pitched forward into the fort amongst the enemy, and was charged upon by one or two spearmen; the latter was struck by several bullets in the chest and head, and died instantly on the top of the parapet. It was an awful moment that seemed to last an hour, although only a few moments in reality had elapsed when Casey, leading his command, was over the ramparts, followed by Totten, McIlvaine, and Brown, with the marines. Almost at the same moment Captain Tilton and Lieutenant Breese, with the marines, rushed in over the south wall, and Master McLean over the north, and then the fighting in the citadel was at close quarters. Casey ordered his men to charge bayonets upon the enemy, and during this assault the carnage was terrible. For twenty-five minutes the combat was hand to hand and most desperate, but the onslaught of bayonets, with breech-loading muskets, fired the moment the bayonet had pierced the front-rank men, carrying down whole files behind, was more than human flesh and blood could be expected to stand. The enemy's lines first wavered, and then gave way, and in great confusion and consternation they sought to retreat over the crest of the hill towards the road up the river; and in doing this many lost their lives.

Many, to escape, jumped over the cliffs into the river, a hundred feet below. Large numbers took refuge below the cliffs along the river-bottom, where they were pursued, and, while stubbornly fighting, many were killed, apparently preferring

this to surrender. The larger body remaining succeeded in gaining resistance to every assault upon them. At this point Lieutenant-Commander Cassel's artillery and infantry opened a terrific and deadly fire, which interrupted all retreat in that direction, and covered his front literally with bodies piled in tiers of two and three deep. Seeing all hope of retreat cut off, and only annihilation staring them in the face, large bodies of men took to the river, and were killed in the water attempting to escape.

During the excitement of the conflict in the citadel the quarters for men took fire, and into these burning buildings many of the enemy rushed in their panic when retreat began, and perished there in the most frightful agony. Notwithstanding every effort was made by our people to persuade them to abandon these structures, they preferred death in this way to the uncertainties of capture by foreigners who were unknown to them.

How many actually perished on that day will probably never be known, although it is quite certain that the force immediately in our front was about twenty-five hundred men. All these disappeared or were swept away in the battle of June the 11th, 1871, on Kang Hoa Island.

After the smoke of battle, which hung over the field for some time afterwards, had cleared away 243 dead were found in and about the citadel alone, including the commanding general, while many gravely wounded were picked up around and about the lines of retreat. Of the numbers who perished in the river, or who in falling had caught in the cliffs, and who fell under the withering fire of Cassel on Wheeler's front, defending the rear, can never be known. But the victory was crushing, and the defeat was overwhelming at all points. Our loss consisted of only three killed, three gravely and seven badly wounded, none of whom died.

There were many instances of furious hand-to-hand combats between the men of our column and those of the enemy, but in every instance the result was in favor of the American, showing most conclusively the complete superiority of his physical training.

At the rear in Wheeler's front the enemy observed the defeat of their forces in the citadel almost at the moment it occurred, and they fled precipitately in great disorder, throwing away their arms and munitions of war and other implements in great haste as far away from our lines as possible.

Wheeler reported this disappearance of the enemy from his front about two o'clock, and was ordered a little later to join the main column in and around the citadel.

The citadel captured and our flag hoisted from its flag-pole, Kimberly moved his headquarters into this fort, and sent out reconnoitring parties under officers to destroy all resources of the enemy, to burn all clothing and supplies, and to destroy all magazines of powder or ammunition, and to burn all buildings around the fort. About 3.30 P.M. a magazine containing a large quantity of powder was discovered on the hill-side back of the citadel, and was blown up by Lieutenant McIlvaine, who narrowly escaped with his life. The vast volume of smoke from this explosion ascended 200 feet vertically in a cylindrical column, and was observed on board the ships at anchor off Boisee Island, where it created much anxiety, for the Admiral up to this time had not yet been apprised of the triumphant victory of his forces. Seeing soon afterward "Old Glory" flying from the flag-staff over the citadel, he was prepared for the news which Blake sent later in the day by steam-launch of the overwhelming rout and destruction of the enemy's forces.

About three o'clock in the afternoon signal was made to the *Monocacy* to send boats for the wounded and prisoners, which was done. The wounded, together with a number of prisoners were sent on board, as well as a large number of captured battle-flags.

McCrea came on shore in person after the battle, bringing with him a champagne lunch to the officers, and never before, perhaps, could it have been possible to partake of this bountiful collation with such keen appetite.

At 5.45 P.M. Lieutenant Hugh W. McKee died, having lingered in great agony over five hours, though conscious almost up to the last moment of his life. His dash and courage had been very conspicuous, and it was a sad misfortune to the country to lose this gallant young officer at the beginning of a career so full of promise.

Evening coming on, Commander Kimberly disposed his forces for the night in strong positions. A heavy picket-line was thrown out across the peninsula to the west of the citadel, with a supporting column close at hand. The artillery was posted in the citadel in such positions as to cover all approaches, and supported by several companies of infantry.

Supper was then prepared and partaken, when camp-fires were lighted for the night, and the battalion bivouacked, ready for any attack and guarded against any surprise. The men who had been met in the struggle were a brave and desperate foe, who, with better arms, might have prolonged the struggle more stubbornly, but the steadiness and valor of our forces had won triumphantly. It was a glorious moment in their lives, and when sleep came to their wearied bodies they went back in their dreams to home and the loved ones there, and forgot for the time the glory and the trophies of their victory.

There were no surprises by the enemy, and no noises to disturb the quiet of the watchful camp. Indeed, it may be doubted if the Koreans had yet had time to get over their surprise at the swiftness of their overthrow, for it was a veritable avalanche. As the object of the landing had been accomplished, and the insults fully and furiously avenged by the battalion, orders came from the commander in chief on the morning of June 12th to re-embark the forces and return to the ships anchored off Isle Boisee. In accordance therewith, about nine o'clock the battalion began to withdraw, precautions being taken to avoid surprise during the operation, although the enemy were nowhere in sight. Within an hour and a half all hands had re-embarked on board the gunboats and were en route down the river.

The expedition was one of the largest ever landed in a foreign country from our ships, and in some forty-eight hours on shore its operations were distinguished by celerity of movement, by promptness of evolution, and for the completeness of its triumph. Its organization was similar to that of an army, except that the proportion of officers was greater, there being one officer to every six men, which tended to secure more complete control at the crisis of operations, when the men were unavoidably excited.

Where officers and men were equally courageous, and where all fearlessly exposed themselves in fighting, it would be invidious to name any special one, but it may be said that the victory and its great consequences afterwards were attributable directly to the high qualities displayed by this force on Kang Hoa Island on that memorable Sunday, June 11, 1871.

It added a new chapter to naval glory, and it was only another illustration of the "Influence of sea power."

5

Harper’s New

Monthly Magazine

하퍼스 뉴 먼슬리 매거진

미국

연대 미상

p.738, pp.757~760

구6799

24.3×17.0

아시아 해상에

있는 미 해군

크고 작은 포탄 중 어느 것도 우리 군함이나 선박을 파손시키지는 못하였다. 우리 발포대의 활총, 팔로스호가 이동하며 쏘는 대포, 그리고 닳을 내린 모노카시호의 10인치(약 25센티미터) 포탄 세례는 조선군이 수비하는 요새를 빠르게 꺾멸시켰다. 떨어지는 포탄 사이로 양처럼 보이는 흰 외투를 입은 조선인들의 몸이 날아갔다.

이 은둔의 나라의 내부 사정을 아는 사람들은 통상 체결에 대한 모든 제안을 처음부터 무례하게 거절한 흥선대원군과 조선 조정 관료들의 어리석음, 고집 그리고 감출 수 없는 경멸스러움에 대해 놀라지 않았다. 돌처럼 냉정하고, 동정심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흥선대원군은 이 나라 군주의 아버지이다. 외국인과 기독교를 매우 증오하는 대원군은 당시 실질적인 조선의 통치자였다.

로저스 사령관은 그 위험한 공격에 대해 열흘의 여유를 두고 사과를 받으려 하였으나, 아무런 회답이 없자 응징의 전투를 준비하였다. 군함 2척, 증기선 4척, 배 20척에 10개 보병 대대와 대포 7문, 해병대 105명과 선원 546명으로 구성된 상륙 부대를 실었다. 블레이크 중령 지휘하에 모노카시호와 팔로스호의 선원까지 포함하여 총 759명의 원정대를 구성하였다. 당시 탑승하였던 장교들 중 윈필드 숄리, 사일러스 케이시, C. M. 체스터, L. A. 김벌리, 더글러스 카셀, 시턴 슈뢰더, 앨버언 워드햄 등이 유명하다.

6월 10일 모노카시호는 콜로라도호의 9인치(약 22센티미터) 화포 두 문을 지원받아 강을 타고 올라가 신속하게 10피트(약 3미터) 높이의 성벽을 부수고, 세 개의 벙랑에 세워진 다섯 개 요새 중 첫 번째 요새를 공격하며 포탄을 쏟아부었다.¹⁰ 우리 군인들은 요새 아래 800야드(약 730미터) 근방에 상륙하여 진지로 전진하였다.

요새 안의 모든 것을 파괴한 후, 해병대원들은 최전선에서 보초를 서고 나머지 군인들은 야영하였다. 어둠 속에서 흰옷을 입은 조선인들이 마치 귀신처럼 움직이며 우리 측 감시병에게 총을 쏘다. 다음 날 곡사포를 끌고 올라가면서, 우리 군인들은 ‘중간 요새(평성진)’라고 불리는 그들의 2차 방어선으로 이동하였다. 모노카시호가 그 요새를 파괴시켜 침묵하게 만들었고, 해병대는 그 요새가 버려졌음을 확인하였으며, 선원들이 그 안에 있던 모든 것을 파괴하였다.

오르막과 내리막이 이어지는 언덕과 골짜기는 여행자나 시인이라면 아름답게 느껴졌을지 모르겠지만 대포를 끌고 가야 하는 병사들에게는 매우 힘든 길이었다. 우리 대원들은 마치 독수리의 등지처럼 높은 바위산에 자리한 조선군의 거점으로 이동하였다. 어떻게 날개 없이 이런 요새를 공격할 수 있었을까? 다양한 크기의 화포 153문으로 무장한 이 요새는 북부 지방에서 내려온 건장한 포수¹¹들이 지키고 있었다.

왼쪽으로는 어둠 속에 무장한 조선인들이 미국인들의 측면으로 모이고 있었다. 후방 곡사포 부대와 전초 부대를 급습하는 그들의 수는 압도적이었을 것이다. 우리 부대원들 몇 명은 이미 열기를 피해 납작 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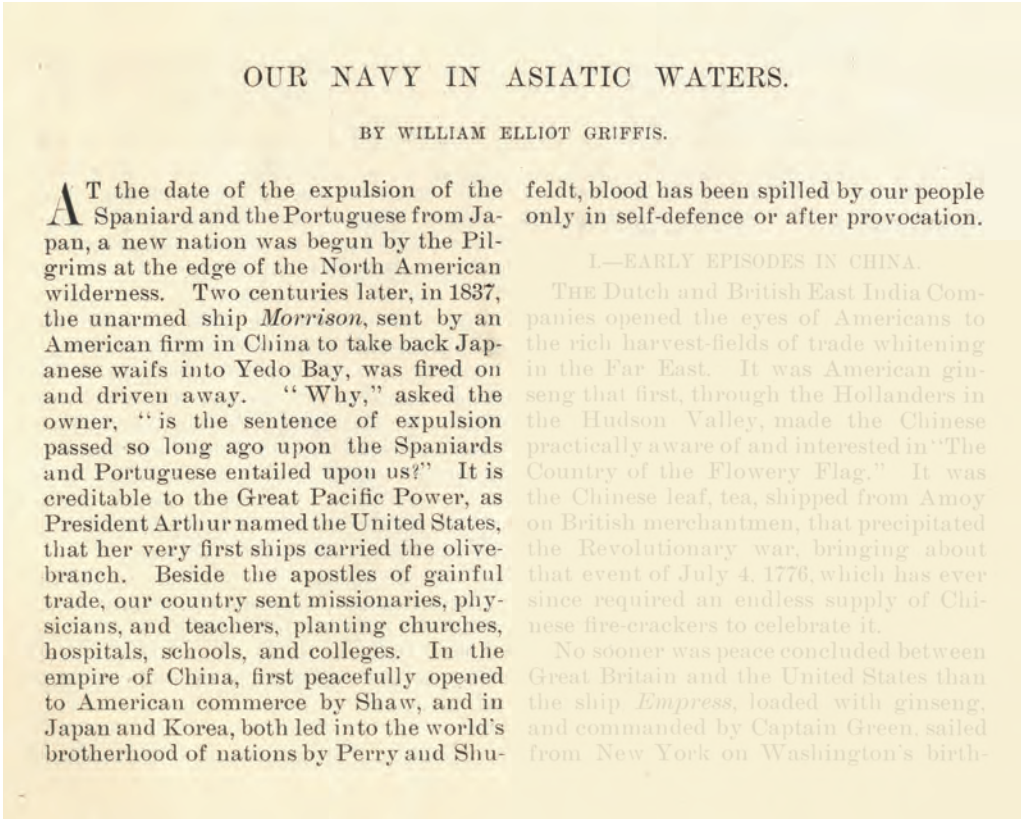
드리고 있었다. 신속하게 행동해야 했다. 우리 부대원들은 산골짜기에 서부터 진걸총과 머스킷 총의 포화를 받으며 가파른 원뿔형의 언덕을 150피트(약 46미터) 정도 올라가야 했다.

다행히 멀리서 곡사포 발포로 만들어진 연기가 구름처럼 대원들을 양옆에서 감쌌고, 다른 한편으로는 모노카시호가 발포하여 성벽을 부수었다. 진걸총의 포탄 세례 속에서 장교 케이시의 명령에 따라 적절한 순간에 우리 부대원들은 사다리 같은 절벽을 타고 올라갔다. 조선인 포수들은 장전할 수 있는 총탄이 다 떨어지자 돌맹이·흙·화살 등을 무기로 이용하였다.

육탄전으로 치절하게 싸우면서 구슬픈 곡조의 장송가를 외쳤다. 대다수가 성벽 안에서 죽었다. 몇몇 도망가는 자는 장교 매클레인의 지휘하에 선원들이 쏘는 소총과 장교 카셀의 곡사포 부대의 발포에 의해 사살되었다. 약 350명의 조선인이 사망하였다. 부상자 20명은 생포되었다. 이 성과 덕분에 나머지 2개 요새(초지진과 덕진진)는 후면이 개방되어 쉽게 진입할 수 있었다.

아군은 매키 중위 외에 두 명이 사망하였고 10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틀간의 작전 수행으로 요새 5곳, 깃발 50개, 중포 27문, 진걸총 481정과 대포 그리고 화승총 수백 정을 노획하였다. 우리 용사들은 용기·열정·군기로 가득 찬 영웅들이었다. 깃발에 상륙했을 때를 제외하고 해군의 관점에서 이보다 더 훌륭한 계획과 체계적인 전투가 가능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다. 면으로 된 갑옷, 깃발, 긴 창, 콜럼버스 시대에나 사용했을 법한 원초적인 후장식 대포 같은 것들을 워싱턴으로 이송하였다.

조선 역사의 관점에서 흥선대원군 집정 시기에 조약을 체결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었다. S. 웰스 윌리엄스 같은 권위자도 로저스 사령관의 조선에 대한 응징이 1882년 조선이 타국과 조약을 맺게 되는데 역할을 하였다고 단언하였다. 베이징에서 겨우내 협상을 진행한 끝에 슈펠트 제독은 제물포 앞바다의 미국 증기선 스와타라호에서 소국과 대국 간 평화와 우호적 관계를 천명하는 조약을 체결하였고, 미군은 조선의 새 국기 앞에서 예포를 쏘았다. 이제 서울에는 별과 줄무늬 모양의 짧은 역사를 가진 성조기와 신기한 상징과 기호로 도안된 오랜 역사를 지닌 국기가 조화롭게 나부끼고 있다. 학교와 교사, 병원과 의사는 물론이고, 미국이 부설한 조선 최초의 철도, 신식 기기 및 기술, 전기 등의 도입으로 조선은 이제 고립과 미개함에서 탈피하고 있다.



1898년 조선의 수도, 서울 미국의 감리교 대학과 프랑스 성당

feldt, blood has been spilled by our people only in self-defence or after provocation.

I.—EARLY EPISODES IN CHINA.

The Dutch and British East India Companies opened the eyes of Americans to the rich harvest-fields of trade whitening in the Far East. It was American ginseng that first, through the Hollanders in the Hudson Valley, made the Chinese practically aware of and interested in “The Country of the Flowery Flag.” It was the Chinese leaf, tea, shipped from Amoy on British merchantmen, that precipitated the Revolutionary war, bringing about that event of July 4, 1776, which has ever since required an endless supply of Chinese fire-crackers to celebrate it.

No sooner was peace concluded between Great Britain and the United States than the ship *Empress*, loaded with ginseng, and commanded by Captain Green, sailed from New York on Washington's birth-

1 1620년 종교 박해를 피하여 영국에서 네덜란드에 가 있던 청교도 일파가 신앙의 자유를 찾아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지금의 매사추세츠주에 상륙하여 플리머스 식민지를 건설하는 상황을 의미한다. 이후 1733년까지 영국은 북아메리카의 대서양 연안에 13개의 식민지를 건설하였다.

2 모리슨호 사건을 말한다. 1837년 미국 상선 모리슨호가 교역을 개시하고 마카오에서 난파당한 일본인 7명의 송환을 시도하려다가 1825년 일본 천황의 외국 선박 퇴출 교지에 따라 대포 공격을 받고 쫓겨난 사건이다. **3** 기사 원문에는 총 12개의 소주제가 있는데 이 책에서는 한국과 관련된 것만을 실었다. **4** 일본이 1853년 7월 개항한 것을 말한다. **5** 1853년, 1855년, 1865년, 1866년 미국의 배가 조선에서 난파된 후 대우를 잘 받고 본국으로 송환되기 위해 청에 보내진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6** 제너럴셔먼호가 대동강을 타고 평양까지 올라왔었는데, 강 이름을 ‘평양강(Ping-Yang River)’으로 오해한 것 같다. **7** 존 베티스트 버나도(John B. Bernadou, 1858~1908)는 스페인-미국 전쟁 당시 미 해군 장교였다. **8** 조선 원정을 명령받은 아시아 함대 사령관 존 로저스는 군함 5척, 함재대포 85문, 해군과 육군대원 총 1,230명을 이끌고 1871년(고종 8) 5월 16일 일본의 나가사키(長崎) 항구를 출발하였다. 5월 19일 남양만에 도착한 미군은 뱃길을 탐사하면서 북상하여, 자국 함대를 물저도(작약도)에 정박시켰다. 미군은 조선에 탐측 승낙을 일방적으로 통고, 요구한 뒤에 서울의 관문인 강화도 해협 수로의 측량과 정찰을 목적으로 두 척의 군함을 파견하였다. **9** 32파운드(pounder) 대포는 32파운드(약 15킬로그램)의 포를 발사하는 무기이다. **10** 신미양요 당시 미군의 초지진 공격 상황을 보여준다. **11** 원문에서는 ‘호랑이 사냥꾼’이란 표현을 사용하였는데 이를 ‘포수’라 번역하였다.



CHEMULPO, THE TERMINUS OF THE RAILWAY AND THE SEAPORT OF SEOUL.

officer. Nearly all our old wooden ships which had been active in the civil war visited the Japan station between 1866 and 1896.

After three years' service in Asiatic waters the crew of the United States steamship *Oneida* were happy in setting their faces homeward January 24, 1870. Joy soon changed to woe. Within an hour after leaving Yokohama and the cheers from her sister crafts, the gallant ship was beneath the waves. Struck amidships at 6 P.M. by the British mail-steamer *Bombay*, Captain Eyre, off Saratoga Spit, the *Oneida* sunk in fifteen minutes. All on board except four officers and sixty men were drowned. Their monument is annually hung on Memorial day with flowers, the protests of the resurrection hope against the might and mystery of death.

XII.—KOREA.

JAPAN had forged ahead in enlightened progress, but Korea persisted in her mood of morose seclusion. Besides American vessels shipwrecked on her inhospitable coasts, the crew of the schooner *General*

Sherman, which, early in August, 1866, entered the Ping-Yang River, met violent deaths. Whether "merchant or invader," aggrieved or aggressors, those on board lost their lives. The Koreans, first with fire-rafts and then with weapons, had attacked and slain them all. The facts in the case were investigated and found about twenty years afterward by Ensign John B. Bernadou, the first naval officer wounded in our present war with Spain.

To inquire into the *General Sherman* affair, and to make a treaty, an American force, consisting of the *Colorado*, *Alaska*, *Benicia*, *Palos*, *Ashuelot*, and *Monocacy*, under "fighting John Rodgers," moved into the Han River, on which Han-Yang, the Seoul or capital of Korea, is situated. With Mr. F. F. Low, our minister in Peking, with whom was the responsibility of peace or war, our men caught sight of the superb scenery of Korea at Boisé Island, May 30. Only the *Palos* and the old double-ender *Monocacy*, now the Noah's Ark of the Asiatic squadron, could enter the river. On June 2, leaving the heavy vessels behind, four steam-launches and the two gunboats moved out to the work of survey-



INSIDE THE LARGE KOREAN FORT.

ing. Around the bend of the river was "a whirlpool as bad as Hell Gate," and a channel only three hundred feet wide. To the surprise of the Americans, there was a fort and a new earth-work mounting several thirty-two pounders, and hundreds of jingals lashed by fives to logs. The treacherous Korean commander was one second too late. A storm of fire burst and clouds of smoke rose over the fort, while the water was torn into foam and our men soused in the splash. One American was wounded, but of the two or three hundred Korean missiles of many sizes not one injured a ship or boat. The bow guns of the launches, the cannon of the moving *Palos*, and the 10-inch shells of the *Monocacy* at anchor quickly cleared the fort of its defenders, the white-coated Koreans flying like sheep before the well-dropped shells.

Those who know the inside of the Hermit Nation's history do not wonder at the silliness, obstinacy, and ill-concealed contempt of the Tai Wen Kun's cat's-paws, called officers, who from the first rudely rejected all offers of intercourse. This prince-father, with heart of stone and bowels of iron, an intense hater of foreigners and Christianity, was then the

virtual ruler of Korea. Admiral Rodgers allowed ten days for some apology for the treacherous attack, but none coming, an expedition of chastisement was prepared. The two gunboats, four launches, and twenty boats carried ten companies of infantry with seven pieces of artillery, the 105 marines and 546 sailors being organized as a landing force. With the sailors of the *Monocacy* and *Palos*, this expedition, under Captain Homer C. Blake, numbered 759 men in all. Among the active officers were Winfield Scott Schley, Silas Casey, C. M. Chester, L. A. Kimberly, Douglas Cassel, Seaton Schroeder, Albion W. Wadhams, and others now famous.

The *Monocacy*, strengthened with two 9-inch guns from the *Colorado*, led the way up the river June 10, and quickly breached the wall of stone, ten feet high, and emptied with her shells the first of the five forts built on three promontories. Our men landed eight hundred yards below the fort, and went into camp. After destroying everything warlike in the stone fort and the water-battery, they bivouacked under the stars, the marines guarding the outpost. In the dark the white-clothed Koreans moved about like ghosts,

firing on our pickets. The next day, dragging their howitzers over the hills, our men moved towards the next line of fortifications, called the "middle" fort. After the *Monocacy* had shelled it into silence, and the marines found it deserted, the sailors destroyed everything in it.

Up hill and down dale in this country, rough to soldiers dragging cannon, but a dream of beauty to tourist and poet, our men moved to the main stronghold, which seemed perched like an eagle's eyry upon a high rocky bluff. How could such a citadel be stormed by men without wings to fly? This fort, mounting 153 guns, large and small, was fully garrisoned by stalwart tiger-hunters from the north. To the left thousands of armed natives were gathering in dark masses on the flanks of the Americans, and in a rush on the howitzer companies of the



OUR SAILORS AFTER THE BATT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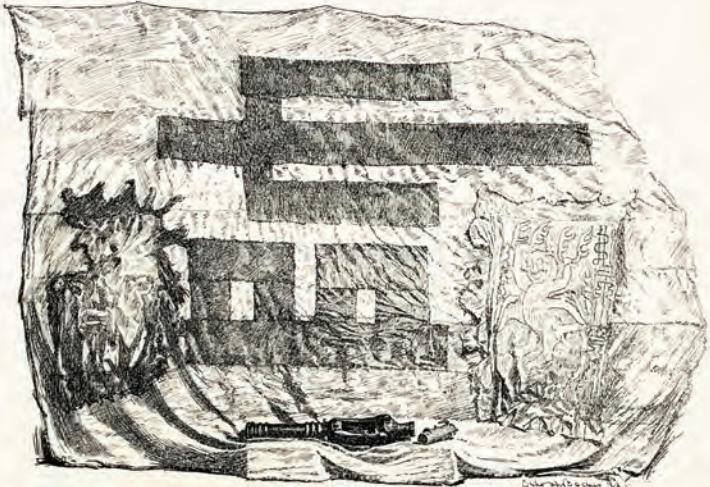
rear-guard and outposts they might overwhelm their foes. Some of our men were already prostrated by the heat. Something must be done quickly. From a ravine, up the steep incline of a cone 150 feet high, our men must climb in face of jingal and musket fire. Fortunately the shrapnel of the howitzers kept the clouds of warriors on the flanks at a distance, while the *Monocacy's* shells had breached the walls. At the right moment Casey gave the order, and up the ladderlike cliffs our men rushed amid a rain of jingal balls. When the tiger-hunters could no longer load their clumsy pieces, stones, dirt, arrows, and spears were their weapons. Fighting with desperation in the hand-to-hand struggle, the Koreans chanted a death-dirge in melancholy cadence. The majority were slain inside the walls, and the few fugitives were quickly anni-

hilated by the rifles of McLean's sailors and the canister of Cassel's howitzer battery. About 350 Koreans were slain. Only twenty prisoners, all wounded, were taken alive. The other two forts, open to the rear from the main work, were easily entered.

On our side, Lieutenant McKee and two other men were killed, and ten wounded. Five forts, 50 flags, 481 jingals and can-

non (27 being heavy guns), and hundreds of matchlocks were captured as the result of the two days' operation. Courage, zeal, and discipline marked our heroes throughout. Except possibly in the disembarkation on a mud flat, it is difficult, from a naval point of view, to see how the operations could have been more wisely planned or more scientifically carried out. Some of the Korean cotton-armor suits, flags, lances, and rude breech-loading cannon, of a model like those used by Columbus, were brought to Washington.

Seen in the perspective of Korean history, it seems now utterly improbable that any treaty could have been made at the time when the Tai Wen Kun ruled the country. Even so sound an authority as the late S. Wells Williams declared to the writer that Rodgers's chastisement of



THE FLAG OF THE KOREAN COMMANDER, THE FLAG OF THE TIGER-HUNTERS, A BATTALION FLAG, AND A KOREAN BREECH-LOADING CANNON, CAPTURED BY THE AMERICANS.

the Koreans helped to make them willing to treat with their fellow-creatures in 1882. After a winter of negotiation in Peking, Commodore R. W. Shufeldt, in the United States steamship *Suatara*, off Chemulpo, May 19, signed the document which ordained peace and friendship between one of the smallest and one of the greatest of nations, and his guns saluted the new flag of Korea. To-day, in Seoul, the young stars and stripes and the age-old mystic symbols and diagrams wave in harmony. Electric lights, an American-built railway, the first in the kingdom, improved machinery and methods, to say naught of schools, teachers, hospitals, and

physicians, show the change from isolation and barbarism.

XIII.—MANILA.

It has been only in the nineties that American steel ships with modern armament have been seen in Asiatic waters. On the 3d of January of this year, Commodore Dewey hoisted his pennant on the United States steamship *Olympia*, and his subsequent exploits are known. Let not the lustre of his fame be dimmed, or the credit of his daring acts be discounted. Yet in Asiatic waters there were brave Americans before him. All honor to them!

COMPLINE.

BY HARRISON S. MORRIS.

As evening settles down along the land,
And lamps blink and the wind is lulled asleep,
Then through the spirit moves a knowledge deep
The day denies us; then a living hand
Nestles from Nature into ours, as sand
Slides in the glass: we dream, and half we leap
The barriers that the dumb Recorders keep,
A ray streams through, and half we understand.
For twilight is the spirit's dwelling-place,
Where mystery melts the slow-dissolving world
And ghosts of order step from accident.
Faith that still hovers where the dew is pearled
Steals forth and beckons, and from banishment
Our dearer selves we summon face to face.

전투 후 미 선원들의 모습

조선 지휘관의 수자기(帥字旗), 포수의기, 대대기, 후장식 대포 등 미국이 노획한 물품들

아시아 동쪽에 위치한 조선의 모습

“일반적으로 남자는 키가 크고 허우대가 좋으며 생김새와 표정은 이웃 나라인 중국 남자들보다 호감이 간다. 여성은 어릴 때는 호감 가는 외모지만 나이가 들면서 혐오스럽게 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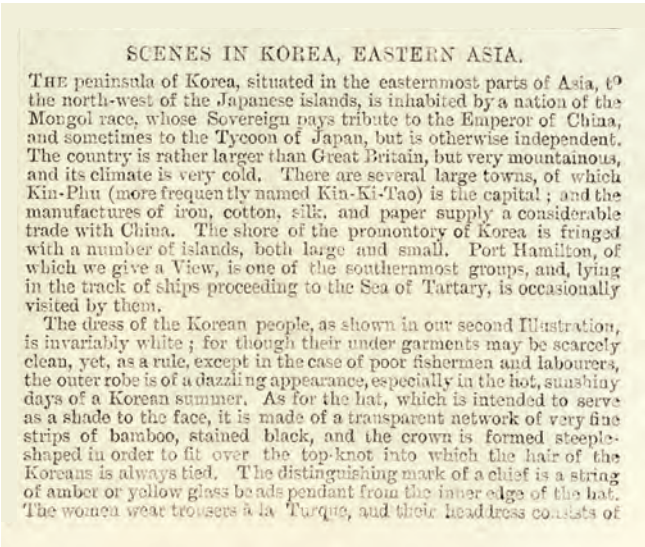
아시아의 가장 동쪽 그리고 일본 열도의 북서쪽에 위치한 조선반도에 는 몽골족이 살고 있는데, 이들의 군주는 중국 황제에게, 그리고 때로 는 일본 쇼군에게도 조공을 바친다¹ 하지만 그 외에는 독립적이다. 조 선은 대영 제국보다 조금 더 크지만 산악 지대가 많고 기후는 매우 춥 다. 몇몇 큰 도시가 있고 그중 김포가 수도이며,² 경기도로 더 자주 불 리곤 한다. 중국과는 철, 면화, 비단, 종이로 만든 상품들로 상당한 교역 이 이루어진다. 곳의 해안가 가장자리에는 크고 작은 수많은 섬들이 있다. 본 삽화에 등장하는 포트 해밀턴(거문도)은 최남단의 섬 중 하나 로 타타르 해협³을 지나가는 뱃길에 위치하여 배들이 종종 들르기도 하는 곳이다. 조선인의 옷은 두 번째 삽화에서 보듯이 한결같이 하얀

The Illustrated
London News

더 일러스트레이티드 런던 뉴스
영국

1865. 01. 07.
pp.11~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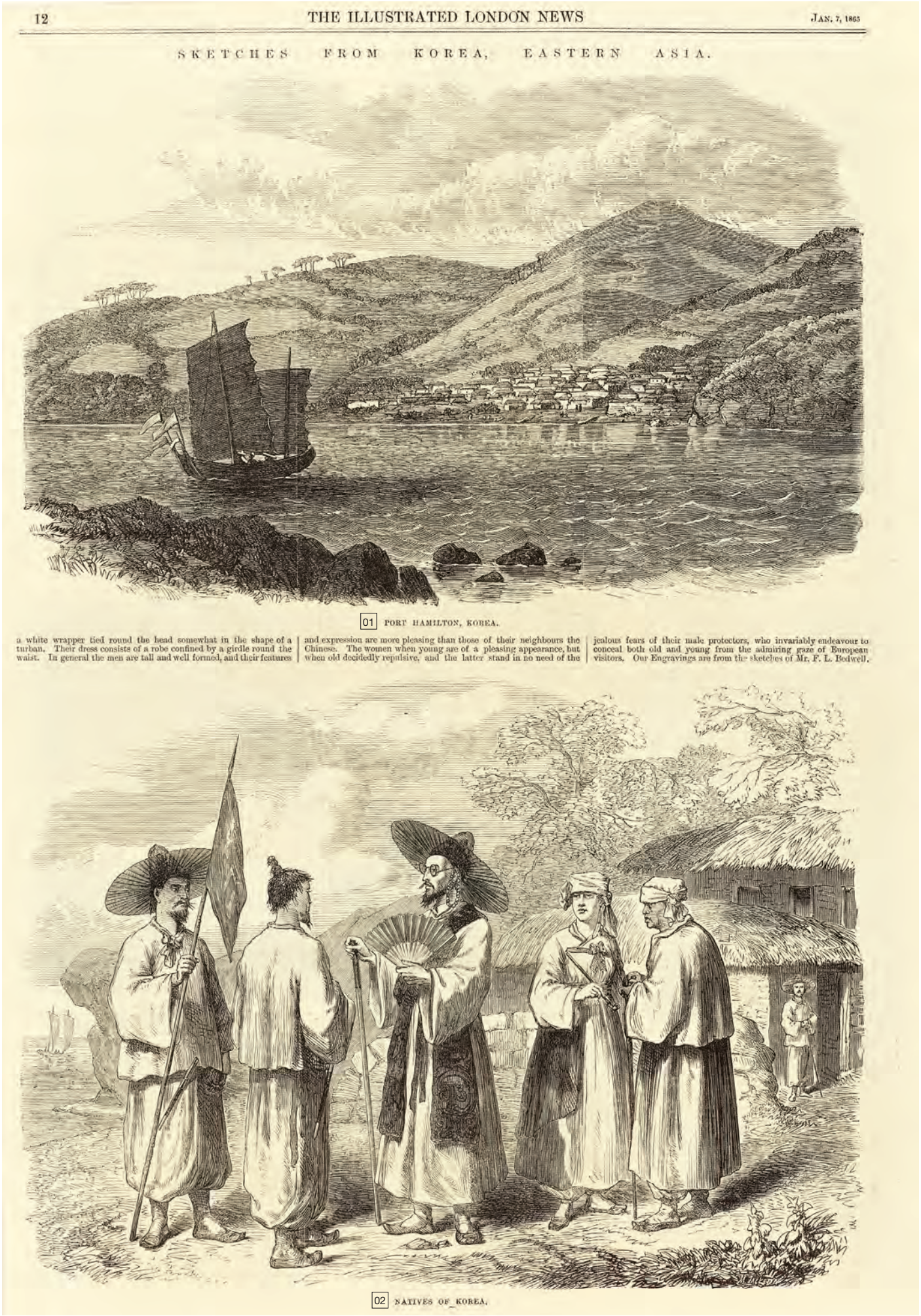
79815, 76815
40.4×27.4, 40.1×28.5



색이다. 속옷이 깨끗할 리는 없겠지만 가난한 어부와 인부들을 제외하 면 대체로, 특히 햇볕이 내리쬐는 더운 여름철에는 겉옷이 눈부실 정 도이다. 모자의 경우는 얼굴을 가리는 용도로 쓰며 아주 가는 죽사(竹絲)로 속이 보이게 엮어 검은 칠을 하고, 맨 윗부분은 뽕죽한 탐처럼 만들 어 머리를 묶은 맨 위 매듭(상투)을 덮을 수 있도록 하였다. 벼슬아치들 의 모자는 호박색 혹은 노란색의 유리구슬이 모자 안쪽 가장자리에 매달려 있어 구분이 된다. 여성은 터키풍의 바지를 입는다. 그들의 머 리쓰개는 터번 모양이고 하얀 싸개로 머리둘레를 덮는다. 옷은 긴 가 운을 입고 허리 주위를 끈으로 묶는다. 일반적으로 남성은 키가 크고 허우대가 좋으며 생김새와 표정은 이웃 나라인 중국 남성들보다 호감 이 간다. 여성은 어릴 때는 호감 가는 외모지만 나이가 들면서 혐오스 럽게 변한다. 그러나 나이 든 여성은 유럽 방문객들을 응시하며 감탄 하는 늙은이나 젊은이들을 늘 감추고자 애쓰는 질투심 많은 자신의 남성 보호자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1 일본 쇼군에게 조공을 바친다는 표현은 오류 이다. 2 조선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서 생긴 결 과로 보인다. 3 유라시아 대륙과 사할린섬으로 부터 홋카이도섬을 가르는 해협으로, 북쪽으로 는 오�호츠크해, 남쪽으로는 동해로 연결된다.

동아시아, 조선의 모습
01 조선의 포트 해밀턴 (거문도)
02 조선인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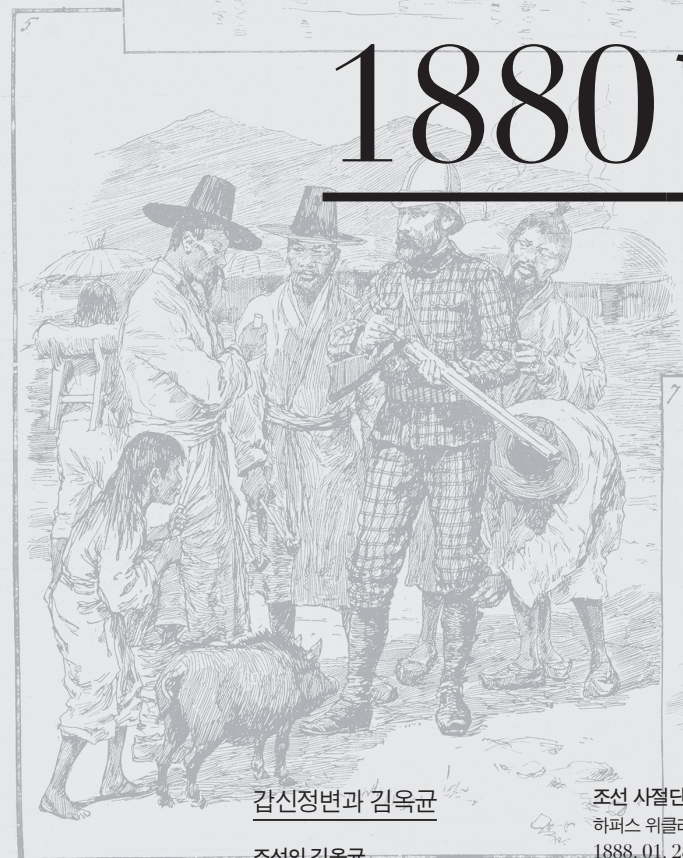
19세기 말~20세기 초
서양인이 본 한국

Journals from the Late 19th
and Early 20th Centuries

Korea Through Western Eyes

PART II

1880년대



갑신정변과 김옥균

조선인 김옥균
하퍼스 위클리
1894. 08. 18.

조선 특사 파견과 한국 기행

일본으로 간 조선 특사
더 일러스트레이티드
런던 뉴스
1881. 03. 19.

조선 사절단
하퍼스 위클리
1888. 01. 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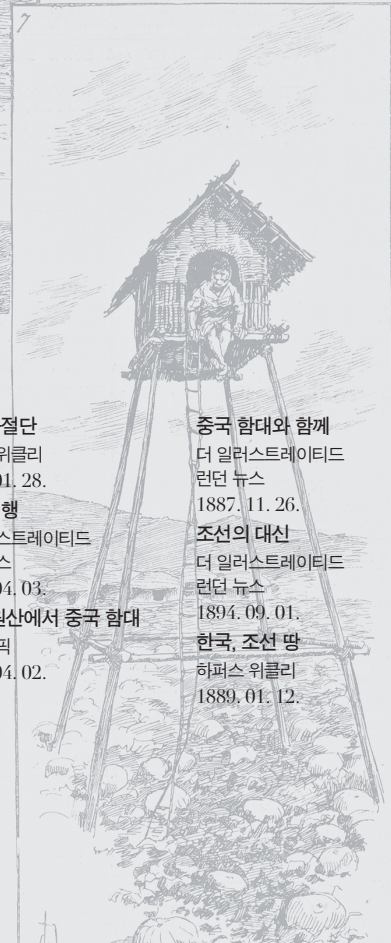
조선 여행
더 일러스트레이티드
런던 뉴스
1886. 04. 03.

조선, 원산에서 중국 함대
더 그래픽
1887. 04. 02.

중국 함대와 함께
더 일러스트레이티드
런던 뉴스

조선의 대신
더 일러스트레이티드
런던 뉴스
1894. 09. 01.

한국, 조선 땅
하퍼스 위클리
1889. 01. 12.



갑신정변과 김옥균

7

Harper’s Weekly

하퍼스 위클리
미국

1894. 08. 18.
p.778

 79758
41.0×28.2

조선인 김옥균

미 해군, 유스터스 B. 로저스

“개화파 지도자들은 절망하였다. 그들은 미국과의 조약에서 희망을 보았지만 현재는 모든 것이 중국의 보수주의라는 끝없는 바다로 떠내려가고 있는 것 같았다.”

지난 봄 지체 높은 조선 양반이 상하이 거리에서 같은 조선인에게 살해되었다.¹ 1884년 그의 계획(갑신정변)이 성공했다라면 그의 조국은 지금의 굴욕을 당하지 않아도 됐을 것이다. 그러나 계획이 실패로 끝나자, 그는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 알 수 없는 전쟁을 초래하는 일련의 사건들을 주도했다. 그가 바로 김옥균이다. 그는 1851년 빼대 있는 가문의 조선 순수 혈통으로 왕실과 인척 관계인 양반 가문에서 태어났다. 능력과 용기, 야망이 있었고 매우 적극적인 사고에 지략이 밝은 인물이었다. 그는 조선의 이웃이자 숙적인 일본의 발전상에 지대한 관심을 갖

고 지켜본 후, 1882년 동료였던 서광범과 함께 비밀리에 일본으로 건너갔다.² 그 시절 조선 양반으로는 처음으로 중국이 아닌 다른 나라의 땅을 밟은 것이다.³ 조선으로 돌아온 후 이들은 대담하게 왕을 찾아가 자신들이 본 것을 전하였다. 그러나 앞으로 나아가기에는 너무 이른 시기였다. 1876년 중국의 동의하에 조선은 일본과 조약을 맺었고 1882년 5월 9일에는 서양 국가 중 최초로 미국과 조약을 체결하였다. 이어 다른 국가와의 조약이 잇따르면서 이 작은 왕국은 오랜 은둔에서 벗어났다. 그러나 이로 인한 갈등은 이미 시작되었다. 당시는 거대하고 막강한 왕비의 민씨 가문이 조선 정부를 장악하고 있었다. 왕의 아버지 대원군은 광적이고 포악하다는 이유로 수년 전에 축출되었으나⁴ 여전히 건재하여 민씨 가문의 중심 세력인 보수파 혹은 친중국 성향인 '외국인 중보자들(위정척사파)'의 지도자였다.

그들에게 반기를 든 쪽은 중국의 보수주의 굴레에서 벗어나 서양의 방식과 사상을 받아들이고 싶어 하는 소수의 양반 가문들이었다. 이들은 개화파, 혹은 자유주의파이며 친일 성향을 띠고 있었다. 조선의 개방은 국가적인 움직임은 아니었고 따라서 국민들로부터 가장 강한 반대에 부딪혔다.

개방이 성공한 것은 소수의 보다 힘 있는 양반 가문이 이를 지지하였고 무엇보다 중국이 그것을 바랐기 때문이었다. 민씨 가문은 결과적으로 개방을 받아들였고 그로 인해 대원군의 원한을 사게 되었다. 대원군은 그들이 진보 세력에 가담하였다고 여겨 공격할 순간을 기다리는 호랑이처럼 때를 기다렸다.

1882년 7월 때가 찾아왔다(임오군란). 7월 23일 대원군 측 사람들의 사주를 받은 폭도들이 민씨 일가를 공격하였다. 가문의 지도자 중 한 명인 민겸호⁵가 도랑에 빠진 채 죽어 있었다. 그의 아들 민영환⁶은 산으로 도망갔고 그 뒤 일본으로 건너가 승려 행세를 하였다. 왕비를 가장한 시녀가 왕비를 노린 독약을 먹고 사망하였다. 일본 공사관도 공격을 당했다. 하나부사 공사는 용기를 내어 군사들을 이끌고 왕을 보호해야 한다며 폭도들을 가로질러 궁으로 철수하였다. 궁궐 문은 닫혀 있었다. 때는 밤이었고 반란이 일어난 도시를 뚫고 돌아가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것은 없었다. 소리치는 폭도들의 추격을 받고 지붕에서 날아오는

돌을 맞으며, 소수이지만 용감한 이 부대는 서울의 구불구불한 길을 헤쳐 제물포까지 나아갔다. 이곳에는 생존자 26명이 영국의 전함으로 안전하게 피신하고 있었다. 16명이 조선 땅에서 목숨을 잃었다. 부대는 즉각 일본으로 향하였다. 8월 16일 하나부사 공사는 일본 부대를 이끌고 조선의 수도에 다시 입성하였다. 조선은 사과하고 보상금을 지불하였다. 한편 이러한 사건이 벌어지는 동안 도쿄에 있던 김옥균은 서둘러 조선으로 돌아왔다. 제물포에 도착한 그는 자신의 숙적인 대원군을 찾아내기 위해 변장을 하고 서울로 갔다. 그 후 제물포로 다시 돌아와 중국의 장군에게 현 상황을 알렸다. 8월 25일 3,000명의 중국군이 서울로 들어왔다. 중국은 일본이 전쟁 준비를 하고 있다고 의심하였다. 대원군은 납치되어 강제로 중국에 보내졌다.

더 이상의 사건 없이 2년이 지나갔다. 그 사이 민영익이 이끄는 사절단이 미국에 파견되었다. 우리 정부는 사절단을 미국 중기선 트랜턴호에 태워 다시 조선으로 보냈다. 그들은 1884년 6월 조선으로 돌아갔다. 김옥균도 도쿄에서 2년간의 유학 생활을 마치고 거의 같은 시기에 귀국하였다. 개화파들은 적극적이고 기대에 차 있었지만 곧 반대 움직임이 일어나리라는 것은 분명해졌다.

기대를 한 몸에 받았던 민영익은 외국 땅에서 받아들인 진보 사상을 잃어버리고 중국의 방식으로 돌아가는 듯하였다. 1882년 중국군이 조선에 도착하였고 결과적으로 조선을 더욱 구속하고 종속관계를 강화시키는 새로운 협정이 맺어졌다(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 협정의 내용이 공개된 적은 없지만 그 존재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민씨 일가의 적극적 인 후원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조선은 퇴보하는 혁명이라는 특이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개화파 지도자들은 절망하였다. 그들은 미국과의 조약에서 희망을 보았지만 현재는 모든 것이 중국의 보수주의라는 끝없는 바다로 떠내려가고 있는 것 같았다. 김옥균과 서광범은 개화파의 지도자였고 어느 순간 자신들의 목숨이 위태로울 것이라는 사실을 곧 알게 되었다.

동양인에게 가장 자연스러운 방책은 음모였기에 김옥균의 주도로 계획이 만들어졌다. 거사 시기는 1884년 12월 4일 저녁, 새 우체국 건물 안에서 연회가 벌어질 때로 정하였다. 거짓말로 불이 났다고 외쳐 안

에 있던 사람들을 황급히 밖으로 나오게 하였다. 민영익은 부상을 당해 결국 죽음을 맞이하였다. 궁으로 모이라는 연락을 받은 보수주의 관료들은 그곳으로 가는 도중 암살당했다. 김옥균의 주도하에 새로운 내각이 탄생되었다.

불행히도 일본군은 왕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궁에 들어가게 되었다. 12월 6일 그들은 위안스카이가 이끄는 1,000여 명의 중국군에게 공격을 당했다. 뛰어난 훈련과 용기로 무장한 일본군은 모든 공격을 막아내고 해질녘에는 전열을 완벽하게 가다듬어 제물포로 철수하였다. 이것은 새로운 정부의 종말이었다. 김옥균과 두 명의 각료⁷는 일본으로 도망쳤다. 또 한 명은 자신의 원칙을 위해 도망이 아닌 죽음을 택하여 용기 있게 죽었다.⁸

일본은 즉각 무장하였고 조선과 중국이 일본의 요구에 응하면서 전쟁을 겨우 피할 수 있었다. 조선은 사과하였고 배상금을 지불하였다.⁹ 중국과의 조약(텐진조약)을 통해서는 양국이 공사관 보호를 위해 필요한 80명을 제외하고 조선으로부터 자국 군대를 철수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어느 쪽도 상대방의 동의 없이는 조선에 군대를 파병할 수 없다는 데 합의를 보았다. 현재 중국이 위반하고 있다고 일본이 주장하는 바로 그 합의이다.

1884년 폭동(갑신정변)을 이끈 지도자들은 민씨 가문이 자신들의 목을 칠까봐 두려워 행동에 나선 것이고 왕이 그들의 계획을 승인하였다고 말하였다. 그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는 않았다. 하지만 조선에서 4년간 거주하였고 당시 서울에 있어서 조선 사정에 매우 정통한 G. C. 포크 미 해군 중위를 통해 왕이 사실은 진보주의자였고 1884년 김옥균의 음모를 지원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우리는 김옥균의 일본 유배 시절을 되짚어 볼 필요는 없다. 그의 본국 송환 요청이 두 차례나 있었지만 일본은 단호히 거부하였다. 죽을 고비도 여러 번 있었다. 일본은 그를 남부의 자국 영토인 보닌 제도¹⁰로 보냈다. 그곳에서 그는 새로운 농업 기술을 도입하고 미국의 식물과 농기구를 얻어 달라고 요청하여 미개한 섬 주민들에게 커다란 경제적 변화를 안겨주는 데 성공하였다. 마음이 약해진 일본은 마침내 그의 귀환을 허락하였다.

6월 18일 조선인 이일직은 김옥균의 암살을 사주하고 또 다른 조선 망

명자를 일본에서 죽이려고 한 혐의로 도쿄에서 재판을 받고 있었다.

법정에서 한 그의 증언에 따르면 김옥균과 다른 사람들을 납치하지 못할 경우 그들을 살해하기 위해 일본에 왔고, 이곳에서 홍중우를 만나 김옥균을 살해하도록 사주하였다. 김옥균이 거짓 대리인에 의해 어떻게 설득당해 상하이로 가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법정에 선 이일직이 홍중우에게 무기와 자금을 공급하였는지가 드러났다. 나머지는 알려진 그대로이다. 암살은 분명 민씨의 사주를 받은 것이었다. 김의 시신은 조선으로 보내져 서울에서 공개되었다. 그 후 여덟 조각으로 잘려져 여러 지역으로 보내졌다.

저자가 이 기사를 준비하고 있을 때 김옥균의 유배 시절 그를 잘 알고 지냈던 친구에게서 편지 한 통을 받았다. 전체를 거의 다 인용할 만큼 흥미로운 내용이라 생각한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이 33세였던 1884년에 처음 그를 만났다. 젊았고 다정하고 상냥하고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였다. 그때는 조선말밖에 몰랐는데 나중에 일본어를 배워 아주 유창해졌지만 영어는 할 줄 몰랐다. 그는 손님 접대하는 것을 너무나 좋아하였다. … 그는 즉시 미국의 사상을 받아들였고 보석을 사고 싶어 하였고 가능한 한 외국인처럼 행동하고 싶어 했다. 보닌 제도에 유배되었을 때 항수병에 걸려 건강이 급속도로 나빠져 일본 정부가 그의 목숨을 살리려 본국으로 데려와야만 하였다. 얼마간 그는 보호를 받으며 에조(현재 홋카이도)에서 살았다. 마침내 일본의 보호가 없어진 후에는 신변 보호를 위해 머리를 자르고 일본 옷을 입고 이와타라는 이름으로 거의 알려지지 않은 채 살았다. 1892년 5월 내가 도쿄에 있을 때 그가 변장을 하고 나를 찾아왔다. 너무 애처롭고 불쌍한 모습이어서 울적한 마음이 들었다.

1884년 정변 당시 그는 아내와 네 명의 자식이 있었다. 딸이 셋, 아들이 하나였던 것 같다. 아들이 더 없는 것을 아쉬워했던 그의 모습이 기억나기 때문이다. 나는 그가 암살된 후 그의 가족이 참형에 처해졌다는 신문기사를 보았다. 그러나 이는 분명 사실이 아니다. 나는 그의 아내와 아이들, 아버지 그리고 다른 친척들이 1884년 정변 당시 참형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한 조선인 친구가 이 사실을 확인해 주었다. 김은 조선의 왕과 같은 집안이며 감씨 집안과 왕비의 가문인 민씨 집안은 항상 서로 대립하는 관계였다. 나는 김이 왕의 신임과 독려를 받았다고 생각한다. 반면 왕비는 나라를 개방하려는 노력에 반대하였다. 그는 그의 조국뿐만 아니라 자신에 대한 야망도 껴지만 불행히도 앞선 사상으로 영웅이 되기 위해 서방이 아닌 중국의 방식을 시도하였다. 조선에서 과거에 볼 수 없었던 가장 총명한 인물인 그가 자신의 사상을 좀 더 천천히 추진하였더라면 그리고 왕비의 세력을 자기편으로 끌어들었다면 그에게나 그의 조국에게나 전혀 다른 결과가 찾아왔을 것이다….”

01 김옥균 일본인의 조선 친구

02 홍중우 김옥균의 살해범

1 1894년(고종 31) 3월 김옥균이 상하이에서 홍중우에게 피살된 사건을 말한다. 2 원문에는 1873년으로 되어 있으나 김옥균이 처음으로 일본에 건너간 것은 1882년(고종 19) 1월경이므로 수정하였다. 3 관리로서 가장 먼저 일본에 다녀온 인물은 강화도조약 체결 이후인 1876년(고종 13) 4월 수선사로 일본에 파견된 김기수(金綺壽, 1832~?)이다.

4 1873년(고종 10) 12월 흥선대원군은 최익현(崔益鉉, 1833~1906)의 탄핵 상소로 밀미암아 실각하였다. 5 원문에는 민태호로 나와 있지만 선해청 당사 민겸호(閔謙鎬, 1838~1882)의 오기이다. 그는 명성황후의 오빠로서 궁중에 난입한 군졸들에게 중희당(重熙堂) 아래서 김보현과 함께 살해되었다. 6 원문에는 민영익으로 나와 있지만 민영환(閔泳煥, 1861~1905)의 오기이다. 7 박영효(朴泳孝, 1861~1939), 서광범(徐光範, 1859~1897), 서재필(徐載弼, 1864~1951) 등을 말한다. 8 홍영식(洪英植, 1855~1884)을 말한다. 지도층 대부분이 일본에 망명한 것과는 달리, 박영교(朴泳敎, 1849~1884)와 함께 국왕을 호위하다 청군에게 살해되었다. 9 1885년(고종 22) 1월 갑신정변의 뒤처리를 위해 조선과 일본이 체결한 한성조약을 말하는데, 조선은 일본에 10만 원의 보상금을 지불하고 일본 공사관 공사에 2만 원을 지급하였다. 10 김옥균은 도쿄에서 남쪽으로 1,000킬로미터 떨어진 오가사와라(小笠原) 제도에 유배되었다. 이 제도를 영여권에서는 보닌 제도(Bonin Islands)라고 부르는데, 에도시대에 부닌시마/부닌지마(일본어로 무인도라는 뜻)라고 부르던 데에서 유래한다.

THE HARA-KIRI OF YENYA HANGUWAN.

The art and literature of Japan have found many interpreters, but her drama, for wonderful stage, which Mr. Percival Lowell has said, in his charming book, on Korea, is one of the finest the world has produced, still waits for some loving hand to unfold its wonders.

It is a perfect storehouse of history, and on its boards old Japan moves again with a vividness that is startling and a realism that needs no libretto. Its tragedies leave little to the imagination, and its comedies and farces are easily understood and some of them very funny.

The theatres are barnlike structures, with unpainted and little-adorned interiors. The stage is at one end of the auditorium, which is divided into squares, like a great checker-board. On both sides, at right angles to the front of the stage, are the *hana-nishi*, or flower-paths. They are raised above the floor. The broader one, and the path most frequently employed, is about three feet in width. It is used by the players for entrance and exit, and is really a part of the stage itself, for much of the acting takes place upon it, and in the skilful hands of the Japanese it is most effective.

The costuming is excellent, the scenery fair, and the acting in the main natural and good. The theatre is essentially the amusement of the people, and consequently, of all Japanese art, it is the least tinged with foreign imitation.

In the plays are preserved the quaint customs and curious manners of by gone days. They represent scenes of daily life, the myths and legends of the country or of the feudal times. Of all the figures of old Japan which the stage has preserved, the most striking is the *swallow*, the man of two swords, who occupies in Japanese romantic story the place filled by the knights of old in the legends of European chivalry. He was the backbone of the feudal system, and the military class to which he belonged ruled Japan. He was the logical outcome of that system. From it was evolved for his guidance a code of conduct, the most intricate character and of etiquette of the greatest nicety, which, though it may be to our minds somewhat fantastic and strained, had for its basis an ideal of honor which was no mean conception. Patriotism in its Western sense was unknown. There was no common country, no united nation. The fives of the castles and the camps centred about the clan. Loyalty to the clan chief was the soul of the samurai, and individual rights and liberties were sunk in the intensity of the feeling. This fealty was called *semechi*, *fidelity*, and its spirit pervaded the entire history and romance of old Japan. It found expression in the old clan wars and in the thousand feuds and fights of the ancient time. In these modern days it survives in the form of a most intense, un-reasoning patriotism.

The motive of a large part of Japanese romantic story is found in the deeds of these knights of the far East, and of all the tales of the golden time none is more well known than the true story of the Forty-seven Ronins. The record of their deeds is enshrined in the hearts of the Japanese people, because it embodies to them the very essence of loyalty, which they call *chinkwa*. This word, combined with *goro* (*guro*), a storehouse, gives the title to the most popular play on the Japanese stage—*Chushigotaru*—which is founded on the story of the Forty-seven Ronins, and which is the apotheosis of the samurai.

The scene from the play which is the subject of the illustration is the last act of the master of the devoted retainers (literally wave men, or retainers without a master), the *hara-kiri* of Yenya Hanguwan, the Asano Takumi no Kami of the original story.

The fearful and sorrowing retainers have, with bowed heads, come to see the last of their beloved master. All the preparations have been made with the precision and nicety which characterize this ancient and marvellous ceremony, no part or title of which is omitted in the stage counterplot. Two straw mats six feet square have been laid, and over them is drawn a white cloth. At the corners are placed little tubes of wood, and in them spikes of green bamboo. In front is a low stand of unpainted wood. The condemned man enters. He is attired in spotless white.

Gravely he kneels upon the mats, and, with unmoved face, listens to the sentence of self-inflicted death as read by the commissioner, a court noble, who is presently the representative of the authorities. When this is done a favored retainer moves with noiseless step to the front and lays upon the little wooden stand the fatal knife, carefully wrapped from point to hilt in soft white paper, and as silently glides away. The condemned noble bares the body about the waist, takes the knife, and raising it reverently to his forehead, calls upon the commissioner to witness his obedience. The handle is then firmly grasped in the right hand.

The point of the blade is fixed touching the skin on the left side just below the ribs, the edge inward. The left hand is then placed over the right. With one strong effort the keen blade is driven home, a mighty sweep to the right across the abdomen, and the man has disembowelled himself, falling forward dead.

The samurai, who has witnessed this awful deed, walks down the *hana-nishi* with stately step and grave dignity like face, to bear to his master his testimony of the dead man's obedience.

EUSTACE B. ROGERS, U.S.N.

KIM OK KIUN, THE KOREAN.

Last spring a Korean noble of high degree lay dead upon a Shanghai street, murdered by a fellow-countryman. Had his schemes been successful in 1884 it might have saved his country her present humiliation; but failing, he started the train of events which has brought on a war of which the possibilities are immeasurable. This was Kim Ok Kiun. Born in 1851, he sprang from a noble family of pure Korean descent of great antiquity, and connected with the family of the King. He was a man of ability, courage, and ambition, of unusually active mind and ready resource. He had watched with keen interest the progress of Korea's neighbor and ancient enemy, Japan, and in 1873, with one companion, So Kwang Pom, he secretly went to that country—the first Koreans of noble birth who had gone, in these later days, elsewhere than to China.

On their return to Korea the fugitives went boldly to the King and told him what they had seen. But it was too soon for any forward movement.

In 1876 China consenting, a treaty was made with Japan. On May 9, 1882, the treaty with the United States was signed, the first ever made by Korea with a Western nation. Others soon followed, and the little kingdom emerged from its long seclusion. But the struggle had barely commenced. The numerous and powerful Min family, to which the Queen belonged, dominated the government. The Tai-wen

HARPER'S WEEKLY

Kun, father of the King, who had been deposed some years before on account of his fanaticism and enmity, was a man of considerable energy and ability, was still active, and the leader of the "foreigner-haters," a wing of the conservative or pro-Chinese party, whose backbone was the clan of Min. Opposed to them were a few noble families who wished to shake off the bonds of Chinese conservatism and adopt Western methods and ideas. They made up the progressionist or liberal party, and were pro-Japanese.

The opening of the country was not a national movement, and it met with the most violent opposition from the people. It succeeded because it was advocated by a few of the more powerful of the noble families, but principally because Chinn wished it; and the Min family were, in consequence, all obedience, thereby earning the enmity of the Tai-wen Kun, who thought they had joined the party of progress, and he waited like a tiger for a chance to pounce upon them.

In July, 1882, it came. On the 23d a mob incited by his agents attacked the Mins. Min T'ai Ho, a leader of his family, was left for dead in a ditch; his son, Min Yong Ik,



01 KIM OK KIUN, The Korean Friend of the Japanese.

fled to the mountains, and thence to Japan, disguised as a Buddhist priest. Poison intended for the Queen was taken by a maid personating her, who died. The Japanese legation was attacked. The minister, Mr. Hanbusa, with great courage, cut his way through the mob at the head of his men, and retreated to the palace to claim the protection of the King. The gates were closed. It was night, and nothing remained but a return through the hostile city. Pursued by a howling mob, stoned and fired at from the house-tops, the brave little band marched through Seoul's crooked streets, out into the country, and on to Chemulpo, where twenty-six survivors found safety on a British war-ship. Sixteen were left dead on Korean soil. The party proceeded immediately to Japan. On August 18th Mr. Hanbusa re-entered the Korean capital at the head of a Japanese regiment. Korea apologized and paid an indemnity. While these events were taking place, Kim Ok Kiun was hurrying to Korea from the Japanese capital, whence he had been summoned. Arriving at Chemulpo, he proceeded in disguise to Seoul, finding the Tai-wen Kun, his deadliest enemy, in possession. He returned to the coast, and reported the condition of affairs to the Chinese general. On August 25th 3000 Chinese troops marched into Seoul, so suspicious was China of Japan's warlike preparations. The Tai-wen Kun was kidnapped and forcibly sent to China.

Two years passed by without further outbreak. A mission had been despatched to the United States, at the head of which was Min Yong Ik.



02 HONG TJYONG OU, Murderer of Kim Ok Kiun.

Our government sent the embassy back to Korea in the United States steamship *Trenton*. They returned to Seoul in June, 1884. Kim Ok Kiun returned about the same time, after two years' study in Tokyo. The liberals were active and hopeful, but it was soon apparent that a reactionary movement had set in. Min Yong Ik, of whom great things were expected, seemed to have lost the progressive ideas he had imbibed in foreign lands, and to be returning to Chinese methods. The arrival of the Chinese troops in 1882 had resulted in a new agreement with Korea, which bound her more closely to China, and welded more tightly the chains of her vassalage. Just what this agreement has never been divulged, but of its existence there is little doubt. It was strongly fostered by the Mins. And Korea presented the singular spectacle of a revolution moving backward. The liberal leaders were in despair. They had looked hopefully upon the American treaty, and now everything seemed to be drifting out into the boundless sea of Chinese conservatism. Kim Ok Kiun and So Kwang Pom were at the head of the party, and it was soon apparent to them that at

any moment they might lose their heads. The expedient now natural to an Oriental is a conspiracy, and one was formed, with Kim at its head. The time chosen for its consummation was the occasion of a banquet on the evening of December 4, 1884, in the new post-office building. A false cry of fire caused the inmates to rush forth. Min Yong Ik was wounded and left for dead.

The conservative ministers summoned to the palace were assassinated on reaching there. A new ministry was formed with Kim at the head. Unfortunately the Japanese troops were called to the palace, ostensibly to defend the King. On the 6th they were attacked by a thousand Chinese soldiers under the command of Yuen, the Resident. The Japanese, with admirable discipline and courage, repulsed all assaults, and retreated to Chemulpo in perfect order at the close of that day. This ended the new government. Kim Ok Kiun and two of his fellow-ministers fled to Japan. The third met his death bravely, preferring to die for his principles rather than escape.

Japan was in arms at once, and war was only averted by the fact that Korea and China acceded to her demands. The former apologized and paid an indemnity. The treaty with the latter bound both countries to withdraw their armed forces from Korea, except eighty men, who could be retained for the defence of the legations, and it was agreed that neither would send troops into Korea without the consent of the other, which agreement Japan now claims China has violated.

The leaders of the *insulte* of 1884 have stated that their action was urged on them by fear that the Mins would cut off their heads, also that their plans had the approval of the King. This has been fiercely denied, but the writer was informed by Lieutenant G. C. Foulk, U.S.N., who was at the time in Seoul, lived for years in Korea, and was thoroughly well informed concerning the country, that the King was at heart a progressionist, and that he did give countenance to Kim's conspiracy in 1884.

We need not follow Kim through the years of his exile in Japan. Twice his extradition was demanded and resolutely refused. Several times his life was attempted. Japan sent him to her southern possession, the Bonin Islands. Here he introduced new methods of agriculture, sent for American plants and agricultural implements, and succeeded in producing great economic changes among the wild inhabitants. At last Japan, in a soft-hearted mood, permitted his return. On June 18th a Korean named Li I-tsu Shoku was on trial in Tokyo for instigating the assassination of Kim and attempting to murder, on Japanese soil, another Korean exile. His testimony under oath showed that he had come to Japan to murder Kim and others if he could not abduct them; that he had met Hong Tjyong Ou in Japan and induced him to murder Kim. It was shown how Kim was persuaded to go to Shanghai by false representations, and how the prisoner supplied Hong with arms and money. The rest is known. The bloody work was undoubtedly instigated by the Mins. Kim's body was sent to Korea, where it was exposed in Seoul. It was then cut into eight pieces, and these fragments distributed in as many different provinces of the kingdom.

While the writer was preparing this article he received a letter from a friend who had known Kim Ok Kiun well during his exile, and he considers it of sufficient interest to be quoted almost entire. It is as follows:

"Kim was thirty-three years old in 1884, when I first saw him, a man of great dignity, genial, pleasant, and fond of story-telling. At that time he only spoke Korean; later on he learned Japanese, and spoke it fluently, but not English. He was very fond of giving entertainments. . . . He adopted American ideas at once, wanted to buy jewelry and be as foreign as he possibly could. While detained at the Bonin Islands he became so homesick that his health failed very rapidly, and he saved his life the Japanese had to bring him to Japan. For some time he lived in Yezo, under guard; finally the Japanese removed their protection, and then, for safety, he cut his hair, wore Japanese dress, and lived under the name of Iwata, known to very few. In May, 1892, when I was in Tokyo, he came in disguise to see me. He had grown so sad, so pathetic-looking, that it made me feel melancholy.

"At the time of the rebellion in 1884 he had a wife and four children, I believe three girls and a boy, because I remember he regretted that he had not more sons. I have seen in a newspaper article, that his family were beheaded after his assassination, but I am sure this is not true. I always understood that his wife, children, father, and other relations were beheaded at the time of the revolution of 1884. A Korean friend confirmed that report. Kim belonged to the same family that the King does, and there has always been great rivalry between the Kims and the Queen's family, the Mins. I believe Kim had the King's confidence and encouragement, while the Queen was against him, in his efforts to open the country. Kim was very ambitious as well for his country as for himself, but unfortunately with all his advanced ideas he tried the Chinese instead of the Western method of making himself a hero. He was the brightest man Korea has ever produced, and if he had pushed his ideas more slowly, and had won over the Queen's party, the result would have been very different both for him and for his country. . . ."

EUSTACE B. ROGERS, U.S.N.

SUNDAY AFTERNOON IN CHINATOWN.

Los Angeles is termed the Chicago of California because of its rapid growth and business progress. It has now a population of over 65,000, and, like every California town, possesses a proportion of Chinese inhabitants. A stroll through the Chinese quarter will reward the searcher for the unusual and interesting on any week-day, but on Sunday afternoons perhaps one of the strangest sights of all may greet the eye. On the corner of one of the little side streets, where every flavor is of the flowery Celestial Empire, amidst the strange signs and gayly-colored lanterns, may be seen a group of solemnly clad Chinamen, standing about a contralto who diligently pedals a cheap melodion. Their shrilly pitched tones rise together singing Christian hymns in their comical English, and as if to add further strangeness to the scene, sweet-voiced American girls are grouped with them, joining in the out-door service of song. Most of the worshippers, or rather, singers, amongst the Chinese appear to be of the poorer class. The wealthy men are usually merchants or proprietors of some business. They never mingle with the crowd, but clad in silken blouse and flowing trousers, pass by without glancing even at their countrymen. Prominent church members of various denominations are banded together in an effort to convert and better the condition of the Chinese in California. But it is slow work, for a Chinaman generally thinks the older a bad custom is the wickeder it is to give it up.

일본으로 간 조선 특사

“사연이 어떻든 최근에 유럽인들이
왕이라 부르는 조선의 통치자와
일본 천황 미카도 사이에
국제적인 분쟁이 발생하였다.”

본지의 여행 전문 객원 기자 중 한 명인 조지프 벨 기자가 동아시아로
향하였다. 가능하다면 북중국 내륙을 거쳐 타타르 지방 혹은 몽골을
건너 투르케스탄 지역의 러시아 자치령까지 둘러볼 계획을 가지고 있
다. 그가 이 어려운 여정에 성공한다면 우리는 서유럽인들에게 비교적
거의 알려지지 않았고 본지 기자와 같은 신문 기자가 한 번도 다녀간
적이 없는 광활한 나라와 그곳의 다양한 거주민에 대해 풍부한 정보
를 얻게 될 것이다.
여정 중에 그는 일본으로 건너가 조선이라는 인접국을 여행할 기회를

얻었다. 조선은 북아시아에 있는 반도로 황해(서해) 너머 약 200마일(약
320킬로미터) 너비의 해협이 일본 남부 지역과의 경계선 역할을 하고 있
다. 과거에 있었던 조선과 일본 간의 전쟁(임진왜란)은 양국 역사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당시 중국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거의 알려진 바 없고 중요하지 않은 3~6세기 전의 일이다.
우리는 최근에 E. 리드 경이 일본에 관해 쓴 신작을 읽었다. 신비로운
힘을 가진 여제 정고(Jingo) 혹은 진구(Jingu)¹가 주인공이다. 그녀는 일
본이 조선을 무력으로 정복할 당시 대부분의 남자 무사를 능가하는
무공을 발휘하였다고 한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 여전사를 국가적 전
쟁 여신으로 숭배한다고 한다. 아마도 같은 맥락에서 영국의 대중적인
우상 숭배의 주문 ‘By Jingo’²가 그녀의 이름을 딴 것이 아닐까 싶다.
이 주문은 3~4년간 음악 극장의 노래에 등장하여 조용하고 소박한 사
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다.

사연이 어떻든 최근에 유럽인들이 왕이라 부르는 조선의 통치자와 일
본 천황 미카도 사이에 국제적인 분쟁이 발생하였다. 전쟁의 발발이
우려되었으나 조선이 일본에 특사를 보내 협상이 열렸다. 우리는 그 협
상이 평화로운 결과를 가져오길 희망한다. 특사가 맡은 바 임무를 홀
륭히 해낸 뒤 일본 증기선 사카사고 마스호를 타고 고국으로 귀환할
때 우리 객원 기자도 승선을 허락받아, 좁은 바다를 건너는 지루한 여
정을 끈기 있게 건디는 조선 특사³와 함께 갑판에서 당시의 풍경을 담
을 수 있었다.

¹ 진구황후(神功皇后)를 말한다. 『일본서기』에 나오는 진구황후는 일본인들이 가장 자랑스럽 게 생각하는 신비의 인물이다. 『일본서기』에서 는 진구황후가 4세기 중엽에 한반도 남부의 일마 지역을 정벌하였다는 얘기를 언급하고 있다. ² ‘당치도 않다, 어렵도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주문은 영국의 대러시아 강경책 을 노래한 애국적인 노래에 인용되었다. ³ 1880년 (고종 17) 7월 제2차 수신사로 파견 된 김홍집(金弘集, 1842~1896)을 일컫는 것 으로 보인다.

THE COREAN AMBASSADORS TO JAPAN.

One of our travelling Special Artists, Mr. Joseph Bell, has proceeded to Eastern Asia, with a design to find his way, if possible, through the Interior of North China and across Chinese Tartary, or Mongolia, to the Russian dominions in the region of Turkestan. If he succeed in this difficult enterprise, we may hope for a large supply of Illustrations of those extensive countries and their diverse populations, which are comparatively little known to the public of Western Europe, and which have certainly never yet been visited by the Artists of Journals like our own. In the mean time, he has run over to Japan, and there got an opportunity of making a trip to the neighbouring kingdom of Corea, which is a peninsula of the North Asiatic mainland, beyond the Yellow Sea, divided from the southern part of the Japanese islands by a strait about two hundred miles wide. The ancient wars between Japan and Corea, in which China often took an active part, make up a large amount of history, to us rather obscure and unimportant, from six to three centuries ago. We lately read, in Sir E. Reed's new book on Japan, of a certain half-mythical heroine, the Empress Jingo or Jingu, who is said to have dis-

played, in the military conquest of Corea, a degree of martial prowess exceeding most heroes of the masculine sex. This Amazonian Lady of Battle, as we are told, is worshipped in Japan as the national Goddess of War; and it is perhaps from her name that the popular English idolatry of the same principle has derived the invocation, “By Jingo!” which was heard in our music-hall songs, three or four years since, to the great mystification of all quiet and simple folk. But, however that may be, there has recently been an international dispute between the ruler of Corea, whom Europeans call the King of that country, and the Mikado or Emperor of Japan. War seems to have been apprehended for some time, but negotiations were opened through certain Corean Ambassadors sent to Japan, and we hope they will have secured a pacific result. The Ambassadors were sent home, with all due honours, on board a Japanese steamer called the Sakasago Masu; and our Special Artist, having obtained permission to share the voyage, is enabled to furnish a Sketch of the scene on deck, with their Corean Excellencies patiently enduring the tedious passage across that narrow sea.



THE COREAN AMBASSADORS RETURNING ON BOARD THE JAPANESE STEAMER SAKASAGO MASU.
FROM A SKETCH BY OUR SPECIAL ARTIST.—SEE NEXT PAGE.

일본 증기선 사카사고 마스호를 타고 돌아오는 조선의 특사

조선 사절단

“통풍이 가능한 이 모자는 오늘날 미국인들이 좋아할 것 같진 않은데, 아무 연습 없이 써본다면 제대로 균형을 맞추는 것조차 힘들 것이다.”

조선 왕조가 중국, 일본을 제외한 해외에 처음으로 파견하는 사절단이 이번 달 워싱턴에 도착하였다!¹ 이들은 클리블랜드 미 대통령의 공식적인 환영을 받았고, 워싱턴에 머물면서 외교적으로 조선의 이익을 대변하게 될 것이다. 사절단 일행에는 미국 공사 박정양, 참찬관 이완용, 이등서기관 이하영, 삼등서기관 이상재, 통역관 이재연 및 공사 수행원인 이현용, 강진희가 포함되었다. 당시 몇 년 동안 조선 왕실 의사로 도성에 머물렀던 오하이오주 출신의 알렌 박사가 외국인 서기관으로서 이들을 보좌하는 임무를 맡았다. 세

Harper’s Weekly	1888. 01. 28. p.60, p.67
하퍼스 위클리 미국	구9755, 구6783 39.2×27.9, 41.0×28.5

명의 조선인 하인들도 이들과 동행하였는데 이름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그렇다고 크게 손해 볼 일은 아니다. 그들보다 신분이 더 높은 일행들의 이름조차 영어 철자로 제대로 쓰였는지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중국과 일본의 고관대작들은 우리 나라에서 오랫동안 친근한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인들의 옷차림과 관습은 미국 수도에서 큰 관심을 일으킬 만큼 신기하게 다가왔다. 그들의 걸음걸이는 “우아하고 사뿐거리는 걸음”으로 불렸고, 특히 공사는 키가 평균보다 더 크지는 않지만 “평온한 미소”와 함께 발을 내디디며 매우 품위 있게 걸었다. 걸을 때마다 사각사각 스치는 소리를 내는, 최고급 비단으로 만든 풍성한 도포 자락²과 화려한 장식은 조선 의복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을 보여준다. 한편 “머리카락을 감아 올린 정수리 위에 고상하게 놓인 말총으로 만든 길고 검은 모자³”는 1월 13일 베이어드³와의 사전 면담이 진행되는 내내 그들의 머리 위에 있었다고 한다. 통풍이 가능한 이 모자는 오늘날 미국인들이 좋아할 것 같진 않은데, 아무 연습 없이 써본다면 제대로 균형을 맞추는 것조차 힘들 것이다.

사절단의 생김새는 물론 몽골인 계통이고 그들은 새로운 주변 환경을 마음에 들어 하였다. 그리고 만일 몇 년 동안 조선에 머물며 조선 왕을 위해 일하였던 오리건 출신의 왕실 외교고문 오언 데니, 매사추세츠 출신 총세무사 메릴 그리고 왕실 병원에 있는 알렌 박사와 헤론 박사가 없었다면 그들에게 이곳 풍습은 더욱 신기하게 다가왔을 것이다. 현재 사절단은 미국의 직접적인 후원으로 꾸려진 것이다. 주한 미국 공사 딘스모어가 사절단이 서울의 항구인 제물포를 떠나 일본의 나가사키까지 타고 갈 수 있도록 미 전함 오마하를 마련해 주었다. 미국의 이러한 조심스러운 행보는 여전히 조선에서 명목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중국이 개입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중국은 미국이나 유럽에 사절단을 파견하는 명백한 독립의 징후가 조선에 나타나는 것을 꺼릴 것이다.

1876년 일본이 처음으로 조선의 독립을 인정한 이후 1882년에 서구 열강들 가운데 미국이 가장 먼저 조선반도와 우호 및 통상조약을 체결하였다. 그 이후 서울에서는 전구에서부터 개틀링 기관총에 이르기까지 미국의 발명품들이 확산되었으며 미국의 영향력은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THE COREAN EMBASSY.

THE first embassy ever sent by the kingdom of Corea to any country save China and Japan arrived at Washington during the present month. It was officially recognized by President CLEVELAND, and will remain at the capital to represent there the diplomatic interests of Corea. It includes PAK CHUNG YANG, Minister; YI WAN YONG, Secretary of Legation; YI HA YONG, Second Secretary; YI SANG JA, Third Secretary; YI CHAH YONG, Interpreter; YI HUN YONG and KANG CHIN HI, Minister's private secretaries; while Dr. H. N. ALLEN, of Ohio, who has been for several years at Seoul, attached to the court as physician, takes general charge of the party as foreign secretary. There are also three Korean servants with the party, whose names are not given, but the loss is slight, inasmuch as a shade of uncertainty rests even upon the orthography of the names of the more distinguished visitors.

Although Chinese and Japanese dignitaries have long been familiar in this country, there is enough that is novel in the costumes and customs of the Koreans to excite great attention at the capital. Their walk is described as a “stately glide,” and the Minister especially, although hardly up to the average height, is credited with an unusually dignified gait, set off by “a serene smile.” A mass of skirts and furbelows of the richest silks is a leading feature in their garments, rustling as they walk; while their “tall black hats of horse-hair, set daintily on the crown of the head, which is itself topped by the coil of hair,” were not removed, it is said,

during their preliminary interview with Mr. BAYARD on the 13th of January. This head-gear, through which the air can circulate, is hardly such as an American would fancy for this time of the year; but then Americans without practice could hardly balance the hats at all. Their features, of course, are of the true Mongolian type, and the visitors seem well pleased with their novel surroundings, and with customs which would doubtless appear more singular had not Americans been for years in favor with the King of Corea, who has Judge OWEN N. DENNY, of Oregon, as his foreign adviser, Mr. H. F. MERRILL, of Massachusetts, as Inspector General of Customs, and Drs. ALLEN and HERON in the government hospital.

Indeed, the present mission is made directly under American auspices, Minister DINSMORE having arranged for its departure from Chemulpo, the port of Seoul, to Nagasaki, in the United States war vessel *Omaha*. This precaution seems to have been taken partly from fear lest China, which still holds a nominal authority over Corea, should interfere to prevent so marked a sign of absolute independence as the despatch of an ambassador to the United States and another to Europe. While Japan was first to recognize Korean independence in 1876, our own country was foremost among Western powers to conclude a treaty of friendship and commerce with the peninsula, which it did in 1882. Ever since, American influence has been predominant in Seoul, and American inventions, from electric lights to Gatling-guns, have found their way there.

¹ 조선은 1882년(고종 19) 미국과 수호조약을 체결한 뒤, 5년이 지난 1887년(고종 24) 미국 워싱턴에 주미 한국 공사관을 세웠다. 고종은 주미 한국 초대 공사로 임명한 박정양 일행과 함께 알렌을 조선의 외교관으로 임명하여 1887년 9월 27일 미국에 보내기로 결정하였다. 당시 조선은 국제 관계나 미국의 정치 등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모든 업무를 알렌에게 맡길 수밖에 없었다. ² 원문에는 'skirt'라 표현하였다. 길게 늘어진 도포 자락을 치마라 여긴 것 같다. ³ 베이어드(T. F. Bayard, ?~?)는 당시 미 국무 장관이다.

조선 여행

“이튿날 아침 우리 일행 세 명은
마부들이 모는 조랑말을 타고
수도인 서울로 향하였다.
이 나라가 참으로 아름답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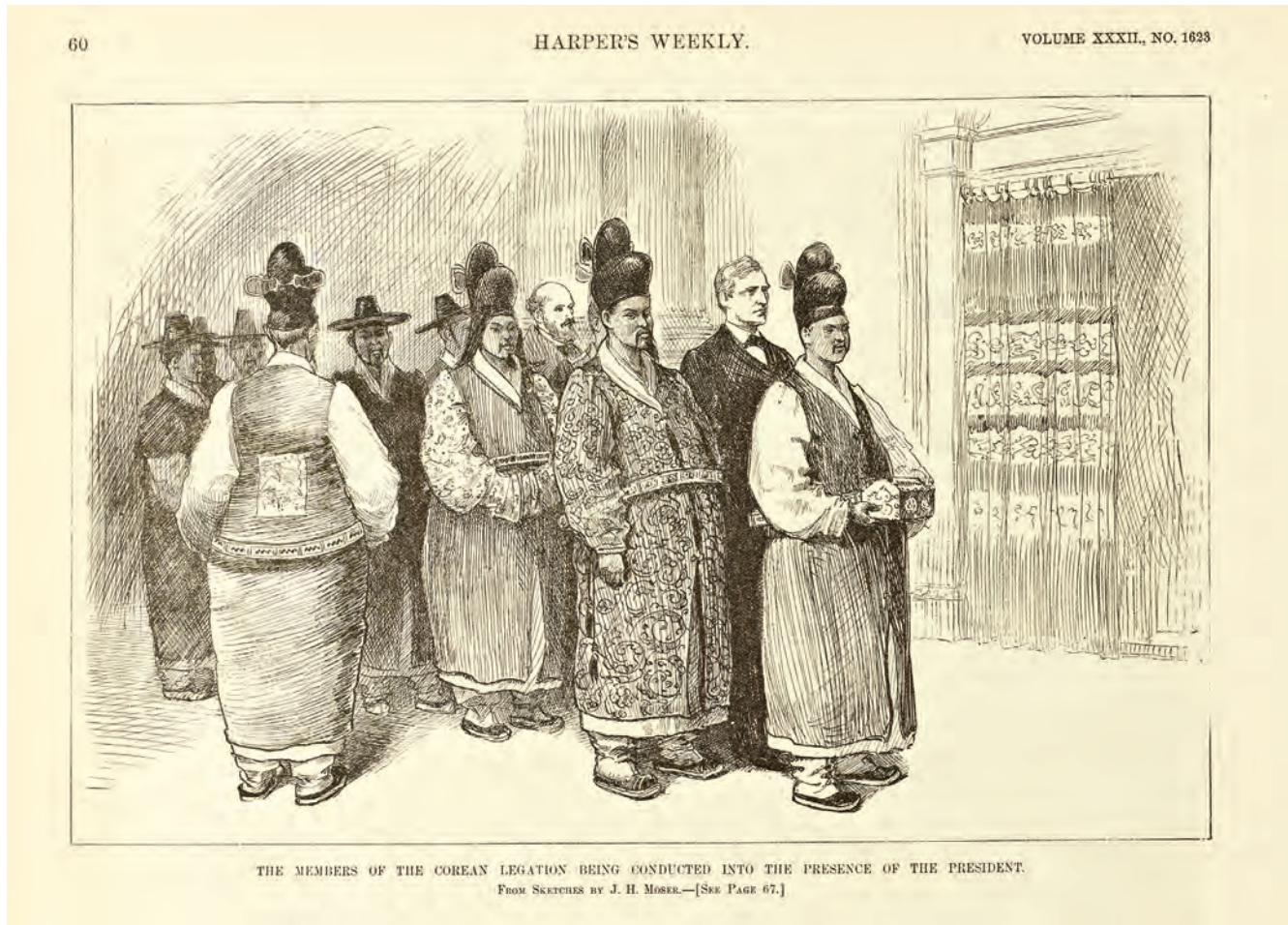
동아시아의 외진 곳인 북중국과 섬나라 일본 사이에 남쪽 방향으로
돌출한 조선반도는 아직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나라이다. 인구는 800
만에서 900만 정도로 추산되고 몽골 인종에 속한다. 이 나라의 독재
적인 정부와 특이한 관습은 외국과의 소통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아서 H. 히스 기자가 작년(1885년) 조선을 방문하였던 경험을 통해 조선
의 대략적인 모습을 소개한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리는 9월 28일 영국 해군 예비역 헵위스 선장이 이끄는 증기선 애
싱턴호를 타고 상하이를 출발하여 조선의 해안 도시 제물포로 향하였
다. 그곳은 나지막한 산으로 둘러싸인 그림처럼 아름다운 작은 해안

정착촌이었다. 해안 도로는 주변에 바위가 무성한 거친 돌길이었고 부
두가 정착촌 입구까지 이어진다. 일부 가옥과 상점은 일본인이 주인이
었다. 바로 뒤편 언덕 위에는 영사관 건물들이 있다.
우리는 독일인이 운영하는 꽤 쾌적한 호텔에 가서 첫날을 보냈다. 이튿
날 아침 우리 일행 세 명은 마부들이 모는 조랑말을 타고 수도인 서울
로 향하였다. 이 나라가 참으로 아름답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언덕
위에서 내려다보는 경치가 훌륭했는데, 도처에 야생화가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다. 말을 타고 이동한 지 몇 시간 후, 우리는 여인숙에 도착하
여 휴식을 취하였고 마부들은 조랑말에게 삶은 콩을 먹이로 주었다.
우리는 다시 여정을 이어갔다. 오르막과 내리막이 계속 이어졌다. 제물
포에서 15마일(약 24킬로미터) 정도 떨어진 중간 지점의 여관에서 마부들
은 소변을 본다며 한 시간을 끌더니, 돈을 더 주지 않으면 가지 않겠다
고 버텼다. 1인당 50달러를 주고 전체 여정을 함께하기로 한 것이어서
이런 요구가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다. 그들은 현금, 즉 1달러에
조선 돈 약 1,500을 받는데 이는 짧은 시간에 매우 짭짤한 수입이다.
다음으로 흥미로웠던 것은 조선의 강(한강)이다. 강바닥은 한때 가로 3
마일(약 5킬로미터)에 이르렀지만 지금은 두 개의 개울과 강의 본류가 흐
르고 있다. 우리는 대형 페리를 타고 개울과 강을 건넜고 배 안에서 조
선인 25명과 황소 한 마리, 그리고 등에 돼지 한 마리를 짊어진 남자를
보았다. 우리 일행과 조랑말 그리고 마부까지 합하면 상당한 화물이
실린 것이다.

우리는 곧 강을 건넜고 다시 한 번 서울로 향하는 육로에 올랐다. 우리
가 아는 유일한 조선말은 목적지인 ‘정동’뿐이었기에 마부에게 계속
이 단어를 말하였다. 그들은 이상한 길을 통해 서울로 가고 있는 것 같
았다. 바닥이 드러난 개울가로 우리를 데려가는 것 같았는데 결국 그
곳에서 서울의 관문 중 한 곳으로 이어졌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목적지에 도착하였다. 정동에서는 스트리플링 관세 국장이 극진하게
환대하였고, 그날 목을 곳도 제공해 주었다.

다음 날 아침을 먹은 후 마을 주변을 둘러보고 물건도 몇 가지 샀다.
사실 살 만한 것은 별로 없었고 상점도 매우 작았다. 오후에는 돌아가
는 방향의 조랑말을 구하느라 애를 좀 먹었다. 하룻밤 재워준 친절한
허치슨 씨와 뫼렌도르프 부부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왔던 길로 되돌



미국 대통령 관저로 안내된 조선 사절단

아갔다. 어둡기 전에 강과 시내를 건널 수 있어서 기뻐다.

첫 번째 마을에서 마부는 햇불을 구해와 마을 주민에게 다음 마을까지 앞장서서 길을 밝히도록 하였다. 다음 마을에서도 햇불을 들어줄 사람을 구하였다. 마을 사람들은 이런 수고에는 돈을 받지 않았다. 사람들이 바로 나서지 않으면 마부들이 강제로 나서게 하였다. 여행의 마지막 부분은 매우 길고 지루하였고 조랑말은 우리가 새벽녘 제물포에 도착하기 전에 거의 뺏어버렸다.

우리가 은자의 왕국을 여행한 때는 매우 불안한 시기였는데, 제물포로 돌아온 날 오랫동안 예상되던 대로, 악명 높은 '홍선대원군'이 중국 포함을 타고 도착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² 제물포항은 바깥쪽 항구에 정박한 영국·러시아·미국·일본·중국 군함으로 매우 활기를 띠고 있었다. 안쪽에는 작은 배들이 있었다.

조폐국에서 쓰는 커다란 보일러를 포함한 증장비를 피해 가느라 이틀을 더 소비한 후 우리는 원산으로 향하였다. 포트 해밀턴(거문도)에 근접하였을 때는 7개의 돛이 달린 전함이 항구 입구 안쪽에 정박해 있는 것이 보였다. 매우 훌륭하고 아름다워 보이는 항구 도시이다. 해안가를 따라 즐거운 여행을 한 후 원산에 도착하였다. 최초로 영국 상선이 입항한 곳이다. 사방이 아름다운 풍경으로 둘러싸인 멋진 곳이기도 하다. 사냥감이 풍부한 이곳에서 실컷 사냥을 즐겼고 이틀을 더 머문 후 나가사키를 경유해 상하이로 떠났다.”

1 원문에는 Pack-Ton으로 표기되었는데, 각국 영사관이 있었던 정동을 말한다.

2 홍선대원군이 임오군란 이후 1882년(고종 19) 8월 청으로 끌려간 뒤 3년 만인 1885년(고종 22) 10월에 귀국한 사실을 말한다.

A TRIP TO CO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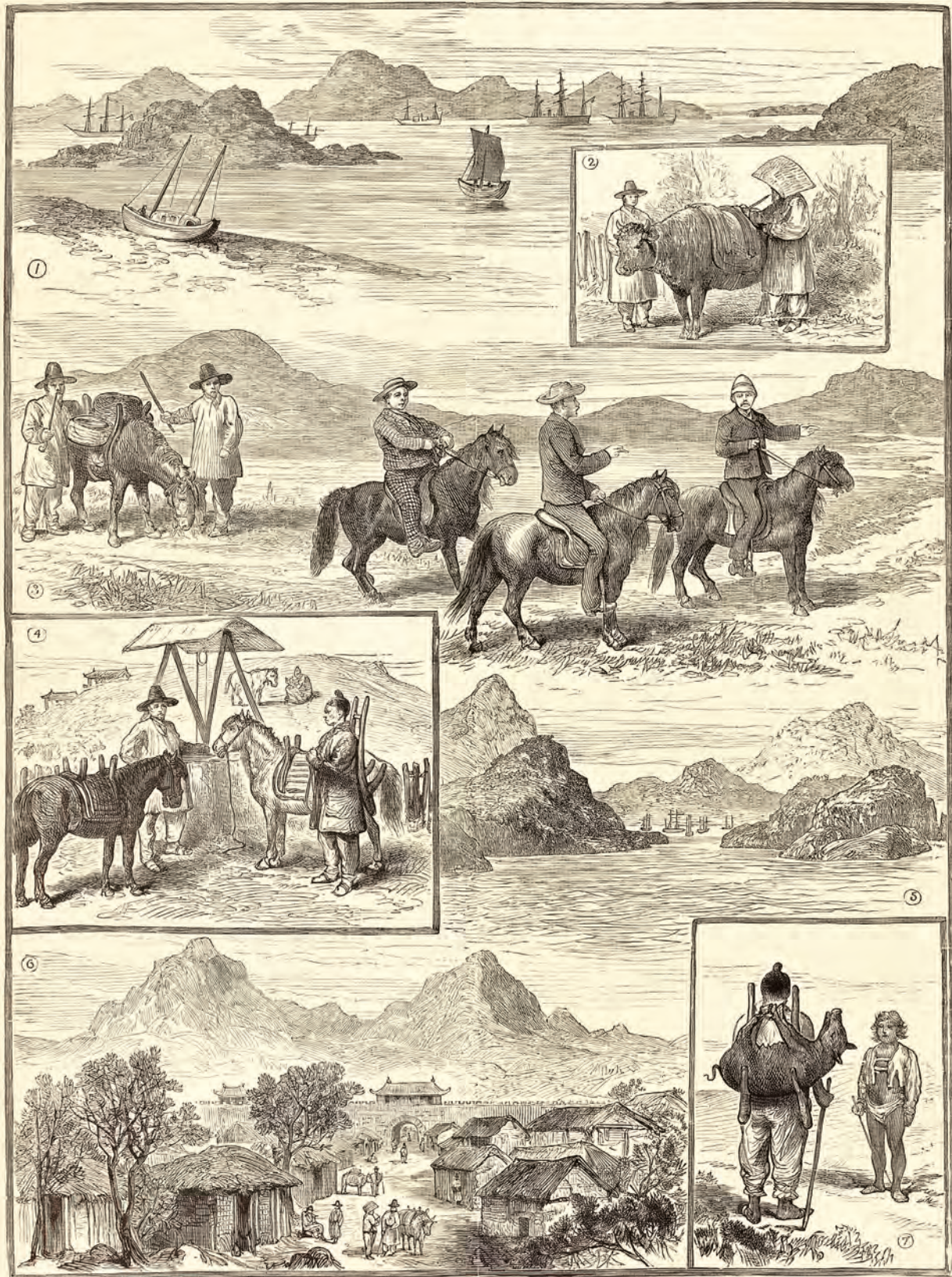
The peninsula of Corea, a remote part of Eastern Asia, projecting southward between North China and the islands of Japan, is yet imperfectly known. Its population, reckoned at eight or nine millions, are a distinct branch of the Mongol race, and its despotic government and peculiar institutions are very adverse to foreign communications. A correspondent, Mr. Arthur H. Heath, who visited Corea in the year before last, sends us a few Sketches, with the following account of his experiences there :—

“ We left Shanghai in the screw-steamer Ashington, Captain Hepworth, R.N.R., on Sept. 28, bound for Chemulpo, on the coast of Corea. It is a picturesque little seaside settlement, surrounded by hills. The “bund” is a rough stone path round the rocks from where the jetty is, to the end of the frontage of the settlement. Several of the houses and stores are occupied by Japanese ; just at the back are the consulates, on the top of the hills. We went to a fairly comfortable hotel, kept by a German, where we spent the first night. Three of us, on ponies, attended by Mafoos on foot, started next morning for Seoul, the chief town. We found the country very pretty, with fine views from the hilltops. On all sides were wild flowers in profusion. After some hours’ riding, we arrived at a Corean inn, and refreshed ourselves, while the Mafoos gave the ponies their chow of boiled beans. We pushed on again, the road being up and down hill nearly the whole way. At the half-way house, fifteen miles from Chemulpo, the Mafoos made themselves comfortable for an hour. They refused to go further without more money ; as they were going the whole way for a half-dollar each, we did not think much of such a demand. They receive their money in cash (say, in their money, about 1500 to the dollar), which would fill very large pockets in a very short time.

“ The next point of interest was the river, the bed of which once extended three miles across, but now only two streams and the main river run through it. The streams we forded, and crossed the river in a large ferry-boat, in which we found twenty-five Coreans, a bullock, and a man with a pig on his back. These, with ourselves, our ponies and Mafoos, made a good cargo ; but we soon got across, and were once more on the road to Seoul. The only Corean word we knew was the name of our destination, “ Pack-Ton,” and we kept on repeating this to our Mafoos, who appeared to be going a very curious way to the city. They took us up what looked like the bed of a stream, but it led at last to one of the city gates ; and not long afterwards we reached our destination. At Pack-Ton we met with kind hospitality from the Commissioner of Customs, Mr. Stripling, who found us a night’s lodging.

“ Next morning, after breakfast, we went round the town and made a few purchases, though there is hardly anything worth buying ; and the shops are very small. In the afternoon, having had some trouble in obtaining ponies for the return journey, we bade adieu to our kind host, Mr. Hutcheson, and Mr. and Mrs. Möllendorff. We travelled back the same road, and were glad to get over the river and fords before night came on. At the first village, the Mafoos obtained a light, making the villager carry it on ahead to the next village, where we got a torch-bearer. The villagers were paid no money for this service ; and if they would not turn out at once, the Mafoos made them do so by force. The last part of the journey was very tedious, and the ponies nearly gave in before we arrived at Chemulpo, which was about dawn of day.

“ It was in very unsettled times that we paid this visit to the Hermit Kingdom, and the day we returned to Chemulpo we found the long-expected and notorious Prince, the “ Dai Lu Ku,” had just arrived in a Chinese gun-boat. The port was quite lively with British, Russian, American, Japanese, and Chinese men-of-war, which occupied the outer harbour, the inner only being suitable for vessels of small draught. It took us two more days to get out the remainder of the heavy machinery, including the large boiler for the Mint, and then we cleared for Gensan. We passed quite close to Port Hamilton, which is certainly a very fine port, and looked very pretty with the seven men-of-war we noticed lying just inside the entrance. After a pleasant trip up the coast we reached Gensan, being the first British merchant-steamer that had entered that port. It is a lovely harbour, with beautiful scenery on every side ; we had some good shooting, the place being full of game. We left for Shanghai, via Nagasaki, after two days’ sta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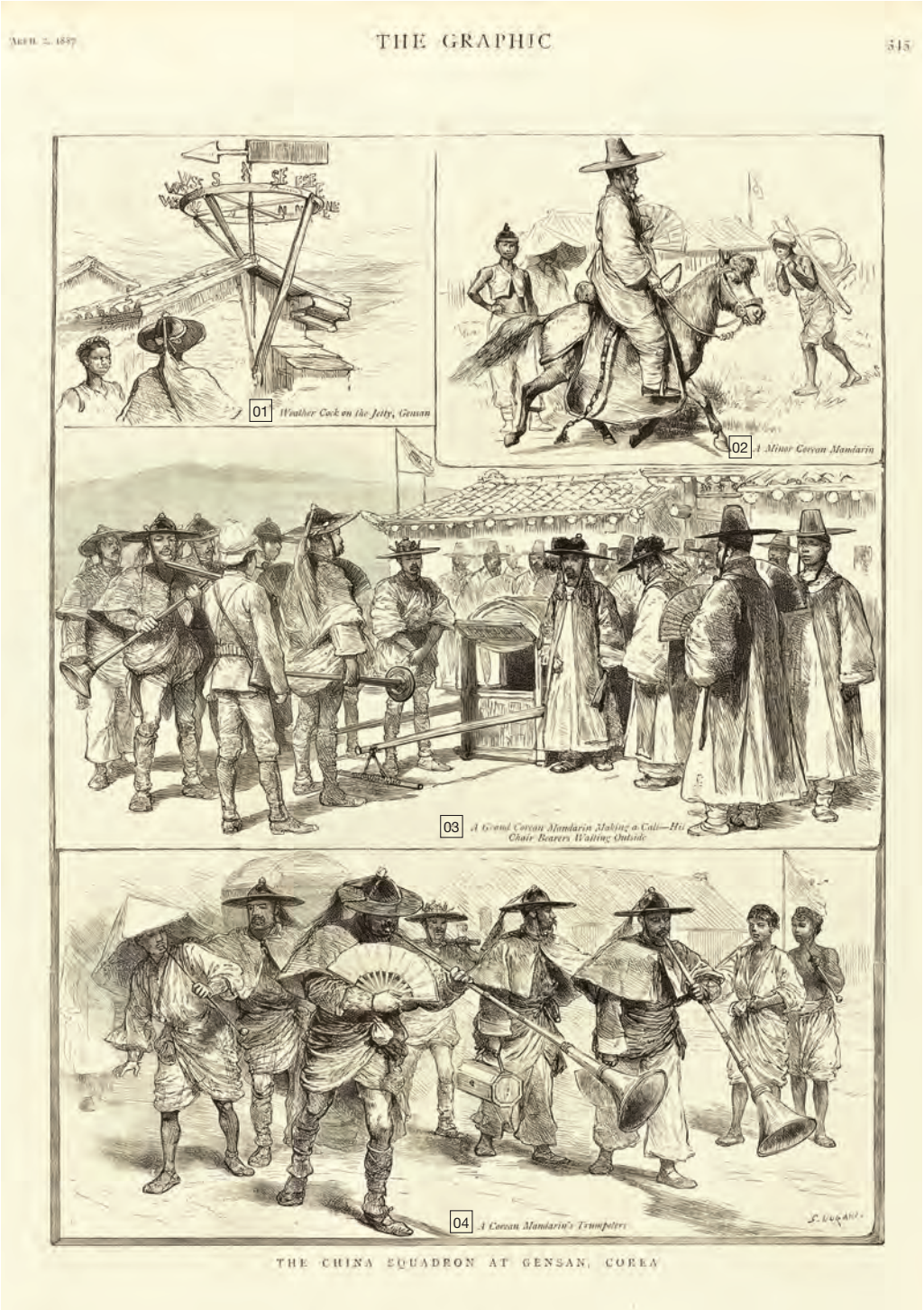
1. Isle and Port of Chemulpo. 2. Natives with riding-bull, etc. 3. Our ride to Seoul. 4. A halt by the way. 5. Port Hamilton. 6. South Gate of the city of Seoul. 7. Korean carrying a dead pig.

A TRIP TO COREA.

조선 여행 1. 제물포의 섬과 항구 2. 황소를 타는 조선인들 3. 서울로 향하는 여정 4. 가는 길에 휴식 5. 거문도항 6. 서울 남대문 7. 죽은 돼지를 싣고 가는 조선인

조선,
원산에서
중국 함대

- 01 원산 부두에 설치된 풍향계
- 02 조선인 하위 관리
- 03 조선인 고위 관리의 행차-비둘에서 대기 중인 가마꾼들
- 04 조선인 관리의 나팔수



중국 함대와
함께:
조선 스케치

- 1. 담뱃대 2. 신발(짚신) 3. 엘리자베스 항구에 있는 조선의 오두막 4. 포트 해밀턴(거문도)에 있는 조선의 부잔교(浮棧橋) 5. 원산항에서 해군 장교를 조사하는 조선인들 6. 우산만 한 모자를 쓴 조선인들 7. 호박밭을 지키는 조선인 8. 결혼한 남자의 상투 9. 미혼 남자 10. 모자(갓) 11. 원산에서 조선의 소와 겪었던 사건



조선의 대신

“한 시간쯤 지나 이들은 마당으로 나가 줄타기 공연과 별로 예쁘지 않은 여덟 명의 무용수가 굉장히 폭이 넓은 치마를 입고 고상하고 느릿한 동작으로 연출하는 춤 공연을 지켜보았다.”

사진 속 인물은 조선의 외무독판으로, 조선의 수도 서울의 거리에서 교자를 타고 근엄하게 행차하는 모습과 유럽 스타일로 마련된 연회에서 샴페인을 대접하며 타국 외교관들을 융숭히 대접하는 모습이다. 사이에 롱 베이 미국 서기관이 1887년에 찍은 사진이다. 당시 조선의 외무독판은 조병식이였다. 65세인 이 고상한 양반은 식탁에서 손님들을 친절하게 접대하였다. 만찬 초반에는 손님들 사이사이 통역관과 기생이 앉아 있었으나 식사가 끝나자 유럽과 마찬가지로 기생들이 물러간 뒤에도 양반들은 계속 술을 마시며 대화를 이어갔다. 한 시간쯤 지

The Illustrated
London News
더 일러스트레이티드 런던 뉴스
영국
1894. 09. 01.
pp.263~264
구9829
40.4×29.0

A COREAN MINISTER.

The Illustrations showing this dignified Minister of State in the city of Seoul, the capital of the Corean kingdom, borne upon an open litter through the streets to perform an official visit, and the banquet, prepared and served in the European style, with sufficient champagne, with which he regales the foreign resident diplomatists, are supplied by photographs taken in 1887 by Colonel Chaillé Long, then United States Consul-General at Seoul. The Corean Minister of Foreign Affairs at that time was Cho-Pyong-Sik, a courteous old gentleman of sixty-five, who hospitably entertained his guests at table, where during the first part of the dinner each sat between an interpreter and a female dancer, but the women retired when the eating was done, leaving the gentlemen, as in Europe, to their wine and talk. At a later hour they passed into the courtyard, to witness an exhibition of rope-dancing and a ballet performed by eight girls, who were not very pretty, but decorous and slow in their movements, wearing ample skirts. The present Minister at the “Oi-a-mun,” or Foreign Office, is not the same person. In 1891 it was Prince Ming-Yuen-Shao, to whom Captain A. E. J. Cavendish, author of one of the latest books of travel, had a letter of introduction from Ming-Yuen-Ik, his exiled brother at Hong-Kong.

나 이들은 마당으로 나가 줄타기 공연과 별로 예쁘지 않은 여덟 명의 무용수가 굉장히 폭이 넓은 치마를 입고 고상하고 느릿한 동작으로 연출하는 춤 공연을 지켜보았다. ‘외아문’ 혹은 ‘외부’라 불리는 곳의 현직 장관은 동일 인물이 아니다. 1891년에는 민영소였고, 현재 홍콩에서 망명 중인 그의 동생 민영익이 최근에 여행 서적을 저술한 캐번디시 소령에 대한 소개장을 쓴 바 있다.

THE ILLUSTRATED LONDON NEWS, SEPT. 1, 1894.—264

01 THE COREAN MINISTER OF FOREIGN AFFAIRS.

02 BANQUET GIVEN TO EUROPEAN DIPLOMATISTS BY THE COREAN MINISTER OF FOREIGN AFFAIRS.

01 조선의 외무독판
02 조선의 외무독판이 주최한 주한 유럽 외교관들을 위한 연회

한국, 조선' 땅

서울 공사관 서기관, 찰스 사이에 톰 베이

“한국이 ‘은둔의 나라’라는 별칭을 갖게 된 이유는 나일강의 수원처럼 신비로운 신화의 지역이거나 광활한 사막이나 무시무시한 정글과 같은 물리적 장애물이 있어서가 아니다. … 신성시되어 사실상 하나의 종교가 되어 버린 한국의 고립 정책 때문이다.”

“지금 아시아 동쪽 끝자락에서 이쭈시개를 가져올 수도 있고, 프레스터 존²의 발 크기도 알아올 수 있습니다.”

- 셰익스피어의 『헛소동』 중에서

I.

세계 역사상 아주 오래전부터 미지의 세계에 열광하며 대망을 품은 사람들을 매혹시키는 신비로운 곳은 지구상 어느 곳인가 항상 있어 왔다. 지난날, 그리고 과거로 거슬러 수 세기 동안 나일강의 수원지水源

Harper’s Weekly 1889. 01. 12. pp.37~40

하퍼스 위클리
미국

구9756
42.6×29.4

地는 신비의 도시 엘도라도처럼 여러 국가의 탐험 욕구를 자극하였다. 전설과 허구에 감싸인 또 다른 곳, ‘은둔의 나라’로 알려진 한국은 오늘날 세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그리고 한국은 그 모습을 세상에 드러내지 않은 채 남아 있는 마지막 국가들 중 하나로서, 진정한 극북極北의 땅³으로 인식될 것이다.

한국이 ‘은둔의 나라’라는 별칭을 갖게 된 이유는 나일강의 수원처럼 신비로운 신화의 지역이거나 광활한 사막이나 무시무시한 정글과 같은 물리적 장애물이 있어서가 아니다. 바다로 둘러싸인 한국에는 외부 세계의 출입을 막는 그런 종류의 장애물이 없다. 그보다는 시간이 지날수록 신성시되어 사실상 하나의 종교가 되어 버린 한국의 고립 정책 때문이다. 현 왕조가 서양 사람, 즉 서쪽 바다를 건너온 사람들로부터 방해 받지 않으려고 펼쳐온 이 정책(쇄국 정책)은 성공적이었고, 이것이 바로 외세 침략의 잔해 속에서 소위 중국의 ‘아우’라 자처하는 현재 한국의 모습을 만들었다.

소위 ‘미개인과’의 작은 전쟁’으로 알려진 1871년 강화도 폭격 사건(신미양요) 직후 미 장군에게 보내온 편지의 첨부문을 통해 ‘은둔의 나라’를 고집하는 그들의 정신세계를 엿볼 수 있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곳 사람들은 우리의 문명을 즐기며 4천 년을 살아온 민족입니다. 우리는 다른 것은 원하지 않습니다. 다른 나라를 괴롭히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왜 우리를 괴롭힙니까? 우리나라는 극동에 위치해 있고, 당신들의 나라는 극서에 위치해 있습니다. 무슨 목적으로 수천 마일의 바닷길을 건너왔습니까? 침몰된 배(제너럴셔먼호)에 관해 알아보기 위함입니까? 그 배에 탄 사람들은 해적질과 살인을 저질렀기 때문에 죽음으로 벌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의 땅을 원하는 겁니까? 그렇게는 안 됩니다. 우리와 교류를 원합니까? 그것도 불가합니다.”

과거 한국의 정책은 이러하였다. 10년 뒤, 낯선 세계에 관한 호기심의 발로였는지, 혹은 최근에 미국에 개항을 한 속적에 대한 질투심 때문이었는지, 한국은 일본과 처음으로 조약(강화도조약)을 맺고 이후 미 해군 슈펠트 장군을 통해 미국과 조약을 체결하였다. 이어서 영국, 러시아, 프랑스, 독일 그리고 이탈리아와 조약을 맺었다.

1866년 프랑스군의 총성(병인양요)과 1871년 ‘미개인과’의 작은 전쟁’(신미양요)이 조선의 자부심을 드높이고, 조약을 체결하는 데 적지 않은 영

향을 미쳤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프랑스와 미국 등 두 강대국이 한국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이 한국의 허영심을 자극하였고, 4천 년 동안 만들어진 자신들의 문명’ 속에서 신성화된 그들의 체면과 편견의 장벽은 강화에서의 폭발음과 함께 결국 영원히 무너졌다.

그러나 옛것에서 새로운 것으로의 전환이 구체제를 선호하는 세력의 도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다. 대립하는 당파들 간의 논쟁과 대립은 1882년(임오군란)과 1884년(갑신정변) 폭동으로 정점을 찍었다. 그런데 그들은 이상하게도 일본에 대항하는 데 대부분의 힘을 소진하였고, 일본인들은 그들 특유의 영웅주의와 용맹함으로 한국인들을 대하였다. 여기에서 단 한 명의 유럽인도 이 사건과 관련하여 공격이나 모욕을 당하지 않았다는 것을 밝힐 필요가 있다. 그리고 사실상 ‘시끄러운 집안싸움’과 같은 일에 불필요하게 큰 관심을 가졌던 것이라는 결론에 자연스럽게 이르게 된다.

한국에서 자유 진보주의가 승리했다는 것은 두 명의 대사⁴를 각각 미국과 유럽의 조약 체결국으로 파견하였다는 사실로 확인할 수 있다. 비록 중국의 ‘아우’로 인정된 것이긴 해도, 한국의 서양 세계 무대로의 첫 등장은 이렇게 조명을 받았다. 한국의 현재 왕(고종)은 이 태조가 설립한 왕조의 후손이고, 26대 왕⁵이다. 1368년 몽골 왕조가 중국의 용의 왕좌에서 물러난 이후(원명 교체), 당시 훌륭한 명성과 지성을 갖춘 젊은 장군인 태조가 한국의 왕으로 선택되었다. 군인의 본능을 가진 태조는 왕국의 수도를 현재의 위치로 옮긴 후 우수한 방위 체계를 구축하였다.

1863년 당시 12살이었던 이희(고종)는 명목상 왕좌에 올랐다. 그러나 사실상 무자비하고 악명 높은 그의 아버지 대원군의 섭정이 이어졌고, 1873년 이후에서야 이희는 실질적인 권한을 갖게 되었다. 이희는 ‘대조선, 대군주’, 즉 위대한 조선의 위대한 왕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영의정·좌의정·우의정의 직급을 가진 세 명의 정승과 함께 정사에 임한다. 그 아래에는 이조—인사 임명, 호조—재정, 예조—의례, 병조—전쟁, 형조—사법, 공조 등의 6개 부처가 있으며, 각 부처에는 장관급 이하 여러 명의 차관들이 있다. 각 부처의 장은 판서이고 그 이하로 참판, 참의 등의 직급이 있으며, 주사라는 직급의 하급 관리들이 다수 있어서 의사 전달자이자 통역관의 역할을 한다. 정부의 수입으로는 토지세와 관세가 있으며, 세관은 중국 세관에서 조직하여 주로 유럽국 출신으로 구성되었고⁶ 보스틴 출신의 미국인⁷이 기관장이다.

군사 조직의 규모는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지만, 주로 활을 쏘는 궁사들과 창·미늘창·구식 철갑옷으로 무장한 군인들로 구성되어 있다. 레밍턴 총으로 무장한 부대와 6개 총열을 단 개틀링 포로 무장한 부대도 있다. 이는 구식과 신식이 얼굴을 맞대고 있는 셈으로, 상국이 서로 닿아 있는 꼴이다. 최근에서야 한국의 군대에 최신식 전투 교육을 하고자 네 명의 미군 장교가 한국에 도착하였다.⁸

II.

한국은 더 이상 ‘은둔의 나라’가 아니다. 자신의 명운과 미래를 바깥 세계에 던지고 그동안 갈망해왔던 세계로의 진출을 꾀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한국은 알려지지 않은 나라이다. 따라서 자주 제기되는 질문에 답하는 것이 좋겠다. “한국은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라는 질문이다.

흔히 한국이라고 불리는 이 나라는 중국과 만주의 북동부 끝자락에서 태평양으로 뻗어 있는 반도로서, 북위 43도에서 34도 사이와 동경 125도와 131도 사이에 위치해 있다. 북단은 신화와 전설의 백두산—영원히 하얀 산—에서 기원하는 압록강과 두만강이 경계를 이룬다. 강의 북쪽으로는 러시아와 만주, 그리고 북서 방향으로 중국이 있다. 압록강은 서쪽으로 흐르고, 두만강은 황해⁹(서해)와 일본해(동해)를 향해 동쪽으로 흐르기 때문에, 이 반도를 대륙에서 분리된 것으로 보고 한국이 섬나라라는 속설이 생기기도 하였는데, 이는 독자들에게는 큰 관심사가 아닐 것이다.

우리가 상상력을 발휘해서 한반도의 모양을 살펴보면, 한반도는 한국인들이 선호하는 힘의 상징이자 이상적인 동물인 용의 형체와 유사하다. 비교하자면, 용의 머리는 일본해와 만나는 두만강 입구에 걸쳐 있고, 귀는 브뤼아곶(북한의 무수단 부근)에 튀어나와 있고, 목은 브로턴만(북한의 동조선만)의 쑥 들어간 부분에 해당한다. 어깨와 허리는 두로치곶(북한의 금강산국립공원 앞 해안)과 펠리시에곶(울진 근해)으로 이어지고, 꼬리는 부산¹⁰에서 켈파트섬(제주도)까지 연장된다. 발은 황해의 남쪽에 있는 군도이고, 압록강과 대동강 어귀 북쪽이다. 용의 중추는 구불구불 이어진 반도의 동쪽 능선으로 일본해를 따라 남북으로 벽을 세운 듯한 모양이다. 서쪽으로 비탈진 면과 작은 구릉들이 경사를 이루어서, 황해로 흘러가는 한강·대동강·압록강 등 여러 강을 따라 비옥한 계곡들이 줄지어 형성되어 있다.

한국의 기후는 겨울에는 춥고 건조하며, 여름에는 덥고, 봄·가을은 온화하여 비교할 바 없이 좋다. 한국의 식물군은 식물학자들에게 무한한 연구거리를 제시하고, 수도를 에워싼 구릉과 산은 이름 모를 각종 야생화로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다.

완벽한 자태를 뽐내며 피어나는 국화는 한국인들이 아끼는 꽃이다. 꽃 중의 여왕인 국화는 한국에서 시문학의 영원한 소재이다. 한국의 자생 동물군으로는 곰, 멧돼지, 사슴, 표범과 호랑이 등이 있다. 수도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다수 발견되는, 굉장히 활발하고 털이 긴 호랑이들은 동물학자들에게 수수께끼로 남아 있다. 어떻게 인도 정글에서 자생하는 호랑이들이 한국까지 오게 되었을까? 한국에 와서는 어떻게 적응하였을까? 각종 사냥감도 풍부하다. 야생 백조, 거러기, 오리, 너새, 꿩 등이 많다. 강과 어귀에는 굴, 조개, 거북 등이 있다. 한국은 대식가의 나라이다. 풍부한 광물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이 나라의 금, 은,

납, 구리 등의 광산은 자본가의 큰 관심을 끌고 있다.

한국의 행정구역은 감사와 그를 보좌하는 수령이 다스리는 8도로 나누어져 있다. 인구는 약 1,200만이다. 한국의 과거 역사는 중국 전통의 영향을 크게 받았는데, 이 글에서 그것을 다루기에는 내용이 너무 애매하고 끝이 없다. 또한, 독자들에게는 그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할 시간이나 인내심도 없을 것이고 그다지 흥미롭지도 않을 것이다.

이미 1744년에 볼테르는 그의 책 『역사에 대한 새로운 고려 사항(Nouvelles considerations sur l'histoire)』에서 이와 관련해 매우 적절한 말을 하였다. “고대 역사는 근대 역사와 비교할 수 있고 고대 메달은 현대 통화와 비교할 수 있다. 전자는 개인의 방에 놓아두는 반면 후자는 인간의 상업 세계에서 유통된다.”

한국의 역사는 기원전 1122년 최초의 왕 기자(箕子)¹⁾로부터 시작된다. 기자는 한국 땅의 아버지이다. 근방에 있는 그의 무덤은 모든 한국인에게 신성한 곳이다. 이 왕은 8개 법(8조법규)을 만들었다고 한다. 모두 이 법을 잘 지켜서 “강도가 없고, 집에 담을 두를 필요도 없고, 상점의 문을 잠글 필요도 없고, 정절을 지키지 않은 여성도 없다.”고 할 정도였다. 안타깝게도 지금은 기자가 통치하던 좋은 시절은 옛말이 되어버렸다. 도둑을 제압하는 일은 다반사이다. 숨겨 좋은 인간 백정이 매우 바빠질 때가 있고, 자물쇠와 빗장이 필수품이란 것은 누구나 다 인정하는 바이다. 그리고 여성들은 정숙하지 않다고 한다. 맏소사, 그런데도 19세기에 모든 것이 진보하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기자의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 그는 원래 중국의 귀족인데, 끝없이 계속되는 자국의 분쟁에 지쳐서 평화와 고요함을 찾아서 한국이라는 나라에 오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 나라에 매료된 그는 이곳을 조선, 곧 '고요한 아침의 나라'¹²라 불렀고, 지금까지도 이 이름이 널리 알려져 있다. 기자가 다스리던 시절은 평화롭고, 선정이 베풀어졌으며, 그의 왕조는 서양력 4세기까지 지속되었다. 이 역사적 시기는 역사 연구자에게 항상 수수께끼로 남아 있는 만주 고원에서 벌어진 불가사의한 혼돈의 시기에서부터 시작된다. 그곳의 대초원과 벌판에서 막강한 거란, 흉노, 몽골, 터키, 타타르족들이 아시아 대륙으로 진입하여 세력을 뻗어가 유럽 대륙까지 휩쓸고는 그 거대한 힘으로 로마 제국을 무너뜨렸다. 한국도 그 영향을 피하지 못하였다. 한국은 그들이 전진하는 길목에 놓여 있었다. 13세기에 막강한 칭기즈 칸과 쿠빌라이 칸의 부대가 쳐들어왔고, 1592년과 1597년¹³에는 일본의 침략이 이어졌다. 몽골¹⁴과 만주족이 1637년에 침략(병자호란)하는 등 이 시기는 한국의 암흑기였다.

한반도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오래된 역사 속에 등장하는 이집트인들처럼 끊임없는 외세의 침략 속에서 산산이 부서지곤 하였다. 오늘날의 한국인과 이집트 농부의 모습은 이렇듯 유사한 배경 속에서 만들어졌다. 두 나라 모두 4천 년 역사를 자랑하지만, 이집트 역사와 한국 역사

라는 말은 명목상일 뿐이다.

III.

뉴욕에서 극동아시아에 위치한 한국의 수도, 서울로 가려면 육로와 해로를 따라 약 1만 마일(약 1만 6,000킬로미터)을 가야 한다. 한국이 동방 여행의 목적지가 되리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다. 1887년 9월 3일 나는 증기선 루이지애나호를 타고 뉴욕을 떠나 목적지로 향하였다.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 9월 21일에 (샌프란시스코항에서) 요코하마로 출발하는 북경호를 탔다. 나는 동방의 여러 지역으로 소위 비종교인들을 선교하고자 떠나는 50여 명의 선교사와 그들의 부인, 아이들 등 좋은 일행과 함께하게 되었다. 배가 샌프란시스코항에서 출발하는데 일행의 친구들이 많이 와서 열정과 감정을 실어서 ‘그곳에(Over There)’¹⁵라는 매우 슬픈 분위기의 노래와 찬송가를 불렀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함창이 태평양 바다를 그다지 달래주지는 못하였다. 출항 후 10월 10일 요코하마에 도착할 때까지 우리는 바다 위에서 춤을 추다시피 해야 했다. 나는 일본우선주식회사¹⁶의 증기선 요코하마 마루호가 출항하기를 기다리며 8일간 요코하마에 머물러야 했다. 이 배를 타고 10월 25일에 나가사키에 도착하였고, 다시 같은 회사의 다른 증기선으로 갈아타고 이틀 동안 항해한 후, 마침내 10월 28일 한국의 제물포항에 도착하였다.

뉴욕을 출발해서 도중에 지연된 날까지 포함하면 56일이 소요되었다. 일본에서의 연착은 아쉽지 않았다. ‘떠오르는 태양’¹⁷ 일본이라는 나라를 방문한 경험에 있었고, 그 나라에 대한 호감, 특히 아름다운 일본 여성에 대해 호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였다.

실제 어떤 사람은 정신이 팔리기도 하였다. 일본에 머무르던 때, 나는 처음으로 한 용감한 미국 해군 장교가 일본 미인을 위해 만든 노래를 들었다. 그 노래는 큰 인기를 누렸고 장교는 국민 시인이라는 칭호와 지위를 얻었다. 아름다운 오유차상을 이상적으로 묘사한 이 서정시는 로잘리의 선율에 맞추어 부른다. 그 노래의 가사는 다음과 같다.

“나는 그녀를 일본의, 일본의 미인이라 부르네
그녀의 이름은 오유차상, 유차상,
그녀의 연한 갈색 눈에
상냥함이 있네
그녀는 ‘이치반’이네(최고라네)
그녀의 자태는, 자태는 진정으로 예술이네
그녀의 옷, 그녀의 옷 매무새는 신비롭네
보기 드문 장신구에서부터
그녀의 윗가리 나는 검은 머리카락,
그리고 나막신을 신고 안쪽으로 모아 걷는 그녀의 사랑스런 발까
자...”

아담한 쓰루가 마루호는 친절한 후세이 선장이 지휘를 맡고 있는 증기선이다. 선장은 일본우선주식회사에서 20년 동안 일했지만, 원래는 미국 북부 출신이다. 코드곶에서 출발하는 선박의 선장들 중 최고로 손꼽힌다. 그는 10월 28일 아침 일찍 제물포의 외곽 포구에 닻을 내렸다.

그때 나는 막 『조선, 고요한 아침의 나라(Chosŏn, the Land of the Morning Calm)』¹⁸라는 책을 읽다가 내려놓았다. 이 책은 다채로운 스펙트럼으로 한국을 관찰하고 묘사하고 있다. 책의 내용은 순수하지만 지나치게 열정적이다. 로크는 열정이란 “부풀어 오른 혹은 과도한 상상력의 자신감에서 생겨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사실 나는 불멸의 하느님의 이름으로 마음을 부풀어 오르게 하고, 조선 땅을 장밋빛으로 묘사한 글들과는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다.

향구와 우리 배 사이에 길게 펼쳐진 개펄과 칙칙하고 우중충한 경관과
 납빛의 땅과 하늘을 보면서, 내 마음에 선명하게 떠오른 것은 '중국인
 고든'¹⁹과 함께 처음으로 어두운 대륙의 수도(베이징)를 목격하였을 때
 드러난, 어둡고 침울한 곤도코로 지역의 모습이었다. 그렇지만 중앙아
 프리카와 비교하였을 때 제물포, 아니 한국은 천국이다. 그렇다고 작
 가가 묘사하였던 그 정도의 아름다움에 미치지는 못하고 또한 전혀
 동양적이지도 않다.

1882년 조약(조미수호통상조약)으로 인해 ‘인천’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제물포는 그저 토속적인 어촌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이제는 상당히 중
 요한 도시가 되었다. 보다 엄밀하게는 서울 내부의 오른쪽 강둑에 위
 치한 마포를 떠나 굽이굽이 60여 마일을 흐르는 한강 어귀에 제물포
 가 위치해 있다.

그러나 수도까지의 육로는 불과 27마일 떨어져 있다. 그 길은 황소, 조랑말, 짐꾼들이 등에 짐을 싣고 이용하는 주요 교통로이다. 제물포에는 이미 외국인들의 거주지가 조성되어 있어 자랑거리이다. 주로 일본과 중국의 상인들이 거주하고 있다. 유럽인들은 관세사 혹은 독일과 미국 회사 '모스 앤드 타운젠드 상회'²⁰⁾의 직원들이다.

오스트리아인이 운영하는 코레 호텔과 다이부쓰 호텔²¹도 제물포의 자랑거리이다. 다이부쓰 호텔 소유주는 뚝뚝하고 배가 볼록하게 나온 쾌활한 성격의 전형적인 일본인이다. 그는 다이묘 계급²² 출신은 아니고, 힘든 노동으로 손이 거칠어진 일본의 소작인 출신이 분명하다. 사업 가능성을 보고 미국 전함을 타고 한국에 들어온 다이부쓰는 모든 분야에 능숙하다. 호텔에서 제공하는 맥주와 음식들은 투숙하는 외국인 장교들 사이에서 단연코 '이치반(최고)'으로 인정받고 있다. 그는 호텔 운영자일 뿐만 아니라 은행가, 브로커, 도살업자, 제빵사이며 또한 구두 제조자이다. 이 모든 분야에서 성공을 거둬 제물포에서 꼭 필요한 존재로 여겨지고 있다.

미국의 팔로스호는 거의 매일 제물포에 정박해 있었다. 내가 도착하였을 때, 배의 사령관과 상급 장교들은 선상에서 격식을 갖추어 나를 환

영해 주었다. 영광스럽게도 그들은 알렉산드리아 폭격 시²³ 현장에 있었던 수많은 그들의 동료와 내가 인연이 있다는 것을 알고 나를 기억해 주었다. 앞서 언급하였던 국민 시인인 장교가 팔로스호에 임무 수행 중 승선하고 있었다. 그는 이 낡은 배를 소재로 노래를 만들었고, 장교들은 밤이면 감정을 담아서 다음과 같은 팔로스호 노래를 열정적으로 불렀다.

팔로스라고 부르는 군함에서
내가 그대에게 짧은 글을 써주겠네.
부대의 자랑이자 아끼는 것,
어느 다른 함정들보다 그녀가 최고라네.
모든 바다를 탐색하라.
중국·호주·한국·일본의 바다를,
그대는 이보다 더 좋은 배를 찾지 못할 터이니,
비슷한 설교로 만들어진 것도 찾지 못할 터이니.

코러스 :
팔로스! 그녀가 최고네!
그렇고말고! 그녀는 데이지 꽃이네;
그녀는 어떤 군함과도 비할 바 못되네.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진실
세상에! 그녀는 날 듯 나아가네
진정으로 놀랄 만한 속도로
하하하, 만세
미국의 자랑, 팔로스를 위하여

일투심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놀리려 하네,
 그녀가 결코 항구를 떠나지 못할 것이라 말하네
 하지만 그녀는 믿음직한 순양함.
 그리고 가장 훌륭한 순양함 중 하나,
 그녀는 미국에서 왔대네
 그녀가 정박하는 모든 항구를
 일본과 한국의 모든 곳을 안다네
 홍콩에서부터 텐진의 해변까지도

그녀가 대단히 아름답다고 생각하지는 않네;
우리가 그녀의 모습에 반한 것이 아니네
하지만 왜 이 불쌍한 작은 것을 비방하는 것이
자신의 의무라고 생각해야 하나?
나는 그들이 모두 여기에 오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아네
내가 잊어버린 그 많은 이름들:
그들은 대위에서부터
신참 사관생도들까지

구닥다리가 된 상점
혹은 너무 낡아서 고칠 수 없는 물건

<div><div></div> 혹은 노아의 방주에서 그 기원을 찾을 만한 총 입을 수 없을 정도의 제복을 가지고 있는가? 이들을 썬버리기 위해 조사를 벌이지 마라. 우리 나라에게 낭비가 될 수 있으니 아니, 아니, 이것들을 팔로스 구축함에 실어 보내는 것이 훨씬 좋을 것이라오.</div>	
	코러스
<div><div></div> 우리 해군은 골머리를 앓고 있네 낱아빠진 구식 배로 팔로스호는 그중에서도 손꼽히네 곧 그녀는 고물 가격으로 팔릴 것이네 이야기 속 작은 강아지처럼 ‘트레이’라는 별명을 가진 팔로스, 아직은 영광을 누리지만 곧 사라질 것이네</div>	
	코러스

제물포 거리는 전형적인 국경 도시의 모습과 흡사하였다. 맥주와 그로 그주²⁴를 파는 상점들이 눈에 띈다. 맥주와 럼주라는 매개체를 통해 서구 문명을 향해 첫 걸음을 내딛었다는 점이 이채롭다. 술은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 미국 인디언들은 이것 때문에 죽었지만 한국인들은 그들이 처음 세상에 알려졌을 때 이미 상당한 술꾼들이었기 때문에 술이 그들에게 해악이 될 것을 걱정할 필요는 없다. 내가 도착한 그날 미국 회사에 관심이 있는 소사qua(Mr. Sosaqua)²⁵라는 현지의 점잖은 남자가 나를 찾아왔다. 그는 솔직하고 똑똑한 사람이었고 동양인 특유의 돌려 말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그는 하고 싶은 말을 직설적으로 요점 있게 잘 전달하였다. 이 상황을 묘사하자면, 호기심에 가득 찬 눈빛으로 나의 출신지인 위대한 서양 세계에 대해 알고 싶어 해서 우리는 대화를 나누었다. 잠시 틈이 났을 때, 나는 그에게 개와 고양이를 한국어로 뭐라 부르는지 물어보았다. 소사qua는 내가 고양이와 개과 동물의 상태에 대해 물어보는 것이라 여기고는, 나에게 “왜, 낯선 사람이 개와 고양이에 대해 묻느냐? 개와 고양이가 한국의 남자와 여자보다 더 중요하단 말인가?”라고 물었다. 상황이 난감해졌다. 이후 나를 놀림거리로 삼는 대화 속에서 열심히 웃어야 하였다.

소사qua는 한국의 길드 조직이라 할 수 있는 막강한 부상(負商)의 일원이 다. 중국의 경우에서 보았듯이, 이 조직은 동양의 노동자 계층으로 수 세기 동안 자신을 정부와 자본가들의 독재로부터 지키려 하였다는 것을 입증한다. 부상은 10만 명에 달하는 조직원으로 구성되어 엄격한 규칙과 규율에 따라 철저하게 운영되는 조직으로 강력한 정치적·상업적 세력이 되었다. 이 조직이 조정 마후의 권력으로까지 성장해 왔다

는 점은 한국처럼 전제주의적 국가라고 생각되는 곳에서 매우 기이한 현상이다. 맥글린은 그가 이끄는 ‘빈곤퇴치협회’를 위해 한국인들에게 한 수 배울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할 정도였다.

10월 29일 아침, 나는 가마꾼 네 명이 드는 가마를 타고, 교대 가마꾼 네 명과 함께 도성으로 출발하였다. 이들에게 각각 1달러에 상당하는 현금 1,400냥을 주었다. 즉 27마일 거리²⁶를 여행하는 데 총 8달러를 쓴 셈인데, 비싸게 느껴질 것이다.

수많은 초가집 마을을 지나서 가는 길에 좋은 뷔페식을 제공받았다. 한국인들의 식욕과 소화력은 대단하다. 한국인들에게 식사란 큰 기쁨을 주는 일이다. 한국의 노동력이 저렴하다면 생활비 또한 저렴하다 할 수 있다. 국, 고기, 사우어크라우트²⁷와 비슷한 김치, 곱창 등이 50냥이면 된다. 이는 4센트에 불과한 금액이다! 따라서 한국인은 불쌍한 사람들이 아니다. 오히려 나는 왕자든 소작농이든 저녁 식사를 먹지 않는 경우를 보지 못했다. 사실, 이들에게는 맛있는 식사가 지상의 목표인 것처럼 보인다.

한국의 주요 과일인 감은 크고 정말 맛있다. 한국에서의 감은 마치 아랍 지역의 대추 같다. 확실하지는 않지만, 훌륭한 기자왕이 한국을 ‘조선, 고요한 아침의 나라’가 아니라 ‘감’이라 부르려 하였을 것 같다.²⁸ 그렇다고 내가 우기지는 않겠지만, 진실로 한국은 최상급의 감을 가진 나라이다.

제물포와 수도 서울 사이에는 원형의 언덕, 장애물과 계곡이 첩첩이 이어지며 멋진 논밭을 만들고, 쌀과 밀을 주곡식으로 경작하고 있다. 마포는 수도로부터 10리, 약 3마일(약 4.8킬로미터) 떨어져 있는데 정말 외곽 지역이다. 오른쪽 강둑에 접해 있고 지대가 높다. 소와 당나귀를 싣고 끝없이 왕복하는 나룻배를 이용해 갈 수도 있다. 거룻배와 소형 돛단배들이 강변에 정박해 있어 마을은 상업적인 활동과 생활 모습을 잘 보여준다.

해가 저서 마음이 조급해진 나는 가마꾼들에게 성문이 닫히기 전에 도착할 수 있도록 빨리 가라고 재촉하였다. 만약 성문이 닫히면 밤마다 성 밖에서 어슬렁거리는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밤을 보내야 한다고 들었다. 이런 일은 빈번하다고 한다. 성문의 개폐는 매우 엄격하여 오직 왕의 허가만이 그 일정을 바꿀 수 있다고 한다.

서울로 들어가는 길의 풍경은 인상적이었다. 해가 질 무렵 멀리 보이는 북악산은 위엄 있는 주변 산들과 함께 수평선 위에 멀리 보이고, 오르락내리락 하는 산등성이를 따라 축조된 높은 성벽이 에워싼 도시가 보였다. 출입로인 장엄한 대문이 여기저기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멀리서 보이는 것이기에 착시가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일단 성문 안으로 들어서면 사방에 초라한 초가집과 오물 웅덩이, 고약한 냄새 등으로 인해 성 밖에서 보았던 석양 속의 환상적인 모습은 사라지고 말기 때문이다.

10월 29일 땅거미가 질 무렵에 우리는 서문(西門)을 통과하였다. 오른쪽으로 꺾어 돌아가니 나에게 신기한 눈길을 주며 좁은 길을 따라 서 있는 수백 명의 한국인들이 있었다. 그들은 기회가 생길 때마다 내가 탄 가마 창문으로 얼굴을 들이밀고는 나에게 “누구나?(Nu gunya?, 누가 왔느냐?)”라며 묻곤 하였는데, 그러면 이내 ‘서쪽 바다에서 온 사람’이라는 뜻의 “서양 사람(So yang Saram)”이라 대답하였다. 이 고행의 길을 무사히 통과하자 곧 정동에 있는 미국 공사관에 도착하였다. 나는 미국 공사²⁹로부터 환대를 받았다. 그리고 내가 서울에 체류하는 동안 기거하게 될 중국식 관청같이 생긴 작은 집으로 안내되었다.

IV. 서울은 14세기에 조선 태조가 건설한 도시이다. 북위 37도 30분, 동경 127도 4분에 위치한 서울은 동북쪽에서 남서 방향으로 비정형 타원형의 형태로 생겼고, 북쪽과 남쪽에 두 개의 큰 산, 북쪽에 북악산과 남쪽에 남산이 자리 잡고 있다. 매일 밤 산 정상의 거대한 초소에 불이 켜진다. 400여 년 동안 그 불은 조선이 평화로운지 위험한지를 알리는 신호였다.³⁰

서울은 20~30피트(약 6~9미터) 높이와 2~3피트(약 60~91센티미터) 폭의 성곽으로 둘러싸여 있다. 성벽에는 총안구가 만들어져 있다. 매우 가파른 산의 측면을 타고 언덕과 계곡을 가로지르는 거대한 성곽은 봉건시대 거대한 성과 같은 모습이다. 중국의 관청 스타일을 따라 만들어진 8개³¹의 견고한 석조 건축 대문이 시내로의 진입을 통제한다.

북문(속정문)은 북악산 바로 아래에 있는데 왕의 전용문이다. 이 문은 왕의 지시에 따라 왕실에 위협이 닥쳤을 경우 퇴로로 사용하는데 북한산성에까지 연결된다. 폭이 100피트(약 30미터) 정도 되는 긴 대로가 동서로 뻗어 있어,³² 시내를 가로지르며 도성을 양분한다. 또 다른 도로는 폭이 55피트(약 17미터) 정도 되며 주 도로를 수직으로 가로지른다.³³

이 두 개의 도로는 대로라는 이름에 걸맞지만, 나머지 길은 좁은 골목과 오물과 더러운 냄새로 악취가 나는 도랑들(청계천)이다. 주 도로가 만나는 지점인 종로라고 불리는 일대에는 종각이라 불리는 종루가 있고 여기에 ‘인경’이라고 불리는 거대한 종이 있다. 이 종은 높이 7피트(약 2미터)와 둘레 10피트(약 3미터)의 종으로서, 오래전부터 아침과 저녁 통금 시간을 알리고 사대문의 개폐를 알림으로써 사람들에게 길거리 돌아다니기를 멈추고 집에 가야 할 시간임을 알렸다. 종지기는 자체적 타종법을 사용하는데, 서까래에 쇠사슬로 매달려 있는 나무 봉을 이용해 종을 친다. 종지기는 영예롭고, 돈을 잘 버는 직업이다. 그 소수의 종지기 자리에는 왕가의 일원이 임명된다.

서울에 있는 유럽인들은 외교와 영사 목적으로 온 열강의 대표 단원들과 미국의 감리교와 장로교 선교사들인데 이들을 합치면 약 100명

정도가 된다. 미국 선교사들은 남녀 의사의 도움을 받아 화학과 의학을 가르치는 학교를 창립하고, 각각의 분야에서 성과를 거두어서 모두의 신뢰와 존경을 받고 있다. 그래서 정부도 특별히 장로교 학교³⁴를 후원하고 있고, 이 학교의 책임자³⁵에게 참관의 지위와 훈장을 주었다. 밤이 되면 이 도시의 5만 개 정도의 초가집 구들³⁶에 불이 지펴진다. 여기에서 구들이란 각 방 아래에 만들어진 연기 이동로이다. 땀감이나 소나무 잔가지를 아궁이에 넣고 태운다. 굴뚝을 통해 연기가 길로 빠져 나오기 때문에, 지나가는 행인의 폐와 눈은 고통스럽고 건강에 해롭다. 서울의 밤은 음침하고 우울하다. 종각의 종소리와 백파이프처럼 듣기 괴로운, 이상한 소리를 내는 ‘조’³⁷라고 불리는 악기는 대문이 닫힌다는 것을 알린다. 산 정상의 횃불은 철수 신호를 알리고, 사람과 개는 보금자리로 간다. 여자는 관습에 따라 이 시간에 나와서 여성들만의 특권을 즐길 수도 있다. 나는 오로지 몇몇의 말라비틀어진 여자 노인들만 봤을 뿐, 다른 여성을 본 적은 없다. 연기 자락들이 만든 머리 위의 구름들이 마치 적막한 무덤처럼 어두운 둥근 천장 모양으로 버려진 도시를 덮는 것처럼 느껴진다. 서울은 지금 잠에 취해 있다. 아니면 한국인들은 독한 술에 중독되어 있거나 술에 빠져 있다. 그게 무엇이든 중요하지 않지만, 그것은 잠이나 술의 힘이고 바로 침묵이다. 서울 장안에서 이 적막하고 묘지 같은 낮선 풍경을 보는 나는 이루 다 표현할 수 없는 슬픈 감정과, 테니슨이 쓴 다음의 구절을 읽었을 때의 기묘한 느낌이 떠올랐다.

“우리가 이 세계의 그늘 속에서 빠르게 보낸 우리의 젊은 날. 유럽의 50년이 동방의 60년 한 주기보다 더 낫다네.”³⁸

V. 11월 16일 나는 내무독판 심이택으로부터 다음 날 왕대비³⁹의 건강 회복을 축하하는 자리에 참석하면 좋겠다는 내용의 초대장을 받았다. 그의 초대장은 다음과 같다. (86쪽 도판 06 참조)

물론 궁궐을 방문하려면 반드시 가마를 타고 가야 한다. 다른 방법은 품위가 떨어지는 것으로 간주된다. 궁중 예절에 따르면, 반드시 궁궐의 두 번째 대문(평화문)에서 가마로부터 내려야 한다. 이 관례에 따라 미국 공사와 나는 여러 문신과 무신 관료와 병사들과 마주치며 접견 건물의 대기실까지 상당한 거리를 걸어가야만 하였다.

그날은 춥고 불쾌한 날씨였다. 일반 접견실로 사용되는 얇은 종이문이 달린 방은 춥고 불편하였다. 왕이 우리를 만나겠다고 신하들에게 알리기까지 약 세 시간을 기다리는 동안 궁중 의례 담당자가 우리에게 시가와 맥주, 삼폐인을 대접해 주었다. 직급 서열에 따라 정해진 차례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신하와 관료들이 궁궐에서 입는 관복을 면밀하게 관찰하고, 주의 깊게 볼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생겼다. 재상·판서·참판·참의 모든 계급의 옷이 다 같다.⁴⁰ 차이점은 모자⁴¹의 귀 뒤에 있는

단추⁴²에 있다. 지위에 따라 관자는 금·은·옥으로 되어 있거나 관복의 흉배로 구별이 된다.

한국의 주미 전권대사 박정양의 동생인 박 협판⁴³이 나에게 다급하게 그의 사진을 찍어줄 것을 요청하였다.

여기에 제공된 초상화를 통해 독자들에게 굉장히 특이한 의상을 잘 보여줄 수 있게 되었다. 모자(冠帽)는 원뿔 모양으로 가는 죽사 혹은 말총을 곱게 엮어 만들었다. 관모를 쓰면 양쪽 귀가 날개처럼 튀어나오게 되는데, 이는 관모를 쓴 사람은 왕과 고명한 자들의 분부가 있으면 반드시 날아가듯 달려가 잘 듣고 따라야 하는 민첩함이 있어야 함을 상징한다고 한다.

관복은 어두운 초록색 한국산 비단 소재로 소매는 헐렁하고 길이는 발목까지 길게 내려온다. 관복 아래로 땅딸막한 검정색 천 소재 장화의 짙게 올라온 등이 보이고, 그 안에 발이 있다. 매우 큰 뺨뺨한 띠를 거의 겨드랑이에 가깝게 높게 찼는데, 이 허리띠(판대)는 취향에 따라 뺨, 유리, 혹은 옥 등을 재료로 한 사각형 장식이 연결되어 있다. 나는 이 허리띠가 무엇보다도 흥미로워서, 이것의 탄생 기원이나 용도에 대해 자문해 보았다. 그러나 분명 셰익스피어가 남긴 다음의 글에서 기원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저 잠자는 돌들이 당신의 허리인 양 당신을 감싸네.” 12인치(약 30센티미터)쯤 되는 가슴과 등의 장식판에는 문관이면 황새⁴⁴ 모양이, 무관이면 호랑이 모양이 화려한 견사로 수놓아져 있다. 의복은 독특하고 기이하지만 결코 좋은 느낌이나 우아한 인상을 주지는 않는다.

마침내 내무독판 심이택이 나를 왕에게 안내하기 위해 왔다. 우리 일행은 여러 명의 호위를 받으며 그를 따라 줄을 서서 소리 없이 천천히 걸었다. 내무독판과 한국인들은 고개를 수그린 채 마치 장례 행렬 속에 있는 것처럼 걸었다. 개방형 공간의 알현실 바로 앞에 있는 마당에 도착하자, 의례 담당관과 다른 한국인 관료들이 왕에게 다가가며 몸을 거의 땅에 닿도록 구부렸다. 왕은 책상 앞에 서 있었는데 사면에 상선 내시들로 둘러싸여 있었다. 왕이 신하들에게 직접 말을 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내시들이 의사 전달자 역할을 하는 것이 의례적이다. 알현실로 이어지는 계단에 이르자 관료들은 앞드려 절하였고, 나는 앞으로 나아가 간격을 두고 상체를 구부려 세 번 인사하였고, 마지막 인사를 할 때는 왕에게 다가가며 인사하였다.

왕의 곁에 항상 있는 상신 내시는 백정⁴⁵이고, 가난한 집 출신으로 어린 시절에 내시로 뽑힌다. 신분 상승과 왕실로부터의 보호에 욕심을 가진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있어 왔다. 어른 중에서도 내시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거세함으로써 그들이 고대하던 권력과 지위를 갖게 되고, 다른 동양 국가들에서 그렇듯이 내시부에서 일하며 영향력을 행사하고, 왕의 최측근으로서 존경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나의 통역관으로 일하는 주사는 알현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그는 나의 왼편에 서서 상체를 거의 바닥에 닿도록 구부리고 고개를 들지 않고 속삭이는 말로 대화를 전달하였다.

왕은 주로 건강과 한국 여행에 관한 통상적인 말을 하였고, 나는 예의를 갖추어 왕대비의 건강 회복에 관한 경하의 뜻을 전하였다. 여담이지만, 왕대비는 남의 눈에 띄지 않게 다른 여성들과 함께 뒤에서 손가락으로 뚫은 종이문의 구멍을 통해 보면서 새롭게 도착한 서양 사람을 비판하고 있었다고 한다. 한국인들의 호기심을 남녀를 가리지 않는다. 왕대비는 그렇게 자신의 호기심을 충족시킬 수 있었다.

왕은 키가 약간 작았지만 상당히 느낌이 좋은 외모에서 선함과 온유함이 배어 나왔다. 매우 진한 검은색 눈은 생기와 지성으로 빛났다. 밝은 옐로우색은 왕의 색깔이다. 그는 매우 밝은 다홍색 전사로 만든 어의를 입고 있었다. 금색 허리띠를 매고, 머리의 관은 일반 관리들이 궁궐에서 쓰는 모자와 비슷한 모양이지만, 부속물이 붙어 있지 않은 점은 다르다. 관복의 어깨, 가슴, 등에 장식된 네모난 판에는 용이 금색 자수로 장식되어 있었다. 궁궐에서 나눌 법한 일반적인 대화를 다 끝낸 후에 왕은 우아하게 그의 머리를 기울이는데, 이는 물러가라는 신호이다. 나는 뒤로 물러났고, 나의 통역관이 뒤따라 나왔다. 왕의 알현은 여기에서 끝났고, 알현 과정은 종료되었다.

돌아오는 길에 왕세자에게 같은 방식으로 인사하는 것은 필수적이었다. 왕세자는 방금 떠난은 알현실과 유사한 모양의 개방형 알현실에서 우리 일행을 맞이하였다. 17세의 젊은 왕자는 여러 내시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는데, 내시들은 그에게 통역관과 같은 역할을 한다. 또한 여러 신하들이 그를 모시고 있었다.

이 의식이 끝난 후에 나는 대기실로 돌아왔다. 심이택 내무독판과 예의를 갖추어 인사를 나눈 후에 가마를 타고 정동의 거처로 돌아왔다. 나의 첫 번째 ‘대조선, 대군주’, 즉 위대한 조선의 위대한 왕의 알현 경험은 매우 만족스러웠다.

1 원문에서 저자는 '한국(Corea)'과 '조선(Chosŏn)'을 구분하여 사용했으므로 저자의 표현을 따랐다. 2 중세 시대에 아시아 및 아프리카 등지에 강대한 기독교 왕국을 건설했다고 알려진 전설 속 인물이다. 3 '북북의 땅'은 유럽의 고대 문학과 지도에 등장하는 단어 로 북북(Far North)에 있는 한 지역을 말한다. 4 1837년(고종 24) 8월에 주미 특명 전권공사로 파견된 박정양(朴定陽)과 프랑스령시-아영국·독일·이탈리아 등 5개국의 전권공사로 파견된 내부부 협판 조신희(趙庭熙)를 말한다. 5 원문에는 28대로 되어 있어 바로잡았다. 6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관세 업무를 담당한 사람은 1869년(고종 6) 이홍장의 추천을 받아 한국에 온 독일인 필렌도프였다. 그 뒤 총세무사는 미국인 메릴(Henry F. Merrill(1885), 수니케(J. F. Shoenicke)(1889), 모건(F. A. Morgan)(1892), 영국인 브라운(J. McLeavy Brown)(1894) 등이 담당했다. 7 수니케를 말한다. 8 1889년(고종 25) 2월 사관 양성소격인 연무공원이 창립되면서 같은 해 4월 수석교관 다이(W. M. Dye), 조교관 커민스(E. H. Cummins), 리(J. G. Lee) 그리고 일본 주재 미국 영사관에 근무하던 닐스테드(F. J. H. Niensstead) 등 미국인 교관 4명이 내한하였다. 9 원문에서 'Yellow sea'를 언급하면서, 두만강이 황해와 일본해가 있는 동쪽으로 흐른다고 표현한 부분은 옳기이다. 10 원문에 딸린 지도 'Map of The Chosŏn Land'를 보면, Chosŏn은 부산을 가리킨다. 11 중국 은나라 말기에 조선에 와서 단군조선에 이어 나라를 건국하였다는 기자(箕子)를 말한다. 이를 기자동래설(箕子東來說)이라 하는데 고려와 조선시대에는 이를 인정하였지만, 최근에는 이를 부정하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12 '조선(朝鮮)'이란 한자 뜻을 그대로 번역한 것이다. 13 원문에는 1615년으로 나와 있으나 1597년 임진왜란 중에 화의 교섭이 결정되어 일본이 다시 침략한 정유재란을 뜻하는 것으로 보아 바로잡았다. 14 몽골족은 고려를 침략하였다. 몽골족이 이 시기에 '조선'을 침략했다는 것은 저자의 오류이다. 15 본래 국명은 'Home Over There'보마라 줄거름 우리 집이다. 1873년경 김리교 목사 헌팅턴이 작사하였고 톨리우스 오케인 교수가 작곡한 노래로 1868년에 처음 발표되었다. 16 원문에는 Nippon Yūsū Kaisha로 나와 있는데 1885년에 설립된 일본우선주식회사(Nippon Yusen Kaishūki Kaisha, 日本郵船株式會社)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17 '일본(日本)'이란 한자음을 풀이한 것이다. 18 천문학자인 퍼시발 로웰(Percival Lowell, 1855~1916)이 1883년 약 3개월간 조선에서 체류하면서 보고 듣고 체험한 것을 정리한 책으로 1885년 미국에서 출간되었다. 19 '중국인 고든(Chinese Gordon)'으로도 알려진 찰스 조지 고든(Charles George Gordon, 1833~1885)은 실제로는 영국 육군 장교이다. 1860년대 초 중국에서 일어난 태평천국운동을 중국 병사들과 함께 진압하는 데 공을 세웠다. 20 미국무약상의 사장인 모스(James R. Morse)는 일본 고베 지점의 설치 및 운영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바 있는 월터 타운젠드(Walter D. Townsend)를 책임자로 임명하여 인천에 상점을 개설하도록 하였다. 설치 당시 상호는 모스 앤드 타운젠드 상회(Morse and Townsend & Co.)였다. 타운젠드 상회는 요코하마에 있는 미국무역상사(American Trading Company)의 조선 지점이다. 21 일본인 호리 히사타루(堀久太郎)가 지은 대일본(大佛)호텔을 말한다. 1889년(고종 25)에 신축한 우리나라 최초의 서구식 호텔에 인천으로 들어오는 외국인들에게 인기가 높

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커피를 팔아 큰
호응을 얻기도 하였다. **22** 일본의 헤이안 시
대에 등장하여 19세기 말까지 각 지방의 영
토를 다스리고 권력을 행사하였던 유력자를
지칭하는 말이다. **23** 1882년 7월 11일 영국
해군이 이집트 북부의 도시 알렉산드리아에
폭격을 가한 사건을 말한다. 당시 자국 시민
과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해군이 파견되
었는데 화재와 반란군으로부터 미국 공관과
시민을 지키는 임무를 수행하였다. **24** 원래
럼주에 물을 탄 것을 말한다. 럼주는 당밀이
나 시탕수수의 즙을 발효시켜서 증류한 술이
다. **25** 아마도 보부상으로 생각되는데 외국
인인 저자가 들리는 대로 표기하였기 때문에
정확히 누구인지 알 수 없다. **26** 제물포에서
서울 간 거리를 말하는데 43,2결로미터에 해
당한다. 기차가 놓이기 전인데 당시 하룻길이
있다고 한다. **27** 양배추를 발효시켜 만든 유
럽 요리이다. **28** 'Land of the Morning Calm'
의 'Calm'이 한국 발음 'Kam'과 유사한 데서
착안한 것으로 보인다. **29** 1887년(고종 24)
3월에 부임한 디нс모어(Hugh A. Dinsmore)
미국 공사를 말한다. **30** 남산에 있었던 봉
수대를 말한다. **31** 원문에는 7개라고 했는
데 8개의 오류이다. 한양 도성에는 4개의 대
문과 4개의 소문이 있었다. **32** 서대문에서
부터 동대문까지 연결되는 중로거리를 말한
다. **33** 육조거리를 말하는데 오늘날 광화문
앞 세종대로를 가리킨다. **34** 미국 북장로회
선교사 언더우드(Horace Grant Underwood,
1859~1916)가 세운 경신학교를 말한다.
35 1885년(고종 22) H. G. 아펜젤러 목사
와 함께 미국 북장로회 선교사가 되어 조선
에 들어온 언더우드를 말한다. **36** 원문에
'kan'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이는 운돌의 구들
을 말한다. **37** 취타대의 태평소를 말하는 것
으로 보인다.

83
1880년대-PART II

COREA, THE CHOSŌN LAND.

By CHARLES CHAILLÉ LONG, SECRETARY OF LEGATION, SEOŪL.

"I will fetch you a toothpicker now from the farthest inch of Asia; bring you the length of Prester John's foot."—Much Ado About Nothing.



Nation," which has had also its phase of fable and fiction, is attracting the world's attention, and must be regarded at this moment as one of the last of the undiscovered countries of the globe—the veritable *Ultima Thule*.

The pseudonym of "Hermit Nation" has attached to Corea, not because of vast deserts and deadly jungles which interposed as physical barriers to constitute the Nile Sources a region of myths and mysteries—for Corea, situated in the open sea, had none of these to bar ingress—but because of a persistent policy of isolation which, consecrated by time, became in fact a sort of Korean religion. To be let alone by the *Si Yang Soron* (Men from the Western ocean), this was the policy of government which had been successfully maintained by the present dynasty, and which from the débris of invasion was formed into a nation which called itself the "Little Brother" of China.

The subjoined extract from a letter addressed to the American Admiral immediately after the bombardment of *Kang-Whai* in 1871, in an air known as "Our little war with the Heavens," will serve to illustrate the spirit which formerly animated the "Hermit Nation." It said: "This people has lived four thousand years in the enjoyment of its own civilization, and we want no other. We trouble no other nation; why do you trouble us? Our country is in the extreme east, and yours on the extreme west. For what purpose do you come so many thousand miles across the sea? Is it to inquire about the ship destroyed (the *General Sherman*)? Her men committed piracy and murder, and they were punished with death. Do you want our land? That cannot be. Do you want intercourse with us? That cannot be, either."

Such was the policy of ancient Corea. A decade later, whether from a spirit of curiosity to know something of a world to which she had always been a stranger, or jealousy of her ancient adversary, who had but recently opened her ports to the United States, Corea made first a treaty with Japan, and later on, through Admiral STEBELT, of the United States Navy, with the United States—treaties which were followed by those of England, Russia, France, Germany, and Italy.

The thunder of French guns in '66, and "Our little war with the Heavens" in '71, doubtless contributed not a little in creating in Corea a sentiment of national pride which led up to the treaties. The attention of two such great nations as France and America undoubtedly touched the vanity of Corea, and, *grâce* to the bombs at *Kang-Whai*, the barriers of prejudice, though consecrated by "four thousand years of its own civilization," were thrown down finally and forever.

The transition from the old to the new, however, was not to be left unchallenged by the party in favor of the old régime. The discussions and rivalries of the opposing factions culminated in the riots of '82 and '84, which, strangely enough, spent themselves entirely upon the Japanese, who met them with that heroism and valor for which they are distinguished. It is worthy of remark that in neither of these affairs was one single European assailed or insulted, and we must naturally conclude that unnecessary prominence was given to an ebullition which in fact was little else than a "family jar." The triumph of a liberal, progressive spirit in Corea has been marked by the sending of two ambassadors, one to the United States, and the other accredited to the European treaty powers; and in this manner Corea has given emphasis to her debut into the family of nations, even though it should prove to be as the "Little Brother" of China. The present King of Corea, His Majesty LI, is descended from the dynasty founded by NI-TANZO, and is the twenty-eighth sovereign of the line. Subsequent to the fall of the Mongol dynasty from the dragon throne of China in the year 1368, NI-TANZO, then a young soldier of great reputation and intelligence, was chosen as king of Corea. It was TANZO, with the instincts of the soldier, who caused the capital of his kingdom to be removed to its present site, with a view to its admirable system of defences which were subsequently erected. His Majesty LI nominally assumed the reins of government in 1863, when but twelve years of age; but in fact his father, the TAI-WEN-KUN, of cruel and infamous reputation, acted as regent until 1873, when the King assumed authority. His Majesty is known as TAI-CHOSŪ, TAI-KUN-ŌN (Great King of Great Chosŏn). He governs with three Prime-ministers, who hold the rank and title of YONG-WEI-CHUNG, CHOA-WEI-CHUNG, and WO-WEI-CHUNG, Counsellors of the Middle and the Left and Right wings. Under these are six boards or departments, each having a president, with an unlimited number of vice-presidents, namely: the *Bo-cho*, or Board of Appointments; the *Ho-to*, Revenue; the *Ye-to*, Rites and Ceremonies; *Pong-to*, War; *Hong-to*, Punishment; *Kong-to*, Public Works. The chiefs of these departments hold the rank and title of *Pansa*, *Champan*, and *Cham-wei*, to which are added a number of low-rank men, called *Chun*, or messengers, who act also as interpreters.

The revenues are derived from a land tax and a customs service organized originally by the Chinese Customs Service, and composed of Europeans principally, an American gentleman from Boston being the chief.

The army is still an unknown quantity, mainly composed of archers and men armed with pikes, halberds, and ancient armor of steel. There are a number of regiments armed with the Remington, and with these a half-dozen Gatling-guns. It is the old and new met face to face—the extremes which touch. Four American officers have arrived only now in Corea for the purpose of instructing the Korean army in modern methods of warfare.

Corea is no longer the "Hermit Nation," and has cast her fortunes and her future with that outside world to which she looks for coveted advancement. Corea is still a myth; it is still a query so often propounded, "Where is Corea?"

Chosŏn—for such is the popular name of the land—drops down in a peninsula from the extreme northeast of China and Manchuria into the Pacific Ocean from the 43d parallel north to the 34th parallel south, and is contained within the 125th and 131st degrees of longitude east. The northern frontier is marked by the rivers Yalu and Tumen, each having its source (supposed) in the famous *Pak-tu-San* (Ever-White Mountain), a place of much mystery and legends innumerable. North of these rivers lie Russia and Manchuria, and to the north-westward China. The Yalu running west, and the Tumen east to the Yellow and Japan seas, cut the peninsula in twain, thus giving rise to the popular idea that Corea is an island, a quibble about which the reader will not care to dwell. The contour of the peninsula, if we may indulge our imagination, is that of the body of a dragon, the favorite ideal emblem of power to the Korean mind. To establish the comparison, let us suppose the dragon's head to rest upon the mouth of the Tumen River, on the Sea of Japan, the ears to project up Cape Bruat, the neck forming the indentation at Broughton Bay, the shoulders and back Capes Duroch and Pelissier, the tail at Chosŏn, prolonged to Quelapaert Island, and the pedal extremities resting upon the islands of the archipelago in the South Yellow Sea, and north in the mouths of the Yalu and Ta-Tong rive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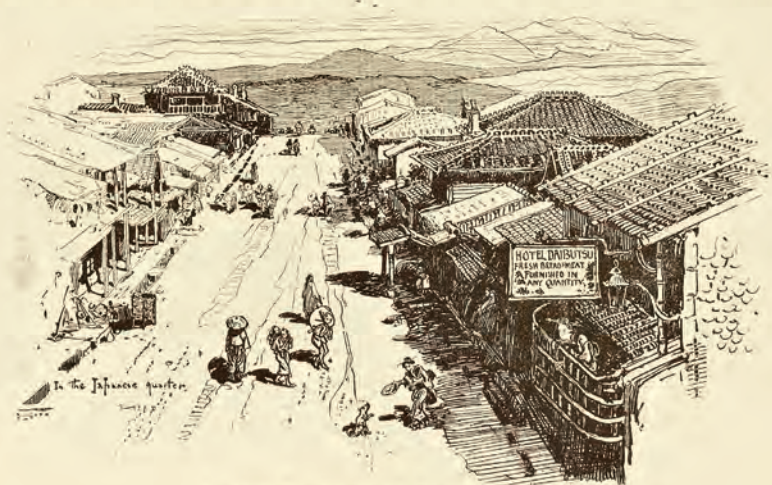
The backbone of the dragon, on the eastern part of the peninsula, is a sinuous range of mountains forming a sort of wall along the Japan Sea to the south. The country descends in slopes and circuitous monticles toward the west, forming a succession of fertile valleys through which, on their way to the Yellow Sea, run the rivers Han, the Ta-Tong, the Yalu, and others of less importance. The climate of Corea is cold in winter, but dry and hot in summer, the spring and autumnal seasons mild and unsurpassed. The flora presents an unlimited field for the student in botany, and the hills and mountains around the capital are adorned with rich and unknown varieties of every kind of flower & *Petal sauvage*. The chrysanthemum grows to great perfection, and the queen of flowers is the subject of unending odes and idylls of the people in

its honor. The fauna consists of the bear, boar, deer, leopard, and the tiger. The presence of this latter, to be found in great numbers not far from the capital, and much more vigorous and with longer hair, must remain an enigma to the naturalist. Native to



01 MAP OF THE CHOSŌN LAND.

the jungles of India, how comes it that he has come to Corea? And having come, how is it that he is acclimated? Game of almost every description is plentiful, and the wild swan, geese, ducks, bustards, and golden pheasants abound. The rivers and estuaries afford oysters, clams, and terrapin. Corea is the land of the salmon. The mineral resources of the country are great, and gold, silver, lead, and copper mines offer great induceme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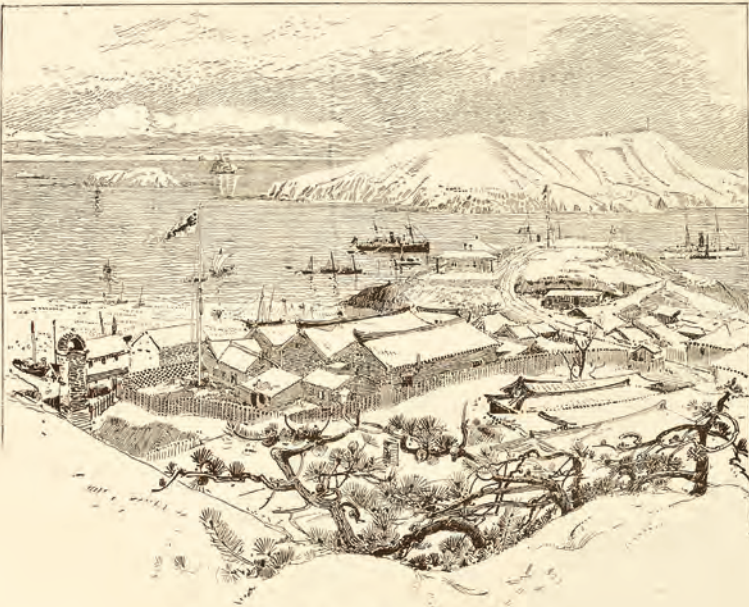
02 A STREET IN THE JAPANESE QUARTER OF CHEMULPO.

to the capitalist. The country is divided into eight *do*, or provinces, under the government of *Kannas* and *Quanjons*, subordinate governors. The population is roughly estimated at twelve million souls. The mists of Chinese traditions from which Corea's past history is principally drawn are too vague and interminable to enter into this sketch. Nor would they prove interesting to the reader, who, it will be assumed, has neither the time nor patience to digest them. VOLTAIRE, apropos to this as long ago as 1744, said in a work entitled *Nouvelles considérations sur l'histoire*: "Cette histoire ancienne me paraît à l'égard de la moderne ce que sont les vieilles médailles en comparaison des monnaies courantes: les premières restent dans les cabinets; les secondes circulent dans l'univers pour le commerce des hommes."

Corean history begins from the year 1122 a.c., with KIRSŪ as the first king. KIRSŪ is the *pater patriæ* of Chosŏn, and his tomb,

"I call her the belle of Japan, of Japan;
Her name it is Oyechasan, Yuchasan.
Such tenderness lies
In her soft, almond eyes—
I tell you she's just *icht ban*."
"Artistic indeed is her pose, her pose,
And quaint is the style of her clothes, her clothes,
From the ornaments rare
In her glossy black hair
To the dops on her dear pigeon toes," etc.

The good little steamer *Tsuruga Maru*, commanded by the affable Captain HUSSEY, one of the best captains that ever hailed from Cape Cod—for Captain HUSSEY, although twenty years in the service of the Nippon Yusen Kaisha, is a Simon-pure Yankee—cast anchor in the outer harbor of Chemulpo in the early morning of



03 THE HARBOR OF CHEMULPO.

in the adjacent province, is a place sacred to all Coreans. This king is said to have made eight laws, which were so well observed that "theft was unknown, no house barred, no store locked, and no woman faithless." Now there is a sad falling off from the days of the good KIRSŪ. To repress theft became quite common. A clever headman is at times quite busy, locks and bars are an acknowledged necessity, and woman—well, woman is said to be unfaithful. Alas! and yet there are those who maintain that all is progress in this our nineteenth century.

The story of KIRSŪ is that he was a Chinese nobleman, wearied with the incessant strife in his own country, and came to Corea for peace and quiet. Enchanted with the country, he called the country Chosŏn—the land of the "Morning Calm"—name by which it is popularly known at the present day. The reign of KIRSŪ was maintained in peace and good government, and his dynasty perpetuated to the fourth century of the Christian era. About this epoch there commenced that mysterious commotion on the plateau of Manchuria which has ever been an enigma for the student of history. From the steppes and plains there came like a mighty avalanche the Kitai, Hun, Mongol, Turk, and Tartar, who, sweeping into and over Asia, tumbled over into Europe, and crushed under its colossal weight the empire of Rome itself. Corea did not escape the overflow; she was fairly in its path. In the thirteenth century came the legions led by the redoubtable Genghis and Khubla Khan, and what with subsequent invasions by the Japanese in 1592 and 1615, and the Mongol and Manchian hosts in 1637, it was night-time for Corea. The aboriginal Corean, like the Egyptian of a remote epoch, was ground to dust under the repeated shock of invasion. The Corean of to-day and the Egyptian fellah have been produced by causes not dissimilar. Each with a boasted history of four thousand years, they are Egyptian and Corean only in name.

III.

Ten thousand miles of travel by land and water separate New York from Seoul, the capital of Corea, that "farthest inch of Asia," which became most unexpectedly the objective point of my journey eastward. On the 3d of September, 1887, I left New York for my place of destination on the steamer *Louisiana*, having ample time to take the *City of Peking*, which sailed on the 21st following for Yokohama. I was in good company, for there were missionaries and their wives and children, numbering certainly fifty, bound for all parts of the East upon a tour of proselytism there among the so-called "heathen." On the wharf in San Francisco, as the vessel pushed off, a vast concourse of their friends sang with much vim and feeling "Over There" and like hymns, all of which were very sad indeed, but which, I am sorry to say, did not serve us much in propitiation of the Pacific Ocean, which led us a dance from the time of departure until arrival at Yokohama on the 10th of October. A delay of eight days in that city was necessary, to await the departure of the steamer *Yokohama Maru*, of the Nippon Yusen Kaisha Company (Japanese), which took me to Nagasaki on the 24th, and thence by another steamer of the same line, two days afterward, direct to Chemulpo, the port of Corea, where I arrived on the 28th, fifty-six days from New York, including delays *en route*—delays in Japan for which I was not sorry; for who has ever visited the land of the "Rising Sun" without losing his heart—some have lost their heads—with the country of Japan, and above all with *la belle Japonaise*? It was while there I listened for the first time to a song composed in her honor by a gallant officer of the United States navy which is much in vogue, and justly entitles the author to the rank and title of poet-laureate. The ode idyllizes one beautiful Oyechasan, and, to the tune of Rossini, runs thus:

etor of the latter hostility is a fat, round-bellied, well capon-lined, jolly fellow—a typical Japanese, not certainly of the daimio class, but of the hard-working, hard-fisted peasantry of his country. DAIBURST, with speculation in his eyes, followed an American man-of-war to Corea. He is a man of many parts, and his beer and other good cheer are declared to be *ichi ban* by the American officers whom he puts up when in port. DAIBURST, in addition to being a hotel-keeper, is also banker, broker, butcher, baker, and, last of all, bootmaker, in all of which he is said to be a success and a positive *sine qua non* to Chemulpo.

The United States vessel *Palos* is almost constantly stationed at Chemulpo, and on my arrival I was courteously received on board by her commander and the officers of the wardroom, to whom I had the honor to be known and remembered by reason of my association with a great number of their colleagues at the bombardment of Alexandria. The poet-laureate officer heretofore cited had been assigned to duty on the *Palos*, and had already made the antiquated craft the subject of his muse. The officers at night sang with much force and feeling the following in honor of the *Palos*:

"I'll give you a short dissertation
On a frigate we call the *Palos*;
She can beat all the station,
Of all others she is the boss.
Go search all the waters of China,
Australia, Corea, Japan,
You'll not find another that's finer,
Or built on a similar plan."

Chorus:

"The *Palos*? She's the boss!
You bet your sweet life she's a daisy;
She can beat all the station,
That's a truth which cannot be denied.
With a speed that would truly amaze you.
Then ha, ha! and hurrah
For the *Palos*, America's pride."

"Some jealous ones try to abuse her,
And say that she never leaves port;
But indeed she's a stanch little cruiser,
And one of a very good sort.
She came from America here,
And every port she's been in;
She knows all Japan and Corea,
And the coast from Hong-Kong to Tien-Tsin."

Chorus:

"We don't think she's much of a beauty;
We're none of us struck on her style;
But why should all think it their duty
This poor little craft to revile?
I notice they all wish to come here—
So many, their names I forget;
They rank from the senior lieutenant
Way down to the novel cadet."

Chorus:

"Have you any stores antiquated,
Or something too old to repair,
Or guns back to Noah's Ark dated,
Or uniforms no one can wear?
Don't call a survey to expend them,
Our country might suffer a loss;
No, no, 'twere much better to send them
On board of the frigate *Palos*."

Chorus:

"Our navy is greatly encumbered
With ships that are worn out and old;
The *Palos* among them is numbered,
And soon for old junk she'll be sold.
Like that little dog in the story
Which went by the surname of Tray,
The *Palos*, though still in her glory,
Will soon be put out of the way."

Chorus:

The streets of Chemulpo resemble those of the typical frontier town, in which the beer and grog shops are the principal features. It is singular that the first steps toward Western civilization are made through the medium of beer and rum. It either kills or cures. It killed the Indian in America, but there need be no fear of harming the Corean, who, when found, was already a phenomenal *lucifer*.

On the day of my arrival I received a visit from Mr. SOSAQUA, a native gentleman interested in the American Company. Mr. SOSAQUA is a frank, intelligent man, with none of the *détours* of the Oriental. What he has to say he says bluntly and to the point. To illustrate this: During a lapse in the conversation, in which he was curious to learn about the great Western World from whence I had come, it happened that I asked the Corean words for cat and dog. SOSAQUA, mistaking my question for an *inquiry* as to the state of the feline and canine species, abruptly asked, "This stranger, why does he ask about cats and dogs? Are they more important than Corean men and women?" It came as a poser, and I joined heartily in the laugh which ensued and at my expense.

SOSAQUA is a member of the powerful *Pooang*, or Corean guild, the existence of which in Corea is a proof that the Oriental proletariat, since many centuries—as also in China—has taken means to protect himself against the tyranny of government as well as capital. The *Pooang* has a thorough organization, numbers one hundred thousand members, and is bound together by the most rigid rules and regulations, which make it a great political and commercial force, a veritable "power behind the throne"—all the more strange, indeed, in a country supposed to be so autocratic as Corea. Dr. McGLYNN is advised that he may learn a lesson for the guidance of his Anti-Poverty Society, if he will, from the Corean. On the morning of the 29th I set out for the capital in a sedan



04 SEOŪL, LOOKING TOWARD NAM-SAU.



05 THE UNITED STATES LEGATION IN SEOÜL, LOOKING NORTH.

chair, borne by four coolies, with four reliefs, who receive fourteen hundred cash each, equal to one dollar. *Ergo* eight dollars for the journey of twenty-seven miles—expensive enough, it will be seen. The road runs through numerous villages of straw huts, well provided with *buffets*, which form the great delight of the Korean, whose appetite and digestive powers are prodigious. If labor in Corea is cheap, so also is living. A meal of soup, meat, *kimchee*, a sort of *sauer-kraut*, with a compote of persimmon, can be procured for fifty cash—scarcely more than four cents! The Korean, therefore, is not wretched. On the contrary, I have never seen a people, whether prince or peasant, who had not dined or was about to dine; in fact, *bonsitificotuh* seems to be the chief ambition of the native man in Corea.

The persimmon is the principal fruit of Corea, and is large and really delicious, and is to the Korean that which the date is to the Arab. I am not sure but the good King KITSU meant to call the country *Kam* (the native name for persimmon), instead of Chosön, Land of the Morning *Calm*; still, I do not insist. In truth Corea is the land *par excellence* of the *kam*.

The country which separates Chemulpo from the capital is a succession of amphitheatrical hills, the barriers and valleys intervening forming fine paddy fields, rice and wheat being the principal articles of cultivation.

Mappo is situated ten li, or three miles, from the capital, of which it is really a suburb. On the right bank of the river and on an eminence, it is reached by means of wharves, which incessantly ply to and fro with the interminable trains of bullocks and ponies; and what with the river craft and fishing-smacks moored along the shore, the town wears quite an air of commercial activity and life. Warned by the declining sun, I urged my coolies forward lest the gates should be closed, in which case, I was told, I must needs, as often happens, spend the night with the multitude of laggards who are each day shut out—the law of shutting and opening being so inexorable that only the parole of the King can alter.

The approach to Seoöl is imposing. In the distance, and at this hour, Pok-Sau, with its formidable companions, looms up upon the horizon, showing in *altavillero* its bare sides, along and over which climb the high walls of the encircled city; and here and there can be seen the majestic gates which give ingress. Distance, however, lends enchantment to the view; for, once within, one finds himself surrounded with the wretched straw habitations, the cesspools, and odors rank, which quite dispel the illusion produced by seeing it under the rays of the sun from without.

In the twilight of the 29th of October I entered the west gate, and turning sharply to the right, amid the curious gaze of the hundreds of Koreans who lined the narrow ways, and who asked at every moment, whilst thrusting their faces into the windows of my chair, "*Nu gwaya?*" (Who comes there?), and receiving invariably the reply, "*So yang Sarim*," (A man from the Western ocean). Having passed this ordeal successfully, I was shortly after put down in the compound of the United States Legation, in the Chong-Dong district of the city, and having been welcomed by the United States Minister Resident, I was assigned to the little house of yamen-like architecture which was to be my home during my stay in Seoöl.

IV.

Seoöl, as we have seen, was constructed in the fourteenth century by King Tzanjo. It lies in 37° 30' north latitude and 127° 4' east longitude, in a valley running from northeast to southwest in the form of an irregular oblong, flanked on the north and south by the two great mountains, Pok-Sau (North Mountain) and Nam-Sau (South Mountain), giant sentries on whose summits are lit each night, and since four hundred years, the fires (answering signals) which announce peace or danger to the land of Chosön.

The city is surrounded by a crenellated wall, twenty and even thirty feet in height in places, and from two to three feet in breadth. It climbs the precipitous mountain-sides and crosses hill and valley, giving to the great *curvate* the appearance of some vast castle of feudal days. Seven great gates of solid masonry, built after the style of the Chinese yamen, give ingress to the city. The north gate, immediately under the shadow of Pok-Sau, is devoted exclusively to the use of the King, and leads to the mountain fortress of Pok-Han, a retreat provided by the founder of Seoöl in case of danger to the royal family. A long main street, about one hundred feet wide, runs east and west, and divides the city into two equal portions. Another street, fifty feet wide, intersects the main street at right angles. These two, in fact, are the only streets which merit the name; the rest are mere alleyways and ditches, foul with filth and noisome odors. At the point of intersection of the principal streets, the quarter known as the *Chong-No*, there stands a kiosk known as the *Chong-ga*, or bell kiosk, in which there is a huge bell, the *tolking*, seven feet high and ten feet in diameter, on which is sounded the curfew, night and morning, when the gates are closed and opened, and which serves to warn the Koreans, as it has done

from the olden time, to quit the streets and repair to their homes. A wooden ram, suspended by chains from the rafters above, is used by the bellmen, with notes of their own composition. The office of bellman is honorable and remunerative, and the occupants of the post, for there are several, are appointed from the King's household.

The European colony of Seoöl, including the representatives of the powers, diplomatic and consular, and the American missionaries, Methodist and Presbyterian, number perhaps one hundred. These latter, aided by doctors both male and female, have opened schools of chemistry and medicine, and have each in their respective fields accomplished such results as to have elicited the confidence and esteem of all, and the government itself has placed the Presbyterian school under its special patronage, and has given the rank of Champan and a decoration to the gentleman charged with its direction.

When night falls upon Seoöl, fires are lit in the kans of the fifty thousand or more huts, with their numerous kans, which compose the city. These kans are flues constructed under each room, to which fuel-wood or pine-top branches are applied in an exterior fireplace. The chimney is constructed so as to emit the smoke into the street, rendering the passageways both painful and injurious to the lungs and eyes of the *passants*.

Night in Seoöl is sinister and sad. The bell-toll of *Chong-ga*, and the ear-rasping, weird notes of an instrument called *cho*, painfully like the bagpipe, announce the closing of the gates. The lights on the mountain-tops flash out their signals of retreat, and man and dog have gone to cover. Woman, so goes the tradition, may come out and enjoy at this hour the exclusive privilege which is said to belong to her sex. I have not seen them—only a few kan-kiln-dried old women, *void tout*. A dome of darkness formed by the ever-overhanging clouds of smoke broods, like the silence of the tomb, over the deserted city. Seoöl is now wrapped in somnolence, if not in the incubating embrace of *oul*, the intoxicating beverage to which the Korean is much addicted. It matters not; it is the reign of *Sonnoo* or of *Sul*—it is silence. To the "stranger within her gates," a looker on this silent, almost sepulchral scene, it brings a feeling of inexpressible sadness, and a peculiar sense of appreciation of the lines by TENNYSON:

"Through the shadows of the globe we sweep into the younger day:
Better fifty years of Europe than a cycle of Catha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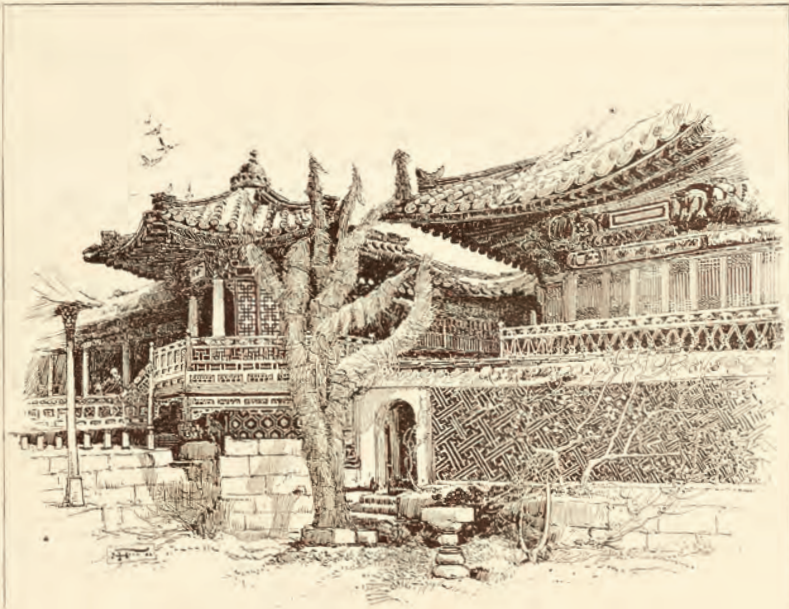
On the 16th of November I received the following invitation from His Excellency SUM-YI-TAK, President of H. C. Majesty's Home Office, by request of his Majesty, that he would be pleased to receive me in audience on the following day, on the occasion of exchanging congratulations on the convalescence of the Queen-mother. His Majesty's invitation was as follows:



06

A visit to the palace, of course, requires that one should go in a sedan-chair, any other mode being considered quite *infra dig*. Court etiquette exacts that the chair must be left at the second gate of the palace court-yard, and, conforming to this custom, the United States Minister Resident and myself were obliged to walk a considerable distance through a throng of civilians, military officers, and soldiers before we finally reached the antechamber of the audience hall. The day was cold and disagreeable, and the thin-paper room which served as a common reception-room was chilly and uncomfortable. To make amends for this, the Master of Ceremonies regaled us with cigars, beer, and champagne during the three long hours which intervened before his Majesty announced to the officers in waiting his pleasure to receive. Whilst waiting my turn in the order of seniority, I had ample time to closely scan and note the court dress in which all courtiers and officials must appear at court. It is the same for all ranks—Ministers, *Zunsas*, *Changpans*, or *Chomseks*, including the *Chusas*—and the distinction may be remarked only in the buttons worn behind the ear and attached to the hat, and which, according to rank, are of gold, silver, or jade, and also the plastrons on the tunic.

His Excellency PAK, one of the Vice-Presidents of the Foreign Office, and brother of PAK-CHONG-YANG, the Korean Minister Plenipotentiary to the United States, had urgently requested me to



07 AUDIENCE HALL OF THE SUMMER PALACE.

photograph him, and the portrait here presented enables me to convey to the reader the best illustration of this most curious costume. The cap is made of finely woven bamboo or horse-hair, conical in shape, and with protruding ears and wings, which are said to symbolize the aptness of the wearer to hear the orders of his Majesty and the celerity with which he must fly to obey. The tunic, made of dark green Korean silk, with loose sleeves, reaches to the ankles, disclosing the short tops of the stumpy black cloth boots in which the feet are encased. High up, and almost under the arms, there is worn a very large stiff belt, broken in square sections, and made of bone, glass, or jade, according to fancy. Never was girdle more curiously fashioned, and whence the idea or the utility, I asked myself; surely not from SHAKESPEARE, who somewhere has writ:

"Those sleeping stones
Which like a mist do girdle thee about."

On the breast and back there are plastrons twelve inches square, upon which are embroidered in gaudy colors in silk the figures of storks if a civilian, and tigers if a military officer. The costume is a singular and eccentric dress, and by no means of pleasing or graceful effect.

His Excellency SUM came finally to conduct me to his Majesty, and following his lead, in single file, with a numerous escort, the procession took its way with noiseless and slow step, Mr. SUM and the Koreans walking with bowed heads, as if in funeral march. Arrived in the court-yard, immediately in front of the open audience chamber, the Master of Ceremonies and other Korean officials bent almost to the ground as they approached the King, who stood at a table, surrounded on each side by his chief eunuchs, whom eti-

quette prescribes as his interpreters, for his Majesty may not address any one directly in audience. Having reached the steps leading to the hall, the officials prostrated themselves, whilst I moved forward, making at intervals the necessary three bows, the last one on approaching the King's person. The chief eunuchs, who are ever in attendance upon his Majesty, are white men (Koreans), and are said to have been recruited when children from the poorer classes, among whom there are at all times to be found and court protection. Adults are said also to offer themselves voluntarily for this service, their neutralization bringing them the coveted power and position which surely attend upon the office of eunuch, who in Corea, as elsewhere in the Orient, are the influential and respected confidants of the King. My interpreter, a *Chusa*, is an important factor in the audience, and he stood upon my left, with head and



08 HIS EXCELLENCY PAK, ONE OF THE VICE-PRESIDENTS OF THE FOREIGN OFFICE.

body bent almost to the floor, transmitting in whispered tones and without turning his head, the conversation, which was mainly confined, on the part of the King, to the *banalities* about one's health, the voyage to Corea, etc., and on my part to very respectful congratulations as to the convalescence of the Queen-mother, who by parenthesis, with other ladies of the household, I was told, were criticising the newly arrived *So yang Sarim* through the finger-holes in the paper walls, from behind which, unseen, they could gratify that curiosity which in Corea is no more a characteristic of the female than of the male biped.

The King is somewhat short in stature, but is possessed of a remarkably pleasant face, in which goodness and amiability are strongly marked. His eyes are very dark, and sparkle with animation and intelligence. His color is a bright orange hue. He was dressed in the bright scarlet silk robe of state, confined by a girdle of gold, and the cap worn was similar to that of the ordinary court cap described, except that the appendages were not attached. On the shoulders, breast, and back of the tunic were great plastrons of gold embroidery, on which there were the figures of dragons. When the usual court conversation was exhausted, the King gracefully inclined his head—a sign of dismissal—and retreating as I had come, and followed by my interpreter, I quitted the royal presence and the audience was ended. In returning, it was necessary to be presented in like manner to the Crown-Prince, a young man of seventeen years, who received in an open audience chamber similar to the one we had just left. The young Prince was surrounded by several eunuchs, who are likewise his interpreters, and also a number of officials affected to his service. When this ceremony had been accomplished I returned to the antechamber to take leave of the courteous Mr. SUM, and having entered my chair, was borne to my home in the Chong-Dong, well pleased with my first audience with His Majesty TAI-CHOSÖN, TAI-KYU-CHU (Great King, of Great Chosön).



09 THE SUMMER PALACE.

05 서울 미국 공사관에서 북쪽을 바라본 모습

06 한문 초대장

07 여름 궁궐 앞현실

08 박 협판

09 여름 궁궐

19세기 말~20세기 초
서양인이 본 한국

Journals from the Late 19th
and Early 20th Centuries

Korea Through
Western Eyes

PART I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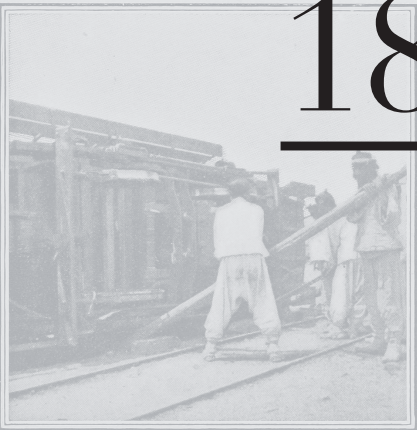
A TRIP TO THE IMPERIAL TOM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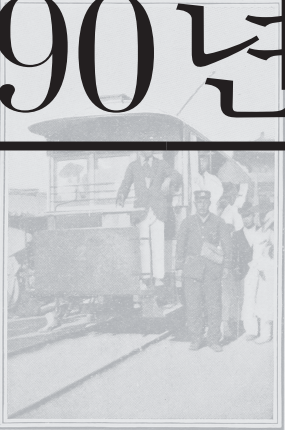
A CONDUCT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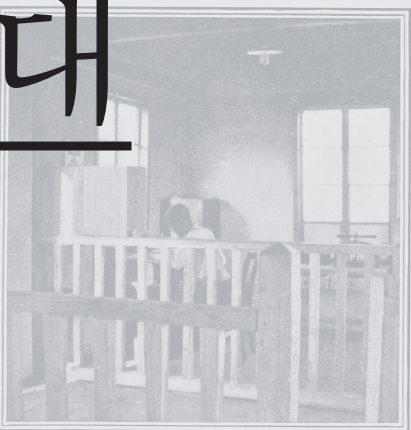
REMAINS OF CAR BURNED BY MOB.



CAR OVERTURNED BY A MOB, MAY 26.



LOADED CAR, WITH CONDUCTOR
AND MOTORMAN.



THE COMPANY'S OFFICE.

1890년대

청일전쟁

은자의 왕국에 대한
권리 주장

더 그래픽
1894. 07. 14

조선의 분류

더 그래픽
1894. 08. 04.

조선 스케치

더 일러스트레이티드
런던 뉴스
1894. 08. 11.

조선의 '사건'

하퍼스 위클리
1894. 08. 04.

조선의 상황

하퍼스 위클리
1894. 12. 01.

조선 소식

르 프티 파리지앵
1894. 08. 12.

조선에서

르 프티 주르날
1894. 09. 03.

을미사변

조선 왕비 시해 사건

르 주르날 일뤼스트레
1895. 10. 27.

조선의 왕비,

서울에서 살해되다

르 프티 파리지앵
1895. 10. 27.

조선의 비극

릴뤼스트라시옹
1895. 11. 02.

서구 문명 수용과

외교 관계

한국의 첫 번째 철도

하퍼스 위클리
1898. 01. 29.

한국의 전차

하퍼스 위클리
1899. 07. 15.

극동 지역의 위기

하퍼스 위클리
1904. 01. 30.

조선과 조선인

하퍼스 위클리
1897. 07. 24.

한국, 황해로의 관문

더 일러스트레이티드
런던 뉴스
1898. 03. 19.

한국 기행

한국에 온 영국 군대

더 일러스트레이티드
런던 뉴스
1898. 03. 19.

조선

하퍼스 위클리
1894. 08. 04.

말 타고 한국 유람

하퍼스 위클리
1898. 01. 15.

서울 탐방

더 그래픽
1894. 08. 04.

돼지 꼬리 머리와

정수리 머리 매듭

더 일러스트레이티드
런던 뉴스
1894. 09. 08.

해도의 나라

하퍼스 위클리
1895. 01. 05.

조선 그리고 조선인(1)

주르날 데 부아아주
1894. 09. 02.

조선 그리고 조선인(2)

주르날 데 부아아주
1894. 09. 09.

조선 그리고 조선인(3)

주르날 데 부아아주
1894. 09. 16.

은자의 왕국에 대한 권리 주장

“조선의 왕은 중국 황제만큼이나 조선의 백성들 눈에 띄지 않았는데, 은둔의 왕국의 왕답게 외부 세계에도 완전히 은둔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동방의 약한 왕국이 주변 열강의 먹잇감이 되는 것은 운명이라. 조선이 바로 그런 경우로, 중국과 일본과의 대립을 견뎌온 것도 모자라 러시아의 위협한 지원에 위협을 받아야 할 위기에 놓여 있다. 러시아는 겨울에는 얼어버리는 블라디보스토크를 대체할 아시아의 얼지 않는 부동항을 오랫동안 원해왔다.

조선인들이 원산이라 부르는 포트 라자레프는 바로 러시아의 이러한 필요에 딱 들어맞았지만, 러시아가 항구를 획득하도록 영국이 가만히 내버려 두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그 배경을 살펴보면, 러시아가 일본해

The Graphic

더 그래픽
영국

1894. 07. 14.
p.46
구9790, 구6774
41.3×29.5, 40.0×29.2

(동해)에 어떠한 항구도 설치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영국이 포트 해밀턴(거문도)을 포기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조선에 대한 러시아의 개입은 단지 계획에 불과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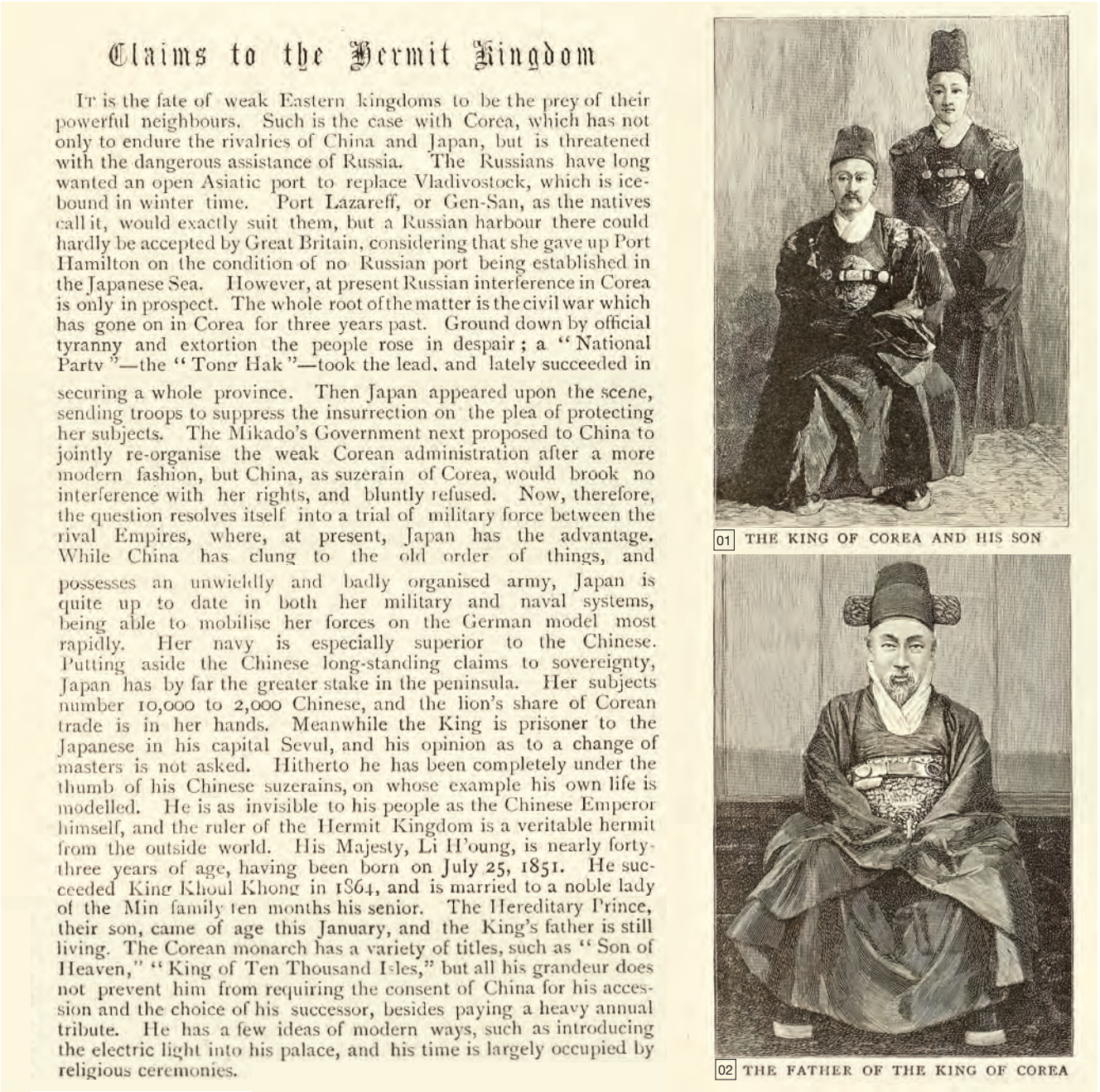
이 문제의 근본 원인은 지난 3년간 진행된 조선의 내전(동학농민운동)에 있다. 관료의 폭정과 착취에 시달리던 조선인들이 절망하여 봉기를 일으켰는데, ‘국민당’이라 부를 수 있는 ‘동학’ 무리들이 주도하여 최근에 전라도 일대를 휩쓸고 있다. 여기에 일본이 등장하는데, 조선에 살고 있는 일본인 보호라는 구실로 동학운동을 제압하기 위하여 일본군이 파병되었다. 당시 일본 천황은 약한 조선 조정을 더욱 근대적인 방식으로 함께 재편하자고 중국에 제안하였으나, 중국은 조선의 중주국으로서 이러한 제안을 용납할 수 없다며 단호히 거절하였다.

군사력을 바탕으로 대립각을 세우는 열강들 간의 힘겨루기를 예상해 보면, 이 시점에서는 일본이 우세하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이 옛 질서를 고수하며 오합지졸을 거느린 반면, 꽤 최신식 육해군 시스템을 보유한 일본은 독일식으로 훈련된 병력을 빠르게 동원할 수 있었다. 특히 일본의 해군력이 중국보다 더 우세했다.

중국의 조선에 대한 오랜 중주권을 차치하면, 일본은 단연코 조선반도에서 가장 큰 이해관계를 가진 나라이다. 조선에 살고 있는 중국인의 수는 2,000명인 반면 일본인의 수는 1만 명이고, 조선 무역의 알짜는 일본인이 가지고 있다. 한편 조선의 왕은 수도 서울에서 일본인에게 갇혀 있는 형국으로, 조선의 주인을 누구로 정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서 조선 왕실의 의견은 무시되고 있었다.

여태까지 조선의 왕들은 완전히 중국 황제들의 삶의 방식을 따라왔는데, 현재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조선의 왕은 중국 황제만큼이나 조선의 백성들 눈에 띄지 않았는데, 은둔의 왕국의 왕답게 외부 세계에도 완전히 은둔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조선의 왕 이희는 43세로 1852년 7월 25일생이다.¹ 1864년² 철종의 뒤를 이어 조선의 왕위에 올랐고, 열 달 먼저 태어난 민씨 가문의 여식과 결혼하였다.³ 그 사이에서 난 아들이 세자⁴가 올해 1월 성년이 되고, 아버지인 대원군이 아직 살아 있다.

조선의 왕은 여러 직함을 가져 ‘천자’, ‘만 개의 섬을 다스리는 왕(King of Ten Thousand Isles)’⁵이라고도 불린다. 이러한 왕의 위임에도 불구하고 조



01 조선 왕과 그의 아들 02 조선 왕의 아버지

선의 왕은 매년 중국에 엄청난 조공을 바칠 뿐만 아니라 조선 왕의 즉위와 다음 왕을 누구로 할 것인가 등에 대하여 중국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궁에 전등을 설치하는⁶ 등 몇몇 현대 문물을 받아들일 생각이 있기는 하지만 왕은 대부분의 일과를 제례를 올리는 데 보내고 있다.

¹ 본 기사의 고종 생일은 음력이다. 양력으로 는 1852년 9월 8일이다. ² 고종이 즉위한 것은 음력으로 1863년 12월 8일이고 양력으로 는 1864년 1월 26일이다. ³ 명성황후는 음력 1851년 9월 25일(양력 11월 17일)에 태어났다. ⁴ 고종과 명성황후 사이에 태어난 이척(李 碩)을 말하는데 1874년(고종 11) 3월 25일(음력 2월 8일)생이다. ⁵ 임금을 뜻하는 '만인지상(萬人之上)'을 영어로 풀이한 듯하다. ⁶ 1887년 (고종 24) 경복궁에 처음으로 전등을 설치한 것을 말한다.

조선의 분규

“교활한 동양인들은 분명 전쟁도 기이하게 벌인다. 서양에서는 교전을 벌이기 전에 선전포고를 하지만 동양에서는 먼저 싸우고 그 후에 전쟁을 선포한다.”

교활한 동양인들은 분명 전쟁도 기이하게 벌인다. 서양에서는 교전을 벌이기 전에 선전포고를 하지만 동양에서는 먼저 싸우고 그 후에 전쟁을 선포한다. 조선 전투(청일전쟁)에서 최소한 중국과 일본의 입장이 그러하였다. 본격적으로 군사 작전이 시작되기 전, 현장에 최대한 많은 군대를 투입하려는 양국은 조선 근해에서 교전이 시작될 때까지 우호 관계를 유지하는 척 행동하였다. 장갑함의 호위하에 중국군을 가득 실은 7대의 수송함을 본 일본은 그냥 넘기기엔 너무나 많은 수였기에 일본 전함 3척을 보내 중국 수송함 한 척을 침몰시키고 장갑함 한 척

The Graphic

더 그래픽
영국

1894. 08. 04.
pp.123~124
구9793
40.3×28.5

을 나포하였으며 또 한 척은 패주시켰다¹ 이 사건에 대해 서로 엇갈린 주장이 나오는데, 분명한 것은 중국군의 목적지는 조선 내 중국 주둔지인 아산이었으나, 불행히도 수송함 가오성호는 저항이 불가능한 수심이 얕은 만으로 내몰리게 되었다는 것이다. 한 일본인 장교가 수송함에 승선하여 배가 가라앉기 전에 선장과 승무원들의 목숨을 구해주겠다고 제의하였으나 그들은 항복을 거부하였다. 이내 일본의 기관총과 어뢰 공격이 시작되어 수송함과 승무원들은 결국 최후를 맞이하였고, 약 40명의 인부와 두세 명의 유럽인들이 나중에 구조되어 목숨을 건졌다.

가오성호는 중국이 대여한 영국 전함으로 당시 영국 선장의 지휘하에 영국 국기가 게양되어 있었다고 한다. 나포된 장갑함 차오장호²는 낡고 승선 인원도 얼마 되지 않아 손쉬운 표적이 되었다. 다른 수송함들은 장갑함³의 호위를 받으며 안전하게 빠져나왔다.

이튿날 일본의 순양함 한 척이 중국의 장갑함 지위안호⁴로부터 거센 공격을 받아 심각한 손상을 입은 뒤 요함(魚雷艇)에 의해 가까스로 구조되었다. 그러나 사흘 후 해군과의 연이은 교전으로 상황은 바뀌어, 중국의 해군 중 가장 크고 현대적인 함정인 지위안호가 치열한 교전 끝에 일본에 의해 침몰되었다고 한다.

이 교전에서 두 척의 중국 순양함이 나포되거나 파괴되었다. 수송함 가오성호가 파괴된 것과 관련해 양국은 모두 크게 분노했다. 중국은 그 배가 영국 국기를 달고 있었으므로 이를 감안했어야 했다고 주장하며 선주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 밝혔다. 일본 측에서는 중국이 주장하는 것처럼 공격이 무자비하지는 않았고 오해로 인한 것이라 단언했다.

열강들이 양국을 중재하는 동안 중국은 자신들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국 8월 20일에 교전이 재개될 것이라고 일본 측에 구두로 최후통첩을 보냈다. 따라서 일본 사령관은 전쟁이 선포되었다고 생각했을 것이고 그에 따라 행동했던 것이다.

평화를 추구하는 것처럼 보이는 두 나라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양국 군대는 육지에서 여러 번 맞붙었고 아산에서는 틈만 나면 일본 침략군에 맞서는 조선인들의 거센 저항으로 인해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곤 하였다.⁵ 일본 당국은 화요일⁶에야 명백하게 전쟁이 선포되었다고 천

The Corean Ambroglio

THE wily Oriental certainly wages war in a peculiar fashion. In the West a declaration of war precedes hostilities, but in the East they fight first and declare war afterwards. Such, at least, was the position of China and Japan in the Corean quarrel. Anxious to get as many troops as possible to the scene of action before officially beginning the campaign, the two countries kept up the farce of amicable relations until the naval engagement off the Corean coast exposed the sham. The sight of seven transports full of Chinese troops, convoyed by ironclads, was too much for Japanese forbearance, and three Japanese warships attacked with such vigour as to sink one of the transports, capture a Chinese ironclad, and put another to flight. Most conflicting accounts are given of the affair, but it is plain that the troops were intended for the Chinese post of Asan in Corea, and that the unlucky transport *Kow Shing* was driven into a shallow bay where resistance was hopeless. A Japanese officer went on board, offering to take off the captain and crew before sinking the vessel, but as they declined all surrender the Japanese machine-guns and torpedoes soon made an end of the transport with all on board, save some forty coolies and two or three Europeans who were subsequently picked up. The *Kow Shing* was a British vessel chartered by the Chinese, commanded by a British captain, and said to be flying British colours at the time. The captured iron-clad — *Tsao Kian* — fell an easy prey, being an obsolete craft and undermanned. The other transports got off safely with their ironclad escort. On the following day a Japanese cruiser received a severe beating from a Chinese iron-



CAPTAIN GALSWORTHY, OF THE SS. "KOW SHING," SUNK BY THE JAPANESE

Captain Galsworthy was commander of the Chinese transport *Kow Shing*, which was attacked with torpedoes and sunk by the Japanese near Shupinto island. About forty out of 1,500 were saved. The captain, as well as the German Captain von Hanneken, were among those who were rescued by the boats from the Japanese cruiser *Naniwa*.—From a Photograph by Fleming, Southsea

the action was not carried out in the brutal manner described, but was due to a misunderstanding. Whilst the Powers were trying to mediate between the nations China sent Japan a verbal ultimatum declaring that if her proposals were not accepted hostilities would begin on the 20th ult. The Japanese Commander therefore must have thought that war was declared, and acted accordingly. In spite of these pacific explanations sundry encounters have also occurred between the rival troops on land, desperate fighting having taken place at Yashan, where the Japanese met with a severe repulse, while the Coreans themselves use against the Japanese invaders every possible opportunity. On Tuesday it was announced by the Japanese authorities that war was definitely declared. At present Japan holds the trump card, being in possession of Seoul and of the Corean monarch himself. The question is, however, whether she is strong enough to resist the numbers which China can bring against her. The Japanese army musters some half-million of men, and as the troops on furlough are hurrying back to duty voluntarily, there is no doubt of their enthusiasm. In fact war fever runs high in Japan, while funds are plentiful. China goes her way more quietly, trying to get all her ships and war material from abroad before striking any important blow. Probably there are some 19,000 Chinese troops in Corea already, under Li Hung Chang, while General Oshima commands the Japanese forces.

clad, the *Chen Yuen*, and was only rescued in crippled condition by a consort, but in a subsequent naval engagement three days later the tables were turned, the *Chen Yuen*, the largest and most modern vessel in the Chinese navy, being, it is stated, sunk by the Japanese after a hotly contested fight. In the same engagement two Chinese cruisers were either captured or destroyed. Much indignation is expressed in both countries over the destruction of the transport *Kow Shing*. China declares that the vessel was flying the British flag and so should have been respected, while the transport's owners are going to put in a claim for damages. On their side the Japanese assert that

명하였다. 현재로선 서울과 조선 군주를 볼모로 잡고 있는 일본이 우세한 입장이다.⁷

그러나 과연 중국의 수많은 병력을 일본이 감당할 수 있을지가 문제이다. 일본 군대의 병력은 현재 50만 명이며 휴가 중인 병사들이 자진해서 부대로 속속 복귀함에 따라 전의가 불타오르고 있다. 사실 일본은 전쟁에 대한 열의가 높고 자금 또한 풍부하다. 한편 중국은 중요한 타격을 가하기 전에 필요한 모든 함정과 전쟁 물자를 해외에서 얻기 위해 보다 은밀히 움직이고 있다. 이홍장이 이끄는 1만 9,000여 명의 중국군은 이미 조선에 있고 일본 군대는 오시마 장군이 이끌고 있다.

일본에 의해 침몰된 '가오성호'의 골즈워디 선장 골즈워디 선장은 중국의 수송함 가오성호의 선장이었다. 이 함정은 풍도에서 일본의 어뢰 공격을 받아 침몰하였다. 1,500명 가운데 40명이 구조되었다. 일본 순양함 나니와호가 보낸 보트로 구조된 사람들 중에는 골즈워디 선장과 독일인 선장 폰 헤넨켄도 포함되어 있었다. -남해에서, 플레밍 사진을 바탕으로 그린 삽화

¹ 풍도해전을 말한다. 1894년(고종 31) 7월 25일 아침, 충청도 아산만 입구의 풍도 앞바다에서 일본군 함대가 청군 함대를 공격하면서 청일전쟁이 시작되었다. ² 가오성호(高陞號)를 호위하던 차오장호(操江號)는 일본의 아키히쓰시마호(秋津島號)에 의해 나포되어 1965년 퇴역까지 일본 측에서 사용하였다. ³ 중국 순양함(巡洋艦, cruiser) 지위안호(濟遠號)를 말한다. ⁴ 독일제 순양함으로 2,300톤에, 수면에서부터 배의 최하부까지의 수직 거리인 흡수(吃水)가 4.67미터였다. ⁵ 육지에서 청군과 일본군이 처음으로 맞붙은 아산성환전투를 말한다. 이 전투에서 승리한 일본군은 기세를 잡아나갔다. ⁶ 청일전쟁이 발발한 지 6일이 지난 8월 1일에 서야 선전포고를 하였다. ⁷ 일본은 청일전쟁을 일으키기 전 1894년(고종 31) 7월 23일에 웅산에 주둔하던 일본군을 동원하여 경복궁을 강제 점령하였다.

조선 스케치

“이 전쟁은 양국 중 어느 나라가
승리하든, 그것이 해상전 혹은
육상전이든, 힘없는 조선의 독립
상태가 종결됨을 의미하게 될 것이다.”

육상과 해상에서 중국과 일본이라는 양 제국 간 전쟁(청일전쟁)이 시작되었다. 발해만의 동쪽, 일본 천황의 영토에서 서쪽으로 수백 마일 떨어져 있는 조선반도의 지배권 혹은 장악력을 놓고 경쟁 관계에 있는 막강한 열강들이 갑자기 벌이는 이 전쟁은 양국 중 어느 나라가 승리하든, 그것이 해상전 혹은 육상전이든, 힘없는 조선의 독립 상태가 종결됨을 의미하게 될 것이다.

조선인들이 기질상 호전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조선인들이 외국 정복자의 강압이 있지 않는 한, 어느 한 편에 서서 싸울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자신의 평온한 상태가 방해를 받는 것에 대해 놀라고 분노한 것은 분명해 보인다. 그들은 온순하고 상냥하다. 하지만 매우 게으르다. 이 점에서 한시도 가만히 있지 않는 일본인과 부지런한 중국인과는 매우 대조적이다.

조선인들이 사용하는 담뱃대는 길이가 1야드(약 90센티미터)나 되고, 직업에 관계없이 이들은 어릴 적부터 하루 종일 담배를 피운다. 담뱃대를 받치려면 상당한 힘이 들 텐데, 어떻게 기다란 담뱃대를 입에 물고 있을 수 있는지 신기할 따름이다.

조선의 옷은 봉합할 때 술기를 바풀로 붙인다는 점도 언급할 만할 것이다. 조선의 재봉사는 고생스럽게 바느질을 하지 않는다. 양반과 중인 계급은 커다란 원통형 검은색 모자(갓)를 쓴다. 이 모자는 성기고, 등나무 줄기로 꼬아 만든 의자와 결이 매우 유사한데, 꼬아진 말총이 성글게 엮어져 있다. 모자의 특징은 공기도, 햇빛도, 비도 통과한다는 것이다. 조선인들은 주로 으깬 콩, 베이컨, 생선을 먹는다. 이들은 초가집이나 진흙을 굳혀 만든 오두막집에서 거주한다. 모든 가구가 돼지를 한 마리씩 키운다. 서울은 승려들의 출입이 절대 금지되어 있어서 이를 어기면 사형에 처한다. 승려들이 반란을 일으켰었기 때문이다. 조선인들 중 불교 신자의 비중은 적다. 조선에서 신봉하는 불교의 수준은 매우 낮다.

불교 신자를 제외한 하층민은 악귀의 힘만을 믿고 있어, 이들에게 자애로운 신의 개념은 없다. 이들은 시들어가는 나무에 악귀가 산다고 믿는다. 악귀를 달래기 위해 그 나무 옆을 지나가는 행인들은 나무에 돌을 던지거나 나뭇가지에 색이 있는 천을 묶어 놓는다. 살다가 어려움에 처하면 나무등치 아래에 지은 작은 집(서낭당)에 쌀과 술을 제물로 바친다. ‘기생’이라고 불리는 무희는 대개 가신들의 첩이고, 공식 만찬 자리에서 손님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 고용된다. 조선의 춤은 발을 거의 움직이지 않고 몸만 음악에 맞추어 흔든다. 춤이 우아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 일본의 춤과 매우 유사하다.

고위 관료들의 관복은 비싼 편이다. 관복 앞쪽의 흉배에는 곱게 수가 놓여 있고, 군청색이며 두꺼운 비단으로 만들어졌다.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허리띠이다. 몸에서 2인치 정도 떨어져 있고, 가죽으로 덧댄 여러 개의 나무 소재의 작은 판으로 만들어졌는데, 옷 소유자의 지위에



ON BOARD ONE OF THE VESSELS OF A CHINESE SQUADRON VISITING A BOUNDARY HARBOUR
THE HOSTILITIES BETWEEN CHINA AND JAPAN
FROM A SKETCH BY C. W. COLE, R.N.

중국과 일본 사이의 교전 조선 항구(아산포)에 상륙한 중국 함대의 배 위에서-C. W. 콜의 스케치를 바탕으로

SKETCHES IN COREA.

The war that has been suddenly commenced, on land and on sea, between the rival empires of China and Japan, for dominion or control over the peninsula which lies a few hundred miles to the east of the Gulf of Peking, and to the west of the island realm of the Mikado, whatever may be its naval and military victories for the one or the other of those two considerable rival Powers, will probably terminate the domestic independence of the feeble Korean nation. No one who is acquainted with the disposition of that unwarlike people seems to think it likely that the Koreans will fight on either side, unless it be under the compulsion of a foreign conqueror, but they must be alarmed and annoyed by this disturbance of their careless existence. They are genial and kind-hearted, but extremely lazy, and in this respect present a marked contrast to the restless Japanese and the industrious Chinese. Their pipes are over a yard long, and the people smoke from early childhood all day long, whatever work they are supposed to be doing. How they manage to support these huge pipes in their mouths is a mystery, as the leverage exerted is tremendous. It may be remarked that their clothes are not sewn together, but are glued at the seams with rice paste; for a Korean tailor would never be at the pains of stitching. Persons of the upper and middle classes wear a large conical black hat, which is transparent, being made of plaited horse-hair, of much the same texture as the seat of a cane-bottom chair, and plaited quite open. The beauty of this hat is that it excludes neither air, sun, nor rain. The people feed largely on crushed beans and bacon or fish. They dwell in huts or cabins built of hardened mud, and every family



01 ENTRANCE TO THE KING'S PALACE, SEOUL.



02 COREAN OFFICIALS IN COURT DRESS.



03 HIGH COREAN OFFICIAL AND CHILDREN.



04 KI-SANG, OR COREAN DANCING WOMEN.

keeps a pig. The Buddhist priests are forbidden, on pain of death, to enter Seoul, owing to their once having stirred up a rebellion in that city. Only a small proportion of the people are Buddhists. This religion, as practised in Corea, is of a very debased type. The lower orders of the people, with the exception of those who are Buddhists, believe only in the powers of evil, and have no conception of a beneficent deity. The devils are supposed by them to inhabit certain withered trees; and in order to propitiate them, passers-by throw stones at the tree, or tie pieces of coloured rag to its branches, and, when in trouble, they place offerings of rice and wine in a little house put up at the foot of the tree. The “Ki-Sang,” or Korean dancing-women, are usually the wives of Court retainers, and are employed to amuse the guests at official dinners. In Korean dancing, the feet are scarcely moved at all, the body swaying to the music. This dancing is not ungraceful, and closely resembles that of the Japanese. The Court dress of an official personage of high rank is rather costly. The badges in the front of the robes are of fine embroidery, very dark blue in colour, and are made of thick silk gauze. The most curious part of this Court dress is the belt, which stands out two inches from the body all round, and is supported by tags made of wood, covered with leather, and ornamented with tortoiseshell, jade, or gems, according to the owner's dignity. The hat is of camel's-wool felt, and is surmounted by red and blue feathers and a button of the appropriate colour. The chin-strap is composed of jade beads, and is made a great deal too loose. Koreans have the habit of going about with their mouths open in order to keep their hats on. The Korean army, except the palace guards at Seoul, has only swords and bows and arrows, and is of no account as a military force. It is to enforce certain demands of administrative reform in Corea that Japan has sent troops into that country, which act of intervention has been opposed by China as an infringement of some ancient Chinese claims of sovereignty, long practically in abeyance.

- 01 서울, 궁궐 입구
- 02 관복을 입은 조선 관료
- 03 고위 관리와 그의 아이들
- 04 조선 무희, 기생

따라 거북 등껍질, 옥, 보석 등으로 장식한다. 모자는 낙타털 펠트로 만들었고, 붉은색과 검은색 깃털과 어울리는 색 단추로 장식되어 있다. 옥구슬이 달려 있는 턱 끈은 상당히 느슨하다. 조선인들은 모자가 떨어지지 않도록 입을 벌리고 다니는 습관이 있다.

서울의 근위대를 제외한 조선군은 검, 활과 화살만 가지고 있어 군대

라고 하기에는 변변치 못하다. 일본은 조선의 행정 개혁에 대한 욕구를 실현시키기 위해 조선에 군사를 보냈고, 사실상 효력은 없었지만 중국이 오랫동안 주장해온 조선에 대한 중주권을 침탈하는 행위를 하여 중국의 반발을 샀다.

조선의 ‘사건’

“전쟁은 어느 정도는 불가피하다. 들리는 바에 따르면, 중국의 지원을 받는 조선인들이 일본인을 조선에서 몰아내려고 움직이기 시작했고, 이후에 중국은 이미 조선에 주둔한 중국군의 수를 늘리려 하고 있다.”

20년 전, 서구 세계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정서와 낯선 동양식 통치 방식으로 유지되어온 조선이 독립국이어야 하는지의 질문은 미국과 유럽에서 대단한 흥밋거리는 아니었을 것이다.¹ 조선에서 대중 봉기가 일어나든, 중국이나 일본이 조선에 지배력을 행사하거나 조선을 속국으로 만들든 혹은 심지어 조선을 집어삼키든 간에 조선에 관한 문제는 영국 터비 경마대회에서 로즈버리 경²이 소유한 어린 말의 행운보다도, 호화 요트 경주에서 굴드가³의 요트가 차지하는 위치만큼도 관심을 끌지 못하는, 일상생활과는 거리가 먼 것이다. 조선의 독립국 지

Harper’s Weekly	1894. 08. 04. p.723, p.725
하퍼스 위클리	
미국	79757
	40.6×28.0

위 여부는 먼 나라의 일로, 동방을 연구하는 이들에게나 관심을 끌 만한 질문이었다. 오늘날 조선에 대한 소식은 런던에서부터 상트페테르부르크까지 각국 외무부가 꼼꼼히 살피는 사안이 되었다. 미국의 국무부는 아직은 정확한 목적과 범위를 모두 밝힐 수는 없지만, 상당히 중요한 사안에 대해 협상 중이다. 먼 극동의 나라 조선과 그 이웃 국가의 관계에서 눈에 띄는 변화는 따로 있다. 바로 중국과 일본 사이의 갈등이다. 이 갈등이 심화된다면 이는 유럽을 휘저어 놓을 무기고의 도화선이 되어 향후 수년간 유럽 6개국 간의 총력전으로 변질 수 있다. 따라서 이런 갈등 상황은 일단 미루고 피하고 볼 일이며, 만약 피할 수 없다면 그때 대면할 수밖에 없다. 조선을 둘러싼 중국·일본 간 분쟁의 그 정확한 본질 혹은 씨앗은 쉽게 정의하기는 어렵다. 중국은 오랫동안 알려진 조공 문화를 기반으로 하여 조선에서 애매한 중주권을 주장하지만, 그렇다고 중국이 대놓고 조선을 통치한 적은 없었다.

중국과 일본 모두 조선과 무역을 하고 조선에 중국인과 일본인이 거주하고 있으나 조선에 살고 있는 일본인이 조금 더 많고 더 활발히 활동하며 부유하다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중국·일본 간 그리고 조선과 중국·일본 간에 체결한 협약을 기반으로, 중국과 일본은 질서를 수호하고 조선에 거주하는 자국민의 이익 보호를 위한 군대 주둔권을 주장하고 있다.

일본인들은 조선에 거주하는 일본인들이 조선인들에게 부당한 일을 당하고, 폭력과 부당한 대우에 노출되어 왔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일본은 이미 체결된 권리를 바탕으로⁴ 중국과 일본이 함께 조선에 군대를 파견하여 양국의 무역과 자국민을 보호하자고 제의하였으나, 중국은 일본의 제안을 거절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본의 단독 행동으로 보고 항의하였다고 한다.

또한 일본에 피신 중이던 조선 반란군의 주동자가 중국 영토에서 중국 요원의 미끼에 걸려들어 조선을 배신하고 살해당한 일이 있었는데,⁵ 일본은 이 사건을 중국과 조선에 대한 선의를 깨는 폭력일 뿐만 아니라 의도적 모욕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주장들 가운데 모든 당사국이 진심으로 평화를 열망하기만 하면 모든 사안이 평화적으로 결론이 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평화를 원하지 않는 것 같다.

사실 중국이 조선 정부에 우호적인 이유는 조선이 중국의 영향력하에 있기 때문이다. 일본은 중국만큼, 아마도 그 이상으로 조선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고 싶기 때문에 조선 반란군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민심의 불만과 동요(동학농민운동)로 내정이 불안해진 조선 조정은 중국과 같은 강력한 동맹국이 참전하는, 외국에서 일어나는 전쟁을 반대하지는 않는다. 전쟁은 어느 정도는 불가피하다. 들리는 바에 따르면, 중국의 지원을 받는 조선인들이 일본인을 조선에서 몰아내려고 움직이기 시작했고, 이후에 중국은 조선에 주둔한 중국군의 수를 늘리려 하고 있다. 이러한 전쟁의 결과는 무엇일까? 아마도 그 무엇도 결정적으로 말하기 어려울 것이다.

유럽의 열강인 영국과 러시아는 현재 아시아에서 벌어지는 중대한 갈등 상황을 진압하는 데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영국은 매 순간 중국과의 우호 관계를 들먹이는데, 속셈은 중국의 영토가 한쪽은 러시아, 다른 한쪽은 프랑스와 같은 강대국과의 접점에서 일종의 완충장치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놓고 중국이 심각한 전쟁으로 큰 피해를 보도록 내버려 둘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러시아는 이와 정반대의 이유로 중국이 이 전쟁에서 결정적인 승전국이 되도록 내버려 둘 수 없는 상황이다. 중국은 동아시아에서 러시아의 가장 만만치 않은 라이벌 국가이다. 이미 중국은 북부 지역에서 러시아의 발목을 잡은 전례가 있으며, 만약 중국이 조선을 정복하거나 조선에서 일본을 몰아낸다면 러시아가 원하는 조선 개항의 가능성은 사라질 것이다. 이미 영국과 러시아 모두 일본과 중국에 이러한 소란을 잠재울 ‘중재안’을 제안하였다. 아직은 일본도 중국도 수용하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단순히 우호적으로 조정하자는 강대국의 제안 때문에 그들이 의지를 굽히지는 않을 것이다. 중국도 일본도 전쟁이 일어난다고 해도 크게 개의치 않는다. 이제 전쟁은 중단되거나 혹은 아주 좁혀진 형태의 국지전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가장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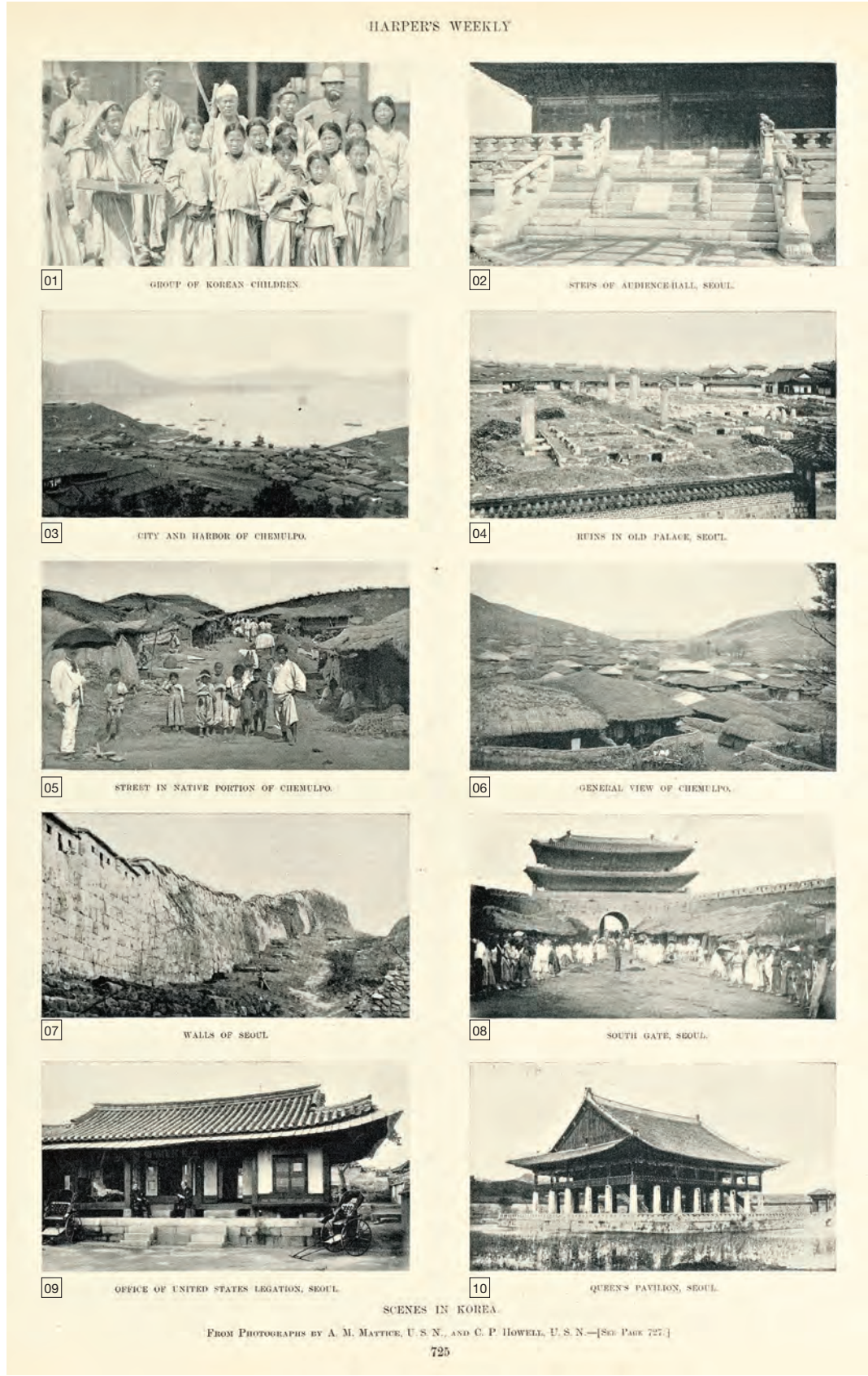
1 본 기사가 보도된 것은 청일전쟁이 일어난 지 9일이 지난 뒤로 개전 초기의 상황에 주목하였다. **2** 당시 영국에서는 경마대회가 큰 인기를 누렸는데 대회의 가장 유력한 인사가 영국 총리를 지냈던 로즈버리(5th Earl of Rosebery, 1847~1929) 경이었다. **3** 유명한 요트 경기로 당시 굴드 집안의 요트가 경기에서 몇 등인지가 늘 관심사였다. **4** 1884년(고종 21) 갑신정변 이후 청일 간에 체결한 텐진조약을 말한다. 이 조약에는 조선에서 “청·일 양국 군대는 동시 철수하고 동시에 파병한다.”라고 되어 있어, 1894년(고종 31) 청일전쟁의 구실이 되었다. **5** 갑신정변의 주역이었던 김옥균(金玉均, 1851~1894)이 일본에 망명해 있다가 홍종우(洪鍾宇, 1854~?)에 의해 상하이로 건너가 암살된 것을 말한다.

THE KOREAN “INCIDENT.”

TWENTY years ago the question whether Korea should be an independent empire, governed after the obscure and confused Oriental fashion, by authority resting on the mysterious sentiments of its people, would not have excited very much interest in this country, and nothing like anxiety even in Europe. Whether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be upset by a popular uprising, whether China or Japan should possess a dominant influence there, or exercise a protectorate, or even conquer the land, would also have been questions for the students of remote affairs, with less *réalité* than the luck of Lord ROSEBERY's colt in the Derby or the standing of Mr. GOULD's yacht has now. To-day the reports from Korea are eagerly scanned in every foreign office from London to St. Petersburg, and the Secretary of State at Washington is drawn into negotiations, the exact purpose and scope of which cannot be fully stated as yet, but which are clearly important. This remarkable change in the relations of a far-away Eastern state to its neighbors is due to the fact that a serious conflict between Japan and China may set the spark to the explosive material stored in the armies of Europe, and plunge a half-dozen nations into that general struggle which for a score of years they have been straining every nerve, first to defer and avoid, and second to meet if it should come.

The exact nature or origin of the quarrel of Japan and China over Korea it is not easy to define. China possesses a vague right of suzerainty in Korea, which has been acknowledged by the payment of tribute, but China has never exercised any open control there. Both China and Japan have trade relations with Korea and subjects living within its borders, of whom the Japanese seem to be the more numerous, active, and wealthy. Both governments claim, by treaty with each other and with Korea, the right to land troops to preserve order and protect the interests of their own people. It is now alleged by Japan that her subjects in Korea have been wronged, and are actually exposed to violence and maltreatment. It is also claimed by Japan that China was asked to join in sending troops to Korea to protect the treaty rights of the Japanese traders and residents and of her own, and not only refused, but protested against independent action by Japan. It is further claimed that an insurgent leader of Korea, having taken refuge in Japan, was decoyed by Chinese agents to Chinese territory, and there betrayed to the Korean government and slain—an act which Japan counts not only a violation of good faith, but a wilful affront on the part of both the Chinese and Korean governments. In these claims there is nothing that could not be settled peaceably if all parties desired peace. Apparently none of them desires peace. China is friendly to the actual Korean government, because it is largely under her influence. Japan is friendly to the opposition faction in Korea, because it desires at least the influence which China possesses in Korea, and probably much greater. The Korean government, in peril from discontent and insurrection, is not averse to a foreign war in which it will have so powerful an ally as China. War of some extent seems now inevitable. The Koreans, it is said, with the support of the Chinese, have begun efforts to drive out the Japanese, and the latter are pushing forward re-enforcements for the troops already in Korea.

What will be the result of such a war? Probably nothing very decided. Two of the most powerful nations of Europe have a distinct interest in repressing any decisive conflict. They are Great Britain and Russia. The former depends on the friendship of China at every point, because Chinese territory is interposed as a buffer for English possessions, on the one hand against Russia, on the other against France. Great Britain cannot, therefore, let China be openly beaten in a serious war. For counter reasons Russia cannot let China be decisively the conqueror in such a war. She is Russia's most formidable rival in the East. She has already balked Russia in the North, and if she conquered Korea, or drove out the Japanese, the hope of Russia for an open port on the Korean coast would be gone forever. Both Great Britain and Russia have offered their “good offices” to Japan and China to settle the quarrel. The offer of neither has yet been accepted. But governments so powerful do not stop with mere tenders of friendly advice. Neither of them cares to see a struggle in which both might be involved. It now seems most probable that the war will either be stopped or very narrowly “localized.”



조선의 풍경
-A. M. 매티스와 C. P. 하월의 사진을 바탕으로
01 조선의 아이들
02 서울, 경복궁 알현실 계단
03 제물포의 도시와 항구
04 서울, 폐허가 된 옛 궁궐터
05 제물포의 조선인 거리
06 제물포 전경
07 서울의 성벽
08 서울, 남대문
09 서울, 미국 공사관 건물
10 서울, 왕비의 연회장(경회루)

조선의 상황

육군 포병대 대위,¹ 아서 H. 리

“조선의 마을에서 가장 놀라운 점은 개가 상당히 많다는 점이다. 집집마다 중국의 차우견처럼 생긴 축 처진 회색 잡종개를 여러 마리 키우는 듯하다.”

불행 속에서도 의외로 좋은 일이 생길 수 있다는 말이 있다. 전쟁이라는 달갑지 않은 상황에서도 조선인들은 이 오랜 숙담을 피부로 느끼고 있을 것이다. 조선은 지난 수백 년 동안 서구의 관심을 얻고자 하였으나, 사실 현재의 청일전쟁이 아니었다면 지금과 같은 서구의 관심을 한 몸에 받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그렇지만 전쟁이라는 안타까운 상황 때문에 받는 이러한 관심은 조선의 애국자들에게 자랑스러운 것이 아니다. 최근 조선에 대한 관심은 조선의 내부에서 나온 것이라기보다는 조선을 둘러싼 열강의 적대적 갈등에서 비롯하였다.

Harper’s Weekly 1894. 12. 01.
p.1134, p.1137
하퍼스 위클리
미국
구9760
39.3×27.4

청일전쟁에서 조선 왕(고종)의 개인적 입장은 완전히 무시되고, 예전의 기회주의적 변절자처럼 그의 입장은 조석으로 변하고 있다. 예를 들면, 왕은 작년에는 중국의 황제에게 몸을 낮춰 하례를 드리더니, 올해는 외교 압박에 못 이겨 찢찢매면서 일본 천황에게 충성 서약을 옮기에 바쁘다. 한때는 일본의 종주국이던 시절도 있었으나 지금은 입장이 완전히 바뀐 것이다. 예전에는 조선의 왕들이 이런 식으로 왕위를 유지할 수 있었지만, 과연 오늘날에도 변덕스러운 외교술을 통해서 불안한 조선 왕위를 유지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중국은 결정적으로 이제 더 이상 조선에게 만형의 역할을 하기에는 역부족임을 드러냈고, 만형 역할을 대신할 유일한 후보는 일본과 러시아이다. 현재 조선에는 일본의 영향력이 가장 지배적이며, 이는 조선을 위해서도 세계를 위해서도 최선일 뿐만 아니라 이러한 상태는 지속되어야만 한다. 러시아인들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길 바라며 본 기자의 의견을 밝히자면, 일본은 러시아보다 문명적으로 더 세련되었으며, 지리적인 면만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다소 발전이 덜 된 아시아 끝자락에 위치한 전제 군주의 칙령보다는 일본의 계몽적이고 헌법적 정부의 지휘를 받는 편이 조선의 발전을 위해서 이롭다고 본다. 일본에 의한 조선 합병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가능성은 상당히 임박하였고, 만약 일본이 이집트에서의 영국의 선례를 따른다면,² 조선반도는 더할 나위 없는 이익을 누리면서 조선을 온전하게 독립국으로 유지할 수 있는 동시에 일본의 영향력 외의 모든 외세의 영향력을 단호히 차단할 수 있을 것이다. 러시아는 당연히 이러한 내용을 완강히 반대할 것이지만, 일본 편을 들든 안 들든 간에 누구라도 인정할 만한 분명한 사실은 러시아가 가진 조선에 대한 관심은 선의라기보다는 욕심에 가깝다는 점이다. 중국의 주장은 이제 더 이상 고려 대상이 아니다. 중국은 이제 조선에서의 영향력을 잃었으며, 일본에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이웃 나라인 러시아에 유리한 선택을 할 것이다. 결국 중국은 지리적으로 가까운 옆에 러시아를 두겠다는 의미이다. 본 기자가 서술한 대로 일본이 일부 도덕적, 물질적 지원을 할 수 있지만, 이전 기사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일본 다음으로 조선의 독립에 가장 큰 관심을 보이는 열강은 영국이다. 영일동맹은 서방의 영국과 극동의 영국을 잇는 연결고리가 될 수 있으며, 향후 누가 태평양의 맹주

가 될 것인가라는 물음에 단 한 번의 조정으로 답을 내놓을 수 있다.

조선의 기후와 풍경, 여러 궁금중에 대한 많은 글이 최근에 발표되었고, 외세에 적대적인 조선의 폐쇄성에 대해서는 이미 충분히 다루어졌기 때문에, 본 기자는 비슷한 사실의 단순 반복은 피하고자 한다.

조선인에게는 암묵적으로 몸에 뻐 매우 두드러진 특성이 있다. 가장 눈에 띄는 첫 번째 특성은 ‘독특한 무관심’이다. 그 무엇도 조선인을 깜짝 놀라게 하거나 지적 흥미를 자극하지는 못하는 듯하다. 장날에 조선의 마을을 걷다 보면, 대부분의 장사꾼들은 그나마 물건도 얼마 없는 가게에서 평화롭게 낫잠을 자고 있고, 나머지 마을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낮잠을 자거나 노곤하게 담배를 피우거나 파리를 쫓는 풍경이 펼쳐진다. 이 풍경에서 유일하게 에너지가 넘치는 것은 개나 곤충들인 듯하다. 심지어 탐욕이라는 감정도 조선인에게 휴면 상태의 열정인 듯하다. 물론 조정 증신들은 완전히 예외이다. 조선인의 얼굴 표정에도 이러한 덤덤한 우둔함이 배어 있어, 심지어 이들이 과연 생각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질 지경이다. 아마도 어쩌면 생각을 아예 안 한다는 말이 맞을 수도 있는 것이, 작금의 유쾌하지 못한 상황(청일전쟁)이 일어날 때까지 사실 조선인은 생각을 할 필요가 전혀 없었다.

수백 년 동안 조선이라는 나라는 완벽하게 이렇다 할 어떠한 발전도 없었다. 다시 말하면, 이들은 진보적인 생각을 하게 될까봐 극도로 꺼리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법(경국대전)에 따라 자국에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을 즉시 사형에 처하였다. 이 대단히 관대한 구닥다리 법 덕분에, 조선은 수천 년 동안 온전히 조선 고유의 예법과 관습을 그대로 지켜올 수 있었다.

확실히 어떤 이는 조선을 노아의 홍수 시대에 살아남은 생존자로 보기도 한다. 조선의 상황을 본 기자는 환상적인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다. 사진에서 조선의 일상복을 입은 선비를 볼 수 있다. 흡사 어린 시절 배웠던 ‘노아의 방주’ 시대의 영원성을 대변하듯, 사진 속의 복장은 성경의 전통적 복장을 충실히 재현하고 있지 않은가? 다시 말해, 우리가 어린 시절 봐왔던 태초의 복식이 역사적으로 살아남아 특이한 유사성을 간직한 채 보존된 것은 아닐까?

눈에 띄는 조선인의 또 다른 특성은 내재적으로 어떤 형태의 노동이든 혐오한다는 사실이다. 조선에서 노동이라는 것은 생계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행위이며, 심지어 그 최소한의 것도 거의 전적으로 여성이 담당하고 있다. 돈을 벌겠다는 열망이 거의 전무한데, 만약 잉여분이 발생하더라도 중국인들에게 잉여분을 약탈당해왔기 때문이다.

조선인의 또 다른 특성은 용납할 수 없는 저속한 부도덕성이다. 이는 조선이라는 나라를 직접 여행해보면 금방 알 수 있다. 이 사악한 지역이 야만적 미개함과 무력하고 쇠락한 문명에서 왜 벗어나지 못하는지를 알아내는 것이 생리학자들에게 주어진 흥미로운 질문일 것이다.

조선의 마을에서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놀라운 점은 개가 상당히 많

다는 점이다. 집집마다 중국의 차우견처럼 생긴 축 처진 회색 잡종개를 여러 마리 키우는 듯하다. 이것은 유럽에서 온 여행자에게는 상당히 흥미로운 부분인데, 작대기 하나만 휘두르면 개들이 가까이 오지 않는다. 조사에 따르면, 조선인들은 개를 즐겨 먹는다고 알려져 있다. 아시아의 다른 인종과 다르게 조선인들은 육식을 즐기는데, 이 개들은 조선인의 일상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노력과 비용으로 필요한 음식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조선인의 식생활에 또 다른 차이점은 조선에는 차를 마시는 문화가 없다는 것인데, 동아시아의 거의 모든 나라에서 차를 마신다는 점을 감안하면 흥미롭다. 종종 조선인들이 저녁 식사를 위해 수렵 활동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방법은 간단하지만 불쾌하다. 짧은 막대기의 끝에 올라미를 단다. 그리고 가장 가까이에 있는 개의 목에 올라미를 걸고는 죽을 때까지 천천히 목을 조른다. 동시에 도살자는 개가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막대기로 밀고 당긴다.

조선은 호랑이가 많기로 유명하다. 조선에서는 호랑이 가죽을 팔면 엄청난 돈을 벌 수 있다. 이 대단한 호랑이는 조선인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으로, 다른 쪽의 사진을 보면 돼지가 호랑이에게 물려갈까 봐 돼지 우리의 벽을 튼튼하게 친 것을 볼 수 있다. 호랑이가 가죽을 하도 물어가서 조선의 왕은 착호군(왕립 호랑이 사냥꾼 부대)을 조직했으며, 이들은 조선의 정예부대이기도 하다.

조선 여행은 호사스럽지 못하다. 조선인들은 집을 호화롭게 꾸미지 않고 외국인 여행자에게도 최소한의 것만 제공한다. 평균적인 조선의 호텔은 마치 현대식 돼지우리과 같다. 숙소라고 해봐야 소, 가금류 혹은 이름을 알 수 없는 다른 가축들 사이, 말도 안 되는 먼지구덩이에서 잠을 청해야 한다. 미국의 고급 호텔 ‘월도프’³라고 할 수 있는 조선의 일급 호텔의 사진을 보면 끔찍했던 조선에서의 밤이 하나하나 기억나는데, 키팅(주모)의 친절함 덕분에 그나마 좀 편치 지낼 수 있었다.

남은 사진들을 보면 원산항의 흥미로운 경치를 볼 수 있다. 러시아가 매우 탐을 내던 이 항구는 포트 라자레프라는 이름으로 알려졌는데, 최근 평양에서 전투를 벌여⁴ 대승리를 거둔 일본군 3개 부대의 동쪽 출발 지점이기도 했던 곳이다.

1894. 10. 12.

1 원문의 Captain R. A.는 Captain Royal Artillery, 즉 영국 육군 포병대 대위로 추정된다. **2** 이집트는 1883년부터 1907년까지 사실상 영국의 총영사로 파견된 크로머(Cromer)의 영향력하에 있었다. **3** 1893년 윌리엄 월도프 애스터(William Waldorf Astor)가 뉴욕에 문을 연 13층짜리 호텔을 말한다. **4** 평양전투는 청일전쟁 당시 1894년 9월 15일 일본군과 청군이 치른 두 번째 주요 전투로 일본군이 대승리를 거둠으로써 한반도 내에서 모든 청군 세력을 소멸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KOREAN NOTES.

It is indeed an ill wind that blows nobody good, and the people of Korea must feel the truth of this old adage, for through the unpleasant circumstance of a war, their country has assumed an importance in the eyes of the civilized world which it would otherwise have taken centuries of progress to acquire. On the other hand, it can hardly be said that its present notoriety can be a source of unmixed pride to the soul of the Korean patriot. Its ephemeral importance comes not from within, but from the pressure of conflicting antagonisms which impinge upon it from without.

In the present struggle its personal predilections are completely ignored, and its King is relegated to the rôle of the whilom Vicar of Bray. Last year he was humbly thanking the Emperor of China for the privilege of existence, whilst this year, under superior diplomatic pressure, he is busily signing declarations of fealty to the Emperor of Japan, and is expressing fervent wishes for the discomfiture of his former suzerain. It is doubtful, however, whether his elastic loyalty will reap the reward of his priestly predecessor, and that he will be left in undisturbed possession of his inheritance. China has conclusively shown her inability to maintain the position of mentor to the Korean government, and the only other competitors for the post are Japan and Russia.

Japanese influence is at present predominant, and it is for the best interests of Korea and of the world that this condition should prevail.

Without wishing to offend Muscovite susceptibilities, I must express the opinion that the influence of Japan would be more civilizing than that of Russia, and, for geographical considerations alone, the progress of Korea could be better supervised by an enlightened and constitutional government at Tokyo than by the edicts of a somewhat unprogressive autocrat dwelling at the opposite extremity of Asia.

The annexation of Korea by Japan is not a necessity, though it is an impending probability, and the best interests of the peninsula could be equally secured if the Japanese would follow the example of the English in Egypt, and maintain the integrity of Korean independence, whilst resolutely excluding all foreign influence but their own.

Russia would undoubtedly find serious objections to this arrangement, but to any but the prejudiced observer it is obvious that her interest in Korea is more avaricious than philanthropic.

The claims of China have no longer to be considered. She has irrevocably lost Korea; and this being the case, she would probably consider any arrangement preferable to seeing her hated neighbors the Russians established in that country, and in a position to turn her flank.

In adjusting the arrangement which I have outlined Japan might require some moral and material support, and, as I endeavored to indicate in my previous article, England is, after Japan, the power most interested in the independence of Korea. An Anglo-Japanese alliance would be a linking together of the Great Britain of the West with the Great Britain of the far East, and the question of the command of the Pacific would be settled once and for all.

So much has been written lately descriptive of the climate, scenery, and curiosities of Korea that the public is probably surfeited with local color of the scene of hostilities, and I will therefore avoid a mere repetition of familiar facts.

Some of the most prominent characteristics of the people themselves have, however, been passed over in silence. The first of these is their extraordinary apathy. Nothing seems to excite either their astonishment or their intellectual interest.

Passing through Korean towns on market-days, I have found most of the merchants slumbering peacefully in the midst of their scanty wares, and surrounded by the rest of the population, also asleep, or listlessly smoking, and catching flies. Only the dogs and the vermin seem energetic.

Even cupidity seems a dormant passion amongst the Koreans, though the government officials are notable exceptions to this rule. Their countenances bear such an appearance of placid stupidity that one wonders if they even think. Possibly not, for until the present unpleasantness began

there has really been nothing for them to think about. For centuries their country has been absolutely at a standstill; and in order to more effectually bar the ingress of any progressive ideas, the standing law of the land, until a few years back, ordained that all foreigners entering the country should be immediately put to death.

This beneficent and antiquarian legislation has had the effect of preserving the primitive manners and customs of the Koreans absolutely intact for thousands of years. Indeed, I believe one may still see in Korea a survival of the social conditions which prevailed at the time of the Flood. On this point I have a fantastic theory. Look at the accompanying photograph of a Korean gentleman in the universal dress of the country. Is not his costume a faithful reproduction of the traditional habiliments of Noah, as perpetuated in the “Noah’s ark” of our nursery days; and may not this strange similarity be a historical survival of antediluvian sartorial fashion?

Another strongly marked Korean characteristic is a constitutional aversion to work in any form. The labor expended in the country is reduced to the minimum necessary to support life, and even that minimum is performed almost entirely by the women. There is no temptation to make money, because any surplus wealth is immediately appropriated by the nearest mandarin.

Another national characteristic is gross and unnatural immorality. The physical traces of this are only too apparent to a traveller in the country, and it is a curious problem for the physiologist to determine why this plague-spot should be developed only by the opposite extremes of unenlightened barbarism and the most effete and decadent civilization.

The first thing that strikes a visitor to a Korean village is the surprising subpopulation of dogs. Every house seems to possess a pack of these spiritless curs, which are a gray variety of the Chinese chow-dog. They display a more than passing interest in a European traveller, and a free use of one’s stick is necessary to keep them at bay. On investigation one discovers that they form the staple article of diet of the population. Unlike most Asiatic races, the Koreans are meat-eaters; and these dogs, being always at hand, afford the necessary food with the minimum of exertion and expense. Another curious feature of the Korean diet is the total absence of tea, the almost universal beverage of eastern Asia.

Frequently one sees a Korean foraging for the evening meal. The method is simple, though unpleasant. He is armed with a short pole, to the end of which is attached a noose. This he throws over the head of the nearest dog, and then proceeds to screw the pole round till the noose tightens, and slowly throttles the dog, who is meanwhile prevented from getting to close quarters with its butcher by thrusts of the po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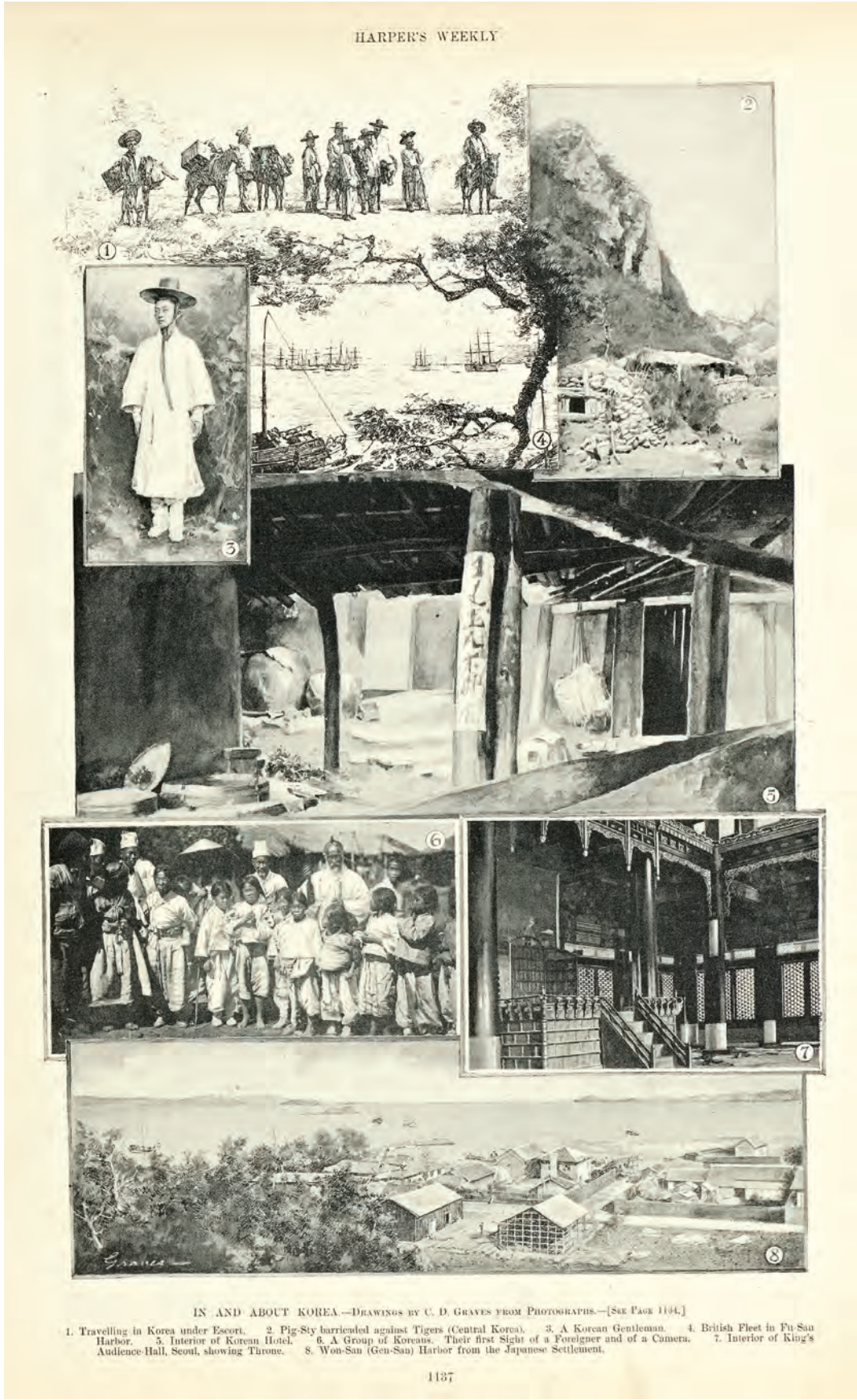
The country is much infested by the great long-coated Mongolian tiger. This magnificent animal, though a considerable source of revenue on account of its valuable skin, is nevertheless much dreaded by the natives. The photograph on another page shows a pig-sty in central Korea barricaded against these depredators. So serious are the ravages committed by them that the King was forced to organize a regiment of “Royal Tiger-Hunters,” and these constitute the *corps d’élite* of the Korean army.

Travelling in Korea can hardly be described as luxurious. The Korean is not lavish of home comforts for himself, and he certainly provides a minimum of the same for the travelling foreigner. The average Korean hotel compares unfavorably with a modern pig-sty, and one has to sleep as best one can in the midst of surprising dirt, a colony of cattle and fowls, and other things which shall be nameless. The accompanying photograph of a Korean “Waldorf” calls up vivid memories of nights of unpleasantness, only mitigated by the kind offices of Keating.

The remaining photographs explain themselves, but special interest attaches perhaps to the view of Wou-san (Gensan) Harbor. This is the celebrated “Port Lazareff,” so eagerly coveted by Russia, and was also the starting-point of the eastern of the three Japanese columns in their recent masterly and brilliantly successful movement against Ping-Yang.

ARTHUR H. LEE, Captain R.A.

October 12, 1894.



조선의 안팎
-사진을 보고 C. D. 그레이브스가 그림
1. 호위를 받으며 조선에서의 여행
2. 호랑이를 막는 방어벽을 두른 돼지우리
3. 조선의 신사(양반)
4. 부산항의 영국 함대
5. 조선 호텔의 내부
6. 조선인들 -외국인과 카메라를
처음으로 보는 시선
7. 서울, 여좌가 보이는 왕의 알현실 내부
8. 일본 조계의 원산항

조선 소식

“중국과 일본이 전쟁을 벌이고 있다. 조선을 차지하기 위한 혈투인 것이다.”

중국과 일본이 전쟁을 벌이고 있다. 조선을 차지하기 위한 혈투인 것이다. 이론적으로 조선은 중국의 속국이지만, 1876년 중국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조선은 일본해(동해) 쪽의 원산항, 부산항과 황해(서해) 쪽의 인천항 등 주요 항구 세 곳에 대한 일본의 통상 요구를 수락하였고 이에 따라 일본에 종속되었다.

일본이 조선과 교역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조선은 개방을 원하지 않았고 오랜 관습에 변화를 일으키는 것에는 무조건 반발하였다. 중국은 조선이 이 같은 개발에 저항하도록 계속해서 자극하고 있으며, 조

Le Petit Parisien	1894. 08. 12.
르 프티 파리지앵	표지, p.254
프랑스	구9744, 구6847
	43.9×30.9, 45.1×31.1

선의 왕 이희(高宗)는 보수적 중국의 관료 이홍장과 뜻을 같이한다. 반면 조선에는 일본 편에 서서 개혁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상당수 있다. 그래서 이 두 정치 세력이 최근에 크게 충돌하였다. 조선에서 벌어진 일련의 사건에 이어 일본 정부는 일본의 재외 국민을 보호한다는 빌미로 수만 명의 병사를 조선의 수도인 서울로 파병하였다. 그 즉시 이홍장도 조선 해안에 함대와 많은 상륙 중대를 파병하였다. 전쟁이 임박하였다. 그리고 머지않아 전쟁(청일전쟁)이 발발하였다. 7월 27일, 일본군은 중국 상선을 침몰시켰다. 1,500명 규모의 군부대를 나르던 가오성호에 탑승하였던 사람 중 40여 명만이 지나가던 프랑스 포함에 의해 구조되었다. 이 끔찍한 사건이 벌어지자 전쟁을 막기 위해 영국과 러시아가 개입하였다. 두 나라는 중국 영해에서 상당한 이익을 거두고 있었기 때문에 전쟁이 지속되면 당연히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되므로 일본과 중국 간의 충돌이 너무 커지지 않도록 무엇이든 할 것이다. 만약 개입이 실패한다면 베이징과 요코하마 이상으로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본지의 1면에는 최신 사진을 바탕으로 그린 고종의 초상화를 실었다. 조선의 왕이 다스리는 국토의 길이와 너비는 이탈리아의 국토와 비슷하다. 왕은 인구 25만 명 규모의 서울에 거주하며, 왕궁에는 울타리로 둘러싸인 왕가의 거처와 궁녀들이 모여 사는 하렘이 있는데 산 아래 자리 잡고 있다. 왕은 절대적인 군주이다. 왕의 이름을 말하는 것만으로도 죄가 된다. 왕을 보필하는 귀족들도 엄청난 혜택을 누리고 있다. 조선군은 미국 교관 아래에서 잘 훈련받은 편이다.

1면에는 조선의 두 여인이 소개되어 있다. 불쌍한 여인네들의 삶은 전혀 부러움의 대상이 아니다. 조선에서는 얼굴을 가리는 것이 여인의 가장 중요한 의무이기에 밤에만 외출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조선 여인의 사진을 확보한 것을 보면 여인들이 이 규칙을 어길 때도 있는 듯하다.

서울의 남쪽 지역은 조선 땅에서 가장 부유하고 인구가 많다. 총 면적은 23만 제곱킬로미터에 달하며 이곳의 기후는 매우 다양하다. 조선을 가장 잘 안다고 알려진 영국의 지리학자 아페르에 따르면 인구가 1,500만 명에 달한다고 한다. 서울의 북쪽 지역은 날씨가 혹독한 편이다. 반면 서쪽 지역은 기후가 좀 더 온화하다.

하지만 조선을 여행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법률 때문에 조선의 국토 대부분은 사람이 살지 않는 오지로 변해버렸다. 중국의 랴오둥 인근 지역에서는 농사나 상업 활동이 금지되었고 위반 시 사형에 처한다. 사람과 자원을 없애서 여행자들이 발길을 끊도록 만들어 조선 땅을 넘보는 외국인으로부터 조선을 보호하려는 조치를 취한 것이다. 이는 조선의 땅이 매우 비옥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금속 광물도 풍부하다. 외국에서 조선 땅을 노릴세라 조선에서의 금광과 은광 개발은 전면 금지되어 있다.

최근의 일들로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일본은 조선에 현대적인 사상을 도입해 이미 돌파구를 열었고 앞으로도 이러한 활동을 지속할 것이다. 다만 이로 인해 유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NOS GRAVURES

Les Evénements de Corée

La Chine et le Japon sont en guerre, et c'est la Corée qui est la cause de ce conflit sanglant. Théoriquement, la Corée est vassale de la Chine, mais, effectivement, elle est tributaire du commerce japonais qui, en 1876, a réussi, en dépit des efforts du gouvernement chinois, à s'y faire ouvrir trois ports importants, ceux de Gensan et de Fousan, sur la mer du Japon, et celui de Ninsan sur la mer Jaune.

Ce n'est point sans peine, d'ailleurs, que l'action commerciale du Japon a pu s'exercer. En effet, la Corée voudrait rester isolée, rebelle à toute modification de ses coutumes séculaires, et la Chine l'excite dans cette résistance au progrès. Le roi de Corée, Li-Houi, est le représentant des tendances conservatrices, d'accord avec l'agent du gouvernement chinois, Li-Hung-Chang. Mais, d'autre part, le Japon compte pour lui un nombre considérable de partisans des réformes. C'est entre ces deux partis opposés que le choc vient d'avoir lieu.

A la suite d'incidents dont la Corée avait été récemment le théâtre, le gouvernement japonais, sous prétexte de protéger ses nationaux, avait expédié une dizaine de mille hommes sur Séoul, la capitale coréenne; aussitôt, Li-Hung-Chang se hâta d'expédier sur les côtes de la Corée une escadre et de nombreuses compagnies de débarquement.

C'était la guerre imminente : elle n'a pas tardé à éclater.

Le 27 juillet, les Japonais coulaient bas un transport chinois : le *Kowshung*, portant 1,500 hommes de troupe, sur lesquels quarante seulement auraient été sauvés par une canonnière française qui se trouvait là.

A la suite de ce terrible événement, l'Angleterre et la Russie sont intervenues pour tâcher de faire cesser les hostilités. Les intérêts de ces deux puissances dans les mers de Chine sont, en effet, considérables, et si la guerre continuait, il est évident qu'elles se trouveraient aux prises. Tout sera donc essayé pour empêcher que le conflit entre le Japon et la Chine ne prenne de trop grosses proportions; si l'on n'y réussissait pas, il y aurait à prévoir des conséquences graves qui se feraient sentir plus loin que Pékin ou Yokohama.

Nous donnons à notre première page le portrait du roi de Corée, d'après une très récente photographie. Ce souverain règne sur un territoire qui présente à peu près la longueur et la largeur de l'Italie. Sa résidence est à Séoul, ville de 250,000 habitants, où son palais est situé au pied des montagnes, au milieu d'une enceinte contenant les logements de la famille royale et le harem.

Le roi est maître absolu. C'est un crime de prononcer seulement son nom. La noblesse qui l'entoure est également pourvue de privilèges exorbitants.

L'armée coréenne est composée de soldats assez bien exercés, conduits par des instructeurs américains.

On peut voir, à notre première page, deux types de femme de Corée. La vie de ces malheureuses n'est guère enviable. Elles ne sortent que la nuit, car elles ont pour premier devoir de ne jamais laisser voir leur visage. Toutefois, cette règle a été parfois transgressée, puisqu'on possède des photographies de femmes coréennes.

C'est au sud de Séoul que se trouve la partie la plus riche et la plus peuplée de la Corée, qui avec ses 230,000 kilomètres carrés, offre des climats assez divers aux 15 millions d'habitants que lui attribue M. Appert, le géographe anglais qui a le mieux étudié le pays. Au fur et à mesure que, de Séoul, le voyageur monte vers le nord, il rencontre une température rigoureuse. Vers l'ouest, au contraire, le climat est des plus doux.

Mais ce n'est qu'à grand peine qu'on peut voyager en Corée. Les dispositions légales ont fait de la plus grande partie de ce pays un véritable désert; c'est ainsi que du côté de la province chinoise du Liao-Toung, il est interdit, sous peine de mort, de créer aucune exploitation agricole ou commerciale. La raison de cette mesure est de fermer au voyageur l'accès d'un pays ainsi privé d'habitants et de ressources, et de mieux assurer la sécurité des possesseurs actuels de la Corée contre les convoitises étrangères. La Corée est, en effet, une terre des plus riches; les mines de métaux y abondent; mais pour éviter les appétits qui pourraient hanter les étrangers à l'endroit du sol Coréen, l'extraction de l'or et de l'argent est absolument défendue.

Les événements actuels pourraient transformer tout cela. Le Japon a déjà ouvert en Corée des brèches par où les idées modernes ont passé; il va continuer son œuvre. Souhaitons qu'il n'en résulte pas des incidents pouvant avoir leur contre-coup en Europe.

Sixième Année. — N° 288.

Huit pages : CINQ centimes

Dimanche 12 Août 1894.

TOUS LES JOURS
Le Petit Parisien
5 CENTIMES

SUPPLÉMENT LITTÉRAIRE ILLUSTRÉ

TOUS LES JEUDIS
SUPPLÉMENT LITTÉRAIRE
5 CENTIMES

DIRECTION : 18, rue d'Enghien, PARIS

01

02

03

LES ÉVÉNEMENTS DE CORÉE

TYPES DE FEMMES CORÉENNES LE ROI DE CORÉE ET SES MANDARINS TYPES DE SOLDATS CORÉENS

조선 소식

- 01 조선의 여성들
- 02 조선의 군인들
- 03 조선의 왕과 관리

107
1890년대-PART III

조선에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전쟁이 조선이라는 불행한 나라에는 큰 비극임에는 틀림없지만 쇠신할 수 있는 출발점이자, 아직은 멀기만 한 번영 시대의 시작점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조선은 길이가 800킬로미터에 달하는 거대한 반도로서 만주로부터 뻗어 나와 일본해(동해)로부터 마치 중국을 지켜보고 서 있는 보초병의 모습처럼 돌출되어 있다. 면적은 약 21만 5,000제곱킬로미터로 프랑스 면적의 거의 절반에 가깝고 인구는 1,500만 명으로 추정되며 몽골족에 속한다. 지도에서 볼 수 있듯이, 조선은 지형의 고저가 뚜렷하고 두 개의 거대한 산맥이 서로 맞닿아 있다. 첫 번째 산맥은 북쪽 국경선 근처의 서남쪽에서 동북쪽을 향해 광대한 화강암 벽처럼 솟아 있는데 마치 국토의 출입구를 봉쇄한 듯한 모습이다! 두 번째 산맥은 북쪽에

Le Petit Journal	1894. 09. 03. p.285, p.287
르 프티 주르날 프랑스	구9738, 구6849 43.0×30.6, 45.1×31.1

서 남쪽으로 일본해와 평행을 이루며 뻗어 있어 반도의 척추와 같은 형상을 하고 있다.²

두 주요 산줄기로부터 드넓은 평야 지대가 시작되는데 동쪽 사면을 따라서는 바다 쪽으로 급격한 경사를 이루고, 서쪽을 향해서는 긴 사면을 이룬다. 그리고 거의 모든 하천이 서쪽으로 흐르기 때문에 상업을 비롯하여 국가의 모든 활동이 서쪽 지역에 집중되어 국민들의 생활 터전을 이루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대로 지형적인 측면에서만 본다면 조선은 이탈리아와 어느 정도 유사하다. 이탈리아에서 볼 수 있는 알프스산맥, 아펜니노산맥, 테베레강, 티레니아해에 해당하는 산맥과 바다가 조선에도 있고, 두 나라 모두 수도는 반도의 중앙에 위치한다. 그리고 동일한 경도상에 위치한다. 하지만 기후는 상당히 다르다. 조선은 북풍의 영향으로 겨울이 매우 추워 황해의 일부가 얼어 항해가 불가능하기도 하다. 조선반도는 경치만 수려한 곳은 아니다. 금·철 등 모든 종류의 금속 매장량이 매우 풍부하고 토지가 비옥해 자연의 산물이 풍성하다. 또한 아시아와 유럽의 동식물군이 만나는 곳으로 조선인들의 부와 윤택한 삶의 가장 중요한 원천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의심과 시기에 가득 찬 조선 정부는 자신들의 나라가 외국 여러 나라의 탐욕의 대상이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이러한 풍부한 자원의 개발에 반대하고 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극동 지역의 여러 나라와 마찬가지로 조선은 너무나 오랫동안 폐쇄된 미지의 나라로 남아 있었다.

조선인들의 눈에 외국인은 모두 적이고 음모를 꾸미는 자들이며, 그들의 표현을 빌자면 ‘나병’과도 같은 존재이다. 따라서 어떤 일이 있어도 스스로를 그들로부터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허가 없이 함부로 조선 땅을 돌아다니는 외국 여행자에게는 사형을 선고할 수 있는 법이 만들어졌다. 이는 조선과 모든 외국 사이에 절대로 넘을 수 없는 장벽을 설치하기 위한 것이다.

조선 정부는 북쪽으로는 성벽을 쌓고 맹수들을 풀어 놓아 사람이 살지 않는 국경 지대를 조성해 외국 침략군의 통행이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반면에 남쪽 해안은 거의 대부분이 크고 작은 수많은 섬과 위험한 암초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방어가 되는 형상이다. 실

제로 1847년 이곳에서 두 척의 프랑스 군함 ‘글루아르호’와 ‘빅토리와즈호’가 난파를 당하기도 하였다.³ 한편 이처럼 수많은 섬과 마주한 육지에는 긴 성벽이 효율적으로 건설되어 있어 외국 배가 이곳으로 상륙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선교사들은 조선 땅을 밟았고, 그들 중 많은 이가 목숨을 잃고 말았다. 무모함에 가까운 용기로 인한 희생이었다. 그리고 이들의 죽음에 대한 보복으로 프랑스는 1866년 서울을 향해 함대를 보내 대포를 쏘며 조선으로 하여금 문명 세계를 향해 문을 열도록 만들었다(병인양요).

일단 길이 열리자 일본이 처음으로 조선에 진출하였다. 1876년 일본은 조선 정부와 조약(강화도조약)을 맺고 부산·원산·제물포 등 세 항구를 일본 선박에 개방한다는 조항을 얻어냈다. 그 후 얼마 뒤 영국(1883), 독일(1883), 미국(1882), 러시아(1884) 그리고 프랑스(1886)가 차례로 조선과 이와 유사한 통상조약을 체결하고 위에 언급한 세 항구를 통해 교역을 시작하였다.

이때부터 일본은 조선과 가장 인접한 국가인 서쪽의 중국, 그리고 북쪽의 러시아와 경쟁 구도에 들어가게 된다.

러시아는 블라디보스토크를 통해 조선의 동해안에 큰 영향을 미쳤고, 중국은 폐질리만(발해만)을 통해 서해안 쪽으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일본은 주로 부산을 포함한 남해안 지역에서 세력을 키우며 점차 중앙으로 올라왔다. 이 같은 각국의 영향력 행사가 현재 벌어지고 있는 분쟁(청일전쟁)의 원인이 된 것이다.

행정적으로 조선은 8개의 도로 나뉘고 왕이 파견하는 관료가 다스린다. 각 도의 도청 소재지는 지도에 검은색 깃발로 표시하였다. 지방관료들은 큰돈을 들여 사병을 만들어 자신의 지휘하에 두었는데, 이는 착취당하는 백성들의 삶을 더욱 불행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었다.

조선의 주요 산업은 제지업이다. 목화 줄기를 이용해 종이를 만드는데, 그 재질이 매우 치밀해 글을 쓰는 것은 물론 갓이나 옷, 가방까지도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이 외에 다른 산업들이 시작 단계에 있긴 하지만, 앞으로도 상당 기간 외국에 의존하는 상태가 지속될 것이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전쟁이 조선이라는 불행한 나라에는 큰 비극임에는 틀림없지만 쇠신할 수 있는 출발점이자, 아직은 멀기만 한 번영 시

대의 시작점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 날이 오기를 바라며 유럽 열강들도 조선이 그 같은 결과에 도달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1 강남산맥, 적유령산맥, 묘향산맥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2 낭림산맥, 태백산맥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3 1839년(헌종 5) 기해박해를 빌미로 프랑스 정부는 1847년(헌종 13) 6월 30일 홍콩에 머물고 있던 두 군함을 조선에 파견하였는데 서해로 들어오다가 군산 근처의 고군산 군도에서 좌초하여 신시도에 잠시 체류하였다. 이때 최양업(崔良業, 1821~1861) 신부가 프랑스 함대의 통역관으로 파리 외방전교회 선교사 메스트르 신부와 동행하였다.

En Corée

La Corée est une vaste presqu'île de 800 kilomètres de longueur, qui se détache de la Mandchourie et s'avance comme la sentinelle de la Chine dans la mer du Japon. Sa superficie, évaluée à 215,000 kilomètres carrés, est à peu près la moitié de celle de la France et sa population arrive, dit-on, à 15 millions d'habitants de race mongolique.

Comme l'indique notre carte, le relief du pays est très fortement accusé et constitué par la rencontre de deux grandes chaînes de montagnes. La première, courant du Sud-Ouest au Nord-Est, se dresse comme une gigantesque muraille de granit sur le seuil de la frontière septentrionale dont elle ferme l'accès. La seconde longe la presqu'île du Nord au Sud, parallèlement à la mer du Japon, et en constitue la colonne vertébrale.

A ces deux troncs principaux viennent s'amorcer une infinité de vallées fertiles qui inclinent brusquement vers la mer, sur le versant oriental, et se développent en longues pentes, sur le versant occidental. Par suite, c'est de ce côté que coulent presque tous les grands cours d'eau et que se concentrent, principalement, l'activité, le commerce et l'existence nationale du pays.

Ainsi constituée, la Corée présente une certaine analogie avec l'Italie. Comme celle-ci, en effet, elle a ses Alpes, son Apennin, son Tibre, sa mer Tyrrhénienne et sa capitale dans le centre de la presqu'île. Les deux pays se trouvent placés sur le même degré de longitude ; mais le climat en diffère cependant beaucoup. Sous l'influence des vents du Nord, la Corée est un pays tellement froid, en hiver, qu'une partie de la mer Jaune se trouve prise par les glaces et reste fermée à la navigation.

La presqu'île coréenne n'est pas seulement un pays pittoresque ; elle est encore une région des plus riches en gisements métalliques de toutes sortes, depuis l'or jusqu'au fer, une terre très fertile et abondamment pourvue de toutes les productions de la nature. La faune et la flore de l'Asie s'y rencontrent avec la flore et la faune de l'Europe et pourraient devenir, pour la population, une source incomparable de richesses et de bien-être. Malheureusement, l'ombrageuse jalousie du gouvernement s'est opposée à leur exploitation, de crainte d'attirer sur le pays les regards de convoitise des peuples étrangers.

Voilà pourquoi la Corée, comme du reste tous les pays de l'Extrême-Orient, est restée pendant si longtemps un pays fermé et inconnu. Aux yeux des Coréens, tout étranger est un ennemi, un conspirateur, et, suivant l'expression consacrée, une lèpre, dont on doit se garantir à tout prix. De là, ces lois qui punissaient de mort le voyageur téméraire qui osait s'aventurer dans le pays, sans permission ; de là, ces mesures de précautions qui ont pour objet d'élever une barrière infranchissable entre la Corée et les pays du dehors.

Au Nord, le gouvernement crée un désert-frontière, hérissé de forts et peuplé de bêtes féroces afin de rendre le pays impraticable à une armée d'invasion. Au Sud, et sur presque tout son littoral, la Corée est défendue naturellement par une accumulation d'îles, d'ilots et de brisants des plus dangereux et sur lesquels, en 1847, deux navires de guerre français, la *Gloire* et la *Victorieuse*, firent naufrage. En face de ces îles, sur la terre ferme, une ceinture de forts, habilement disposés, rend le débarquement presque impossible à un étranger.

Les missionnaires français parvinrent cependant à pénétrer en Corée, mais un grand nombre d'entre eux payèrent de leur vie cette courageuse témérité.

Ce fut pour venger leur mort que la France envoya, en 1866, une escadre devant Séoul et ouvrit, à coups de canons, les portes de la Corée au monde civilisé.

Le passage une fois ouvert, le Japon y entra le premier. En 1876, par un traité conclu avec la Corée, il obtint du gouvernement que les trois ports de Fousan, de Geusan et de Chemulpo seraient ouverts aux navires japonais. Peu de temps après, l'Angleterre, l'Allemagne, les Etats-Unis, la Russie et la France concluaient des traités analogues et entraient en relations suivies avec la Corée par les trois ports ci-dessus désignés. C'est par là que le Japon se trouve en rivalité avec la Chine et avec la Russie qui sont les voisins immédiats de la Corée à l'Ouest et au Nord.

Par Vladivostock, la Russie exerce une grande influence sur la côte orientale, et par le Petchili, la Chine domine sur la côte occidentale. L'influence du Japon s'exerce surtout sur le littoral du Sud, à Fousan, et remonte de là vers le Centre. C'est cette lutte d'influences qui a motivé le conflit actuel.

Administrativement, la Corée est divisée en huit provinces, dirigées par un gouverneur royal. Le chef-lieu de chaque province est indiqué par un pavillon noir sur la carte. Les gouverneurs ont sous leurs ordres une armée de mandarins, dont les emplois, achetés au poids de l'or, sont, pour les populations pressurées, une source de malheurs de toutes sortes.

La grande industrie coréenne est la fabrication du papier. On confectionne ce produit avec les tiges du cotonnier et on parvient à lui assurer une telle consistance qu'on peut l'employer à l'écriture et en faire des chapeaux-parapluie, des vêtements et même des sacs. Les autres industries commencent à se développer, mais de longtemps la Corée sera encore tributaire de l'étranger.

La guerre actuelle, tout en étant un malheur pour cet infortuné pays, peut devenir le point de départ de sa régénération et le commencement d'une ère de prospérité encore inconnue. On ne peut que le désirer et il est permis de croire que les puissances européennes sauront employer leurs efforts pour assurer ce résultat.



조선의 지도

조선 왕비 시해 사건

“살해된 왕비는 조선인보다 만주인의 외모와 비슷하였다. 긴 타원형 얼굴에 이마는 도드라지고 코는 오뚝하였다. 입이 크고 이는 노랑고 네모난 모양이다. 키는 중간 정도에 균형 잡힌 몸매를 지니고 있었다.”

지난주에 서울로부터 전달받은 전보에 따르면 조선에 반란이 있었다고 한다.¹ 어느 날 아침 5시, 조선군 부대와 사복 차림의 일본인 무리가 왕궁(경복궁)을 습격하였다. 왕궁을 지키던 근위대 대령²이 그들을 막으려 하였으나 살해당했고, 대령을 구하러 온 병사 여럿도 동일한 최후를 맞았다. 살인자들은 왕궁 내 왕비의 침실(전청궁 곤녕함)에 침입해 왕비(명성황후)를 시해하고, 왕비를 모시던 궁녀 세 명도 살해하였다. 궁내부 대신³도 같은 최후를 맞았다. 피해자들의 시신은 곧장 치워졌다. 왕궁에 주둔해 있던 일본군 부대는 학살에 동참하지 않았다. 왕비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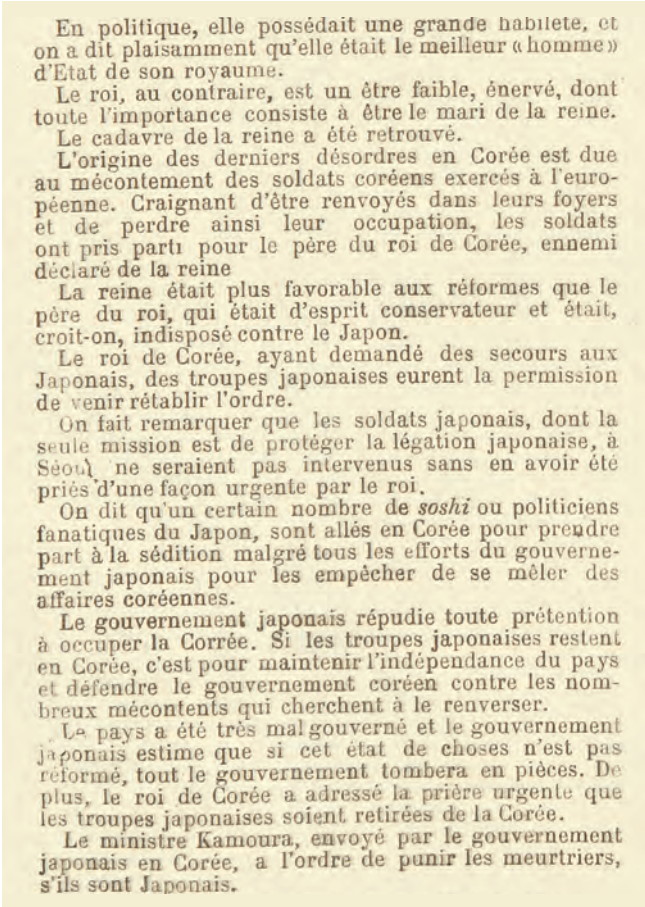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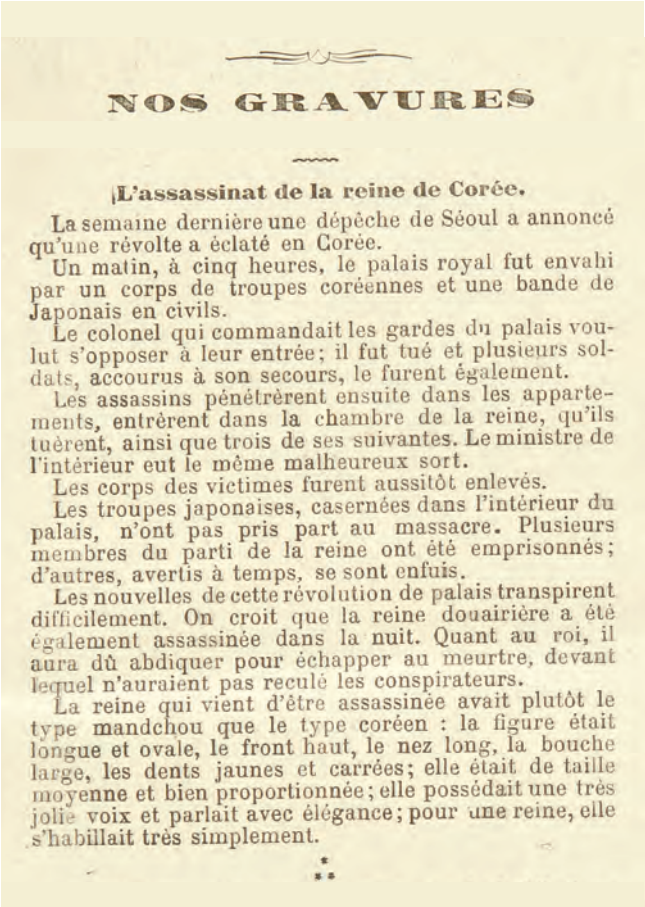
Le Journal Illustré	1895. 10. 27. 표지, p.339
 르 주르날 일뤼스트레 프랑스	 구9749 37.9×27.9

측근도 여러 명 하옥되었다. 제때 연락을 받은 사람들은 도망칠 수 있었다. 왕궁 혁명에 대한 자세한 소식을 접하기는 어려웠다. 대비도 밤중에 살해되었다는 소문도 있었다. 고종은 왕좌를 내어주고 살아남을 수 있었다. 그렇지 않았다면 분명 음모자들이 고종을 처단하는 것도 서슴지 않았을 것이다. 살해된 왕비는 조선인보다 만주인의 외모와 비슷하였다. 긴 타원형 얼굴에 이마는 도드라지고 코는 오뚝하였다. 입이 크고 이는 노랑고 네모난 모양이다. 키는 중간 정도에 균형 잡힌 몸매를 지니고 있었다. 그는 아름다운 목소리로 매우 우아하게 말하였다. 왕비치곤 검소하게 옷을 입었다. 정치에 매우 능숙하였으며 왕비를 조선 최고의 정치인이라고 기꺼이 칭하는 이들이 많았다. 반면 고종은 약하고 신경질적이며, 왕비의 남편으로서의 역할이 가장 큰(거의 전부인) 사람이다.

왕비의 시신이 발견되었다. 최근 조선에서 벌어진 이 사건은 유럽식 훈련에 불만을 품은 조선의 병사들이 일으켰다고 한다.⁴ 귀가 조치를 당하고 직업을 잃을까봐 두려워한 병사들이 왕비의 적으로 잘 알려진 고종의 아버지 흥선대원군의 편에 섰다고 한다. 왕비는 대원군보다 개혁에 개방적이었던 반면, 개혁에 보수적이었던 대원군은 일본과 사이가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고종이 일본에 지원을 요청하여 일본군은 질서 확립을 위한 활동 허가를 받았다. 서울에 있는 일본 공사관을 보호하는 것이 유일한 임무인 일본군은 고종의 다급한 요청 없이는 나서지 못했을 것이다. 일본 정부의 경고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낭인들과 일본의 광신적인 정치인들이 조선으로 건너와 반란에 참여하였다고 한다.

일본 정부는 조선을 침범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한다. 일본군이 조선에 남아 있는 이유는 조선의 독립성을 지키고 조선 정부를 전복시키고자 하는 불평분자들로부터 조선 정부를 보호하기 위함이었다. 지금까지 조선 왕이 조선을 잘 다스리지 못하였고 일본 정부는 이러한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정부가 완전히 붕괴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고종은 일본군이 하루빨리 조선에서 나가주기를 긴급히 요청하였다. 일본 정부는 조선에 고무라 주타로 대신을 파견하면서 시해자들이 일본인으로 밝혀질 경우 그들을 처벌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1 1895년(고종 32) 10월 8일(음력 8월 20일)에 있었던 을미사변과 관련한 내용이다. **2** 훈련대 연대장 부령 홍계훈(洪啓薰, ?~1895)을 말한다.

3 원문은 내무대신(ministre de l'intérieur)으로 되어 있어 궁내부 대신으로 바로잡았다. 궁내부 대신 이경직(李耕植, 1841~1895)이 명성황후를 구하려다 살해되었다. **4** 임오군란과 혼동한 듯하다.

Le Journal illustré

TRENTE-DEUXIÈME ANNÉE — N° 43

DIMANCHE 27 OCTOBRE 1895

PRIX DU NUMÉRO : 15 CENTIMES

GRAVURES

L'assassinat de la reine de Corée, par Lionel Royer. —
Le désarmement de l'armée des Hôcas à Tananarive,
par Tofani. — Nos illustrations de L'Amour vain-
queur, feuilleton du Petit Journal, par Tofani. —
Le baron Larrey.

Le Journal illustré est mis en vente dès le vendredi matin.
ABONNEMENTS SIX MOIS UN AN
Seine-et-Marne et Oise 3 50 6 50
Autres départements 4 » 7 50
Étranger 5 » 9 »
Administration et Rédaction à Paris, hôtel du Petit Journal,
Rue Lafayette, 61.

TEXTE

Chronique de la semaine, par Alfred Barbon. —
Théâtres, par Léon Kerst. — Carnet fantaisiste, par
Ménalque. — Nos gravures, par Léon Kerst. —
L'instantané, nouvelle, par Auguste Deslinières. —
Les enfants et les singes. — Mot en trapèze, par
A. Fremendity.

LES ANNONCES SONT REÇUES AUX BUREAUX DU JOURNAL, 61, RUE LAFAYETTE
ET 15, RUE GRANGE-BATELIERE



L'ASSASSINAT DE LA REINE DE CORÉE

Dessin de Lionel ROYER. — Gravure de MEAULLE.

조선 왕비 시해 리오넬 루아예의 스케치-메울의 판화

23

조선의 왕비, 서울에서 살해되다

“조선의 군부대가 왕궁을 습격하였다.
침입자들은 근위병들을 먼저 학살한 뒤
왕비의 거처 안으로 들어가서
왕비와 궁녀 세 명을 살해하였다.
그리고 시신은 불태워 버렸다.”

또 조선의 소식이다. 최근 조선을 차지하려고 중국과 일본이 전쟁을 치
렀다. 친일파와 친중파 간의 계속된 충돌로 혁명이 발발하였다. 뚜렷하
게 친중국 정치를 펼쳤던 조선의 왕비(명성황후)가 살해되었다.
조선의 군부대가 왕궁(경복궁)을 습격하였다. 침입자들은 근위병들을 먼
저 학살한 뒤 왕비의 거처 안으로 들어가서 왕비와 궁녀 세 명을 살해
하였다. 그리고 시신은 불태워 버렸다. 조선 왕비의 나이는 45세였다.¹
고종은 퇴위한 것으로 알려졌다.² 이번 혁명으로 조선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은 아마도 완전히 종식될 것으로 보인다.

Le Petit Parisien

1895. 10. 27.

p.342

르 프티 파리지앵

프랑스

구9745

44.0×29.4

La Reine de Corée

ASSASSINÉE A SÉOUL

La Corée fait encore parler d'elle. On sait que c'est pour la possession de cette contrée que la Chine et le Japon se sont fait la guerre récemment. Une révolution vient d'y éclater, causée par le conflit permanent entre le parti japonais et le parti chinois.

La reine de Corée, qui s'était déclarée manifestement en faveur de l'influence chinoise, a été assassinée.

Le palais royal fut envahi par un corps de troupes coréennes. L'attaque commença par le massacre des gardes. Puis, les assaillants pénétrèrent dans les appartements de la Reine et la tuèrent, ainsi que trois de ses suivantes. Les corps des victimes furent ensuite brûlés.

La reine de Corée était âgée de trente-sept ans.

On croit que le Roi a dû abdiquer.

Il est probable que cette révolution aura pour conséquence la fin absolue de l'influence de la Chine en Corée.

¹ 원문에는 37세로 되어 있어 바로잡았다. 명성 황후(1851~1895)는 45세에 사망하였다.

² 을미사변 이후 일본의 요청에 따라 입궁한 흥선대원군이 잠시 섭정한 것을 말한다.

조선의 비극

	
빌타르 드 라게리	
	

“왕비를 여러 번 접견하였다는 한 외교관 부인에 의하면 45세의 왕비는 초상화보다 더 아름다웠다고 한다.”

최근 조선의 수도는 마치 중세 연대기 작가의 이야기에나 나올 법한 참혹하고 잔인한 사건의 현장이다. 전쟁의 잔혹함과 폭동이 개인의 범죄와 뒤섞여 마침 궁을 지키던 군사들의 방조하에, 어쩌면 그들의 도움을 받아가며 잔인한 무리들이 궁을 덮쳤고 왕비가 살해되었다. 그녀(명성황후)와 함께 궁녀 셋, 대신 ¹ 도 한 명 살해되었고, 시체는 궁 밖에서 태워지고 재는 사방으로 뿌려졌다. ² 학살로 끝나버린 이 음모는 다름 아닌 왕의 아버지가 주도한 것으로, 그는 왕인 아들의 권위 실추를 선포하고 재집권하였다. ³ 이것이 바로 서울에서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로	

L'Illustration	1895. 11. 02. p.3 ⁷⁹
릴뤼스트라시옹	
프랑스	구9720
	40.5×30.3

(을미사변), 주요 인물은 조선의 왕비와 남편인 고종 그리고 대원군이다. 일본의 낭인들에게 당한 조선의 왕비는 조선이라는 체스판에서 진정한 핵심인 ‘관’이었다. 왕비는 중국에서도 귀족으로 인정받는 민씨 가문에서 태어나 중국 왕조의 동맹자로서 남편의 곁에서 중대한 정치적 역할을 도맡아왔다. 왕비를 여러 번 접견하였다는 한 외교관 부인에 의하면 45세의 왕비는 초상화보다 더 아름다웠다고 한다. 법도와 관습에도 불구하고 왕비는 남편이 궁녀들과 어울리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다. 몇몇 평양 기생과 즐기는 잠깐 동안의 유희는 모른 척하였지만 혹여 조금이라도 고종에게 애정을 사는 이가 있다면 화가 미쳤다고 한다. 왕비의 못 연적들은 새 전각의 어둡고 조용한 후원에서 취조관 ⁴ 에게 질투하는 여성에 걸맞은 우아하면서도 난폭한 고문을 당한 후 사라졌다. 그중 궁녀 장씨(궐인 장씨)는 왕과의 사이에서 머리가 둔한 왕세자(순종)와 비교될 만한 명석한 아들(의친왕)을 낳았는데, 일본인들의 탐욕 섞인 보호를 받아 겨우 아들과 함께 살아남았다. 일본인들은 또 요코하마 여러 영자 신문에 이 사건과 더불어 왕비를 겨냥한 독설 가득한 비방글을 게재하였다. 조선의 침략자들은 그들의 앞을 가로막은 여인에 대해서는 가리지 않고 어떤 방법으로든 글을 써댔다. 왕비는 새 전각의 가장 은밀하고도 외진 후궁(옥호루)이 안전하다고 느껴 그곳에서 절대 나오지 않았다. 은둔의 나라의 은둔자였다. 하지만 낭인들은 (쏟아 놓은) 성난 개만큼이나 편리한 정치적인 도구였다. 육일 승천국 ⁵ 에서는 의례적으로 안심하고 살기 위해서 자신을 죽이려는 자의 거처에 칼을 든 낭인들을 수시로 드나들 수 있게 하였다. 그 어떤 핑계나 조사도, 보상이나 공식적인 눈물도 뤼순항 ⁶ 의 대학살로 이미 더럽혀진 문장緡章 ^{으로} 는 한 여성의 피를 닦아내지는 못할 것이다.	

<p>일본과는 오랜 원수 사이였던 대원군의 이해관계가 조선의 왕비 시해 지점에서 맞아떨어졌다. 지난 20여 년 동안 조선의 역사에서는 과거 조대비(신정왕후)의 수렴청정 당시 고종을 대신하여 섭정했던 대원군—이하웅—과 고종의 대립, 특히 고종의 아내와의 대립이 지속되었다. 1873년까지 대원군은 (조대비의) 섭정위를 그만두게 한 뒤 능숙하게 조선을 다스리며 유럽을 상대로 거칠게 문을 닫아왔다.⁷ 1873년 고종은 부인인 명성황후 덕분에 아버지의 도움을 거절할 수 있었다.</p>	
---	--

그 후 대원군은 권력에 대한 채워지지 않는 갈증 때문에 아들과 며느

<p>리를 상대로 매우 그릇된 계획을 펼친다. 어떠한 개혁도 거부하는 반외세파의 수장인 대원군은 외국인들과 외국인들에게 어느 정도 우호적인 개화파에 맞서 나라를 둘로 나누었고, 왕과 왕비는 자연스레 후자에 기대게 되었다. 이 싸움에 등장하는 음모와 납치, 살해 시도 등을 언급하면 이야기가 너무 길어질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해 일본이 중국을 상대로 1867년부터 준비해 1894년 7월에 일으킨 전쟁(청일전쟁)의 원인에는 대원군이 있다. 대원군에게는 굽히지 않는 의지와 황인종 특유의 냉담함과 그에 따른 명석함이 있다. 하지만 그는 유렵도, 현시대의 잔인한 요구도 알지 못하며, 경험이 부족하여 장애물들을 보지 못한 채 난폭하고 사납게 앞으로 헤쳐 나가고 있다. 조국을 구하려면 그와 다른 시대를 살았다면 실제로 나라를 구할 수 있었을지도 모르나, 오늘날엔 나라를 종속시키는 데 일조하였을 뿐이다.</p>	
--	--

<p>고종은 아내가 살아 있을 때에만 왕좌를 지켰다. 아버지로 인하여 왕의 지위가 실추되었지만 오래가지는 않을 것이다.⁸ 그는 또 다른 왕비를 들이도록 권유받을 것이고, 권력을 돌려받을 것이다. 하지만 이는 또 다른 권력의 흥내일 뿐, 여전히 이노우에 백작과 일본인들의 포로이다.</p>	
---	--

<p>1 원문에는 ‘ministre de maison(house minister)’로 등장한다. 궁내부 대신 이경직(李耕績)을 말한다. 2 낭인들에 의해 시해된 명성황후의 시신은 궁궐 내 옥호루 근처 녹산에서 불태워졌고, 타고 남은 재는 궁궐 내 우물에 버려졌으며 유해 일부는 우범선(禹範善, 1857~1903)의 지시로 증거 인멸을 위해 땅에 묻혔다. 3 을미사변 이후 잠시 흥선대원군이 재집권한 것은 맞지만 이는 일본 측이 명성황후 시해 사건을 마쳐 흥선대원군이 주도한 것처럼 조작한 것이다. 사건 이튿날인 1895년 10월 9일자 ‘한성신보’를 보면 명성황후 시해 사건에 흥선대원군이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암시하는 내용이 있다. 명성황후가 일본에 의해 시해되었다는 사실이 서양 외교관들에게 알려지자, 서양의 비난을 모면하려고 명성황후와 양측 관계였던 흥선대원군을 이용한 것이다. 4 당시 유럽에서 마녀사냥을 주도해 종교재판 명목으로 심문을 하던 사람이다. 5 육일승천국(陸日昇天國)은 아침 해가 떠오르는 나라라는 의미로 일본을 가리킨다. 6 일본은 1895년 4월 17일 시모노세키조약을 통해 뤼순항을 할양받았지만, 러시아·프랑스·독일 등의 삼국간섭에 의해 일주일도 안 되어 도로 내놓고 말았다. 7 1866년(고종 3) 병인양요와 1871년(고종 6) 신미양요를 말한다. 8 흥선대원군은 명성황후 시해 이후 1895년(고종 32) 10월 8일에 재집권했지만 1896년(건양 원년) 2월 고종의 이관파천 단행 이후 자리에서 물러났다.</p>	
--	--

<p>2 NOVEMBRE 1895</p> <p>LE DRAME CORÉEN</p> <p>Les derniers événements dont la capitale de la Corée a été le théâtre sont sanglants et féroces à la façon de ces épisodes qui remplissent les récits des chroniqueurs du moyen-âge. Les atrocités de la guerre et de l'éménte compliquées de crimes particuliers. — un palais royal envahi par des forcenés, sous l'œil bienveillant, avec la complicité, peut-être, des soldats auxquels les hasards de l'invasion ont confié la garde. — une reine assassinée avec trois de ses femmes et le ministre de sa maison. — les cadavres transportés au dehors et brûlés, et leurs cendres jetées aux quatre vents. — le père du roi, chef du complot qui a abouti à ce massacre, proclamant la déchéance de son fils, et assumant l'autorité de dictateur; tels sont les faits qui viennent de se dérouler à Séoul, et dont les acteurs principaux furent : la reine de Corée, son mari le roi Li Hsi et le Tai Wen Koun. La reine de Corée, qui vient de tomber sous les coups d'une bande de Japonais de la secte des soshi, était vraiment la « reine », la maîtresse pièce de l'échiquier coréen. Née dans la famille Min, noble même en Chine, comme alliée à une dynastie impériale, elle a joué auprès de son mari un rôle politique capital. Agée de quarante-cinq ans, elle était beaucoup mieux que son portrait, nous assure une dame du corps diplo-</p>	<p>L'ILLUSTRATION</p>  <p>02 Le roi Li Hsi.</p> <p>anti-étranger, hostile à toute réforme, dont il fut le chef, et le parti raisonnablement favorable aux étrangers, ouvert au progrès, dont le roi et la reine recherchèrent naturellement l'appui. Le récit des complots, des enlèvements, des tentatives d'assassinat qui caractérent cette lutte, nous entraînerait trop loin. Finalement, on a pu accuser le Tai Wen Koun d'avoir provoqué l'insurrection qui amena, en juillet 1894, l'explosion de la guerre préparée depuis 1867 par le Japon contre la Chine. Le Tai Wen Koun est une grande intelligence servie par une volonté inflexible et une insensibilité de jante. Mais il ne connaît ni l'Europe, ni les exigences inapitoyables de l'âge actuel, et marche en aveugle, brutal et féroce, au milieu d'obstacles que son œil inexercé ne perçoit pas. Il a voulu sauver son pays; il l'ent fait en d'autres temps; aujourd'hui il a assuré sa survitude.</p>  <p>01 La reine de Corée.</p> <p>matique qui a été plusieurs fois regue par elle. Malgré la loi et les coutumes, elle n'acceptait pas de partager son mari. Elle ignorait ses fantaisies brèves pour quelque <i>pas de deux</i> qui dansent sur le corps de ballet royal; mais malheur à celui qui avait inspiré un attachement au roi Li Hsi! Mainte rivale a péri dans quelque arrière-cour sombre et muette du Palais Neuf, après des tortures d'une barbarie raffinée, digne seulement d'un inquisiteur ou d'une femme jalouse. L'une d'elles, Mme Chang, dame d'honneur, qui avait donné au roi un fils aussi intelligent que le prince héritier est borné, n'a été sauvée, avec son fils, que par la protection intéressée des Japonais, qui ont fait publier cette aventure et nombre d'autres pamphlets venimeux contre la reine, dans les journaux anglais de Yokohama. Toute arme était bonne aux envahisseurs de la Corée contre cette femme qui leur tenait tête. Elle pouvait se croire en sûreté, dans la partie la plus intime et la plus reculée du Palais Neuf, le sérail, d'où elle ne sortait jamais, ermite dans le <i>Royaume ermite</i>. Mais la secte des soshi est un instrument politique aussi commode qu'un chien féroce: il suffit de mal attacher ce dernier... ou, comme on procède dans l'Empire du Soleil-Levant, de laisser les premiers, porteurs d'un sacre, se rendre librement dans l'endroit où vit quelqu'un dont la mort soulagerait le Japon... Tous les désaveux, toutes les enquêtes, toutes les réparations et les larmes officielles n'effaceront pas la tache ajoutée, par le sang d'une femme, à un blason déjà souillé par les massacres de Port-Arthur. Pour le meurtre de la reine de Corée, les intérêts des Japonais et ceux de leur vieil ennemi le Tai Wen Koun se sont trouvés d'accord. La lutte de celui-ci — de son vrai nom Li Hsia Ying — contre son fils Li Hsi, que lui avait substitué jadis sur le trône la reine douairière Chao, et surtout contre la femme de Li Hsi, a rempli depuis plus de vingt ans l'histoire intérieure de la Corée. Jusqu'à 1872, le Tai Wen Koun, après avoir supprimé le Conseil de Régence, avait gouverné le pays despotiquement, mais habilement, le fermant aux Européens avec une sauvage énergie. En 1872, virilisé par sa femme, Li Hsi remercia son père de ses services. Dès lors son insatiable soif du pouvoir jeta le Tai Wen Koun dans les plus coupables entreprises contre son fils et sa bru. Deux partis divisèrent la Corée, le parti</p>
<p>LES LIVRES NOUVEAUX</p> <p>Histoire. — Philosophie. — Belles-Lettres.</p> <p><i>Mémoires du général baron Thiebaud</i>, publiés sous les auspices de sa fille, Mlle Claire Thiebaud, d'après le manuscrit général, par Fernand Calmettes, tome IV, 1894-1813. 16-8s. Plon et C^{ie}, 7 fr. 50</p> <p><i>L'Académie des Sciences</i>, Histoire de l'Académie. — Fondation de l'Institut national. — Bonaparte membre de l'Institut, par Ernest Maïndon. 1 vol, in-8s. F. Alcan, 7 fr. 20</p> <p>On voit combien l'auteur est soucieux de documents inédits: son livre, fort intéressant, contient 4 planches</p>	<p>03 Le Tai Wen Koun.</p> <p>Le roi Li Hsi n'était que l'occupant du trône du vivant de sa femme; sa déchéance, proclamée par son père, ne sera sans doute pas maintenue; il sera invité à choisir une autre reine, et le pouvoir lui sera rendu. Mais ce ne sera encore qu'un simulacre de pouvoir, et il restera le prisonnier du comte Inouye et des Japonais.</p> <p>VILLETARD DE LAGERRIE.</p>

01 조선의 왕비 **02** 왕 이희 **03** 대원군

한국의 첫 번째 철도

“수도인 서울은 한강 북쪽에
위치하며, 제물포는 서울의 남쪽에서
약 20마일 이상 떨어져 있다.
서울의 개항항인 제물포는 각국의
사람들이 모여 사는 외국인 거주지로
북적거린다. 따라서 철도가 절실히
필요하다.”

한국의 정치 구조는 매우 취약하지만, 풍경 하나만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 중 하나이다. 한국 8도 대부분은 강 유역이 잘 발달하였다. 땅은 배수가 잘되고, 한반도의 남부 지방은 따뜻하고 비옥하며 지하자원이 풍부하다. 한국의 총 면적은 약 9만 제곱마일이고, 유려한 연안이 1,800마일(약 2,900킬로미터)로 이어져 향후 상업적 활용 가치가 높다.

대략적으로 말하면 한국은 섬과 같은 지형으로, 백두산 천지부터 장백산(백두산)의 정상에 이르러 북쪽 국경 끝으로 두 개의 물줄기가 흐

르는데 바로 압록강과 두만강이다. 한국 북쪽은 이 물줄기가 경계를 이룬다. 한국의 물리적 지형을 보면, 동쪽으로는 긴 산맥이 등허리를 받치고 있으며 깎아지른 듯한 이 산맥은 일본해(동해)와 맞닿아 있다. 그리고 한국의 나머지 반도는 길게 중국의 황해(서해)를 향해 뻗어 있다. 한강은 주요 젓줄로, 그 물줄기는 금강산에서부터 시작된다. 한강의 거센 물줄기는 오랜 시간 강화도를 비롯하여 여러 주변 섬에 퇴적물을 쌓아 강 하류로의 항해를 매우 어렵게 하였다. 한 세대 전까지만 해도 외국 항해자가 한양으로 가는 길을 찾기 어렵게 만든 주요 장애였다.

수도인 서울은 한강 북쪽에 위치하며, 제물포는 서울의 남쪽에서 약 20마일(약 32킬로미터) 이상 떨어져 있다. 서울의 개항항인 제물포는 각국 사람들이 모여 사는 외국인 거주지로 북적거린다. 따라서 철도가 절실히 필요하다.

한국 8도에서 짐을 운반할 때에는 참을성 많고 잘생긴 황소를 활용하는데, 집에서 소에게 먹이를 주는 일은 주로 아이들의 몫이다. 만약 소가 없으면, 깨물기도 하고 발길질도 하며 시끄러운 소리를 내는 불품없는 조랑말을 쓰거나 그도 없으면 대부분의 경우 여자나 남자가 직접 짐을 진다.

기이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한국에서는 남자들 중에서 유일하게 예쁜 소녀처럼 생긴 사람들을 찾을 수 있다. 남자는 결혼하기 전까지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취급을 받는다. 정수리 가운데 가르마를 타고 머리카락을 길게 등까지 뿔아 늘어뜨린 한국 총각은 온화한 성격만큼이나 잘생기기도 하였다.

황소나 조랑말 또는 사람이 적어도 제물포에서 한양까지 짐을 나르는 시대는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몇 달 전, 미국 회사가 한국 정부로부터 철도 부설권을 얻었다! 두 미국인 콜브란과 제임스가 경인철도주식회사의 철도 부지와 철로 건설 계약을 수주하였다. 철도 부설을 맡은 미국 건설회사는 본사가 콜로라도의 덴버와 테네시의 채터누가에 있다. 현장에 있는 콜브란은 한국의 부설공사 공식 대표를 맡고, 칼리가 기술 담당을, 보스트워이 건설 감사를, 필립스가 토목 감독관을 맡는다.

위에서 언급한 세 신사는 미국동양건설회사 소속이다.

철도 부설 공사 계약에 따라 철도 부지, 철로, 역사, 정비소, 차고와 엔

진실, 전차대,² 전신선 등 필요한 장비를 모두 갖춘 완비된 철로를 건설하기로 되었다. 지면의 사진을 보면, 정지 작업과 건설을 위해서 서둘러 깔아 놓은 임시 선로가 보이고, 첫 현장 답사를 나온 사람들이 제방에 걸터앉아 있는 모습이 보인다. 다른 한 장의 사진에는 수천 혹은 그 이상의 한국 인부들이 바위를 절단하는 공사를 벌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서울을 둘러싼 언덕과 산이 수 마일에 이르는데, 나무를 잘라 땔감으로 쓰다 보니 산이 벌거벗은 것을 볼 수 있다. 유려하다고 알려진 한반도의 산림은 더 안쪽의 내륙 지역에서나 그 진가를 확인할 수 있다. 제물포와 서울 간 25마일(약 40킬로미터)에는 4피트 8인치(약 143센티미터)의 표준 궤도가 그동안 도로 역할을 해왔던 길을 따라 놓이도록 설계되었다.

나중에 만들어질 역사는 미국 채터누가 본사에서 설계하였는데 지금 서울로 오는 중이다. 가장 어려운 공사 구간인 한강에는 8폭의 철골 트러스 다리를 설치할 것이다. 여기에 사용할 철재는 미국에서 만들어 나중엔 한강에 설치할 예정이다. 교량의 양끝은 나무로 된 버팀목으로 길이가 800피트(약 240미터)이다. 이 강철 교량은 길이가 1,650피트(약 500미터)로, 북쪽 종착역은 서울에서 약 4마일(약 6.4킬로미터) 떨어진 왕의 선착장(한강나루)에 가깝고, 총 길이는 2,450피트(약 750미터)로 거의 1마일의 반에 해당하는 길이다.

한국 인부들은 일단 은화 35센트에 만족하며 성실하게 일하고 있다. 인부들의 감독은 한국인과 일본인들이다. 9인치(약 23센티미터) 선로는 이미 10마일가량 지어졌으며, 가설된 레일 위를 트랩카³ 100여 대가 운용 중에 있다. 아마 지금쯤은 증기 기관차와 교량 건설용 철재가 한국에 도착하였을 것이다.

제물포에서 부평 간에는 노반의 정지 공사, 경사면과 도랑 공사가 진행 중이고, 이 지점에서부터 정지 작업을 하고 있다. 부평 근처에서 윈티고개(윈통이고개)를 관통하는 지점은 선로 정지 작업에서 가장 깊이 땅을 파야 하는 구간으로, 길이가 1,200피트(약 366미터)이고 깊이는 40피트(약 12미터)를 넘는다. 여기에는 잘 정비된 대규모 대장간이 있는데, 목공소는 제물포에 있다.

사진에서 말쑥한 현대식 유니폼을 입고 있는 한국의 신규 경찰관들과

흥미로운 모자에 헐렁한 옷을 입고 있는 황실 장교를 볼 수 있다. 한국 인부들은 예전부터 입었던, 매력 없고 일하기 불편해 보이는 옷을 입고 있지만, 일반 한국인들이 작업에 투입되면서 이런 전통 복식은 사라질 것이다.

예전 한국의 노동자 계층은 대가를 받아 저축이나 축재를 해봤자 오히려 불이익뿐이었다. 왜냐하면 이른바 ‘양반’이나 한량, 특권층, 관료 등이 강제로 돈을 빌려가서는 원금이나 이자를 갚지 않아 이를 다시 받아 볼 일이 없었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철도라는 것은 향후 강력한 문명화의 힘으로 작용하여, 폭정과 무지를 바탕으로 하였던 기존의 낡은 질서를 타파하게 될 것이다.

철도의 다른 구간은 일본인들이 측량하고 활용해왔다. 따라서 평화가 계속된다면, 혹은 어떤 열강의 확실한 통제하에 놓인다면, 이 철도는 서북쪽으로는 중국의 국경을, 동북쪽으로는 러시아의 프리모르스크를, 동남쪽으로는 부산을 달려 일본 상인들과 만나고, 남쪽의 따뜻하고 비옥한 평야 지대인 충청도와 전라도를 관통할 것이다.

한국은 유구한 역사와—세계 최고의 알파벳으로 꼽히는—고유 글자(한글)와 천혜의 자연을 가진 몇 안 되는 나라지만, 그에 비해 관심을 받지 못하고 심지어 사람들에게 의해 많은 것이 파괴된 나라이다. 한국에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은 제대로 된 국가 운영이라 하겠다.

1 1896년(건양 원년) 미국인 모스(Morse, J. R., ?~?)에게 부설권이 특허되어 이듬해 3월 22일 기공하였지만, 자금을 조달하지 못해 결국 1898년(광무 2) 12월 170만 2천 원(圓)을 받고 부설권을 일본에 넘기고 말았다. 1899년(광무 3) 9월 노량진~인천 간 33.8킬로미터 구간에서 임시 영업을 개시하였다. 그 후 1900년(광무 4) 7월 한강 철교의 준공과 함께 인천과 서울 간의 경인선 전 구간이 개통되었다. **2** 기관차의 방향을 전환하는 데 쓰이는 회전식 설비를 말한다. **3** 인력으로 밀고 다니는 트롤리를 말한다.



01 AMERICAN RAILWAY CONSTRUCTION IN KOREA.—FIRST EXCURSION PARTY OVER THE TEMPORARY RAIL LINE BETWEEN SEOUL AND CHEMULPO.

THE FIRST RAILWAY IN KOREA.

KOREA, so weak as a political structure, is for scenery one of the most beautiful countries in the world. Its eight provinces are substantially so many river basins. The land is well drained, and in the southern provinces warm and fertile, while the mineral riches are certainly abundant. Korea's total area is about ninety thousand square miles, and its splendid coast-line of over eighteen hundred miles insures for it a commercial future. Roughly speaking, it is an island, for out of the Dragon Prince's Pool, upon the summit of the Long White Mountain, on the extreme northern frontier, flow the two streams, the Yalu and the Tumen, which give Korea a water boundary on the north. In physical configuration the country on its eastern side is a long backbone of mountains, with a precipitous wall of rock fronting the Sea of Japan, all the rest of the country being a long slope towards the Yellow Sea. The chief river, Han, rises among the Diamond Mountains. Its strong current during the ages has deposited the Kang-wa and other islands and groups of islands in front of its mouth, which make navigation so difficult, and which, until a generation ago, hid the way to the Seoul from foreign navigators. Seoul, the capital, is a league north of this river, and Chemulpo is over twenty miles south of it. At the latter place, the treaty port of the capital, is now a bustling foreign settlement, where are gathered many nationalities. Hence the necessities of a railway are patent. The beasts of burden in all the eight provinces are either the patient and handsome bulis, reared in the native families among the children; the biting, kicking, screaming, and thoroughly unlovely ponies; or, most numerously, men or women. Among the men, paradoxical as it may seem, are "the only pretty girls in Korea," for until marriage a man is nothing. With his hair parted in the middle and made into a braid hanging down his back, an unmarried Korean lad is often as handsome as he is good-natured. Now the days of bulis, ponies, and human burden-bearers, between seaport and capital at least, are numbered. Some months ago the royal government gave to an American firm a concession to build a railway. Two Americans, Messrs. Collbran & James, have undertaken the contract to construct the road-bed and road for the Seoul-Chemulpo Railroad Company. This firm has its headquarters in Denver and Chattanooga. Besides Mr. H. Collbran, who is on the ground, their official representatives in Korea are Messrs. W. C. Carley, engineer in charge, H. R. Boswick, auditor, and S. F. Phillips, superintendent of construction. These three gentlemen are in the employ of the American-Oriental Construction Company. The contract calls for a completely equipped railway, including road-bed, rails, stations, repair-shops, car and engine houses, turn-tables, telegraph lines, and all necessary equipments. An accompanying photograph shows the contractors' hastily laid temporary road for grading and construction purposes, and the party taking their first trip for amusement over the embankment. The other photograph shows the thousand

or more native laborers engaged in the labor of excavating one of the many deep rock cuts. The hills and mountains for many miles around the capital have been denuded for the purposes of fuel, and the justly famed forests of the peninsula can be best seen and enjoyed further in the interior. The road will be of standard gauge, 4 feet 8 inches in width, and 25 miles in length, following closely the old public road—or apology for one—between seaport and capital. In the latter the station will be outside the city wall, near the Little West Gate. The station building, from plans made at Chattanooga, is now on its way. The chief difficulty will be at the river Han, over which an eight-span steel-truss bridge, now in course of construction in the United States, will be thrown. The approaches at either end will consist of lines of wooden trestles 800 feet in length. The steel bridge will be 1650 feet long, and its northern terminus will be close to the King's Ferry, nearly four miles from the capital, and will have a total length of 2450 feet, or nearly half a mile. The native laborer works cheerfully and faithfully for thirty-five cents a day, paid in silver. The bosses of the gangs are Korean and Japanese. Ten miles of nine-inch rail have already been laid, and one hundred trip-cars are in use. Probably by this time the steam-locomotives and bridge material have arrived. The road-bed is graded, sloped out, and ditched out from Chemulpo to the Pu-Pion Pass, and grading-gangs are at work from that point onward. The cut through Wunti Pass, near Pu-Pion, is the heaviest piece of grading on the road, being 1200 feet long and over 40 feet deep. Here is a large and fully equipped forge, but the carpenter shop is at Chemulpo. In the picture one may recognize one of the new corps of native policemen in his smart modern uniform, and the royal officers in their curious hats and baggy garments. The laborers also still wear the ancient, uninteresting, and unserviceable dress, which is bound to disappear as soon as the average Korean gets to work. So far, instead of

being a benefit, it has been a positive disadvantage for a native to save money or accumulate any property, since he is sure to be swooped upon by the "Yang-Ban," or gentlemen of leisure, privilege, and office, who call on him for a forced loan of money, neither principal nor interest of which he is ever likely to see again. The railway in Korea will be a powerful civilizing force, breaking up the old order based on despotism and ignorance. Routes for other railways have been surveyed and exploited by the Japanese. It is therefore highly probable that, should peace continue, or should Korea come under the assured control of some stronger power, the steel highways will run northwestwardly to the frontiers of China, northeastwardly to Primorsk in Russia, southwestwardly to Fusan, in touch with Japanese commerce, and southwardly through the warm and rich plains of Chung-Chong and Chulla. Very few countries on earth, and none with so long a history and so ancient possession of writing (with one of the best alphabets in the world), are so rich by nature and so neglected and even ruined by man as this peninsula. Korea's first necessity is good government.

WINTER EVENING ON THE HUDSON.

PALE blue that marks departed daylight's track—
Walled shores, like night's grim battlements, below:
A frozen river ridged with crusted snow.
An icy breath that gossips with the trees
Where one who hurries, looks across and sees
A single star above a wall of black.

ALBERT BIGLOW PAINE.

DEATH OF DEAN LIDDELL.

ON Wednesday, January 19, Henry George Liddell, late Dean of Christ Church, Oxford, died in London, in the eighty-seventh year of his age. For two generations he had been one of the most influential and eminent of the great scholars who gave character to the oldest English university, and upheld its traditions and its fame. The list of offices and dignities held by him during a long career of usefulness is remarkable as indicating the variety of his powers, the immense range of his knowledge, and his unwearying industry. Graduated with the highest honors both in the literary and in the mathematical branches, he became at once a tutor in Christ Church College, and soon took high rank as a preacher, while devoting his energies chiefly, and with brilliant success, to the promotion of classical learning in the university. He was made Chaplain to the Prince Consort in 1845, and about the same time was chosen Professor of Moral Philosophy; but he seems to have found both the pulpit and the chair too narrow for his active energies, and in the following year he accepted the head-mastership of Westminster School, where for nine years he impressed his strong personality no less upon the organization and discipline of the institution than upon its scholarly tendencies and standards. His predecessor in this office, Dr. Galsford, who had been promoted to be Dean of Christ Church, Oxford, died in 1855, and Dr. Liddell again succeeded him, becoming the highest resident officer of the Church in the university. For thirty-two years as Dean, during the last twenty-one of which he was also Vice-Chancellor of the university, he was one of the two or three most conspicuous figures in the social and intellectual life of this great centre of learning. In 1891, at the age of eighty, he resigned all his offices, and retired to the enjoyment of intellectual leisure in a quiet home at Aveot. Among his own countrymen Dean Liddell will long be remembered as a man of marked and powerful character, always the centre and dominant spirit in a group of richly cultivated minds, and as one who has contributed vastly to shape the methods and tendencies of the higher education. But his place in the intellectual history of this



02 AMERICAN RAILWAY CONSTRUCTION IN KOREA.—DEEP ROCK CUT BETWEEN SEOUL AND CHEMULPO.

한국의 전차

“회사 사장과 몇몇 손님이
명성황후의 묘로 가던 도중,
첫 번째 사고가 발생하였다.
한국인 아이가 바퀴에 끼어
목숨을 잃은 것이다.”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들도 전차를 탈 수 있다.” 이는 서울 전기철도회사의 한국인 사장이 작성하여 백성들에게 공고한 전차 규정의 두 번째 문단을 번역한 내용이다. 우리 기자들은 이번 전차의 도입을 ‘은자의 왕국이 문명을 향해 내딛는 첫 번째 발걸음’이라 칭하였다.

한국이 실제로 옛 관습에서 크게 탈피하는 순간은 바로 여성들이 이 채연 사장의 제의를 받아들여 실제로 전차를 이용하는 때가 될 것이다. 과거 한국 여성들은 낮에는 거리를 다니지 못하였고 오후 8시 통행금지를 알리는 종이 울리면 남자가 집 안에 있는 대신, 여성들이 바

Harper’s Weekly 1899. 07. 15.
pp.692~693

하퍼스 위클리
미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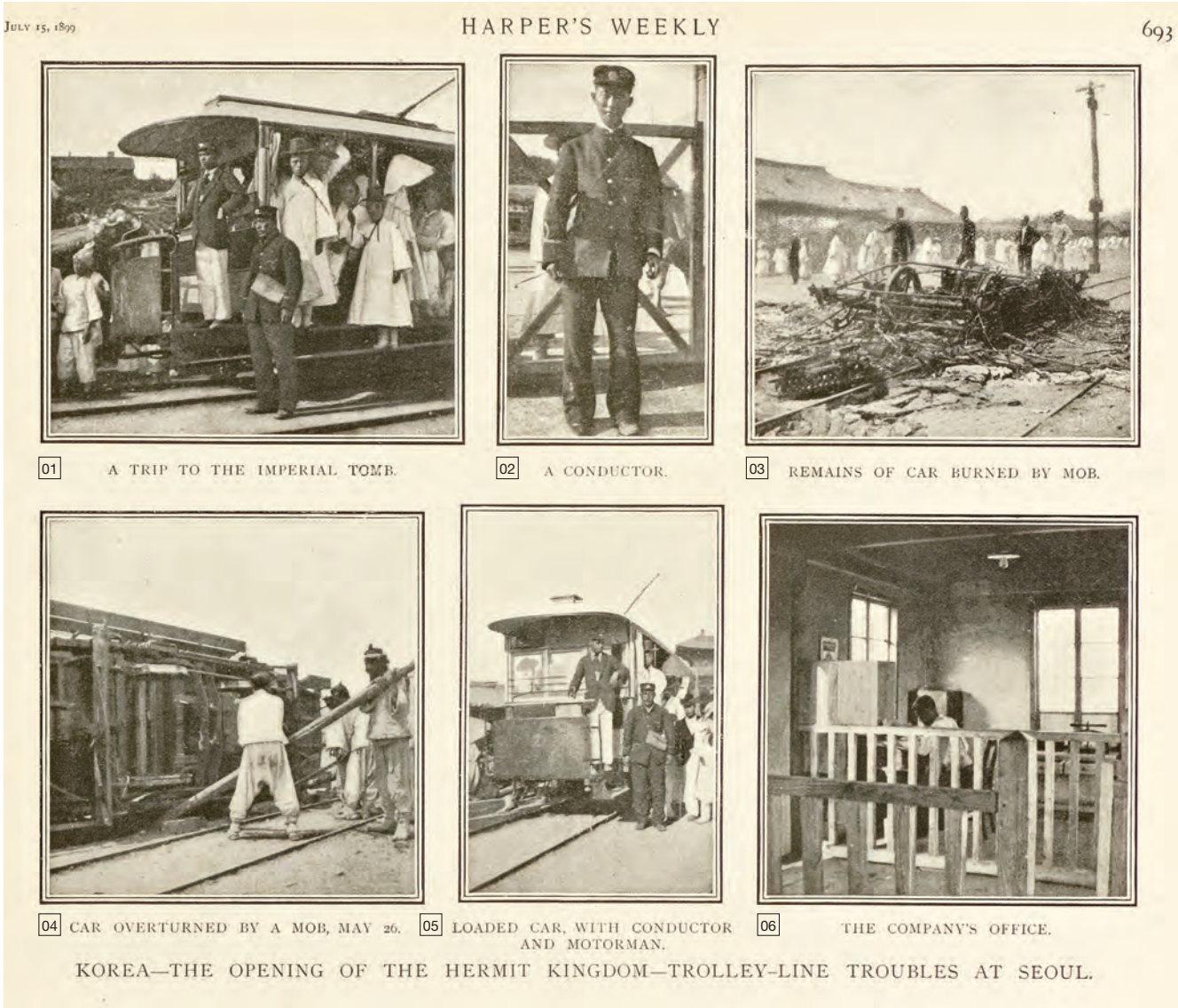
구9765
40.2×27.9

깁공기를 쉴 수 있었다. 서대문 밖 미국 공사 공관에서 서울의 심장부를 통과해 동대문을 넘어 새로 단장한 명성황후의 묘(홍화)까지 이어지는 전기철도 건설 공사는 1898년에 시작되어 올해 1899년 5월에 완공되었다. 일본인들이 전차 운전수로, 한국인들이 차장 안내원으로 고용되었다. 5월 중 며칠 동안 전차의 일부 노선이 운행되었다. 많은 승객이 이용하여 운행은 확실히 자리 잡은 듯하였다.

그러나 5월 26일 회사 사장과 몇몇 손님이 명성황후의 묘로 가던 도중, 첫 번째 사고가 발생하였다. 한국인 아이가 바퀴에 끼어 목숨을 잃은 것이다. 그때 마침 서울 주민들은 몇 주 동안 땅에 피해를 입히는 가뭄의 원인에 대해 다소 비과학적인 추측에 몰두하였다. 그리고 이제 그 원인이 밝혀졌다고 생각하거나 그러는 척 행동하였다.

『코리아 리포지터리』의 내용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누군가는 전선이 하늘의 기운을 방해하였다고 말하고 다른 누군가는 발전소가 신성한 곳에 세워져 그 장애물이 없어지지 않는 한 비는 오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한다.”

사람들은 자제력을 잃고 회사 직원들에게 돌을 던지고 전차를 산산조각 냈으며 발전소를 부숴버리겠다고 협박하였다. 이 중요한 순간 대한제국 당국이 통제력을 발휘해 질서를 회복하였다. 그러나 전차와 극동지역 여성의 권리 사이에 있는 이 묘한 동반 관계는 일시적인 역풍을 맞았다.



은자의 왕국에서 깨어난 한국 - 서울에서 발생한 전차 사고

01 명성황후의 묘로 가는 길 02 전차 차장 03 폭도들에 의해 불탄 전차 잔해 04 5월 26일, 폭도들에 의해 전복된 전차 05 전차 차장과 운전수 및 승객이 탑승한 전차 06 전기철도회사 사무실

The Trolley in Korea

“WOMEN, as well as men, can ride on the cars”—such is the translation of paragraph number two in the rules, or notice to the public, prepared by the Korean president of the Seoul Electric Railway Company. The introduction of this trolley line is referred to by our correspondent as “the first step towards civilization in ‘the Hermit Kingdom,’” and certainly it seemed that a wide departure from the customs of the country would be made when Korean women availed themselves of President Yi Cha-Yun’s offer.

Formerly women were not allowed on the streets in the daytime, but a curfew-bell was rung at eight o’clock in the evening, after which hour the men were required to remain in-doors, while the women took their exercise.

The work of building an electric railway from the Governor’s residence, outside the West Gate, through the heart of Seoul to the new tomb of Empress Min, beyond the East Gate, was begun

last year, and completed in May of the present year. Japanese were employed as motormen, and native Koreans as conductors. For several days in May the cars ran over a portion of the route; the service was liberally patronized, and the enterprise appeared to be well established. On the 26th, however, when the president of the company and a few guests were *en route* to the imperial tomb, the first accident occurred—the child of a native was caught under the wheels and killed. But it so happened that the population of Seoul had for weeks been indulging in somewhat unscientific speculations as to the cause of a drought which afflicted the land, and now they either thought or pretended that the cause had been discovered. To quote from the *Korean Repository*: “The electric wires, some say, cut off the influence of Heaven; others affirm that as the power-house is built on a sacred spot, there can be no rain until the obstruction is removed.” The people lost their self-control, stoned the company’s employes, battered the car to pieces, and threatened to destroy the power-house. At this juncture the authorities gained control and order was restored, but the curious partnership of the trolley and women’s rights in the Far East had received a temporary check.

극동 지역의 위기 한국에서 보고 겪은 일

헬렌 그레고리 플레셔

“한국은 조약이라는 것에 서명하면서 독립국의 맛을 보았고, 또한 외국 열강들도 한국을 독립국이라고 말하는 상황에서 한국은 중국의 요구를 거부하는 시도를 하였다.”

한국이 1882년 미국 및 유럽 국가들과 독립적으로 조약을 체결하였을 때, 이 나라가 원하는 것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주권 국가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당시 중주권을 주장할 수 있는 유일한 열강인 중국의 침묵은 한국이 독립적으로 조약을 체결할 수 있음을 암묵적으로 인정한 것과 마찬가지였다. 이러한 자연스러운 상황 인식은 이에 특별한 관심을 가졌던 일본에게는 열렬히 환영할 일이었다.

한국은 더 이상 중국의 제후국이 아니라는 인식하에 스스로 독립국의 분위기를 연출하기 시작했지만, 도도하고 준엄한 권위가 있는 독립

Harper’s Weekly 1904. 01. 30.
pp.166~169

하퍼스 위클리
미국

구9767
34.3×24.6

국의 모습과는 상당히 거리가 멀었다. 그러나 일본이 얼마 후에 한국을 독립 국가로서 상대하기 시작하자 중국은 이에 대해 분노하였고, 떠오르는 태양의 땅 일본과 국제사회에 그러한 가정이 잘못된 것임을 보여주고 싶어서 적절한 기회를 노렸다. 특히 중국은 한국에서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존재감이 커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일본을 제일 시기하였다. 바로 이 때문에 중국은 명목상이든 행동 면이든 사실 관계에서든 한국이 중국의 속국임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기회는 빨리 왔다. 1890년에 대왕대비(신정왕후)가 사망하여 중국은 조문단을 파견하기로 하였다. 이번 일은 그렇게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었고 조문단의 임무는 이웃 나라에 위로를 보내는 소소한 격식 정도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 조문이나 이와 유사한 의례에서는 조문하는 자와 조문을 받는 자의 정확한 지위가 분명하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모든 의식에서 속국은 중주국의 주권과 자신의 열등한 지위를 완전히 인정할 것을 강요받는다.

명(明) 초기부터 모든 의례는 통치 원리에 따라 제정되고 관습과 규약에 의해 정착되어 왔다. 조공 자체는 비교적 큰 부담은 아니었지만, 전적으로 속국임을 인정할 것을 요구하였다. 17세기에 조선 왕은 예법의 사소한 부분을 어겼다는 이유로 1만 온스(약 280킬로그램)의 은을 바치는 벌금형에 처해졌다! 조선이 조공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면 그 부담이 크지 않지만, 누락이나 실수가 있게 되면 과중한 벌금이 내려진다.

한국인 사이에서 중국 황제는 한국 왕만큼이나 큰 경의의 대상이다. 한국인들이 중국의 황제를 자신들의 적법한 군주로 여긴다는 점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예를 들어 한국 왕의 명칭이나 호칭은 황제처럼 ‘대통치자’라는 뜻을 지닌 합문²이다. 존경의 표시로 ‘합(膺)’이라는 단어를 쓸 때 첫 자에서 한 획을 빼다. 유명 인물을 임명하거나 건물을 지정할 때, 중국 황제의 이름이 들어간 한자가 쓰인다면 비록 발음이 동일하더라도 반드시 쓰인 글자의 모양을 임시로 바꾸어 자국의 군주에게 보이는 것과 같은 존경심을 중국 황제에게 표시해야 한다.

중국과 한국 사이에 오고 간 모든 공식 서한에서 한국의 왕은 반드시 ‘왕(Wang)’이나 ‘왕자(Prince)’로 표기되지 결코 ‘King’으로 표기되지 않는다. 한국의 군주는 직접적으로 혹은 동등한 조건으로 중국 황제에게 말을 걸 수 없고, 중국의 일반 고위 관료들과 마찬가지로 상소를 올

려야 한다. 이 모든 것이 한국인에게는 짜증나는 일이었다. 한국은 조약이라는 것에 서명하면서 독립국의 맛을 보았고, 또한 외국 열강들도 한국을 독립국이라고 말하는 상황에서 한국은 중국의 요구를 거부하는 시도를 하였다.

대왕대비가 사망하자 한국과 중국은 기회의 창이 열렸음을 인식하였다. 비록 허무하게 끝나지만 한국은 의례적인 조문단의 파견을 거부하는 시도를 하려 하고, 중국은 한국이 실질적인 독립국이 아니며 (열강들에) 자국에 유리한 조약에 서명하게 하려고 독립국에 대한 환상을 품게 만든 것임을 한국에 각인시킬 기회를 기다리고 있던 터였다.

조문단을 맞이할 때는 항상 경의와 복종을 상징하는 여러 가지 의식이 수반된다. 중국은 수 세기에 걸쳐 정착된 이 정당한 관례에 따라 이번에도 의례상의 권리를 주장하였다. 한국의 왕은 가난함을 들어 호소해 보았다. 중국은 특혜를 베푸는 것에 대해 상당히 많은 대가를 요구했는데, 그 선물은 반드시 좋고 값비싼 것이어야 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왕이 왕좌를 계승할 경우, 중국 조정에서는 두 명의 사신을 보내어 즉위식을 주관하고 왕권을 인정한다. 이 사신들은 중주국인 중국의 황제가 하사하는 주홍색 비단으로 만든 관복을 가져와서 한국 왕, 합문에게 전달하고 한국의 왕은 이를 속국의 상징으로 받아들인다. 중국은 이 자비로운 의례를 베풀어준다는 이유로 1만 달러에 해당하는 은을 요구하였다. 부유하기는커녕 가난에 허덕이던 한국으로서는 상당한 부담이었다. 한국의 왕 이희(李熙)는 가난을 이유로 간청하였는데 이는 적절한 변명으로 보였을 것이다. 그러나 신중한 중국이 그러한 이유로 설득될 리 없었다. 중국 황제는 모든 선물과 사절단에 드는 부대 경비를 면제해 주겠다고 차분하게 알리며 동시에 완벽한 경의를 표하고 속국의 지위를 인정할 것을 요구하였다.

합문은 사절단의 접대를 준비하는 데 필요한 명령을 여전히 내리지 않고 가능한 한 오랫동안 미루었다. 경의를 표시하는 격식 중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서울의 대문 밖에서 사절단을 맞이하는 것이다. 이 행위는 연속 관계를 시험하는 중요한 절차이다. 한국이 독립국이라면 중국의 사신은 한국 왕에게 알현을 청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그가 왕이 있는 곳으로 와야 한다. 그러나 군주가 전하는 서신을 받는 경우라면 봉신이 사절단의 방문을 요청하고, 군주를 대표하는 사절단을 만나러 마중을 나가야 하는 것이다.

그 모든 항변에도 불구하고 이희 왕은 굴복해야 하였고, 왕명을 내렸다. 사절단을 접견하기 위한 왕의 행차 준비가 시작되었다. 한국에서 왕의 행차만큼 화려한 것은 없다. 도로의 잡다한 것을 치우고, 청소하고, 경비가 철저히게 이루어지고, 백성들은 거리에 나오면 안 된다. 왕의 행차가 있을 때는 어떠한 통행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모든 창문 특히 위층의 창문은 높은 곳에서 합문을 내려다보는 신성 모독죄를 범하는 자의 눈길을 차단하기 위해 종이를 덧대어 가린다.

관공서든 일반 백성의 집이든 모든 문은 닫혀 있어야 하고, 백성들은 복종의 표시로서 쓰레받기와 빗자루를 손에 잡고서 자신의 집 대문 앞에서 무릎을 굽히고 있어야 한다.

행렬에는 수천 명의 수행원, 고관, 마부, 깃발이 따르며 동양의 군주에 어울리는 화려한 볼거리를 만든다. 고대 일본의 관례와는 다르게 한국의 평민들은 왕에게 직접 상소를 할 수 있다. 만약 자신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 이 기회에 군주에게 자신의 불평을 호소할 수 있다. 탄원하는 자들은 길가에 줄지어 서서 왕실의 가마가 지나갈 때 지름이 몇 인치 안 되는 작고 평평한 복을 두드린다.

지나가는 왕에게 직접 호소를 하거나, 혹은 평범한 중생의 손이 왕의 몸에 닿지 않도록 (탄원서를) 갈라진 대나무에 끼워서 왕에게 주기도 한다. 만약 예기치 못하게 왕의 몸에 손이 닿기라도 하면, 그는 평생 눈에 띄는 붉은색 끈을 두르고 살아야 한다. 왕은 백성들의 불평을 듣고 종종 그에 대해 조사를 명하기도 한다. 만약 탄원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명되면 이 불행한 탄원자에게는 비극이 생긴다. 과감함의 대가로 자신의 목을 내놓아야 하기 때문이다. 왕의 신성한 옥체를 바라보는 불경한 일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한다.

행렬 가운데 아름답게 장식되어 위용을 드러내는 가마 두 대가 나란히 붙어서 간다. 그중 하나에는 화려한 용무늬 자수가 놓인 주홍색 견사 관복을 입은 합문이 타고 있다. 그런데 둘 중 어떤 가마에 타고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오직 최고위 대신들만 알 것이다. 그들 외에는 아무도 모른다. 행진이 이루어지는 동안 시끄러운 한국 음악이 연주된다. 한국인들에게는 참으로 즐거운 음악이지만, 이런 행사에 이처럼 ‘차분한’ 음악이 연주된다는 사실에 놀란 야만적인 서양인들의 귀에는 참으로 낯설고 정이 떨어지는 소리로 들린다.

붉은색의 왕실용 우산과 거대한 보라색 부채가 아름다운 가마 바로 앞에 선다. 행렬 중에 검·도끼·삼지창 등이 등장하는 것은 합문이 백성의 생사를 좌우할 만한 힘을 가지고 있음을 상징한다. 왕의 가마 앞에 화려한 마구를 씌우고, 밝은 색으로 자수를 놓은 안장을 올린 다섯 마리의 말이 힘차게 걷고 있다. 행차 중 가장 이목을 끄는 것은 바로 금수를 놓은 번쩍이는 거대한 용무늬 깃발이다. 이 화려한 기는 14제곱피트(약 1.3제곱미터)나 되고 매우 무겁다. 튼튼한 어린 말의 안장 위 구멍에 깃대를 꽂아서 네 명의 시종이 버팀용 밧줄을 잡고 간다.

한국에 중국 사신이 도착하자 옛날만큼 화려한 이희 왕의 행렬이 서울을 관통하는 길을 따라 서대문을 빠져 나가 낮은 조문단을 맞이하였다. 사신 행렬은 합문과 대등한 존재임을 보여주기 위해 도끼·칼·삼지창을 들고 있고 음악대가 따른다.

왕은 복종하기를 꺼렸지만, 결국 예전처럼 중국 사신을 맞이하였던 서대문의 밖에서 사신을 맞이해야 하였다.³ 영은문⁴이라고 불리는 이 대문 밖 광장에서 왕은 사신단을 맞이하고 조문 서한을 받았다. 인사할

때는 겸손하게 머리를 숙여 절을 하여 백성과 외국인들에게 중국에 복종함을 공인하였다.

한국 왕 이희는 비록 그 시도가 허무하게 끝날지라도 독립국의 지위에서 최대한 물러서지 않기로 결심하였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만 열리는 특별 연회장에서 비밀리에 왕인 자신에게 먼저 음식을 대접하라고 시종들에게 명령하였다. 이렇게 해서 더 큰 영예를 누리야 할 중주국 중국의 황제를 대표하는 사신들보다 자신에게 우선권을 부여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중국 사신은 신속하고 강경하게 철저한 사과를 요구하였다. 단호한 어조에 놀란 합문은 그로 인해 발생할 일이 두려워 그들의 요구를 따랐고 절대적으로 복종하였다. 이전의 과감함에서 물러나 굴욕적으로, 공포에 떨며 완벽한 겹쟁이로 변해버렸다. 완벽한 복종을 인정한 그는 서울 대문의 열쇠를 사신에게 주었다. 이에 사신 마음대로 대문이 개폐되었고, 매일 밤 그 열쇠는 그들의 관저였던 서궁(태평관)에 보관되었다. 동양인의 관점에서 이보다 더 완벽한 복종은 없다.

조문 서한의 수령 의식은 동양 관례를 보여준다는 점뿐만 아니라, 가장 비참하고 비굴한 복종을 상징하기 때문에 매우 이색적이었다. 조문단의 일원이었던 한 사신의 수행원은 이렇게 말했다. “서울에 도착한 후 사신단은 그들이 전용으로 머물 건물(태평관)을 배정받았다. 이 건물은 사신단 외에는 사용한 적이 없는 건물이었다.”

조문 서한의 수령 의식이 예정되어 있는 날, 의식 진행자가 알현실의 주입구에서 사신단을 맞이했다. 사신들은 여러 겹의 비단으로 감싸인 금으로 장식된 노란색 부드러운 새틴 천에 적힌 서한을 내려놓을 탁자로 인도되었다. 무릎을 꿇은 한국의 신하들 앞으로 거만하고 냉정한 표정의 사신들은 중국 황제가 상중인 왕에게 내리는 위로 서한과 선물로 보낸 비단을 건네주기 위해 탁자 앞에 섰다. 사신들은 준비된 여러 탁자 위에 이 물건들을 올려놓는다. 찬례(贊禮)가 승하한 대왕대비의 비석문 오른쪽 자리로 사신들을 인도한 후 중국이 위치한 서쪽 방향으로 서도록 안내하였다.

다음으로 이희 왕이 상·하급 의전관들의 인도를 받으며 서쪽 현관에 서 나와 비석문 옆 다른 한쪽에 자리를 잡고 동쪽을 향하였다. 그리하여 왕과 사신이 얼굴을 마주 보고 서게 되었다. 사신은 비석 아래쪽에 놓여 있는 향로가 놓인 상 앞으로 안내되었다. 화려하고 의례적인, 그러나 가장 겸손한 어조로 사신에게 향에 세 번 불을 붙일 것을 청하였다. 향을 피운 후 사신들은 비단 선물을 바치고 세 잔의 제주(祭酒)를 따라 부었다. 제주를 제기에 붓고 비단을 바치는 동안 사신들은 몸을 꼳꼳이 세우고 서 있었다. 그러나 이 의식을 집전하는 양반 출신의 한국 관료는 무릎을 꿇고 거만한 방문객의 시중을 들었다.

사신들은 다시 자기 자리로 안내되었다. 그리고 찬례가 이희 왕에게 가서 무릎을 구부릴 것을 청하였다. 그 뒤 향로가 놓인 탁자 가까이

있는 신하 한 명(선직관宣勳官)이 왕을 향한 채, 극진한 공경심을 표하며 서한을 집어 들고는 여러 차례 절을 하였다. 그는 동양 특유의 기괴하고 어색한 곡조로 무릎을 구부린 왕에게 서한을 크게 낭독하였다. 낭독자는 서한을 다시 탁자 위에 올려놓고는 왕에게 바닥에 엎드렸다가 일어나 똑바로 서 있을 것을 청하였다.

그 후 의식 중에서 이상하고도 가장 굴욕적인 장면이 펼쳐졌다. 찬례가 왕에게 곡을 하라고 하였고, 이에 이희 왕은 부모상에만 보여주는 동양적인 기괴한 방식으로 “아이고, 아이고”를 외치며 곡을 하기 시작하였다. 만약 친척의 상이었다면 “어이, 어이”라는 소리를 내며 곡을 하였을 것이다. 이어 사신도 곡을 할 것을 요청받았다. 이 일에 적합한 관료들을 시작으로 왕가 일원들과 문신, 무신들이 곡을 하기 시작하였다. 먼저 사신들에게 곡을 멈출 것을 요청하고, 이어 왕과 나머지 사람들에게도 곡을 그만하라고 요청하였다.

종묘 남서 방향으로 약간 떨어진 곳에 화려하게 상감 처리가 된 탁자가 있고, 그 위에 근사한 청동 제기가 놓여 있었다. 곡이 끝나자 서한을 읽고 하사품을 받았던 관료가 무릎을 이끌고 제사용 화덕에 가서 그것들을 태우고, 재는 제기에 던졌다. 그 후 첫째와 둘째 의전관이 왕을 현관으로 모셔 가고, 왕은 동쪽을 향해 서서 사신을 기다렸다. 사신은 현관으로 인도되어 속국의 군주와 마주하는 위치에 자리 잡았다. 사신은 동양식으로 두 손을 공손히 맞잡고 이희 왕에게 경의를 표하며 절하였다. 이희 왕도 동일한 방식으로 답례하였다. 왕은 겸손한 태도로 사신과 동행하여 중앙 입구로 가서 다시 한 번 작별 의식을 행하였다. 이 의식은 사신이 태평관에 있는 자신의 처소로 돌아가도록 안내를 받으면서 마무리되었다.

한국 왕이 궁으로 돌아오자, 집전관이 왕에게 지팡이와 그 외 필요한 물품을 챙겨들 것을 명하였다. 그러면 다시 한 번 이희 왕과 신하들은 전통 방식대로 곡을 하기 시작하였다. 실제 장례식이 거행되기 전까지 하루에 세 번씩 이렇게 곡을 하였다.

왕의 상복은 회색빛이 도는 흰색 면으로 된 긴 옷인데, 찢겨 있고 덧대어 기워져 있고 일부로 흙과 얼룩을 묻혀 놓았다. 약 3인치(약 7센티미터) 두께의 짚과 견사로 꼬은 밧줄을 허리 부근에 매었다. 머리에는 어두운 색의 때 묻은 듯한 삼베로 만든 길게 늘어진 천을 쓰고 있는데, 머리에 두른 밧줄의 끝은 꼬트머리의 올이 풀린 채 볼까지 내려와 있다. 왕은 단순한 모양으로 두꺼운 매듭이 묶여져 있는 지팡이(곡상봉喪襄棒)를 잡고 있고, 발에는 기괴한 모양의 성글게 엮은 짚신을 신고 있다. 한국에서는 순백색이 애도의 색이기에, 모든 궁 안의 사람들은 3년 동안 흰옷을 입는다. 미국이나 일본 등 외국에 주재하는 사신들도 흰색 옷을 입는다. 긴 흰색 옷에 광이 나는 높은 모자를 쓰고 있는 모습은 기묘한 분위기를 연출한다.

내가 도쿄에 있었을 때 외교단 일원들이 개최하는 연회나 환영회에 참

석한 적이 있었는데, 손님들에게 거의 말을 걸지 않는 검은 모자를 쓴 낯선 두 사람의 형체가 귀신처럼 조용히 돌아다니는 모습이 얼마나 이상하였는지 기억한다. 잘 때 입은 가운을 걸치고 실크 모자를 쓰고 다니는 남자의 모습을 상상해보라.

그러나 다시 사진 환영식이라는 주제로 돌아오자면, 그렇게 전적으로 완벽하게 경의를 표하는 의례를 행하고 난 후, 속국이 아닌 것처럼 보이려고 노력하는 한국의 모습은 우습게 보일 수 있다. 한국이 어느 나라에도 충성하지 않는 자유 주권국인 것처럼 행동하려 하면서도 1890년에 이러한 조문 의례를 진행하였다는 사실을 이희 왕은 어떻게 설명할지 상상이 되지 않는다.

미국 정부는 한국 내 미국인의 안전을 위해 적극적인 안전 조치를 취하고 있다. 최근 서울에 주재하는 호러스 N. 알렌 공사가 작성한 보고서에서 한국 내 거주하는 미국인들이 위험한 상황에 있고, 한국 신문사들이 백성들에게 외국인 특히 미국인에 대한 반감을 부추기고 있다고 전하였다. 미국 공사관에는 수십 명의 해병대가 경비를 서고 있고, 근방에 다른 해병대도 주둔하고 있다. 미국의 군함 빅스버그호⁵가 제물포에 정박해 있다.

반미 감정은 미국이 압록강 의주에 자유항을 확보하려는 것 때문이라고 한다. 한국 정부는 양허권을 제공할 의향이 있으며, 이에 한국의 백성들은 외국인에게 자기 나라를 너무 쉽게 넘겨주는 모습을 보고 격분한다.

1 1636년(인조 14)에 있었던 병자호란을 말한다.

다. 2 합문(閤門)은 궁궐에서 내외(内外)와 공사(公私)의 경계로 설정되는 문을 말한다. 조선의 궁궐은 정전, 편전, 침전 등의 영역으로 구분된

다. 정전이 국가의 공식적인 의례가 치러지는 외

전이라면 침전은 왕의 일상생활이 영위되는 내전의 성격을 갖는다. 두 전각의 사이에 있는 편

전은 왕이 일상적인 정치 행위를 하는 곳으로서 물리적으로는 내전에 포함되어 사적인 영역이

지만, 기능적으로는 정사를 돌보는 외전에 포함되어 공적인 영역을 내포한다. 여기서는 ‘왕’을

의미한다. 3 중국 사신들은 1890년(고종 27) 9월 25일 인천항에 도착하였다. 4 영은문(迎恩門)은 중국 사신을 맞이하는 모화관(慕華館) 앞

에 세워졌던 문이다. 현재 독립문이 있는 곳의 바로 앞에 있었다. 중국 사신이 오면 임금이 친

히 모화관까지 나오는 것이 상례였다. 5 빅스버그호(Vicksburg)는 1904년 미국 공사관 수비와

거류민 보호를 구실로 해병을 싣고 온 군함이다. 6 제물포구락부를 말한다. 개항장 인천에 거주

하던 미국·영국·독일·프랑스·러시아 등의 외국인과 소수의 중국인·일본인들의 친목을 돕는 사교

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1901년에 지었다.

01 궁궐 대문 앞 한국 군부대

02 한국, 부산의 모습

03 장기를 두고 있는 한국의

군부 장관(사진에서 왼쪽)

04 한국, 서울 남대문

05 부산항에서 동북쪽을

바라본 전망

-이번 호의 한국 관련 사진은

언더우드 앤드 언더우드가 제작한

을 소유한 스테레오그래프스에서

빌림

THE CRISIS IN THE FAR

WHEN Korea made independent treaties in 1882 with America and European countries, it was naturally assumed that she was a sovereign country, free to do as she pleased.

China, the only power likely to claim suzerainty, by keeping silence at such a time, tacitly admitted Korea's right to enter freely into independent treaties.

Japan, being especially interested, eagerly adopted this very natural view of the matter; and Korea herself, imbibing the idea that she was no longer China's vassal, began to assume independent airs that little suited so haughty and austere a power as China.

But when Japan, a little later, began dealing with Korea as an independent kingdom, China resented it wrathfully, and vigilantly watched for a favorable opportunity to show the land of the Rising Sun and the world at large how mistaken any such assumption was.

More particularly was she jealous of Japan, a country that might be supposed to have more claim to recognition in Korea than any other,



01 A Body of Korean Soldiers at the Palace Gate

on this account, therefore, China proposed to emphasize the fact that Korea was her vassal in name, deed, and fact.

The opportunity soon came. The dowager Queen of Korea died in 1890, and China determined to send the usual embassy of condolence.

It might be supposed that the occasion was not a very important one, and that a mission of condolence was a trifling courtesy extended to a neighboring country. But this is not the case, for upon all these and other similar ceremonial occasions the exact status of each country—the one offering and the other receiving condolence—is sharply defined.

In all such ceremonies the vassal country is compelled to acknowledge fully the sovereignty of the suzerain and her own inferior position.

The whole ceremony is regulated by constitutional usage, and has been settled by custom and convention ever since the early days of the Ming dynasty.

Though the tribute itself was comparatively light, full acknowledgment of the vassalage of Korea was always demanded. In the seventeenth



02 A View of Fusan, Korea

EAST—VIEWS AND EXPERIENCES IN KOREA

BY HELEN GREGORY-FLESHER, M.A.

century the King of Korea was fined ten thousand ounces of silver merely because he failed in some trifling point of etiquette.

So long as he paid tribute faithfully the burden was light, but for every act of omission and commission the penalty was heavy and severe.

Among the Korean people the Emperor of China receives as much honor as their own monarch, and there is no doubt that they regard him as their lawful suzerain. For example, the name or term by which the Korean kings are known is Hap-mun, which equals Mikado, etc., meaning "Grand Ruler." All persons in writing the word "hap" must omit

one stroke of the initial letter out of respect. Should the character with which the name of the ruling Emperor of China is written chance to occur in the designation of some public personage or building, though the pronunciation remain the same, the written appearance must be temporarily altered, thus showing him as much respect as is given their own sovereign.

In all official correspondence between China and Korea the king is styled simply Wang, or prince, never king.

The Korean monarch is not permitted to address the Chinese Emperor directly or upon terms of equality, but only through a memorial, like any ordinary high Chinese official.

All this is very galling to the Koreans; and after the signing of the treaties which gave her a taste of independence, and being so advised by foreign powers, she tried to repudiate China's claims. Both Korea and China saw their opportunity when the dowager Queen died, and the former vainly attempted to refuse the usual mission of condolence. But China had been awaiting some such chance to impress upon Korea that she had no real independence, that it was but a fiction permitted so that favorable treaties could be concluded.

The reception of the embassy of condolence had always been accompanied by every token of homage and submission, and China insisted upon her rights in the matter, rights established by custom for centuries.

Vainly the Korean king pleaded poverty, for the Chinese charged pretty well for these favors, and the presents must be handsome and costly. When, for example, a new king succeeded to the throne, two noblemen from Peking presided over the investiture, and granted the patent of royalty. With them they brought the scarlet silk robes always worn by the Hap-mun, which are presented by his suzerain, the Chinese Emperor, and assumed as a badge of vassalage.

For this gracious act China charged \$10,000 in silver—a heavy bill for Korea, which is never rich and frequently poverty-stricken. So it will be seen that the Hap-mun, whose name was Li-Shi, had a good excuse when he pleaded poverty.

But China was too wary to be thus caught, the Emperor calmly announcing that he would waive all presents or other expenses incidental to the mission, demanded the full payment of homage and acknowledgment of vassalage.

Still the Hap-mun delayed giving the necessary orders for the reception of the ambassadors as long as possible. One of the most important of the acts of homage is the welcoming of the commissioners outside the gates of Seoul. This is the crucial test of vassalage. Were Korea independent the Chinese ambassadors must seek audience of the ruler, and for that purpose must go to him. But in the case of receiving a message from a suzerain the vassal must seek the presence of, and go out to meet, the commissioners, who, of course, represent the sovereign. But despite all protestations, Li-Shi was compelled to yield, the orders were given, and the king's procession started on its way to meet the embassy.

In all Korea no spectacle is so brilliant as this of the king's procession.

All the roads are cleared, swept clean, and closely guarded, while the people are warned against going out. No traffic or passage is allowed upon such occasions. Every window, more particularly upper ones, must be sealed with strips of paper, lest some sacrilegious eye should from a superior height look down upon the Hap-mun. Every door must be closed, whether it be that of a public building or a private dwelling, and each householder kneels before his house door with a dust-pan and broom in his hand as emblems of obeisance.

In the procession itself are many thousands of attendants

and noble personages, horsemen, and banners, making it a gorgeous pageant well worthy of an Oriental sovereign.

Unlike the ancient Japanese usage, the common people are allowed to petition the king directly. If any one thinks he has been unjustly dealt with, he can appeal to the monarch himself upon this occasion.

All along the road-side these petitioners may stand, and as the royal sedan-chair goes by they tap upon a small flat drum only a few inches in diameter.

As he passes the king listens to the prayer, or it is given to him held in



03 The Korean Minister of War (at the Left of the Photograph) playing a Game of Go Ban



04 The South Gate of Seoul, Korea



05 Looking Northeast over Fusan Harbor

The Korean photographs in this issue are from stereographs copyrighted, 1904, by Underwood & Underwood, N. Y.

a split bamboo, lest an ordinary mortal hand should touch him. If at any time, by some unforeseen chance, such a thing occurs, the person who has done so must wear conspicuously a red cord for the rest of his life.

Frequently he investigates the grievance, and woe betide the unhappy petitioner if it is decided that he petitioned without due cause, for he is apt to pay for his temerity with his head. Every precaution is taken lest the vulgar eye should gaze upon the sacred person of the sovereign.

Close together in the procession are carried two magnificent sedan-chairs elaborately ornamented.

In one of these, dressed in his scarlet silk robes, heavily embroidered with dragons, rides the Hap-mun.

But in which?

This question can only be answered by the highest ministers of state; they alone know.

During the march Korean music is played of that noisy kind so grateful



01 A Street Scene in Seoul, Korea

to Oriental ears, so distasteful to the uneducated ear of the barbarous Westerner, who learns with surprise that only music of a *quiet* kind is permitted upon such occasions.

Before the sedan-chairs is carried the red umbrella and enormous purple fan of royalty. A sabre, an axe, and a trident are also borne in the procession, as reminders to the people that the Hap-mun holds the power of life and death over his subjects. Before the royal chairs prance five gayly-caparisoned horses with bright embroidered saddles. But the most striking feature of the whole parade is the great dragon flag glittering with masses of gold embroidery. This splendid banner, which is fourteen feet square, and very heavy, is borne by a strong young horse with a socket in his saddle, while four attendants hold the guy ropes.

Upon the arrival of the Chinese embassy in Korea, Li-Shi's procession, as gay as of yore, wound its way through the city of Seoul and out of the western gates to meet the strange commissioners. In the train of the ambassadors, to mark their equality with the Hap-mun, were borne the



02 A Japanese Fish Auction in Chemulpo

- 01 한국, 서울의 거리 모습
- 02 제물포 생선 경매장의 일본인
- 03 한국 정부 관료들

axe, sabre, and trident, and accompanying them was a band of music.

The king had yielded reluctantly; but he was compelled to meet the embassy, as formerly, outside the western gates of Seoul, which are never used except for the reception of the Chinese envoys.

In the public square outside this gate, called "The Gate of the Beneficent Reception," the king received the mission and the letter of condolence, and humbly "kotowed" when bidden, thus acknowledging before his people and the whole foreign community his submission to China. But Li-Shi determined to recede as little as possible from the independent stand he was vainly trying to assume. So when the time came for the banquets which are always held in the palace reserved for these ceremonies, orders were secretly given the attendants to serve the king first, thus giving him precedence over the representatives of His Imperial Chinese Majesty, Suzerain of Korea, who should, of course, receive greater honor than his vassal.

Prompt and stern was the demand of the Chinese for a full and amply apology. Alarmed at the firm tone, and fearful of the consequence, the Hap-mun complied, and yielded absolutely. Humbled and terrified at his former audacity, Li-Shi was now completely cowed. In acknowledgment of his total subjugation he gave up the keys of the gates of Seoul to the Chinese envoys. At their pleasure the gates of the capital city were locked or unlocked, and each night the keys were deposited at their official residence, the western palace.

To the Oriental eye no greater token of submission total and complete could be given.

The ceremonies for the reception of the letter of condolence on this occasion were most curious, not only as an illustration of Oriental usage, but as indicating the most abject and humiliating submission.

The following account was given by the private secretary of one of the Chinese commissioners, who was himself present:

The Chinese embassy, after they entered the capital, Seoul, occupied a building or palace set apart for their use, and never occupied by any but members of these embassies.

The day set for the ceremony of the reception of the letter, the ushers of ceremonies met the envoys in front of the principal entrance of the Audience Hall, and conducted them to the table upon which lay the letter, which was written on yellow satin, decorated with gold, and enclosed in many silk wrappers.

With haughty, immovable faces the Chinese ambassadors stood to receive from the kneeling Korean officials the message of condolence and the silk presents offered by the suzerain to the mourning prince. These the envoys placed upon the various tables arranged to hold them. Then the masters of ceremonies conducted the envoys to their places east of the memorial tablet of the late dowager queen, placing them so that they faced west towards China.

Li-Shi, led by the senior and junior ushers, next came up from the western terrace, and took his place on the other side of the memorial tablet, but turned towards the east, so that the king and the Chinese ambassador were face to face.

Then the Chinese were led to the incense-table standing below and directly in front of the tablet, and in florid, ceremonious, yet most humble language, invited to offer incense three times. After this had been done, they were requested to offer the silk presents and to pour out a libation of three cups of wine.

During the time that the libations were being poured into the urn and the offerings of silk being made the Chinese stood erect. But the officiating officers, who were, of course, Korean noblemen, knelt to serve and assist the haughty visitors.

The envoys were conducted back to their seats, and the master of ceremonies, going to Li-Shi, bade him kneel.

Then one of the Korean officials standing near the incense-table, and facing the king, took up the letter with an assumption of the greatest reverence, and bowing many times.

In the curious unnatural sing-song adopted by Oriental readers on such occasions, he read aloud the message to the kneeling king. After the reader had replaced the letter upon the table, he bade Li-Shi prostrate himself, then rise and stand erect.

Then came the strangest, most humiliating scene of the whole ceremony. The master of ceremonies, addressing the king, bade him wail, and at this command Li-Shi broke into the weird Oriental wail given only for a parent, "Ai-ko, ai-ko." (For any other relative the cry would have been "oi, oi.") The Chinese ambassadors were then requested to wail; and, prompted by the proper officials, the members of the king's household and the civil and military officers wailed. The Chinese were first requested to stop wailing, then the king and the rest of the company.

A little south and west of the Yen Hall Terrace stood a heavily inlaid table, upon which was placed a great brass sacrificial urn. After the wailing had ceased, the same official who had read the message and received the silk presents took them to the sacrificial fireplace and burnt them, throwing the ashes into the urn. Then the first and second usher led the king out to the upper terrace, where he stood facing the east, and awaiting the Chinese ambassadors, who were now conducted out to the terrace, and placed so as to confront the vassal monarch. The envoys, clasping their hands together at arm's-length in Oriental style, bowed in salutation to Li-Shi, who returned the courtesy in the same manner. Humbly the king accompanied the envoys to the central entrance, where parting salutations were exchanged once more. The ceremonies ended by the Chinese ambassadors being conducted to their quarters in the Chin Chen Hall.

When the Korean king had returned to his palace, he was bidden by the master of ceremonies to assume his mourning staff and appendages. And again Li-Shi and the whole company broke into the conventional wailing cries. Three times a day did they wail until the actual funeral took place.

The mourning garb of the king consisted of a long, grayish, white cotton garment, torn, patched, and purposely soiled and spotted. This was fastened about the waist by a rope of twisted straw and silk about three inches thick. On his head was a drapery of dark-colored soiled-looking linen, fastened by a small rope with long frayed ends falling on either cheek.

His mourning staff was a plain, heavily knotted stick, and on his feet he wore coarse straw sandals of a peculiar make. Pure white being the mourning color of Korea, all the courts wore white for three years.

Even the ambassadors to foreign countries, the envoy at Washington, and the ambassadors at Tokio wore white. In these long white robes and high glazed hats they presented a very quaint appearance.

I remember at Tokio, when members of the diplomatic corps gave balls or receptions, how curious these two strange, ghostly, black-hatted figures looked as they moved silently about, for they spoke to few, if any, of the guests. They resembled nothing so much as two men who had got up in their night-gowns and put on silk hats.

To return briefly, however, to the subject of the reception ceremonies, it would seem ridiculous for Korea to make any pretensions to be other than a vassal state after the performance of an act of homage so full and complete as th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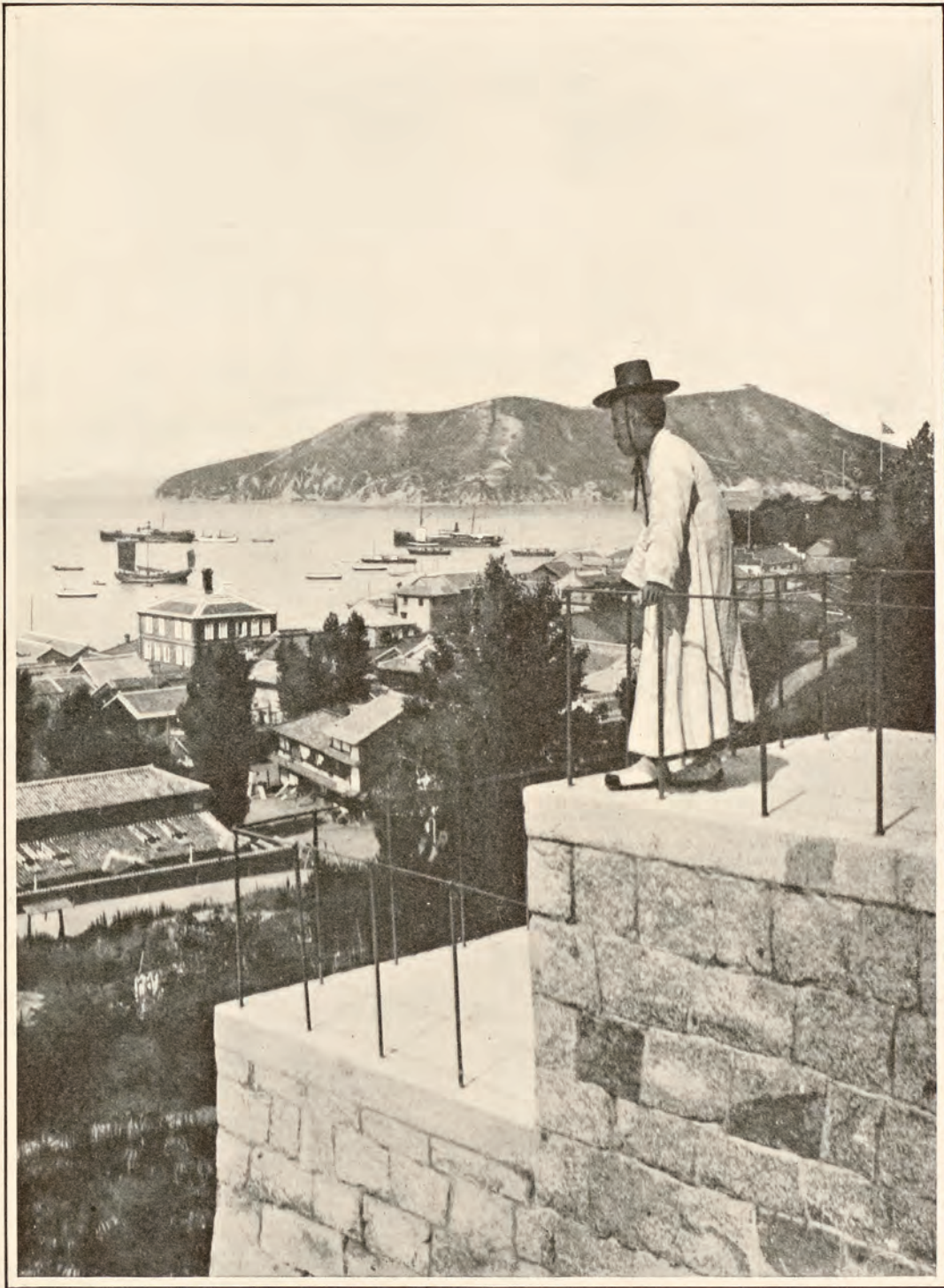
How Li-Shi can reconcile the fulfilling of the mourning ceremonies held in 1890 with his pretensions to be a free sovereign owing allegiance to none it is difficult to imagine.

The safety of Americans in Korea is being secured by active precautionary measures on the part of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Reports have been lately received from Horace N. Allen, our minister at Seoul, that Americans there were in danger. Korean newspapers having endeavored to inflame the natives against foreigners, and especially against Americans. A squad of marines is on guard at the United States legation, and there are other marines stationed in the neighborhood. The United States gunboat *Vicksburg* is at Chemulpo.

The feeling against Americans is said to be due to the endeavors of the United States to secure an open port at Wiju, on the Yalu River. The Korean government is disposed to grant the concession, and the people are incensed at what they regard as a movement toward yielding the country too freely to foreigners.



03 A Group of Korean Government Officials



THE CRISIS IN THE FAR EAST—A VIEW OF THE HARBOR OF CHEMULPO

The photograph shows a view from the steps of the Chemulpo Club, overlooking the harbor of Chemulpo, a strategic point in Korea which could be among the first to be taken possession of in case of war between Japan and Russia.

109

극동 지역의 위기-제물포항 경관 사진 속 경관은 제물포항이 내려다 보이는 제물포 클럽6의 계단에서 찍은 사진이다. 제물포 클럽은 전략적 요충지로서 러일전쟁이 발생할 경우 제일 먼저 정탈의 대상이 될 것이다.

조선과 조선인

“조선인은 겉보기에는 중국 및 일본과 같은 민족에 속하는 것 같지만, 이들은 결코 중국인이나 일본인과 같은 민족이 아니다. 사실 외모와 관습 면에서 보면 일본인보다는 중국인, 특히 중국 북부 지역 사람들과 많이 닮아 있으나, 두 가지 측면에서 차이점 또한 극명하다.”

조선반도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소위 문명화된 사람들이 살고 있는 나라 가운데 가장 알려지지 않은 곳이었다. 조선이 이처럼 고립된 데에는 자연적인 영향도 있었지만, 그곳 사람들이 가진 두려움과 선입견이 더 큰 작용을 하였다. 과거 중국과 일본이 최소한 두 차례에 걸쳐 조선을 정복하고 조선인을 노예로 삼으려는 시도가 있었고, 이는 광범위하게 그리고 실제로 성공적으로 행해졌다. 이러한 경험은 조선이 자신보다 조금 더 우월한 남쪽과 동쪽의 이웃 국가들을 멀리하고 동시에 국민들 스스로 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자치권을 강조한 국가 정책

Harper's Weekly 1897. 07. 24.
pp.728~729
하퍼스 위클리
미국
구9762
40.0×27.8

을 펴는 데 합당한 명분을 제공하였다. 그러나 그동안의 경험은 조선인들이 그런 정책에서 어떤 대단한 것을 이루어낼 능력이 없음을 보여준다. 수 세기 동안 부패하고 낡은 사회 및 정부 시스템으로 몰락하고 있는 중국과 비교해 볼 때, 조선의 문명은 내세를 만만 게 없다. 40년 전의 일본과 비교하면 조선인의 상황은 비참하였고 발전이 없었다. 엄연한 사실을 놓고 보면 조선인들은 이미 1세기 전 가장 가까운 이웃 국가로부터 사회적 발전을 이룰 예술과 과학의 가치에 대해 배울 기회가 많이 있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좋은 기회가 독립을 빼앗기고 보다 강한 나라의 지배를 받는 것으로 이어진다면, 기회를 배척하는 정책을 고수할 충분한 이유가 되었다. 조선반도의 지형은 거의 모든 면에서 조선인들의 독립적인 성향과 닮아 있다. 해로나 육로 어디로든 접근이 매우 어렵다. 서북쪽 시베리아와 서쪽 만주로 향하는 국경은 매우 튼튼한 방어선 역할을 하는 산맥이 지켜주고 있다. 한편 긴 해안선에는 삼류 수준이라도 될 만한 항구가 단 한 곳도 없다. 현재는 영흥만이 가장 많이 알려져 있어 아마도 조선 최고의 항구로 꼽을 수 있지만, 다른 곳이었다면 배가 드나들기에 안전하거나 편리한 곳으로 여겨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소위 항구라고 불리는 다른 곳들은 강어귀에 불과하며 조수와 조금씩 이동하는 모래톱으로 인한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다. 조선반도 전체의 해안선은 매우 들쭉날쭉하고 변화가 심하다. 파도에 침식된 바위 절벽의 꺾어지는 선은 여행객들의 발길이 닿는 해변의 거의 모든 곳에서 발견된다. 또한 거의 대부분 절벽 뒤로는 해발 1,500~3,000피트(약 400~900미터)의 험준한 작은 산맥들이 버티고 있어 전반적으로 크게 가치 있는 나라라는 인상을 주진 힘들다. 이러한 첫인상은 전적으로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니었다. 남북으로 뻗은 해안선은 조선의 전반적인 특징을 매우 잘 보여준다. 조선반도 전체는 대개 서북쪽에서 동남쪽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산마루가 형성되어 있고 대부분 좁은 골짜기가 이어지며 국토를 나누고 있다. 또한 평원이라고 부를 만한 넓은 지역이 형성되지 않았다. 그러나 골짜기의 경우 땅이 대체로 매우 비옥하여 조선인의 경작 방식이 결코 높은 수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수확량을 보장해준다. 산릉선의 경사지는 대략 국토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나 현재 거의 활

용이 안 되고 있다. 중국이나 일본이었다면 분명 대부분의 지역에서 경작이 이루어졌을 것이다. 이는 물론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 조선이 인구가 매우 희박한 나라이고 따라서 사람들이 자연을 최대한 이용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될 수 있다. 조선인들은 오랫동안 정체되어 왔고 심지어 인구수도 예외가 아니었으며 국가 개발에 자연을 활용하는 측면에서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조선인은 겉보기에는 중국 및 일본과 같은 민족에 속하는 것 같지만, 이들은 결코 중국인이나 일본인과 같은 민족이 아니다. 사실 외모와 관습 면에서 보면 일본인보다는 중국인, 특히 중국 북부 지역 사람들과 많이 닮아 있으나, 두 가지 측면에서 차이점 또한 극명하다. 인종으로서 조선인은 일본인보다 체구가 크고 움직임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매우 느리고 둔하다. 이들의 몸과 마음속에는 민첩한 기운이 없으며 이로 인해 일본인과 큰 차이를 보인다. 조선인에게는 중국인들에게서 볼 수 있는 불굴의 강한 내내심 또한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사실 중국인이나 일본인과의 명확한 차이는 조선인이 몽골인과 인도 게르만족의 혼혈 인종이라는 이론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상류층에 속하는 조선인 가운데 거의 모든 면에서 아시아보다는 유럽에 가까운 외모를 가진 사람을 어디선가 만났을 수도 있다. 물론 이런 경우는 전체 인구에서 매우 극소수에 해당하지만 모든 계층에서, 뭐라 정의를 내리긴 어렵지만, 인종이 섞여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 하지만 이것이 사실이라 해도 인종 혼합이 성공적이라고 결론 내리긴 어렵다. 조선인들에게는 서양인의 진취적 기상이 없고 조선의 모든 사회적 관례에서 서구의 사상이 완전히 결여되어 있다. 이는 결국 민족지학적 실험에 의해 얻을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보여주는 것 같다.

외국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조선은 중국과 교류하였고 두 번의 시기를 제외한 약 6세기 동안 외부와 고립된 채 더 큰 나라인 중국에게 한동안 정복 내지 침략을 당했고, 지난 250년간 통상 및 여러 분야에서 상당한 교류가 있어 왔다. 그 결과 조선반도의 문명은 민족의 독창성에서 나왔다기보다는 철저히 중국을 따라가는 모습을 보인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가장 웅장한 궁궐의 모습이란 단층의 오두막집 같은 건물을 모아 놓은 것과 다를 바 없고, 장식은 엄두도 못 내지만 필요한 경우 최대한 중국의 형식을 따랐기 때문에 건축에 대해 말한다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조선에 오게 되면 때때로 중국의 것을 형편없이 모방한 것처럼 보이는 지붕이나 벽들과 마주한다. 지붕과 벽은 중국과 비교해 더 흉하진 않더라도 훨씬 더 원시적인 조선 고유의 구조물로 둘러싸여 있다. 이러한 건물의 특징은 사회제도에도 그대로 나타난다.

종교 역시 예상이 되듯 중국의 방식을 모방하였다. 법과 사법행정 역시 철저히 중국식을 따라 무력함과 부패로 가득하다. 국가의 통치는 중국 제국처럼 가장 가난한 계층을 무자비하게 억압하고 착취하는 계

층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조선인의 사회적 관습과 가족생활은 이방인들에게 알려진 다른 어떤 것보다 민족적 색채가 강하지만 내세를 것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마을 공동체에서 조선 여성은 중국 여성보다 더 무거운 삶의 무게를 짊어진다. 실제로 젊은 여성에서 나이 든 여성에 이르기까지 평범한 여성의 삶이 조선 여성보다 못한 나라를 찾기로 한들 것이다. 최고 지배층을 제외한 모든 계층의 조선 남성들은 집안의 모든 일은 당연히 아내의 몫이라고 여긴다. 아내들은 대부분 낮에 힘든 노동을 한 후 밤에도 많은 시간을 가사일에 매달린다. 반면 남편들은 어떠한 방해도 받지 않고 휴식을 만끽한다. 밭을 경작하고 작물에 물을 대고 밤에는 빨래를 하여 모든 조선인의 자부심인 새하얀 옷으로 남편이 위엄을 갖추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결혼한 여성의 운명인 것이다. 이는 모든 사회적·도덕적 제약에서 자유로운 계층인 배우나 무희가 되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벗어날 수 없는 운명이다. 이 운명은 존경받아 마땅하지만 한 없이 인정받지 못하는 이 땅의 여성들을 괴롭히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조선에서 일본과 중국 중 어느 나라의 영향력이 앞으로 우세해질 것인가를 놓고 시작된 최근의 전쟁은, 크고 작은 다른 역사적 사건들이 그렇듯 전쟁 당사자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결과를 낳았다. 극동 지역의 상황을 주시하던 사람들 가운데 중국이 무너지고 일본이 완전한 승리를 거두리라 예상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 또한 전쟁에서 이겼지만 정작 전리품은 손에 넣기에 너무 멀리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일본의 현 상황을 짐작한 사람은 더더욱 없었다.

이는 현재 일어난 상황을 과장한 것이 아니다. 일본은 명목상 행동의 자유를 간섭하는 중국의 영향력으로부터 조선을 해방시키기 위해 싸웠으나 실은 자국민을 위해 조선반도에서 지배적인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일본은 그동안 중국에 가는 길마다 놓였던 그 어떤 장애물보다 더 막강한 장애물인 러시아로 인해 더 이상 나아갈 길이 없음을 깨닫게 된다. 앞으로 어떤 결과가 이어질지 예상하기는 쉽지 않지만, 현재 이 은자의 왕국(조선)에서 러시아의 존재는 매우 두드러져 보인다. 서울에 자리한 러시아 공사관 건물 위로 나부끼는 러시아 깃발이 조선인들에게 익숙해지고 있는 한편,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러시아의 움직임은 이미 이 땅에서 시작되었다.

불확실성이 가득한 상황에서 한 가지 확실해 보이는 것은 오랫동안 조선반도에서 세력을 떨쳤던 고립 정책이 종말에 이르렀다는 점이다. 문호 개방을 이끌어줄 파트너가 일본이 될 것인가, 아니면 러시아가 될 것인가. 조선의 문호 개방으로 가장 큰 이익을 얻을 국가가 둘 중 어느 쪽이든지 간에 어쨌든 가장 큰 수혜자는 분명 조선이 될 것이다.

조선의 오랜 정책은 지난 3세기 동안의 시험을 거쳐 완전 실패였음이 입증되었다. 이 정책으로 조선은 침체의 늪에 빠졌고 중국 문명으로부터 얻을 수 있었던 혜택도 받지 못한 채, 어쩌면 중국보다 더한 침체를

겪었다. 이 정책은 물론 외세의 간섭으로부터 조선인들을 해방시켰지

만 국가 발전으로 보면 스스로의 노력으로 일어설 수 없는 무능한 민족으로 전락시켰다. 현재 조선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모두 발전을 위한 것이다. 이러한 발전이 러시아와 일본 가운데 어느 쪽의 영향력과 통제를 받는다 하더라도 조선인 전체로서는 그들이 과거에 알고 있었던 어떤 것보다도 더 나은 것을 가져다줄 것이다.

KOREA AND ITS PEOPLE.

THE peninsula of Korea was, until the other day, the least known of any country inhabited by a people possessed of any tincture of what we call civilization. Nature had done much to isolate the country, and the fears and prejudices of the inhabitants had done more. The old experiences of at least two attempts on a large and nearly successful scale to conquer the country and to enslave its people, first by their Chinese neighbors and afterwards by the people of Japan, formed the not unreasonable excuse for a national policy which excluded the slightly superior civilizations of their southern and eastern neighbors, and at the same time secured for the people of Korea such a degree of self-government as they were capable of developing for themselves. Experience, indeed, has shown that they were not capable of any great things in this direction. Compared with China, crushed as that empire has been for so many centuries under a corrupt and worn-out social and governmental system, the civilization of Korea has little to recommend it. Compared with the Japan of forty years ago, the condition of its people was a miserable and unprogressive one. It may be said with perfect truth that the Koreans could, even a century ago, have learned much of value from either of their nearest neighbors in everything that concerns the arts and sciences which promote social well-being. Yet, even after making this admission, there is still much to be said for the policy which excluded these benefits if they were to be accompanied by the loss of independence, and the domination of one or other of her more powerful neighbors.

The natural features of the Korean peninsula have been in nearly all respects the friends of the independence of its people. It is a country unusually difficult of access, either by sea or land. Its frontiers towards Siberia on the northwest and Manchuria on the west are defended by mountain ranges that form a very strong line of defence, while its long line of coast presents scarcely a single harbor of even third-rate excellence. Port Lazareff, which is probably the best, as it is now the best known, of these, would nowhere else be regarded as either a safe or commodious place for shipping, and most of the other so-called harbors are no more than the mouths of rivers, subject to all the dangers of currents and more or less shifting sand banks. The whole coast-line of the peninsula, indeed, is rugged and striking in a very unusual degree. Abrupt lines of cliffs, bare and sea-worn, meet the eye at nearly every point at which the traveller can approach the shore; and as these cliffs are almost invariably backed by a higher range of inhospitable hills, rising from 1500 to 3000 feet above the sea-level, the general impression is anything but favorable to the idea that the country is of any great value. Nor is this first impression altogether without foundation. The coast-lines to north and south fairly indicate the general character of Korea. The whole of the peninsula is formed of a succession of ridges running in a general direction from northwest to southeast, and dividing the whole country into a succession of valleys, for the most part very narrow, and nowhere expanding into anything that can reasonably be called a plain. The valleys, however, are as a rule of unusual fertility, and reward generously the by no means elaborate cultivation bestowed on them by the Koreans. The slopes of the ranges of hills, which probably occupy quite one-half of the country, are made little use of at present, although there can

be little doubt that in either China or Japan they would be largely cultivated. This can of course be accounted for by the fact that, in comparison with either China or Japan, Korea is a very sparsely populated country, and its people have not been driven by necessity to make the most of what nature has provided. Her people have long been stationary, even in population, and the natural result has followed in its application to the development of the country.

While belonging apparently to the same general family of nations as both Chinese and Japanese, the Koreans are by no means the same people as either of these larger nations. They are, it is true, more like Chinese—especially the Chinese of northern China—than their island neighbors, both in appearance and institutions, and yet in both respects the distinctions are marked. As a race the Koreans are considerably larger men than the Japanese, and at the same time incomparably slower and more clumsy in their movements. They have none of the rapid energy, either of body or mind, which so eminently distinguishes the native of Japan, and but little of the doggedly persevering characteristics of the Chinese. There is, indeed, enough of evident distinction between the races to lend probability to the theory that the Korean population is the result of a mixture of a Mongolian with an Indo-Germanic race. Here and there a Korean may be met with—especially among the upper class—whose appearance is in nearly every respect far more European than Asiatic, and while such cases are in a very small minority of the whole people, there is yet even among all classes something which, although difficult to define, seems to indicate an admixture of race. Even if this should be the case, however, it can hardly be concluded that the mixture has been a success. There is nothing of Western enterprise in the people, and there is something like a total absence of Western ideals in all matters of social observance, which seems to show that, after all, there has been nothing gained by the ethnographic experi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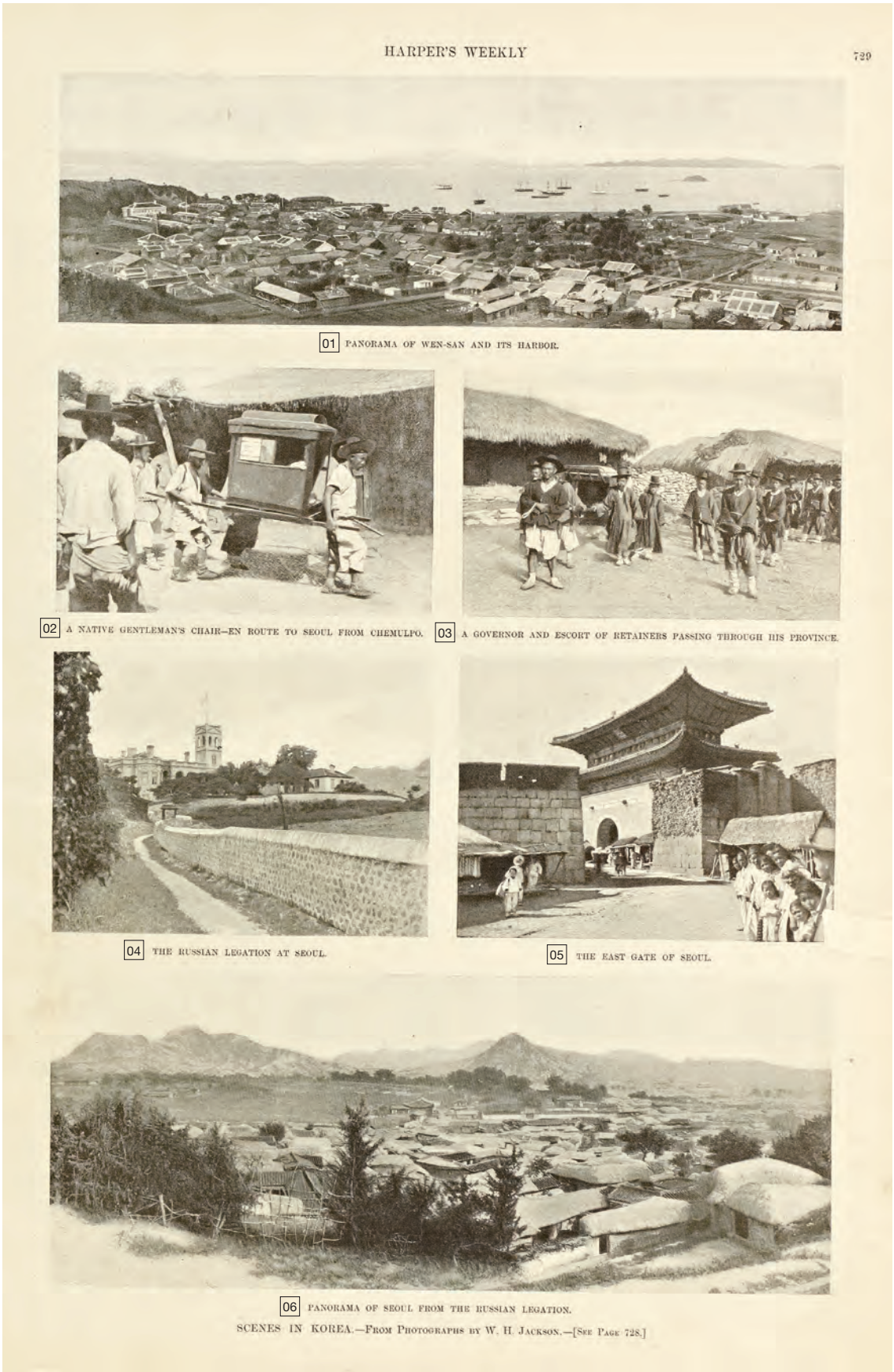
So far as Korea was ever connected with any foreign country, she was so with China, and apart from the two periods, separated by some six centuries, when the smaller country was for a time overrun, if not conquered, by her larger neighbor, the commercial and other intercourse must, until the last two hundred and fifty years, have been considerable. As a consequence of this, rather, it is probable, than from any identity of race, all that there is of civilization in the peninsula takes a decidedly Chinese shape. It is almost absurd to speak of the architecture of a country in which until the other day the loftiest ideal of a palace was little more than a collection of cottagelike buildings of a single story, with hardly an attempt at ornament, and yet wherever any attempt was made it took, so far as possible, a Chinese form. In this way it is that the visitor to Korea meets every now and then with a roof or a wall that looks like a very poor imitation of what he has seen in China, surrounded by the much more primitive, though perhaps scarcely uglier, structures native to the soil. What is true of the buildings is also true of the institutions. Religion, so far as there is any, is modelled on Chinese patterns, with such results as might be expected; law and the administration of justice are altogether Chinese in their feebleness and utter corruption, and government is conducted, as it is in the Chinese Empire, by a class which lives by the shameless oppression and robbery of the poorest class of the people.

The social customs and family life of the people of Korea have more that is distinctively national than anything else open to observation by strangers, and it must be admitted that these have little to recommend them. The burden of life falls even more heavily in Korea than in China upon the women of the community; indeed, it would be difficult to point to any country in which the lot of the average woman, from youth to old age, is less enviable than it is with her. The Korean man, of all but the highest class, looks upon his wife as the natural burden-bearer of the household; and besides the hard manual labor exacted from her during the day, she is commonly supposed to work at household duties during a large part of the night, while her husband enjoys unbroken rest. To till the fields, to water the crops, and at night to wash and to do laundry-work that her husband may appear in all the dignity of a spotless white robe—the pride of every self-respecting Korean—is the fate of the married women; a fate from which none can hope to escape except by entering the profession of actresses or dancing-girls, whose social position is free from nearly all the restraints, social as well as moral, which beset their more respectable but infinitely less regarded sisters.

The late war, which was begun ostensibly for the purpose of settling the question whether the influence of Japan or that of China was for the future to predominate in Korea, has, like so many other of the events, both small and great, of history, resulted in a state of things entirely unexpected by either party to the struggle. Few observers of events in the far East ventured to prophesy the collapse of China and the complete triumph of Japan, but fewer still dreamt of the result that, having won the fight, Japan would find herself just as far from grasping the prize as ever. This, however, is hardly an overstatement of what has happened. Japan fought nominally for the liberation of Korea from Chinese influences which interfered with her freedom of action, but really to secure for her own people the controlling influence in the peninsula. The result has been that she finds her way blocked by Russia—a more formidable obstacle than anything China could ever have placed in her path. What the result will be it is no easy matter to foresee, but at present Russia is very much in evidence in the Hermit Kingdom. Her flag, waving over the buildings of the Russian Legation at Seoul, has become for the first time familiar to Korean eyes, while the shadow of her aggressive power already rests upon the land.

One thing, however, would seem to be certain in the midst of so much uncertainty—the long reign of exclusiveness is at an end so far as the peninsula of Korea is concerned. Whether Japan or Russia is to be the guardian of the open door, and the country which shall gain most by its being opened, Korea herself cannot fail to be the greatest gainer of all. The old policy of the country had been tried for three centuries, and had proved an utter failure. It had resulted in a stagnation, if possible, more complete than that of China, without such compensations as the civilization of China could give. It had left them a people free indeed from outside interference, but wholly incapable of rising by their own efforts in the scale of national progress. Whatever happens to Korea now cannot fail to be in the interests of progress. Whether that progress is to be influenced and controlled by Russia or by Japan, it will be better for the mass of the people than anything they have known in the past.

조선의 모습
- W. H. 잭슨 촬영
01 원산과 원산항 전경
02 제물포에서 서울로
향하는 남자용 가마
03 관할 지역을 지나가는
지방 장관과 그의 하인들
04 서울에 위치한 러시아 공사관
05 서울 동대문
06 러시아 공사관에서 본
서울의 전경



한국, 황해로의 관문

“몇 년 전 일본과 중국 사이에 벌어진 전쟁에서 결정이 나지 않았던 한국에 대한 소유 야욕이 이번에는 각자의 상대적 입지에서 영국·러시아·독일을 위시한 해상무역 강국들 간에 위협적이며 폭력적인 분란을 일으키고 있다.”

온화한 기후의 북반구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광대한 대륙 극동에 위치한 독특하고 고립된 나라 한국은 북태평양 해안에 위치한 반도이다. 스페인·이탈리아·터키와 비슷한 고도에 위치한 이 나라는 또다시 시베리아, 중국, 섬나라 왕국 일본의 제국주의적 야욕에서 비롯된 분쟁의 대상이 된 것 같다. 몇 년 전 일본과 중국 사이에 벌어진 전쟁(청일전쟁)에서 결정이 나지 않았던 한국에 대한 소유 야욕이 이번에는 각자의 상대적 입지에서 영국·러시아·독일을 위시한 해상무역 강국들 간에 위협적이며 폭력적인 분란을 일으키고 있다.

The Illustrated London News	1898. 03. 19. p.409
더 일러스트레이티드 런던 뉴스 영국	구9839 40.2×28.5

일본은 육상과 해상에서 중국 황실의 군대를 물리친 후 중국 황실과 느슨하게 연결된 속국이었던 한국을 합병하려 하였다. 이러한 시도는 당시 자연스럽고 매우 적절하며 편리해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와 독일이 이를 반대하였다.¹ 이들은 합병을 거부하며, 중국은 한국을 양도하는 대신에 대규모 전쟁 배상금을 지불하라고 강요하였다. 약삭빠른 상트페테르부르크 러시아 황실 정부는 이에 대한 결과를 예상하고 계산하였을 것이다. 중국의 재정과 행정은 처절하게 무너졌기에 최근에 있었던 독일의 자오저우만(교주만) 점령, 황해(서해)를 사이에 두고 한국과 마주하고 있는 포트 아서(부산항)와 다렌만 점령과 같은 러시아의 탐욕스러운 행동에 맞서기에는 무력한 상황이 되었다. 또한 이것은 러시아가 한국 합병을 통해 러시아와 독일 제국이 황해를 완전히 점령하고 그 주변의 해안에 대한 직접적 지배권까지 나누어 가지려는 가장 효과적인 조치였다. 북쪽 전방에서 며칠만 행군하면 도달할 수 있고, 바다에서는 텐진까지 연결되는 보하이만(발해만)과 하이허강을 통해 접근 가능한 중국의 수도 베이징은 러시아의 지시와 지배하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중국의 황제가 마치 과거 델리에 있는 인도의 대모굴²과 콘스탄티노플의 대튀르크³처럼 단지 외세의 도구로 전락할지도 모른다. 이러한 정치적 대변화가 발생한다면, 현재 만주 타타르 왕조에 속하는 영토의 4분의 3이 급작스럽게 떨어져 나가는 것은 어느 정도 확실해 보인다.

1 삼국간섭을 의미한다. 1895년 4월 일본이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후 라오둥반도를 얻었으나 러시아·프랑스·독일의 간섭으로 인해 이를 반환해야 하였다. 2 대모굴(Grand Mughal)은 유럽인들이 모굴 제국의 통치자에게 붙인 명칭이다. 3 대튀르크(Grand Türk)는 오스만 제국의 술탄(정치적 지배자)의 칭호이다.



KOREA, KEY TO THE YELLOW SEA.
That singular and sequestered country, almost the Farthest East of the vast width of continent forming Europe and Asia in northern temperate regions of the globe, being, as it is, a peninsula of the North Pacific Ocean coast, in nearly the same latitude as Spain, Italy, and Turkey, seems now likely to become again, from its proximity to Siberia and to China and to the insular kingdom of Japan, the object of contention in a strife for Imperial conquest. It is really the coveted possession of Korea, left undecided by the war between Japan and China a few years ago, that has brought about the menaced violent disturbance at the present moment in the relative positions of all maritime commercial nations, but principally that of Great Britain, Russia and Germany. For when Japan, after defeating the forces of the Chinese Empire on land and on sea, would have annexed Korea, which was but a loosely attached foreign dependency of that empire, naturally much more suitable and convenient for the Japanese connection, it was Russia and Germany

that forbade the transaction. They forced China to refuse it, and to become liable, instead of that proposed cession, for the payment of a heavy war indemnity in money. The consequence, probably foreseen and calculated upon by the astute Imperial Government at St. Petersburg, has been the utter financial and administrative disorganisation of China, and her total helplessness just now to resist such acts of rapacity as the recent seizure of Kiao-Chan by the Germans, and of Port Arthur and Talien-Wan by the Russians, both of which are ports of the Yellow Sea directly opposite to Korea.

This is also the most effectual step to the Russian annexation of Korea, by which the entire control of the Yellow Sea, with direct rule over all its coasts, would be divided between the Russian and German Empires. Peking, the capital of the Chinese Empire, within a few days' march of the northern frontier, and approached from the sea only by the Gulf of Pechili and the Peiho river up to Tientsin, would fall under Russian dictation and domination; the Emperor of China becoming, like the Grand Mogul of India at Delhi in a past time, and as the Grand Turk of Constantinople may be hereafter, the mere instrument of a foreign Power. It is tolerably certain that such a political transformation would be immediately followed by the sudden breaking-off from that sovereignty, which belongs to the Manchu Tartar dynasty at Peking, of more than three-fourths of its dominions.



THE FAR EAST: SKETCHES IN KOREA.
By W. G. Littlejohns, R.N., and F. J. Rothkrug, R.N.

극동 한국 스케치

한국 기행

한국에 온
영국 군대:
서울에 있는
해병대와 함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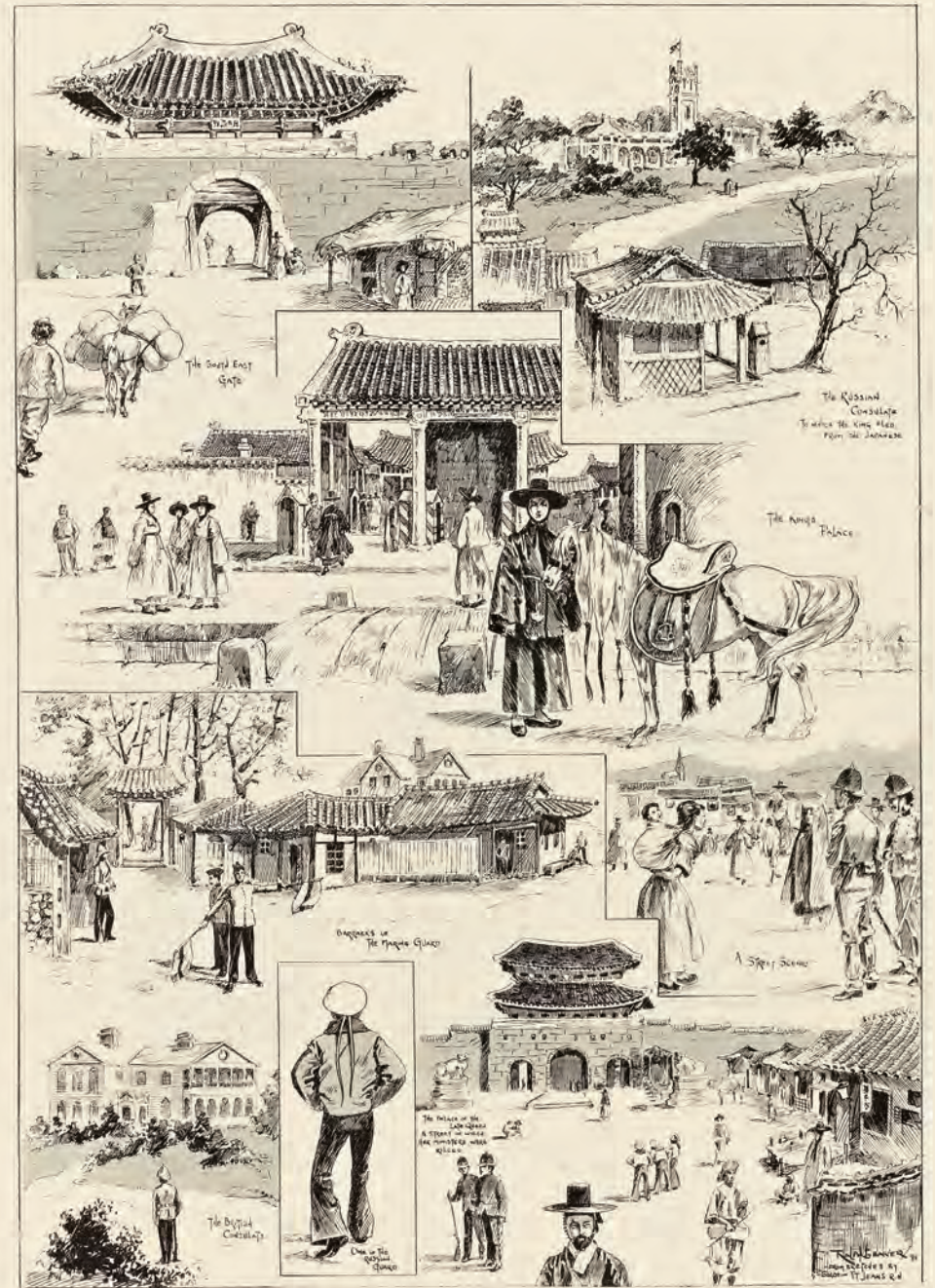
30

The Illustrated
London News

1898. 03. 19.
p.398

더 일러스트레이티드 런던 뉴스
영국

구9840
39.7×28.0



BRITISH TROOPS IN KOREA - WITH THE MARINE AT SEOUL.
Illustrated by William F. F. (drawing by A. B. M. in "Illustration")

조선

미 해군 경리감, 유스터스 B. 로저스

“청일전쟁의 서막이 올라 작은 ‘은둔의 나라’ 조선은 이제 전쟁터가 될 것이고, 이전에도 그랬듯이 다시금 조선의 이해관계와는 아무 상관없는 무력 충돌로 영토는 황폐해지고 백성은 고통에 신음할 것이다.”

과거 영광의 흔적은 거의 사라진 가난하고 황폐한 조선이 수 세기 동안의 깊은 잠에서 깨어나 이제 막 눈을 비비고 있다. 잠에서 깨어난 조선은 지리적 요지에 위치하여 불현듯 유명해졌으나 고유의 유산으로는 관심을 끌어본 적이 없다. 이제 이곳에서 동방을 예의 주시해왔던 이들이 오래전부터 예견한 일들이 일어나려고 한다.

청일전쟁의 서막이 올라 작은 ‘은둔의 나라’ 조선은 이제 전쟁터가 될 것이고, 이전에도 그랬듯이 다시금 조선의 이해관계와는 아무 상관없는 무력 충돌로 영토는 황폐해지고 백성은 고통에 신음할 것이다. 아

Harper’s Weekly	1894. 08. 04. p.727
하퍼스 위클리	
미국	구9757
	40.6×28.0

직 예단하기에는 너무 이른 이 드라마에서 조선은 과연 무슨 역할을 할 것인가, 기껏해야 조연에 불과하겠지만 말이다.

1871년 미국 해군이 탐측 활동 중에 전장에서 조선인의 용기와 강인함을 목도한 적이 있었다(신미양요). 현재 조선 군대의 수는 미미한 5,000여 명에 불과하며, 미국인의 훈련과 명령을 받고 있다.¹ 아직 전투력은 시험해보지 못하였다. 조선은 가난하고, 해군이 없으며 도시는 무방비 상태이다. 공공 교육은 존재하지 않는다. 양반은 중국 고전의 글귀를 줄줄 외다. 선교사는 분명히 많은 일을 하여 성과를 내긴 하였지만, 그들에게 주어진 시간이 너무 짧았고, 조선인들의 정서에는 뿌리 깊은 미신과 우상 숭배와 함께 불교가 깊이 자리 잡고 있다.

그렇다고 조선인이 어떤 특정 종교에 신실한 믿음을 보이는 것은 아니다. 언어와 인종의 측면에서 조선인은 중국인보다는 일본인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조선의 문명, 문헌－현재 시점으로－, 글자와 문화는 예전 중국에서 왔고, 수 세기 전에 일본으로 자유롭게 전해졌다. 조선의 정치, 사회법, 관습은 일본과 중국과는 상이하다.

조선의 무역도 이렇다 할 것은 아직 없다. 외국 상인의 말을 들어보면, 일부 조선인은 상당한 부를 누리고는 있지만, 대부분은 추측에 불과하다.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동전은 구리나 놋쇠 혹은 아연 등으로 만든 ‘엽전’으로, 그 가치는 멕시코 달러의 1,000분의 1에 해당한다. 엽전 한가운데에는 정사각형의 구멍이 있는데, 여기를 줄로 꿰어 잇는다. 들리는 바에 따르면, 조선에서 여행을 떠나려면 엽전을 싣고 다닐 말을 따로 한 필 더 구해야 한다고 한다.

조선의 서울에서 의료 선교사로 활동하는 스크랜턴 박사의 말에 따르면, 한번은 조선 조정에 1,800 멕시코 달러－당시 미화 1,440달러의 가치－를 팔고 장로교 선교 활동에 필요한 조선의 ‘엽전’을 받았는데, 엽전을 조선의 통리기무아문에서 선교사의 집으로 옮기느라 56명의 장정이 필요했다고 한다. 이 엽전이 조선에서 유일하게 발행되는 화폐로, 이를 통해 조선인이 얼마나 가난한지 그리고 상업이 얼마나 제한적인지를 엿볼 수 있다. 정부 차원의 큰 거래에서는 사금과 금괴가 사용된다.

조선의 일반 백성의 삶은 노예의 삶과 다를 게 없다. 조선 남부 지방에서 발생한 최근의 반란(동학농민운동)은 점차 전국으로 번지고 있는데,

그 성격이 정치적이라기보다는 고통에 신음하는 민중의 봉기로서 무자비한 조정의 폭정에 반기를 든 것이다.

조선의 마을은 일반적으로 가난하고 위생 상태가 불결하다. 마을 대부분은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이 성벽은 군사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서울이라고 불리는 조선의 수도는 서쪽 연안과 가까우며, 서해 바다에서 약 30마일(약 48킬로미터) 정도 떨어져 있다. 인구는 약 15만 명에서 20만 명으로 추정된다. 도성을 둘러싼 성벽은 한때 튼튼하게 수도를 지켰으며, 지금도 분명히 그러리라고 무지한 민중은 생각하겠지만, 사실 성벽의 여기저기가 조금씩 허물어지고 부서져서 군사용으로 역할을 하기에는 역부족이고 근대 대포의 공격에는 무용지물이라 할 수 있다.

조선의 건축은 다소 조악하지만 도성에는 경복궁, 왕비의 연회장(경희루), 왕의 알현실 등 몇몇 주요 건물이 있다. 조선 도성 안의 도로는 좁고 매우 구불구불하다. 도시 주변은 주로 산악 지형이다. 제물포는 도성의 항구도시로 서쪽 연안에 위치하며 서울에서 약 30마일 떨어져 있다. 제물포항은 입지가 상당히 좋아서 일본군 군사 작전 기지와 외국 군함 정박지로 사용될 것이다. 제물포는 대부분의 외국 상선들의 중심지이다.

^[1] 1888년(고종 25) 2월 군사 교련 교사 미 육군 소장 다이(William McEntyre Dye), 대좌 커민스(E. H. Cummins), 소좌 리(J. G. Lee) 등과 일본의 미국 영사관에 근무하던 닌스테드(F. J. H. Nienstead) 등이 조선에 들어와 연무공원에서 사관을 양성하였다. 연무공원은 1894년(고종 31) 7월 일본군이 경복궁을 점령한 이후 무장 해제를 당했다

KOREA.

Poor and forlorn, with little remaining to tell of her former glories, still rubbing her eyes after a sleep of centuries, Korea has awakened to find herself famous, to discover that her geographical position has invested her with an importance that her native merit would never have brought her, and what observers of Eastern events have long foreseen has now come to pass. War is inaugurated between China and Japan : the little “ Hermit Nation ” will be the battleground, and will suffer again, as she has in former times, from the desolation of an armed conflict which only remotely interests her. What part she will herself play in the drama it is yet too soon to determine, but at best it must be a minor one. The United States naval officers who led the expedition against Korea in 1871 bear witness to the bravery and tenacity of the Koreans in battle, but at present their army is very small, only 5000 men, and, though trained and commanded by Americans, its fighting qualities are still untested. The nation is poor, it has no navy, and its cities are defenceless.

There is no popular education. The higher classes are well versed in the Chinese classics. The missionaries have doubtless accomplished some good, but the time has been too short, and the minds of the people so densely steeped in a low form of Buddhism, mixed up with all manner of superstition and pure paganism, as to be almost without any true religious feeling. In language and race the Korean people are more nearly allied to the Japanese than to the Chinese. Their civilization, literature (such as it is), written characters, and culture came in remote times from the great Middle Kingdom, and were freely deeded to Japan centuries since. In politics, social laws, and customs Korea differs from both her neighbors.

The trade of the country is still insignificant. Foreign merchants have expressed the opinion that there is plenty of wealth in the hands of the people, but this is largely conjecture. The coin of the common people is the copper or brass “ cash ” or sapek, valued at the rate of about one thousand to the Mexican dollar. These little coins have a square hole in the centre, and are strung on cords of straw, and it is said that when a traveller makes a journey of any length into the interior he must take along an extra horse to carry

his money. The writer was told by Dr. Scranton, a medical missionary resident in the capital, of his having on one occasion sold to the Korean government eighteen hundred Mexican dollars (worth at that time \$1440 United States gold), receiving in exchange “ cash ” for the use of the Presbyterian mission, and that it required the services of fifty-six stout men to carry his purchase from the Korean Treasury to the mission-house.

These sapeks are the only money coined and current in Korea, which shows a poor people and a limited trade. In the larger transactions of the government, gold -dust and bullion are employed.

The condition of the people is scarcely above that of serfs; indeed, the recent rebellion in the southern provinces, out of which has grown the present war, was not political in its character, but an uprising of a suffering people against a tyrannical and cruel governor.

The towns are generally poor and squalid, though many of them are walled, and have been important military centres. Seoul, or Soûl, the capital, is near the west coast, about thirty miles from the sea. Its population is variously estimated at from 150,000 to 200,000 people. Its heavy walls were once formidable, and doubtless are considered so yet by an ignorant populace, but they are crumbling and broken, inadequately armed, and useless as a protection against modern artillery.

As the architecture of Korea is rather poor, there are but few buildings of importance in the capital, the Palace, the Queen's Pavilion, and the Audience Hall being the principal ones.

The streets of Seoul are narrow and very crooked. The country roundabout the city is very mountainous.

Chemulpo, the seaport of the capital, is on the west coast, thirty miles distant. It has a fairly good harbor, and will be the base of Japanese operations and the anchorage for the foreign ships of war. The bulk of the foreign commerce centres there.

EUSTACE B. ROGERS, Paymaster, United States Navy.

말 타고 한국 유람

W. H. 잭슨¹

저자가 찍은 사진을 삽화로 그림

“경관은 다양하고 낭만적이었다. 산맥은 선이 굵어 아름답고 섬세한 푸른색과 보라색을 띤다. 심지어 인적이 드문 곳의 작은 집들조차 만듦새는 조악하고 사용된 자재도 지저분하지만 그 자체로 아름답지 않은 것이 없었다.”

제물포항은 은둔 왕국의 남쪽 관문이기도 하고 한국의 수도와 가장 가깝다는 접근성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주요 항구라 볼 수 있다. 그 주변은 경관이 그림 같아 매력적이지만 항구로서는 훌륭하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울퉁불퉁하고 야트막한 섬들이 제물포만에 흠어져 있고, 입구에는 집들이 한 줄로 늘어서 제물포항을 둘러싸고 있으며, 제물포항과 서울 사이에 있는 언덕은 완만한 푸른 산마루로 감싸져 있다. 정박지는 연안에서 약 3마일(약 4.8킬로미터) 떨어져 있는데 조수차가 28피트(약 8미터)로 커서 접근이 쉽지 않다. 이런 이유로 순수하게 경

Harper’s Weekly 1898. 01. 15.
pp.59~61

하퍼스 위클리

미국

구9763
39.8×28.0

관은 상당히 아름답지만, 제물포항을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기에는 어렵다.

제물포로 들어서자, 듣기에 별로 좋지 않은 상당히 시끄러운 소음이 우리를 반겼다. 돛단배이지만 삼판²과는 다른 원시적인 형태의 배 위에 별다른 특징이 없는 선원들 무리가 승선해 있었다. 이들은 한국인·일본인·중국인들로 우리 배를 둘러싸며 연안 사용료를 요구하였다. 이들 중에서도 일본인은 언제나 적극적으로 행동하며 가장 눈에 띄고 힘이 넘쳐 보였지만, 토착민인 한국인들은 확실히 최근 보호자인 일본 인과의 경쟁에서 이길 기회가 적어 보였다. 이 보호자는 거들먹거리는 한국인이 있으면 샷대로 머리카 어깨를 때리며 우선권을 주장하는 데 거리낌이 없었다. 그의 압도적인 큰 목소리에 못 이겨 일본인 뱃사공의 배에 몸을 싣고 짐을 맡겼다.

구불구불한 항해가 이어지는 지루한 여정을 마치자 긴 잭빛의 진흙 강둑이 이어졌다. 그리고 수많은 연안 무역선이 썰물에 고립되어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탄 배는 마침내 돌로 된 부두를 찾아 편안히 배를 댈 수 있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선원들과 먼저 합의를 봐야 하는데, 이들은 대가로 10엔을 요구하면서 우리 짐을 강제로 잡고 큰 목소리로 위협하였다. 나의 일본인 친구가 중재해준 덕분에 2엔에 짐을 내려주기로 합의하였다. 돈을 지불하고 난 뒤에야 우리가 알던 미소를 잘 짓는 동양인으로 돌아왔다.

제물포의 부두는 활발한 상업의 중심지로 중국인 혹은 일본인 상인의 지시를 받는 한국인 짐꾼들이 여러 작은 선박의 짐을 열심히 싣고 내렸다. 중국인과 일본인들이 매우 정력적으로 요란하게 짐꾼들을 관리 감독하였다. 승리자의 마음가짐이 이 상황을 잘 보여준다. 한 예로 활발한 일본인이 이웃한 나라의 한국인과 계약을 할 때 잘 드러난다. 대부분 이방인인 일본인이 명령을 내리고 토착민인 한국인이 명령을 수행한다. 짐을 나르는 일은 한국인에게 잘 맞는 듯 보였는데, 머리가 둔해서 별다른 요구를 하지 않는 짐승처럼, 조건만 적당히 맞으면 어마어마한 크기의 짐을 두 명에서 드는 한국인 짐꾼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제물포라는 작은 마을은 미국 남부에 있는 많은 작은 항구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거의 특징이 없다. 이 항구는 주로 일본인이 만들었는

데 실용적인 단순성이 특징이다. 여기서 다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네모난 벽돌집들은 장식성이 거의 없고, 단지 수출품인 쌀·수수 등의 농산물을 저장하는 용도로 주로 사용한다. 이곳에는 비슷비슷한 수의 한국인·일본인·중국인이 살고 있는데, 일본인과 중국인은 거의 대부분 상인이나 주인이고, 한국인은 대부분 짐꾼이나 노동자들이다. 많은 이가 한국인은 느려 터졌다고 조연을 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제물포에서 수도인 서울을 거쳐 원산으로 가겠다는 결정을 하였다. 조연자들은 내가 예정대로 블라디보스토크행 기차를 타려면, 육로를 통해 북부의 원산항까지 족히 약 200마일(약 322킬로미터)에 달하는 거리를 옛새 안에 가야 하는데 이는 불가능하다고 말하였다. 분명 상당히 위험했지만, 그래도 최근에 세국정책으로 은둔하고 있는 한국과 한국인들을 직접 보고 싶다는 열망이 훨씬 더 컸기 때문에 위험을 무릅쓰기로 결정하였다.

여정을 시작하려면, 먼저 여러 가지 필요한 것을 마련해야 하였고 때문에 수완 좋은 중국 상인에게 연락하였다. 덕분에 탈 말과 짐을 싣을 안장이 있는 조랑말과 한국의 수도까지 시중두고 길을 안내할 마부 두 명을 구하였다. 여정의 거리는 26마일(약 41킬로미터)로 여비는 미화 270달러에 해당하는 3.20엔으로 정하였다. 이 정도의 금액은 그리 큰 돈은 아니지만 예전 좋은 시절에 비하면 서너 배 높은 가격이었다. 예전에는 한국 돈으로 지불하였고 귀중품을 싣을 조랑말 한 마리가 추가로 제공되었을 것이다. ‘햇살이 좋다’는 말로는 표현이 부족한 9월 25일 아침, 중국 상인의 도움으로 긴장해 보이는 두 명의 한국인 마부와 그 옆에 더 볼품없어 보이는 조랑말을 만날 수 있었다. 이제 출발 준비가 되었다. 내가 타고 갈 말은 색달라 보이는 털이 덩수룩하였으며, 낡은 안장이 채워져 있고 짐들이 이미 높게 실려 있어 한편으로는 위험해 보였다. 과연 이 말들이 앞으로의 여정을 온전히 견뎌낼 수 있을 까라는 의심이 들었다. 심지어 말에 올라탔을 때, 내가 신중하지 못한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마저 들었다. 일면식도 없는 한국인들과 이 말과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내가 하려는 일들까지도 의심스러울 정도였다. 그러나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점을 상기하고, 말에 탄 채로 내가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한국말 한마디를 나의 동반자들에게 던졌다. 그것은 바로 ‘서울’이라는 단어였고, 내 마부는 정확히 알아들었다는 듯 고개를 끄덕여 답을 하였다. 그리고 우리는 출발하였다.

일본인 거류지에는 다니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 텅 빈 거리를 지나다가 법과 질서를 상징하듯 군모를 쓰고 긴 칼을 들고 서 있는 일본인 경찰관 한 명을 보았다. 외국인 거류지를 통과하고 나서야 한국인 마을의 특징인 초가지붕을 올린 흙집들이 좁은 골목을 따라 줄지어 있는 거리가 나타났다.

여정 중에 많은 한국인의 삶을 엿볼 수 있었다. 시장에 내다 팔 큰 짐을 이고 지고 마을로 가는 남자와 여자의 모습, 빈 지게를 등에 진 짐

꾼들이 길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주막에서 급히 아침을 먹는 모습 등을 볼 수 있었다.

한국은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조잡한 가마를 제외하면 운송 수단이 거의 없는 유일한 나라였다. 바퀴 달린 탈거리를 들여오긴 하였지만, 도로가 평탄하지 않아 전연 도움이 되지 못하였다. 제물포에서 서울까지의 도로는 길이 아닌 거친 통로에 불과하다. 예전에 만들어진 도로라고 해봐야 논밭 사이로 눈에 물 대는 도랑을 따라 난 구불구불한 길이 고, 끝없이 이어지는 언덕길에 불과하였다.

경관은 다양하고 낭만적이었다. 산맥은 선이 굵어 아름답고 섬세한 푸른색과 보라색을 띤다. 심지어 인적이 드문 곳의 작은 집들조차 만듦새는 조악하고 사용된 자재도 지저분하지만 그 자체로 아름답지 않은 것이 없었다. 10시경에 어느 마을에 도착하였다.

이곳에도 사람과 말이 쉬면서 먹을 수 있는 곳이 있었다. 하나는 단정한 일본식 찻집이었다. 바로 옆에는 불결하고 지저분해 보이는 한국 주막이 서너 개 있었다. 망설임 없이 깨끗한 일본식 찻집을 골랐다. 나의 마부들은 한국 주막을 이용하였다. 작은 뜰의 반대편에 난 목초와 잘 깎인 잡초를 조랑말에게 먹이고 쉬게 하거나 따뜻한 죽을 먹이기도 하였다.

여정을 다시 시작하여 모래더미가 있는 곳에 당도하였는데, 그곳이 한강의 경계를 이루는 곳이었다. 한강은 서울의 2~3마일(약 3~4킬로미터)을 흐르는 한국에서 가장 큰 강으로, 내가 도착한 지점까지는 작은 배들이 들어올 수 있다. 강어귀에서 약 50마일(약 80킬로미터)까지의 구간으로 서울까지 많은 교통량이 이런 식으로 이동한다. 홀수吃水³가 낮은 작은 증기선이 여객 수송용으로 띄워졌으나, 강가의 모래톱이 자주 이동하는 바람에 서울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알 수가 없다.

서울로 한 번에 가려면 접근성은 결코 매력적이라고 할 수 없다. 대개 원시적으로 노를 젓는 나룻배를 타고 한강을 건너 서울의 대문 근처까지 간다. 한강과 서울 사이의 거리는 약 3마일(약 4.8킬로미터)이다. 우리가 서울의 대문에 다다르기 전까지 폭넓은 교외 지역을 관통하는 불결하고 구불구불한 길을 거슬러 가야 하였다. 서울의 대문과 성벽은 다른 것들과 마찬가지로 상대적이었다. 베이징과 비교하면, 그저 규모가 작고 조악한 모사품과 같은 느낌이다. 비록 크기는 작아도, 보는 이에게 놀라움을 느끼게 하였다.

운 좋게도, 친절하게 여러 편의를 봐준 미국 대리공사 알렌을 만날 수 있었다. 그는 영사가 부재한 중에, 내가 여정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것을 마련해 주었다. 알렌 공사는 전보를 통해서 나의 여정에 대해 알고 있었고, 내가 도착하기 전에 서울에서의 여흥을 비롯한 여권 등 여행에 필요한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우리는 오후 3시가 넘어서 서울에 도착하였다. 새로운 친구와 친숙해질 때쯤 되니 서울과 ‘친숙해질’ 시간이 부족하였다. 나는 지체할 수가

없이 알렌 대사의 관용 평교자를 빌려서 서울을 탐색하였다. 평교자는 네 명의 긴장한 제복을 입은 가마꾼이 메고 다녔다. 그들이 오랫동안 싫어하던 외국인들이 만든 해외 공관과 한두 개의 건물을 제외하고는 서울의 모습은 한국인을 닮은 좁고 더러운 오두막, 먼지 더미, 빈민가와 짚으로 이은 집, 좁고 고르지 못한 도로의 집합보다 크게 나은 것이 없었다.

서울은 사실상 여러 마을로 이루어졌는데, 약 8만 호와 총 40만 명의 인구로 구성되어 있으며, 단조롭고 우울해 보이는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 서울은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고, 언덕과 구릉이 무심한 듯 서울의 약 12제곱마일(약 31제곱킬로미터)을 에워싸고 있다.

서울의 서쪽은 어쩐지 허풍스러운 벽과 대문으로 가로막혀 있고, 인접한 도시보다 높은 땅에는 유서 깊은 궁궐이 자리 잡고 있다. 우리는 민간인이 다니는 통로로 궁궐에 들어갈 수 있었다. 외국식 군복을 입었지만, 여전히 머리는 땅아 늘어뜨리고 짚신을 신은 몇몇 군인이 지키고 있었다.

여기에서 우리는 내부대신(남정철)을 만났다. 그는 30여 명의 수행원을 대동하여 우리를 수수한 전각으로 안내하였다. 내부 직원들이 근무하는 곳인 듯하였고, 따뜻한 삼페인과 달콤한 케이크, 시가 등으로 융숭하게 대접해 주었다. 한국의 왕실에서 귀빈을 이렇게 접대하는 듯하였다. 알렌 박사와 나는, 사전에 특별한 조정은 없었지만 우리를 만나고자 하는 왕의 알현을 기다리는 동안 알현실과 경복궁의 흥미로운 곳곳을 사진 찍을 수 있었다. 전각은 대부분 매력적이지 않았다. 많은 전각이 궁 전체에 흩어져 있었고 연못과 꽃이 있는 정원으로 궁궐을 장식하고 있었다. 대체로 궁은 단층 건물이었으며, 장식적인 조각을 제외하면 왕족이 사는 곳임을 드러내는 위엄은 그다지 보이지 않았다.

마침내 왕의 알현을 알리는 전갈을 받고, 통역관이기도 한 내시가 우리를 단층으로 된 목조 전각으로 안내하였다. 건물 앞 계단을 오르고 나서 내시는 문턱에 서서 낮게 절한 후, 무릎을 꿇고 건물을 향해 기면서 이따금씩 머리를 바닥에 댔다. 우리는 오른쪽으로 돌아 한국의 왕이 있는 곳까지 내시를 따라갔다. 몇 번 절을 한 뒤 우리는 6~8피트(약 180~240센티미터) 정도까지 가까이 갔다.

왕은 밝은 색 천으로 덮인 탁자를 앞에 두고 앉아 있었는데, 탁자 위에 있는 두 개의 등유 램프가 방 전체를 비추고 있었다. 왕은 키가 큰 내시들 옆이라 오히려 왜소해 보였으나, 우리가 대화를 시작하자마자 왕의 얼굴은 흥미와 지적 호기심으로 밝아졌다. 몇 개의 장신구와 함께 짙은 색의 소재로 만든 평복을 입고 있었다.

통역관을 통해서 많은 질문을 하였는데, 특히 한국에 좋은 인상을 받았는지 궁금해 하는 듯하였다. 왕은 다른 나라에 비해 영사 업무의 비중이 크지 않은 것을 염려하며, 나에게 영향력을 발휘해 이를 개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특히 알렌 대리공사를 좋아하는 것 같았다. 그가

공사로 임명되게 해줄 것을 부탁하였다.

함께 배석한 세자는 얼굴이 둥글고 졸려 보이는 젊은 남자였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세자에게 소개되었다. 그는 오가는 어떤 이야기에든 흥미가 없어 보였으며, 단답형의 대답 외에는 어떤 말도 하지 않거나 짧게 대답하였다. 특별해 보이는 것은 없었다. 우리는 최대한 공손하게 왕을 알현한 후 절을 세 번 한 뒤에 뒷걸음으로 걸어 나왔다. 알현실 옆의 전각에서 다과를 즐기는 사이에 박은 꽤 어두워졌다. 신료 한 사람과 무장한 12명의 경비가 우리를 미국 영사관으로 안내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경비들은 푸른색과 흰 천으로 짠 호룡을 들고 있었다. 어떤 호룡은 4피트(약 122센티미터) 정도의 막대 끝에 달려 있었는데 초 하나가 불을 밝혔다. 그렇게 밝은 빛은 아니었지만 많은 도랑과 진흙 구덩이를 피할 수 있었다. 호룡이 없었으면 정말로 위험했을 수도 있었다.

남은 여정 동안 도와줄 안내자와 잡역부를 알렌 박사로부터 소개받았다. ‘박’으로 더 잘 알려진, 박내원이라는 한국인이었다. 선교학교 출신이었지만, 지성과 열정을 제외하면 모든 면에서 박은 대체로 교회와는 관련 없는 인사로 봐도 무방하였다. 내 생각에 자신의 직위를 활용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듯하였지만, 그럼에도 내 여정에서는 꽤 만족스러운 역할을 해줬다. 일상에서 의사소통이 이뤄지면서 그는 어떤 사람보다도 나와 잘 맞았다.

이튿날 아침 해가 뜨자마자, 박은 떠날 준비를 모두 마친 상태였다. 두 명의 마부는 조랑말에 짐을 싣고 출발한 상태였다. 박은 나와 함께 남아 더 많은 사진을 찍은 뒤에 세 번째 마부를 따라갈 참이었다. 출발하기 전에, 왕이 하사한 선물을 가지고 온 전령이 도착하였다. 선물은 호랑이 가죽, 은상자 등 다양한 물건들이었다. 가뜩이나 많은 마부의 짐에 왕의 선물이 더해졌고, 그 상태로 앞서간 조랑말을 따라잡을 때까지 20마일(약 32킬로미터)을 가야 했다.

우리가 서울을 떠날 때 택한 길은 서울을 남북으로 가르는 큰길이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 서울이 자랑할 만한 두 개의 큰길 중 하나이다. 수직으로 만나는 또 다른 큰길의 끝에는 궁의 대문(궐화문)이 있었다. 길의 폭은 넓었으나, 길을 가는 내내 보이는 풍경은 거의 비슷하여 가난하고 더러워 보이는 지푸라기와 진흙으로 지은 초가집이 즐비하였다. 우리는 북쪽의 문(홍지문)으로 서울을 떠났다. 아쉬움은 거의 없었다. 가는 도중 더러워 보이는 작은 마을이 길게 이어져 있는 모습을 보았고 끝도 없이 이어지는 사람, 말, 당나귀 행렬도 만났다. 사람이나 동물이나 할 것 없이 땀감·건초·소금 등 대도시의 일상에서 필요한 물건을 이거나 지고 있었다. 길에서 바퀴가 달린 수레는 보지 못했다. 박이 왕의 마구간에서 좋은 말을 가져온 덕분에 제물포에서 서울로 올 때보다 더 좋은 말을 타게 되었지만, 여전히 작은 조랑말에 불과하였다. 크기는 세틀랜드 품종과 비슷하였는데 외모나 품질도 마찬가지로였다.

박의 도움으로 우리 여정은 마치 왕의 행차같이 되었다. 그는 내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떠벌리고 나의 지위를 주저 없이 활용하여 원하는 것을 얻어 왔다. 물건을 이렇게 공수하는 것은 아마도 관습인 것 같았다. 왜냐하면 내가 관찰한 결과 박이 무엇인가를 요구하면, 심지어 박이 막대기를 휘두르며 강요를 해도 아무도 어떤 식으로든 저항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밤이 되면 우리는 마을에 묵었다. 박은 찬찬히 마을을 돌아본 후 가장 좋은 집을 선택하였고, 그중 가장 좋은 방을 골라서 청소를 시작하였다. 또한 그 집에서 가장 좋은 가구·방식·갈래 등을 모았고, 만약 부족한 것이 있으면 지체 없이 다른 집을 뒤져서 필요한 것을 충분히 마련하였다. 그런 식으로 우리는 숙박에 필요한 것을 대체로 잘 충당했다. 그러고는 언제나 구할 수 있는 쌀을 끓여 밥을 하고, 내가 먹는 저장 고기와 다른 식재료를 조금씩 아껴가며 먹었다. 그는 식량이 늘 충분하도록 관리하였다. 집들은 정말로 대체적으로 단출하였으며 정말 더러웠다. 일반적으로 좁은 마당이 한쪽에 있고, 마구간과 외양간, 돼지우리가 다른 한쪽에 개방되어 있었다. 그 사이 공간은 사람과 동물이 같이 사용하였다.

서울과 원산 중간 지점에서는 어느 지방관의 대접을 받았다. 그는 참으로 쾌활한 성정을 지닌 노인으로 가진 것 중에서 최고의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대접해 주었고, 나는 라이 위스키로 답례하였다. 그는 거의 다 허물어져가는 한국식 사랑채에서 묵고 가라고 권하였을 뿐만 아니라, 아침에는 무장한 병사와 악대를 동반한 호위대를 대동하게 해주었다. 악대는 끔찍하게 뻑뻑 소리를 내며 길을 냈다. 마지막으로 내가 떠나기 전에는 점심 식사를 대접해 주었다. 악대는 뻑뻑거리는 쾅음을 내면서 오랫동안 우리를 배웅하였다.

유랑의 후반부에는 한국이 더욱 다양하고 매력적으로 느껴졌다. 언덕에는 짙은 녹색의 목초가 웅단처럼 깔렸다. 사실 한국은 언덕과 골짜기의 연속인데, 골짜기마다 논으로 가득하였다. 원산에 도착하기 전, 20마일의 여정 동안 쌀과 수수가 잘 익은 넓은 논밭에 다다랐다. 원산의 입구에서부터는 제멋대로 뻗은 도로가 이어졌다. 원산은 작은 개울을 사이에 두고 놀랍게도 일본 마을과 나뉘어 있었다. 일본 마을은 북적이고 활동적이었다. 그 모습은 한국의 미래가 일본과 함께할 때 가장 희망적이라는 믿음을 다시금 확신시켜 주었다.

1 미국의 사진작가이다. **2** 중국 및 동남아시아 지방의 연안·항내(港內)·하천 등에서 사용하는 3~4미터 길이의 갑판 없는 작은 배이다. **3** 배가 물 위에 떠 있을 때 물에 잠겨 있는 부분의 깊이를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수면에서 배의 최하부까지의 수직 거리를 이른다.

JANUARY 16, 1906.

HARPER'S WEEKLY

59



01 JAPANESE INN AT VILLAGE HALF-WAY FROM CHEMULPO TO SEOUL.



02 MY MAPONS AND PONIES ON THE TRIP FROM CHEMULPO TO SEOUL.

ACROSS KOREA ON HORSEBACK.

BY W. H. JACKSON.—ILLUSTRATED FROM PHOTOGRAPHS TAKEN BY THE AUTHOR.

THE harbor of Chemulpo may be looked on as the southern gateway of the Hermit Kingdom, and as it affords the nearest access to the capital, it is also in some respects the chief one. The approach is picturesque and attractive, although as a harbor it cannot be said to improve upon acquaintance. Abrupt and hilly islands are sown broadcast over the bay, at the head of which the beach is fringed by the narrow line of the houses that form the town, hemmed in by the soft blue ridges of serrated hills that lie between the port and the capital. The anchorage is some three miles from the shore, which is difficult of approach, owing to the twenty-eight feet of tidal rise and fall, which will probably always render the harbor as inferior for commercial purposes as it now is from a purely picturesque point of view.

Our welcome to Chemulpo was vociferous if not musical. A fleet of sampans and other primitive shore boats, manned by a nondescript crowd of boatmen—Korean, Japanese, and Chinese—surrounded our vessel and claimed our custom as fares for the shore. Of these the all-pervading and pushful Jap was the most conspicuous and energetic, the sons of the soil having evidently little chance in competition with his recent protector, who never hesitated to enforce his claims to precedence by the vigorous use of his pole on the head or shoulders of a too officious native rival. Yielding to his superior assertiveness, we committed ourselves and baggage to a Jap boatman, and after a tedious passage by a winding channel, which wound its way between long stretches of black mud banks, on which were stranded a number of coasting craft left high and dry by the receding tide, we found our way at last to a stone wharf, on which it was possible to land in comfort. To do so, however, it was necessary first to settle with our boatmen, who demanded ten yen for their services, and proceeded to enforce the claim by loud threats of seizing and impounding my baggage. Our different estimates were finally reconciled by my Japanese friends agreeing to accept two yen in full discharge, and upon payment being made on the reduced scale, they became once more the smiling Orientals of our common experience.



04 A KOREAN GENTLEMAN ON THE ROAD FROM CHEMULPO TO SEOUL.

The wharf at Chemulpo was the centre of a brisk business, where Korean porters were actively engaged in loading and unloading a number of small vessels under the directions of the Chinese and Japanese merchants, who superintended operations with much energy and no little noise. The triumph of mind over matter finds an apt illustration, wherever the active little Jap comes into contact with his Korean neighbor, for in all cases it is the stranger who gives the orders, and the son of the soil who has the task of carrying them out. The rôle of a beast of burden is one which seems to suit the Korean well, perhaps because it makes little demand upon his somewhat sluggish intelligence, and I found no difficulty in securing on reasonable terms two men who carried all I had with me, which formed a load for each of formidable dimensions.

The little town of Chemulpo possesses few features to distinguish it from many a little seaport in our own Southern States. It is almost entirely a creation of the Japanese, and its features are characterized by utilitarian simplicity. Square houses of brick, with no attempt at ornament, serve all purposes here, but, as a rule, the purpose seems to be that of storing large quantities of rice, millet, and other natural products of the country awaiting export. The inhabitants seem to be Korean, Japanese, and Chinese in about equal numbers, the latter two being in all cases

the merchants and masters, the first being always the porters and laborers.

I had made up my mind to undertake the journey from Chemulpo to Wonsan by way of Seoul, the capital, in spite of a good deal of advice to the contrary from those who, knowing the difficulty of getting a Korean out of his ac-

customed pace, did not believe it possible to accomplish the journey overland to the northern seaport, a distance of two hundred miles within the six days which were all I had at my disposal if I meant to catch the steamer on its way to Vladivostok. The risk was evidently considerable, but the temptation was great to see something of the land and people of the lately secluded nation at home, and in the end I determined to risk it. Having done so, the next step was to call in a Chinese merchant, who, like many of his race, had the character of being a capable organizer, and by his prompt exertions I soon found myself provided with the necessary pony for myself, pack-saddle for my baggage, and two mapons for attendants and guides as far as the capital. The distance was twenty-six miles, and the charge agreed upon was 3.20 yen—equivalent to about \$2.70 in our money. This sum, although it sounds moderate, represents an advance of from three to four times what it would have been in the good old days of exclusion, when payment was made in "cash," and the services of an extra pony would have been required to carry the treasury.

Thanks to my Chinese merchant, it was hardly more than good daylight on the morning of September 25 when I found my attendant mapons—two stalwart-looking young Koreans, who made the diminutive ponies look small indeed—ready to start. My travelling steed was a singular-looking, shaggy little beast, equipped with a very aged saddle, and from his appearance and that of his companion, who was already loaded up with my baggage to a height that looked dangerous, no one unacquainted with the Korean pony could have expected to find them fully equal to the task before them. Even as I mounted I felt a doubt whether I was acting the part of prudence in thus committing myself to unknown men, horses, and country, but reflecting that I had practically burnt my boats, I mounted, and addressing to my companions the single Korean word of which I was master, namely, Seoul, which was answered by a comprehensive nod, we started.

There was hardly a soul abroad in the Japanese town as we rode through the deserted streets, a solitary Jap policeman in a helmet and big sword representing law and order, until we found ourselves outside the foreign settlement and travelling along the narrow lane bordered with straw-thatched mud houses which marked the Korean town.

Here there was plenty of life. Both men and women, loaded with huge bundles of market produce, were making their way to the town, while crowds of porters with empty racks strapped on their backs were snatching a

01 제물포에서 서울로 가는 길 중간의 일본식 여관

02 제물포에서 서울로 가는 길에 마부와 조랑말

03 서울 근처의 한강을 건너는 배 - 안장을 얹은 조랑말과 마부 그리고 해외로 가는 짐

04 제물포에서 서울로 가는 길에 만난 한국의 양반

01 서울에서 원산까지 가는 길에 한국의 조랑말을 타고 있는 W. H. 잭슨

02 한국인 안내자와 하인이 길가 여관에서 식사를 준비하는 모습

03 시장으로 짐을 싣고 가는 짐꾼이 사진 찍으려고 앉은 모습

04 동부와 서부 해안을 가르는 산골마을 - 호랑이와 다른 야생동물이 근처에서 자주 출몰함

05 '박'이 한국인 집에서 채소를 흥정하는 모습

60

HARPER'S WEEKLY



01 W. H. JACKSON, ON A NATIVE PONY, EN ROUTE FROM SEOUL TO WONSAN.



02 NATIVE GUIDE AND A SERVANT PREPARING A REPAST AT A WAY-SIDE INN.

hasty breakfast at one or other of the way side houses of entertainment that abounded on every side.

Korea was, until the other day, almost the only country in which vehicles, with the single exception of a clumsy sort of Solan chair, were unknown. Even now the recent introduction of a few wheeled vehicles has done no-

spite of the rudeness of the construction of the houses and the sordid meanness of their material. About ten o'clock we reached a village, at which it was evidently the custom to rest and refresh both men and horses. Here there was a neat Jap tea-house, which looked clean and attractive beside the three or four native inns, which were certainly in comparison both squalid and dirty. I selected the tea-house inhesitatingly, while my mapons patronized one of the inns, where the ponies were accommodated on the opposite side of the little court-yard with a meal of grass and weeds chopped fine, boiled, and served up hot. Resuming our journey, we soon reached the sandy waste that borders the river Hau. This is the largest river in Korea, and as it flows within two or three miles of Seoul, and is navigable for small boats up to this point, which is about fifty miles from its mouth, much of the traffic of the city is transported in that way. A small steamer of light draught has even been put on for passenger traffic, but, owing to the shifting of the sand banks, it is never certain how long the trip to or from the capital may take.

The immediate approach to Seoul is by no means imposing. A primitive-looking scow propelled by oars is the regular means by which the royal highway crosses the river as it nears the great gate of the capital. Between the river and the city, a distance of nearly three miles, we travelled through the dirty and winning lanes of a squalid though extensive suburb, until we found ourselves at last before the great entrance. The greatness of gate and wall is, like most other things, only comparative. They are like small and rude imitations of those of Peking; but, in spite of their reduced size, they strike the observer in the same way. I was very fortunate in finding Dr. Allen, the American chargé d'affaires, a kind and accommodating friend, who, in the absence of the consul,

thing for the roads, which are, even between the capital and its port, no better than rough tracks. The ancient highway winds among rice-fields, follows the course of a hundred irrigation ditches, and accommodates itself to the surface of the hilly country through which it passes. The views are varied and romantic; the mountain ranges are abrupt in outline, and beautiful in their delicate tints of blue and purple. Even the little hamlets that nestle in the hollows are not without a beauty of their own, in

did all that could possibly be done to further the purposes of my journey. The doctor had already learned of my trip by telegraph, and before I had arrived had made every preparation both for my entertainment at Seoul, and for expediting my journey by means of passports and otherwise.

We did not reach Seoul until three o'clock in the afternoon, and by the time I had made the acquaintance of my new friend there was little enough time in which to "do" the capital. My time, however, would not admit of delay, and with the aid of the doctor's official chairs, each borne by four sturdy bearers dressed in uniform, we proceeded to investigate the city. With the exception of the various foreign legations and one or two other buildings, which

is little better than a vast collection of huts, dirty, mean, straw-thatched, and bordering upon narrow, irregular streets, with two exceptions as narrow and dirty as themselves. The city, in fact, is but a collection of villages, and though it is said to contain about 80,000 of such houses, and a total population of about 400,000, it would be difficult to conceive of a more monotonous or depressing-looking hive of humanity. It is surrounded by a wall, which runs indifferently over the hills and hollows on which the city stands, and encloses a space of about twelve square miles.

On the western side of the city enclosure, and itself enclosed by still more pretentious walls and gates, is the palace with its grounds, lying on higher ground than the adjacent city. We were admitted into the palace enclosure through a private entrance, which was guarded by a few soldiers dressed in some foreign uniform, but still retaining their braided hair and sandalled feet. Here we were met by the minister of the household, with a retinue of some thirty followers, and invited into the unpretentious buildings that appear to serve as offices of the household, where we were regaled with warm champagne, sweet cakes, and cigars, which are evidently regarded as the proper entertainment for distinguished strangers in the royal palace at Seoul. While we were waiting the pleasure of the King, who had expressed a wish to receive Dr. Allen and myself without any special preparation, I proceeded, accompanied by the whole party, to photograph the great audience-hall, and several other of the most interesting places about the palace. The buildings are generally far from imposing, and many of them are scattered about over the palace-grounds, among the small lakes and flower gardens with which the place is adorned; indeed, as a rule, the royal dwellings are of a single story, and, with the exception of some attempts at ornamental carving, they have little about them to indicate their dignity as the abodes of royalty.

When at last a messenger summoned us to attend the King we were led by the chamberlain, who was also interpreter, up a short flight of steps to a one-story wooden building, where he stopped on the threshold and made a low obeisance, and then falling on his knees, proceeded to creep into the apartment, knocking his head from time to time

05 "PAK" NEGOTIATING FOR VEGETABLES AT A NATIVE HOUSE.

144
19세기 말~20세기 초 서양인이 본 한국

145
1890년대 -PART III

on the floor. We followed him, until, turning to the right, we found ourselves face to face with his Korean Majesty. Making several bows, we approached within six or eight feet of where he sat at a table covered with a bright-colored cloth, on which stood two kerosene lamps, which served to show us the whole party. The King is a small man, who looks insignificant enough beside his tall attendants, but as soon as the conversation began, his face lighted up with interest and intelligence. He was plainly dressed in some dark material, and wore few ornaments. He asked many questions through the interpreter, and seemed particularly anxious that we should have a good impression of Korea. He was much concerned that our consular service was not of so high a rank as that of some other countries, and begged me to use my influence to have this altered, and also to have Dr. Allen, who seemed a great favorite, appointed minister.

The Crown-Prince, a full-faced, sleepy-looking young man, was present, and we were introduced to him also. He appeared to take but little interest, however, in anything that was said, never committing himself to more than a monosyllable in reply, and, in short, appearing to very small advantage beside the King, whose interest and intelligence were marked throughout the interview. Finally we backed out of the royal presence as gracefully as we could, making our three regulation bows as we did so, and then returned to our interrupted refreshments in the adjoining house. It was by this time quite dark, and an officer and an armed guard of twelve men were told off to escort us back to the American legation. Each member of the guard carried a lantern of blue and white gauze, some four feet long, swung from the end of a pole, and containing a single candle. By this means, and in spite of the wretched light afforded by each, we were enabled to avoid the numerous ditches and gaping mud-holes, which otherwise might have proved positively dangerous to life.

Dr. Allen had secured as my guide and factotum for the rest of my journey a well-known character named Pak-Nai-Wou, who was known familiarly as "Pak." He was a product of the mission schools, but in every respect excepting intelligence and energy Pak was universally regarded as an arrant backslider. For my purposes, however, I found him satisfactory, and however much he may have used his position to impose upon others, I found, as soon as we had come to a general understanding, that he suited me perhaps better than a better man might have done. Soon after daylight on the following morning Pak was ready, and, indeed, by that time the baggage-ponies were loaded and despatched under the charge of two mappers, leaving Pak and me to follow with the third mapon when I had secured some more photographs. Before we got away, a messenger arrived with presents from his Majesty, among which were a tiger-skin, silver boxes, and a variety of other things, which were at once added to the mapon's load, already piled sufficiently high, considering that he had to carry it nearly twenty miles before we overtook the pack-ponies.



01 WONSAN—VISITORS FROM THE STEAMER CALLING UPON THE COLLECTOR OF IMPERIAL CUSTOMS.

We left Seoul by the great thoroughfare which bisects the city from north to south, and forms one of the two streets in some degree worthy of the name which the capital can boast. The other crosses it at right angles, and ends at the great gate of the palace. These streets are



02 YI-UNG-YUL, MAGISTRATE OF CHI-UL-WON.

wide indeed, but throughout their whole length they are lined only by straw-thatched mud shanties of the most uniformly mean and dirty appearance, so that it was with little or no regret that we made our way out of the north gate and began our progress through the long succession of dirty

hamlets, among which travelled endless lines of men, horses, and donkeys, all equally heavy-laden with huge loads of firewood, hay, fish, salt, and all the commodities required for the daily needs of a large city. Everything was packed on man or beast, for the road did not boast a single vehicle on wheels. We were better mounted now than when I reached Seoul, Pak having, so he assured me, drawn upon the royal stables for my use. It may have been so, but our steeds were still only ponies, about the size of the small Shetland breed, and not unlike them in appearance or quality. Our journey, as far as Pak could make it so, became a kind of royal progress, as he never failed to proclaim my importance, or to annex without hesitation whatever he wanted by virtue of my dignity. These requisitions must be customary, for I observed that they were never resisted in any way by the sufferers, even when Pak, as he frequently did, enforced his demands by blows with his stick.

Each night we put up at some village, and on our arrival Pak deliberately inspected the houses, and having chosen the best, he proceeded at once to clear out the best apartment in it for our use. In this he collected the best furniture, mats, and rugs that the house afforded, and if these were not enough he unhesitatingly made raids on other houses to make good the deficiency. In this way we were generally well provided with accommodations, and the boiled rice which we could always procure, when eked out by my own preserved meats and other supplies, ensured sufficient eatable provisions. The houses, it is true, are of the simplest and, as a rule, of the dirtiest class. They usually open on one side of a narrow court, while the pens for horses, cattle, and pigs open on the opposite side, the yard between being common to both.

About midway between Seoul and Wonsan I was entertained by the magistrate of the district, who turned out to be a jovial old fellow, who gave me the best of all he possessed, either eatable or drinkable, and in return showed a high appreciation of my stock of rye whiskey. He not only insisted on putting me up for the night in a guest-chamber, which, though now, like nearly everything Korean, dilapidated, had once been fine, but in the morning accompanied me a full stage on my journey with an imposing escort of armed men and trumpeters, who made the way hideous by their blasts of melody. He finally entertained me at lunch before parting, and sent us on our way with a prolonged blast of the trumpets.

During the latter part of our journey the country was more varied and attractive. The hills were carpeted thickly with dense green grass and the valleys—the country is only a succession of hills and valleys—were filled with fields of rice. The last twenty miles or so before we reached Wonsan were a broad alluvial bottom covered with luxuriant crops of rice and millet, which stretched almost to the entrance of the long straggling street of the Korean Wonsan. A small stream, which, for a wonder, is bridged, divides Wonsan from the Japanese town of Gensan, which is full of bustle and activity, and affords another warrant for the belief that the best hope for Korea's future lies in the connection with Japan.

01 증기선을 타고 원산에 온 손님들이 해관 세무서를 만나러 가는 모습

02 철원 군수 이응렬(李應烈)

03 서울과 원산 사이의 언덕길

에서 만난 한국인 - 황소에 짐을

싣는 안장이 있으나 짐은 없는

04 원산 근처 언덕에 있는

사당을 다녀가는 한국인들

33

서울 탐방

The Graphic

1894. 08. 04.

pp.123~124

더 그래픽

영국

구9793

40.3×28.5

선택할 수 있다. 뚝배를 타고 한강으로 올라가 서울에 있는 강나루인 마포까지 갈 수도 있고, 일꾼들이 어깨에 메는 가마를 타고 30마일(약 50킬로미터) 길을 갈 수도 있다. 말을 이용할 수도 있는데 이것이 대체로 가장 선호하는 교통수단이다. 강은 풍량이 심하여 길고 불편한 여행 길이고, 가마는 중국 것보다 수 세기 뒤쳐져 조악하게 만들어졌다. 의자는 없고 바닥에 책상다리를 하고 쪼그려 앉아야 한다. 말을 타면 여행 도중에 흥미로운 것들을 많이 보게 된다. 땅은 구불구불하고 그림처럼 아름답다. 길은 경작이 잘된 들판 한가운데 나 있고 평원은 야생화로 덮여 있다.

마을에는 이색적인 모습의 사람들이 보인다. 만지투성이의 누더기를 걸친 중국인들과는 달리 길고 흙 하나 없는 단정한 흰 면 옷을 입고 있는 모습이 매우 깨끗하고 단정해 보인다. 또한 말총으로 속이 비치게 만든 특이한 모자(갓)는 위니프레드 프라이스 부인의 것과 비슷하고 그 비치는 틈새로 조선 남성들 머리 위에 놓인 특이한 매듭의 머리 다발(상투)이 보인다. 아이들 역시 이채로운 여름옷을 입고 있다. 허리길이 보다는 짧은 면으로 된 작은 겹옷을 입고 미소를 지으며 사람들을 뵈히 쳐다본다. 중국에서 경험하였을 법한 구걸이나 폭력, “외국인 악마”라는 외침도 없고 돌을 던지는 일도 없다. 여관은 일본의 찻집과 비교할 수 없지만 청결함에서 중국의 저저분한 호텔보다 분명히 더 낫다.

천천히 말을 타고 약 8시간을 가면 마포라는 그림처럼 아름다운 나루에 도착하게 된다. 그리고 28년 전, 지금도 살아 있는 현 조선 왕의 아버지(홍선대원군)의 명령으로 베르뇌 주교와 세 명의 프랑스 선교사들이 고문을 받고 목숨을 잃었던 장소를 지나가게 된다. 한 시간을 더 가면 도성의 남문에 다다른다. 그리고 좁고 냄새나는 꼬불꼬불한 길을 30분 더 가면 크고 넓은 대로에 도착하게 된다. 동대문에서 왕궁의 입구까지 일직선으로 쭉 뻗어 있는 길(종로대로)이다. 근처에서 유명한 종(보신각종)을 볼 수 있다. 400여 년 동안 해 질 무렵에 도성의 문을 닫고 새벽녘에 문을 열 때마다 울렸던 종으로, 고통과 형벌 속에 사는 모든 백성에게 밤에는 문 밖으로 나오지 말라며 통금을 알린다.

궁궐과 종, 사람들 그리고 영화관과 유럽인들이 거주하는 곳에서 지금 한창 돌아나는 나무옹이를 제외하고는 흥미를 끌 만한 것이 거의 없다. 조선에는 중국과 일본의 예술을 모방하는 것 그 이상의 예술은



03 KOREAN MET ON THE ROAD IN THE HILL DISTRICT BETWEEN SEOUL AND WONSAN—OX WITH PACK-SADDLE, BUT WITHOUT LOAD.



04 KOREANS VISITING A SHRINE IN THE HILLS NEAR WONSAN.

SEOUL, it must be confessed, is a mean-looking town for the capital of an ancient kingdom ; but it is a town which anyone making the grand tour of the world should by no means neglect to visit. Possibly, when this war is over, we shall hear of the organisation of a personally conducted tour. From Shanghai the journey to Seoul is pleasant enough. The traveller skirts the Chinese coast in a comfortable little steamer renowned for its excellent table, makes a call at the balmy little watering-place Chefoo, the health-resort of jaded Anglo-Celestials, and thence crosses to the West Korean Port of Chemulpo. Then a choice of ways is open to him. He may sail up the Han in a junk as far as Ma-Po; the river port of the capital, he may make the journey of thirty miles in a Korean sedan-chair borne on the shoulders of coolies, or he may ride in a procession of packhorses. The packhorse is, however, on the whole, the preferable mode of progression. The river is extremely tortuous, and the journey by water long and comfortless ; and the sedan-chair is a barbarous invention centuries behind its prototype in China. It has no seat, and one is compelled to squat tailor-fashion on the floor.

The traveller by packhorse finds much to interest him on the journey. The land is undulating and picturesque ; the road lies amid well-cultivated fields, and plains covered with wild flowers. At the villages are quaint groups of natives, looking, after the dirt and rags of China, refreshingly clean and neat in their long spotless tidy cotton robes and their curious open-work horsehair hats, shaped like that of Mistress Winifred Price, and in their transparency revealing the curious knotted bunch of hair on the top of the male Korean head. The little children, too, in quaint summer costume of a little cotton jacket reaching not quite down to the waist, gaze at one smilingly. There is no begging, no abuse, no calling out of “foreign devils,” or flinging of stones, such as one may have experienced in China ; and the inns, if not to be compared with the tea-houses of Japan, are decidedly superior in point of cleanliness to the squalid hostleries of the Celestial Empire.

Some eight hours' slow riding brings the traveller to the picturesque little port of Ma-Po, and here he passes over the very spot where a quarter of a century ago Bishop Bernieux and three other French missionaries were tortured to death by command of the still living father of the present King of Korea. Another hour brings him to the western gate of the mother city, and after a further half-hour of winding in and out among narrow, ill-smelling lanes the great broad thoroughfare is reached, which stretches in a perfectly straight line from the eastern gate to the entrance of the Royal palace. Near by may be seen the famous bell which for over four hundred years has given the signal for the closing of the city gates at dusk and their opening at dawn, and which has nightly rung the curfew warning all citizens, under pains and penalties, to keep within their doors.

Apart from the palace and the bell, and the little knot of consulates and European residences which is springing up, there is little of interest to be seen beyond the people themselves. Korea possesses no arts beyond a poor imitation of the arts of China and Japan. There are few, if any, curios to be picked up beyond specimens of bamboo work superior even to those of Japan in the fineness of workmanship but inferior in art. The houses are, almost without exception, little better than mud huts ; and there are few shops for whose whole stock-in-trade one would care to offer a dollar. Yet there are no signs of extreme poverty such as stare one in the face in China. Every man carries in his girdle a pouch of tobacco and a long straight-stemmed pipe ; and rags are rare. Occasionally a Court procession passes by, the courtiers in wonderful head-dresses and gorgeous raiment, strongly reminiscent of the characters one may have seen on the native stage in China, and the maids of honour with well-plaited chignons of enormous size ; or a mandarin may pass by on pony back, or in a flat-bottomed sedan-chair, with latticed windows of oiled paper.

From Seoul the tourist may make a journey right across the neck of the continent to Gensan, and there find a steamer bound for Japan ; or he may return the way he came. For variety he may travel by night, preceded by relays of villagers lighting the way with torches and paper lanterns, and cheered by the not inharmonious singing of his guides.

없다. 소장할 만한 골동품도 거의 없다. 대나무로 만든 물건들은 정교함에서 일본을 압도할 정도이지만 예술로 보기엔 미흡한 수준이다. 집은 거의 예외 없이 진흙으로 만든 오두막이고 가게에는 1달리를 쓰고 싶어도 살 만한 물건이 거의 없다. 그러나 중국에서 보았던 극심한 빈곤의 조짐은 없었다. 모든 남자는 허리띠 안에 담배 주머니와 길게 쪽뽕은 담뱃대를 가지고 다녔다. 누더기 옷을 입은 사람은 드물었다.

종종 왕실 행차가 지나갈 때 볼 수 있는, 아름다운 머리 장식에 화려한 의복을 입은 신하들은 중국 전통 연극에서 봤을 법한 인물을 연상시킨다. 곱게 머리를 빗아 엄청난 크기의 가체를 쓴 시녀들의 모습이나 기름종이를 댄 격자 모양의 창문에 바닥이 평평한 가마를 타고 가는 고관대작, 조랑말을 타고 가는 관리의 모습도 볼 수 있다.

서울에서 곧장 가로질러 원산으로 갈 수도 있다. 그곳에서 일본으로 가는 증기선을 탈 수도 있고 아니면 왔던 길로 되돌아갈 수도 있다. 다양한 경험을 위해 야간 여행을 할 수도 있다. 마을 사람들이 교대로 횡불과 제등提燈을 들고 길을 비추어 주므로 그 뒤에서 여행자는 안내자의 그럴 듯한 노랫소리에 기분이 좋아질 것이다.

1 1866년 2월 병인박해를 말하는데 당시 제4대 조선 교구장 베르뇌 주교, 브르트리에르 신부, 볼리의 신부, 도리 신부, 프티니콜라 신부, 프르티에 신부 등은 새남터에서 순교하였고, 한국인 신자들은 양화나루 위쪽의 절두산에서 순교하였다. 여기에서는 절두산 순교지를 말하는 듯하다.

THE GRAPHIC



01 VIEW OF SEOUL, THE CAPITAL, LOOKING WEST FROM THE EAST GATE DOWN THE GREAT EAST STREET



02 A KOREAN GENTLEMAN'S SEDAN CHAIR



03 THE CENTRE OF THE CAPITAL, SHOWING THE BUILDING WHERE THE CITY BELL HANGS



04 POOR KOREAN BOYS

VIEWS IN THE CAPITAL OF KOREA, THE SEAT OF THE DISPUTE BETWEEN CHINA AND JAPAN

중국과 일본의 분쟁 공간, 조선 수도의 모습

01 동대문에서 동쪽 대로를 내려다본 수도 서울의 풍경

02 조선 양반의 가마

03 수도의 중심, 종각

04 가난한 조선의 소년들

돼지 꼬리 머리와 정수리 머리 매듭

윌리엄 심슨

“이 기괴한 모자에 대한 정보는 찾지 못했지만, 정수리 머리 매듭은 일종의 종교적 의미이거나 위엄의 표시일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삽화가 들어간 뉴스는 다양한 머리 장식을 하고 있는 조선인들의 사진을 재현해 왔다. 그러나 그중에 독특한 정수리 머리 매듭¹을 보여주는 사진은 없었다. 머리카락 다발의 끝을 잡아서 정수리에서 비틀어 묶으면, 위로 높이 4인치(약 10센티미터) 정도로 곧게 선 머리 매듭이 만들어진다. 베이징 주재 조선 대사관 소속 남자가 그린 조선인의 스케치를 보여주겠다.

사진 속 인물은 모자를 쓰고 있지 않지만, 대사관에서 그린 또 다른 스케치 속 인물은 독특한 머리 모양에 딱 맞는 모자(갓)를 쓰고 있다. 그

The Illustrated
London News

더 일러스트레이티드 런던 뉴스
영국

1894. 09. 08.
p.311

구9830
39.8×28.0

리고 모자 상부의 튀어나온 공간에는 머리 매듭이 꼭 들어간다. 모자를 지칭하는 단어로 덮는 것을 의미할 때 사용하는 ‘타일(tile)’이라는 속어를 이 모자에 적용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말의 털이나 검은색의 가는 실을 얇게 엮어 만든 것이어서, 비나 바람이 쉽게 통과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파리가 달라붙지 못하게 고기 위에 얹어두는 얇은 철사 그물망을 연상시킨다. 이 기괴한 모자에 대한 정보는 찾지 못했지만, 정수리 머리 매듭은 일종의 종교적 의미이거나 위엄의 표시일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이러한 면에서 이것은 중국의 돼지 꼬리 머리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천하의 중국인들에게 머리를 자르는 것은 대단한 불명에였다. 하지만 이 점에 관해서도 나는 그 이유를 찾지 못하였다. 내가 듣기로는 한 때 중국인들은 긴 머리를 늘어뜨리고 다녔고, 머리를 사실상 미는 타타르² 정복자들은 중국인들에게 항복의 표시로 발꿈치까지 늘어뜨린 긴 뒷머리를 제외하고 머리카락을 자를 것을 명하였다.

중국에 관해 글을 쓰는 이들의 대부분은 중국인들이 강제적으로 돼지 꼬리 머리 모양을 하게 된 것을 역사적 사건으로 평한다. 그렇지만, 어떻게 복종에 관련된 오욕이 훗날 명예와 존경을 의미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은 찾을 수 없다. 그러한 변화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겠지만, 여타 유사한 이야기처럼 이 이야기도 계속해서 나의 의구심을 자아냈다.

그렇지만 동양과 심지어 서양 세계에서도 종교 등의 이유로 사람들이 머리카락을 자르고 다듬어서 작은 타래, 손잡이 모양 혹은 독특한 모양의 머리 다발을 만든다는 사실은 이 이야기의 신빙성을 높여준다. 이러한 면에서 보면, 돼지 꼬리 모양은 그저 이러한 독특한 짧은 머리 모양 중 하나인 것으로 보인다.

조선의 머리 모양은 이미 설명하였고, 일본인도 마찬가지로 매우 독특한 정수리 머리 매듭을 하고 있다. 옛 켈트족의 삭발³을 떠오르게 하는 일본인들의 머리 모양은 머리 전면을 밀고, 뒷부분의 머리카락을 모아서 4~5인치(약 10~12센티미터) 길이의 둥근 못과 같은 모양을 만든다. 이 부분을 ‘카미’라고 부른다. 카미를 머리 앞의 면도된 부위에 전면을 향하게 놓는데, 이는 마치 전쟁터의 소형 포탑 속 대포처럼 생겼다. 조선의 정수리 머리 매듭 형태가 여기에서 분화한 것으로 추측해도 될

것 같다. 중국의 돼지 꼬리 머리 모양도 마찬가지인데, 차이점은 길게 뒤로 늘어뜨린다는 점이다. 일본인의 머리 모양을 이상적으로 재현한 일본 이발소의 간판을 보면 이발사가 어떤 머리 모양을 만들지 보다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아직 이 특정한 형태의 이발이 지닌 의미를 잘 모른다. 구릉지대가 많은 벵마(미얀마)에는 많은 몽골족이 거주하고 있는데, 이들의 문명화의 정도는 매우 낮다. 그 인종들 사이에서도 흥미로운 손잡이나 매듭 형태의 머리 모양을 찾아볼 수 있다. 머리카락 매듭을 만들어 머리 옆면에 고정시키는 것은 카렌족⁴의 특징이다. 다른 부족은 이를 이마에 올려놓기도 한다.

이러한 사례들을 볼 때, 머리 모양의 기원이 원시시대까지 거슬러 간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모든 부처상의 머리 꼭대기에는 소위 ‘파상발’⁵이라고 부르는 손잡이 모양의 올린 머리가 있는데, 이는 인도 고고학자들에게 수수께끼였다. 이 머리 모양은 반드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음에 틀림없다. 그렇지 않다면 그림이나 불상에서 그렇게 정확하게 그 모양을 구현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또 다른 흥미로운 점은, 인도에서도 한때 이와 유사한 정수리의 손잡이 머리 모양이 유행하였다는 점이다. 이에 대한 또 다른 증거가 있다. 가우타마(석가모니)가 쓴 책 중 하나인 『신성한 아리아스의 법』에 “학생들이 머리를 면도하고, 머리카락을 매듭 모양으로 만들거나, 혹은 머리의 다른 부분은 면도하고 머리 정수리에 단지 머리카락 다발을 묶어서 고정하는 것은 선택 사항이다.”라고 언급하고 있다.

고대법에 관한 다른 권위 있는 문헌인 『아파스탐바』⁶는 “이제 브라마나⁷가 그는 참으로 뚜껑이 열린 빈 항아리이니, 그의 머리는 완전히 삭발되었다. 정수리 머리 다발이 그의 뚜껑이다. 그러나 베다⁸에서 명한 바, 신성한 제사에서 정수리 머리는 삭발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머리 모양의 역사가 우랄알타이어족에게만 한정되지 않는다는 것과 적어도 인도의 베다 시기로 거슬러 올라갈 만큼 오래된 관습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호머는 머리카락과 관련된 매우 놀라운 의식을 만들었다. 파트로클로스⁹가 죽고 그의 시신을 태우기 전에 아킬레스는 자신의 머리카락을 잘라 시신의 손 안에 놓아주고 “나는 내 머리카락을 영웅 파트로클로스에게 선사하오니, 그와 함께 가리라.”라고 말한다. 이는 저승에 머리카락을 가져간다는 믿음이 있었음을 시사한다. 아킬레스의 동료들도 자신의 머리카락을 잘라 놓아서, 머리카락이 시신의 몸 전체를 덮을 정도로 많았다고 한다.

이 간단한 글에서 제시할 수 있는 또 다른 사례는 셈족¹⁰이 유사한 관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이다. 이슬람교는 머리 정수리의 머리 타래가 자라는 것을 허용하였다. 그들은 좋은 이슬람교도라면 죽을 때 마치 언월도¹¹처럼 날카롭고 매우 좁은 다리를 건너야 하는데, 마호메트가

그들의 머리 타래를 잡고 도와주지 않으면 다리를 건너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믿었다. 머리카락에 관련된 오랜 상징성에 대한 연구는 아직 충분하지 않다. 비록 광범위한 주제지만, 역량 있는 자가 이를 철저히 연구해 낸다면 그만큼 보상을 받을 것이다.

¹ ‘Top-knot’을 번역한 말로 흔히 상투로 번역되지만, 이 글에서는 조선 문화를 처음 접하는 이방인의 눈으로 묘사하는 글의 성격에 맞추어 문자 그대로 풀어서 번역하였다. ² 몽고인과 튀르크인 등 중앙아시아 민족을 뜻하는데, 여기에서는 13세기 아시아와 동유럽을 정복한 칭기즈 칸의 몽고족을 말한다. ³ 그리스도교 교회에서 하나님에게 올리는 엄숙한 불헌의식 때 삭발식을 하였으며, 켈트식 삭발에서는 한쪽 귀에서 시작하여 머리 꼭대기를 넘어 다른 쪽 귀까지를 잇는 선 앞쪽의 모든 머리카락을 밀었다. ⁴ 카렌족(Karen)은 미얀마 남동부에 분포하는 티베트버마어족으로 분류된다. ⁵ 불상에서 곱슬머리를 뒤로 묶어서 말아 올린 머리 모양을 ‘파상발(a knotty point)’이라 한다. ⁶ 『아파스탐바(Apastamba)』는 가장 오래된 힌두교 교리서 중 하나이다. ⁷ 브라마나는 고대 인도의 브라만 교의 성전 베다에 속하는 문헌군으로, 제식의 실행에 관한 규정이나 신학적 해석을 담고 있다. ⁸ 베다(Veda)는 고대 인도의 종교 지식과 제례 규정을 담고 있는 문헌이다. 구전되어 오던 내용을 기원전 1500~1200년에 산스크리트어로 편찬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⁹ 파트로클로스(Patroclus)는 『일리아드』에 등장하는 주인공 중 한 명이다. 트로이 전쟁 때 아킬레우스는 파트로클로스에게 그리스의 상황을 알아오라고 했는데, 파트로클로스는 아킬레우스의 갑옷을 입고 나가 싸우다가 전사하였다. ¹⁰ 세계 3대 어족의 하나인 셈어를 사용하는 여러 민족에 대한 범칭으로 유대인과 아랍인을 포함한다. ¹¹ 아라비아인, 페르시아인 등이 쓰는 초승달 모양의 칼이다.

ANECDOTAL EUROPE.

BY THE AUTHOR OF "AN ENGLISHMAN IN PARIS."

Some fifteen or sixteen years ago, when my duties often took me to Edinburgh, I came in contact with an individual whom his familiars called "Jock."—I never knew his right name—and who was always spouting politics—of course, Radical politics. He was a carter belonging to a farmer in the neighbourhood, or something of the kind. Then I missed him for more than a twelvemonth, after which I ran up against him in Prince's Street. He looked none sponser than usual, and during our few minutes' talk he did not utter a word against the institutions of the land. "Have you given up politics?" I asked. "Nae mair politics," was the answer, "I've got a coo now."

I have been reminded of the story for the last fortnight in connection with the report that the French Government have refused Don Carlos permission to come to Paris for a week, although the Duke of Madrid has denied having requested such permission; but, inasmuch as apartments were prepared for him in the French capital, there must have been some foundation for the report. The French Government, it is said, were apprehensive that the pretender to the Spanish throne would use their capital as a preliminary basis for his "next operations" against the Regency of Queen Marie Christine. I feel almost certain that these apprehensions are unfounded. Don Carlos has his "coo" in the shape of the enormous legacy left to him eleven years ago by the Comte de Chambord, and unless I have misread the history of most modern pretenders, he will abstain from all attempt, at any rate by force of arms, to oust the grandson of Queen Isabella and his mother, the near kinsman of Francis Joseph of Austria.

There will be no need, I fancy, for the latter monarch to interfere, as it has been suggested he would, in the event of such an attempt on the part of Don Carlos. Not, of course, by the dispatch of an army to aid the troops of the Queen-Regent against the Carlists, but either by the confiscation of Frohsdorf and Pittenue, both which are situated on Austrian territory, or by the expulsion of Don Carlos from his own domains. I repeat, Don Carlos has got his "coo," and if such a windfall as that which came to him had come to Louis Napoleon between his escape from the fortress of Ham and the month of February 1848, we should have had no Second Empire. If, on the other hand, the Prince who is lying grievously ill at Stowe—not Stowe House, if you please—but had had less worldly wealth to hamper

again that it will not do to look too closely into the so-called affection that is supposed to preside at royal unions. In this instance, however, the affection on one side was not doubtful. Archduchess Christa, as she was called, fell in love at first sight. Her happiness was of short duration. Six years after her marriage, almost day for day, she was a widow, with two daughters, and *enveide* for the third time. The birth of a son proved to be the supreme chance of Queen Marie Christine. Nevertheless, her path has been beset with difficulties ever since, difficulties with which she has coped *manfully*. She has given Spain a degree of order and comparative prosperity which it had not known for years. For this, if for no other reason, she deserves the goodwill of the whole of Europe.

PIG-TAILS AND TOP-KNOTS.

The illustrated papers have been reproducing photographs of the Coreans, in which these people appear with various kinds of head-gear, but none of them show the peculiar top-knot which they make with their hair. They gather up the ends of their locks, and twist them into a knot on the top of the head, where it stands erect, and is about four inches in height. I give a sketch of a Corean, made from a man belonging to the Corean Embassy at Peking. This shows him without his hat, but another sketch made at the same place shows a man with the peculiar hat that

one of the old Celtic tonsure; the hair is then gathered rom the back part of the head and made into a shape like a round peg, about four or five inches long, "kamai" being the name for it. This is somehow arranged so that it projects forward over the shaven portion of the crown, producing the appearance of a miniature cannon *en barbette*. It would be natural to suppose that the Corean top-knot is a variant of this, and the Chinese pig-tail is the same, only that it is allowed to grow long and hang down behind. By giving a Japanese barber's sign, which has on it an ideal representation of the hair, the form which the tonsorial operator is supposed to produce will, perhaps, be more exactly understood. Here, again, we are as yet in the dark as to the meaning of this particular cut of the hair. In the hill regions of Burnah there are many tribes of the Mongoloid type, yet in a very rude state of civilisation; and among them we find curious variations in the mode of trimming the hair, by which knots or knots are produced. This is very characteristic with the Karens, who twist the hair into a knot on the side of the head, while one tribe wear it on the forehead. From these instances it may be concluded that such practices go back to very primitive times. All the statues of Buddha show him with a knob on the top of the head, which has long been a puzzle—it might be called "a knotty point"—among Indian archaeologists. The knob in this case must have had some important significance, or it would not have been so faithfully copied in pictures and sculpture. However, this particular knob has another point of interest, for it shows that such knots were also common at one time to India. There is further evidence on this subject: in the sacred Laws of the Aryas, one book of which was written by Gautama, it is declared that—" [It is] optional [for students] to shave [their heads], to wear the hair tied in a knot [or], to keep [merely] a lock on the crown of the head tied in a knot [shaving the other portions of the head]." Apastamba, another authority on these ancient laws, says: "Now a Brahmana also declares, 'Forsooth an empty, uncovered [pot] is he, whose hair is shaved off entirely; the top-lock is his covering.' But at sacrificial sessions the top-lock must be shaved off, because it is so enjoined in the Veda." This shows that the practice was not limited to the Turanian section of the human race, and that in India it is at least as old as the Vedic period. Homer gives a very remarkable custom with hair. At the death of Patroclus, Achilles cut off his hair, and before the burning of the body began, placed it in the hand of the corpse, saying, "I will give my hair to the hero

Patroclus, to be borne [with him]." This would imply that it was supposed the hair would be taken to the other world. The companions of Achilles also cut off their hair, and there was so much of it that the whole of the dead body was covered. The only other instance that can be given in this brief sketch shows that the Semites had similar customs. The Mohammedans allow a tuft of hair to grow on the crown; they believe that if they are good Mussulmans, when they die and have to cross the bridge Al-Sirat, which is so narrow that the pathway is as sharp as a scimitar, passing it would be impossible unless Mahomet helped them over by holding the tuft in his hand. The old symbolism of the hair has not as yet been dealt with as it deserves; it is a big subject, but it would repay any competent man who could work it out in a thorough manner.

WILLIAM SIMPSON.

is worn to fit the knot; the upper part of this chapeau contains nothing but the twist of hair. Our slang word "tile," as a covering, cannot be applied to it; for the whole hat is only a thin network of horse-hair, or fine black thread, through which rain and wind can pass freely. It reminded me of the wire-gauze covers that are put over meat to keep off the flies. I could find no explanation of this strange hat, but assumed that the top-knot had either some religious signification or was in some way a mark of dignity. In this it might be similar to the Chinese pig-tail, the cutting off of which is considered to be such a disgrace by the Celestials. In this, again, I have never chanced to meet with an explanation as to why it is so. At one time the Chinese, we are told, wore long hair, but their Tartar conquerors, it is said, commanded them to cut it off, as a mark of subjection (as a matter of fact, they shave the head), all but the hair which produces the long tail that hangs behind down to near the heels. The imposition of the pig-tail is always referred to by writers on China as historical; if so, it has never been explained how a stigma of subjection has become a mark of honour and respect. The change is not impossible, but the story, like many others of the same kind, has always appeared to me to be doubtful; and this finds support in the fact that over the whole East, and the West too might be added, for religious or other reasons, people cut and trim their hair into tufts, knobs, and peculiar locks. Seen in this light, the pig-tail appears to be only one of these peculiar forms of cropping the hair. The Corean top-knot has already been described. The Japanese have also a very peculiar top-knot. They shave the whole front of the crown, reminding



PIG-TAILS AND TOP-KNOTS.

돼지 꼬리 머리와 정수리 머리 매듭

01 상투를 한 조선인

02 상투 위에 모자(갓)를 쓴 조선인

03 카렌족

04 일본의 이발소 표시

05 카렌족

06 일본의 상투

07 카렌족

35

애도의 나라

“조선은 낯선 것을 찾아 여행하는 근대화된 여행자의 관심을 끄는 나라 중 단연 으뜸이다. 서양식 관점에서 보면 야만적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조선은 대다수 동양 국가의 기준에서는 전통을 고수하는 나라로 보일 것이다.”

서구 세계가 제시한 우호적인 교류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혜택을 거부하고 배타주의와 자기만족을 고집하여 ‘은둔의 나라’라는 호칭까지 받았던 나라, 조선은 10년 전에 미국의 도움으로 세계 무대에 소개되었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조선! 그러나 이 나라는 결코 평화롭지 않은 아침을 맞이해왔다! 네 번의 반란²이 일찍이 포문을 열었다. 동아시아에 눈독을 들이는 세계 열강이, 이제는 강력한 두 이웃 국가가 쟁탈전(정일전쟁)을 벌이는 조선을 지켜보고 있다.

아시아에 오랫동안 거주해온 유럽인들은 ‘노련한 중국통’이라 불리는

Harper’s Weekly

1895. 01. 05.

pp.11~13

하퍼스 위클리

미국

구9761, 구6787

40.2×28.6, 38.7×26.8

데 그들은 조선이 세계 무대에서 재탄생하는 것을 계기로 황금돼지 꿈을 꾸게 되었다. 일찍이 중국과 일본에서 이루었던 일확천금의 꿈, 즉 풍부한 자원을 가진 나라가 곧 개발된다는 기대였다. 여러 국가가 앞다퉈 이 나라와 조약을 맺기 위해 힘썼다. 조약 항구 도시인 제물포에는 미국인 마을이 빠르게 성장하였다.

이제 그 모든 희망을 위해 보이는 것은 무엇인가! 증기선 3척, 전신 2선, 전등소 1곳, 폐쇄된 화폐 제조공장(전환국) 2곳, 설립되자마자 폐지된 우편제도의 유일한 유물인 우표 세트,³ 임관되지 못한 5,000여 명의 군인, 탁자부의 부재, 1,200만의 가난하고 불안한 사람들이다. 유럽과 미국의 상인들은 서너 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떠나버렸다. 이제 일본과 중국의 상인들만이 이곳에 남아 있다. 조선의 운명은 일본이나 중국에 달려 있다.

아시아에서도 가장 동쪽 끝에 있는 이 나라를 생각하면 우선 동양의 화려함, 알람브라식 건축물, 이색적이고 아름다운 매혹적인 경관을 상상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증기선 갑판에서 제물포를 한 번이라도 본다면 이러한 상상은 대변에 사라진다. 햇볕이 내리쬐는 마을은 그늘 한 점 찾아볼 수 없는 가운데 그 추함을 드러내며, 썰물에 의해 수 마일의 진흙 바닥을 드러낸다. 이에 비견할 상대는 (캐나다의) 펀디만이 유일한 것이다. 하루만 있어도 아름답고 장대한 것들에 대한 기대는 사라지고, 곧 조선인들의 관습과 그들의 오래된 의식과 의복으로 관심을 돌리게 된다.

조선은 낯선 것을 찾아 여행하는 근대화된 여행자의 관심을 끄는 나라 중 단연 으뜸이다. 서양식 관점에서 보면 야만적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조선은 대다수 동양 국가의 기준에서는 전통을 고수하는 나라로 보일 것이다. 조선은 아마도 세상에서 가장 단순한 형태의 글자(한글), 초보적 인쇄술, 문학, 천문학, 달력을 보유하고 있고, 또한 일본에 도자기 만드는 비법을 전수한 나라이다.

종교가 자리 잡으려는 시도는 있었으나 조상 숭배와 무지한 귀신 숭배만 남은 채 종교다운 종교는 살아남지 못하였다. 지난 6세기 동안 조선에 변화란 존재하지 않았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원래 중국의 식민 지배를 받았던 조선은 타타르족(몽골) 침략 이전의 천 년 전 중국이 보유하였던 문명을 오늘날 보여주고 있다.

산과 비옥하고 좁은 계곡이 많고, 여름과 겨울의 기온차가 큰 조선은 콩, 쌀, 보리, 담배, 짐승 가죽, 인삼, 소량의 귀금속 등을 생산한다. 백성은 농사를 짓고, 귀족은 정부 관료가 된다. 절대왕정 국가로서 관직은 세력이 가장 큰 자에게 돌아가며, 조선의 수도는 흔히 서울로 알려진 한양이다.

조선인은 모든 동양인이 갖는 인종적 특징을 보인다. 전체적 외형은 일본인과 가장 닮았는데, 키는 조선 남자가 일본 남자보다 더 크고, 작고 연약해 보이는 조선 여자는 서양식 기준의 매력과 미적 외형에 보다 근접한 외모를 가졌다.

보통 두세 개의 작은 방으로 구성된 조선의 집은 오두막에 불과하다. 검은 타일(기왓)을 얹은 지방 관리층의 집을 제외하고는 거친 목재로 틀을 짜고, 나뭇가지와 짚으로 엮어 만든 망에 조약들을 진흙과 석고에 넣고 반죽하여 벽을 만들며, 짚으로 만든 누더기 같은 초가지붕을 얹는다. 서양식 창문이란 그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은 호사이다.

그러나 서울의 도심 내 상류층 집은 얇은 벽돌과 석고로 깔끔하게 만들어져 있고, 탑 같은 지붕의 튀어나온 처마 아래로 종이가 붙은 창이 있고, 역시 종이가 붙은 출입문이 있다. 이 문은 더운 계절이면 청첩에서 떼어내는데, 그러면 집은 일종의 정자 같은 건물이 된다.

일반적인 가정의 주거 환경은 ‘강’⁴이라는 것과 흙으로 방바닥을 만든 두 개 방이 전부이다. 그 방은 반쯤 벌거벗은 아이들과 잡종개가 북적대고, 냄비와 주전자가 뒤섞여 있으며, 연기가 가득 차 뿌옇고, 요리할 때 생기는 냄새로 속이 메스껍다. ‘강’은 조선의 고유한 발명품이다. 이는 인간의 살을 굽는 오븐과도 같다. 집의 방바닥 구조를 보면, 금 간 곳 없게 잘 메워진 방바닥 아래에는 돌, 진흙 혹은 벽돌로 만든 열기 통로가 있고, 방바닥 위는 두꺼운 기름을 먹인 종이로 덮였다. 땅에서 약 30센티미터 높이에 있는 집 밖 굴뚝은 거리를 향해 연기를 내뿜는다. 이것이 바로 ‘강’이다. 이렇게 남녀노소 조선인들은 11월부터 5월까지 한 방에 다 같이 모여서 몸을 지킨다.

조선의 집들은 규칙성 없이 여기저기 모여 있고, 사이사이 막다른 골목과 구불구불한 통로는 오물과 불쾌한 것으로 악취를 풍기는데, 비누를 알지 못하는 이들은 개수로나 배수로도 모르고 바라지도 않는다. 이렇게 더러운 환경에서 사는 사람들의 기본적 의복의 색상이 흰색이라는 점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조선인들이 청결함이나 깔끔함을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이는 단순히 중국의 조문 의례에 착안된 관행이다. 조문 의례상 누군가 죽으면 친척들은 고인을 기리며 천 일 동안 무늬 없는 흰색 옷을 입는데, 이것은 깊은 슬픔의 표현으로 인정된다. 이 비참한 나라가 군주를 잃었다면 백성들은 마치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처럼 그의 죽음을 애도하였을 것이다.

약 150년 전에 조선의 한 왕이 세상을 떠나자 백성들은 애도를 표하는

흰색 옷을 입었다. 두 명의 왕이 각각 3년과 6년 후 그의 뒤를 이어 무자비한 죽임을 당해 세상을 뜨자⁵ 이에 조선의 백성은 괴로워하며 10년 동안 계속 흰색 옷을 입어야 하였다. 속설에 따르면, 이 연이은 애도 기간이 끝났을 때 어떤 현자가 나타나 말하기를, 즐거울 때 입는 화려한 색의 옷을 입었다가 최근에 경험하였던 것처럼 또다시 왕실에 상궐이 나게 된다면 백성은 결코 입지도 못할 옷에 낭비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래서 경제적인 면에서 또한 언제 닥칠지 모르는 죽음에 계속 대비하다가 조선인들은 영원히 상복을 입게 된 것이다. 오랜 애도 기간이 백성들의 생활에 영향을 주었다는 이야기가 사실인지는 모르겠으나, 조정 관료를 제외한 모든 백성이 흰옷을 입는다.

하층민 남성은 거친 면으로 된 두 점의 옷을 입는다. 무릎까지 말아 올린 바지는 허리선이 높고, 허리끈 위에 달린 험렁한 주름은 떨어지는 머리라도 받을 수 있을 듯 병병하며, 험렁한 소매가 달린 짧은 옷웃은 가슴 위로 여민다. 허리끈에는 작은 줄로 펜 조선 돈과 담배 주머니가 매달려 있다. 한 손에는 길이가 약 1야드(약 90센티미터)나 되는 막대 끝에 골무같이 생긴 것이 달려 있는 담뱃대가 항상 들려 있다. 발을 보호하는 것이라곤 짚신이거나 혹은 비 오는 날에 신는, 발꿈치 아래 두 개의 나무 굽이 가로로 고정되어 있는 나막신이다.

하층민 이상의 사람들은 발목을 딱 맞게 묶는 바지와 짧은 소매의 상의에 더하여 팔 아래쪽에 허리끈을 묶은 채 발까지 길게 늘어지는 외투를 입는다. 마지막에 입는 이 옷은 부유한 관료들의 경우 그들의 다른 옷과 마찬가지로 고운 중국산 린넨이나 화려하게 수를 놓은 견직물로 만들어진다. 그들은 면솜으로 두껍게 덧댄 긴 버선을 신고 중국산 신발을 신고 다닌다.

머리 모양은 두 가지가 있다. 미혼 남자와 어린 남자아이는 가운데 가르마를 타고 이마 위로 단단히 당겨서 여자아이처럼 머리를 뺏아서 어깨 뒤로 늘어뜨리고 다닌다. 정말 사내답지 못한 이 머리 모양 덕분에 여동생과 구분하기 힘들 정도이다. 빠르면 6세가 되기도 전에 결혼을 하기도 하는데, 남자는 일단 결혼을 하게 되면 머리 정수리를 수도승처럼 면도하고 그 주변의 긴 머리를 위로 틀어 올려서 빗자루 손잡이처럼 생긴 약 4인치(약 10센티미터) 정도로 푹 솟아오른 상투를 만든다.

그리고 그 위에 모자를 쓴다. 검은색 말총, 견사, 그리고 가늘게 자른 갈대 줄기로 만든 세 종류의 모자가 있는데, 모두 방충망처럼 공기가 통한다. 우선, 2인치(약 5센티미터) 폭의 띠(망건)가 머리를 꼭 맞게 둘러싸서 머리카락이 얼굴 위로 날리지 않게 고정시켜준다. 두 번째로 챙이 없는 모자(탕건)는 굴뚝처럼 생겼고 앞에 패인 부분이 있다. 그리고 위가 평평한 넓은 챙을 가진 모자(갸)는 턱 아래로 묶고, 검은색 줄이나 호박 장식의 긴 줄이 달려 있다. 이 모자는 실내외에서 항상 쓰고 있다. 햇빛이나 비를 차단하는 효과는 없고, 비가 올 경우 고깔 모양의 기름칠을 한 종이로 그 전체를 덮어 쓴다.

이 모자의 역사는 매우 흥미롭다. 한 왕이 끊임없는 반란과 폭동에 위협을 느껴 나라의 모든 남자에게 구운 흙으로 만든 거대한 모자를 쓰도록 명령을 내렸다고 한다. 타일로 만든 모자가 깨지게 되면 불행히도 남자는 곧장 처형당했다. 이 고통스러운 끔찍한 모자를 몇 년간 쓰다가 그 포고령이 철폐되자 백성들은 제일 가벼운 모자를 찾게 되었고 그렇게 해서 보닛⁶ 모양의 현재 모자를 쓰게 되었다는 이야기이다. 앞서 기술한 종류에 더하여 곡식을 담은 바구니를 뒤집어 쓴 것 같은 소물이꾼 모자, 상을 치를 때 쓰는 크기나 모양은 비슷하지만 질이 조금 좋은 모자, 챙이 없고 왕의 말을 잘 듣는다는 것을 상징하는 날개 모양 장식이 달린 조정 관료들이 쓰는 말총으로 만든 모자가 있다. 넓고 평평한 챙이 달린 기수(騎手)의 모자에는 빨간 깃털 장식이 있고, 병사들은 넓은 창 의 펠트지로 만든 원통형 모자를 쓴다.

여자들은 발목 부분을 조이는 바지 위에 뺏뺏한 긴 치마를 입고, 가슴 선까지 내려오는 짧은 상의를 입는다. 평민 여자들은 보통 가슴선이 드러나게 옷을 입지만, 규수들은 가슴을 꼭 묶어서 가슴이 평평하게 보이는 것을 훨씬 선호한다.

머리는 가운데 가르마를 타고 단정하게 뒤로 빗어 넘겨 목 뒤에 폭포수 모양으로 둘둘 감아 틀어서 커다란 은핀(에네)으로 고정한다. 붉은 색 소매가 달린 초록색 견사로 된 외투는 팔을 끼우지 않고 머리 위에 걸치고, 햇빛에 눈이 부시는 것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눈 아래에서 한 손으로 외투를 부여잡는다. 원래 이 옷이 고안된 대로 팔을 끼워 입지 않고 솔이나 만틸라⁷처럼 걸치기만 하는 이유로는, 전쟁터에서 돌아온 남자들이 사용한 피 묻은 검을 닦는 데 이 선흥색 소매가 사용되었다는 것 외에는 달리 만족스러운 이야기를 듣지 못하였다.

여성들의 삶은 정말 불운하다. 조선 여자에게는 아내, 첩, 노비, 기생이라는 네 가지 삶이 존재한다. 기생의 경우 자신의 도덕적 가치는 희생하지만, 적어도 다른 세 부류의 삶에는 불가능한 자유가 어느 정도 있다. 만약 양반의 부인이 된다면 남편의 사랑을 여러 명의 첩과 나누어 가져야 하며, 첩의 자식은 합법적인 자식이지만 정부인의 자식보다는 아버지의 재산을 적게 물려받는다. 만약 남편이 죽으면 부인은 평생 과부로 살아야 한다. 부인들이 받는 교육은 첩이 받는 교육과 크게 다르지 않아서 겨우 고춧가루를 넣은 엄청나게 매운 요리(김치)를 맛있게 만드는 법이나 옷장을 정리하는 수준이다. 부인은 자기와 비슷한 부류의 친척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남편의 친구들을 거의 혹은 전혀 만날 수 없다. 동성의 이웃 친구를 만나려면 해가 저서 남자들이 집에 돌아온 때에만 가능하다. 만약 대낮에 돌아다니려면 안을 들여다볼 수 없도록 막이 쳐진 가마를 탄다.

노비는 정말 불쌍하다! 노비는 억척스럽게 빨래하기 위해 존재한다. 하루 종일 흙탕물이 흐르는 개울가에 쪼그리고 앉아서 흙이 묻은 옷을 넘적한 방망이로 두들기고 또 두드린다. 밤이면 천을 모아 집에 와

서는 자정이 되도록 똑같은 소리를 탁 탁 탁 내며 나무판 위에 놓고 천을 두드려서 펴고 반들반들하게 한다.

자랑할 만한 아내가 없는 조선 남자는 정말 불쌍하다. 그리고 조선인들은 다른 나라에는 다르게 사고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중산층 부인들에게는 낮에 돌아다닐 수 있는 자유가 1년에 한 번 (단옷날)에 주어진다. 서울이 외국에 개방된 지 얼마 안 되어 미국 공관에 반듯한 젊은 미혼 남자 직원이 근무하기 시작하였다. 조선 여자들의 휴일이 찾아오자 이들은 남자 직원의 집에 찾아가 그의 외국인 부인을 보여 달라고 졸랐다. 그가 자신이 독신임을 설명해도 조선 여인들은 만족하지 않고 그의 통역관에게 이미 결혼할 나이가 되었으니 마땅히 결혼해야만 한다고 말하였다. 공관 문을 닫아도 소용없이 군중들이 불어났다. 그가 선교 활동을 하러 온 이웃의 의사에게 요청해 그의 부인을 오후 내내 보여준 뒤에야 호기심 가득한 수많은 조선 여자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

자손에 대한 중국식 자부심은 조선에서도 지배적이다. 아무리 누추한 집이어도 집집마다 작고 귀여운 어린아이들이 여럿이다. 대량의 소화능력을 키우기 위해서인지 아니면 자주 먹일 수고를 덜기 위해서인지, 조선 여인들은 찻먹이의 작은 배가 터질 정도로 먹여 탄력을 키우고, 다음 식사 때 채울 빈 공간을 최대한 키우려고 부푼 배를 주무르고 쓰다듬는다.

여름의 부실한 식사 대신 배를 불리기 위해 호리병박 모양의 멜론(수박)을 먹는다. 땅은 머리에 묶인 분홍색 머리끈 외에는 몸에 두른 것 없이, 가끔은 나무신을 신고 차가운 거리의 진흙탕에서 노는 아이들 모습을 빼만 앙상한 사지에 배만 볼록 나온 작은 노인을 연상케 한다.

아이들은 거의 대부분 수도 자국이 있는데, 조선인들은 수도가 유행병인데도 별로 두려워하지 않고 가볍게 ‘뽀뽀’이라고 부른다. 적절한 치료법이 없고, 전염병을 격리시킬 시도도 하지 않은 채 언젠가 한 번쯤 걸리고 지나가는 병쯤으로 여긴다. 어린이들은 경미한 수도는 다 겪는다고 믿기 때문에 조선인들은 찻먹이 어린이의 콧구멍에 수도 바이러스를 소액 넣는다.

어린이도 긴 담뱃대를 능숙하게 잡을 정도로 자라면 남녀를 가리지 않고 흡연하는 습관을 체득하게 된다. 조선식 담뱃대에 불을 붙이는 것은 뛰어난 솜씨가 필요하다. 담뱃대가 굉장히 길어서 입술에 대고 담배를 물 수 있는 부분에서 담배를 담는 부분까지 팔이 닿지 않는다. 불을 붙인 성냥을 땅에 놓고 뒤로 물러나와 담배가 그 불꽃에 닿게 해야 한다. 전체 인구의 5분의 4에 해당하는 막노동자 계층은 쌀과 보리를 증류해서 만든 독한 술에 중독되어 있다.

서울을 제외한 조선은 로마 없는 로마 제국과 같다. 그 정도로 서울은 조선 정치와 사회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아주 오래전부터 원래 이름인 한양은 수도를 뜻하는 ‘서울’로 대체되었다. 서울에 도읍 관리들의 집

이 있고 그들 중 상당수가 집 근교를 떠나본 일이 없음을 자랑스러워 한다.

서울은 서해안에서 28마일(약 45킬로미터) 정도 떨어져 있고 위험한 한강 으로부터 3마일(약 5킬로미터) 정도 떨어져 있다. 한강 어귀에 진센⁸이라고도 불리는 제물포가 위치해 있다. 서울은 건강 차원에서 운이 좋게 자갈 분지로 되어 있고 주변의 삼면이 가파른 언덕에 울퉁불퉁하다. 온돌의 땀감으로 사용하려고 나무를 다 베어간 황무지여서 여름철에 호우가 내리면 빗물이 도시 거의의 오물을 실어 보낸다.

남쪽으로는 나무가 잘 자란 아름다운 언덕(남산)이 있고, 계획적으로 잘 만들어진 서울의 부유층 동네는 꼭 막힌 잿빛의 주변 동네와 대조 적으로 남산 전경을 볼 수 있어서 피로한 눈을 즐겁게 해준다. 5만 가구가 20~30피트(약 6~9미터) 높이의 성벽에 둘러싸여 있는데 그 성벽은 이제 오랫동안 방치되어 무너질 것 같다. 높은 산 정상으로 연결되어 있는 이 성곽은 끊임없이 평평하게 만드는 바람을 맞고 서 있다.

성곽 밖에는 정원사와 가축을 키우는 사람들이 산다. 한쪽에는 열병 환자들이 그 병을 두려워하는 가족 때문에 결국 죽음에 이르는 짚으로 만든 오두막이 있고 또 다른 한쪽에는 곤장을 맞아서 죽거나, 혹은 그보다 빠르게 죽게 되는 참수된 죄인들의 처형장이 있다.

궁에서 북쪽으로 나가는 출구 외에 이 성곽은 8개⁹의 입구가 있다. 각 출구에는 병사들이 보초를 서는 탑 같은 건축물(루곽)이 세워져 있다. 도심 한가운데에는 목직한 종이 매달려 있는데(보신각종), 하루가 저물어 이 종이 울리면 보초병은 무거운 철문을 닫고 걸쇠를 걸어서 이틀 날 아침까지 아무도 드나들지 못하게 한다.¹⁰

어둠이 깔리면 머리까지 외투를 폭 덮어쓴 여자들이 작은 등불을 들고 마치 반딧불이처럼 어두운 거리를 다니며 이웃을 방문한다. 여름에는 모깃불을 피우고, 가난한 가족은 밤에 쉬려고 거리로 나온다. 성문의 쉼터에는 유럽 제복 비슷한 옷차림을 한, 만사가 귀찮은 병사들이 모여 담배를 피우고 웃고 먹는다.

근처에 여러 종류의 무기 격납고가 있다. 레밍턴 총, 화승총, 녹슨 창, 미늘창, 날개 달린 호랑이와 용무늬 그림으로 장식된 화려한 색의 견사로 된 깃발, 펑 꼬리털로 끝이 장식된 장대가 있다. 서울에서 도로라고 하면 궁(경복궁) 앞 광장에서 만나는 성문(승례문)을 통과하는 도로가 유일하다. 나머지 길은 미로처럼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골목일 뿐이다. 길가에는 기름진 국, 밥, 술, 쇠고기, 돼지고기, 개고기, 못, 신발, 가마술 그리고 조선의 유명한 청동 제품을 파는 초가 상점들이 즐비하다. 왕의 행차가 도시를 통과할 때는 이 거리의 임시 건물은 다 철거되고 길에 모래를 새로 뿌려놓는다.

낮설고 재미난 풍광을 보려면 여름날에 코를 막고 서울의 거리로 과감하게 나가보라. 일이 들어오길 기다리다가 주변에 짐을 대충 던져놓고 도박을 하는 막노동꾼, 종을 짹랑짹랑 울리며 몸 전체가 거의 가려질

정도로 어마어마한 양의 땀감을 신고 줄지어 가는 조랑말들, 느릿한 소를 향해 소리를 지르는 소몰이꾼, 500킬로그램에 달하는 5개의 현금 주머니를 짊어지고 터벅터벅 걷는 소 등을 볼 수 있다.—1개의 현금 주머니 7,000냥은 금 1달러에 해당한다.—귀족 계급인 양반은 하인 2명이 실어 나르는 표범 가죽이 깔린 검은색 교자 위에 앉아 있다. 고관 대작은 4명의 인간 군마들이 드는 교자(사인교)의 차양 옆에 앉아 있다. 몇몇은 먼저 앞질러가서 사람들을 길에서 비키게 하고 몇몇 하인은 가마 옆에서 그 양반의 훌륭한함에 대해 존경심을 표현하는 것처럼 긴 탄식을 하며 총총 걷는다. 고상한 외바퀴 자전거를 타고 가는 사람도 있다.¹¹

준마를 탄 수령은 말을 직접 몰지 않고 견고 있는 마부에게 말을 맡기고, 그 뒤로 권위의 상징인 공식 관인官印과 인함印函을 그물망에 담아 어깨 뒤로 넘겨 멘 시종이 뒤따른다. 젊은 귀족 자체가 걸을 때는 두 명의 몸종이 그의 팔을 부축한다. 별거벗은 어린아이들은 멜론을 먹으며 무리지어 도랑을 걸어 다닌다. 여자 몸종은 머리에 무거운 옷가지를 이고 다닌다. 왕실의 여인들은 무거운 가발 장식을 머리에 올리고 다닌다. 왕실 행차 앞에는 푸른 외투를 걸친 무장한 사람들이 6피트(약 180센티미터) 길이의 막대를 들고 피해가는 군중을 때리며 길가로 몰아낸다. 경비병은 끝에 종을 단 막대를 들었고, 화려한 노란색 비단옷을 입고 말을 탄 음악대는 공작 깃털로 장식하고 날카로운 소리를 내는 갈대 악기(피리), 현악기, 북, 심벌(바라)을 연주한다.

기병대 중에서 일부는 구식 무기로 무장하고, 일부는 제복을 입고, 일부는 제복을 입지 않아 어수선하고, 동물들은 하인들이 고삐를 끌며 쟁긴다. 보병은 장대·창·검·총으로 무장하였다. 마지막으로 모든 무기를 들고 제복을 입은 다양한 나이의 보병대 한가운데 개틀링포를 끌고 가는 군대의 모습은 이상함의 절정이었다.

붉은 칠을 한 왕실 가마는 높이 올라온 모자를 쓰고 주홍색 옷을 걸친 가마꾼 12명이 들고 간다. 거대한 붉은 양산이 만들어낸 그늘 아래 마구를 단 두 마리 종마는 왕이 원하지만 하면 언제든 태우고 가기 위해 의자 앞에 매여 있다. 그 뒤로 더 많은 군사와 악대 그리고 대신들의 가마와 말, 내시, 하인이 하나같이 부채질을 하며 왕이 탄 가마와 속도를 맞추기 위해 소리를 지르며 서두른다.

도성 북쪽의 넓은 광장(광화문 광장) 입구에 거대한 호랑이 석상(해태상)이 높은 석벽으로 둘러쌓인 궁(경복궁)의 입구를 지키고 있다. 왕실의 거처인 궁에는 주춧돌 위에 세워진 나무와 벽돌로 된 불규칙한 모양의 구조물 위에 넓은 툃마루가 있으며 한자가 쓰인 종이를 붙인 방이 있다. 제법 큰 방(사정전)에는 종이로 만든 미단이문이 있다.

천장에는 광장히 매끄럽게 마감된 커다란 대들보가 가로지르고, 반짝이는 나무로 만들어진 마루에 자리 혹은 양탄자 같은 것이 깔려 있다. 궁과는 어울리지는 않는, 허세가 느껴지는 유럽식 건물¹²은 몇 년 전

에 완공되었는데 완공된 직후부터 사람이 살지 않는다. 궁내에는 양반들이 분투하던 공간이 있다.¹³ 간절히 원하던 옥색 단추¹⁴를 얻기 위해 소위 과거 시험을 치르는 장소이다. 상당한 재원을 투자하지 않고서는 귀 위에 다는 공식적인 옥색 관직 배지를 얻기란 어렵다. 글쓴이의 필력과 깔끔한 필적으로 답안을 평가하는데, 글을 쓰는 종이의 판매는 왕실 고유의 권한이다. 시험이 종료되면 아름다운 필체를 자랑하는 글은 기름을 잘 바른 후 왕궁 툃마루의 지붕에 붙여진다.

길거리는 내키는 대로 도박하고, 욕하고, 요리하고, 빨래를 하는 등 기강이 흐트러진 군인들과 지저분한 막노동자들로 북적거린다. 성곽 후면에는 위급한 상황에 왕이 이용하는 대피로(숙정문)가 있다. 이 출구는 방어벽으로 보호되는 좁은 산길을 따라 왕의 피난처로 연결된다.¹⁵ 북한산으로 향하는 이 길을 따라 지루한 산행을 하다가 서울의 북쪽 경계에 있는 닭벼슬 산마루(칼바위능선)에 도달하게 되면 왕은 보람을 느끼게 된다.

산비탈 중간쯤에 벽돌 담장으로 쌓은, 몇 년 전부터 도성에 출입이 금지된 스님들이 거처하는 곳(종홍사)이 있다. 남쪽으로는 서울의 성곽 끝 자락이 보이며, 동쪽으로는 화강암의 회색빛 언덕(인수봉)이 시야에 펼쳐진다. 북쪽과 서쪽으로는 골짜기(송추계곡)의 푸른 소나무와 가래나무가 보인다. 베이징으로 가는 길로 매년 사절단이 조공을 바치러 중국으로 간다.

그 너머로 혼탁한 한강과 철이 안 된 중국식 돛배(정크선)와 작은 증기선들이 보인다. 같은 숙소를 이용하는데도 어찌다 흰 피부를 가졌다는 이유로 서양인은 노란 피부를 가진 동반 여행객보다 세 배나 많은 요금을 내야 한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의 황량한, 불이 켜지지 않은 해안과 다도해를 넘어 황해(서해)의 수평선이 보인다.

	
<div>1 1882년(고종 19) 조선이 미국과 수교한 것을 말한다. 2 ‘네 번의 반란(four rebellions)’이 무엇을 지칭하는지 명확하지 않지만, 1882년(고종 19) 임오군란, 1884년(고종 21) 갑신정변, 1894년(고종 31) 동학농민운동 등이 아닌가 한다. 3 1884년(고종 21) 11월 근대 우편제도를 도입하여 5·10·25·50·100문 등의 우표를 발행하고 우정총국이 개국하였지만 갑신정변 이후 폐쇄되었다. 4 온돌 구조에서 굴뚝에 해당하는 부분을 중국에서는 ‘강(炕)’이라고 한다. 5 숙종과 경종을 말하는 듯하다. 숙종이 1720년에 죽고 난 뒤에 장희빈의 아들인 경종이 왕위에 올랐지만 즉위 4년 뒤인 1724년에 급서하였다. 세간에는 경종이 영조가 보낸 계장을 먹고 독살되었다는 등 무수한 추측이 난무하였다. 6 아기들이 나 예전에 여자들이 쓰던 모자로 끈을 턱 밑에서 묶게 되어 있었다. 7 만틸라(Mantilla)는</div>	<div>스페인, 멕시코 등지에서 여자들이 머리에서 어깨까지 뒤집어쓰는 베일의 일종이다. 8 제물포구에 새로운 식민 도시로 건설되어 일본인들이 전유했던 진센(ジンセン)이라는 지명에서 유래하였다. 9 원문에는 6개로 나와 있으나 8개로 바로잡았다. 10 밤 10시경 종각에서 28번의 종이 울리면 성문이 닫히고, 다음 날 새벽 4시경 33번의 종소리에 성문이 열린다. 11 외바퀴 수레인 ‘초한’을 말하는데 2푼 이상의 벼슬아치만 탈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었다. 12 경회루를 말하는 듯하다. 13 경복궁 북문인 신무문 밖에 마련된 공간인데 지금은 청와대가 들어서 있다. 14 옥으로 만든 망건 단추를 말한다. 신분에 따라 색을 달리하였는데 당상관은 금과 옥을, 당하관 이하 서민들은 대모와 양뿔, 소뿔, 호박 등을 사용하였다. 15 북한산 상원봉 아래에 있는 행궁을 말한다.</div>

A NATION OF MOURNERS.

KOREA, which had refused the advantages of friendly-intercourse offered her by the Western world with such useless expense of garments never to be worn. So, faction as to win the title of "The Hermit Kingdom," was ten years ago, under the patronage of our country, introduced into the family of nations.

Chosen—"Land of Morning Calm"! Your morning has been all but peaceful. Four rebellions have marked your early career, and now the eyes of all powers with interests in the East are beholding you the bone of contention between your two powerful neighbors. Your new birth brought golden dreams to the "old China hands," as Europeans of long residence in the East are called. Dreams of rapidly accumulated wealth, as in their early years in China and Japan. A country of great resources to be developed? Nations vied with one another in eagerness to make treaties. Chemulpo, the treaty port of Seoul, had the boom of an American town. And now to show for all this hope! Three steamboats, two telegraph lines, an electric-light plant, two abandoned mints, a set of stamps—the only relic of a postal system that died in birth; an unofficered army of five thousand, no treasury, and twelve million poor and restless people. European and American merchants, with three or four exceptions, have gone. The traders of Japan and China alone have kept their foothold; and it is Japan or China which is to shape Korea's destiny.

At first thought of this land of farthest Cathay the imagination is prone to create scenes of Oriental splendor, architecture of the Alhambra, and landscapes ravishingly quaint and beautiful. One glimpse of Chemulpo from the steamer's deck dispels it all. A sun-baked town, glaring in its ugliness, without a vestige of shade, looks out over miles and miles of mud, revealed by the remarkable fall of the tide, exceeded only by that in the Bay of Fundy.

So throughout one's stay the anticipations of things beautiful and magnificent fade away, to be supplanted by an interest in the strange customs of the people, in their archaic forms of ceremony and manner of dress.

In interest to the modern traveller who seeks something strange, Korea stands among the first of nations. Barbarous, too, if we judge according to our Western ideas of life, but to the greater numbers of the Orient only conservative. She has, perhaps, the simplest of alphabets, a rude art of printing from blocks, a literature, a science of astronomy, her calendars, and to Japan she has given the secret of porcelain. Religions she has tried; but, beyond the worship of ancestors and a rude demonism, has practically discarded them. It can safely be said that she has made no change in six centuries. Originally colonized by China, she to-day offers the civilization of China of a thousand years ago—China before the invasion of the Tartars.

A mountainous country, with narrow fertile valleys; extremes of temperature in summer and winter; producing beans, rice, barley, tobacco, hides, and ginseng, and a small amount of the precious metals. A people agricultural; an aristocracy official. An absolute monarchy, whose offices are farmed to the highest bidder, with the seat of government at Han-Yang, or Seoul, as it is popularly known.

Possessing the racial characteristics common to all Orientals, in general appearance the Koreans most resemble the Japanese, though in stature the men exceed the latter, while the women, small and of delicate mould, approach more nearly our standards of grace and form.

Their homes, little more than huts, usually of two or three small rooms, are framed of rough timbers, and walled, in addition to a netlike woof of twigs and straw, with cobble-stones laid in mud or plaster, and roofed, excepting the black-tiled houses of the magisterial class, with a ragged thatch of straw. Windows as we know them are among the people an unknown luxury. The city dwellings of the Seoul gentry, however, which are nearly built of thin brick and plaster, have a row of small paper-covered openings just under the projecting eaves of their pagoda roofs, and paper-covered doors, which in the warm season can be removed from their hinges, and so convert the dwelling into a sort of pavilion. A family in ordinary circumstances knows, in addition to the *kang*, but one or two earth-floored rooms, swarming with half-naked children and a mongrel cur, greasy with pots and kettles, blinding with smoke, and nauseating with the fumes of cooking.

The *kang* is a contrivance peculiar to the country—an oven for the baking of human flesh. Beneath its flue of one small room, whose every crack is sealed, is built a fire-box of stone and mud, or brick, the top of which, covered with thick oiled paper, forms the floor of the apartment. On the outside a chimney, about a foot above the ground-level, belches forth its smoke against the house's wall into the street. This is the *kang*; and here the Koreans, men, women, and children, packed tightly together, roast themselves from November to May.

These dwellings, grouped together with no attempt at regularity of arrangement, form blind alleys and narrow tortuous passageways reeking with filth and abomination, for such things as sinks and drains are, like soap, unknown or undesired.

Living in this atmosphere of dirt, it at first seems remarkable that white should be the national dress. That such is the case cannot be explained by any instinctive cleanliness or neatness that the people may have. It is merely a phase of the Chinese ceremonial custom of mourning, by the rules of which, in case of death, all the relatives must, for a thousand days, in memory of the deceased, adopt a dress of spotless white as an outward manifestation of deep grief. Should the unhappy nation lose its sovereign, it is incumbent upon the whole people to in this way mourn his loss as that of a parent.

It so happened in Korea, near a century and a half ago, that after one king, by his departure from this life, had entailed upon his people the wearing of the mournful white, the two rulers who in succession followed him, at the respective intervals of three and six years, were themselves mowed down by the unsparring harvester, and, as a result, the stricken nation was kept in blanched attire for a continuous period of ten years. By popular account, at the termination of this protracted mourning, some wise man whom the occasion produced suggested that, should the people again provide themselves with their many-colored garments worn in happier times, and the alarming

mortality so recently experienced should again be suffered by the royal house, the nation would have indulged in the useless expense of garments never to be worn. So, with a view to economy and constant preparation for death's visitation, the Koreans became perpetual mourners. However true this account may be, it remains that a long period of mourning has engrained upon the national life this custom of wearing only white, observed by all except the officers of the crown.

The male attire for the coolie class consists of two garments of coarse cotton shirtings, baggy trousers, usually rolled to the knee, with an exaggeratedly long waist that might easily ensnack the head falling over the belt in a loose fold, and a short jacket fastened at the breast, with loose sleeves. Suspended from the belt are a small string of cash (the country's currency) and a tobacco-pouch, while in one hand is the ever-present pipe, with its thumb-like bowl and reed stem a yard in length. If the feet are at all protected, it is by a pair of straw shoes, or, in rainy weather, by *subots*, each with two transverse cleats at the hollow of the sole. All above the coolie class, in addition to the trousers, which they wear bound tightly about the ankles, and jackets with smaller sleeves, have a flowing gown, belted just under the arms, and reaching to the feet. This last garment, in the case of the wealthy office-holders, is, like their others, of beautiful Chinese linen or of colored silk lacquer. The feet are encased in white cotton stockings, thickly wadded with cotton, and Chinese shoes.

In the arrangement of the hair there are two styles. For the unmarried men and boys it is parted in the middle, drawn tightly over the brow, and hangs down the back like a school-girl plait. Indeed, the effeminate appearance which this arrangement gives them makes it often difficult to distinguish them from their sisters. When a man has entered the married state—and here are little men who have done so who are not beyond the age of six—the crown of the head is shaved in a mystic way, and the long hairs that fringe the bald spot drawn over it and twisted into a tight one which sticks upright, like a four-inch section of a broom-handle.

And then the head-wear! This usually is of three pieces, made of woven black horse-hair and silk, or finely split reed—all as airy as a fly-screen. First, a fillet two inches in breadth, tightly encircling the head, to keep the well-plastered hair from blowing about the face. Second, a brimless hat like a section of stove-pipe, with a dent in front; and over all a flat-crowned, broad-brimmed hat fastened under the chin, with black streamers or long strings of amber beads. All worn in-doors or out; no protection against the sun or rain, for in the latter case a convoluted cone of oiled paper surmounts the whole.

The evolution of the hat is very interesting. A certain sovereign, threatened by continual rebellions and riots, promulgated an order that all male subjects should wear an enormous hat made of baked clay—a veritable tile—and that every unfortunate who should have his broken should forthwith lose his head. After enduring for years the torture of this monstrous hat, upon the repeal of the edict the people turned to the lightest head-covering to be found, and now we have a nation wearing bonnet-frames.

In addition to the varieties already described, there are the oxman's hat, an inverted bushel basket; the mourner's, about the same in size and shape, though of finer quality; the court hat, of horse-hair, brimless, and adorned with wings, to intercept and turn into the listener's ears the sovereign's words; the *kee-su's* (outrunner's), broad, flat-brimmed, and crowned with a red plume; and the soldier's, a broad-brimmed felt pill-box.

The women wear over the trousers, gathered at the ankle, a stiff, full skirt, a short jacket reaching just to the breasts, which, among the common women, are generally exposed, but in the case of ladies bandaged tightly against the body to produce a flat effect much admired.

The hair is parted in the middle, brushed smoothly back, and fastened with a large silver pin in a waterfall coil upon the neck. Thrown over the head and held together with one hand just below the eyes, as a protection against the sun and admiring glances, is worn a green silk cloak, the red sleeves of which flap areless. Why this cloak should be used only as a shawl or matita, and never worn as it is intended that a cloak should be, no more satisfactory explanation can be obtained than that the crimson sleeves are used to wipe the bloody swords of the men on their return from battle.

Woman's lot is indeed unhappy. To her there are four lives open—that of wife, concubine, slave, or dancing-girl. The last, while it sacrifices her virtue, at least obtains some freedom which is denied to the others. If she be the wife of a gentleman's household, her lord's favors are shared among a number of concubines, whose children become legitimate and share the father's fortune in but a slighter degree than her own. Should she lose her husband, she is doomed to perpetual widowhood. Her education, like that of the concubines, is little more than in the art of preparing tempting dishes, fiery hot with red pepper, and of attending to the wardrobe. She seldom or never sees her husband's friends, unless they are likewise relatives. Her visiting among the neighbors of her own sex is done after night, when all men are expected to keep their homes. If she move in daytime, it is behind the impenetrable screens of a Sedan chair. The slave, poor thing! her existence is that of the washing-drudge. All day long she squats at the side of some muddy stream, and with a flat paddle pounds, pounds the soiled clothing of the household. In the evening she gathers up her linen and returns home, to beat until midnight an unvarying rat-tat-tat as she pounds it smooth and glossy on a wooden block.

Poor indeed is the Korean who does not boast a wife, and that in other lands a different idea could exist is beyond the Korean comprehension. On one day in each year the wives of the middle class are allowed the freedom of going out during the day. Shortly after Seoul was opened to foreigners our legation there was in charge of a modest bachelor, and on this holiday scores of Korean women came to his house, clamoring for a view of his foreign wife. They were not to be appeased by his protestations of celibacy, and explained to his interpreter that he was old enough to be married, and consequently must be. The closing of the legation gates was no avail against the increasing crowd, and he only suc-

ceeded in ridding himself of the multitude of curious females by inducing a missionary doctor in the near neighborhood to exhibit his wife during the entire afternoon.

The Chinese pride in the possession of heirs here prevails, and every home, however humble, has its horde of children—funny little creatures! The mother, whether to develop large food capacity, or to save the trouble of frequent feeding, stuffs her infant's little stomach to the bursting-point, and then kneads and rubs the swollen member to increase its elasticity and to produce a greater void to fill at the next meal. The poor summer diet of gourdlike melons serves to increase the effect which the cramming produces. Naked, save a pink bow on the pig-tail, and sometimes a pair of wooden shoes, the children, playing in the cool mud of the streets, seem like little old men with their scrawny spider limbs and big flabby bellies. They nearly all bear the marks of small-pox, here epidemic but little feared, and lightly termed "the cherry flowers." With no successful method of treatment, and no attempt to confine the contagion, it is the expectation of every Korean at some time to suffer from its ravages. So in the belief that children suffer from a milder form of the disease, in the early infancy of each child there is inserted in the nostril a medicum of the small-pox virus.

As soon as the child is sufficiently mature to manage the long-stemmed pipe, the smoking habit, common to both sexes, is formed. To light a Korean pipe is a feat. The stem is so long that, with the mouth-piece at the lips, the bowl is beyond arm's-length. The lighted match must be placed upon the ground, and the smoker must back away from it to bring the tobacco in contact with the flame.

Four-fifths of the coolie class are addicted to the use of their fiery distillations of rice and barley.

Korea without Seoul would be like the Great Empire without Rome. To such a degree is it the centre of all life, political and social, that its proper name, Han-Yang, has long since been displaced by Seoul (the Capital). Here are the homes, without exception, of all the magistrates, not a few of whom boast proudly of never having left its immediate neighborhood. The city is about twenty-eight miles from the western coast and three from the treacherous river Han, at whose mouth lies Chemulpo, or Jinsen. It is situated, happily for health, in a gravelly basin, surrounded on three sides by lofty hills, whose rugged, barren sides, stripped of all vegetation to furnish fuel for the *kongs*, shed the heavy summer rains in little torrents through the foul drains of the city streets. On the south is a graceful, well-wooded hill, and the residence of every well-to-do inhabitant of Seoul is so constructed as to afford the weary eyes a view of the Nam San (South Mountain), so pleasing in contrast with its blinding gray neighbors. The fifty thousand houses are girt about with a crenellated wall of stone, from twenty to thirty feet in height, now falling to decay from long neglect, which winds sinuously over the uneven ground, mounting the very highest mountain-peaks. Outside the walls live the gardeners and poulterers of the city; in one section are the straw sheds of the fever patients turned out to die by their fearful families; at another, the punishing-ground, where men are spanked to death, or more quickly deprived of life by decapitation.

In addition to the exits from the palace on the north, the wall is pierced by six gateways, mounted with pugodlike structures, the outlooks for the guards. In the centre of the town there hangs a ponderous bell, which, at the close of day, sounds the signal to the watchmen to close and bar the heavy iron-ribbed gates, and to forbid all passing through until the morning. Then, under cover of the night, the well-hooded women, each bearing a miniature lantern, dart like fire-flies through the unlighted passages of the town, paying their neighborly visits. In summer the mosquito-stingings are lighted, and the poor family betakes itself to the street for the night's rest.

At the gates lounge a crowd of listless soldiers in their semi-European uniforms—smoking, laughing, and eating. Near by is a stand of arms of various assortments—Remington rifles, matchlocks, rusty spears, and halberds, and flags of gayly-colored silks, adorned with paintings of winged tigers or dragons, the staves surmounted by feather dusters of pleasant tips. The roads passing through the gates and the palace square, where all converge, are Seoul's only streets. The other passageways are no more than alleys, intricate and confusing as a labyrinth. Usually these streets themselves are encroached upon by the straw booths of vendors of greasy soups, rice, and drink, and the flesh of cattle, swine, and dogs, and of nails, shoes, iron pots, and the country's famous brassware. Before the passage of the king with his royal train through the city, however, the roads are cleared of their temporary structures, and sprinkled with fresh sand.

For interesting and strange sights, defy your nostrils and, some summer day, plunge boldly into the streets of Seoul. Here is a crowd of gambling coolies, their burden-racks scattered about them, waiting for a job; there a train of ponies with tinkling bells, wellnigh hidden by their enormous loads of wood; an oxman howling to his slow beast, which plods along under half a ton of five-cash pieces (cash worth 7000 to one gold dollar); a *yan bang* (aristocrat), sedately seated on a black chair spread with a leopard-skin and borne by two servants. A high official, well hidden by the curtains of the Sedan chair in which he squats, is carried by four human steeds; a band of outrunners clears the street ahead, while a number of attendants trotting at his side utter a sort of long-drawn sigh as though awed by his greatness. Another is drawn along on a lofty unicycle. A magistrate, high mounted on a little steed which he seems to guide, but leaves its conduct to a walking groom, is followed by the bearer of the official seal and brass pot, inseparable companions of authority, slung over the shoulder in a net. A young swell walking, not alone, but with two luckeys supporting his elbows. A crowd of naked children eating melons and, at the same time, wading in a shallow ditch. A female slave with a bundle of clothes upon her head. A palace woman, top-heavy with false hair. A royal procession headed by a crowd of bluecoats armed with paddles six feet long, with which they spank the fleeing populace to the road-side; the heralds bearing bell-tipped staves; a mounted band, gorgeous in yellow silks and peacock plumes, playing shrill reed instruments, rattles, drums, and cymbals; a confused band of soldiers,

consisting of cavalry, some armored in ancient style, some uniformed, some not, and all leaving the care of their beasts to servants who lead them by rope halters; infantry, armed with staves, spears, swords, and guns; and to complete the strange sight of all arms and all uniforms of all ages a Gatling gun is dragged along in the midst. Then the royal car of red lacquer, borne by a score of scarlet-robed coolies with mitred caps. Two harnessed stallions, shaded by an enormous red umbrella, precede the chair, to serve should the king desire to ride. More soldiers, another band of music, and then the chairs and horses of the state officials, eunuchs, and attendants, every one fanning, shouting, and hurrying along to keep pace with the running beavers of the king.

At the head of a broad square at the northern edge of the city two huge stone tigers mark the entrance to the palace, which is well guarded by a series of high stone walls. The royal dwelling is a low rambling structure of wood and brick, upon a stone foundation, with a broad veranda roofed with sheets of oiled paper adorned with Chinese characters. The apartments, some of good size, are separated by sliding screen doors of paper. The ceilings are intersected with large, highly polished beams, and the floors, of shining wood, are covered with mats or rugs. A somewhat pretentious European building intended for a palace has not been occupied since just after its completion, several years ago.

In one portion of the compound are the stalls where the *yang bans* strive, by taking a so-called civil service examination, to obtain the coveted jade buttons, worn just above the ears, the badges of official rank which, I regret to say, are seldom obtained without the

애도의 나라, 조선

-사진을 바탕으로 G. W. 피터스가 그림

01 막노동꾼

02 소년 행상인

03 조선 군인들

04 대신과 그의 아들 그리고 기생들

05 양반 부인과 몸종들

06 대원군, 왕의 아버지

07 서울 궁내 여인

08 관복을 입은 관료

expenditure of considerable wealth on the part of the candidate. The sale of the paper on which are to be written the theses whose merits are supposed to be determined by the command of language displayed, and the clearness of the penmanship, is a right belonging to the crown. At the termination of the examinations, the theses, beautifully written, are well oiled, and form the roof of the veranda of the palace. The grounds are alive with undisciplined soldiers and dirty coolies, who gamble, swear, cook, and wash their few clothes without the slightest restraint.

In the rear wall is an exit to be used in times of danger to the sovereign, whereby, through a narrow mountain pass guarded by a defensive wall, he can reach one of his strongholds in the country. A tedious climb of this pass to Puk Han, the monarch of the Cockscorn range on the city's northern border, has its reward. Half-way down the mountain's slope is a walled stronghold of some Buddhist monks, years ago forbidden to enter the capital; farther to the south, the skirting wall of Seoul; to the east, as far as the eye can reach, gray hills of decomposed granite; to the north and west, the valley of the Han, green with rice and barley, the Peking pass or road by which the yearly embassy bears tribute to the Middle Kingdom; and farther on the turbid Han itself, with its fleets of unpainted junks and little steamers, where an Occidental, for the fortune of being white, pays as a passenger three times the fare of his yellow fellow-travellers, though enjoying the same accommodations; while on the horizon lies the yellow sea which washes the barren unlighted coast and archipelago of the "Land of Morning Calm."



조선 그리고 조선인(1)

V. 드메

“1864년 13세가 되던 해에 왕위에 오른 이희는 현대식 발전이라는 개념에 대해 열린 생각을 지녔다. 하지만 조선의 대외 정책은 완전히 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조직은 그대로 멈춰 있었다.”

I
용의 나라 그리고 은둔의 나라-거동¹-합문²-군대-왕가의 관대함-국가나 가문에 대한 충성심에 따르는 보상-삼강행실-지혜로움과 관대함

중국³과 ‘떠오르는 태양의 나라(일본)’ 사이에 위치하여 실제로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는 조선은 면적이 2,400만 헥타르로 프랑스의 절반에 해당하는 반도 국가이다. 조선반도는 만주로부터 이어 내려와 맹금류의 부리처럼 황해(서해)와 일본해(동해) 사이로 휘어져 있다. 위도는 북쪽

Journal des Voyages	1894. 09. 02. pp.146~148
주르날 데 부아야주 프랑스	구9733 31.5×23.0

으로 프랑스의 프로방스 지방과 비슷하여 기온이 심하게 내려가지 않고, 남쪽으로는 알제리와 비슷하여 따뜻하다. 하지만 알프스산맥의 빙하보다 더 강력한 동시베리아의 찬 공기가 인접해 있기 때문에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기도 한다. 황해의 해안은 일본해 연안보다 항구의 입지로서 조건이 좋지 못하다. 황해 연안 앞쪽에는 수많은 작은 섬이 무리를 이루고 있어 중국의 속국으로서의 조선 왕은 스스로를 ‘만 개의 섬을 다스리는 왕’이라며 만족해하기도 하였다. 조선 지형의 윤곽선을 그려보면 조선인들이 신성시하는 동물인 용의 형상을 하고 있다. 상상 속 동물의 머리 부분이 두만강 어귀에 해당하고, 튀어나온 귀 부분은 브뤼아곶(북한의 무수단 부근), 목은 브로틴만(북한의 동조선만)의 쑥 들어간 부분, 어깨와 허리는 두로치곶(북한의 금강산국립공원 앞 해안)과 펠리시에곶(울진 근처)과 일본해를 따라 길게 늘어진 산맥에 해당하며, 꼬리는 켈파트섬(제주도)⁴까지 이어진다. 조선 땅에서 금광을 찾기 위한 탐사 시도가 있었지만 결과는 좋지 못하였다. 조선인들의 말도 안 되는 미신에 부딪혔기 때문이다. 그들은 ‘용’을 화나게 하면 나라에 큰 재앙이 닥칠 것이라고 무서워하며 산을 건드리려는 시도조차 그냥 넘기지 않았다.

조선은 스스로 외부 세계로부터 고립되는 길을 택하였기 때문에 ‘은둔의 나라’라고 불려왔다. 샤를 바라와 함께 이 나라를 탐험해 보도록 하자. 지위에 합당한 예우를 갖춰 제일 먼저 조선의 왕 이희(고종)에 대해 알아보자. 중요한 의례가 있으면 왕은 조선이 군주로 모시는 중국 황제가 하사한 왕권을 상징하는 문양인 용을 수놓은 비단옷(곤룡포)을 입는다. 왕이 스스로를 칭할 때는 ‘합문’이라 하는데 이는 아시아 황가 皇家의 ‘우리’에 해당하는 말이다. 겉으로는 절대 군주제를 표방하고 있지만 조선은 사실상 봉건 국가나 다름없다. 모든 행정적 계급이나 시민 계급이 사술의 고리처럼 연결되어 있다. 상업 관련 길드나 동업 조합이 중국식 모델을 모방해 만들어졌다.

수도인 서울에 위치한 왕궁은 과거에는 사찰처럼 생긴 여러 채의 건물 이 모여 있고 담장으로 둘러싸인 형태로 이루어졌었다. 1888년 프랑스 건축가인 살라벨⁵이 전기를 설치해 밤에도 불을 켤 수 있는 현대식 왕궁을 지었다.⁶ 왕은 보통 낮 동안 누워서 지내고 백성들 앞에 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 단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조상들께 제사를 지내

리 절에 가기 위해 궁 밖으로 나간다. 사이에 룡 베이 대령은 ‘거둥’이라 부르는 왕의 행차에 참석한 적이 있다. 먼저 행렬의 제일 앞에는 행사 주관자 또는 기병대장이 마치 외바퀴 자전거처럼 생기고 앞뒤로 긴 채가 달려 가마꾼들이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어 움직이는 높은 의자⁷에 앉는다. 그 뒤를 군사들이 열을 지어 따른다. 아울러 플라줄렛(테펑소), 두 줄의 바이올린(해금), 심벌즈(쟁과리), 북, 징, 풍적(생황)과 같은 악기들로 바로크풍 음악을 연주하며 왕의 행차를 알린다(대취타). 왕가의 상징물인 붉은색의 거대한 양산이 왕을 앞서간다. 왕은 옆에서 부채질을 멈추지 않는 후궁들과 궁중 호위 무사에 둘러싸여 붉은색 비단으로 덮인 의자에 앉아 있고, 수많은 가마꾼이 어깨에 메고 움직인다. 그 뒤로 궁정 신하들이 따라간다. 이들은 대나무 줄기나 말총으로 만든 끈을 격자로 엮어 만든 주교관처럼 생긴 쥬 없는 모자(사모)를 머리에 쓰고 발목까지 오는 긴 짚은 녹색 비단옷(관복)을 입었으며, 펠트로 만든 검은색 신발(복화)을 신고 있다. 그리고 유리 세공품과 옥으로 장식된 허리띠(각대)를 둘렀다. 옷의 가슴과 등 부분에는 학, 호랑이 또는 용을 수놓은 문양을 덧대었다(흉배). 이때 군중들은 모두 몸을 굽힌다. 입금을 정면으로 마주 보는 것은 금지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 뒤로는 각종 명구名句들이 새겨진 노란색, 흰색, 붉은색 깃발들이 따른다. 왕세자는 10세에서 15세가량의 소년 100여 명의 호위를 받으며 왕이 탄 의자(연輦) 뒤를 따른다. 행렬의 후위에는 무장한 군사들이 위치하는데 이들은 옛 무사들처럼 쇠사슬 갑옷에 철모를 쓴다. 검고 긴 머리카락이 얼굴을 덮은 채 상대적으로 너무나 왜소해 보이는 조랑말 위에 앉아 있으니 영락없이 미개한 야만인かと 같은 모습이다. 일단 놀라운 점은 조선의 군대를 구성하고 있는 병사의 숫자가 어마어마하다는 것이다. 병사의 수는 총 120만 명 이상이다. 조선에서는 귀족을 제외한 건강한 모든 남자는 군인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소위 군인이라고 여겨지는 남자들의 대다수는 총 한 번 만져보지 못한 사람들이다. 군사 장부에 이름만 올려놓고 매년 개인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전부이다. 그나마 군인다운 군인으로 이루어진 부대는 1만 명 정도 규모로, 수도에 위치한 4개의 병영으로 나누어 배치되고, 일부 병사들은 왕궁을 지키는 4개 요새에 소속된다. 장군은 포도대장, 지방 전체 또는 한 지방의 일부를 맡는 사령관은 병사兵使(병마절도사라고도 함), 해군 사령관은 수사水使(수군통제사), 대령은 영장營將, 대위는 중군中軍, 중위는 감목관監牧官, 하사관은 별장別將이라 부른다. 모든 관료는 후한 봉급을 받는다. 하지만 이런 호사스러운 생활을 누리다가 복무 기간이 끝날 때가 되면 빚더미에 앉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들의 의복과 제복의 호사스러움은 기메박물관⁸에 전시된 후 본지에서 출판된 책의 삽화를 보면 잘 알 수 있다. 금으로 만든 모자, 붉은색 비단에 검은색 자수가 들어간 가운데처럼 긴 옷, 조선의 빼어나게 아름다운 수가 놓이고 아랫부분에는 여러 색깔의 비단 장식 술이 길게 늘

어져 있는 덧옷 등인데, 일본군의 포로가 되었던 조선 장군 한 명과 병사 한 명이 입었던 제복이다. 장군의 제복은 비단 위에 금으로, 병사의 제복은 면 위에 구리로 장식되어 있다. 이런 장식품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은 청동으로 만든 약실 장전식 대포가 개발된 것과 같은 때인 152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철로 만든 대포는 가장 늦게 잡아도 1590년에 개발되었다. 우리가 그토록 고민하며 해결하려 했던 현대식 포대의 문제점을 조선인들은 이미 지금으로부터 300여 년 전에 해결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조선인들은 말안장에 사용하는 가죽과 천을 다양한 색깔로 염색하고 자수로 장식했으며, 말의 등자籠子와 장식물은 구리나 채색 나무로 만든다. ‘합문’은 인구 1,500만 명의 절대 군주이다. 백성들을 위해 제를 올리는 대사제이자, 가족을 다스리듯 백성을 다스리는 국부國父이고, 모든 이의 안전을 지키는 수호자이자, 나라의 평화나 전쟁을 결정하는 존재이다. 그 누구도 죽음을 각오하지 않고는 실수로라도 감히 그의 성스러운 몸에 손댈 수 없다. 1864년 13세가 되던 해에 왕위에 오른 이희는 현대식 발전이라는 개념에 대해 열린 생각을 지녔다. 하지만 조선의 대외 정책은 완전히 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조직은 그대로 멈춰 있었다. 변화라면 단지 후궁后宮을 없애고 군대를 유럽식으로 재편성한 것이 전부였다. 그는 수 세기 동안 내려온 전통을 완벽하게 지켜나가고 있다. 그런데 그중 몇몇의 전통에서는, 특히 공공 구조와 관련된 전통에서는 지금까지 다른 문명과의 접촉이라면 모두 극심하게 반대해 왔던 나라라고 하기에는 놀라운 면모들이 발견되기도 한다. 먼저 왕은 1년에 한 번, 100세를 맞은 노인들에게 쌀을 하사한다. 또한 매달 자신의 상에 올라오는 술과 요리들을 70세 이상의 고위 관리들과 그 배우자, 업무에서 뛰어난 성과를 보인 고위 관리들의 부모와 배우자에게 보내도록 지시한다. 또한 왕은 봄가을에 각각 한 차례씩 인생의 덕망을 갖춘 고령의 고급 관료들을 위해 연회를 연다(기로연耆老宴). 이 연회는 중국어로 ‘Lao-Jug-hosi’라고 부르는데, ‘나이에 걸맞은 공로를 위한 연회’라는 뜻이다. 공로가 뛰어난 관료라면 살아 있을 때는 공식적으로 직접 치하하고, 사후에는 그의 아들과 손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주는 것으로 치하한다. 왕은 가난 때문에 혼인을 할 수 없거나 아이를 가질 수 없거나 혹은 사망 후 매장할 수 없는 모든 일반 백성을 도와준다. 70세가 된 고령의 고급 관료들에게는 그들이 나랏일에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은퇴할 때가 지나도 계속해서 일을 맡기기도 한다. 이렇게 일을 계속하는 경우 왕은 그에 대한 상으로 책, 상奩 그리고 손잡이 부분이 같고리 모양으로 굽고 끝부분이 용머리로 장식된 지팡이(제장几杖)를 하사한다. 고급 관료에 대한 명예는 3대에 걸쳐, 그리고 그의 조상들에게까지 부여된다. 학자 또는 문관이나 무관의 부모가 70세가 되면 아들 한 명은 본가로 돌아가 부모님을 모시라는 명을 받게 된다. 부모가 80세가 되

면 아들 두 명이 본가로 돌아가야 한다. 그리고 90세가 되면 더욱 잘 부양하기 위해 모든 자식에게 본가로 돌아가라는 명령을 내린다. 여러 언어로 번역된 『삼강행실도三綱行實圖』는 조선인들이 행한 모든 미담을 모아 놓은 책인데, 어릴 때부터 가장 훌륭한 자질인 덕(德)을 알고 배울 수 있도록 전국에 배포한다. 곡물 가격이 상승하면 백성들은 정부가 비축해둔 쌀을 일정한 가격에 살 수 있다. 또 정부는 농부들이 한 해 농사를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충분한 양의 씨앗을 빌려준다. 홍수나 가뭄으로 인해 흉작이 들면 왕은 전국의 ‘공공 구제기관’의 문을 열고 백성들에게 구호물자를 나누어 주게 한다. ‘합문’은 전제주의적 권력을 지니지만 그 안에서 지혜로움과 관대함도 잊지 않고 발휘한다.

1 '임금의 나들이'를 뜻하는 '거동'을 소리나는 대로 'Qué-Dong'이라 적었다. **2** 함문(閤門)은 궁궐에서 내외(內外)와 공사(公私)의 경계로 설정되는 문을 말한다. 여기서는 '왕'을 의미한다. **3** 원문에 'the Middle Kingdom'이라고 되어 있는데 중국을 뜻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4** 제주도를 의미하는 '켈파트섬'은 제주도에 난파한 네덜란드 국적의 선박 이름 켈파트(Quelpart)에서 유래하였다. **5** 프랑스인 건축가 조제프 오귀스트 살라벨(Joseph

Auguste Salabelle)을 가리키는데 조선 정부에 초빙되어 궁중 건축 업무를 맡았다. **6** 1887년(고종 24) 4월 경복궁 건청궁에 처음으로 전등이 켜졌다. **7** 조선시대 종2품 이상의 관리가 타던 수레인 초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가마와 비슷하지만 채가 아주 길고 밑에 외바퀴가 달려 있어 보통 6명에서 9명이 조를 이루어 움직였다. **8** 프랑스 파리에 위치한 국립박물관으로 유럽에서 가장 큰 동양 박물관이다.

LA CORÉE ET LES CORÉENS

I

Le pays du Dragon et la Nation-ermite. — Le Qué-Dong. — Le « Hap-Mun ». — L'armée. — Les largesses royales. — Primes au dévouement à l'Etat et à la piété filiale. — Le « San-Kang-Sin-che ». — Sagesse et générosité.

PLACÉE entre le « Royaume du Milieu » et le « pays du Soleil Levant », comme une véritable « pomme de discorde, » la Corée est une presque île de 24 millions d'hectares, valant près d'une demi-France.

Cette péninsule, attachée à la Mandchourie comme un bec d'oiseau de proie, se recourbe entre la mer Jaune et la mer du Japon. Si elle ne s'allongeait pas sous des climats très froids par une latitude égale au Nord à celle de la Provence, au Sud à celle de l'Algérie, tout en elle rappellerait l'Algérie. Mais le voisinage des frimas de la Sibérie orientale, plus puissants que les glaces des Alpes, refroidit considérablement la température.

Sur le littoral de la mer Jaune, il y a moins de bons ports que sur le rivage tourné vers la mer du Japon. En avant de

cette côte, les archipels de petites îles sont si touffus que le monarque coréen, tributaire de la Chine, s'appelle complaisamment le « Roi des Dix Mille Îles ».

Le contour de la Corée représente la figure d'un dragon, animal divinisé par les habitants. La tête de cet animal fantastique se trouve à l'embouchure du Toumen; les deux projections du cap Bruat forment les oreilles; le cou se trouve dans l'enfoncement de la baie Broughton; les épaules et le dos sont représentés par les caps Duroch et Pélistier, et par la chaîne de montagnes qui longent la mer du Japon; la queue se prolonge jusqu'à l'île Quelpaërt.

Si les essais d'explorations faits pour rechercher les mines d'or n'ont pas donné de résultats appréciables, c'est que les entrepreneurs se sont heurtés contre les superstitions absurdes des Coréens, qui voient d'un mauvais œil la moindre tentative faite pour toucher à leurs montagnes : ils craignent d'irriter le « Dragon » qui ferait pleuvoir sur le pays les plus grandes calamités.

La Corée a été appelée la « Nation ermite », à cause de son isolement volontaire du reste du monde. Pénétrons chez elle avec M. Varat.

A tout seigneur tout honneur; occupons-nous d'abord du roi, Li-Houi, dont le titre est « Hap-Mun ». Dans les grandes cérémonies, Sa Majesté porte une robe de soie, don de son suzerain, l'empereur de Chine; elle est brodée de dragons, emblème du pouvoir royal. En parlant de lui-même, le roi emploie le terme de « Hap-Mun » qui est équivalent au « Nous » impérial asiatique.

Sous les apparences d'une monarchie absolue, le gouvernement de la Corée, ou Chôson, est une véritable féodalité. Tous les degrés de la hiérarchie administrative et civile sont liés entre eux comme les anneaux d'une chaîne; les guilds ou corporations, adonnées au commerce, sont organisées sur le modèle chinois.

Autrefois le palais du roi, à Séoul, consistait en une collection de constructions semblables aux vieux temples et entourées de murailles. Depuis 1888, un architecte français, M. Salabelle, a construit un palais moderne, éclairé par la lumière électrique pendant toute la nuit. Le roi se couche pendant le jour, et se fait voir rarement à son peuple; il est tenu, pourtant, de sortir de son palais au moins une fois par an pour aller au temple sacrifier aux mânes de ses ancêtres.

Le colonel Chaillé-Long-Bey a eu l'occasion d'assister à une de ces processions connues sous le nom de « Qué-dong ».

En tête apparaît tout d'abord le grand ordonnateur ou maréchal, perché sur une chaise, espèce de monocycle, dont les timons, en avant et en arrière, sont tirés et poussés par des coolies. Des soldats forment la haie.

Une musique baroque — où figurent les flageolets, les violons à deux cordes, les cymbales, les tambours, les gongs, et

la cornemuse — annonce le souverain.

Le « Hap-Mun » est précédé de l'immense ombrelle rouge, emblème de la royauté. Entouré de favorites et de gardiens du palais, agitant tous des éventails, il est assis sur une chaise couverte de soie rouge et portée sur les épaules de nombreux coolies.

Suivent les courtisans de service au palais. Tous sont coiffés d'une sorte de treillis fait de tiges de bambous ou de lanières de crins de cheval en forme de toque ou plutôt de mitre, vêtus d'une robe de soie vert foncé qui descend jusqu'aux chevilles et laisse voir les bottes en feutre noir. Un ceinturon, orné de verroteries et de jade, enserre la taille. Sur les plastrons de la poitrine et du dos sont brodées des figures de cygnes, de tigres ou de dragons.

Toute la foule s'incline; car l'usage défend de regarder le souverain en face.

Viennent ensuite des étendards jaunes, blancs, rouges, couverts de devises.

Le prince héritier, escorté par une centaine de garçons de dix à quinze ans, suit la chaise du roi. L'arrière-garde est composée de gens armés, vêtus comme les anciens guerriers, d'une cotte de mailles et coiffés d'un casque de fer; leurs longs cheveux noirs étalés sur le visage leur donnent un aspect de véritables sauvages juchés sur des poneys presque microscopiques.

On est d'abord frappé du chiffre énorme des soldats qui sont censés former l'armée coréenne : elle se composerait, en effet, de plus de 1,200,000 hommes. C'est qu'en Corée tout individu valide et non noble est soldat. Mais l'immense majorité de ces prétendus guerriers n'a jamais touché au fusil. On se contente de porter leur nom sur un registre et de leur réclamer annuellement une taxe personnelle.

Les seules troupes à peu près sérieuses comprennent 10,000 hommes répartis dans les quatre grandes casernes de la capitale et quelques soldats installés dans les quatre forts royaux.

Le *tai-tsieng* est un général; le *pieng-sa*, un commandant militaire d'une province ou d'une demi-province; le *siou-sa*, un préfet maritime; le *seng-tsiang*, un colonel; le *tsoung-koun*, un capitaine; le *kam-mok-koan*, un lieutenant, et le *piel-tsiang*, un sous-lieutenant.

Tous ces fonctionnaires sont grassement rétribués; mais ils affectent un luxe tellement princier, qu'une fois arrivés au terme de leur commandement, ils sont criblés de dettes. On peut juger du luxe des habillements et des uniformes par les gravures que nous publions d'après les spécimens exposés au musée Guimet : un costume de gouverneur, avec casque d'or, robe de soie rouge bordée de noir, et superbe tablier, merveille de broderie coréenne, au bas duquel pendent de larges franges de soie multicolore; deux uniformes de gé-

néral et de soldat coréens, faits prisonniers par les Japonais.

Tous les ornements de l'uniforme de général sont en or sur soie, ceux de l'autre sont en cuivre sur coton; ils remontent à 1522, ainsi que le canon de bronze se chargeant par la culasse; le canon en fer, d'une âme plus étroite, date de 1590 : les Coréens ont résolu, depuis 300 ans, le problème qui a tant préoccupé notre artillerie moderne. Les cuirs et les étoffes de la selle que nous reproduisons sont teintés de nuances diverses et ornées de broderies; les étriers et ornements sont en cuivre ou en bois coloré.

« Hap-Mun » est le souverain absolu de quinze millions de sujets; grand-prêtre, il officie pour son peuple; père de la nation, il l'administre comme sa propre famille; enfin, gardien de la sécurité de tous, il décide de la paix ou de la guerre et nul ne pourrait toucher, même involontairement, à sa personne trois fois sainte sans mériter la mort.

Le roi Li-Houi, monté sur le trône à 13 ans, en 1864, a l'esprit large et ouvert aux idées de progrès moderne; mais si la politique extérieure a été complètement modifiée, l'organisation générale est restée la même : le souverain a seulement supprimé son sérail et réorganisé l'armée à la façon européenne; il respecte scrupuleusement des traditions séculaires, dont quelques-unes — surtout celles qui touchent à l'assistance publique — causent quelque surprise, venant d'un pays jusqu'ici rebelle à tout contact de la civilisation.

Une fois par an, le roi approvisionne de riz les vieillards centenaires. Tous les mois, il fait porter du vin et des mets de sa table aux grands dignitaires âgés de plus de soixante-dix ans, aux pères, aux mères et épouses de ceux de ses sujets qui se sont distingués par leurs services et aussi aux épouses des grands dignitair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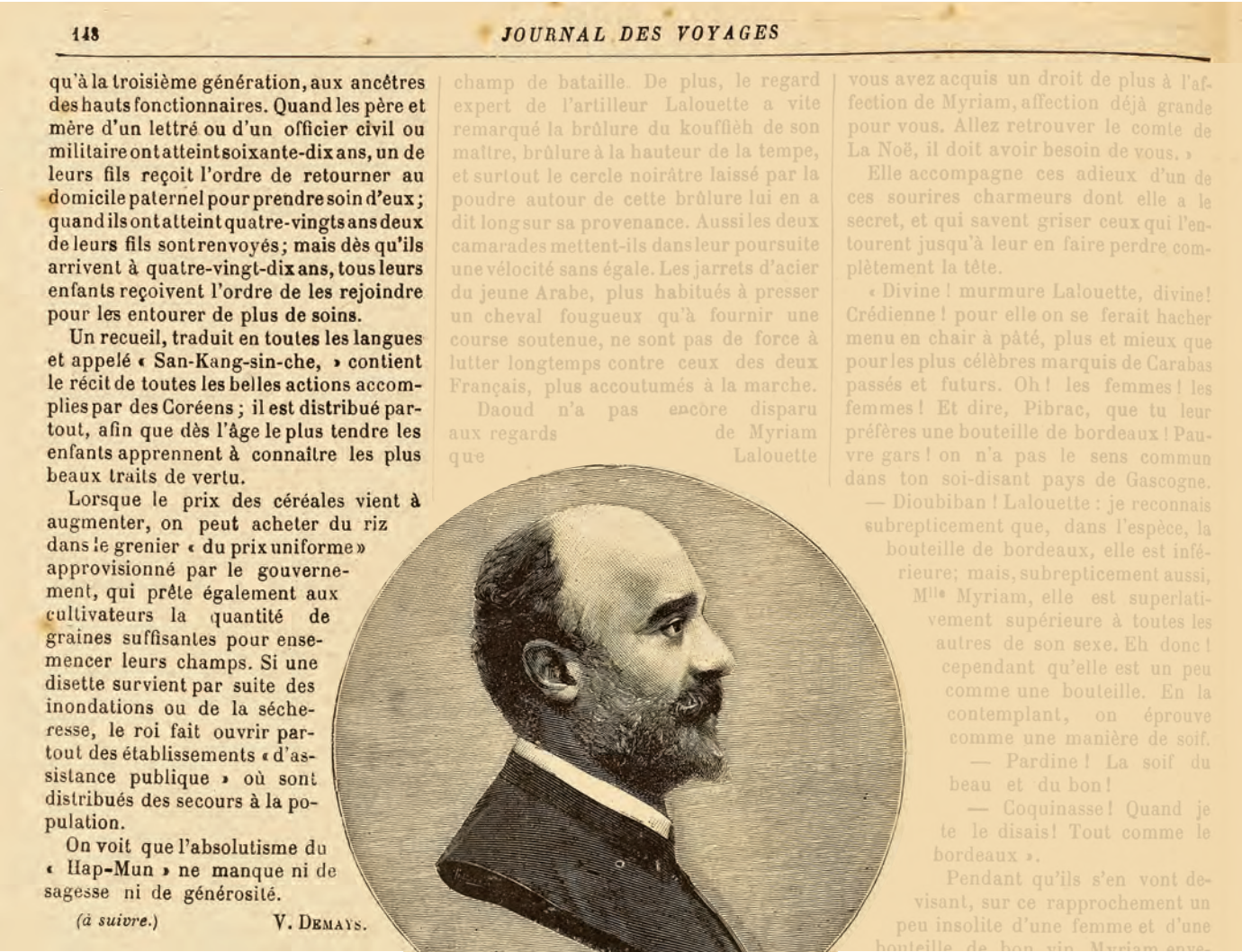
Au printemps et à l'automne, le roi donne un banquet aux fonctionnaires du premier rang qui, arrivés à un âge avancé, jouissent d'une réputation de vertu incontestée. Ce banquet s'appelle en chinois « Lao-Jug-hosi », c'est-à-dire « banquet du mérite éprouvé par l'âge ».

Le roi décerne, de leur vivant, des éloges publics aux fonctionnaires signalés pour leur intégrité, et, à leur mort, il fournit d'emplois leurs fils et petits-fils.

Le souverain octroie des secours à tous les gens du peuple que leur pauvreté empêche de se marier, d'établir leurs enfants en temps utile, ou de donner la sépulture à leurs morts.

Les officiers de premier rang, à l'âge de soixante-dix ans, se voient refuser la retraite, quand leur concours est jugé indispensable au service de l'État; le roi leur octroie, comme témoignage de sa bienveillance, des livres, une table et un « bâton de vieillesse » recourbé en croisé, et terminé par une tête de dragon.

Des titres honorifiques sont décernés, jus-



조선 그리고 조선인 사를 바라의 초상화, 1893년 작고

동시대 탐험 조선 그리고 조선인(2)

V. 드메

“조선의 집들은 초라하고 남루한
오두막집이다. 200채 중 199채는
벧짚으로 지붕을 엮은 집이다.
거의 대부분의 집이 대충 다듬은
나무줄기와 약간의 돌, 진흙 그리고
짚으로 만들어졌다.”

II

민족학적 분류－신발과 의복－술이 많은 머리카락－머리 모양－굴뚝이 없
는 집－침대－통행금지를 알리는 종소리－관기官妓－여성들의 생활상－나
이 어린 부부－연회 음식

일반적으로 조선인들은 중국인이나 일본인보다 키가 좀 더 크다. 머리
나 얼굴 모양의 가장 주된 유형을 말하기에는 여행자들이나 선교사들
의 평가에 서로 모순되는 부분이 있어서 정확하게 정의하기는 힘들다.

Journal des Voyages	1894. 09. 09. pp.467~470
주르날 데 부아야주 프랑스	구9734 31.0×22.7

드 로스니에 따르면 서로 다른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는 가장 우세한 유형으로 보이는데 넓은 얼굴, 튀어나온 광대
뼈, 두껍고 둥그런 입술에 매우 긴 입, 찢어지고 처진 눈, 작고 납작한
코, 노랑고 중국인보다 더 짙은 낮빛에 턱수염은 별로 없는 것이 특징
이다. 두 번째 유형은 반대로 긴 타원형 얼굴에 두드러진 코, 살짝 찢어
진 눈, 작은 눈꺼풀, 중간 크기의 입, 작은 귀, 밝은 노란색 낮빛, 대부분
은 검은색이지만 간혹 예외적으로 붉은색을 띠는 머리카락, 갈색이면
서 간혹 푸른빛 또는 구릿빛이 도는 눈동자에 몸에 털이 많은 특징을
가진다. 세 번째 유형은 첫 번째와 비슷하지만 턱이 더 돌출되고 턱수
염이 더 적으며 코가 덜 납작하고 피부색은 더 짙다.
대다수의 조선인은 밝은 톤의 밤색 머리카락에 파란색 눈을 가졌다.¹
신생아의 피부는 대부분 노란색이 매우 두드러지는데 점차 자라면서
밝은 노란색이 되기도 하고 완전한 갈색이 되기도 한다.

남자에게 해당하는 이 세 가지 유형을 조선 여자에게 똑같이 적용하
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 특히 하층 계급의 여성 중 일부는 얼굴 생김
새가 놀랍게도 예조²나 카라후토(사할린의 일본식 명칭)의 아이누족 여성
들과 흡사하다. 일부 상류층 여성들은 중국 북부 지방 여성들과 비슷
하지만, 피부가 매우 희고 중국 여성보다 볼의 혈색이 더 두드러진다.
대부분의 여성은 키가 작다. 머리카락은 부드럽지 않은 편이고, 눈썹
은 완벽한 아치 모양으로 그리기 위해 일자로 깎는다. 머리카락은 기름
지고 굵고 붉은빛이 도는 검은색이며, 얼굴이 작아 보일 정도로 머리
를 매우 크게 말아 올린다.

조선인들이 입는 옷은 옛날에 중국인들이 입던 옷과 동일하다. 한편
조선과 중국(淸) 연합군에 승리한 만주족(淸)은 멸시의 의미로 중국인
들에게 머리카락을 하나로 길게 땋아 늘어뜨리도록 강요하였고,³ 그레
서 이때부터 중국인들 사이에서는 이 같은 머리 모양이 명예와 기품의
상징이 되었다. 반면 조선에게는 그리 엄격하게 대하지 않아 조선인들
이 원하는 머리 모양을 유지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결혼하기 전까지 젊은 남성들은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고 앞가르마
를 타며 머리를 모아 하나로 땋아서 등 뒤로 늘어뜨리기 때문에 마치
젊은 여성과 같은 분위기가 나기도 한다. 결혼하면 남자는 머리를 하
나로 틀어 올려 정수리 위에서 묶고 모자나 '갓'을 쓴다. 갓은 대나무

줄기나 말총을 엮어서 만든다. 이 무겁고 보기 좋다고 할 수 없는 틀어 올린 머리(쌍투)는 조선 남성들에게는 최고의 품위를 더해준다. 여자와 과 아이들은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는다.

조선인들은 샌들(짚신)을 신는데, 바닥을 벗짚이나 뽕나무 껍질로 만들기 때문에 발바닥을 잘 보호해주지 못한다. 극빈층에 속하지 않는 이상 조선인들은 모두 두 장의 포복으로 만들어진 긴 양말(버선)을 신는데, 맨 앞이 뾰족하고 발 모양을 따라가며 바느질하였다. 바지는 알제리 보병이 입는 바지⁴처럼 폭이 넓고 다리에는 무릎 아래까지 올라오는 포목 각반을 묶는다. 상의는 옛날 프랑스 시골에서 입던 카르마놀⁵처럼 생긴 옷옷(저고리)을 입는다. 부유층 남성은 그 위에 색깔이 있는 먼 상의를 덧입는데, 소매폭이 넓고 양옆에 트임이 있으며, 길이는 무릎까지 내려온다(중치막). 몇 해 전부터는 겨울철이면 이 옷 대신 일종의 프록코트⁶(마고자)를 입기도 한다. 소매폭이 엄청나게 넓은 예복 외투(투루마기)를 맨 마지막에 입기도 하는데, 주로 여행할 때나 격식을 갖추어야 하는 자리에 입는다.

마지막으로 크기가 매우 큰 모자(갓)를 쓰면 의복이 완성된다. 프랑스에서 쓰는 실크햇트⁷처럼 한쪽이 막힌 원통형 모자를 생각하면 되는데, 정수리 모양에 맞게 원통이 훨씬 좁고 끝이 원추형처럼 살짝 좁아지며, 그 안으로 틀어 올린 머리(쌍투)가 간신히 들어가는 형태이다. 원통 모양 옆으로 챙(양태)이 붙어 있는데, 그 크기가 매우 커서 챙의 크기가 지름 60센티미터 이상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모자의 뼈대는 대나무를 매우 가늘게 쪼개어 만들고, 그 위에 말총을 삼베처럼 엮은 직물을 붙이는데 채광이 된다. 이 상상 속이나 나올 법한 모자는 줄이 연결되어 있어 턱 밑에서 묶는데, 추위나 비, 햇빛을 막아주지 못해 불편하며 특히 바람이 불면 머리 위에서 흔들리거나 움직여 더욱 성가시다. 이 외에 의복에 같이 지녀야 할 부속품들로는 허리띠, 담배쌈지, 대나무 줄기로 만든 담뱃대, 금속 담배통(대통) 등이 있다. 모든 옷은 일반적으로 성기게 짠 면포로 만든다. 모든 가정에서 여자들이 실을 잣고 면포를 짜서 옷을 만든다.

조선의 집들은 초라하고 남루한 오두막집이다. 200채 중 199채는 벗짚으로 지붕을 엮은 집이다. 거의 대부분의 집들이 대충 다듬은 나무줄기와 약간의 돌, 진흙 그리고 짚으로 만들어졌다. 기둥 네 개가 지붕을 받치고 있고, 이를 가로지르는 몇 개의 대들보—나무 막대 여러 개가 대각선으로 교차되어 얹혀 있다.—가 격자를 이루며 흙으로 빚은 10센티미터 두께의 벽을 지탱한다. 집의 작은 출입구는 나무로 만든 격자에 유리가 없기 때문에 대신 종이를 덧발라 창문으로도 사용한다. 집 안으로 들어갈 때는 신발을 벗는데, 이는 습관이면서 청결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방바닥에는 거친 돗자리나 짚을 잔다. 부자들은 진흙 벽에 종이로 도배를 하고, 바닥에는 돌이나 나무 바닥을 대신해 기름 먹인 두꺼운 종이를 바른다. 농민이나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집에 맨발로 들어가는 반면, 부자들은 양말(버선)을 신고 들어간다. 집에 들어가면 천장의 흙이나 나뭇가지에 머리를 부딪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그리고 바닥에 웅크리고 앉아야 한다. 없는 의자를 찾아서는 안 된다. 왕조차도 궁정에서 양탄자 위에 책상다리를 하고 앉기 때문이다. 테이블은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거나 식사를 할 때 사용하는 상이 전부이다. 굴뚝은 없지만 집 밖에 부엌과 아궁이가 있으며, 방과 돗자리 밑에 설치된 여러 개의 관이 아궁이로 연결된다. 연기와 열기가 이 같은 난방 장치(아궁이)를 통해 지나가면서 집 안 공기를 덥히지 만 이산화탄소가 함께 발생하기도 한다.

침대를 대신해서는 단순한 돗자리가 있을 뿐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위에서 누더기를 이불 삼아 덮고 잔다. 엽전—구리로 만든 동전으로 중간에 네모난 구멍이 뚫려 있어 줄을 관통시켜 묶을 수 있다. 엽전 1,350개는 1멕시코 피아스터 혹은 4프랑에 해당한다.—을 좀 가진 사람은 이불을 덮는 호사를 누리기도 한다. 부유층에서는 이불 외에 두께 10센티미터 정도의 작은 매트(요)를 깔고 잔다. 그리고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상관없이 모두 사각형의 작은 나무토막을 베개 대신 사용한다. 특권층인 지식인들만이 가구를 사용할 수 있는데, 주로 광택이 나는 나무에 옷칠을 하거나 자개 상감 혹은 구리 장식을 하는 형태이다. 귀족들이 사용하는 침대는 매끄러운 참나무를 이용해 투각 형태로 만들었는데, 높이가 매우 낮고 접을 수도 있다. 긴 베개는 깃털로 속을 채웠고 양쪽 끝에는 지름 20센티미터의 원형판이 있는데 윤기가 나고 조각이 새겨져 있으며 구리로 만든 고리가 달려 있다.

가난한 서민들의 집에서는 가구라곤 찾아볼 수 없다. 갈아입을 옷은 가로로 매달아 놓은 나뭇가지에 걸어 두는 것이 전부이다. 좀 더 여유가 있는 집에서는 여러 개의 바구니를 말뚝에 걸어 두거나 지붕에 매달아 둔다. 부잣집에는 세련되진 않았지만 커다란 여행 가방같이 생긴 함이 있다. 문인이나 상인들은 방에 작은 궤짝을 두고 앉아서 글을 읽거나 일을 하는데, 그 안에는 먹물 통, 붓, 종이 두루마리 등이 들어 있다. 결혼한 젊은 여성들은 작은 검은색 상자를 지니는데, 그 안에는 필수적인 결혼 선물이라고 할 수 있는 빨간색과 파란색 치마 두 벌을 넣어 둔다. 귀족이나 고위 관료의 집에는 중국 서적들과 광택이 흐르는 가구들이 있다.

오랜 관습에 따라 ‘인경’⁸이라 불리는 거대한 종이 올리면 조선인들은 모두 재빨리 자신들의 오두막(초가집)으로 돌아가야 한다. 종이 올리면 모든 상점도 바로 문을 닫아 사람들로 붐비던 거리가 눈 깜짝할 사이에 텅 비고 만다. 그때부터 집에 처박힌 남자들은 노름에 빠져들거나 그들이 숭배하다시피 하는 쌀로 만든 술을 엄청나게 마셔댄다. 밤이 되면 도시는 깊은 어둠에 잠기고 도심으로 통하는 성문들은 저녁 8시면 모두 닫혀 새벽 3시가 되어야 다시 열린다.⁹ 여자들은 겨울이면 한양 중심가까지 내려오는 호랑이나 표범이 무서워서 대부분 저녁 시간

대 외출을 즐기지 않는다. 조선 여성들은 집에서 거의 숨어 지내다시피 하고, 외출할 때는 터키 여성들처럼 온몸을 옷으로 감싸고 폐쇄된 가마에 앉아 이동하며, 늘 한 명 내지 두 명의 늙은 하인을 동반한다. 조선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여성의 부류는 오로지 일꾼과 기생 또는 무희밖에 없다. 기생의 입고 있는 옷이나 부르는 노래, 관련된 풍습 등을 보면 고대 이집트의 무희가 연상된다. 기생은 관청 소속으로 공식적인 잔치나 연회에 참석하고 관청으로부터 보조금을 받는다. 그들이 칼춤을 출 때는 연속적인 동작과 함께 칼을 흔드는데 그때 나는 금속 소리가 매우 특이하다. 귀족 계층 여성들은 평생 동안 일종의 침거 상태로 살아가야 하고,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해가 지기 전에는 규방 또는 안채에서 절대로 나갈 수 없다. 그녀들은 남편이 값을 치르고 샀기 때문에 남편에게 절대적 소유권이 있고, 나라의 법에 의해서도 거의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로 취급받는다. 그 누구도 그녀들이 거거하는 안채에는 발을 들여놓을 수 없다. 조선에는 중국과 비슷한 방식의 일부다처제가 존재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남자는 한 명의 배우자와 산다. 대지주도 부인을 두세 명 이상으로 두는 경우는 드물다. 이때 부인 중 한 명이 ‘큰 부인’으로 불리며 다른 여성들과의 관계에서 일종의 특권을 누린다.

부잣집 남자아이가 부모를 모두 여의면 8세에서 10세가 될 즈음 20세 정도의 여성과 결혼시켜 그 부인으로 하여금 고아가 된 남편의 재산을 관리하게 한다. 고아가 된 여자아이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이런 경우 나이는 어리지만 결혼과 함께 기혼 남자나 여자로서 이에 걸맞은 옷과 표식을 갖추게 된다. 즉 남자아이는 상투를 틀어야 하고, 여자아이는 커다란 망토(쓰개치마)를 써서 몸 전체와 얼굴을 가리고 다녀야 한다. 이 같은 독특한 풍습은 기메박물관 전시실에 재현되어 있다.

조선 음식에 대해 알고자 한다면 저녁에 열리는 연회에 나오는 요리들을 살펴보면 될 것이다. 밀이 들어간 기름진 수프, 양념된 생선, 아주 작은 조각으로 썬 소고기, 잘게 자른 닭고기, 사냥한 고기, 무, 노란색 소스에 무친 파 샐러드, 강낭콩과 중국식 소스, 단 과자류, 떡, 과일 등이 그것이다. 쌀로 만든 술과 밀로 만든 술은 중국이나 일본 술보다 뛰어난데, 알코올 도수가 높아 우리가 마시는 포도주를 연상시킨다. 거대한 그릇에 담긴 뜨거운 쌀밥이 우리네 빵에 해당하는 것이고 차는 선택 메뉴이다. 모두들 육각형의 작고 낮은 상—지름 60센티미터, 높이 20센티미터—에 앉아 먹는데, 연회에 모인 손님들은 각각 적어도 하나의 상을 받아 먹는다.

1 실제 탐험한 여행기인데 조선인의 머리카락이 밝은 톤의 발색이고, 눈을 파란색으로 보았는지 의문스럽다. **2** 예조(Yezo)는 고대 일본 도호쿠 지방 및 홋카이도 지역과 사할린, 쿠릴 열도에 살면서 일본인에 의해 이민족시 되었던 민족 집단을 말한다. 시대에 따라 지칭 범위가 다른데, 일반적으로 근세의 예조는 아이누족을 의미한다. **3** 명을 정복하고 수도를 베이징으로 정한 청의 세조는 1644년 체두번발령(剃頭辮髮令)을 내려 전 중국인에게 만주족의 두발형을 강요하였다. **4** 주아브(zouave)라 하는데 알제리 사람으로 편성된 프랑스 보병대가 입은 통이 넓고 무릎 위까지 오는 반바지를 말한다. **5** 카르마놀(carmagnole)은 프랑스 혁명(1789년) 당시 혁명 당원들이 입었던 상의의 명칭으로 길이가 짧고 칼라가 붙어 있으며, 오늘날의 신사복 상의의 원형이 된 것의 하나로 알려져 있다. **6** 프록코트(frock coat)는 18세기 말에서 19세기 말까지 일반 남성들이 입던 긴 옷옷을 말한다. **7** 실크햇트(silk hat)는 영국에서 쓰기 시작한 원통형의 높은 크라운과 좁은 챙으로 이루어진 남성 정장 모자를 말한다. **8** 조선시대에 통행금지를 알리거나 해제하기 위하여 치던 종을 말한다. **9** 조선시대 통금은 2경(밤 10시)부터 5경(새벽 4시)까지이다.

166
19세기 말~20세기 초 서양인이 본 한국

167
1890년대 -PART III

dit à l'hirondelle : « Va voir un peu ce que fait le cousin. »

L'hirondelle part et rencontre le cousin qui revenait à tire-d'ailes.

« Mon frère, demanda l'hirondelle, quel est le meilleur sang sur la terre ?

— Celui de l'homme.

— Ya Allah ! montre-le-moi, que j'en goûte un peu ! »

Le cousin tire sa langue afin de donner une goutte du sang de l'homme. — Grac ! l'hirondelle a fermé le bec, la langue est coupée. Sans sa langue, le cousin ne peut plus parler ; il vole, vole, en faisant bzzz ! bzzz ! jusqu'à ce qu'il arrive devant le prophète.

Le serpent se tient là.

« Quel est le meilleur sang sur la terre ? demande-t-il.

— Bzzz ! bzzz ! » répond le cousin.

Le prophète passe sa main sur sa barbe et sourit.

Le serpent se dresse.

« Dis-moi tout de suite, Sivrizineck ¹, quel est le meilleur sang ?

— Bzzz ! bzzz ! »

Le serpent se met en colère. Alors, le prophète lui dit :

Sivrizineck, je t'adjure, parle !

— Bzzz ! bzzz !

— Parleras-tu ! s'écrie le serpent furieux.

Le cousin ouvre la bouche et montre son palais privé de langue.

« Qui l'a fait cela ? »

Le Sivrizineck montre l'hirondelle.

Alors le serpent se lance, d'un coup de dent attrape la queue de l'hirondelle ; l'hirondelle fuit, elle laisse la moitié de sa queue aux dents du serpent, et voilà pourquoi les hirondelles ont la queue fourchue.

Les gracieuses messagères du printemps ont traversé la mer et sont revenues décrire leurs arabesques sous le ciel de France, continuant les hécatombes de Sivrizinecks, cause de leur mutilation.

Qu'Allah les protège, en attendant leur retour au pays du prophète !

L. SONGY.

LES EXPLORATIONS CONTEMPORAINES

LA CORÉE ET LES CORÉENS²

II

Ethnographie. — Chaussures et vêtements. — Chevelure à tous crins. — Coiffure. — Habitations sans cheminée. — Les lits. — La cloche du couvre-feu. — Les danseuses officielles. — Condition de la femme. — Jeunes mariés. — Un menu de gala.

En général, la taille des Coréens est un peu plus élevée que celle des Chinois et des Japonais. Quant au type dominant, pour la forme du crâne et du visage, il est fort difficile de s'en faire une idée précise d'après les appréciations contradictoires des voyageurs et des missionnaires.

¹. Cousin.
². Voir le n° 895.

M. de Rosny a cru reconnaître trois variétés distinctes.

Le premier de ces types, qui semble prédominant, est caractérisé par une face large, des pommettes saillantes, une bouche très allongée avec des lèvres épaisses et arrondies, des yeux bridés et obliques ; un nez petit, écrasé ; une barbe rare ; le teint jaune, plus foncé que celui des Chinois.

Le second type, au contraire, présente une face allongée et ovale, un nez proéminent, des yeux légèrement bridés, de petites paupières, une bouche moyenne, des oreilles fines, un système pileux assez développé, un teint jaune clair ; des cheveux le plus souvent noirs, et par exception roux ; des yeux bruns, parfois d'un bleu verdâtre ou cuivré.

Le troisième type se rapproche du premier, mais avec les mâchoires plus proéminentes, la barbe moins fournie, le nez moins écrasé et la peau plus brune.

Un grand nombre de Coréens ont les cheveux châtain de nuance claire et des yeux bleus. Les nouveau-nés ont souvent la peau d'une couleur jaune très prononcée ; en grandissant, cette couleur devient tantôt jaune assez clair, ou tout à fait brune.

Il semble impossible d'établir, pour les femmes coréennes, trois types correspondant à ceux des hommes ; mais, dans les basses classes surtout, certaines physiologies rappellent étonnamment celles des femmes aïnoises de Yéso ou de Karafuto. Les dames de haut rang ressemblent parfois à des Chinoises du Nord ; mais elles ont souvent une peau très blanche et sur les joues une coloration plus prononcée que leurs voisins du Céleste-Empire. La plupart sont de petite taille ; leur chevelure manque de souplesse et elles se rasent les sourcils en ligne droite afin de décrire un arc parfaitement net. Leurs cheveux, huilés, épais, noirs et à reflets roux, forment avec des boucles une coiffure énorme qui écrase le visage.

Le costume coréen est le même que portaient jadis les Chinois. Les Mandchous, vainqueurs des Chinois et des Coréens coalisés, imposèrent aux premiers, en signe de mépris, l'obligation de porter cette queue de cheveux, devenue depuis lors, chez eux, une marque d'honneur et de distinction. Moins rigoureux envers le Coréen, ils lui permirent de porter les cheveux à son gré.

Jusqu'à leur mariage, les jeunes gens doivent les porter, sans aucune coiffure, séparés au milieu de la tête et réunis en une seule tresse tombant dans le dos, ce qui leur donne l'air de jeunes filles. Aussitôt marié, l'adolescent les ramasse en chignon sur le sommet du crâne, et peut les couvrir d'un chapeau ou « kat », formé de tiges de bambou ou de crins tressés. Pour les Coréens, cette masse de cheveux, lourde et informe, est du suprême bon ton. Femmes et enfants sont nu-tête.

Les Coréens se chaussent de sandales,

dont la semelle, tressée en paille de riz ou en écorce de mûrier, protège très peu la plante du pi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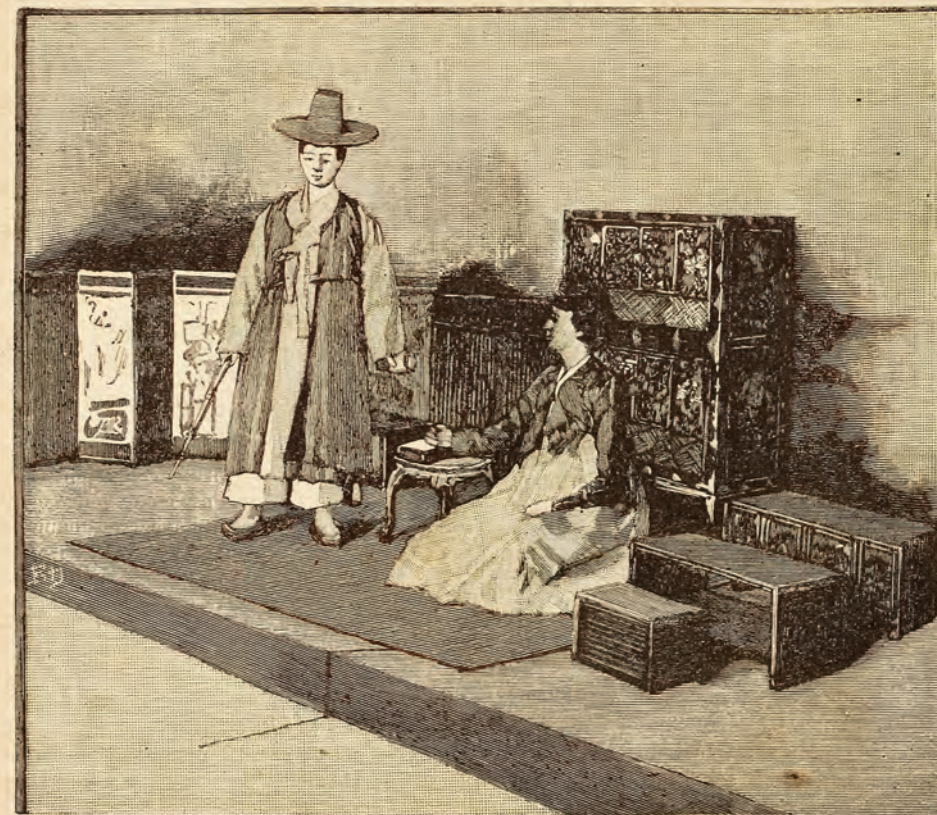
A moins d'être réduit à une extrême misère, chaque Coréen porte des bas composés de deux morceaux de toile, cousus de façon à se terminer en pointe et à suivre les contours du pied ; une culotte, aussi ample que celle des zouaves, et des guêtres de toile nouées sur le genou.

Le haut du corps est couvert par une veste rappelant l'ancienne carmagnole de nos campagnards. Les gens aisés la recouvrent d'un habit en coton de couleur et à larges manches, fendu sur les côtés et retombant jusqu'aux genoux. Cet habit, depuis quelques années, est remplacé, en hiver,

par une espèce de redingote. Un surtout de cérémonie à manches énormes couronne le tout et sert en voyage et dans les circonstances solennelles.

Un chapeau de dimension colossale complète l'habillement ¹. Imaginez un tuyau fermé comme nos chapeaux de soie, mais beaucoup plus étroit et légèrement con-

que, qui s'ajuste sur le sommet du crâne et dans lequel le chignon peut seul pénétrer. Ce tuyau a des ailes si démesurées que souvent elles forment un cercle de plus de 60 centimètres de diamètre. La charpente de cette coiffure est formée par des morceaux de bambou découpés en fils très déliés ; sur cette charpente est tendue une



LA CORÉE ET LES CORÉENS

[01] Noble mandarin sur son lit. — Petit marié de dix ans avec sa femme (p. 470, col. 4).

toile de crin tressée à jour. Des cordons rattachent sous le menton ce chapeau fantaisiste, qui ne préserve ni du froid, ni de la pluie, ni du soleil, et qui, en revanche, est fort incommode, surtout lorsque le vent le fait branler ou vaciller sur sa tête. N'oublions pas l'accessoire obligé du costume : c'est la ceinture et la poche à tabac, la pipe à tige de bambou et à fourneau de métal.

Tous les vêtements sont généralement

en toile grossière de coton. Dans chaque maison, les femmes filent, tissent la toile et confectionnent les habits.

Les habitations coréennes sont de chétives et misérables cabanes. Sur deux cents maisons, cent quatre-vingt-dix-neuf sont couvertes en chaume. Presque toutes sont construites avec des troncs d'arbres à peine dégrossis, quelques pierres, de la terre et de la paille. Quatre

¹. V. Journal des Voyages, n° 755.

pilliers soutiennent le toit ; quelques poutrelles transversales, auxquelles s'appuient d'autres pièces de bois croisées en diagonale, forment un réseau et supportent un mur en terre pétrie de dix centimètres d'épaisseur.

De petites ouvertures, fermées par une boiserie en treillis, et recouvertes, faute de verre, d'une feuille de papier, servent à la fois de portes et de fenêtres.

Pénétrons dans l'intérieur, après avoir ôté nos chaussures : l'usage et la propreté l'exigent ainsi.

Sur le sol des chambres, des nattes grossières ou de paille. Les gens riches tapissent avec du papier les murs de bone, et, pour remplacer dalles ou planchers, collent au sol d'épaisses feuilles de papier huilé. Les paysans et les ouvriers entrent pieds nus dans leurs demeures ; les riches gardent leurs bas.

Une fois entrés, évitez de heurter la tête contre la terre pétrie et les branchages qui

forment le plafond ; accroupissez-vous plutôt sur la natte, mais ne cherchez pas un siège absent ; car le roi lui-même, au milieu de sa cour, s'assied sur un tapis, les jambes croisées à la façon de nos tailleurs. Il n'y a de table que pour les sacrifices aux ancêtres et pour les repas. Pas de cheminée ; mais, à l'extérieur de la maison, se trouve le foyer de la cuisine, auquel viennent aboutir divers conduits, installés sous le sol

de la chambre et la natte. La fumée et la chaleur, passant par ces calorifères, réchauffent l'atmosphère mais en apportant des bouffées d'acide carbonique.

En fait de lit, de simples nattes, sur lesquelles la grande majorité s'étend sans autre couverture que des haillons. Ceux qui ont quelques sapèques¹ se donnent le luxe d'une couverture; dans la classe aisée, on y joint un petit matelas, de deux décimètres d'épaisseur; tous, riches ou pauvres, ont un petit tronçon de bois quadrangulaire en guise de traversin. Les mandarins seuls ont des meubles laqués ou incrustés de nacre ou en bois poli orné de cuivre. Le lit du Coréen de distinction est de chêne poli et à jour, très bas, et peut se replier; le traversin, bourré de plume, est terminé par deux disques de vingt

¹ 1.350 sapèques (pièces de cuivre percées de trous carrés pour les enfilier sur une corde) valent une piastre mexicaine, soit 4 francs.



L'ARMÉE JAPONAISE

02 Soldats japonais prenant leur repas de riz (p. 174, col. 1).

centimètres de diamètre vernis, ciselés ou sculptés et munis d'un anneau de cuivre.

Les pauvres ne possèdent aucun meuble; les gens du peuple suspendent un habit de rechange sur un bâton transversal; les gens aisés ont quelques corbeilles hissées sur des piquets ou suspendues au toit; chez les riches, on trouve des malles assez grossières; les lettrés, les marchands sont assis près d'une petite caisse, qui contient l'encrier, les pinceaux et un rouleau de papier; les jeunes dames ont une petite malle noire renfermant deux jupes, l'une rouge, l'autre bleue, l'indispensable présent de noces. Chez les nobles et les hauts fonctionnaires, on rencontre des livres chinois et des armoires vernissées.

D'après un ancien usage, une immense cloche, appelée « In-Kiong », donne le signal auquel tout Coréen obéit en regagnant au plus vite sa cabane. Toute bou-

tique se ferme aussitôt, et, en un clin d'œil, les rues, qui fourmillaient de monde, deviennent désertes. Enfermé au logis, le Coréen se livre aux jeux et à une consommation formidable de « sul », eau-de-vie de riz, qu'il adore.

La nuit venue, une obscurité profonde s'abat sur la ville dont les portes sont fermées dès 8 heures du soir, pour ne s'ouvrir qu'à 3 heures du matin. Les femmes ne profitent guère du privilège de sortir le soir, de crainte de rencontrer des tigres ou des léopards, qui, en hiver, pénètrent jusqu'au centre de la capitale. Elles vivent en cachette et ne se promènent qu'enveloppées à la turque, dans une chaise fermée, toujours accompagnées d'une ou deux vieilles servantes. Les femmes de coolie et les « khisang » ou danseuses, voilà les seuls échantillons du beau sexe qu'on aperçoit en Corée. Les khisang, par leurs costumes, leurs chants, leurs mœurs, rappellent les almées; elles dépendent du gouvernement qui leur alloue quelques subventions pour leur assistance à des fêtes ou à des banquets officiels; les poignards de théâtre qu'elles agitent pendant leurs évolutions rendent un son métallique assez original.

Dans les classes supérieures, les femmes sont soumises à une sorte de réclusion perpétuelle; elles ne peuvent quitter le gynécée ou « appartement intérieur » que dans des cas exceptionnels, et jamais avant le crépuscule. Achetées par leurs époux, elles en sont la propriété absolue, et la loi les considère en quelque sorte comme n'existant pas. Nul ne peut pénétrer dans la partie de l'appartement où elles demeurent.

La polygamie existe en Corée à peu près comme en Chine; mais la plupart des habitants n'ont qu'une épouse; les grands seigneurs en ont rarement plus de deux ou trois, dont l'une porte le titre de « grande femme » et jouit d'une certaine autorité sur ses compagnes.

Lorsqu'un enfant riche a perdu son père et sa mère, on le marie vers huit ou dix ans avec une femme d'une vingtaine d'années, qui se trouve chargée par là même d'administrer les biens de l'orphelin; même coutume a lieu pour les petites filles. Ces enfants — qui sont dès lors considérés comme hommes et femmes mariés — en portent le costume et les insignes, c'est-à-dire, pour le garçon, la tresse de cheveux en l'air; et, pour la petite fille, le grand manteau dans lequel on enveloppe prodigieusement son corps et son visage. Nous reproduisons ici le groupe qui rappelle cette singulière coutume dans une des salles du musée Guimet.

Pour avoir une idée de la cuisine coréenne, il suffira de parcourir le menu d'un dîner de gala : soupe grasse au froment, poissons marinés, taureau en tranches minuscules, poulet dépecé, gibier, navets, salade de poireaux avec sauce jaune; sauce aux haricots et coulis chinois, sucreries, gâteaux, fruits. Les vins de riz et de froment, supérieurs à

ceux de Chine ou du Japon, sont très alcoolisés et rappellent notre vin de raisin. Un immense bol de riz bouilli remplace le pain et le thé est un extra. Tout le monde mange sur une petite table hexagonale de 60 centimètres de diamètre sur 20 centimètres de haut et chaque convive a au moins la sienne.

(à suivre.)

V. DEMAYS.

LES PIRATES DU MISSISSIPPI

L'ÎLE DU DIABLE

XIV

LE DÉPART

QUELQUES jours après ces événements, la grande battue à l'ours, dont m'avait parlé mon hôte, eut lieu et j'y pris grandement part.

Ce fut pour moi une véritable fête, d'autant plus que Bradley n'était pas au nombre des chasseurs. Autrement, je n'aurais point été sûr de n'être pas pris pour un ours au cours de la partie et de ne pas recevoir, à travers le corps ou la tête, une balle mieux dirigée que la première. Mais Bradley ne vint point et cette torture me fut épargnée.

Pendant un certain temps, je ne le revis plus et il ne vint pas à la plantation. Pourtant, mon hôte reçut plusieurs lettres qui — je ne sais pourquoi je me l'imaginai — venaient de lui. Puis, un jour, je vis le messager qui avait apporté l'une d'elles : c'était le nègre qui avait ramené le cheval qu'on lui avait prêté...

Après avoir lu ces lettres, mon hôte semblait très découragé, très abattu. Je devinais ce dont il s'agissait..., sans doute de la dette de jeu dont son créancier, furieux, demandait le paiement immédiat. J'en étais affligé pour Harry Woodley, mais, enfin, cela n'était pas très grave. Pour moi, une seule chose me rendait malheureux, c'était la pensée de quitter bientôt ces charmantes gens que le hasard seul m'avait fait connaître.

De grandes modifications s'étaient faites dans mes projets. Autant, naguère, j'étais impatient de me remettre en route, autant, maintenant, j'étais désireux de trouver un prétexte plausible pour rester plus longtemps avec mes hôtes.

A force de chercher, j'en trouvai un très singulier. Je prétendis avoir le caprice de faire le voyage de la Nouvelle-Orléans, sur un bateau, sur une péniche! J'alléguai que, de cette façon, je verrais le pays mieux qu'en bateau à vapeur et qu'au besoin je pourrais même chasser. On m'enverrait plus tard mon cheval par le bateau à vapeur.

J'avais, en réalité, eu cette fantaisie, mais je ne m'y serais pas laissé aller, sans le motif qui m'avait poussé à user de cette petite ruse stratégique. Je savais

¹ Voir les nos 887 à 895.



L'ARMÉE JAPONAISE

03 Chevaux transportant les marmites pour faire cuire le riz (p. 174, col. 1).

02 일본 군대
밥을 먹고 있는 일본 군인들
03 일본 군대
밥 짓는 솜을 운반하는 말

동시대 탐험 조선 그리고 조선인(3)

V. 드메

“조선인들이 탁월한 재능을 보이는 또 다른 산업 분야는 제지업이다. 그들이 닻나무 껍질을 이용해 만든 종이는 중국 종이보다 더 두껍고 견고하다.”

III

수도－세계 최초의 종이와 사쓰마 도기－최초의 활자－계절스럽게 먹는 아이들－문인들－불교와 샤머니즘－착한 영혼과 나쁜 영혼－장례 의식－경제표(장승)에 얹힌 전설

조선 촌락들은 몸을 절반으로 접듯이 구부려야 들어갈 수 있는 그야말로 은신처 수준의 오두막집들로 이루어져 있고, 흔히들 서울－큰도시－이라 부르는, 왕궁이 있는 수도 한양은 엉망으로 건설된 도시이

Journal des Voyages

주르날 데 부아야주
프랑스

1894. 09. 16.
pp.180~181

구9735
31.0×23.0

다. 길들은 좁고 구불구불해 공기 순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길에 버려진 오물들은 오가는 사람들의 발길에 다져져서 소나기나 내려야 비로소 씻겨 내려간다. 산으로 둘러싸여 한강 근처에 위치한 서울은 5개 지역¹으로 나뉘고, 이는 다시 40개 구역²으로 구분된다. 서울의 집들은 낮고 비좁으며 기와로 덮여 있고 10미터 높이에 충안구가 뚫려 있는 긴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다. 이 성벽은 둘레가 10킬로미터 정도이고 8개의 거대한 성문³을 통해 출입하도록 되어 있다. 서울의 큰길들은 나무와 초가지붕으로 만든 수많은 노점들로 꽉 막힐 정도인데, 왕이 궁을 나와 행차라도 하게 되면 이 노점들은 모두 철거된다. 양옆에 돌로 지어진 집들이 늘어서 있는 큰길의 경우 폭을 60미터라고 규정해 놓았기에 행차 때만이라도 이를 지켜야 하기 때문이다.

공업이나 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주로 직종에 따라 모여 일한다. 조선의 서민 남자들은 매우 건장하며 지칠 줄 모르고 일을 한다. 이런 점 때문에 개항 후 일본과의 무역이 활발한 항구에서 일하는 조선인 노동자들과나 외만주(블라디보스토크)에서 일하는 농업 이주자들은 매우 훌륭한 인력으로 인정받고 있다. 일본 도기 제조의 발달은 이들의 노력에 의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일본 역사상 가장 유명한 도공들은 모두 1592년⁴ 사쓰마의 번주藩主가 조선 원정(임진왜란) 후 일본으로 데려가 자신의 영지인 나에시로가와曲代川⁵에 거주하도록 하였던 조선인들이다. 이 조선인 도공들이 오늘날 ‘사쓰마 도기’⁶로 알려진 매우 희귀하고 높이 평가되는 아름다운 도자기들을 만들어낸 것이다.” 아울러 16세기에 일본 교토에 자리를 잡고 도자기를 만들었던 이들도 조선인이었다.

조선인들이 탁월한 재능을 보이는 또 다른 산업 분야는 제지업이다. 그들이 닻나무 껍질을 이용해 만든 종이는 중국 종이보다 더 두껍고 견고하다. 마치 천처럼 견고하기 때문에 모자나 가방, 양초 심지, 신발 끈 등도 만들 수 있다. 거기에 기름까지 바르면 우리가 사용하는 방수포나 우산, 고무 대신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조선 집의 문과 창문에는 유리 대신 이 종이를 붙인다. 또한 조선은 유럽보다 적어도 150년 앞선 14세기에 최초로 금속 활자를 개발한 영광스러운 역사를 갖고 있다. 조선인들은 무한한 허영심과 호기심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술을 좋아

하고 식욕이 왕성하며 젓갈을 특히 좋아한다. 잠잘 때는 옷을 벗고 강⁷이라 불리는 온돌로 덮혀진 맨 바닥에 누워서 잔다. 어느 장소를 방문할 때는 하인 한 명이 요강을 들고 따른다.－다른 나라에서 요강은 집에서 신경 써서 간수하는 물건이다.－사람들은 구리로 만든 이 뚜껑 달린 단지를 생리적 욕구가 생길 때마다 밤낮 가리지 않고 사용한다. 혼자 있을 때든, 모임 중이든….

조선인들은 욕심이 많은 편이며 돈을 평평 쓴다. 식탐이 지나칠 정도로 많고 한 입이라도 더 먹기 위해 먹을 때는 말을 거의 하지 않는다. “엄마들이 자식들에게 쌀밥을 꾸역꾸역 먹이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간혹 배가 충분히 불러졌는지 확인하기 위해 배를 두들겨보는 모습도 볼 수 있다. 아이들의 배가 더 이상 불러질 수 없을 때까지 먹인다.”－폴 투르나퐁⁸ 하지만 조선인들은 확고한 미덕을 지니고 있으므로 선진 문명을 접할 수만 있다면 그들의 단점은 쉽게 사라질 것이라 생각한다. 말에 쟁기를 달아 이용하고, 원시적인 농사 도구나 방법에서 탈피하며, 양식 있고 현명한 정부가 양 기르기와 감자 재배를 금지하지 않는다면 나라의 풍부한 부의 원천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문학 연구는 조선의 큰 자랑거리이다. 나라에서는 두 기관(성균관과 향교)을 설립하였고, 이곳에는 500여 명의 박사 또는 학자들이 연구생으로 소속되어 있다. 이와 동일한 형태로 설립된 학교가 각 지역마다 한 개씩 설치되어 있다. 교사들은 아이를 학교에 보낼 경제력이 없는 서민층 부모의 8세 이상 아이들을 가르치기도 한다. 사회적으로 명예를 얻거나 공직에 이를 수 있는 길은 오로지 교육밖에 없다.

조선인들은 공식적으로는 불교를 믿지만 사실상 샤머니즘에 빠져 있다. 그 증거로 동굴 물신物神⁹이나 여행자들의 영혼을 보호해달라고 빌기 위해 색색의 종이로 장식한 나무(서낭당)를 들 수 있다. 이러한 물신은 높은 낭떠러지나 맹수들로 인해 끊임없이 위험이 도사리는 산속에 더 많이 존재한다. 그리고 곳곳에 작은 절들이 세워져 있는데 야생 동물이나 수호신을 여러 색으로 표현한 큰 그림이 그려져 있으며, 앞에는 순례자들이 바치는 향이 놓여 있다. 이들 중 몇 가지는 본지 삽화에 소개하는 종교적 숭배의 대상으로 속한다.

조선인들은 인간 영혼의 이원성을 믿는다. 이러한 믿음에서 죽은 자의 ‘나쁜 영혼’은 산속을 헤매게 하고 ‘착한 영혼’은 조상을 모시는 성소에서 기리는 다양한 형태의 장례 의식이 생겨났다. 이러한 목적으로 장례식 춤꾼들이 비극적 분위기의 옷과 가면을 갖추고 ‘나쁜 영혼’이 빠져나오는 것을 막기 위해 관 주위를 돌며 춤을 춘다. 더욱이 매장은 밤에 이루어지는데 험한 길을 횡설로 밝혀 비단천으로 장식한 멋진 상여를 옮긴 후 시작한다. 간혹 고인의 시신을 사람들 주위로 빙글빙글 돌게 하기도 하는데, 이는 ‘나쁜 영혼’이 길을 찾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반면에 장례식이 끝나면 ‘착한 영혼’을 섬세한 조각 장식으로

꾸민 작은 가구(위패)에 모셔서 선반 위에 둬으로써 가족 전체를 보호해주기를 바란다.

대부분의 조선인들은 아버지나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무덤 옆에 작은 집을 짓고 그곳에서 3년 동안 지낸다. 무명의 한 조선인이 쓴 책 『차오센 즈(조선지朝鮮志)』⁹에 따르면 문인이나 관료들의 집에는 모두 작은 제단(사당)이 있어서 그곳에서 1년에 네 차례 조상들을 기리는 제사를 지낸다. 자손들은 부모님의 기일에는 기름진 음식을 삼간다. 지체 높은 가문에서는 남편이 먼저 세상을 뜬 경우 그 부인은 평생 독신으로 산다. 왕은 매년 신농씨神農氏를 기리는 제사를 지내고, 정해진 토지(적전籍田)에서 직접 농사일의 시범을 보인다(친경親耕). 그 수확으로 나라의 주요한 제사를 지낸다. 또한 왕은 효성이 극진한 자손들을 위해 친히 연회를 마련하고, 왕비는 따로 내전內殿에서 고인이 된 남편을 기리며 절조를 지키는 부인들을 초대하여 연회를 베푼다.

귀족이 자신의 친족 중 한 명을 잃은 경우에는 나라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처신해야 한다. 먼저 시신은 두꺼운 나무관에 안치한다. 하루에 네 차례 빈소에 들어가 울어야 한다. 이때 특별한 옷차림이 필요하다. 삼베로 만든 긴 코트 같은 옷을 입되 찢어지고 가능한 한 지저분해야 한다. 허리에는 벼짚과 실로 엮은 손목 정도 굵기의 밧줄을 감고 머리에는 회색빛 삼베를 두른다. 여기에 특별한 양말과 신발을 신고 마디가 많은 큰 지팡이를 들어 옷차림을 완성한다.

이처럼 기이한 복장－선교사들이 조선에 들어가기 위해 이 옷차림으로 몸을 가리고 다니는 경우가 많았다.－으로 아침마다 잠자리에서 일어난 뒤에, 그리고 매끼 식사를 마친 후 빈소에 들어간다. 여러 가지 음식을 차린 작은 상을 가져다 관 근처의 제단에 놓고, 의식을 주관하는 사람이 비통한 탄식 소리를 낸다. 이 같은 행위는 2년 내지 3년간 계속된다.

도로의 가장자리에서는 높이가 2미터나 되는 나무로 만든 표지(喪旒)를 간혹 볼 수 있다. 멀리서 보면 마치 들판에 혼자 걸어 다니고 있는 사람 같기도 하다. 기메박물관에 이 기이하게 생긴 경계표, 즉 거리를 알려주는 기둥 하나가 전시되어 있는데 고위 관료의 얼굴이 새겨져 있다. 샤를 바라는 다음과 같은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음력 8월 4일 영의정 장씨가 자신의 딸을 불러 말하였다. “딸아, 만약 한 농부가 풍작을 거두었다면 그 수확을 혼자 다 가져야겠느냐 아니면 이웃이나 친구에게 주는 것이 옳겠느냐?” 그러자 딸이 대답하였다. ‘어찌 그런 질문을 하십니까, 아버지? 자신과 가족들을 위해 자신이 가져야지요.’ ‘그렇지! 네 스스로 결정을 내렸구나. 너는 내 수확물이니 나만의 것이 다!’ 그렇게 딸은 아버지의 부인이 되었고, 절망에 빠진 딸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리고 조선 땅에 큰 기근이 들었다. 왕을 비롯해 전국에서 제사를 올렸지만 하늘은 꿈쩍도 하지 않았고 수많은 백성이 굶어 죽기에 이르렀다. 왕은 모든 관료를 모이게 한 뒤 상황을 보고 받았

Just before his appeal to the Council of Elders, who
of abdication, the Emperor endeavoured to seek the pro-
of the Russian Consulate, but the Japanese in the

on Saturday last, and received the representatives of
Foreign Powers in the afternoon of the same day. Jap
control over Korea has now been placed beyond dis

19세기 말~20세기 초
서양인이 본 한국

Journals from the Late 19th
and Early 20th Centuries

Korea Through
Western Eyes

PART IV

1900년대

러일전쟁

전쟁의 전리품으로서의
한국
더 아메리칸 먼슬리 리뷰 오브
리뷰스, 연대 미상
극동 지역 소식
릴위스트라시옹
1904. 02. 13.
한국의 운명
하퍼스 위클리
1904. 02. 20.
평화로운 서울
더 그래픽
1904. 02. 20.
전쟁의 전개 상황
하퍼스 위클리
1904. 03. 05.
한국에 온 일본군
릴위스트라시옹
1904. 04. 23.
화염에 싸인 궁
더 그래픽
1904. 06. 11.
압록강 전투
릴위스트라시옹
1904. 07. 02.

한국 스파이의 최후
하퍼스 위클리
1904. 05. 28.
스파이의 사형
더 일러스트레이티드
런던 뉴스
1904. 06. 25.

의병 항쟁

사형수를 대상으로
한 사격 연습
르 프티 파리지앵
1904. 12. 18.

고종 황제의 폐위
군대 해산과 저항

1900년 만국박람회,
한국관
르 프티 주르날
1900. 12. 16.
오늘날의 한국
하퍼스 위클리
1900. 08. 25.
한국과 황제
하퍼스 먼슬리 매거진
연대 미상

한국 그리고 황제
라 비 일뤼스트레
1904. 01. 29.
서울에서
르 프티 파리지앵
1905. 10. 08.
이희, 전 대한제국
황제의 폐위
더 일러스트레이티드
런던 뉴스 1907. 07. 27.
퇴위한 대한제국
황제 이희
더 아메리칸 먼슬리 리뷰
오브 리뷰스 1907. 08.

한국의 쿠데타
더 일러스트레이티드
런던 뉴스
1907. 09. 14.
혼란에 빠진 한국
르 프티 주르날
1907. 08. 04.
서울 사건
릴위스트라시옹
1907. 09. 07.
한국에서의 일본인
릴위스트라시옹
1907. 08. 10.

새로운 영토
조선을 경비하는 일본
더 일러스트레이티드
런던 뉴스
1910. 09. 17.
일본에 간 한국 황태자
릴위스트라시옹
1908. 02. 29.

한국 기행

조용한 아침의 나라에
등장한 자동차
더 그래픽
1909. 02. 20.
한국에 처음 선보인
자동차가 초래한 결과
르 프티 주르날
1909. 03. 07.
일본에서 한국으로
하퍼스 위클리
1904. 04. 16.
어두운 한국에
복음을 전하다
더 크리스천 헤럴드
1909. 03. 11.
한국의 새해 풍습
더 그래픽
1902. 02. 08.

한국 해안가 시골의 모습
더 그래픽
1904. 03. 05.
은둔의 왕국을 찾은 본지
사진 기자
더 그래픽
1909. 12. 04.
가까운 장래에 사라질 것들
주르날 데 부아아주
1911. 12. 14.
가련하고 정다운 나라,
한국
릴위스트라시옹
1904. 05. 14.
고요한 아침의 나라
르 프티 주르날
1907. 08. 04.
한국 궁정에서
라 비 일뤼스트레
1904. 03. 25.
미국 여성의 한국 방문-8회
레슬리스 위클리
1906. 01. 25.
한국에서의 모험
주르날 데 부아아주
1901. 04. 06.

전쟁의 전리품으로서의 한국

제이컵 슬롯 파셋

“전 세계가 막지 않는 한
언젠가 러시아와 일본은 국가적
차원에서 화합을 이루지 못하고
상충되는 이해관계를 이유로
적대적인 힘에 의해 무력 충돌을
하게 될 것이다.”

오늘날의 삶은 그야말로 녹록지 않다. 국가 간 경쟁 관계를 보면 상업
적 주도권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있다. 미국·영국·독일·프랑스·일본은 자
체 소비량보다 더 많이 생산하고 있다. 이러한 경쟁은 단순히 상업적
주도권뿐만 아니라 상업적 기회를 의미하기도 한다. 새로운 시장에 대
한 욕구는 삶을 영위하고 성장하기 위한 기회의 다른 말이다. 이 세상
에서 아직 개발되지 않은 가장 매력적인 시장은 아시아이다. 태평양을
통해서 아시아 시장에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지난 15년 동안 러시아는 상업적으로 경이로울 만큼 빠르게 발전해왔

The American Monthly Review of Reviews

더 아메리칸 먼슬리 리뷰
오브 리뷰스
미국

연대 미상
pp.167~176

구6803
24.0×17.6

다. 아직 생산량이 소비량보다 더 많지는 않지만, 러시아는 미래를 내
다보는 드문 통찰력을 가지고 이미 세계 시장에 파고들어, 세계 최대
의 경제 주체로 성장하였다. 그리고 미국·영국·독일·프랑스·이탈리아·
일본이 관심을 보이는 동양의 시장이 미래에 얼마나 중요할지도 이미
깨뚫어 보고 있다. 만주와 한국을 두고 러시아와 일본이 충돌을 위협
하는 긴박한 상황 이면에 도사린 훨씬 더 큰 문제의 그림자를 지금 세
계는 목도하고 있다. 바로 태평양 장악력, 이 지역에서의 상업적 주도
권, 아시아에서의 정치적 주도권 등에서 사실상 미국이 가장 커다란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

미국의 이해관계

미국인들은 기업 수와 투자 금액을 고려하였을 때, 다른 모든 국가를
합한 것보다 더 큰 이해관계를 한국에 가지고 있다. 미국인이 제물포-
서울 간 철도(경인선)를 건설하고 일본인에게 부설권을 팔았다. 아직 전
액이 지불되지는 않았지만 미국인들은 한국 정부를 위해 서울에 전차
를 깔고, 그 외 지방 도로에도 약 18~20마일(약 29~32킬로미터)의 철도를
건설하였다. 또한 서울에 조명용 배전소를 지었고 상수도 시설 개발에
도 투자하고 있다. 미국은 한국에 상당한 양의 등유, 통조림 제품, 면직
물을 수출하고 있다. 미국인은 영국과 프랑스 자본가와 공동으로, 아
시아에서 가장 큰 회사 중 하나이자 한국에서 가장 큰 회사를 소유하
고 있으며, 한국 북부 지역의 광산 채굴권¹을 가지고 있다. 미국 선교
사들의 활약도 대단하다. 따라서 한국에 대한 미국의 관심은 단순히
흥미롭고 중요한 사건들에 끌리는 관심이 아니라, 한국에서 기존의 무
역과 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조건과 전체 아시아 상업의 미래 가능성에
결부된 것이다.

러시아와 일본의 관계는 상당히 꺾꺾러운 상황임이 분명하다. 러시아
와 일본 모두 미국이 호의를 베풀기를 간절히 원한다. 그리고 양국 모
두 미국이 취하는 입장에 극도로 예민하다. 양국은 미국이 원론적으
로 중립을 유지한다고 하면서 상대국에 동정과 심정적 지원을 할까봐
노심초사한다. 본 기사는 일본이나 러시아를 특별히 지지할 의도는 없
다. 다만 현재 보이는 상황 그대로를 전반적으로 전하고자 한다. 독자
들이 이 기사를 읽을 때쯤에는 이미 전쟁이 선포되었을지도 모르겠다.

전쟁의 흥미로운 원인은 만주와 한국, 그리고 이들 국가를 둘러싼 일
본과 러시아의 관계일 것이다. 만주는 중국의 가장 비옥한 지방 중 하
나로, 일본 열도보다 3배나 더 넓다. 기후가 온화하고 토지가 비옥하며
금, 석탄, 철, 구리 등이 상당량 매장되어 있는 풍부한 광산을 가지고
있다. 훌륭한 항구(궤순항)가 있지만 부동항은 아니다. 만주의 상당 지
역은 1894~95년에 발발한 전쟁(정일전쟁)으로 인해 일본인에게 짓밟혔
고 정복당했다.

한국 국토와 한국인

그에 반해, 한국은 논쟁의 핵심이다. 한국은 동양의 현재 상황을 설명
해주는 중심 고리이다. 한국이 가진 전략적 중요성 때문에 한국과 한
국인, 그리고 한국이 주변국인 중국·러시아·일본과 형성한 관계에 대
한 관심이 상당히 높아졌다. 늘 서구 문명을 중심으로 살아왔던 독자
들에게 최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기원전 수 세기의 삶의 방식과 습관
및 사고방식을 고수하며 살아온 동양인들 사이에 만연한 정서적 감정
을 전달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본고에서 한국과 한국인 그리고 그들의 정치적 관계에 관하여, 대략적
이나마 표면적 사실을 정리하고자 한다. 영어로는 알파벳 K로 시작하
는 한국은 작은 반도로, 아시아의 동남 지역에 위치하며 만주를 기준
으로 봤을 때, 남쪽에 위치해 있다. 동쪽으로는 일본해(동해)에 접해 있
고 서쪽으로는 중국의 황해(서해)에 맞닿아 있다. 한국의 남쪽 연안에
서 보면, 일본의 쓰시마섬이 눈으로 보이고, 쓰시마섬에서는 일본의
연안을 눈으로 볼 수 있다.

대략적으로 한국은 남북으로 그 거리가 약 600마일(약 960킬로미터)이
고, 동서로는 평균 135마일(약 217킬로미터)이다. 국토의 면적은 8만
2,000제곱마일(약 21만 1,000제곱킬로미터)로 캔자스주의 면적에 해당하
고, 뉴욕주의 약 2배에 해당하며, 뉴잉글랜드 전체에 비하면 약 3분의
1에 해당한다. 한국 인구는 약 800만에서 1,600만으로 추정된다.

과학적인 인구 조사를 실시한 적은 없고, 조세 제도는 상당 부분 해당
지역의 인구수를 기반으로 하는 만큼, 세금 징수를 하는 당국으로서
는 해당 지역의 정확한 인구수에 대하여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정도
로 실거주자를 축소하는 것이 그들의 이해에 직결되어 있다. 따라서
한국의 인구는 상당 부분 추측에 기초하여 결정해야 한다. 인구를 약
1,000만 명 정도로 보는 것이 적절할 것 같다. 샌프란시스코·시카고·뉴
욕·리스본·로마·콘스탄티노플·베이징 등의 도시가 한반도와 같은 위
도에 위치한다. 수도인 서울은 인구 약 10만의 도시로, 지리적으로 국
토의 중앙에 위치하며, 뉴욕의 위도와 거의 정확하게 일치한다.

한국은 코리아로 오랫동안 알려져 왔으나, 한국인들은 아직 한국이라
는 이름을 사용한다. 이들은 한국을 ‘조용한 아침의 나라’ 혹은 ‘고요
한 아침의 나라’라고 멋지게 부르기도 한다. 아주 최근까지는 ‘은둔의

왕국’으로도 알려졌는데, 그 이유는 19세기 후반까지도 한국인들은 이
렇듯 은둔하여 호젓하게 생활하였기 때문이다. 1897년에 국호를 조선
에서 대만으로 바꾸었다.

한국의 동쪽 연안은 원산처럼 조수 간만의 차가 약 2~6피트(약 61~180
센티미터)로 계측된다. 황해와 인접한 서해안은 조수 간만의 차가 약
18~30피트(약 550~910센티미터)에 이른다. 바다를 따라 이어지는 연안의
길이는 약 3,000마일(약 4,800킬로미터)로, 한국의 남쪽과 서쪽은 상당히
많은 작은 섬으로 둘러싸여 있다. 이들 작은 섬은 사랑스럽고 그림 같
은 풍경을 연출한다. 계절마다 파도, 바람 등 다양한 조건에 따라 섬
사이 해류와 역류가 달라지고, 1년 중 어떤 달에는 황해에 안개가 빈번
히 발생하기 때문에 항해가 위험하다. 한국에 높은 산은 없다. 강은 대
부분 동쪽에서 서쪽으로 흐르지만, 밀물 덕분에 정크선과 스쿠너선²
은 바다에서부터 상당한 거리를 항해하여 들어올 수 있다.

한국은 땅이 비옥하고 잘 경작되어 있다. 한국인들은 타고난 농부들
로 주로 농업에 종사한다. 쌀·보리·기장·밀·수수·콩·감자·순무·양배추·
무·담배·면·사과·배 그리고 몇몇 과일을 재배한다. 소·닭·거위·오리·돼
지와 말을 기르지만, 양이나 염소는 기르지 않는다.

한국의 바다와 강어귀의 퇴적지에는 다양한 종류의 어류가 있고 그
양도 풍부하다. 그러나 한국인들은 너무 소심하거나 게을러서 바다로
나가지 않아 한국 어부는 일본 어부에 의해 밀려났다. 일본 어부는 상
당한 양의 물고기를 그물로 잡아 염장하고 말리고 소금을 뿌려 한국
내륙 지역으로 보내거나 일본으로 수출한다. 한국의 기후는 대체로
온화하다. 일반적으로 남부 캐롤라이나의 산간 지역 기후와 유사하다.
한국인은 일본인도 중국인도 아니다. 몽골인으로 여러 음절의 언어를
사용하며 표음 문자를 가지고 있다. 기록된 역사가 길지만, 그 진위 여
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5,000여 년의 역사 동안 한국인은
한국인으로서는 지속적으로 존재하였다고 주장하는데, 5,000년 역사
의 초기 부분은 물론 구전된 이야기와 설화의 역사이다.

3세기 전만 하더라도 한국은 기술 부분에서 상당히 발전된 모습을 보
였다. 망치로 두드려 편 철판들을 작은 쇠못으로 나무판에 박아 고정
하여 선체 전체를 철판으로 덮은 200피트(약 60미터) 길이의 배를 건조
하였다. 한국인은 직물 짜기, 금속 공예, 보석 세공, 도자기 제조에 재
주가 있었다. 그 기술이 일본인을 훨씬 더 앞서, 한국인들이 이웃 국가
인 일본에 금속 공예, 도자기 공예, 비단 직조 기술 등을 전파하였다.

3세기 전에 일본은 한국을 침략하여 짓밟고(임진왜란) 한국의 많은 장
인을 일본으로 데려갔으며, 한국의 군사력을 완전히 와해시켰다. 한국
의 문헌은 존재하기는 하지만 그 양이 미미하다. 한국의 학자는 중국
의 학문에 상당히 몰두하고 있다. 존재하는 한국의 문헌은 대부분이
풍경이나 민간에서 전승된 내용을 담은 것이다.

한국인은 일반적으로 원기 왕성하고 정감이 있으며 근면하고 유쾌한

사람들로 전쟁보다는 평화를 사랑하고, 생활은 상업보다는 농업 중심이다. 한국인은 친절하고, 정이 많고, 너그럽다. 한국에 국교國敎는 없으며 한 번도 국교를 가졌던 적은 없다.

여태까지 조상을 숭배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가족을 중요하게 여기는 유교적 전통이 어떠한 종교보다 강력하게 유지되고 있다. 불교는 한국인들 사이에서 오랫동안 미미하지만 꾸준히 존재해왔다. 한국인은 마녀, 혼백, 악귀 등의 존재를 믿는 풍조가 만연하다. 주물 숭배의 유물이라 하겠다.

남성과 여성의 의복은 수천 년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일상복으로는 표백하거나 표백하지 않은 무명옷을 입었다. 겨울에는 한국에서 자라는 짧은 품종의 면화로 덧대고, 거기에 옷감을 두겹게 누빈 옷을 입었다. 머리에 쓰는 모자는 그 형태가 눈에 띄게 다양하다. 한국인은 다양한 형태의 모자를 사회적 신분에 따라 다르게 썼다. 한국에서 장가 안간 모든 남자는 소년(총각)이라 부르고, 머리카락을 땋아 등 뒤로 내린다. 결혼은 12세 이상이 되면 할 수 있는데, 남자는 결혼을 해야 어른 대접을 받는다. 한국 여성은 법적 지위가 없다. 일부일처제로 결혼한 부인의 아이들이 법적 상속인이 된다. 그러나 한국 남자는 부양할 능력이 나 의향이 있으면 원하는 만큼의 첩을 둘 수 있다.

한국 정부

오늘날 한국의 정부 형태는 명목상으로는 제국이다. 1894-95년의 청일전쟁이 끝나고 1897년, 한국의 왕은 러시아의 차르나 중국의 황제, 일본의 천황과 동등한 황제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환기시키기 위해 황제 자리에 올랐다. 대한제국의 황제는 무한한 권력을 가졌다. 또한 조정 대신으로 내각을 구성하였다. 내각의 인사 구성은 황제의 의지에 따라 변할 수 있었는데 황제의 의지라는 것은 조석으로 바뀌었다. 대한제국은 도와 현으로 분할하여 통치하였는데, 황제가 임명한 관찰사와 현령이 다스렸다. 이들 관리는 국왕에게만 책임을 다하면 되고, 그 외에는 어떤 종류의 법적인 제약이나 방해도 받지 않는다. 이들은 백성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고, 재산을 몰수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었다. 황제만이 이들을 취조할 수 있는데, 황제가 관리들의 행동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경우는 관리의 행동을 전문적으로 암행 사찰하며 정보를 입수하는 자들이 보고를 할 때이다.

조정은 백성을 쥐어짜는 착취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다. 가난한 막노동꾼은 땅을 갈아 살고, 어떠한 헌법적 또는 법적 보호도 받지 못한다. 백성은 이웃 관리나 세도가 양반에 의지해야 보호받을 수 있다. 어떤 경우에는, 한 고을의 현령이 사령을 보내 부자로 알려진 이를 잡아들여 옥에 가두고, 그의 재산의 일부 혹은 전부를 강탈할 목적으로 죽을 때까지 고문할 수도 있다.

결과적으로 보통의 한국인은 근검절약의 동기 부여가 되지 않기에, 그

날 벌여 그날 사는 식으로 삶을 이어간다. 풍년의 경우 똥똥해지고 열굴에 기름기가 흐른다. 흉년에는 굶주리고 수천 명이 사망한다. 그래서 한국을 피상적으로만 관찰하는 여행자의 상당수는 한국인이 게으르고 빈둥거린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한국인을 정당하게 묘사한 것이 아니다.

한국인은 제대로 보호를 받는다면, 에너지 넘치고 근면하며 충직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친절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자비와 관대함이 두려움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면 감사할 줄 알고, 정의감이 넘친다. 또 민첩하고 몸이 재다. 이들은 언어에 능하고 수에 밝으며, 만약 정부가 안정되어 있고 유능하고 선정을 베풀기만 한다면, 발전 가능성이 매우 높은 백성들이다.

국제 사회에서 한국의 위치

한국의 입지는 독특하다. 한국은 서방 세계와 가장 늦게 외교 수교를 한 국가 중 하나이다. 1882년 미국과 조약을 체결하였고, 영국·독일과는 1883년, 러시아·이탈리아와는 1884년, 프랑스와는 1886년,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과는 1892년에 체결한 바 있다.

한국에는 변변한 우편 시설이나 교통·통신 수단이 부재하다. 짧은 철도가 있을 뿐이다. 수 마일에 지나지 않는 전신선이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외국인이 관리한다. 사람과 물자를 나르는 교통 수단으로는 사람의 등, 조랑말과 소의 등 그리고 가마와 바퀴가 두 개 달린 어설픈 우마차가 있다. 제조업으로는 미미하게나마 섬유·도자기·금속 제품을 공급하지만 충분하지는 않다. 쌀·인삼·생선을 수출한다.

약 300년 전 일본의 엄청난 약탈(임진왜란)에서 아직 회복하지 못하였다. 그 후 한국은 군사력이라고 할 만한 것을 갖춘 적이 없다. 한국에는 군사 계층, 군사적 열망, 군사적 능력이나 군사 교육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었다. 현재 군사 수는 명목상 7,000명이라고 하는데 그야말로 두려움의 대상이기는커녕, 웃음거리이자 적절한 조롱의 대상이라고 보기에 충분하다. 게다가 제대로 장비를 갖추지 못하였고, 군인들은 제대로 월급을 받지도 못하며, 보호자의 역할을 하기는커녕, 불한당 무리가 되어서 오히려 황제, 조정의 신하들, 백성들이 이들을 매우 두려워한다. 한국인은 겁쟁이는 아니지만, 기가 꺾여 있다. 그런 의미에서, 마치 이집트 농부들과 닮았다.

서구 열강에 문호를 개방한 이래로 시작된 더딘 성장이 부패와 음모의 문제 때문에 더욱 느려졌다. 한국의 미래는 국내적으로는 현명한 통치 제도와 외국이 주도하는 야심찬 프로젝트의 중립성에 달려 있다. 한국은 완충지대의 역할을 할 운명이다.

한국을 둘러싼 일본과 중국의 경쟁

동양 문제의 이상적인 해결책은, 그 자체로 분명한데, 열강이 보증하는

진정한 독립으로 한국이 새롭게 출발하는 것이다. 수 세기 동안, 한국은 중국과 일본의 속국이었다. 한국은 중국과 일본에 머리를 숙이며 양국에 조공을 바쳤다. 한국은 중국과 일본이 군사적으로 대립하는 구실과 원인이었다.

한국을 둘러싼 경쟁은 1894년에 절정에 이르는데, 바로 중국이 조약을 위반하고 한국에 군사를 파견한 때이다. 일본은 이에 분개하였고, 중국에 고용되어 수송 중이던 가오성호³가 침몰하는 사건 이후, 공식적으로 중국에 전쟁을 선포하였다.

청일전쟁은 해상과 육상에서 모두 일본의 파죽지세로 이어져, 거칠 것 없이 일본의 승리로 끝났다. 일본은 한국에서 중국 군대를 몰아내고, 황해로 항해하는 모든 중국 해군을 파괴하거나 함락시켰으며 만주와 산둥 지역을 침략하고 위해위와 포트 아서(尉순항) 요새를 함락시켰다. 그 후 일본은 발해만과 황해를 장악하였다.

일본군이 육상과 해상에서 보여준 훌륭한 전투력에 세상은 놀라움과 경이로움으로 바라보았다. 작전을 수행하는 전 과정에서 일본군은 상당한 전투력과 효율성을 보여주었다. 1895년 4월 평화협정이 선포되었고 시모노세키에서 조약 협상이 이루어졌다. 중국 측에는 전권대신 이홍장, 미국인 포스터가 배석하고, 일본 측에는 이토 히로부미 후작과 무쓰 무네미쓰 외무대신이 참석하였다.

시모노세키조약으로 중국과 일본은 한국이 완전한 독립국임을 인정하였다. 조약에 따라, 관동주로도 알려진 랴오둥반도와 포트 아서를 포함하여 일본군이 장악하였던 만주의 모든 지역이 일본에 양도되었다. 또한 일본은 막대한 전쟁 배상금을 받았고, 현재의 어려움에 관계가 없는 여타 부분에서도 이권을 얻어냈다. 이리하여 일본은 중국에서 가장 비옥한 곳 중 하나이고, 일본 제국보다도 면적이 큰 지역을 소유하게 되었다.

지금에서야 주장하는 바이지만, 이홍장이 이 조약에 이름을 날인하기로 했을 때 이미 그는 러시아 공사 카시니와 사전 합의가 있었고, 이로써 러시아가 일본이 아시아 대륙에서 거점을 확보하는 것을 막으려 하였다. 이 모든 과정에서 러시아는 가장 신속하게 행동하였다. 독일과 프랑스를 등에 업고 일본과 일본의 동맹국들을 압박함으로써 일본이 만주에서 얻은 모든 전리품을 포기하도록 설득하였다. 대신에 3,000만 냥이라는 보잘것없는 금액을 추가 배상금으로 승인하라고 압박하였다. 러시아는 일본이 모든 소유권을 포기하도록 설득하여 만주 지역을 얻으려 하였다.

이렇게 굴욕적인 항복을 강요받은 이후, 일본은 평정심을 잃었다. 일본은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여 역사상 가장 큰 금액의 전쟁 배상금을 받았었다. 표면상의 압박 이유는 일본이 포트 아서를 점령하면 베이징에 위협이 되고, 한국에 위협이 된다는 것이었다. 일본은 이들 열강의 강요와 영국의 조언에 따라 철수하고, 대신 러시아가 이 지역을 손아귀

에 넣었다. 러시아는 포트 아서와 만주를 점령한 후, 포트 아서의 방어 시설 강화와 만주를 관통하는 열차 건설에 수백만 달러에 달하는 상당한 돈을 쓰기 시작하였다.

러시아의 만주 점령

러시아는 자신들의 만주 점령이 단지 일시적인 것이라고 열강에게 주장하였다. 중국의 상황이 진정 국면에 접어들면 포트 아서 지역을 비롯하여 중국에서 철수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러시아는 극동 지역으로 진출하는 육군과 해군에 점점 더 많은 지출을 하였고, 도로와 도시 건설, 교회와 영구적인 막사 건설, 내륙 지방 개발과 기차역 건설에 수억 달러를 쏟아부었다. 만주 지역을 손아귀에 넣은 이후 최근 몇 년 동안 점차적으로 막대한 돈을 지출하였는데, 그 금액이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보어전쟁⁴에서 영국이 쓴 것보다 더 많았다.

러시아는 만주의 시베리아 철로를 최신 장비를 갖춘 최고 수준의 철로로 건설하였다. 또한 시베리아와 만주 지역에 지속적으로 러시아군의 수를 늘리고 있다. 수많은 도시에 영구적으로 사용할 건물을 건설 중이며 이들 건물은 만주 지역의 철도를 따라 개발 중에 있다. 러시아인은 영구적인 교회 건물을 짓고 농장에 정착 중이며 그곳에 집을 지어 살고 있다. 이 모든 것이 러시아의 주장대로 ‘임시적’일 수 있지만, 영구적인 것으로 보인다.

일본이 포트 아서를 점령할 경우 베이징에 위협이고, 한국에 위협이 되는데, 이곳을 러시아가 점령할 경우에는 왜 동일한 위험과 위협이 되지 않는지가 설명되지 않았다. 1897년, 러시아 군함이 포트 아서에 도착했고, 이에 대해 러시아는 불안한 세계에서 단순히 겨울을 나기 위함이며, 포트 아서가 그러한 목적에 유리하기 때문이라 알렸다.

군함은 아직 그곳에 있다. 만주 지역은 평화로워졌다. 러시아가 철수하겠다고 약속한 시점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곳에 남아 주둔해 있다. 오히려 러시아의 군대는 어느 때보다 더 많은 수가 남아 있다. 러시아의 과거 역사를 바탕으로, 현재 러시아의 의도와 향후 목적을 해석해 본다면, 러시아는 만주에 남아 있을 공산이 크다.

현재 러시아·일본 간 결끄러움의 직접적 원인은 러시아가 만주 지역에서 철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본은 가능하다면 만주와 한국에 대한 러시아의 향후 목적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 한다. 러시아는 만주 지역에서의 자기 입지 강화에 열심인 동시에, 같은 노력을 기울여 한국에서의 입지 강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 러시아가 세력 확장을 위해 수 세기에 걸쳐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인 점을 고려해보면 일본이 불안할 만도 하다. 일본은 러시아에 한국이 가장 중요한 이해관계 대상임을 인정해 주는 대신, 러시아는 만주가 가장 큰 이해관계 대상임을 인정할 것과 한국에 대한 러시아의 권리를 일본이 인정하면, 러시아도 만주에 대한 일본의 권리를 인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에 대해 러시

아는 일본과는 만주에 대한 논의를 하지 않을 것이며, 한국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분할을 고려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 제안은 당연히 일본 으로서는 전혀 받아들일 수 없었다.

러시아가 한국을 노리는 이유

러시아가 지속적으로 한국에 공격적으로 개입하는 이유는 아마도 상업적 이해관계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러시아는 1년 내내 대륙에서 바다로 연결되는 길을 열기 위해 한국을 원한다. 블라디보스토크나 달니,⁵ 포트 아서도 그러한 항구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 달니항은 개량 공사로 오히려 바다가 더 쉽게 얼어버렸다.

러시아는 상당한 비용을 들여 아시아를 관통하는 철도 건설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결국 종착역은 겨울이면 폐쇄되는 항구였다. 부동산을 찾기 위해서 러시아는 먼 남쪽으로는 중국의 즈푸항(옌타이)을 취하거나 혹은 한국의 제물포 같은 항구를 차지해야만 하였다.

러시아가 한국이 필요한 유일한 이유는 군사적 그리고 상업적 목적에 서이다. 러시아는 잉여 인구를 이주시킬 창구로서 한국이 필요한 것은 아니었다. 러시아는 한국의 금광이 필요한 것도 아니었고, 러시아는 한국인이 러시아 황제를 섬김으로써 얻게 되는 영향력이 필요한 것도 아니었다. 러시아는 출구가 필요하였다. 만주에 지출한 상당한 비용 때문에 러시아는 그 어느 때보다도 확고하게 태평양으로의 접근성을 가진 부동산을 찾겠다는 의지가 강하였다.

일본은 왜 한국이 필요한가

일본은 한국을 원하였다. 일본의 인구가 넘쳐나 이주할 만한 곳이 필요한데 한국은 기후, 토양, 농작물, 전반적 환경 등이 일본과 비슷하여 과밀한 인구 문제를 해결하는 데 매력적인 곳이다. 또한 일본은 가장 큰 적인 러시아가 한국을 삼키는 꼴을 볼 수는 없었다.

만약 러시아가 한국을 손아귀에 넣는다면, 이는 북쪽의 꿈이라 할 수 있는 러시아가 일본으로 향하는 정문에 발을 들여놓는 형국이기 때문이다. 한편 일본이 한국을 얻는다면, 일본이라는 키 작은 아시아인을 만주의 국경까지 데리고 가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어찌되었든 두 나라가 한국을 두고 전쟁을 벌일 상황은 아니고, 그럴 만한 다른 충분한 이유도 없었다. 무엇보다도 동양의 평화와 향후 상업적 가능성에 관심을 갖는 어떤 나라라도, 한국을 두고 러일전쟁이 일어나는 것에 선뜻 동의할 수 없을 것이다. 러시아가 그토록 원하는 훌륭한 부동산과 소유 목표지로 나아가는 통로를 가지고 있다는 점 외에도, 한국은 황해와 일본해의 영유권을 가지고 있다. 러시아는 일본과 같은 공격적인 강국이 한국의 바다를 점령하기를 바라지 않는다. 한국은 비옥한 토지, 온화한 기후, 풍부한 어장과 광산, 그리고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일본은 이러한 가능성뿐만 아니라 속적인 러시아

의 슬라브인에 공격적으로 맞설 수 있는 장소도 필요하였다. 게다가 러시아 영향권에 있는 한국은 일본의 심장에 들이대는 칼날과 같다. 이는 일본으로서는 생사의 문제이다.

비록 만주인과의 상업적 교역이 다른 모든 국가의 상업적 거래를 모두 합친 것보다 더 크더라도 일본이 만주에서의 교역과 특전의 보증을 요구하고, 권리를 주장하는 데에 단순히 가장된 외교적 수완을 발휘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에 관해서는 외교적 여지가 없다.

일본이 느끼는 한반도의 중요성은 일본 황실에서부터 어부에 이르기 까지 일본인 전체가 공감하는 바이다. 이 지점에서 일본인들은 하나의 열성적인 집단으로서, 어떤 말이나 행동이 취해질지라도, 한국이 러시아의 속국이 되거나 영향력 하에 놓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이전에 전쟁을 그것도 필사적인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러시아와 일본의 군사력 비교

러시아와 일본의 아시아 내 육지전과 해전 가용 군사력에 관한 의견은 엇갈린다. 러시아의 군 예산에 따르면, 러시아 군사는 약 140만 명으로 짐작된다. 일본 제국의 예산에 따르면 일본 군사는 현역 약 14만 명, 예비역 약 14만 명이라고 한다. 그러나 많은 군사 전문기자는 러시아의 군사력을 대략 300만 명 혹은 그 이상으로 추정하며, 어떤 기자들은 일본의 군사력을 약 60만 명 혹은 그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다.

두 제국의 군사 조직력의 효율성에 관해서는 평이 다르다. 일본의 해군력은 의심의 여지없이 동양의 바다를 기준으로 볼 때 러시아보다 훨씬 더 막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러시아는 아시아 해군 기지에 7척의 전함을 보유하고 있는데, 아시아 부대에 속한 오슬리아비아 군함은 현재 지중해에 정박해 있으며, 다른 군함인 알렉산드르 III는 1904년 봄에 출격 예정이다.

러시아는 극동 해역에 이미 4척의 장갑 순양함⁶을 보유하고 있는데, 또 다른 하나는 지난해 12월 18일 비제르테⁷에 위치하였던 함대가 출격에 나선 상태이다. 러시아는 동양 해역에 6척의 1급 방호 순양함⁸을 보유하고 있는데, 2척은 12월 19일 비제르테에 정박해 있다가 출격 중 이고, 하나는 2급 방호 순양함이다. 12척의 구축함이 동양 해역에 정박해 있고, 7척은 출력했다. 러시아는 포트 아서에 6척의 수뢰정을 보유하고 있고, 블라디보스토크에 10척의 수뢰정을, 그리고 흑해에서 출격 중인 4척이 있다.

일본은 6척의 전함, 6척의 장갑 순양함, 18척의 방호 순양함, 9척의 순양함, 그리고 러시아보다 더 많은 수뢰정과 구축함을 가지고 있으며, 최근 구매한 2척의 장갑 순양함이 출격 중이다. 러시아의 동맹이 될 가능성이 있는 프랑스는 동양에 전함 1척만 보유 중이고, 장갑 순양함 4척, 방호 순양함 3척 그리고 작은 배를 많이 보유하고 있다. 일본과 동맹 가능성이 있는 영국은 아시아 기지에 전함 5척, 무장 순양함 2척,

방호 순양함 8척, 그리고 상당수의 수뢰정과 구축함, 작은 보트와 추가로 보호 순양함 5척이 동인도 기지에 있다.

러시아도 일본도 전쟁을 일으킬 여유가 없다. 현대전을 성공적으로 치르려면 돈이 들기 때문이다. 러시아의 국가 부채는 33억 달러를 초과하였으며, 가장 최근의 회계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가 세입 적자에 직면한 것을 알 수 있다. 일본의 부채는 2억 7,900만 달러 수준이며 현금 보유량은 겨우 2,600만 달러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관련된 이해관계가 상당히 중요하고, 상황 전개는 빠르게 진행 중이어서 러시아와 일본에 대한 우려는 상당히 깊다. 실제 일본의 상황은 상당히 절박해서, 일반적인 신중함은 아마도 쉽게 배제되어 전쟁이 발발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전쟁에 세계적으로 가장 큰 이해관계가 걸려 있고, 부정적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해지는 이상으로, 그 결과를 감히 서둘러 예단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전쟁으로 인한 국제적인 여파

일본은 중국이 국가로서 온전한 상태를 유지하기를 바라며, 만주에 대한 지배권을 되찾고 동시에 상업적 문호는 개방해 두기를 원한다. 일본은 만주에 대한 러시아의 주도권을 기꺼이 존중하는 동시에 이 지역이 중국의 행정권 아래에 있음을 인정한다. 그리고 이에 대한 대가로 러시아가 한국에 대한 일본의 주도권을 인정해주기를 바란다. 현재까지 러시아는 이러한 일본의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이러한 일본과 러시아 사이에 오고 간 모든 외교적 술수 및 교섭과 문호 개방 및 한국과 중국의 영토 보전에 대한 우려 표명의 이면에는 국가적 야심, 필요성, 질투라는 사나운 민낯이 있었다.

전 세계가 막지 않는 한, 언젠가 러시아와 일본은 국가적 차원에서 화합을 이루지 못하고 상충되는 이해관계를 이유로 이러한 적대적인 힘에 의해 무력 충돌을 하게 될 것이다. 만약 중재재판소가 제안하는 불가피한 타협안에 대한 중재 혹은 묵시적 승낙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전쟁은 불 보듯 뻔하다. 만약 전쟁이 일본과 러시아에만 국한된다면 세계의 걱정은 아마도 덜할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동양에서 일어나는 어떤 전쟁에 관여한다는 것은 결국 그 불길이 전 지구적으로 번질 가능성을 의미하며, 그렇다면 이는 20세기의 운명과 관련될 수 있다. ‘만약 러시아가 승전한다면’이라는 가정은 영국 정계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현안이다. 아시아와의 국제 관계에서 지난 15년 동안, 영국의 패권이 파괴된 것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심각하게 훼손되어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러시아가 승리한다면, 이미 아시아에서 압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러시아에 더욱 힘이 실릴 것이고, 영국이 빠른 시일 안에 패권을 회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진지한 물음에 던지는 충격적인 한 방이 될 것이다. 일본이 승리한다면, 이미 충분히 복잡한 문제에 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꼴이 될 것이다. 그러나 단연코 다른 대안에

비하면 그렇게 위협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영국과 프랑스가 현재의 영향력을 발휘하여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마무리로 이러한 특정 사안에 관하여 미국과의 관계를 첨언하겠다. 1882년 5월 22일 미국 전권특사 슈펠트 제독이 협상한 조미수호통상 조약에 따르면 제3국이 양 체결국 중의 한쪽 정부를 부당하게 대하거나 국토를 위협할 경우, 다른 한쪽 정부는 지원을 하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동맹국이 피해를 피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합의하였다. 우리는 여태까지 이 조약에 의해 한국과 교류를 해왔다. 이 조약은 여전히 유효하다. 대한제국 정부는 아직 러시아의 공격이나 일본의 공격 혹은 1894년에 중국의 공격이 있었을 때 미국 정부에게 이 조약의 합의를행을 이행해달라고 호소하지 않았다. 만약 한국이 그러한 내용을 지금 주장한다면 이 전제에서 미국의 의무가 무엇인지, 어디까지 실행하는 것이 정당할 것인지에 대한 심각한 문제가 제기될 것이다.

1 평북 운산군 복진읍에 있는 운산 광산을 말한다. 1896년 미국인 모스에게 운산 광산의 특허권이 인정되었다. **2** 스쿠너선은 돛대가 두 개 이상인 범선이다. **3** 가오성호는 1894년 7월 청일전쟁 당시 서해상에서 일본 해군에 격침된 것으로 알려진 중국 군함이다. **4** 1880년에 시작되어 1902년에 마무리된 보어전쟁은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영국군과 남아프리카에 살던 백인 개척자의 후손인 보어인이 두 차례에 걸쳐 맞붙은 전쟁이다. **5** 달니는 러시아 동부, 프리모르스키 지구 서부의 도시이다. **6** 장갑 순양함은 양측의 장갑에 의해 방호되며, 방호 순양함의 특성인 갑판과 석탄창고의 방호도 갖추고 있다. 장갑 순양함은 러일전쟁의 '울산 해전'과 제1차 세계대전의 '코로넬 해전'의 주요 전투함이었다. **7** 비제르테는 튀니지 북부의 항구 도시이다. **8** 방호 순양함은 19세기 말 순양함의 한 형태로, 갑판의 장갑이 포탄의 폭발에 의한 파편으로부터 중요한 기계실을 보호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양쪽으로 장갑대를 두른 장갑 순양함보다는 방호가 덜하다.

— 182 —
 19세기 말~20세기 초 서양인이 본 한국

— 183 —
 1900년대-PART IV

KOREA AS THE PRIZE OF WAR.

BY J. SLOAT FASSETT.

THE world to-day is leading a strenuous life. The race is for commercial supremacy. America, England, Germany, France, and Japan are producing more than they can consume. The contest among the nations is not alone for commercial supremacy, but for commercial opportunity. The demand for new markets is equivalent to a demand for the opportunity to live and to grow. The most attractive undeveloped market in the world is the Asiatic market. The most available method of approaching that market is by the Pacific Ocean. Russia has developed commercially with amazing and startling rapidity during the last fifteen years. She does not yet produce more than she can consume; but she, having already grown to be the greatest economic unit in the world, with rare prescience penetrating the future, realizes the importance to her future welfare of these same Oriental markets which are attracting the attention of America, England, Germany, France, Italy, and Japan. Behind the impending and threatened collision between Russia and Japan over Manchuria and Korea the world sees the shadows of far greater questions,—the mastery of the Pacific, the control of its commerce, the political supremacy in Asia,—and in these questions no nation is more vitally interested than the United States.

AMERICAN INTERESTS.

In fact, Americans, so far as business enterprises and the money invested in them are concerned,

have larger interests in Korea than all the other nations combined. Americans constructed and sold to the Japanese the Chemulpo-Seoul railroad. Americans constructed for the Korean Government (and have not yet been entirely paid for the same), the electric railway in the city of Seoul itself, and some eighteen or twenty miles of suburban roads. Americans have also constructed lighting plants for the city of Seoul, and are investing in the development of a water system for the capital. Americans import into



THE EMPEROR OF KOREA.

(From a late photograph presented by the Emperor to Mr. Fassett.)

한국의 황제 (황제가 파셋에게 보여준 최근 사진)

Korea immense quantities of kerosene oil, of canned goods, and of cotton cloth. Americans own, in association with English and French capitalists, the largest single enterprise in Korea, and one of the largest in Asia,—a mining concession in the northern part of Korea. American missionaries, also, are doing a magnificent work in Korea. So that American interest is not alone the interest which attaches to exciting and important events, but is based upon the actual conditions of existing trade and property in Korea, as well as upon the future possibilities of the entire Asiatic commerce.

That the relations between Russia and Japan are highly strained, there is no room for doubt. Both nations are highly desirous of the goodwill of the United States. Both nations are extremely sensitive to the attitude of American opinion. Each is extremely jealous lest the United States should, in spite of maintaining theoretically a strong neutrality, give the assistance of its sympathy and moral support to the other. This article is not intended to be either pro-Japanese or pro-Slav. It is intended as a sketch of the general situation as it presents itself just now. War may have been declared before this article shall reach the public.

The exciting causes of war are Manchuria and Korea, and the relations of Japan and Russia to these countries. Manchuria is one of the richest provinces of China. It is three times as large as the island empire of Japan. It has an excellent climate, a fertile soil, and abounds in rich mines of gold and coal, and iron and copper. It has fine harbors, which are, however, not ice-free. The larger portion of Manchuria was overrun and conquered by the Japanese in the war of 1894-95.

THE LAND AND THE PEOPLE.

Korea, however, is the bone of contention. It is the key to the present situation in the East. The strategic importance of Korea arouses a great interest in herself and her people, and in her relations to China and Russia and Japan. It is very difficult to convey to people who have always lived in the midst of our Occidental civilization anything like a realizing sense of the conditions prevailing among an Oriental people like the Koreans, who, until within a very few years, have been living in the atmosphere and in accordance with the customs of life and the habits of thought of the centuries before Christ. The utmost that can be attempted in a paper of this description is a rough sketch of some of the superficial facts with reference to Korea and the Korean people and their political relations.

Korea (which should be spelled with a "K"), is a small peninsula projecting from the south-

eastern coast of Asia southward from Manchuria. It is bounded on the east by the waters of the Japan Sea, and on the west by the waters of the Yellow Sea. From its southern coasts the islands of Tsushima are visible, and from Tsushima the coasts of Japan are visible. Roughly speaking, Korea is from north to south 600 miles long, and from east to west it has an average width of 135 miles. It contains 82,000 square miles, or almost exactly the area of our State of Kansas, being nearly twice as large as the State of New York, and one-third larger than all of New England. The population is estimated as low as 8,000,000 and as high as 16,000,000. Inasmuch as no scientific census is ever taken, and inasmuch as the taxation depends very largely upon the number of people in any given district, it is to the interests of the authorities to whom the taxes are farmed out to suppress as far as convenient the precise number of people in their districts; hence, the population of Korea must be determined largely by guess. It is probable that 10,000,000 is about the proper number.

The parallels of latitude that would pass through the cities of San Francisco, Chicago, New York, Lisbon, Rome, Constantinople, and Peking would pass through the peninsula of Korea. The capital, Seoul, a city of a little over 100,000 inhabitants, is located in about the geographical center of the country, and almost exactly west, or east, of New York. Korea was long known, and is yet known to its inhabitants, as Chosen, and is fancifully called by them "The Land of the Morning Quietness," or "The Land of the Morning Calm." Until very recently, it was also known as "The Hermit Kingdom," because of the seclusion with which its inhabitants had managed to surround themselves until the latter half of the nineteenth century. In 1897, this name was changed from Chosen to Dai Han or Tai Han.

On the eastern coast of Korea, as at Gensan, the tides are estimated at from two to six feet. On the western coast, in the Yellow Sea, they run from eighteen to thirty feet. There are about three thousand miles of seacoast line, the country being bounded on the south and the west by a large number of islands, which constitute a most delightful and picturesque archipelago. Navigation is dangerous because of the tremendous currents and counter-currents among the islands, varying with the different seasons, with the variations of the tide and the variations of the wind, and also because of the frequent fogs which settle over the Yellow Sea during certain months of the year. There are no high mountains in Korea. The rivers for the most part run from east to west, and, owing to the high



A KOREAN RURAL LANDSCAPE.

tides, are navigable to junks and schooners of good size for long distances from the sea. The soil of Korea is fertile and well tilled. The people are good farmers. Their main occupation is agriculture. They raise rice, barley, millet, wheat, sorghum, beans, potatoes, turnips, cabbages, radishes, tobacco, cotton, apples, pears, and small fruits. They raise cattle, chickens, geese, ducks, pigs, and horses, but no sheep or goats. The seas and estuaries of Korea swarm with enormous quantities of excellent fish in great variety; but the Koreans themselves are either too timid or too lazy to follow the sea for a livelihood, and the fishermen of Korea are crowded out by the Japanese, who net and cure immense quantities of fish, which are dried and salted and sent into the interior of Korea and exported to Japan. The climate of Korea is delightful, as a rule. Generally, it is similar to that of the mountain regions of North Carolina.

The people of Korea are not Japanese, and they are not Chinese. They are Mongolian, and have a polysyllabic language with a phonetic alphabet. They have a recorded history, of disputed authenticity, which claims for them a continuous existence as a Korean people of about five thousand years, the earlier part of which, of course, is shrouded in the mists of tradition and fable. As early as three centuries ago, the Koreans had made great progress in the arts. They built ships two hundred feet long and covered them with plates of iron, the iron being hammered into small plates and fastened by small spikes driven into the wood. They made woven

fabrics, and were very skillful in metal work, in the fashioning of jewels, and in the manufacture of pottery. They were far in advance of their Japanese neighbors, to whom they have taught the arts of metal-working, pottery-making, and silk-weaving. Three centuries ago, Japan overran the country and devastated it, transferred whole colonies of artisans to Japan, and broke down forever the military power of Korea. Korea has produced but little literature. Korean students have been largely devoted to Chinese authors. The native literature consists largely of descriptions of scenery and folk-lore.

The people of Korea may be described generally as robust, amiable, industrious, pleasure-loving, and given rather to the arts of peace than to the ardors of war. They are agricultural rather than commercial. They are kindly and generous. They have no national religion, and never have had. Confucianism, so far as regards the worship of ancestors, the reverence for parents, and the dignity of family, has a stronger hold than any other form of religion. Buddhism has always had a languishing existence among them. There is a widespread belief among the people in witches, in spirits, and in devils. There are relics of fetichism. The costumes of the men and the women do not differ widely from those in use thousands of years ago. The universal costume is cotton cloth, bleached and unbleached. In winter, this is padded with short staple cotton which grows in Korea and is carded into pads for the purpose of quilting the clothing of the people. Thei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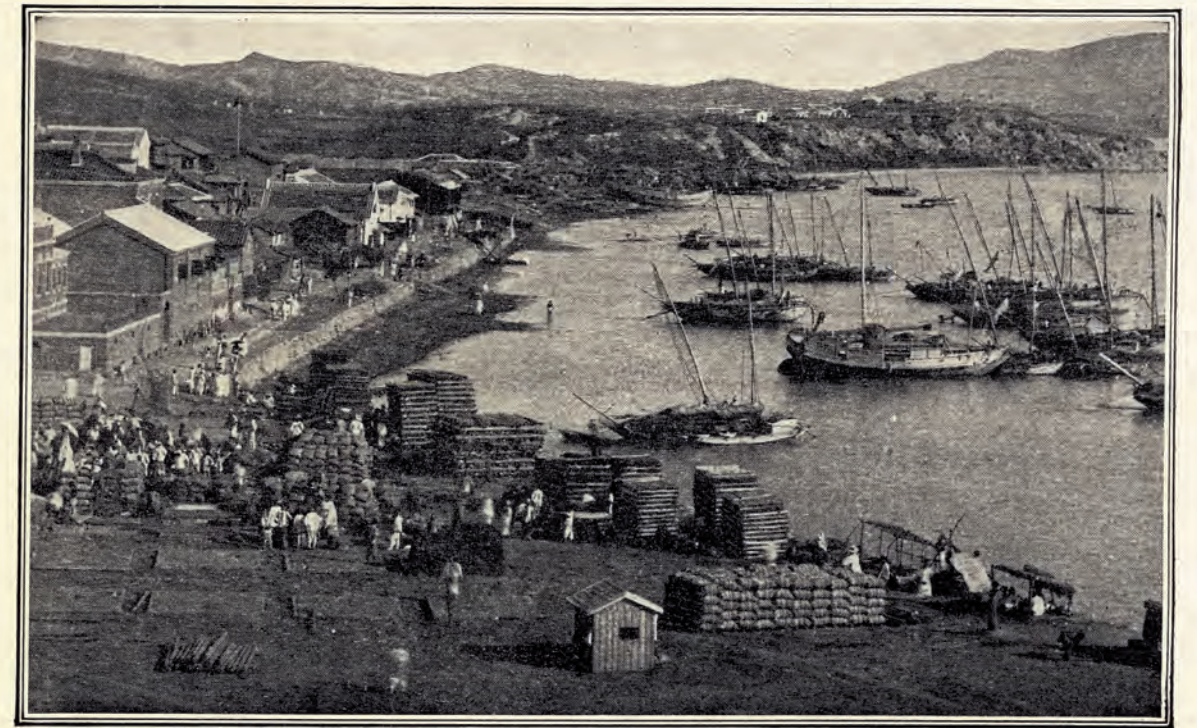
headgear is remarkably varied in form. They have a different form or a different kind of hat for almost every station in life. All the unmarried men in Korea are called boys, and wear their hair in braids down their backs. Marriage may take place at any age from twelve upward, and when a boy is married he is a man. The women of Korea have no legal status. A man may have one wife, and her children are his legitimate heirs; but a Korean may have as many concubines as he may have the ability or the disposition to support.

THE GOVERNMENT.

The form of government to-day is in name imperial. In 1897, after the close of the Chinese and Japanese War of 1894-95, the Korean king assumed the title of "Emperor," so as to enforce upon the attention of his own people the fact that he stood on the same basis as the ruler of Russia, the ruler of China, and the ruler of Japan. His power is unlimited. He has a cabinet of ministers, which constitutes his council. The members of this cabinet are changed by the imperial will, and the imperial will changes oftener than the phases of the moon. The empire is divided into districts and magistracies, which are governed by governors and magistrates appointed by the Emperor. These officers, in their turn, are not responsible to any but the sovereign, and

are not affected by constitutional lets or hindrances of any kind. They have the power of life and death, and of the confiscation of property, subject only to the possible inquiry of the Emperor, whose attention may be brought to their acts by his professional spies and informers, who everywhere are passing up and down among the people. The entire government is based upon a system of squeeze, and the poor coolie is ground into the earth. He has no constitutional or legal protection. He must find his protection under the wing of some neighboring officer or nobleman of rank and power.

There is nothing to prevent any magistrate, at any time, from sending his police runners to apprehend the person of any alleged rich man, convey him to prison, and subject him to torture even to death for the purpose of extorting a part or all of his property. The result is that the average Korean feels no incentive to thrift, and therefore he lives in a hand-to-mouth, free-and-easy sort of way. In abundant seasons, he is fat, and shines with the oil of plenty; in lean seasons, he starves, and dies by the thousands. So it has come to pass that many travelers who are superficial observers have given the Korean the name of idler and loafer, which is far from being a just description. The Korean, when protected, is energetic, industrious, faithful, and reliable. He is susceptible to kindness, and



CHEMULPO, THE CHIEF PORT OF KOREA.

appreciates mercy and gentleness when he understands that they are not dictated by fear, but flow from a sense of justice. The Korean has a quick and ready mind. He is a good linguist and a good mathematician, and is a most promising subject for development when once he shall be permitted to enjoy a firm, intelligent, and beneficent government.

KOREA'S INTERNATIONAL STATUS.

The position of Korea is unique. She is the youngest of the nations to come into diplomatic relations with the Western world. Her treaties with the United States and England were made in 1882; with Germany, in 1883; with Russia and Italy, in 1884; with France, in 1886; with Austro-Hungary, in 1892. She has no well-established postal facilities or means of transportation and communication. She has only one short railroad, while others are projected, and only a few miles of telegraph lines, and these mostly controlled by foreigners. The means of transportation of men and goods is man-back, pony-back, cow-back, by means of sedan chairs, and by two-wheeled, clumsy bull-carts. She manufactures feebly an insufficient supply of textile fabrics, of pottery, and of metal wares. She exports rice, ginseng, and fish. Korea has never recovered from the blighting ravages of the Japanese conquest of three centuries ago. At no time since then has she had an army worthy the name. She has no military class, no military aspirations, no military aptitude, no military instruction. Her present army, nominally of seven thousand men, is deservedly a laughing-stock and an object of proper ridicule when it is not an object of dread. Her soldiers, poorly equipped and badly paid, instead of being a body for protection, become a band of desperadoes, of which the Emperor, the court, and the people are desperately afraid. The Koreans are not cowards, but they are spirit-broken, resembling in this respect the fellaheen of Egypt. Corruption and intrigue have dwarfed even such tardy growth as has come to her since the Western powers opened a way into her ports and interior. Her salvation for the future depends upon the institution of wise government at home and the neutralizing of ambitious projects of other nations abroad. She is designed by nature to be a buffer state.

JAPAN'S CONTEST WITH CHINA OVER KOREA.

The ideal solution of the Eastern question, as at present it manifests itself, would be to put Korea in commission, with her integrity and independence guaranteed by the great powers. For many centuries, she was the vassal both of

China and of Japan. She paid homage to them both, and she paid tribute to them both. She was the pretext and occasion for many a contest at arms between the Chinese and the Japanese people. This contest over Korea culminated in 1894, when China violated her treaty obligations and sent troops into Korea. Japan resented this, and after an engagement in which the *Kowshing*, a Chinese transport, was sunk, Japan formally declared war against China. This war was prosecuted by Japan with great vigor, both on sea and on land, and resulted in an uninterrupted series of victories for Japan. She drove the Chinese armies out of Korea, destroyed or captured all the Chinese navy that ventured into the Yellow Sea, invaded Manchuria and Shang-



THE CROWN PRINCE OF KOREA.
(From a late photograph presented by the Emperor to Mr. Fassett.)

한국의 황태자 (황제가 파셋에게 보여준 최근 사진)

tung, and captured the fortresses of Wei-hai-wei and Port Arthur. She was thus in control of the Gulf of Pe-chi-li and the Yellow Sea. The world looked on with wonder and admiration at the fine discipline of the land and sea forces of Japan, and the vigor and efficiency with which the entire campaign was executed. Peace was declared in April, 1895, and a treaty was negotiated at Shimonoseki by Li Hung Chang, aided by John W. Foster, an American, for the Chinese, and Count Ito and Viscount Mutso, for the Japanese. By this treaty, the independence of Korea was recognized by both parties. All of that part of Manchuria which had been overrun by the Japanese armies, including the Liao-Tong peninsula, known as the Regent's Sword, and Port Arthur, was ceded to Japan. Japan also received a heavy indemnity in money, and many other concessions which do not enter into the present difficulties. Japan thus came into possession of a rich territory,—one of the richest in China,—larger than her entire empire. It is now claimed that at the very time that Li Hung Chang consented to affix his name to this treaty he had already come to an understanding with Count Cassini, acting in behalf of Russia, whereby Russia was to prevent Japan from ever obtaining any foothold upon the Asiatic mainland. At all events, Russia acted most promptly. Backed by Germany and France, she brought pressure to bear upon

Japan, and upon alleged friends of Japan, which resulted in compelling Japan to abandon all her possessions thus obtained in Manchuria, and to accept in lieu thereof a further indemnity of the paltry sum of thirty million taels. Japan has never recovered her équanimity since this humiliating surrender was forced upon her. She had won the fairest prize that had ever in all her history fallen to her prowess. The pretext was that Japan's occupancy of Port Arthur would be a menace to Peking and a peril to Korea. Japan, however, withdrew in accordance with the insistence of these great powers and the advice of Great Britain, and Russia was permitted to take possession. She occupied Port Arthur and Manchuria, and began spending money in the most lavish manner, by the millions of dollars, upon strengthening the fortifications of Port Arthur, and in constructing a railway through Manchuri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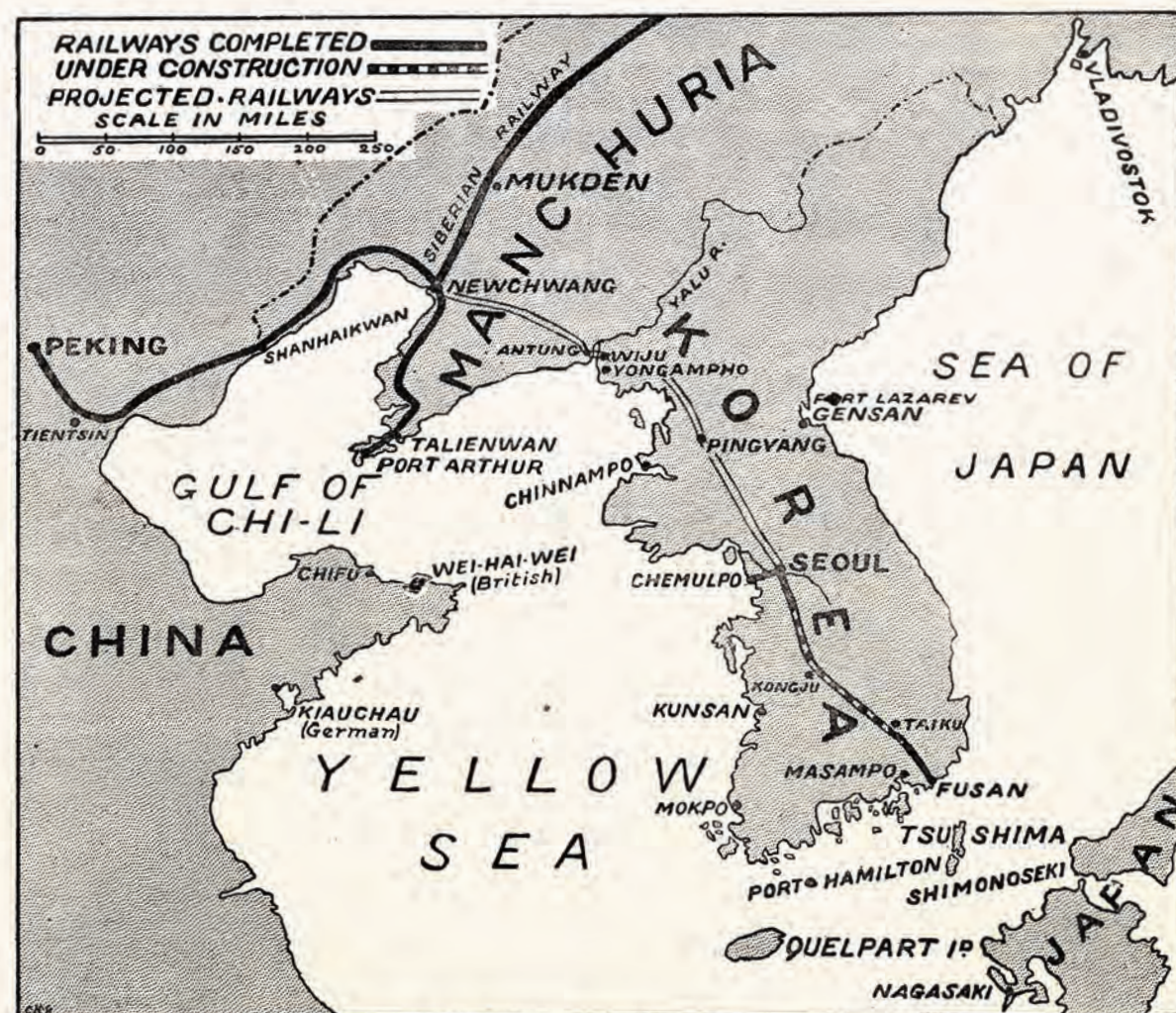
RUSSIA'S OCCUPATION OF MANCHURIA.

At the same time that Russia was assuring the powers that she was only temporarily occupying Manchuria, and that she meant to evacuate Port Arthur and the country as soon as the country was pacified, she was increasing her expenditures on her army and navy in the East, and pouring out hundreds of millions in the construction of railroads and cities and churches and permanent barracks, and in in-



BUILDING THE RAILROAD BETWEEN SEOUL AND FUSAN.
(It is believed that this line, which the Japanese were pushing with energy last month, when completed, will enable Japan to transport an army into the Korean capital within thirty-six hours.)

경부선 건설 (지난달 일본이 열정을 가지고 밀어붙인 이 철도가 완공되면, 일본은 36시간 내에 한국의 수도로 군사를 이송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MAP OF KOREA, SHOWING THE LINES OF RAILROAD, PROJECTED, UNDER CONSTRUCTION, AND COMPLETED.

ternal development and in facilities for railroad terminals. She has expended, in recent years, with increasing lavishness, since she obtained possession of Manchuria, more than the Boer war cost England in South Africa. She has constructed the best-equipped and best-built branches of the Siberian Railway in Manchuria. She is constantly increasing the numbers of her soldiers, both in Siberia and in Manchuria. She is constructing permanent buildings in the numerous cities which are developing along Manchurian railways. Her people are constructing permanent churches, and are settling upon the farm lands and building homes thereon. All this may be "temporary," but it has the look of permanency. It has never been explained how it was that, if the Japanese occupancy of Port Arthur was a menace to Peking and a peril to Korea, Russian occupancy of the

same territory was not equally a danger and a menace. In 1897, Russia informed an uneasy world that her warships, which had just arrived at Port Arthur, were merely there to pass the winter, that being a convenient harbor for that purpose. They are there yet. Manchuria has become pacified. The time fixed for the evacuation has passed by, and Russia remains. She remains in greater force than ever; and if Russia's past history counts for anything as an aid in interpreting her present intentions and her future purposes, she intends to remain in Manchuria.

The immediate cause of the present difficulty between Russia and Japan is the failure of Russia to evacuate Manchuria, and Japan is determined to know, if possible, what Russia's future purposes are with reference to Manchuria and to Korea; for while Russia has been busy strength-

ening herself in Manchuria, she has been equally busy in endeavoring to strengthen herself in Korea, and in view of the centuries of continuous expansion of Russia, Japan may well be excused for being nervous. Japan has proposed that Russia shall recognize her interests in Korea as paramount, in return for the recognition by Japan of the paramountcy of Russian interests in Manchuria, agreeing that Russian rights in Korea shall be as liberally recognized as Japanese rights in Manchuria. Russia insists that she will not discuss Manchurian questions with Japan, but that she will consider a practical division of Korea. This proposition, naturally, is wholly unacceptable to Japan.

WHY RUSSIA SEEKS KOREA.

The reason for Russia's persistent aggression toward Korea must be sought in her commercial interests. Russia desires Korea in order to open a way by land to seaports which shall be open the year round. Neither Vladivostok nor Dalny nor Port Arthur are such ports. The very improvements at Dalny have made it easier for the sea to freeze up. At enormous expense, Russia has almost completed a railroad across Asia, only to find herself with its termini in winter-locked harbors. To find an open harbor, Russia must either take possession, in China, of some harbor as far south as Chefoo, or she must take possession of Korea as far south as Chemulpo. Russia's only need of Korea is military and commercial. She does not need Korea as an outlet for her surplus population. She does not need the mines of Korea, nor does she need any power which might come from the accession of the Koreans to the Russian throne. She needs an outlet. Russia is, by reason of the very expenditures she has made in Manchuria, more determined than ever to be free to find open access to the waters of the Pacific Ocean.

WHY KOREA IS NECESSARY TO JAPAN.

Japan desires Korea because her population is crowding the home island and must have a place in which to overflow; because the climate, the soil, the products, the environment generally, are little different from those at home, and hence would make an attractive place for this overflow. Also, she wants Korea because she cannot afford to have Korea in the possession of her archenemy, Russia. If Russia should take Korea, it would bring the Northern Bear to the very portals of the household of Japan. On the other hand, if Japan should take Korea, it would bring the little yellow man to the borders of Manchuria. Neither one can well afford to go to war over Korea, or for any other cause;

neither can any nation interested in the peace and future commercial possibilities of the Orient willingly consent that war should grow up between Japan and Russia over Korea, or from any other cause. In addition to her fine, ice-free harbors, which Russia wants, and access to which she is determined to have, Korea commands the Yellow Sea and the Japan Sea, and Russia wants no aggressive power like Japan occupying the position Korea commands. Korea has fertile fields, genial climate, unsurpassed fisheries, rich mines, and room for growth. Japan wants these, as well as a place to stand to meet the aggressions of the Slav. Besides, Korea in Russian hands means a dagger pointed at the heart of Japan. It is a life-and-death struggle for Japan. She may be only feinting and diplomatizing in demanding guarantees as to trade and privileges in Manchuria and insisting upon her rights in that province, although her commercial transactions with the people of Manchuria outweigh those of all other nations combined; but as to Korea, there is no room for diplomatizing. The vital importance to Japan of this peninsula is realized by the whole people, from the throne to the Japanese fishermen. The Japanese people are a passionate unit upon this point, and whatever else may be said or done, there will be war, and desperate war, before Japan will willingly consent to seeing Korea in the possession and control of Russia.

RUSSIA'S ARMAMENT COMPARED WITH JAPAN'S.

As to the relative strength of Russia and Japan available for the purpose of a land and naval war in the Orient, there is considerable difference of opinion. According to the military budget of Russia, her army would seem to be about 1,400,000. According to the budget of the Japanese Empire, her army would seem to number about 140,000, with a reserve of about 140,000 more. Many military writers, however, estimate Russia's military strength as in the neighborhood of 3,000,000, and even higher, and some estimate the military strength of Japan as at 600,000 and higher. As to the efficiency of the military organization of the two empires, critics differ. The naval strength of Japan is confessedly greater than the strength of Russia in Oriental waters. Russia has on the Asiatic station seven battleships, with one battleship, the *Ossliabia*, at present in the Mediterranean, which belongs to the Asiatic squadron, and another, the *Alexander III*, which is to be sent out in the spring of 1904. She has four armored cruisers already in Eastern waters, with another on her way out, which was at Bizerta on December 18 last. She has six pro-

tected cruisers of the first class in Oriental waters, with two on their way out, which were at Bizerta on December 18, and one protected cruiser of the second class. She has twelve torpedo-boat destroyers in Oriental waters, and seven on their way out. She has six torpedo boats at Port Arthur, ten torpedo boats at Vladivostok, and four on their way out from the Black Sea.

Japan has six battleships and six armored cruisers, eighteen protected cruisers, nine unprotected cruisers, and a greater number of torpedo boats and torpedo-boat destroyers than Russia, and has two armored cruisers, which she recently purchased, on the way out. France, the possible ally of Russia, has only one battleship in the Orient, four armored cruisers, three protected cruisers, with a number of smaller boats. England, the possible ally of Japan, has five battleships on the Asiatic station, two armored cruisers, eight protected cruisers, and a large number of torpedo boats and torpedo-boat destroyers, and smaller boats, besides having at the East India station five protected cruisers. Neither Russia nor Japan can well afford to have war, for it takes money to conduct, successfully, modern war. Russia's national debt is in excess of \$3,300,000,000, and the most recent fiscal report shows a deficit in revenues. Japan's debt is \$279,000,000, and she has only about \$26,000,000 in cash on hand. But the issues at stake are so important, events grow so rapidly, the concern of Russia and Japan is so intimate, and the actual situation of Japan is so desperate, that ordinary considerations of prudence may be brushed aside and war begin, the outcome of which no man would be rash enough to undertake to prophesy, further than that it is bound to be of most momentous interest and consequence to the world at lar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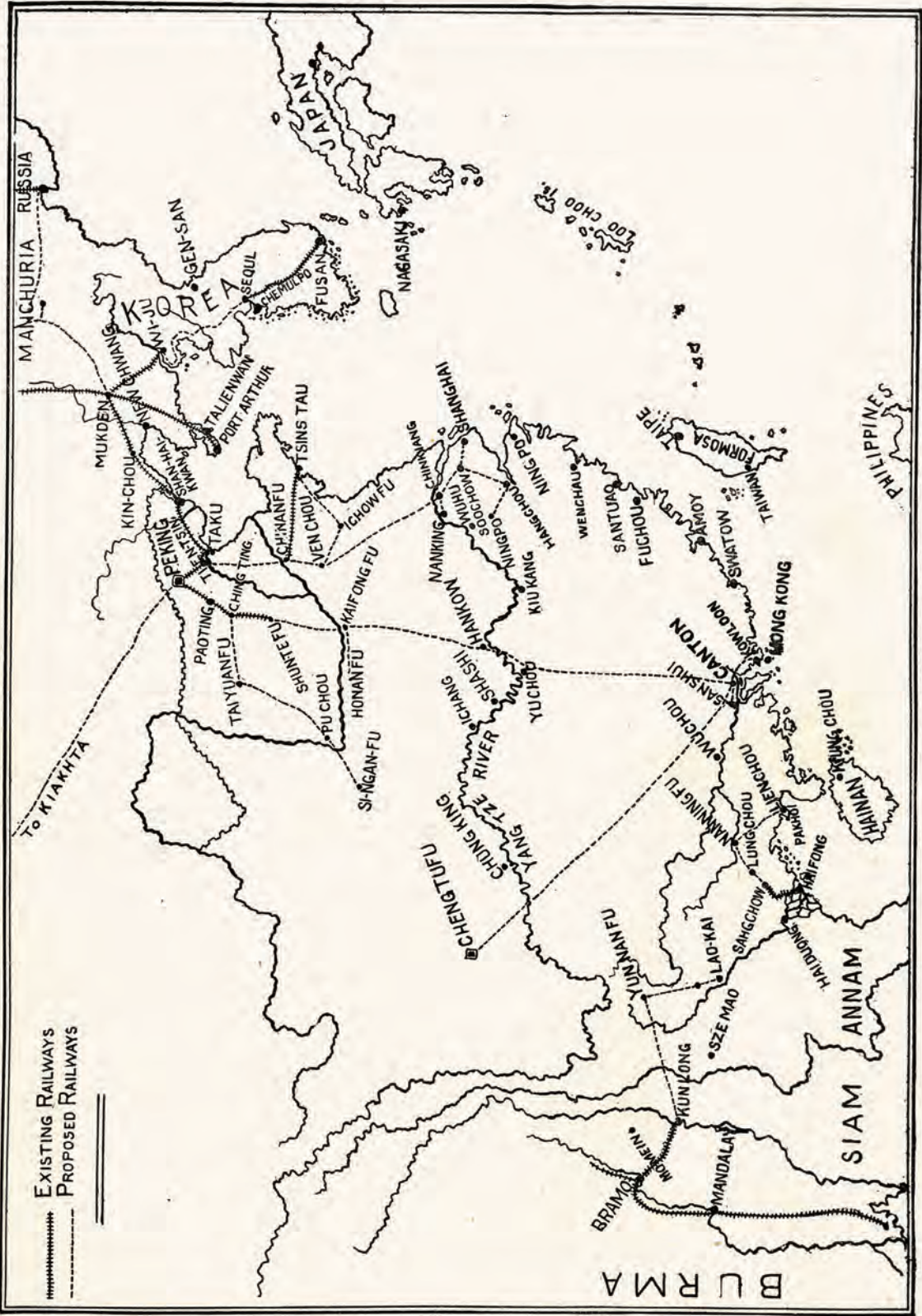
INTERNATIONAL CONSEQUENCES OF WAR.

Japan wants the integrity of China maintained, the control of China in Manchuria reestablished, and the commercial door in the entire empire kept open. Japan is willing to respect the paramount interests of Russia in Manchuria, subject to China's administration, in exchange for Russia's recognizing the similar paramountcy of Japanese interests in Korea. Up to this time, Russia refuses to accede to these demands of Japan. Behind all the play and counterplay of diplomatic events, behind all the answers and retorts of strenuous Jap and strenuous Slav, be-

hind all the alleged solicitude for open doors, Korean and Chinese integrity, there pace the fierce figures of national ambitions, national necessities, and national jealousies. Unless the world forbid it, Russia and Japan will, sooner or later, by these belligerent forces be pushed into armed combat, because their interests as nations are irreconcilable and opposing. Either there must be arbitration and acquiescence in the inevitable compromises suggested by the tribunal of arbitration or there must be war. If war could be confined in its operations to Japan and Russia, the world would doubtless be less concerned; but involved in any war in the Orient to-day is the possibility of a world-wide conflagration, in which would be involved the destinies of the twentieth century.

"If Russia should win,"—that is the question that touches profoundly the English statesmen. The supremacy of England in Asiatic affairs has been seriously impaired, if not destroyed, during the last fifteen years. A Russian triumph at this time, under existing circumstances, would so exalt the already dominating influence of Russia in Asia as to be a staggering blow to English supremacy, from which it may well be questioned if England could soon recover. A Japanese victory would result in complications sufficiently serious to give rise to problems sufficiently intricate, but by no means so threatening as the other alternative. Hence, there is no question but that at present the influence of England and France is being thrown to maintain peace, if possible.

One word, in closing, as to the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to this particular contest. Under and by virtue of the provisions of a treaty negotiated by Admiral Schufeldt on May 22, 1882, the United States and Korea agreed with each other that if, at any time, either of them were put upon by a foreign nation, and her integrity and her soil threatened, the other would come to her assistance and use her best endeavors to ward off injury from her ally. Under this treaty, we have had intercourse with Korea all these years. The treaty still stands. Korea has not as yet, in view of either Russian aggression or Japanese aggression, or in view of Chinese aggression previous to 1894, seen fit to appeal to this government to carry out this agreement contained in that treaty. If she should do so now, it would raise a serious question as to just what the duty of the United States would be in the premises.



MAP SHOWING CHINESE RAILROADS, COMPLETED AND PROJECTED.

건설 예정이거나 완성된 중국 철도를 보여주는 지도

극동 지역 소식 한국의 부산을 점령 한 일본군 열병식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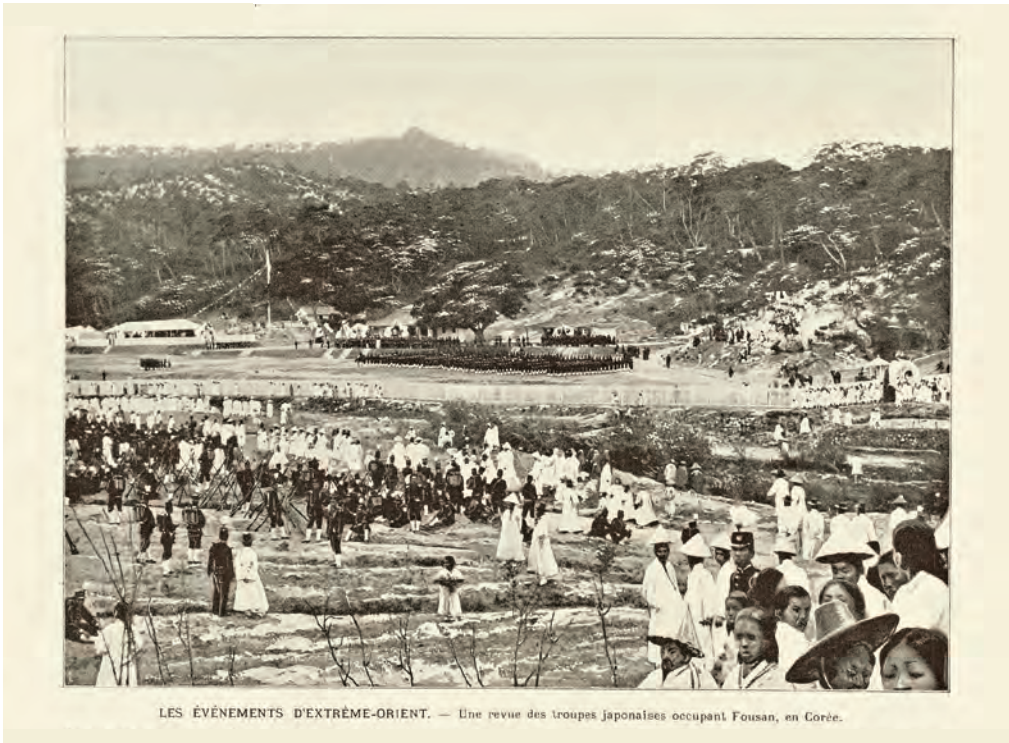
최근 러시아와 일본이 국교를 단절하기도 전에,¹ 이미 대규모 일본군이 한국에 상륙하였다는 소문이 있다. 소문의 진위는 정확히 파악되지는 않았지만 부산에서 촬영한 위 사진을 보면 한국 내에서 작전을 펼치는 (일본) 천황 군대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다.² 현재 일본이 한국의 수도인 서울과 부산을 잇는 철도(경부선)를 건설 중이라는 것도 잘 알려진 사실이다. 최근 있었던 일들로 인해 오히려 공사에 속도가 붙었다. 일본은 공사 중인 철도와 철길을 따라 설치될 전신선을 보호하기 위해, 또한 지방 당국이 대처하지 못한 공사 현장에서 있었던 수차례의 도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한국 정부와의 협의하에 병사들을 투입하였다.³ 지금까지 단순 경찰 업무에 그쳤던 일본군의 업무 범위를 확장하였다. 사실 그전부터 이미 현장에서는 군인의 증원을 기다리며 단순 업무에만 그치지는 않았다고 한다. 소문에 의하면 일본군의 주둔은 한국의 가련한 고종 황제로 하여금 러·일 양국 중에 어느 나라가 자신을 집어삼킬지도 모른다는 걱정을 하게 만들었다고 한다.⁴

L'Illustration

릴뤼스트라시옹
프랑스

1904. 02. 13.
p.106

구9721
39.3×28.7



1 러일전쟁 이전 두 나라의 국교가 단절된 것은 1904년 2월 4일이고, 나흘 뒤인 2월 8일 전쟁이 발발하였다. **2** 일본은 러일전쟁을 일으키고자 2월 6일에 부산과 마산포에 함대를 입항시켰다. **3** 일본은 경부선 부설을 위해 일본군철도건설대대(日本軍鉄道建設大隊)를 파견하였다. **4** 당시 고종은 러일전쟁이 발발하기 이전에 중립화를 선언하였지만 무시되었다.

한국의 운명

“한국은 언제나 분명하게 독립된 하나의 왕국으로 존재해왔다. 중국과 일본이 번갈아 가며 한국을 속국으로 삼기 위해 경쟁을 벌였지만, 이 나라는 언제나 고유한 사회·윤리·정치 체제를 유지해왔다.”

한국은 극동 지역에서 벌어지는 싸움(러일전쟁)의 희생양이 될 운명인 것 같다. 오래전부터 만주는 독립된 하나의 국가는 아니었다. 1644년 현재의 청 왕조가 중국을 침략하여 중국의 정복자가 된 이후,¹ 만주는 점차 무시 받는 외딴 속국의 지위로 전락했고, 이제는 퇴보하는 나라에서도 가장 퇴보하는 지역이 되었다.

중국인들이 갖는 만주인에 대한 인상은 무크덴(선양의 옛 이름인 봉천)에 있는 중국을 정복한 외국인 지도자(누르하치)의 무덤이 큰 영향을 미친다. 지금도 무장을 하고 호전적인 만주인들이 중국에서 부대를 꾸리고

Harper’s Weekly

하퍼스 위클리
미국

1904. 02. 20.
pp.269~270, p.272

구9768
34.5×24.3

있기 때문에, 한족에게 만주인들의 유적이 곱게 보일 리가 없다. 한국은 언제나 분명하게 독립된 하나의 왕국으로 존재해왔다. 중국과 일본이 번갈아 가며 한국을 속국으로 삼기 위해 경쟁을 벌였지만, 이 나라는 언제나 고유한 사회·윤리·정치 체제를 유지해왔다. 한국은 매우 흥미롭고 가치가 높은 당당한 역사를 가진 나라였고, 일본에 문물·종교·예술을 전해 주었다.

신체적으로도 한국인들은 이웃 나라 일본인들보다 더 양호하다. 이 ‘은둔의 왕국’을 방문한 적이 있는 사람들은 한국인이 중국인들보다 훨씬 잘생겼다고 말한다. 그리고 중국인들은 일본 천황의 신민들보다 신체적으로 우수하다. 한국은 일본의 무자비한 침략으로 끊임없이 고통을 겪었다. 현재 역사가들은 한결같이 이 ‘은둔의 왕국’이 쇠락하게 된 운명과 용기를 상실하게 된 불행의 근원을 마지막 일본의 침략에서 찾는다.

우리가 일본 고유의 것이라 생각했던 서예·과학·종교는 물론 최고의 회화와 디자인 작품 그리고 도공들도 한국에서 건너간 것이다. 이러한 위대한 선물에 대한 보답으로 일본인들은 한국의 비옥한 땅 여겨저기를 황폐화시키고 있다. 동양의 여러 민족 가운데 한국인들이 일본인을 싫어하는 것만큼 다른 민족을 싫어하는 경우는 없을 것이다.

한국은 매우 아름답고 비옥한 땅을 가진 나라이다. 그러나 다년간 정치적 병폐를 겪고 있다. 이 문제를 보다 잘 이해하려면 비근한 예를 찾아봐야 할 것이다. 한국이 겪고 있는 토지 문제는 아일랜드의 토지 문제²와 거의 동일하다. 차이점이 있다면 아일랜드는 토지 소유자들이 외국의 정복자와 지배자들, 즉 다른 신앙을 가진 다른 인종으로서 너 무나 잔혹한 사람들이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경제적인 측면에서 한국과 아일랜드가 갖는 토지 문제의 핵심은 동일하다. 바로 연간 토지 임대권이다. 임차인이 토지를 개간하고 배수를 정비하여 토지를 비옥하게 개량할 때마다 토지 소유권자는 임대료를 인상할 권리를 가진다는 점이다. 아일랜드와 마찬가지로 한국도 이 제도 때문에 소작농들은 가난에서 영원히 벗어나지 못하고, 발전의 희망이란 꿈도 꿀 수 없게 되었다. 토지 소유주가 해당 토지 지역에서 살지 않는다는 점은 아일랜드나 한국이나 마찬가지이다. 지주 계층은 사도와 전투 이전의 비엔나 궁중 생활³이나 헝가리 의회에서나 볼 수

Des bruits ont circulé ces jours derniers, d'après lesquels les Japonais auraient, même avant la rupture des négociations diplomatiques, débarqué d'importantes troupes en Corée. La nouvelle n'a pas été confirmée. Pourtant, la photographie que nous donnons, et qui a été prise à Fousan, montre des soldats du mikado manœuvrant en plein territoire coréen. Mais on n'ignore pas que les Japonais construisent en ce moment un chemin de fer allant de Séoul, la capitale de la Corée, à Fousan. Les derniers événements les ont même poussés à activer rapidement les travaux. Pour protéger la construction de cette voie ferrée et la ligne télégraphique qui la desservira, pour prévenir les vols nombreux dont leurs chantiers étaient le théâtre et que les autorités locales étaient impuissantes à empêcher, ils avaient, d'accord avec le gouvernement coréen, amené des soldats dont le rôle a été jusqu'ici un simple rôle de police, mais qui ne s'en trouvent pas moins, comme on dit, dans la place, en attendant leurs frères d'armes, et leur présence n'est pas, paraît-il, sans inquiéter le pauvre empereur de Corée, anxieux de savoir à quelle sauce, — russe ou japonaise? — il sera mangé.

있을 것 같은 매우 화려한 볼거리와 의상, 사치스러운 격식으로 대표되는 궁중 문화의 쾌락과 향락을 즐기 위해 전부 도성으로 간다.

두 번째 병폐는 더욱 심각한 문제인데, 터키 지배하의 불가리아-마케도니아의 관계를 대입시켜보면 그나마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바로 갈취와 부정으로 점철된 조세 징수 도급의 문제이다. 통찰력 있는 한 정치 논객이 고대 루마니아의 콘스탄티노플 계층 구조를 '수직적 성직 매매 구조'라고 표현한 적이 있다. 한국의 정부 조직은 '수직적 갈취 구조'라고 말해도 어느 정도 타당할 것이다.

한국의 소작인들은 오늘날 실제 영주제가 존재하는 인도의 소작농들 처럼 고통에 허덕이며 세를 낸다. 게다가 바로 변덕스럽고 가혹한 처벌 조항과 그에 따르는 잔혹하고 야만적인 형법의 피해자라는 점이다. 인도의 경우 영국-인도 제국이어서 법 집행을 매수하거나 연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인도의 농부가 상당한 이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한국 정부는 국가가 백성을 위하여, 그리고 나라의 자원을 개발하고 배분하기 위하여 존재한다는 근대적 국가 이론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정부는 매우 큰돈을 들어서 조정의 안위를 위해 군대를 동원하지만 실제로 외세의 적 앞에서는 완전히 무능하였다. 우리가 파악한 이 은둔의 나라의 내부 실정은 상당히 정확하다.

1894년 청일전쟁 직전과 전쟁 동안에 한국의 근대화를 시도했던 일본에게 순수한 사명 의식과 더불어 사심이 없지 않았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당시 우리의 근대 민주주의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16년간⁴ 선진 문물을 받아들인 것은 잘한 일이고, 확실히 그 기간에 경이로운 발전을 이루었다.

한국에 대한 일본의 의도는 '조용한 아침의 나라'를 일본과 유사하게 대대적으로 개혁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한 나라가 다른 나라에서 별일 없이 스승의 역할을 하려면, 더구나 상대국이 격렬하게 저항하고 과거 15세기 동안 침략을 받아 재난을 겪었고, 개혁하려는 세력을 불신하고 증오하는 상황이라면 16년으로는 부족하다.

일본은 무자비하게 자신의 임무에 착수하였다. 한국의 왕을 감금하고⁵ 왕비를 살해(을미사변)하였다는 점은 일본이 수단을 가리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한다. 일본이 수립한 개혁안은 군사하게 보이지만 한국 사회에 정착되지 않았다. 일본의 휘호 아래 강제적으로 만들어진 '신한국' 사회는 3~4년 이내에 무너졌고 산산이 부서졌다. 일본인들은 부산과 제물포 등 한국의 곳곳에 정착하기 시작하였다. 일본은 우편과 전신 체계의 기초 시설을 만들었다. 이것이 (한국에) 이로운 것임에는 분명하지만, 동시에 한국은 일본에 관한 모든 것에 엄청난 적개심을 가지게 되었고, 결국 한국의 문명개화는 뒷걸음치게 되었다.

이제 일본은 한국의 독립과 주권을 인정하는 모든 조약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한국에 개입하려고 결심하였다. 그리고 한국은 현대 사회에서 물리적 힘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경험하며 그에 대한 교훈을 얻

게 될 것이다. 만약 일본의 후견인 역할이 일시적으로 끝난다면, 한국에게는 다행스러운 일일 것이다. 그러나 한국이 영구적으로 일본 제국에 합병된다면 똑똑하고 뛰어난 재능을 가졌지만 불행한 운명을 타고난 한국인들에게 그보다 더 가슴 아픈 일은 상상할 수 없다.

또한 서구 열강에 이보다 더 좋지 않은 일도 없다. 일본은 백인 상인들이 자국에서 성공을 거둔 것처럼 한국에서도 성공을 거두게는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일본 천황의 자문관들이 생각하는 궁극적 목표는 일본의 영향 아래에 있는 전 영토에서 백인들을 점차 퇴출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이 원칙은 어김없이 한국에도 적용될 것이다. 중국인 배척법⁶이 있는 우리로서 이것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1] 만주족 누르하치가 세운 정복 왕조로 1636

^[2] 년 황제에 올라 국호를 대청(大清)으로 고쳤다. 1644년 베이징에 진입, 명(明)을 멸망시켰다.

^[3] 19세기 이후 영국이 아일랜드를 오랫동안 지배하고 토지를 착취하는 식민화 과정에서 영국 및 스코틀랜드 토지 소유주와 가난한 아일랜드 소작농 사이에서 토지 임차권 문제가 발생하였다.
^[4] 1866년 오스트리아 왕국이 프러시아로부터 패배하게 된 결정적인 전투인 사도와 전투 이전의 화려했던 오스트리아 황실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5] ‘16년간’은 조선이 일본과 강화도조약을 체결한 1876년 이후의 기간을 말하는 듯하다.
^[6] 1894년(고종 31) 고종이 경복궁에 유폐된 것을 말한다.
^[7] 1882년 5월 6일에 체스터 아서(Chester Alan Arthur, 1829~1886)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법률이다. 중국인 노동자의 이주를 금지시킨 법으로, 미국 역사상 자유 이민에 대한 가장 무거운 제한 중의 하나였다.

The Fate of Korea

KOREA seems destined to be the sacrificial vietim in the Far-Eastern struggle. Manchuria has long ceased to be an independent political entity. From being the conqueror of China, when the present dynasty invaded and subdued the Middle Kingdom in 1644, Manchuria steadily sank to the status of a somewhat neglected outlying dependency, the most backward part of a backward empire. Its hold on the Chinese imagination lay in the presence, at Mukden, of the tombs of China's foreign conquerors, and as the Manchus are even to-day an armed and hostile garrison in China, the relics of their ancestors are not very dear to the native Chinese. Korea has never ceased to be a separate and distinet kingdom, with a defined social, moral and political life of its own, in spite of the rival claims of suzerainty alternately put forth by China and Japan. Korea has a heroic history of intense interest and value, and stands as the bringer of light, religion and art to the Japanese.

Physically, the Koreans are a finer people than their neighbors of Japan, and visitors to the Hermit Kingdom speak of them as being much handsomer than the Chinese, who, in their turn, are, in physique superior to the Mikado's subjects. The Koreans have been devastated again and again by ruthless Japanese invasions, and to the last of these all historians unite in ascribing the present fallen fortunes and broken courage of the Hermit Kingdom. Korea gave Japan the art of letters, science and religion, as well as the best models and craftsmen in all those arts of painting and design which we think of as characteristically Japanese. In return for these great gifts, the Japanese again and again spread desolation through her fertile valleys. No Eastern people detests another so strongly as the Koreans detest the Japanese.

Korea is a land of extreme beauty and fertility, though it has for years suffered from certain political evils which we may the more easily understand as they have analogies nearer home. It has a land question almost identical with the Irish land question, except that, in Ireland, the landlords were additionally odious as representatives of foreign conquest and foreign domination, the rule of an alien race and an alien faith. But in both Korea and Ireland, the heart of the land question, economically speaking, was the same: a year-to-year tenancy, which gave the landlord the right to raise the rent every time the tenant improved his holding by clearing, draining, building or fertilizing. This system, in Korea, as in Ireland, kept the peasant class in perpetual poverty, and made all hope of progress for them impossible. The absenteeism of the Irish landlords was repeated in Korea, as the land-owning class invariably streamed to the capital, to take part in its pleasures and amusements, and to participate in the court life which, for splendor of pageantry and costumes, and for elaborate detail of etiquette, was a close second to the court of Vienna in the days before Sadowa and the legislative secession of Hungary.

A second evil, and a very serious one, in Korea, we can best realize by what we have recently read of Bulgarian-Macedonia under Turkish rule: it is the evil of tax-farming lined with extortion and dishonesty. A political writer of much acuteness has spoken of the Constantinople hierarchy in the Rumania of olden days as

“a cascade of simony”; we might, with some justice, speak of the governmental system of Korea as a “cascade of extortion.” The peasant groans and pays the bill, just as he does in the practically feudal India of to-day. But the Korean peasant is further the victim of a cruel and barbarous criminal law, with punishments as capricious as they are severe, and here the Indian ryot has immeasurably the advantage, since, in the British-Indian Empire, the law can neither be bought nor delayed.

Add to this that the central government has never assimilated the modern doctrine that governments exist for the good of the people, and to develop and distribute the resources of the country; and that the Korean army was a costly luxury of the court, but wholly inefficacious against foreign foes, and we have a fairly true estimate of the internal condition of the Hermit Kingdom. Nor can it be doubted that Japan was inspired by genuine missionary zeal, accompanied, without doubt, by feelings less disinterested, in her attempt to modernize Korea, immediately before and during the war with China in 1894. Japan had then some sixteen years of civilized existence, in our modern democratic sense, to her credit, and had certainly done wonders within that time. Her intentions towards Korea involved an equally sweeping reformation for the land of “Morning Calm.” But more than sixteen years of national life are needed before a kingdom can safely become the mentor of another, especially if that other strenuously objects, and has already, through fifteen centuries of calamitous invasions, grown to distrust and hate the would-be reformer.

The Japanese went at their task with a certain ruthless vigor, and the imprisonment of the Korean sovereignty, and the murder of the Korean Queen were symptomatic of their strenuous methods. They drew up schemes of reform which read admirably, but which took no root among the Koreans, and within three or four years the whole fabric of “New Korea” thus violently born under Japanese auspices, toppled and fell to pieces. The Japanese had secured settlements in various parts of Korea, such as Fusan and Chemulpo, and they had built the rudiments of a postal and telegraph system which are undoubtedly of benefit; but, at the same time, they managed to add to the keen animosity with which the Koreans viewed everything Japanese, and the work of civilization in Korea was thus set back and hindered.

Japan is now determined to try again, in spite of all treaties guaranteeing Korean independence and sovereignty; and Korea is likely to learn some rude lessons concerning the modern application of material forces. Good may result from this to Korea, provided that Japan's tutelage is only temporary. But nothing more hurtful to the genius and destiny of the gifted but unfortunate Korean race could be imagined, than a permanent merging of their kingdom within the Mikado's Empire. Nor, it may be added, could anything be conceived, less likely to benefit the western powers, including the United States; since the Japanese will soon make it as impossible for a white merchant to succeed in Korea as it now is in Japan. The ideal of the Mikado's advisers includes the gradual ousting of the white race from all territory under Japanese influence; and this doctrine would undoubtedly be applied to Korea. With our Chinese exclusion laws, we are hardly in a position to complain.



From stereograph copyright, 1904, by Underwood & Underwood, N. Y.

THE MOUNTAINOUS COUNTRY OF KOREA, OVER WHICH JAPAN IS REPORTED TO BE MARCHING TROOPS TO MEET THE LAND FORCES OF RUSSIA

The photograph shows a scene in the mountainous region of Korea, giving an idea of the country where the Russian and Japanese land forces are likely to meet. It is reported that Japan has begun to mobilize a strong land force in this region.

272

일본이 러시아와의 전쟁을 위해 산악 지대가 많은 한국을 행군한다고 한다. 사진에서 보이는 한국의 산악 지대와 같은 곳에서 일본군과 러시아군이 교전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이미 한국에 막강한 전투 부대를 동원하기 시작하였다는 보도가 있다.

평화로운 서울: 말을 타고 시내를 지나가는 사대부

한국의 수도 서울은 최근 일본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 일본은 러시아의 공격으로 한국이 독립을 잃을 수 있는 중대한 위험에 직면해 있다며 한국 정부에 통보하고, 일본의 자위권 및 한국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것이다. 서울은 한국의 수도일 뿐만 아니라 황실이 있는 곳으로 삽화와 같은 모습을 종종 볼 수 있는데 별다른 관심을 불러일으키지는 못한다. 본 삽화는 런던과 뉴욕 지사의 언더우드 앤드 언더우드 사의 입체 사진을 토대로 한 것이다.



Seoul, the capital of Korea, has lately been occupied by the Japanese, who have informed the Korean Government that the country ran great risk of losing its independence, owing to Russian aggression, and that they had taken action to secure Japan's self-defence and Korea's integrity. Seoul, being not only the capital but the seat of the Court, a scene such as is shown in our illustration is often to be witnessed, and excites but little attention. Our illustration is from a stereograph by Underwood and Underwood, London and New York.

SEOUL IN TIME OF PEACE: THE GRAND MASTER OF HORSE PASSING DOWN THE MAIN STREET

전쟁의 전개 상황

“러시아는 여전히 한국 영토 내 중립지대에 관한 조항이나 전략적 목적을 위한 한국 영토의 사용 불가에 관한 조항을 계속해서 주장하였다. 일본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이었다.”

현 극동아시아의 위기를 촉발한 사건 요약 및 편지와 전보를 통한 전쟁의 전개 상황 설명

극동아시아의 전쟁 발발로 이어지는 일련의 사건들은 대략 다음과 같다. 1903년 8월 12일, 일본은 상트페테르부르크 공사관을 통해 한국, 만주, 극동 지역 간 우호적인 상호 이해관계 조정을 위해 다음과 같은 합의의 틀을 제안했다.

Harper’s Weekly	1904. 03. 05. pp.350~354
하퍼스 위클리	
미국	구9769 40.6×28.9

- 중국과 대한제국의 독립과 영토 불가침을 존중한다는 상호 합의
- 해당 국가 국민의 산업 활동에 대하여 기회 균등의 원칙을 지키기 위한 상호 노력
- 일본이 한국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고 러시아가 만주의 철도 회사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한 상호 호혜적 인식 및 일본과 러시아가 제1조에 명시된 원칙을 위반하지 않는 한 상기 이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는 상호 인식
- 한국 정부의 개혁과 선정을 위한 조언과 지원을 제공할 배타적 권리가 일본에 있다는 것에 대한 러시아의 인정
- 동중국과 상하이 관뉴창선'을 연결하기 위해 한국 철도를 남만주까지 연장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겠다는 러시아 측의 약속

1903년 10월 3일 러시아 정부는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답신을 보냈다. 먼저 중국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존중하자는 제안을 거부했고, 중국 내 모든 국가의 산업 활동에 대해 기회 균등의 원칙은 유지하겠다고 명시했으며, 만주와 해안 지대가 일본의 영토와는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다는 것을 전면적으로 선언하라고 일본에 요구했다. 러시아는 필요시 한국 내 일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일본군을 파견할 권리는 인정했지만, 일본이 한국 영토를 자국의 전략적 목표를 위해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거절했다. 또 러시아는 한국의 위도 39도 이북 지역에 중립지대를 만들 것을 제안했다.

러시아의 제안에 대해 일본 정부가 보낸 답변의 요지는 이렇다. 일본은 만주에서 미래 발전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있으며, 그곳에서 얻을 자국의 상업적 이익이 중요하기 때문에 만주를 이해 영역에서 완전히 제외시킬 수 없다는 것이었다. 중립지대에 관한 제안에 대해서는, 만주와 한국 사이의 국경선을 중심으로 양쪽에서 똑같이 100마일(약 161킬로미터) 정도 거리의 영토를 제공하여 중립지대를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도쿄에서 논의를 거듭한 후 10월 30일에 이 안건에 대한 확답을 러시아에 전달했다. 12월 11일, 러시아는 만주와 관련한 조항의 언급은 자제하며 상정된 합의안을 전적으로 한국에 적용하였고, 일본이 전략적 목적을 위해 한국 영토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본래의 주장을 반복하면서 중립지대 설정을 다시금 요구하였다.

양측에서 안건들은 논의가 되었지만 성과는 없었다. 1904년 1월 6일, 러시아가 일본에 마지막 전갈을 보냈다. 거기에는 “일본은 만주와 그 해안 지대를 자신들의 이해 영역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했지만, “해당 지역 내 정착촌을 세우는 것만이 아니라면, 기존에 체결한 중국과의 조약에 의해 일본 및 다른 국가가 획득한 권리나 특권의 이행을 막지는 않을 것”에 동의하였다. 러시아는 여전히 한국 영토 내 중립지대에 관한 조항이나 전략적 목적을 위한 한국 영토의 사용 불가에 관한 조항을 계속해서 주장하였다. 일본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이었다. 따라서 일본은 추가적인 협상을 진행했으나 러시아로부터 답신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일본이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일본 공사를 소환하여 러시아와의 외교 관계를 단절했던 날, 도쿄 주재 러시아 공사는 러시아 정부가 작성한 답신 서한을 가지고 있었다.

일본 정부의 소환에 따라 구리노 신이치로 일본 공사는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철수했고, 48시간 내 적대적 행위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전쟁 선포와 마찬가지였다.

2월 6일 — 이에 대한 응답으로 람즈도르프 러시아 외무부 장관은 러시아 정부의 지시에 따라 해외 러시아 공관에 다음과 같은 전신을 전송했다. “러시아 황제는 도쿄 주재 러시아 대사와 직원들에게 지체 없이 일본의 수도에서 철수할 것을 명한다.”

이 과정에서 러시아 정부는 적대행위 선포의 책임이 전적으로 일본에 있다는 태도를 견지하였다. 일본이 외교 관계를 단절한 그날 이미 도쿄 주재 러시아 대사인 바론 드 로젠의 손에는 논쟁을 외교적으로 풀 수 있는 일본의 서한에 관한 러시아 측의 답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2월 7일 — 일본은 자국 외교부 직원들을 러시아에서 철수시킨 지 48시간이 지나면 전함을 파견하여 러시아 기함을 공격하라고 명했다.

2월 8일 —런던 주재 일본 대사 바론 하야시의 공식 발언에 따르면, 최초의 해군 교전은 한국의 제물포 앞바다에서 벌어졌다고 한다. 일본 함대가 수송선을 호위하며 항해하다가 항구에서 나오는 러시아 군함 코리예츠호와 마주쳤다. 코리예츠호는 일본의 어뢰선에 발포했다. 일본선은 어뢰를 발사했으나 실패했고 코리예츠호는 항구의 계류지로 되돌아갔다.

2월 9일 — 이른 아침 일본 함대를 지휘하는 우리우 장군은 러시아 군함 바리야크호와 코리예츠호에게 정오 이전에 제물포를 떠날 것을 요구했다. 러시아 군함 두 척은 오전 11시 30분경 항구를 출발했고 이어서 전쟁이 발발했다. 한 시간 정도의 교전 후, 러시아 전함은 섬 사이로 도피했다. 밤이 깊어지자 러시아 순양함 바리야크호는 침몰했고, 다음 날 코리예츠호도 파손, 침몰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바리야크호에 승선했던 49명은 사망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2월 9일 자정 직후에 일본은 포트 아서(尉순항)에 정박해 있던 러시아 전함에 어뢰 공격을 감행했다. 당일 오전 10시경 포트 아서 근교에서

일본 함대의 공격이 이어졌다. 일본의 공격 부대는 일본 군함 16척으로 이루어졌고, 상대측 러시아 함대는 군함 5척, 1등급과 2등급 순양함 5척, 어뢰선 15척으로 이루어졌다. 포트 아서의 해안 포대도 전투에 참여했다. 이 전투와 오전의 어뢰 공격으로 인해 차레비치호, 레트비찬호를 비롯하여 팔라다·다이아나·아스콜트·노비크 순양함이 파손되었다. 포트 아서 전투에 관한 도쿄 장군의 보고서에 따르면, 어뢰 공격으로 러시아 전함 2척과 순양함 1척이 파손된 반면, 일본 군함에는 심각한 파손은 없었고 일본인 4명이 사망, 54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한다. 바이스로이 알렉시예프의 공식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의 경우 해군 함대에서 장교 5명이 부상당하고, 사망자 14명, 부상자 64명이 발생했으며, 요새에서는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심각한 부상을, 5명이 가벼운 부상을 입었다고 한다.

2월 10일 — 러시아 황제는 다음과 같은 칙지를 내렸다. “일본은 관계 단절 자체가 전쟁의 개시를 의미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리지 않은 채, 포트 아서의 러시아군 요새의 항구에 정박한 우리 함대를 어뢰로 기습 공격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극동에 파견된 알렉시예프로부터 이와 같은 보고를 받은 즉시 우리는 즉각적으로 일본의 도발에 무력 대응할 것을 명령했다.”

2월 11일 — 러시아 어뢰 수송선 예네세이호가 포트 아서에서 어뢰 폭발 사고를 일으켜 침몰했다. 공식 보도에 따르면 이 사고로 선장과 장교 3명 외 91명이 사망했다.

일본 정부가 런던 타임스지에 전한 바에 따르면, 전쟁 발발 후 일본군은 예카테린토슬라프·무크덴·러시아·아르군·알렉산드르 등 최소 5척의 러시아 상업용 증기선을 한국과 그 연안 지역에서 나포했다고 한다. 또한 일본 정부의 일일 전보에 따르면 그들이 나포했던 러시아 고래잡 이배 클로리치·니콜라이·알렉산드르·미카엘이 사세보에 도착했다고 한다.

2월 13일 — 중국의 중립성을 보전하기 위해 헤이 미국 국무부 장관은 오늘 다음과 같은 성명을 발표했다. 미국은 중국에 이해를 가지고 있는 여러 국가와 일차적으로 의견을 교환한 후, 국무부에서 2월 10일 상트페테르부르크·도쿄·베이징의 미 외교공관에 다음과 같은 지시 사항을 전달했다. “러시아와 일본은 군사 작전의 전개 과정에서 중국 정부와 중국의 중립성을 최대한 존중하고, 전투의 범위를 최소로 제한하여 중국인들의 억울한 소요와 혼란을 막고, 세계의 상업 및 평화적 관계에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를 바란다는 미국 정부의 입장을 각 대사로 하여금 양국의 외무부 장관에게 전달하도록 한 것이다.”

동시에 러시아 정부는 베이징에서 이루어진 조약 체결구에 이와 같은 조치를 알리고 각자 유사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했다.

2월 19일에 모든 열강으로부터 헤이 국무부 장관의 제안에 대한 호의적인 반응이 접수되었고, 일본은 러시아가 중국의 중립성을 존중하는

한 자신들도 그렇게 하겠다고 제안을 수용했다. 러시아는 이에 대한 답장으로 중국의 중립을 존중할 것이며, 만주가 중국의 행정 영역에 포함된다고 보지 않으므로 만주를 전쟁 지역에서 제외하지는 않겠다는 것을 명시했다.

2월 13일－러시아 순양함 보야린호가 예네세이호와 마찬가지로 우연히 지뢰를 건드려서 폭파되었다.

2월 17일－바이스로이 알렉시예프의 공식 보고에 의하면 일본 상선 나고노우라 마루호가 블라디보스토크 함대의 공격에 의해 일본해 북서부 연안에서 파괴되었다고 한다. 41명이 나포되었다.

2월 24일－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외무부 장관 람즈도르프 백작은 외교 공관장에게 일본이 약속과는 정반대로 한국의 중립성을 깨고, 모든 열강이 인정하는 독립국 한국의 영토를 점령한 것에 대해 항의 하라는 전갈을 보냈다.

2월 25일－바이스로이 알렉시예프의 보고에 의하면 일본이 포트 아서에서 증기선을 침몰시키며 러시아 함대의 포위를 줄이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성공하지는 못했다고 한다. 일본의 증기선 4척이 불능화되었고, 4척의 어뢰선을 호위하던 배들 중 1척이 가라앉았다고 한다.

PROGRESS OF THE WAR

A brief summary of the events which led to the present Eastern crisis, and an account of the progress of the war, day by day, based upon official letters and despatches from the Far East

THE events leading to the war in the Far East are, briefly, as follows: On the 12th of August, 1903, the Japanese government proposed to Russia, through its representative at St. Petersburg, the following basis of an agreement for arriving at a friendly adjustment of the interests of both in Korea, Manchuria, and the Far East:

1.—A mutual agreement to respect the independence and territorial integrity of the Chinese and Korean empires.

2.—A mutual engagement to maintain the principle of an equal opportunity for the commercial industry of all nations with the natives of those countries.

3.—A reciprocal recognition of Japan's preponderating interests in Korea, and of Russia's special interests in railway enterprises in Manchuria, and a mutual recognition of the rights of Japan and Russia to take measures necessary for the protection of the above-mentioned interests in so far as such measures should not violate the principle enunciated in Article 1.

4.—The recognition by Russia of the exclusive rights of Japan to give advice and assistance to Korea in the interest of reform and good government.

5.—The engagement on the part of Russia not to impede the eventual extension of the Korean railway into southern Manchuria, so as to connect with eastern China and the Shanghai-Kwan-New-chwang lines.

On the 3d of October the Russian government sent a reply in which it declined to consider proposals respecting the sovereignty and territorial integrity of China, stipulated the maintenance of the principle of equal opportunities for the commerce and industry of all nations in China, and requested that Japan declare Manchuria and its littoral as being entirely outside of her sphere and interest. Russia recognized Japan's right to despatch troops to Korea when necessary for the protection of her interests there, but refused to allow Japan to use any portion of Korean territory for strategical purposes. She proposed the establishment of a neutral zone in Korean territory north of the thirty-ninth parallel.

The gist of the reply of the Japanese government to these proposals was that as she had important commercial interests in Manchuria, with hopes of their future development, she could not recognize Manchuria as being entirely outside her sphere of interest. With regard to the neutral zone, Japan proposed that if one were to be established it should be on both sides of the boundary-line between Manchuria and Korea, with an equal width of about 100 miles. After discussing these points repeatedly at Tokyo, the Japanese government presented its definite reply, embodying these points, on the 30th of October. On the 11th of December Russia submitted her answer, suppressing the clauses relating to Manchuria, so that the proposed convention would apply entirely to Korea, and maintaining her original demand in regard to the non-employment of Korean territory for strategical purposes and insisting again upon a neutral zone.

These points were discussed on both sides without result. The last note from Russia was received at Tokyo on the 6th of January. It stipulated "the recognition by Japan of Manchuria and its littoral as outside her sphere of interest," but agreed, "within the limits of that province, not to impede Japan or any other power in the employment of rights and privileges acquired by them under existing treaties with China exclusive of the establishment of a settlement." The clauses regarding a neutral zone in Korean territory and the non-employment of Korean territory for strategical purposes were still insisted upon by Russia. These conditions Japan felt unable to fulfil. Further negotiations were undertaken by Japan, but no reply was received from Russia. A reply, however, was written, and was in the hands of the Russian minister at Tokyo for delivery to the Japanese government on the same day that Japan, by recalling her staff from St. Petersburg, broke off diplomatic relations.

This recall, followed by the withdrawal of M. Kurino, the Japanese minister, from St. Petersburg, was virtually a declaration of war, although no act of hostility occurred for forty-eight hours.

February 6.—In reply, Count Lamsdorff, the Russian Foreign Minister, acting under instructions from his government, sent the following circular telegram to Russian representatives abroad:

"His Imperial Majesty has been pleased to order that the Russian minister at Tokyo, with the whole staff of the imperial mission, shall leave the capital of Japan without delay."

The attitude taken by the Russian government in these proceedings was that the entire responsibility of the declaration of hostilities lay with Japan, since the reply to Japan's note with regard to a diplomatic settlement of questions in dispute was already in the hands of Baron de Rosen, the Russian minister at Tokyo, for delivery to the Japanese Foreign Minister when diplomatic relations were severed by Japan.

February 7.—Japan, after waiting forty-eight hours following the withdrawal of her diplomatic representatives from Russia, sent her war-ships to sea with orders to attack the Russian flag wherever it was found.

February 8.—According to the official accounts received by Baron Hayashi, the Japanese minister in London, the first naval engagement of the war took place off Chemulpo, Korea. The Japanese squadron escorting transports met the Russian gunboat *Korietz* as the latter was coming out of port. The *Korietz* fired on the Japanese torpedo-boats; the latter despatched two torpedoes without effect, and the *Korietz* returned to her anchorage in the port.

February 9.—Early in the morning Admiral Uriu, commanding

the Japanese squadron, formally called on the Russian war-ships *Variag* and *Korietz* to leave Chemulpo before noon. The two Russian vessels left port at about 11.30 A.M., and a battle ensued. After about an hour's engagement the Russian war-ships sought refuge among the islands. Towards night the Russian cruiser *Variag* sank, and the following day the *Korietz* was also reported to have been sunk, blown up by her crew. Forty-nine men were reported to have been killed on the *Variag*.

Shortly after midnight on the morning of February 9 the Japanese made a torpedo attack upon the Russian war-ships lying off Port Arthur. Later, about ten o'clock in the morning, an attack was made by the Japanese fleet off Port Arthur. In the attacking fleet were sixteen Japanese war-ships, and in the opposing Russian fleet were five battle-ships, five first and second class cruisers, and fifteen torpedo-boats. The coast batteries at Port Arthur took part in the battle also. As a result of this battle and the torpedo attack during the night the following Russian war-ships were injured: Battle-ships *Czarevitch* and *Retvisan*, and cruisers *Pallada*, *Diana*, *Askold*, and *Norik*.

In Admiral Togo's report to the government at Tokyo of the attack on Port Arthur, it is said that two Russian battle-ships and one cruiser were damaged by torpedoes, that no Japanese ships were seriously damaged, and that the Japanese loss in men was four killed and fifty-four wounded. The Russian loss in men, according to the official statement of Viceroy Alexieff, was: of the squadron, five officers wounded, fourteen men killed, and sixty-four wounded; of the forts, one man killed, one seriously wounded, and five slightly wounded.

February 10.—The Czar issued a Supreme Manifest, in which he said:

"Without advising us of the fact that the breach of such relations would in itself mean an opening of warlike operations, the Japanese government gave orders to its torpedo-boats to suddenly attack our squadron standing in the outer harbor of the fortress of Port Arthur. Upon receiving reports from the Viceroy in the Far East about this we immediately commanded him to answer the Japanese challenge with armed force."

February 11.—The Russian torpedo transport *Yenesei* was sunk by accidentally striking a mine in the harbor at Port Arthur. It is officially reported that as a result of this accident the captain, three other officers, and ninety-one men were killed.

According to a despatch to the London *Times* from Tokyo, it is reported that, since the beginning of the war, at least five Russian commercial steamers—the *Ekaterintosloff*, *Mulden*, *Russia*, *Argun*, and *Alexander*—have been captured by Japan in Korean and adjacent waters. In addition, a despatch to the *Daily Mail* from Tokyo says that the Russian whalers *Clorige*, *Nicolaï*, *Alexander*, and *Michael*, captured by the Japanese, have arrived at Sasebo.

February 13.—In order to preserve the neutrality of China, Secretary Hay to-day issued the following statement through the State Department:

"After some preliminary exchange of views between this government and the governments of other powers interested in Chinese matters, the department on February 10 sent the following instruction to the American representatives in St. Petersburg, Tokyo, and Peking:

"You will express to the Minister for Foreign Affairs the earnest desire of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that in the course of the military operations which have begun between Russia and Japan the neutrality of China, and in all practicable ways her administrative entity, shall be respected by both parties, and that the area of hostilities shall be localized and limited as much as possible, so that undue excitement and disturbance of the Chinese people may be prevented, and the least possible loss to the commerce and peaceful intercourse of the world may be occasioned.

JOHN HAY."

At the same time this government informed all the powers signatory of the protocol at Peking of its action, and requested similar action on their part.

By February 19 responses favorable to Secretary Hay's proposition had been received from all the powers, Japan accepting the plan to respect China's neutrality in case it is respected by Russia. Russia, in answering the note, stipulated that the neutrality of the Chinese Empire is to be respected, with the reservation that Manchuria shall not be regarded as excluded from the field of hostilities or as embraced within the administrative entity of China.

February 13.—The Russian cruiser *Boyarín* was blown up in the same manner as the *Yenesei*, by accidentally striking a mine.

February 17.—An official communication from Viceroy Alexieff says that a Japanese merchant steamer, the *Nagonoura Maru*, was destroyed off the northwestern coast of Japan by the Vladivostok squadron, and that forty-one of her crew were captured.

February 24.—It is reported from St. Petersburg that Count Lamsdorff, the Foreign Minister, has issued to her foreign representatives a circular protesting against Japan's violation of Korean neutrality in occupying, contrary to her promise, a country whose independence is recognized by all the powers.

February 25.—A report from Viceroy Alexieff states that an unsuccessful attempt was made by the Japanese to bottle up the Russian fleet at Port Arthur by sinking steamers in the channel. The report says that four Japanese steamers were disabled, and that one of the four escorting torpedo-boats was sunk.

^[1] 관뉴창선(Kwan-New chwang lines)은 산하이

^[2] 관과 라오닝성 선양을 잇는 철로를 말한다

시베리아 횡단 철도를 지나서 만주 뉴창에 도착한 러시아 기병대 사진은 시베리아 횡단 철로 위의 기차를 보여준다. 기차에는 군용마와 3등석 승객들로 가득 차 있다. 러시아는 엄청난 난관 속에서도 기차를 이용하여 군인과 군수품을 최전선으로 수송하고 있다.



From stereograph copyright, 1904, by Underwood & Underwood, N. Y.

RUSSIAN TROOP-HORSES ARRIVING AT NEWCHWANG, MANCHURIA, OVER THE TRANS-SIBERIAN RAILROAD

The photograph shows a train on the Trans-Siberian Railroad filled with troop-horses and third-class passengers. It is over this road that Russia, under very formidable difficulties, is transporting troops and munitions of war to the front.



From stereograph copyright, 1904, by Underwood & Underwood, N. Y.

RUSSIANS ATTENDING TO THEIR WOUNDED IN THE FIELD

It is estimated that there are at present at the scene of war in the Far East between two and three thousand nurses and physicians connected with the work of the Red Cross Society. Count Orloff Davkloff, a philanthropist and intimate friend of the late Czar Alexander III., is said to have given \$500,000 to the Red Cross Society for hospital and medical use at the front. Of this sum, \$200,000 is to be devoted to the establishment of a school for children made orphans by the war.

야전에서 부상병을 돌보는 러시아군 현재 적십자협회를 통해 극동 지역 전쟁터에 파견된 간호사와 의사는 약 2~3천 명으로 추정된다. 고(故) 러시아 황제 알렉산드르 3세의 절친한 친구이며 자선 사업가인 오를로프 다프크도프 백작은 병원과 전방에서의 의료 행위를 위해 러시아 적십자협회에 50만 달러를 기부했다. 이 중 20만 달러는 전쟁 고아를 위한 학교 설립에 사용될 것이다.

러시아 군함 '바리야크호'와 '코리예츠호'가 침몰한 제물포항
제물포는 한국의 수도인 서울의 항구로 일본과 러시아 간 경쟁에서 전략적 중요성을 지닌다. 일본 해군의 공격으로 제물포 앞바다에서 러시아 군함 '바리야크호'와 '코리예츠호'가 침몰했다.



From stereograph copyright, 1904, by Underwood & Underwood, N. Y.

CHEMULPO HARBOR, WHERE THE TWO RUSSIAN WAR-SHIPS, "VARIAG" AND "KORIETZ," WERE SUNK

Chemulpo is the port of Seoul, the capital of Korea, and is an important strategical point in the contest between Japan and Russia. It was off Chemulpo that the Russian war-ships "Variag" and "Korietz" were sunk by the Japanese squadron



From stereograph copyright, 1904, by Underwood & Underwood, N. Y.

OFFICERS AND CREW OF JAPAN'S ARMORED CRUISER "ASAMA"

The "Asama" took an active part in the first naval engagement of the war with Russia, which resulted in the disabling of seven of the Czar's war-ships. A description of the "Asama" and her equipment was given in the "Weekly" of February 20

일본 장갑 순양함 '아사마'의 장교와 선원들
'아사마'는 러일 간 첫 해상 교전에서 러시아 제국 전함 7척을 무력화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다. 『하퍼스 위클리』 2월 20일자에서 '아사마' 전함과 그 장비에 대한 내용을 다루었다.

한국에 온 일본군

“일본에도 기후가 혹독한 곳이 있지만, 매서운 추위에는 익숙하지 않은지 대체로 사람들의 물결이 흥하고, 마치 추운 기운에 눌린 듯 추위에 떨며 구부정한 자세로 있다. 대부분이 발에 동상이 걸렸다는 얘기도 있다. 모두 지독한 고통 속에서 힘들어하는 모습이다.”

구로키 육군대장이 지휘하고 있는 일본 제1군은 근위사단과 제2, 제12사단과 함께 15시간만에 압록강 주변에 배치를 마쳤다. 그리고 일본군은 정찰병을 선두로 다시 의주를 향해 전진하기 시작하였다. 한국 땅을 가로지르는 긴 행군이 일본군에게는 고행임을 생각하면 이런 대규모 군대가 이렇게 빨리 배치를 마친 것은 인상적이다.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온 나라가 눈으로 뒤덮여 있었다. 한국에서 최신 우편으로 도착한 (1904년) 3월 중순 사진을 보면 이중으로 된 두꺼운

L'Illustration

릴뤼스트라시옹
프랑스

1904. 04. 23.

표지, pp.262~263

구9723

40.5×30.0

외투 속에 몸을 파묻은 일본군들이 하나둘씩 목에 새하얀 양털을 두르고 있다. 다리에는 길고 흰 형겔을 덧대었는데 두껍게 쌓인 눈을 밟고 지나온 것으로 보인다. 정찰병들도 말 등에 업힌 채 얼어붙은 풍경 속을 어렵사리 헤쳐 간다.

일본에도 기후가 혹독한 곳이 있지만, 매서운 추위에는 익숙하지 않은지 대체로 사람들의 물결이 흥하고, 마치 찬 기운에 눌린 듯 추위에 떨며 구부정한 자세로 있다. 대부분이 발에 동상이 걸렸다는 얘기도 있다. 모두 지독한 고통 속에서 힘들어하는 모습이다.

이들에겐 지금이 가장 어려운 전시戰時 상황이다. 다음에 취해야 할 행동이 무엇인지 모른 채, 즉각적인 결과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전쟁에 따른 온갖 어려움과 피로를 견뎌내야 한다. 상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자신처럼 흥분 상태에 놓인 전우들에게 둘러싸여 용감무쌍하게 목숨을 걸고, 승리를 거두어 내일의 시련을 버텨낼 위대한 전투가 필요하다. 다시 한 번 이길 수 있다는 희망과 자신의 노력에 대한 의미가 필요하다. 하지만 긴 시간 동안 보상도 없이 알 수 없는 목적지를 향해 행군하는 것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니다.

특히 일본인은 대체로 체력이 약한 민족이기에 더욱 그러하다. 그들이 아무리 강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정신력과 지구력이 힘에 부친다. 더욱이 대부분은 무거운 무기와 무기 사용에 필요한 거추장스러운 짐, 야영 장비를 직접 들지 못한다. 어떤 면에서 일본군은 마치 옛 용병 부대를 떠올리게 한다. 전사 한 명당 최소한 한 명의 종이 수발을 들면서 무기와 식량, 전리품을 대신 들어주었다. 전투 부대 인원수만큼 많은 하인과 짐꾼 부대¹가 진군하는 각 부대를 따라다녔다. 한국을 점령할 때, 일본인들은 필요에 의해 일부 짐꾼도 함께 데려왔다. 사진을 보면 제물포항에서 거룻배를 이용해 막사와 병사兵舍를 세우는 데 필요한 자재를 하역하고 있다. 사진 속의 어떤 이들은 일전에도 소개한 적이 있는 말린 지푸라기 케이프(도롱이)를 어깨에 걸치고 두건을 두르고 있는데, 일본에서 비를 피할 때 흔히 입는 전통 복장이다. 하지만 유입된 인력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할 것이다. 특히 어느 시점에 가서는 전투 인력도 부족해질 것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친절한 일본인들은 짐승들이 할 일을 대신할 인력으로 일본인보다 건장한, 동맹국이면서 이웃 나라인 한국의 장정들을 적극 징용하였다.

평화롭고 완만하게 그리고 태평하게 살고 있던 한국인들로서는 가련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충분히 행복하게 살면서, 미래의 영웅을 모시며 영광을 누리보겠다는 생각조차 못했을 가여운 한국인들은 이미 일본에게 점령당했다고 여겨지는 조국에서 노새가 들 무거운 짐을 짊어진 채 고통받아야 하였다.

반면 한국인들의 새 주인은 이들을 조롱하고 재미난 장난을 칠 생각에 만족하며 가볍게 팔을 흔들거나 주머니에 손을 꽂은 채 걸어간다. 일본의 전보에서는 일본군이 한국인에게 큰 호의를 베푼다고 주장하지만, 다가오는 침략자의 모습에 농민들이 자신의 오두막집을 버려가면서까지 그들을 피하려고 하는 것은 어찌면 당연한 일이다.

일본인들은 말을 보유하고는 있지만 그 수가 매우 제한적이다. 그나마 있는 말도 대륙에 도착할 땐 상태가 그리 좋지 않다. 여기 전위 부대와 함류하기 위해 제물포에서 한국의 북쪽 지역으로 길을 떠날 채비를 하는 중인 공병과 갱도병 무리가 보인다. 거추장스럽고 무거운 공병 장비와 토목용 굴착기, 곡괭이,² 기타 도구들을 나르려면 반드시 말이 필요하다.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기수의 키에 딱 맞게 줄어든 듯한, 풍성한 갈기와 털을 가진 동물들이 동원되었다.

대포 한 대를 끄는 데만 해도 말 6필이 필요하다. 하지만 말들은 쉽게 지치고 길도 험해서 전진하는 속도는 더욱 더 느려질 수밖에 없다. 일본군의 기마대와 포병대를 가까이서 본 사람은 불쌍한 짐승들이 험난한 환경과 긴 군사 작전에 버티지 못하고 5개월 뒤면 모두 전멸할 것이라고 말한다.

어찌 되었든 그들은 계속 앞으로 나아간다. 매주, 매일, 한국의 해안에는 새로 할당받은 병력과 대포, 장비와 식량이 조달된다. 야영지를 세우고 병사를 짓기도 한다. 곳곳에 야전병원이 설치되고 율타리 내에 지붕이 눈으로 뒤덮인 막사가 세워진다. 입구에는 커다란 깃발의 흰배경 위에 붉은 십자가가 휘날린다. 밤에는 천막 사이로 일본의 상징인 붉은 해가 빛나는 흰 조명이 흔들거리며 보초병이 지키고 서 있는 입구의 위치를 가리킨다. 일본인들은 마치 자기 집인 양 한국에서 지내며 이제는 어떤 상황에도 대비를 마친 상태이다.

¹ 일진회 회원들이 러일전쟁 동안에 경의선 철도 부설, 군수품·군량미 조달, 정보 수집 등에 동원되었다. ² 원문에는 'pic'와 'pioche'로 구분되어 있지만 모두 비슷한 모양의 곡괭이이다.

Ce numéro est accompagné d'une grande gravure hors texte, tirée en couleurs.

L'ILLUSTRATION

Priz du Numéro : 75 centimes.

SAMEDI 23 AVRIL 1904

62^e Année. — N^o 3191.



LE SOLDAT JAPONAIS ET LE PORTEFAIX CORÉEN
Scène de la guerre d'Extrême-Orient, d'après une photographie instantanée prise à Séoul.

일본 군인과 한국인 짐꾼
서울, 즉석 사진기로 촬영한
극동전쟁(러일전쟁) 장면

211쪽

01 평양 부근 기마 순찰대

02 제1군 참모부

03 한국을 침략한 일본군 -

공병 및 경도병 분견대

212쪽

04 군사 작전용 장비 하역 장면

05 서울 적십자 병원 입구

06 압록강 위 작은 거룻배

07 한국에 온 일본인 -

길을 나설 준비 중인 짐꾼 무리

262 — N^o 3151

L'ILLUSTRATION

23 AVRIL 1904



01 Une patrouille de cavalerie près de Ping-Yang.

L'ARMÉE JAPONAISE EN CORÉE

La première armée japonaise, commandée par le général Kouroki et comprenant la garde impériale et deux divisions, les 2^e et 12^e, a, depuis une quinzaine, achevé sa concentration sur les bords du Yalou. Elle se remet en mouvement vers Oui-Djou, où l'ont déjà précédée ses éclaireurs.

La marche des Japonais à travers la Corée a été des plus pénibles et c'est déjà une chose qui fait honneur à leur énergie que la rapidité relative de cette concentration.

Le pays entier, jusqu'à ces dernières semaines, était encore sous la neige. Les photographies qui nous parviennent de là-bas par le dernier courrier et qui remontent au milieu de mars nous montrent les soldats japonais emmitouffés dans de lourds manteaux chaudement doublés, d'où émerge, çà et là, au cou, la touffe blanche d'une toison de mouton, et les jambes serrées dans de hautes guêtres blanches, piétinant partout dans une épaisse couche de neige. Les éclaireurs chevauchent péniblement dans des paysages glacés.

Quoique le climat de leur terre natale soit lui-même, en certaines parties, assez rude, ils semblent assez mal aguerris contre ces rigueurs de la température et font, en général, assez triste figure, grelottants, courbés, comme ratatinés sous le froid. Un grand nombre d'entre eux



02 L'état-major de la première armé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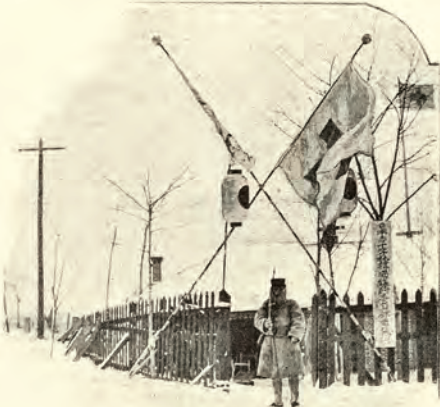
03 L'INVASION DE LA CORÉE PAR LES JAPONAIS. — Un détachement de sapeurs et mineurs.

amené avec eux une partie des porteurs, des manœuvres qui leur étaient nécessaires. Dans cette photographie qui représente un débarquement, dans le port de Tchemoulpo, de matériaux destinés à la construction de baraquements ou de casernes, transportés à terre par chalands, on en voit quelques-uns douillettement enroulés et portant, sur les épaules, la pèlerine d'herbes sèches dont nous avons parlé quelquefois, vêtement national, waterproof d'un usage courant au Japon.

Mais cette main-d'œuvre importée devait être fatalement insuffisante, d'autant qu'à un moment donné on n'aura peut-être pas trop d'hommes pour des besognes plus belliqueuses. Les bons Japonais n'ont donc pas hésité à réquisitionner, pour ces besognes de bêtes de somme, leurs « alliés », leurs « amis » coréens, autrement robustes qu'eux. Pauvres Coréens, si paisibles, si indolents et qui vivaient si tranquilles ! Pauvres Coréens, à qui leur bonheur passé suffisait et qui n'auraient jamais ambitionné cet honneur de servir de futurs héros, les voilà par avance réduits à la qualité d'esclaves, dans leur pays considéré comme conquis, et peinant et soufflant sous des charges de mulets, tandis que leurs nouveaux maîtres, goguenards, ravis d'aise à l'idée de la bonne farce, s'en vont tranquillement les bras ballants ou les mains dans leurs poches ! Et les dépêches japonaises ont beau protester de la bienveillance grande avec laquelle les soldats traitent la population, il ne faut pas s'étonner si, à l'approche de l'envahisseur, les paysans abandonnent leurs cabanes pour échapper à ces dures corvées.

Les Japonais ont pourtant des chevaux, mais en nombre très restreint. Et ces chevaux mêmes sont en assez mauvais état quand ils débarquent sur le continent.

On voit ici un convoi de sapeurs et de mineurs prêt à se mettre en route de Tchemoulpo pour le nord de la Corée, où il va rejoindre l'avant-garde. Il a bien fallu, pour transporter le matériel encombrant et lourd du génie, les pelles de terrassement, les pics, les pioches, les outils de toutes sortes, recourir à des chevaux. Ce sont, ainsi qu'on peut s'en rendre compte, des animaux à la crinière abondante, au poil touffu, tout petits, comme rabougris et juste proportionnés à la taille des cavaliers qu'ils doivent porter.



05 Porte de l'hôpital de la Croix-Rouge, à Séoul.



sibles, si indolents et qui vivaient si tranquilles ! Pauvres Coréens, à qui leur bonheur passé suffisait et qui n'auraient jamais ambitionné cet honneur de servir de futurs héros, les voilà par avance réduits à la qualité d'esclaves, dans leur pays considéré comme conquis, et peinant et soufflant sous des charges de mulets, tandis que leurs nouveaux maîtres, goguenards, ravis d'aise à l'idée de la bonne farce, s'en vont tranquillement les bras ballants ou les mains dans leurs poches ! Et les dépêches japonaises ont beau protester de la bienveillance grande avec laquelle les soldats traitent la population, il ne faut pas s'étonner si, à l'approche de l'envahisseur, les paysans abandonnent leurs cabanes pour échapper à ces dures corvées.

Les Japonais ont pourtant des chevaux, mais en nombre très restreint. Et ces chevaux mêmes sont en assez mauvais état quand ils débarquent sur le continent.

On voit ici un convoi de sapeurs et de mineurs prêt à se mettre en route de Tchemoulpo pour le nord de la Corée, où il va rejoindre l'avant-garde. Il a bien fallu, pour transporter le matériel encombrant et lourd du génie, les pelles de terrassement, les pics, les pioches, les outils de toutes sortes, recourir à des chevaux. Ce sont, ainsi qu'on peut s'en rendre compte, des animaux à la crinière abondante, au poil touffu, tout petits, comme rabougris et juste proportionnés à la taille des cavaliers qu'ils doivent porter.

04 Débarquement de matériel de campagne.



06 En sampang sur le Yalou.

Il en faut souvent six pour trainer une seule pièce d'artillerie, et encore n'avance-t-on que lentement, tant ces chevaux sont peu résistants à la fatigue et tant, aussi, les routes sont mauvaises. Ceux qui ont vu de près la cavalerie et l'artillerie japonaises assurent que les malheureuses bêtes dont elles sont pourvues ne sauraient résister à une longue campagne, dans ce pays qui leur est peu propice. Dans cinq mois elles seront anéanties.

N'importe, on va toujours en avant. Chaque semaine, chaque jour, des transports déposent sur le rivage coréen des contingents nouveaux de combattants, des canons, du matériel, des vivres. On construit des campements, de véritables casernes parfois.

De toutes parts, des ambulances sont installées, baraquements aux toits couverts de neige, dans une enceinte de palissades. De grands drapeaux blancs, écartelés de la croix rouge, flottent à leur porte : la nuit, une lanterne blanche où rougeoit le soleil emblématique du Japon se balance entre ces pavillons, indiquant l'entrée devant laquelle veille sans cesse un factionnaire.

Les Japonais sont en Corée comme chez eux, prêts désormais à toute éventualité.



07 LES JAPONAIS EN COREE. — Un convoi de coolies avant la mise en route.

화염에 싸인 궁: 서울에 있는 한국 황제의 정전에서 일어난 화재

황제가 조회를 하던 서울의 웅장한 정전이
실화로 인해 잿더미로 변하였다.¹ 화재가
나는 동안 주변의 가파른 산들이 환해졌고
거리에는 허둥대며 날뛰는 사람들로 가득하였다.
일본 군대가 신속히 현장에 출동해 질서를
잡았고 영국 해병대 소속 공사관 경비대가
화재 진압에 큰 일조를 하였다. 다행히
사망자는 남자아이 한 명뿐이었다.



DRAWN BY H. C. BREWER

The imposing Hall of Audience of the Emperor's Palace at Seoul was reduced to a mound of ruins by a fire which was accidentally caused. During the fire the steep mountain about the city were lighted up brightly, and the streets were filled with hurrying crowds of frantic Koreans. Japanese troops were

FROM A PHOTOGRAPH BY FRANCIS S. TREKEE, R.N.

quickly on the scene, and succeeded in keeping order, and the British Legation Guard of Royal Marines rendered excellent service in assisting to extinguish the fire. Fortunately, only one life was lost, the victim being a small boy.

A PALACE IN FLAMES: THE BURNING OF THE EMPEROR OF KOREA'S HALL OF AUDIENCE AT SEOUL

1 1904년(광무 8) 4월 경운궁(현 덕수궁)
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함녕전·중화전·즉조당·
석어당 및 각 전각 등이 전소하였다.

압록강 전투

“일본군은 엄밀히 말해서 압록강을 건넌 지 이미 오랜 시간이 지났고, 러시아군을 밀어내고 압록강과 아이장강의 합류 지점을 점령한 상태였다.”

이번에도 압록강변 전투¹ 현장을 찍은 사진이 최근 우편으로 도착하였다. 이렇듯 전쟁의 전체적인 진행 상황과 충격적인 결과 등이 담긴 전보가 도착한 후에 자세한 소식이 늦게 단편적으로 유럽에 도착하고 있다. 우편에 기댈 수밖에 없는 우리로서는 분실 문제와 검열의 유혹은 둘째치더라도 우편물을 수령하기까지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린다. 하지만 이렇게 우편물이 지연된 덕에 마침내 도착한 사진과 사진에서 다뤄진 지나간 사건을 거리를 두고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 간혹 더 흥미로운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뒤늦게 도착한 사진들을 통해) 전투가 벌어

L'Illustration

릴뤼스트라시옹
프랑스

1904. 07. 02.
pp.11~13

구9726
39.4×28.9

지는 동안 기자가 어떤 장소에 있었는지를 알게 되면, 그 이전에 보내온 기자의 전보가 왜 그렇게 간결한지 놀라지 않게 된다. 사진(216쪽 도판 06 참조) 속에는 몇 시간 전 일본군이 떠난 자리에(압록강변) 서 있는 특파원의 모습이 보인다. 코닥 사진기와 망원경을 어깨에 둘러맨 채 한국인들 사이에 뒤섞여 있다. 한국인들 중에는 살육 현장에서 부상자들을 운반하기 위해 목숨을 간신히 부지하고 있는 간호사나 민간인도 있다. 그들은 자신이 어떻게 죽게 될지를 걱정하는 듯한 모습으로 전투를 지켜보고 있다. 망원경 속 저 멀리 수평선에서는 무슨 일이라도 일어났는지 흰 눈이 가볍게 날리고 있다.

그러는 사이 일본군은 계속해서 전진해 나간다. 특파원들이 도착하였을 때 일본군은 엄밀히 말해서 압록강을 건넌 지 이미 오랜 시간이 지났고, 러시아군을 밀어내고 압록강과 아이장강(愛江, 압록강의 지류)의 합류 지점을 점령한 상태였다. 일본군 포대가 호랑이 골짜기라고 불리는 아이장강에 자리를 잡고 기타 장비를 산 아래에 정리해 놓은 모습을 사진(216쪽 도판 05 참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여러 번의 전투를 통해 확인된 바, 일본군은 뛰어난 대포를 갖춘 덕에 계속 승리할 수 있었다. 이제 승리는 시간문제이다. 러시아군은 곧바로 봉황성(랴오닝성)으로 패주하였다. 러시아군은 전투 현장에 20여 대의 야포野砲와 맥심 대포를 두고 떠났는데, 적군(일본군)은 이것들을 소중히 운반해 군수품으로 분류하였다. 러시아군 포병대는 마지막 전선까지 맹렬하게 싸웠던 야포를 버리기 전에 친절하게도 폐쇄기(안전장치)를 모두 망가뜨려 놓았다. 겉보기에 멀쩡해 보이는 이 대포들은 모두 좋은 전리품이다. 전투가 끝나자마자 구로키 장군은 가장 아름다운 (사실은 가장 멸절한) 것들을 천황에게 개인적으로 선물하였다. 남은 것들은 도쿄 전쟁박물관으로 보내져 새로운 관람객들의 관심을 끄는 데 유용하게 쓰일 것이다.

1 1904년 4월 30일~5월 1일 러일전쟁의 첫 육상전을 말한다. 압록강 회전 또는 압록강 도하 작전으로 알려져 있다. 일본군은 저항 없이 강을 건너 러시아의 거점을 공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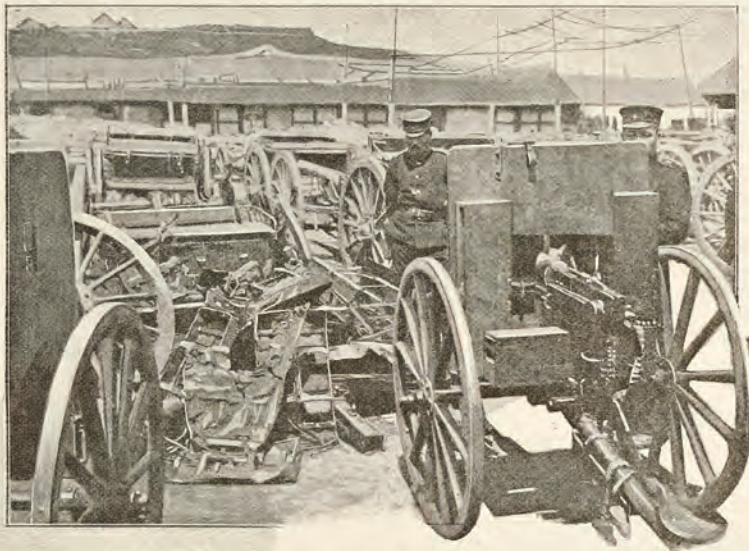


01 L'artillerie abandonnée par les Russes après les combats du Yalou.

Photographies prises à Antoung par M. Hare, correspondant du "Collier's Weekly" et de "l'Illustration". — Copyright « Collier's Weekly ».

LES BATAILLES SUR LE YALOU

Les photographies que nous a apportées, du théâtre de la guerre, le dernier courrier, sont relatives encore aux combats qui se sont livrés sur les bords du Yalou. C'est ainsi, lentement et par bribes, que parviennent en Europe les détails circonstanciés des événements de guerre, après que les dépêches en ont donné la narration d'ensemble, les résultats brutaux. Pour nous, réduits à ne compter que sur la poste, avec tous ses hasards, sans parler des fantaisies de la censure, parfois, les délais sont fatalement prolongés encore. Mais le recul même où, par suite des retards de transmission, apparaissent, quand les documents nous parviennent, les événements qu'ils illustrent, donne souvent à ces photographies un piquant intérêt. Comment s'étonner, par exemple, du laconisme des dépêches envoyées par les correspondants des journaux, quand on sait, enfin, de quelle tribune ils ont assisté à la bataille? Les voici, sur la rive du Yalou que viennent de quitter quelques heures auparavant les Japonais. Kodaks et longues-vues en bandoulière. Ils se



02 Canons Maxim de l'armée russe, pris par les Japonais.

dues jusqu'à la dernière extrémité, les artilleurs russes avaient pris le soin d'en détériorer les culasses. Rien n'y paraît, en tout cas, au premier examen, et, dans l'état où ils sont, ces engins constituent de beaux trophées de guerre. Presque aussitôt le combat terminé, le général Kuroki expédiait les plus beaux à l'empereur, à titre de cadeau personnel. Les autres feront bonne figure au Musée de l'armée, à Tokio, et y attireront de nouveaux flots de visiteurs.



03 L'armée japonaise quitte Antoung, reprenant sa marche en avant.

sont mêlés à quelques Coréens, spectateurs intéressés seulement à savoir à quelle sauce ils seront croqués, aux non-combattants, aux petits infirmiers jaunes, qu'un impérieux devoir oblige à conserver précieusement leur existence, afin de soigner tout à l'heure les blessés qu'ils iront ramasser dans le champ de carnage. Et de légers flocons blancs dans le champ de leurs jumelles leur indiquent qu'il se passe quelque chose là-bas, au fond de l'horizon. Pendant ce temps l'armée japonaise progresse. Elle avait passé depuis longtemps, quand ces curieux sont arrivés ici, le Yalou proprement dit et, repoussant devant elle les Russes, avait occupé, au confluent du fleuve et de l'Ai-Ho, la colline du Tigre, où une autre de nos photographies montre une batterie japonaise établie, ses attelages, son matériel accessoire rangés au pied de cette hauteur. De cette position, qui dominait tout le terrain, les Japonais étaient désormais maîtres de la situation. La supériorité de leur artillerie, à plusieurs reprises constatée dans cette campagne, leur assurait la victoire. Elle ne fut plus qu'une question d'heures. Bientôt, les Russes étaient en déroute vers Feng-Hoang-Cheng. Ils laissaient sur le champ de bataille une vingtaine de pièces de campagne et des canons Maxim, que leurs adversaires recueillaient précieusement avec leurs caissons et leurs munitions. On a dit qu'avant d'abandonner leurs pièces, bravement défen-



04 Abris japonais creusés dans les îles du Yalou pendant les opérations du passage du fleuve



05 UNE BATTERIE JAPONAISE SUR LA COLLINE DU TIGRE (HOUSAN), AU PASSAGE DU YALOU. — Les attelages et les réserves de munitions sont à l'abri sur le flanc de la montagne dont la batterie occupe la crête.



06 LES CORRESPONDANTS DE GUERRE, LES COREENS ET LES AUXILIAIRES DE L'ARMÉE JAPONAISE ASSISTANT, DU HAUT DES MURAILLES DE WIJU, A LA BATAILLE DU YALOU.

01 압록강 전투 후 러시아군이 버리고 간 대포

- 『콜리어스 위클리』와 『일뤼스트라시옹』의 헤어 특파원이 찍은 사진

02 일본군이 획득한 러시아군의 맥심 대포

03 안동을 떠나 다시 전진하는 일본군

04 압록강 횡단 작전 중 일본군이 압록강섬 곳곳에 마련한 참호

05 압록강 횡단 중 호산(虎山)에 선 일본군 포병 부대

- 포병 부대는 산꼭대기를 점령하고 수레와 군수품은 안전하게 경사면에 배치되어 있음

06 의주 성벽 위에서 압록강 전투를 지켜보는 중군 기자, 한국인과 일본군 보좌관들

한국 스파이의 최후

로버트 던

“김사중이 눈을 가렸을 때, 구부리고 앉았던 한국인들이 갑자기 기다렸다는 듯이 긴 담뱃대에 불을 붙였다. 총알이 발사되자, 구부렸던 몸을 반쯤 펴고 입을 크게 벌렸다. 김사중의 머리가 한쪽으로 고꾸라졌을 때 그들 모두는 환하게 미소를 지었고, 어떤 이는 노골적으로 웃기도 했다.”

1904년 4월 12일, 한국 제물포

이번 러일전쟁에서 일본군이 체포한 첫 스파이가 3월 23일 평양의 북문 외곽 평원에 있는 한 선교사의 집 베란다 밑에서 죽음을 맞이했다. 평양은 한국의 옛 수도이다. 현재 이곳은 일제가 압록강으로 진출하기 위한 제2의 전진 기지이다. 압록강변에 펼쳐진 넓은 지대에는 흙집과 초가집 등이 뺨뺨하게 들어차 있고, 지저분한 도랑이 있으며, 흰옷을 입은 무기력해 보이는, 긴 얼굴을 한 수염이 없는 키 큰 남자들이 살고 있다. 그들 가운데 한 명인 스파이 김사중은 젊은 한국인이다. 김사중

Harper's Weekly 1904. 05. 28.
pp.826~827

하퍼스 위클리

미국

구9776
39.7×29.0

은 러일전쟁 발발 전 러시아와 인접한 압록강 근처의 눈 쌓인 숲속 목재소에서 목수 일을 했다.¹ 러시아 근위대가 경비를 서는 이 제재소는 일본의 인내심이 어느 정도인지 그 한계를 시험하고 있었다. 아마 김사중의 죽음으로 보복이 되었을 것이다. 김사중의 집은 한반도 동쪽 해안 도시 원산에 있다. 그곳에 그의 아내와 아이가 있었다.

러시아 근위대장이 제물포에서 이런 치욕적인 이야기를 듣고 그의 부하들을 제재소에 배치시켰다. 그곳에 있던 중국인 감독관은 랴오양양의 만주 철도로, 한국인들은 모국으로 돌려보냈다. 그러고는 김사중의 왼손에 루블 지폐 두 장을 꼭 쥐어 주었다. 이때 김사중이 가난한 가족들을 떠올렸다고 말하면 좋겠지만, 실제로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루블화로 살 수 있는 여유로움과 그에 더해 안주를 점령한 일본군의 규모와 움직임에 대한 정보를 얻어 남쪽으로 돌아간 뒤에 받기로 한 큰돈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했을 것이다.

근위대장은 김사중이 스파이 임무에 적합한 인물이라고 생각했다. 김사중은 의사소통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그는 블라디보스토크 남부 포시에트만에서 두 해 여름 동안 낚시를 하면서 러시아어를 익혔다. 하지만 김사중에 대한 그들의 판단은 잘못된 것으로 드러났다. 영원히 편안한 삶을 보장해 줄 루블 지폐는 그를 곧 몰락의 길로 내몰았다.

그는 남쪽으로 서둘러 내려가다가 안주를 향해 북쪽으로 열을 지어 무거운 발걸음을 걷고 있는 제2사단 소속의 일본군 병사들과 마주쳤다. 그들은 김사중을 의심하지 않았다. 일본인들이 보기에, 말총으로 만든 원통형 모자를 쓰고 끈을 턱 아래 묶은 그는 타원형 얼굴의 작은 턱에 검은 수염이 부수수하게 자란, 수치와 파멸에도 무감각한 한국인의 모습이었다. 그저 자기 동료들이 앞서 약탈하고 노예로 삼았던, 그리고 실제로 강탈하기도 했던, 여느 농부 중의 한 명이 전쟁을 피해 무작정 황급히 길을 떠나는 것으로 보였을 뿐이었다.

무거운 장화를 신고 붉은 담요를 두른 전투 배낭을 짊어진 채, 앙상하게 마른 당나귀를 채찍질하는 일본 군인들 틈에 김사중은 길 밖으로 떠밀려 나갔다. 그는 눈이 녹아 질퍽이는 논길을 걸어야 했다. 이렇게 해서 그는 청천강을 건넜고 한국인들이 ‘저주스러운 나라’라고 부르는 일본의 군인들과 함께 두렵고 심란한 마음으로 안주에 도착했다. 김사중은 현지 주막을 찾았다. 마당에는 가족이 벗겨진 개 머리가 화

덕 위 술에서 끓고 있었고, 소나무 잔가지를 실은 여원 수송아지 두 마리가 있었다. 네모난 평상 위에 한 사람이 웅크리고 앉아 밥을 먹고 있었다. 김사종은 그에게 다가가 일본의 약탈 행위에 대해 불만을 털어 놓았다. 더러운 초록색 옷을 입은 여자아이가 술에서 개 머리를 건져서는 그에게 국물을 따라주었다. 그런데 그 손님의 억양은 이상했다. 원산 사람들의 말투는 부드럽고, 의주 사람들은 마지막 모음의 발음을 흐리지 않는다. 김사종은 이 낯선 자가 분명히 남쪽 출신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다가 그는 진남포²에 상륙한 일본 군인이 몇이나 되는지, 부대의 지도자 이름은 무엇인지 등을 물었다. 낯선 이는 흔쾌히 그 숫자를 말해줬고 일본어로 이름을 알려줬다.

김사종이 물었다.

“집이 부산인가?”

“아니지만 이곳으로 올 때 부산을 통과했소.”

그는 웃으며 긴 상의 속에 지갑을 꺼내면서, “나는 오늘 밤 의주에 가야 해서 돈을 내야 하오.”라고 말했다. 주름진 얼굴의 늙은 주막 주인이 그들 옆에 서 있었다. 그러나 김사종이 일어나며 “내가 전부 지불하겠소.”라고 하면서 주머니에서 러시아 근위대장이 준 루블 지폐 한 장을 꺼냈다. 나이 든 사람은 목에서 소리를 냈다. 그 손님은 잠시 주저앉아버린 수송아지를 쳐다보면서, “부산에 내 집이 있소. 나는…” 시간을 끌다가 말을 꺼내더니 갑자기 멈추었다.

김사종은 아는 일본말로 동정심을 가지고 진지하게 “그레요!” 라는 뜻의 “소데스까!”라고 말했다. 그리고선 “새로운 철로를 이용해 부산에서 서울까지는 얼마나 걸립니까?”라며 현명하게 질문했다. 손님은 애매하게 “그리 멀지 않소.”라고 답했다. 김사종은 계속해서 대화를 이어 나가려 했다. “일본 군인들이 안주로 빠르게 오고 있습니까? 아니면 천천히 오고 있습니까?”, “어느 길로 오고 있나요? 한 부대에 군인이 몇 명이나 됩니까?”라며 계속해서 물었다.

손님은 자신의 턱 아래 묶여있던 갓을 풀면서 “생각하는 만큼 많ियो.”라고 흔쾌히 대답했다. “아마도 이곳에 진을 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느 인원보다 훨씬 많을 거요.” 그리고는 보기에 참 크고 말끔하게 묶였다고 생각했던 투명한 갓 속의 상투를 마치 찻주전자의 뚜껑을 들어 올리듯 들어올렸다. 그 속에 핀으로 고정된 총알같이 생긴 일본인의 머리가 드러났다. 그는 “나도 역시 스파이요.”라고 말하며 일본인 방식대로 흥분하며 어깨를 떨었다. “그러나 나는 나의 민족을 배신하진 않소!”라고 한 뒤 두 팔로 김사종을 잡았다. 그 뒤 그는 마당 한쪽에 있던 쓰레기 더미에서 황소 뼈를 꺼내어 김사종을 두들겨 뺐다. 김사종은 이를 예상했던 것처럼 신음소리도 내지 않았다. 그의 몸은 웅크린 채 구부리고 있어 흰색의 타원형 덩어리 같았다. 어둠 속에 있던 노인은 루블 지폐를 떨어뜨리고 달아났다.

나는 그날 밤 일본 사사키 장군 앞에 끌려간 김사종이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른다. 그는 아마도 김사종이 한 말이 미국의 신문지면에 실리게 되면 러시아 근위대장이 좋아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밝히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러일전쟁에서 보이는 동양적 요소이다. 그러나 주막 주인은 이야기를 자세히 알려주었다.

어쨌든 김사종은 양옆의 일본인 병사의 감시를 받으며 이들 후 평양에 도착했다. 폐허가 된 궁궐 근처 과거 현감의 집무지였던 건물 내에 설치된 본부에서 그날 밤을 묵었다. 경내의 본부 앞에는 돌로 만든 물고기 모양의 지주가 있었다. 다음 날 10시가 될 무렵 북문 근처에서 “정오에 한국인 스파이가 총살당할 것이다.”라고 조용히 말하는 소몰이꾼들의 대화가 들려왔다.

연대 소속의 키가 작고 마른 한 일본군 소령의 뒤를 부대의 병사 40여명이 어슬렁거리며 따라갔다. 그들 가운데, 흰옷에 원통형 모자를 쓰고 있는 김사종이 등 뒤로 손이 쇠사슬에 묶인 채 끌려갔다. 그들은 타일을 붙이고 철판으로 덧댄, 틈 사이가 찌은 나무 대문을 통과했다. 그 행렬은 새뮤얼 모팻 선교사 집에 가는 길 중간에 있는, 공터의 늙은 소나무 옆에서 멈추었다. 부대원들이 나무를 중심으로 동그랗게 주변을 정리하는 가운데 김사종 양옆에 있는 두 명의 병사들은 그를 소나무 쪽으로 데리고 갔다. 그리고는 김사종의 얼굴을 제외하고는 긴 새끼줄로 가슴 위로 두 번, 무릎 위 다리 부분에 세 번 감아 나무에 단단히 묶었다.

누런 삼베옷을 입은 추도자가 자신의 얼굴을 가리기 위한 작은 흰색 천을 들고서는 공터로 나와 나무 앞에 섰다. 푸른색의 긴 옷을 입은 한 중국인이 군인들 틈을 비집고 웃는 얼굴로 그 옆으로 나왔다. 외국 옷을 입은 키 큰 자가 모팻 집의 베란다에서 뛰어나와 처형장으로 왔다. 한국인 추도자는 무연고자의 무덤으로 보이는 오른쪽 작은 둔덕에 올라갔다. 그는 조심스럽게 샷샷을 벗어 바닥에 내려놓고는 무심하게 명복을 비는 연설을 하기 시작했다. 중국인은 계속 웃고만 있었다. 자기 나라의 정복자들을 지지하는 것이 한국인의 의무인데, 일본의 기밀을 누설하려고 했던 김사종이 얼마나 사악한 인간인지를 추도자가 말하고 있다고 중국인이 귀뜸해 주었다. 이어 중국인은 일본군 소령이 추도자에게 돈을 주기로 하고 그렇게 연설할 것을 부탁했다고 말했다.

추도자가 물러나자 키가 작은 소령이 걸어 나와 둔덕에 올랐다. 그는 김사종을 마주하고 낮은 목소리로 짧게 말했다. 중국인은 매우 진지하게 소령이 스파이의 죄목을 알려주는 것이라 말해줬다. 소령은 말을 끝낸 뒤 가만히 있다가, 짧고 빠르게 명령을 내리고는, 삼베옷을 입은 추도자를 따라 군중 속으로 들어갔다.

군중 속에서 네 명의 군인이 나왔고, 또 다른 쪽에서 두 명이 더 나와서는 거친 천으로 김사종의 눈을 가렸다. 눈을 가리는 두 명은 김사종의 얼굴을 석고물을 다루듯 했다. 장교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은 채 다

음 명령을 내렸다. 네 명의 군인 중 가장 큰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쳐다보지도 않고 앞으로 나와 소총을 들어 올리고 눈가리개 부분을 향해 조준했다. 그는 세 번째 명령에 15야드(약 13.7미터) 떨어진 곳에서 총을 쏘았다.

이 광경을 지켜보는 흰옷을 입은 한국인들이 없었다면, 이것은 기분 나쁜 일이 아닐 수도 있다. 그런데 그들은 앞으로 밀치고 나와 일본 군인들과 함께 원을 만들었다. 김사종이 눈을 가렸을 때, 구부리고 앉았던 한국인들이 갑자기 기다렸다는 듯이 긴 담뱃대에 불을 붙였다. 총알이 발사되자, 구부렸던 몸을 반쯤 펴고 입을 크게 벌렸다. 김사종의 머리가 한쪽으로 고꾸라졌을 때 그들 모두는 환하게 미소를 지었고, 어떤 이는 노골적으로 웃기도 했다.

The Fate of a Spy in Korea

By Robert Dunn

CHEMULPO, KOREA, April 12, 1904. THE first spy caught by Japan in this war met his death on March 23 at Pyeng-Yang, on the plain just outside the north gate of the city, below the verandas of the missionaries' houses. Pyeng-Yang is the ancient Korean capital. Now it is Japan's "secondary base" in the advance to the Yalu—a vast warren of mud hovels, thatched roofs, sickening ditches, and tall beardless men wearing white robes and long impotent faces. Kim Sachong, the spy, was a young Korean. Before the war he built skids in the snows of the Yalu forests, in a lumber camp ceded to Russia by the Korean Emperor just after his mother was soaked in kerosene and burned by the Japs at Seoul in 1895, and H. I. M. was bundled out of the palace at night and hidden in the Czar's legation. That lumber camp, with its Cossack guard, was one of the straws that broke the back of Japanese patience. Maybe the death of Kim helped to even the score.

Kim's home was in Wonsan, on the east coast of the peninsula. I should like to say that he had a wife and child there, and that he thought of their poverty when the captain of the Cossack

guard, hearing of the humiliation at Chemulpo, quartered his men in the sawmill, shipped the Chinese foreman to Liao-Yang, on the Manchurian Railway, the Koreans to their homes, and pressed two paper rubles into Kim's left hand. But I know he thought of nothing but the idleness the rubles would buy, added to the larger bribe promised when he should return from Anju in the Jap's country to the south with news of how many troops were there and where these troops were going.

Kim was fitted for this spy's work, thought the Cossacks. They could understand him. Two summers' fishing in Possiet Bay, south of Vladivostok, had taught him Russian. But, as it turned out, Kim was misjudged, though the paper rubles, which were enough pay to Kim for eternity, immediately caused his undoing.

Rank after rank of the little yellow fighters of the second division trudging north on the Anju road for five days faced the spy hurrying south. They didn't suspect him. His horse-hair cylinder hat ribboned under his chin, the oval Korean features, which are stolid in the face of shame or destruction, the small chin covered with black fuzz, made him seem to the Japs only one of the many farmers plundered and enslaved by their com-

1 원문에는 이 단락의 다음 단락에 “한국의 황제는 1895년 황후(원문에서는 ‘그의 어머니’라고 되어 있다.)가 서울에서 일본인에 의해 등유로 불태워진 후, 밤에 궁에서 빠져 나와 러시아 차르의 공관에 숨었다.”라는 내용이 있으나 문맥상 맞지 않다. 완전히 다른 내용이 끼어들어간 것으로 보여 번역문에서 삭제하였다. **2** 평안남도 남부에 위치한 작은 어촌이었는데 1894년 청일전쟁 당시 일본 해군이 드나들면서 각광을 받게 되었다. 1904년 러일전쟁 때 이곳은 일본의 군사 기지로 군수품 수송의 핵심 항구가 되었다.

rades ahead, hurrying blindly for mercy to the prefect, who had often robbed him too. Bent under back packs of heavy boots and scarlet blankets, beating their lean ponies, they crowded him from the road. He had to slosh through the snow melting on the rice-fields.

Thus he crossed the Chung Chun River, and entered Anju city, awed and tumultuous with soldiers of "the accursed nation," as the Koreans say. He found a native inn. Boiling on a brazier in the courtyard was a flayed dog's head, and two gaunt bullocks carrying pine-brush. Under the four-sided toy porch squatted a fellow countryman, eating. Kim spoke with him, complaining of the Jap's marauding, and a girl child in soiled green silk hooked the dog's head from the pot to pour him soup. The stranger's accent seemed queer to Kim. At Wonsan people spoke more softly, and at Wiju they did not clip their final vowels so. Surely the stranger was from the south, thought Kim.

At last he asked how many troops had landed at Chinampo. He asked the names of their leaders. The stranger answered willingly in figures and tongue-twisting Japanese names.

"Is your home in Fusan?" said Kim.

"No; but coming here I pass through Fusan," he smiled, reaching for the oil-cloth purse under his tunic. "I go to Wiju tonight, and must pay." The wizened old innkeeper was standing by them.

"Let me pay all," bowed Kim, who had risen; and he drew one of the Cossack's rubles from his pocket.

The old man made a sound in his throat. The stranger for a time eyed the bullocks, who had sunk to their knees.

"My home is in Fusan, I should say—" at length said the stranger, quickly, and paused.

"So deska!" said Kim (meaning, in Japan, "Indeed!"), in earnest of his Japanese knowledge and sympathies. "And how near is the new railroad from Fusan now to Seoul?" he asked, wisely.

"Not very far," said the stranger, vaguely. Before, he had been communicative.

"Are the troops advancing fast or slowly toward Anju?" Kim persisted.

"By what roads? How many are there in a body?"

"As many troops as you please to think," said the stranger, amiably, untying the hatband under his chin. "Perhaps more than you could imagine camped under here," and raising a hand to his head, he removed his topknot, as you take the cover from a teabowl—such a large, neat knot, Kim had thought before, looking through the transparent hat-crown!

Underneath was the clipped, bulletlike Jap head.

"I, too, am a spy," said the stranger, his shoulders trembling in the manner of a Jap under excitement, "but I am no traitor to my race!"

He seized Kim by both arms. He picked an ox-bone from the courtyard filth, and he beat Kim. Kim seemed rather to have expected it. But he did not even whimper. He only covered, bent into an oval white heap. The old man had fled in the darkness, leaving the ruble.

What Kim said that night when hailed before General Sasaki I do not know. The general would not tell—probably he thinks that if printed in America it might gratify the Cossack captain.

That is the Oriental way in this war. But the old innkeeper tells his story well.

At any rate, two days later Kim reached Ping-Yang between two Jap soldiers. He slept that night at headquarters, which are in the former Korean prefect's office near the ruined palace—there in the compound with the stone fish-posts before it. Toward ten o'clock the next day you could have heard the bullock drivers around the north gate saying quietly as they met, "The Korean spy will be shot at noon."

Hardly forty loiterers followed the half-company of soldiers, led by a thin little Jap in a major's regimentals, with Kim Sachong, his hands chained behind him, but still in white and his cylinder hat, in their midst.

They passed through the wooden portals of the tiled gate, which have rotted through their studded covering of sheet-iron, and halted by the old pine in the open, half way to the house of Mr. Moffat, the missionary. The two soldiers who led Kim kept straight on when the company cleared a circle about the tree, and deftly bound him to it, face outwards, with a long grass rope wound twice across the chest, three times about the legs above the knees.

A man in mourning—that is, in yellow grass cloth, and holding before him a little white banner to hide his face—stepped out into the open space before the tree. Close to, a blue-robed Chinaman pushed his way smiling through the soldiery. A tall man in foreign clothes jumped off the veranda of Mr. Moffat's house, and approached the execution.

The Korean in mourning stepped on a little mound to the right, perhaps a forgotten grave, and carefully removing his huge basket hat, which he laid on the ground before him, began what seemed to be a passionless oration for mercy. The Chinaman kept on smiling. Soon he said the orator was pointing out how wicked Kim had been in trying to betray the secrets of Japan, since it was the duty of all Koreans to support their conquerors. The Chinaman added that the Japanese major had asked the mourning gentleman to make the speech, promising pay for it.

Then the little major stepped out on the mound, the orator having retired. He spoke very low and briefly, but facing Kim. The Chinaman said, quite seriously, that the officer was making a statement of the spy's offence. The major ended, paused, waited a moment, gave a staccato order, and followed the grass-cloth mourner into the crowd.

Four soldiers stepped out from it, and two more from another part of the circle advanced and blindfolded Kim with a coarse cotton cloth. As far as any one of the three were concerned in that, Kim's face might have been made of putty.

The major, without showing himself, gave another order. Without looking at the others, the tallest of the group of four soldiers stepped forward from his companions and raised his rifle, aiming at the bandage.

At the third order he shot from about fifteen yards.

Nothing would have been unpleasant had it not been for the white, watching Koreans. They had pushed forward to form a circle within the soldiers. When Kim was blindfolded, all squatted at once, expectantly, and lit their long pipes. At the shot they half-raised themselves on their haunches, opening their mouths wide. When Kim's head fell to one side, all of them smiled broadly and a few laughed outright.



A Spy Captured by Japanese Troops in Korea

스파이의 사형: 한국의 계엄령

러시아인에게 정보를 제공한 한국인

스파이를 쏘는 일본 군인들

-일본 전쟁 예술가의 스케치를 바탕으로

앨런 스투어트가 그림

The Illustrated London News

더 일러스트레이티드 런던 뉴스
영국

1904. 06. 25.
p.956

구9845
39.9×28.5



JAPANESE SOLDIERS SHOOTING A KOREAN SPY WHO HAD GIVEN INFORMATION TO THE RUSSIANS.

사형수를 대상으로 한 사격 연습

“세 농부는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고 결백을 호소하였지만 러시아를 위한 행동이었다는 의심을 받아 결국 ‘범죄’ 현장에서의 처형이 결정되었다.”

(사형수들의) 충상을 확인하기 위해 다가온 일본 장교들 날이 갈수록 ‘해방자’와 ‘피해방자’ 사이인 한일 관계에 긴장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는 소식이 서울로부터 전해오고 있다. 한국인들은 그간 일본인들의 소행에 격분하고, 일본인들도 한국인들의 저항에 결국 화가 났다. 일본은 한국 정부에 통보 없이 갑자기 한국 내 계엄령을 선포하였다.¹ 본지 특파원은 즉석 사진 몇 장과 함께 참혹한 현장의 소식을 전하였다. 사진은 서울의 일본인 사진사들로부터 돈을 주고 쉽게 구한 것으로,

Le Petit Parisien 1904. 12. 18. pp.405~406, p.4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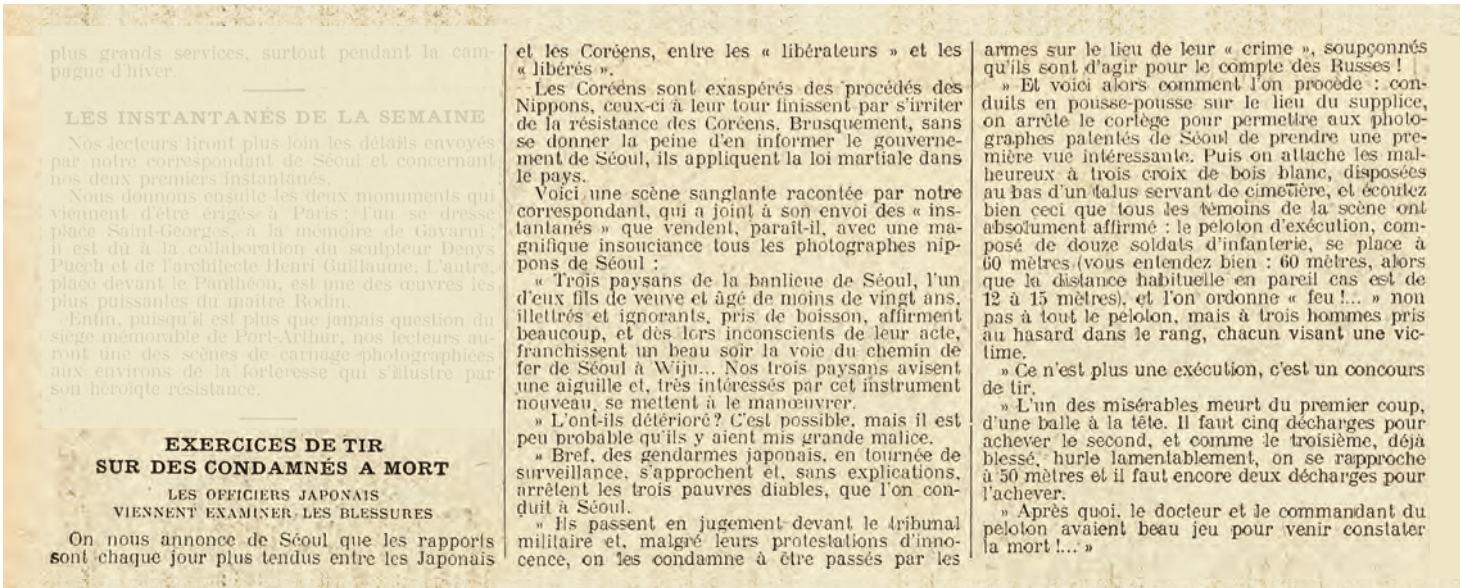
르 프티 파리지앵 프랑스 79747 44.1×30.0

로, 그들은 이 사진이 가져올 여파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고 한다. 서울 인근에 농부 세 명이 살았는데, 주변 사람들 말에 따르면 그중 한 명은 과부의 아들로 스무 살도 채 되지 않았고, 모두 문맹인 데다 아는 것은 없고 술만 마셔댔다고 한다. 생각 없이 행동하던 세 농부는 어느 날 저녁 느닷없이 서울에서 의주로 향하는 철도의 철로를 건넜다고 한다. 그런데 철로에서 선로 변경 장치를 발견하고는 신문물을 신기하게 여겨 장치를 조작하기 시작하였다. 그 때문에 장치가 상하였을까? 그럴 가능성도 있지만 그렇다고 별다른 악의를 가지고 하였던 행동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어쨌든 순찰 중이던 일본 헌병이 다가와 다짜고짜 불쌍한 사고뭉치들을 검거해 서울로 호송하였다. 세 농부는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고 결백을 호소하였지만 러시아를 위한 행동이었다는 의심을 받아 결국 ‘범죄’ 현장에서의 처형이 결정되었다.

그 다음은 이렇게 진행되었다. 서울의 공인 사진사들을 인력거로 처형장까지 데려와 흥미로운 장면을 찍을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묘지 언덕 아래에 흰 나무 십자가를 세워 불쌍한 세 농부를 각각 매달았다. 보병 12명으로 구성된 총살 집행반이 (그들과) 60미터 떨어진 곳에 자리를 잡았다고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이 증언하였다. 이런 경우 보통은 거리가 12-15미터가 일반적이는데 60미터라니, 믿어지나요? 그런 다음 집행반 전체에게 그들을 쏘라고 명령한 것이 아니라, 그중 3명을 무작위로 골라 한 명씩 돌아가며 피해자를 조준하라고 하였다는 것이다. 이런 행동은 사형 집행이 아닌 사격 경기로밖에 볼 수 없다. 불쌍한 농부 중 한 명은 첫 발에 머리에 구멍이 나서 즉사하였다. 두 번째 농부는 총을 다섯 번 쏜 후에야 숨을 거두었고, 이미 총상을 입고 울부짖고 있던 세 번째 농부는 집행반이 50미터로 거리를 좁힌 후 총을 두 발 더 쏜 후에야 맞추는 데 성공하였다. 일이 모두 끝나자 의사와 집행반 사령관은 마치 좋은 패를 들고 있는 노름꾼인 것처럼 가까이 다가와서 사형수들이 모두 죽은 것을 확인하였다고 한다.



한국에서의 처형 (서울 특파원으로부터 전달받은 즉석 사진) 01 사형장으로 호송되어 가는 사형수들2 02 사형 장면 - 개인 사격



1 1904년(광무 8) 7월 21일 주한 주치군 사령관 하세가와 요시미치(長谷川好道, 1850~1924)가 한국 정부에 치안 유지를 위해 서울 내외의 군사 경찰 실시를 통고한 것을 말한다. 2 1904년(광무 8) 9월 21일 일본군 헌병들이 군용 철도 방해죄로 의병 김성삼(金聖三)·이춘근(李春勤)·안순서(安順瑞) 등을 마포 공덕리에서 포살하는 장면이다. 한국 정부는 이들의 공훈을 기려 1991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사형수를 대상으로 한 사격 연습
(서울 특파원이 제공한 사진을
바탕으로 그린 수채화)
총상을 확인하기 위해 다가오는
일본 장교들

고종 황제의 폐위 군대 해산과 저항

1900년 만국박람회, 한국관

“한국 정부가 선보인 전시관은
매우 흥미로운 건축물로서
옛날 황실의 법정을 착안해 만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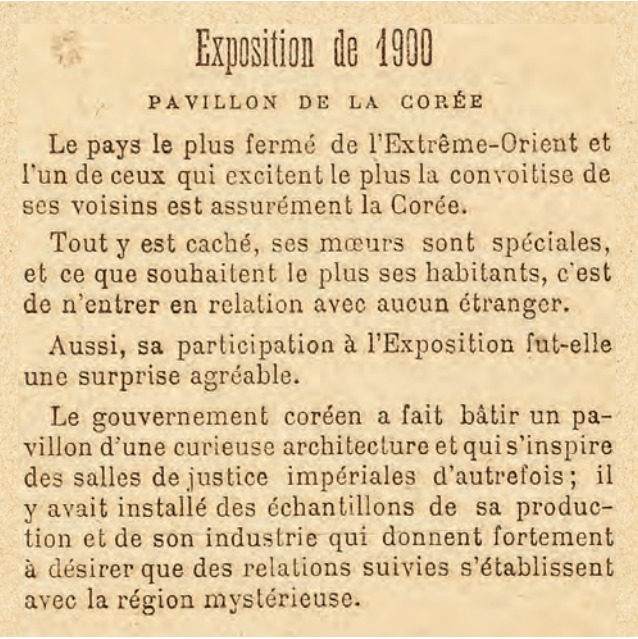
1 경복궁 근정전을 축소해서 한국관을 꾸몄는데
저자는 이것을 황실 법정으로 표현하였다.

50

Le Petit Journal
르 프티 주르날
프랑스

1900. 12. 16.
pp.397~398
구9739, 구6856
44.0×30.2, 45.3×31.2

한국은 극동 지역에서 가장 폐쇄된 나라이자 인접국들의 가장 큰 탐
욕의 대상이 되고 있는 나라이다. 독특한 풍습을 가지고 있는 한국은
모든 것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채 감춰져 있고, 국민들은 그 어떤 나
라와도 교역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따라서 한국이 이번 박람회에 참여
한 것은 우리로서는 기쁜 일이면서 동시에 놀라운 사건이기도 하다.
한국 정부가 선보인 전시관은 매우 흥미로운 건축물로서 옛날 황실의
법정¹을 착안해 만든 것이다. 한국 제품과 산업을 보여주는 견본품들
을 전시하고 있다. 아직 미진한 면이 많지만 앞으로 이 베일에 싸인 미
지의 나라와 지속적인 관계를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란다.





1900년 만국박람회, 한국관

오늘날의 한국

메리 제이 험프리스

“독립협회는 한국의 젊은 피, 학생 계급을 이해한다. 독립협회는 왕이 중국 사신을 만나고 중국이 군주국임을 인정하였던 자리에 독립문을 세웠다.”

희극계는 한국을 탐색하는 한 절망할 필요가 없다. 한국에서 관직에 진출하는 방법은 음모를 꾸미는 것이다. 조정 대신들은 감옥에서 발탁 되는 것 같다. 모든 유명 인사는 언젠가 자신의 머리가 잘릴 날을 앞두고 있는 듯하다. 이는 일상사가 되어 버렸다. 다음 주면 황제는 아마도 의정대신으로 임명할 만한 사람을 살려두지 않은 것을 아쉬워할지 모른다. 거의 이틀에 한 번 꼴로 이런 일이 벌어지던 당시 나는 한국에 있었다. 이번엔 희생된 사람들은 이례적으로 중요한 사람들이었다. 대표적인

Harper's Weekly 1900. 08. 25.
pp.798~799
하퍼스 위클리
미국
구9766, 구6789
40.2×28.1, 41.0×28.2

사람이 민영준'과 박정양이다. 박정양은 미국에 파견된 한국 최초의 공사로 기억될 것이다. 당시 그는 내부대신이었다. 민영준은 청일전쟁이 발발하였을 때 조선 왕실 배후세력 중 일인자였다. 그는 살해당한 왕비(명성황후)의 일가인 유명한 민씨 집안의 일원이다. 또 다른 음모 가담자는 왕비 살해 사건(을미사변) 당시 군부대신이었고, 내가 한국에 체류하였을 당시 한국은행장이었던 안경수 장군²이었다. 그들의 음모는 황제를 암살하고 황태자(순종)를 왕좌에 앉히는 것³이었다고 한다. 황태자가 충기가 없다는 것이 중론이었다. 왕비의 독자인 황태자는 결혼을 한 성인이 되어서도 왕비로부터 아기 취급을 받았다. 이렇게 끊임없이 음모가 시도되는 것은 나약한 왕(고종)이 제일 멀리해야 할 사람에게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왕은 그저 존경받는 시골 양반이었으면 좋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불행하게도 왕이 되었다. 들리는 바에 따르면 그는 왕실 역사상 제일 혹사당한 왕이라고 한다. 그의 마음은 온갖 잡다한 것들로 가득 차 있다. 그는 모든 세세한 것을 듣다 보니 폭죽 소리에도 신경이 쇠약해진다. 그는 옛 궁궐(경복궁)을 버리고 공관(러시아 공사관) 사이에 새 궁궐(경운궁)을 지었다. 바로 뒤편 언덕에 있는 공관을 배후에 두고 그들 발아래 새로 만들어진 개구리 연못에 거주하였다. 권총 소리가 나면 궁궐 담장을 넘어서 외국 국기 아래로 피신할 수 있기 때문에 왕은 만족해하였다. 현왕을 끝없이 괴롭히는 불안은 당시 일본에 망명가 있는, 한국에서 가장 유능한 사람으로 알려진 박영효 때문이다. 박영효의 첫 번째 부인은 선왕(철종)의 딸이다. 공주(영혜옹주)는 몇 년 전에 죽었지만 박영효는 부마의 지위를 유지하였다. 현왕은 고췌 대원군의 둘째 아들이자 왕위 계승의 적통은 아니었지만 조대비(신정왕후)에게 양자로 입양되었다. 박영효는 진보적 인사로 대중의 인기를 얻고 있다. 박영효는 도쿄에서 나가사키로 그의 딸을 만나러 얼마 전에 떠났는데 이것이 왕실을 뒤흔들어 놓았다. 음모가 판을 치는 것은 각기 다른 상황에 처해 있는 왕자 세 명의 존재와도 관련이 있다. 왕비가 살아 있을 때까지 후궁의 지위는 공식적이었다. 의화군은 왕비가 사약을 내린 후궁(귀인 장씨)의 아들이었다.⁴ 몇 년 전에 미국에 청운의 꿈을 안고 간 왕자가 바로 이 사람이다. 그러나 정부가 제때 송금하지 않아 그는 일본으로 돌아갔다. 외국 인사들은 흘

룻한 젊은이인 이 왕자를 좋아하였고, 그는 대중에게도 인기가 있어 왕에게 큰 위협적 존재였다. 왕을 위협하는 세 번째 주자는 다른 모습을 보인다. 궁궐 대문 앞에는 항상 작은 문치의 종이가 놓인 낮은 상이 있고 그 주변에 웅크리고 앉아 있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왕이 등장하기를 기다리며 일종의 청원서 초안을 작성하는 자들이다. 내가 있을 무렵에, 이들은 왕에게 혼인할 것을 촉구하고 있었다. “— 일종의 반란군인—동학을 비롯하여 기독교, 기근, 질병 등의 원인은 바로 왕이 홀아비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엄비嚴妃⁵를 황비로 책봉해야 한다.”라고 청원서에 쓰고 있었다. 현재 엄비는 ‘빈嬪’으로 책봉되었고 최근에 왕자(영친왕)를 생산하였다. 엄비의 야심은 잘 알려져 있다. 그녀는 기만한 사람이고 왕은 그녀에게 여러 번 빚을 졌다. 고종 황제가 러시아 공관으로 도망가도록 계획하고 시행한 사람도 엄비였다. 이는 재미있는 이야깃거리라 할 수 있다. 왕비가 살해당한 후 그의 가족은 반감아 당변을 서며 왕에게 눈을 떼지 않았다. 왕은 밤에 일을 하였고 낮에 잠을 자는 것이 더 안심이 되었다. 어느 날 그의 연로한 어머니⁶와 대왕대비가 감시할 차례가 되자, 왕은 노모들에게 옛날이야기를 해달라고 하였고, 노인들이 으레 그렇듯이 말하다가 잠이 들곤 하였다. 아침이 다 되어 그들 모두가 꾸벅꾸벅 졸면서도 안전하다고 여겨질 때, 왕은 그곳을 빠져 나와 엄비의 교자로 숨어들어 갔고, 왕세자도 다른 교자에 몸을 숨겼다. 한국에서 지체 높은 여성은 남성의 눈길에 노출되면 안 되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여성이 탄 교자의 차양을 함부로 열 수 없다. 엄비가 병든 이모를 집에 모시고 가는 길이라고 속여 왕과 왕세자를 경복궁에서 탈출시켰다.⁷ 사람들은 왕이 탈출을 안 했다면 결국 자신을 돌보던 가족에 의해 살해당했을 것으로 믿고 있다. 이 사건은 엄비의 힘을 강화시켰고 따라서 자신의 어린 아들의 장래에 기대를 갖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왕은 대중 앞에서 굴욕을 당했다며 이리저리한 이유로 먹지도 못하고 잠도 자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항상 백성들에게 알렸다. 그가 내리는 교지는 최고의 코미디극이다. 내가 왕이 자신의 일상을 털어 놓은 교지를 그대로 옮겨 보았다. “이 나라의 방위는 가장 중요한 일이다. 이는 항상 그랬고 오늘날 특별히 더 중요하다. 이에 따라 이전 교지에 따라 우리 육군과 해군을 대한제국 정부가 직접 통솔한다.” 한국에 해군이 없다는 사실은 단지 사소한 일인가 보다. 또 다른 교지도 있다. “백성의 안위는 우리의 끊임없는 고민거리이다. 작년의 사회 불안으로 평화와 질서가 부재한 채 우리 백성이 심히 큰 고통을 겪었다. 산 자와 죽은 자 모두 고통을 겪었지만 조정은 기존의 상황을 개선하지 못하였다. 이 생각에 너무나 걱정이 되어서 지금 내가 누리는 풍요로움이 오히려 불편하게 느껴진다.”

이 문서는 한국의 수장고에 간혀 있기에는 아깝다. “1896년 1월 14일—법과 규칙은 왕에게서 나온다. 왕좌를 계승한 후 33년이 전광석화와 같이 지나갔다. 외국과의 조약을 준수해야 하며 정치에 변화를 주어야 한다. 따라서 새로운 달력을 도입하고, 연호를 도입하고, 의복의 양식을 바꾸고, 상투를 잘랐다. 우리가 혁신을 좋아해서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관례상 넓은 소매통과 큰 모자에 익숙해져 있다. 편리함을 위해 도입하였던 상투와 머리띠는 초창기에는 참신한 것으로 여겨졌다. 이것이 보편적으로 이용되었던 것은 사람들이 이를 좋아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투와 머리띠는 활동에 방해되고 건강에 좋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현재 우리가 배와 탈 것(자동차)을 도입하는 초기 단계의 상황에서 과거의 좋았던 관습에 집착하는 것은 옳지 않다.” 왕은 한때 단발하였다가 별로 언급하고 싶지 않은 방아쇠 머리 모양으로 돌아가기를 몇 번이나 반복하였을까? 러시아인들을 퇴출시키는 데 왕이 한몫하였다는 것은 인정해야만 할 것이다. 러시아의 스페예르 공사는 외교관 중에서 그리 질 좋은 사람은 아니었다. 그는 디어섬(부산 절영도) 사건⁸과 한러은행⁹ 설립 등과 관련하여 독립협회¹⁰의 견제를 받고 있는 와중에, 한국 정부에 러시아군 교관을 계속 주둔시킬 것인지를 물어보며 관심을 돌리고자 하였다. 그리고 약간 건방지게도 24시간 내 답변을 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상투적인 굴욕적 답변을 보냈다.

“그 질문에 수치심을 느끼지만 우리는 우리의 책무를 보다 신중하고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따라서 더 이상 러시아 군주가 신경을 쓰게 할 이유가 없다. 이 결정은 조정 중신들의 만장일치로 내려졌고, 현 정부와 전 백성이 그렇게 생각하는 바이다. 러시아 정부가 한국에 일개움을 주고 독립 정신을 고취시켜 주었기에 내리게 된 결정이다.” 나아가 왕은 과거에 러시아가 한국에 베푼 호의에 감사를 표하기 위해 사절단을 파견하여 한국이 이제 스스로를 돌볼 수 있다는 뜻을 전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렇게 빨리 결정이 난 것에 대해, 스페예르 공사는 한국이 수고할 필요 없이 본인이 자국 황제에게 직접 말하겠다고 외교 관례를 무너뜨렸다. 양국 간 서신은 역사상 최초로 한국 국민의 의견이 고려되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는 8,000여 명이 응집하는 대규모 회의(만민공동회)를 소집하는 독립협회 덕분이었다.

독립협회는 현재 미국의 귀화 시민으로서 필라델피아에 살고 있는 한국인 서재필(Philip Jaisohn, 서재필의 미국 귀화명) 박사가 만들었다. 그는 한국 왕의 자문관으로 와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그러나 월급을 주었던 한국 정부는 그의 영향력과 진보적 정신을 두려워하여, 그에게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라고 간절히 요청하였다.

독립협회는 한국의 젊은 피, 학생 계급을 이해한다. 독립협회는 왕이 중국 사신을 만나고 중국이 군주국임을 인정하였던 자리에 독립문을 세웠다. 북경로¹¹라고 불리는 좁은 길이 내다보이는 곳에 조그만 협회

사무소가 있다. 그 클럽의 책임자는 윤씨(윤치호)이다. 그는 3주에 한 번 발행하는 독립신문¹² 영자 신문의 편집자이다. 윤씨는 왕비 두 명을 배출한 집안의 사람이다. 그는 젊고 잘생겼으며 영어를 완벽하리만큼 잘하였고 그의 글에는 유쾌한 마음과 가벼운 필치가 느껴지는데 동양적이라기보다 오히려 서양적인 사람이다. 그의 친구는 한국식 논쟁을 성공적으로 쉽게 끝내는 방법을 암시하며 “그는 살아있기만 하면 성공할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그의 한 친구는 내가 한국에 있었을 때 중국의 영향력이 엄청났다고 말하였다. 보수적 내각이 집권하고 있었고 군대·경찰·학생들이 서양 제복을 입는 것에 불만스러워 하였다. 학부대신과 학생들이 몸싸움을 하였고 어린 한국 학생들은 고위 인사의 얼굴에 주먹을 휘둘렀다. 그 동안 이노우에 백작은 한국을 진보적 방향으로 재건하려 하였다. 그러나 일본 공사가 가담한 한국 왕비의 살해 사건으로 일본은 한국에 대한 영향력을 포기해야만 하였다. 나는 이를 안타까워하지 않는 외국인을 본 적이 없다. 아시아인들끼리는 외국인이 할 수 없는 상대방의 마음을 다루는 기술이 있는 것 같다. 일본 정부가 개입하였을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없지만, 사기무라라는 미우라의 행동 대장은 처벌받기는커녕 이후 승진이 되었다. 왕비의 살해는 이 시기의 가장 야만적인 사건이었지만 서구 세계에는 일말의 영향도 미치지 않았다. 우리 공사가 관심을 가졌기에 나는 그 궁전에 가서 왕비가 칼로 베인 작은 방(경복궁 옥후루)을 보았다. 서울에서 왕비 시신에 케로젠¹³ 기름이 뿌려지고 근처 공원에서 불태워졌다¹⁴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없었다. 그레이트하우스 장군은 왕비에 대해 아시아에서 가장 뛰어난 능력과 지적 소양을 가진 여자였다고 말하였다. 또한 왕비는 중국통이고 외국인들과 매우 원만한 관계를 맺었으며 외국인 학교에 우호적이고 환대를 하며 왕을 지배하였다고 하였다. 왕비는 여느 한국인처럼 그녀의 앞길에 걸림돌이 있으면 명령을 내려서 제거하는 습관이 있었다. 그러나 왕비와 아주 가까운 사이였던 여자 선교사는 왕비가 좋은 여자였고 현명한 통치자였으며 그의 죽음은 한국과 우유부단한 고종 황제 모두에게 불행한 것이라며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였다. 한국에 가장 눈에 띄게 영향력을 미치는 나라는 미국이다. 고종 황제의 탁지부 고문 역할을 맡은 영국인 맥리비 브라운 관세 총괄담당은 대단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미국은 직접적이라기보다 간접적으로 한국에 힘을 발휘한다. 알렌 박사는 현 지위에 오르기 오래전부터 한국 정부에서 일정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가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되어 1884년 폭동(갑신정변)이 발생하였고, 당시 민영익의 몸은 일본에 의해 거의 갈기갈기 잘렸다. 민영익의 상처를 잘 치료한 후 알렌 박사는 왕의 주치의가 되었다. 그가 가진 영향력으로 인해 왕립 병원¹⁵이 세워졌다. 알렌 박사는 고종 황제의 신임을

한 번도 잃은 적이 없었다. 미국 무역회사 제임스 모스는 서울-마포 간 철도 부설권을 획득하였는데, 나중에 부설권이 일본에 팔렸을 때 다들 안타까워하였다. 모스는 북부의 주요 광산 채굴권을 취득하였는데, 이것은 레이 헌트라는 자가 하청을 받았고, 현재 슬롯 파셋이 채굴권에 관심을 보인다고 들었다. 25만 달러 공장이 이미 가동 중이고, 미국의 광부들이 작업 중이다. 광산 채굴권은 너무나 중요하였다. 독일 총영사가 외부대신 서리를 문전박대하였고, 감정이 상한 외부대신 서리가 이튿날 사직하면서 독일인들에게는 어떤 광산 채굴권도 허가하지 않겠다는 말을 하였다. 헬버트 목사는 당시 노벌 학교(관립한성사범학교)의 교장이었고, 헨리 아펜젤러 목사는 배재학교 교장이었다. 전자는 전적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학교였고, 후자는 세 명의 교사를 고용할 정도의 보조금을 한국 정부로부터 받았다. 이 학교는 조정에 통역관을 양성해주었고, 학생들을 통해 한국이 젊은 세대로 교체되어 가게 해주었다. 이들은 졸업 후 독립협회에 가담하였고 조정 관료들을 예리하게 감시하였으며, 탄압 사건을 조사하였고 여러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였다. 클리블랜드 행정부¹⁶ 시절로 생각되는데, 몇몇 열강에 의해 촉발된 사건으로 인해 국무부가 한국에 거주하는 미국 시민들에게 대중 행사에 참여하지 말 것을 경고하는 회보를 보내왔다. 이것은 분명히 선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공고문이었다. 왕이 자신의 문제에 대해 선교사들에게 의지한 것은 이때가 처음이었는데 이것이 비밀은 아니길 바란다. 당시 선교사들이 밤마다 교대로 왕을 경호하였다. 왕은 위협이 가득 찬 곳이든 아니든 다양한 행사에 선교사들이 함께하기를 바랐다. 적어도 이들은 한국의 안녕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정직하고 사심이 없는 사람들이었다. 이런 사람들이 매우 적다는 것을 왕이 제일 잘 알고 있었다. 미국인 선교사들은 북부 지방으로 가서 밀을 시험하였고 한국인 농부들은 소출량에 놀랐다. 미국인 다이와 아펜젤러 목사는 과수 농사에 열을 올렸다. 일본 사과는 맛이 없지만, 한국의 빨간 사과와 녹색 사과는 미국의 복숭아와 견줄 만하다. 일본의 배 맛은 아일랜드 감자의 맛과 비슷하다. 한국의 익은 배 맛은 완벽하다. 일본의 벚꽃은 이상적인 아름다움을 보여준다. 한국의 앵두는 크고 달콤하다. 한국이 아시아에서 최고의 과수 농업국이 안 된 이유를 모르겠다. 유사한 실험을 다른 과일과 채소를 가지고 실시하였다. 선교사들의 이러한 진취성은 한국 정부나 국민들에게서는 찾을 수 없다. 한국 농부는 가장 비참하다. 경작지는 1에이커(약 4,000제곱미터)도 채 되지 않는다. 이들은 관료의 탐욕을 부추기지 않으려 한다. 한국의 황소는 최고 품종이다. 한 농부에게 “그런데 왜 황소 두 마리로 경작지를 확대하지 않으세요?”라고 물었다. “만약 내가 두 마리 황소가 있다

면, 수령이 나에게 돈을 빌려가서 절대 되갚지 않거나, 두 번째 황소를 빼앗을 구실을 만들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근면과 계발이 진작될 수 없다. 이는 왜 한국인이 아시아에서 가장 게으른지 잘 설명해준다. 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도 계도 역할을 한다. 다시 말해, 미국인 선교사들이 주도하는 교회나 실질적인 선교 활동을 통한 역할을 의미한다. 이러한 활동이 국가적 혹은 개인적 차원에서 세력 확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생각보다 훨씬 큰 이해관계가 있다.

1 원문에는 민준영(Min Jun-Yung)으로 되어 있어 바로잡았다. **2** 원문에 인경수(安卿壽, 1853~1900)의 직책을 ‘the president of the Korean Bank’라고 표기했는데 한국은행은 1909년(융희 3) 10월에 설립되었기에 이는 적절하지 않다. 그를 ‘장군(General)’으로 표기한 점으로 미루어 ‘경무사(警務使)’의 오키로 생각된다. **3** 1898년(광무 2) 7월 안경수·김재홍 등이 일으킨 이준용 역모 사건을 말한다. 이준용(李埈鎔, 1870 ~1917)은 흥선대원군의 첫째 아들인 이재면의 장남으로 고종의 조카이다. **4** 귀인 장씨는 명성황후로부터 쫓겨나 궁 밖에서 의화군을 낳았지만, 사약을 받았다는 것은 확인되지 않는다. **5** 순헌황귀비 엄씨(純獻皇貴妃 嚴氏, 1854~1911)를 일컫는다. **6** 고종의 모친인 여흥부대부인 민씨(驪興府大夫人 閔氏, 1818~1898)를 말한다. **7** 1896년(간양 원년) 2월 고종과 세자가 경복궁을 탈출하여 러시아 공사관으로 옮겨간 아관파천을 말한다. **8** 1898년(광무 2) 2월 러시아는 한국 절영도(현 부산 영도)에 석탄 저장고 기지를 건설하겠다고 한국 정부에 초차를 강요하였다. 하지만 한국 관료들과 독립협회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고 끝내 성사되지 못하였다. 이에 당시 공사였던 스페예르(Alexis de Speyer, 1854~1916)는 친러 관료들을 압박하였다. 그럼에도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러시아는 더 이상 한국 정부에 자문 역할을 하지 않겠다고 직원들을 철수시켰다. **9** 러시아는 재무대신 비테(Sergei Y. Witte, 1849~1915)의 주도로 1897년 가을부터 한러은행의 설립을 준비하여 1898년(광무 2) 3월 러시아 공사관 안에 은행을 설립하였다. 하지만 독립협회가 은행의

설치는 “온 나라의 재부(財賦)를 외국 사람의 수중에 바치고자 하는 것”이라며 설립 허가를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다. 결국 한러은행은 설립 6개월 만에 문을 닫고 말았다. **10** 독립협회는 1896년(간양 원년) 서울에서 조직되었던 사회정치단체이다. 1896년 7월부터 1898년(광무 2) 12월에 걸쳐 열강에 의한 국권 침탈과 지배층에 의한 민권 유린의 상황 속에서 자주국권·자유민권·자강개혁 사상에 의해 민족주의·민주주의·근대화 운동을 전개한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인 사회정치 단체이다. **11** 의주로를 말한다. 조선시대 9대 간선로 중 가장 중요한 도로의 하나로 총연장 약 1,080리의 교통 통신로였다. 이 길은 중국으로 통하던 중요한 육상 교통로로서 사신들의 내왕이 잦았으며, 양국 사신들을 위한 휴식처와 숙박소로서 모두 25개의 관(館)이 설치되어 있었다. **12** 독립신문은 1896년(간양 원년) 창간되었던 우리나라 최초의 민영 일간지이다. 국문판과 영문판으로 구성되었으며, 격일간지로 출발하여 일간지로 발전하였다. **13** 원유 이암석 등에서 발견되는 고분자화합물이다. 케로젠이 열과 압력을 받으면 석유(원유나 천연가스)가 된다. **14** 경복궁 향원정의 녹원에서 불태워졌다. **15** 제중원을 말하는데 1885년(고종 22) 4월 한국 최초의 서양식 병원으로 개원하였다. 제중원은 1904년(광무 8) 세브란스 병원으로 재탄생하였다. **16** 콜리볼랜드 대동령이 두 번째로 집권한 1893년부터 1897년까지의 행정부를 말하는데 하와이 병합과 관련한 논쟁을 거친 뒤에 미국이 정한 방식에 따른 새로운 공화정을 성립시켰다.

01 왕비의 시체를 불태운 곳
02 서울, 알현실
03 알현실 근처 대기실

798

HARPER'S WEEKLY



UNTIL Korea has been exploited comic opera need not despair. Conspiracy is the Korean method of official advancement. The cabinet ministers seem to be recruited from jail. Every man of prominence looks forward to losing his head one time or another, as all in the day's work. The next week the Emperor as likely as not wishes he had saved that man his head to make him chief of state.

I was in Korea during one of these fortnightly conspiracies. This time the victims were of unusual importance. The chiefs were Min Jun-Yung and Pak Jun-Yung. The latter will be remembered as the first minister to this country. At this time he was a member of the cabinet—Home Minister. Min Jun-Yung, at the breaking out of the China-Japanese war, was the power behind the Korean throne. He belongs to the conspicuous Min family, of which the murdered Queen was a member. Another of the conspirators was supposed to be General An Kyeng-Su, who was Minister of War at the time the Queen was murdered, and was then the president of the Korean Bank. The plot was alleged to involve the murder of the Emperor and raising the Crown-Prince to the throne. The Crown-Prince is generally regarded as half-witted. He was the only son of the Queen, and treated by her as a baby, although he was a much-married man.

These constant conspiracies are the result of a weak ruler under the influence of the last person who has his ear. The King would be an admirable country gentleman. He has the misfortune to be a ruler. His mind is encumbered with details. He listens to every little detail, and is unmoved by a fire-cracker. He has abandoned his old palace and built a new one in the midst of the legations. But while they occupy the slopes, he dwells in a reconstructed frog-pond at their feet. He is satisfied, for at the sound of a rifle he can shin over the palace wall and place himself under a foreign flag.

The spectre that haunts him is that of Pak Yung-Ho, then a refugee in Japan, and said to be the ablest man Korea has produced. His first wife was the daughter of the old king; and although she died years ago, he takes rank from her. The present King, who was the second son of the late Tai Won-Kun, was not the direct heir, but an adopted son of the Queen Cho. Pak Yung-Ho is a progressive, and a favorite with the people. A short time before he went from Tokio to Nagasaki to see his daughter, and it convulsed the throne.

The presence also of three princes of varying conditions also makes conspiracy lively. So long as the Queen lived the position of concubine was purely official. Prince We Wha was the son of a concubine to whom the Queen presented a cup of poison. It is he who a few years ago was sent to this country with fine promises. The government, however, in its usual

manner, forgot his remittances, and he returned to Japan, where, as he is a fine young fellow, much liked by the foreigners and popular with the people, he is a distinct menace to the throne.

The third claimant is another story. Before the palace gate there is usually a group of men squatting around a low table on which lies a small bale of paper. These are memorialists of one sort or another waiting the presence of the King. When I was there the memorialists were urging the King to marry. "The presence of the Tong Haks [a species of rebel], Christianity, famine, and sickness is owing to the fact that the King is a widower. So let him raise the Lady Om to the rank of Empress." Thus the memorial ran. Now the Lady Om is a concubine of the second rank, who a short time before had presented the King with a

following in another. No one is allowed to lift the curtain of a woman's chair in Korea; for a woman of position must not be exposed to the gaze of a man. Lady Om said she was taking home her sick aunt. Thus the King and Crown-Prince escaped. That he would have been eventually murdered by his attentive family every one believes. This occurrence seemed to strengthen Lady Om's chances, and naturally she was looking out for the prospects of her young son.

The King is always biting the dust in public. He informs his people that he cannot eat on account of this and he cannot sleep on account of that. His edicts rank with the best of comic literature. I copied, when there, some of his daily confidences.

"The defence of the country is a matter of the utmost importance. This is true at all times, but especially so to-day. Hence We by a previous edict placed Our Army and Navy under Our direct command." The fact that Korea had no navy was purely incidental.

The following was another: "The welfare of Our people is Our constant thought. We realize that since last year's disturbance Our people have suffered greatly on account of lack of peace and order. The dead suffer as much as the living, but Our government has not done anything to ameliorate existing conditions. This thought worries us so much that the affliction by which We are surrounded is rather uncomfortable."

This seems too good to be confined to the Korean archives: "January 14, 1896.—Laws and rules proceed from the King. Three-and-thirty years have elapsed since We ascended to the throne. Treaty relations must be observed with the nations of the world, and changes be introduced in politics. We have therefore adopted the new calendar, introduced a title of the reign, changed the style of dress, and cut off the top-knot. You should not regard Us as loving innovations. Wide sleeves and large hats have become familiar by usage. The top-knots and head-bands, once regarded as novelties when first introduced for the sake of convenience, became fashionable only because people liked them. But that they, the top-knot and head-band, stand in the way of activity and health is true. Nor is it right in this day of ships and vehicles that we should stick to the customs of the excellent past."

How many times the King has cut off and resumed the gun-trigger style of hair I shall not undertake to say. It must be admitted that in the dismissal of the Russians the King scored. Mr. Speyers was not the best tempered of diplomatists, and being checked by the Independence Club in the Deer Island matter, and in the establishment of the Russo-Korean bank, he created a diversion by asking if Korea desired the continued presence of the Russian military instructors, and somewhat saucily demanded an answer within twenty-four hours. The answer was made with the customary humili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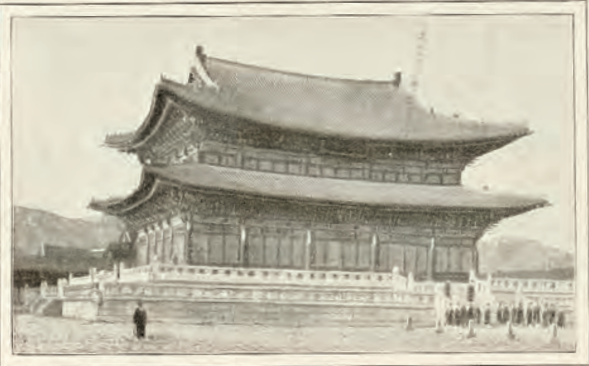
"Your inquiry makes Us feel ashamed, but Our gov-



01 WHERE THE QUEEN WAS BURNED.

Prince. Her ambitions have been well known. She seems to be a quick-witted person, and the King is under several obligations to her. It was she who planned and effected his Majesty's escape to the Russian legation some time ago. It is rather an interesting story.

After the murder of the Queen, his family never left him out of sight, taking the duty by turns. The King does all his work by night, finding it safer to sleep by day. On this particular night the watch fell to the lot of his old mother and the Dowager Queen. The King managed to get the old ladies to talking over old times, after the manner of their kind, until they talked themselves to sleep. Towards morning, when they were both safely nodding, he slipped out and got behind the Lady Om in her chair, the Crown-Prince



02 GRAND AUDIENCE-HALL, SEOUL.



03 WAITING-HALL, NEAR THE AUDIENCE-HALL.

<div><div></div>HARPER'S WEEKLY</div>	<div><div></div>799</div>
<div>ernment will be more careful and studious in the discharge of Our responsibilities, so that there will not be any further need of causing anxiety to your Sovereign. The decision was arrived at by the unanimous wishes of the old statesmen, the present government, and the people at large. Also through the enlightenment and the independent spirit which your government has so diligently inculcated among us.” The King proceeded to say that he would send an embassy to Russia thanking for past favors, and with the information that Korea could now look after herself. Mr. Speyers, it is said, tore his diplomatic hair at being taken up so promptly, and replied that the King need not take the trouble; he could tell his Emperor himself. This correspondence is noteworthy, since for the first time in the history of Korea the people are recognized as a factor to be considered. This was due to the action of the Independence Club, which called a mass-meeting, answered by 8000 people.</div> <div>The Independence Club was founded by Dr. Philip Jaisohn, a Korean who now lives in Philadelphia as a naturalized citizen. He had been called back to Korea as adviser to the King, but his influence and progressive spirit frightened the government, which paid him his salary, and begged him to go back to his new home. The Independence Club comprehends the young blood of Korea, the student class. It built the Independence arch which commemorates the spot where Korean monarchs used to meet the Chinese embassies and recognize the sovereignty of China, and its pretty club-house in view of the narrow defile called Peking Pass. The head of the club at this time was Mr. Yun, the editor of the Korean <i>Independent</i>, an English tri-weekly. Mr. Yun belongs to a family that has given two queens to Korea. He is young, good-looking, speaks English perfectly, and in his writing has a gayety of mind and lightness of touch more Occidental than Oriental. “He has a future if he can keep his head on,” said one of his friends to me, alluding to the easy Korean method of thus successfully ending an argument.</div> <div>When I was there the Chinese influence was paramount. The cabinet was conservative. The Western uniforms of the army, the police, and the schoolboys were a grievance. The Minister of Education and the schoolboys had come into a personal conflict, and young Korea shook its fist in the dignitary’s face. I did not meet a foreigner in Seoul who did not regret that Japan, owing to the part taken by its minister in the murder of the Queen, had thrown away its influence, which under Count Inouyé was reconstructing Korea on progressive lines. The Asiatic mind is fitted to deal with the Asiatic mind as the foreigner cannot do. While no one believed that the Japanese government was implicated, it was observed that Sagimura, the active spirit for Miura the tool, was not only not punished, but was afterwards promoted.</div> <div>The murder of the Queen, the most barbarous event of this epoch, scarcely created a ripple in the Western world. Through the interest of our minister, I went over the palace, and saw the little room in which she was cut down. It was not believed in Seoul that she was dead when her body was drenched with kerosene and burned in the adjacent park. “Queen Min,” General Greathouse said to me, “was the ablest, the most intellectual, woman in the East.” She was a fine</div>	<div>and in which, I am told, Mr. J. Sloat Fassett is now interested. In this a \$250,000 plant was already in action and an American colony of miners at work. This concession was a matter of such importance that while I was there the German Consul-General pushed the Acting-Minister of Foreign Affairs off his doorstep and hurt his feelings so that the next day he resigned, the cause being the refusal of Korea to grant a similar concession to some Germans.</div> <div>The Rev. H. G. Hurlbert was then at the head of the Normal school, the Rev. H. G. Appenzeller the President of Pai Chai College. The former, I believe, is wholly a government school; the latter received a subsidy from the government sufficient to pay for three instructors. This school furnishes interpreters to the government, and from its students comes young Korea, who straightway joins the Independence Club, and keeps a sharp lookout on cabinet ministers, follows up cases of oppression, throwing light now in this direction and now on that. It was during Mr. Cleveland’s administration, I think, that, prompted by some of the powers, the State Department sent out a circular letter warning its citizens in Korea against taking part in public events. It was perfectly understood that the missionaries were meant. But it was at this time—I hope I am relating no secrets—that the King turned to them in his hour of trouble. It was the missionaries who took turns guarding him by night. It was the missionaries he desired to be present on different occasions which might or might not be full of peril. At least they were honest disinterested men who had the welfare of Korea at heart. No one knows better than kings how rare such are.</div> <div>It is the American missionary up North who experimented in wheat and astonished the native farmer by his yield. General Dye and Rev. H. G. Appenzeller vied with each other in fruit-raising. The Japanese apple is tasteless. The Korean Baldwins and pippins rival the American orchard. The Japanese pear tastes like an Irish potato. The Korean Bartlett ripens to perfection. In Japan the cherry blossoms are dreams of beauty. The Korean cherry is large and inscious. There seems to be no reason why Korea should not yet be the great fruit-raising country of the East. The same experiments are going on with other fruits and vegetables. Such enterprise on the part of the missionaries is lost neither on the government nor the people. The Korean agriculturist is the most miserable of his kind. He rarely cultivates more than an acre of ground. He dare not tempt the rapacity of the officials. The Korean bull is the noblest of his race.</div> <div>“But why not, my friend, have two bulls and cultivate more ground?” a farmer was asked.</div> <div>“If I have two bulls the magistrate will want to borrow money of me, which he would never repay, or he would make some pretext to take my second bull.” This is not an incentive to industry or acquisition, but it makes plain why the Koreans are apparently the laziest of the Eastern peoples.</div> <div>The corrective is this same indirect influence. That is to say in the teaching and practical missionary work which is so largely in the hands of the Americans. We have more interest in it than we are aware, even if it is not a matter of national or personal aggrandizement.</div>



KOREAN PRISONERS WITH THEIR HEADS IN WOODEN COLLARS.

한국과 황제

엘프리드 스테드'

“황제는 중간기에 약간 뚱뚱한 편이었다. 황제는 유쾌하고 만면에 미소가 가득한 반면, 황태자는 둔해 보이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무감각해 보였다. 황제는 꽤나 서양식으로 아내와 먼저 악수를 하고 난 후 나와 악수를 하였다.”

Harper’s	연대 미상
Monthly Magazine	pp.575~582
하퍼스 먼슬리 매거진	구6800
미국	23.3×14.5

라운²의 사택이 그렇다. 러시아 공관은 왕궁이 내려다보이는 작은 언덕 위에 있다. 러시아 공관은 아마도 교회 건물을 제외하곤 가장 눈에 띄는 건물이다. 일본 공관과 군대는 옛 궁궐(경복궁) 근처에 위치하여, 황제의 현 거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 이것은 아마도 몇 년 전에 일본과 문제가 있었을 때 황후가 일본인의 손에 살해당했고, 그 사건이 발생하고 1년 후에 황제가 러시아 공관으로 피신하여 1년 동안 러시아의 보호하에 생활하게 되면서 그 옛 궁궐은 방치되었다는 사실과 관계가 있을 것이다.

혼란한 상황이 정돈되었을 때 황제는 소위 신궁(경운궁)이라고 불리는, 예전에 그의 아버지(홍선대원군)가 섭정하면서 거주하였던 현 거처로 이사하였다. 황제는 외국 공관이 왕궁에서 너무 가까운 곳에 있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과 영국 공사에게 편지를 보내어 언제 현재 위치에서 이전할 것인지를 묻곤 하였다. 그러면 그 외국 공사들은 예의를 갖추어, 황제가 궁에 오기 전부터 이미 현재 위치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황제가 불편함을 느낀다면 황제가 이사해야 한다고 답하였고, 공관은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

매일 새벽 4시가 되면 황제는 휴식을 취하기 위해 퇴청하고 마을 사람들 은 기상한다. 그 시간이면 일군의 군인들이 끊임없이 동일한 음으로 북과 나팔 연주를 하며 궁 주위를 행진하기 때문이다. 이 행진은 약 한 시간가량 이어지는데, 열심히 연주하고 행진을 훌륭히 하고 나면 군인들의 그날 업무는 끝난다. 나는 이것이 외국 공사들에게 한국에 군대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외에 어떤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다.

그 외 오전 시간에는 궁내 혹은 근처에서 다른 소란스러운 행사는 없다. 그러나 정오 즈음에는 관료들이 궁에 도착하는데, 이들은 대부분 궁궐의 대문 앞에서 관복으로 갈아입는다. 옷 짐을 든 하인이 거드는 가운데 관료들은 아무렇지 않게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 자신의 일상복 위에 얇은 초록색 관복을 입고 모자를 관모로 바꿔 쓴다. 그러고는 대문을 통과한다. 궁에서 나올 때도 반대 순서로 동일한 과정을 진행한다.

무관은 막사 근처의 옆문으로 드나든다. 무관들은 지위상 말을 타는 것이 필수인데, 안장 옆으로 두세 명의 졸병들이 따르고 작은 말 위에 몸을 세우고 달리는 모습을 보는 것은 매우 흥미롭다. 늦은 오후에는

황제를 알현한 관료들이 초록색 황실 의자를 타고 궁문을 통과한다. 밤에는 축제 소리와 전통 음악이 거의 이튿날 아침까지 궁에서 흘러나온다. 궁에서 가장 자랑스럽게 내세우는, 한 귀퉁이에 서 있는 현대식 벽돌 건물의 알현실(중명전)이 매우 어색하다.

대한제국의 황제 이희(高宗)는 조선의 26대³ 왕이다. 조선 왕조는 500여 년 전에 고려의 왕좌를 강탈하였다. 황제는 백성들에게 신적인 존재이고 황제의 말 한 마디가 백성들에게는 굉장한 힘을 가진다. 황제는 대단한 잠재 권력을 가졌지만 사실상 기회를 거의 빼앗긴 채, 끊임없이 조정을 간섭하는 국제적 갈등 속에서 조심스럽게 처신해야만 한다. 황제가 하루를 늦게 시작하는 습관이 있고 알현이 오후 시간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알현은 5시로 정해졌다. 그 시각을 얼마 안 남겨 놓고 우리는 황실에서 보내온 가마를 타고 공관을 떠났다. 가마는 구식 가마 모양이고 의자가 있었고 안팎으로 초록색이었다. 보편적으로 한국의 가마에는 좌석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바닥에 앉아야만 한다. 앞에서 2명, 뒤에서 2명 총 4명의 남자가 우리 가마를 들었다. 조정 대신과 통역관의 수행을 받으며 우리는 군사들이 지키고 있는 성벽을 통과하여 감시병과 기관총을 지나서 궁문으로 향하였다.

우리는 가마에서 내려 문을 통과하여 알현실 근처의 작은 대기실로 들어갔다. 통역관은 검은색 코트를 입은 유럽 스타일의 한국인인데, 우아한 견사 모자를 쓰고 점잖은 체하는 느긋한 얼굴이었다. 대기실은 옛 한국식 건물 안에 있었다. 크기가 매우 작고 유럽풍으로 꾸며진 대기실은 참 보기 흉한 모습이었다.

전등이 있었고, 바닥에는 화려한 프랑스산 카펫이 깔려 있었다. 아름다운 한국 의자는 우스꽝스러운 유럽 의자들에 가려 잘 보이지 않았다. 책상 위에는 치렁대는 식탁보가 깔려 있었다. 이 수준 낮은 방 안에 문명이 가져다 준 혜택이 있다면, 그것은 ‘침략자’라는 단어가 앞에 크게 쓰여 있는 커다란 미국산 스토틈브였다. 창문은 없었고 뚫린 곳은 매우 가늘고 가벼운 한국식 대나무 커튼이 걸려 있었다. 외부대신(박계순) 및 궁내부 대신(윤정구) 등 여러 한국 관료가 함께 있었는데, 공통의 언어인 악수를 나눈 후에 자리에 앉으니 다과가 제공되었다. 이집트산 담배와 유리잔에 일본산 광천수가 제공되었다.

조정 신하들의 관복은 어두운 초록색 얇은 천으로 만들어졌고, 다른 한국 의복과 마찬가지로 길게 늘어졌다. 그들이 쓴 관모는 특이한 검은색 얇은 천으로 만들어졌고, 원편과 오른편 머리 뒤로 날개가 튀어나와 있다. 거의 모든 관료가 큰 허리띠를 착용하는데, 고관대각일수록 매우 멋졌다. 이 허리띠는 굉장히 딱딱한 재질로 금속과 돌로 만들어졌다. 이 험령한 허리띠는 등 쪽으로 몸에 밀착시키기 때문에 착용자의 가슴 쪽으로 상당히 튀어나와 있다.

대부분의 장관들은 한국말만 하였는데, 그중 한 사람은 프랑스어를 매우 잘 구사하고, 또 다른 사람은 어느 정도 영어를 구사할 수 있어서

놀랐다. 우리는 대기실에서 몇 분 대기하는 동안에 프랑스어를 잘하는 관료와 대화를 나누었는데, 그는 놀라울 정도로 해박하고 지적이었다. 그는 외국에 가본 적이 전혀 없이 독학으로 프랑스어를 배웠다고 한다. 우리는 영국 왕의 대관식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었고, 최근에 미국 회사가 서울에 설치한 전차에 관해서도 이야기를 하였다. 그는 전차로 인해 한국 아이들에게 일어난 안타까운 사건에 매우 통탄하였다. 한국의 아이들은 거리에서 노는 것이 습관이 되어서 굉장히 빠르고 조용하게 달려오는 이 물체를 알지 못하여 길에서 놀다가 크게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그가 아이들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감동적이었고 굉장히 유창했으며 지적인 느낌을 주었다.

황제가 목욕을 하는 관계로 행사가 몇 분 지연되었다. 괴로울 정도로 날씨가 더운 날이면 황제는 알현을 하지 않는 빈 시간을 욕조에서 보내며 몸을 시원하게 하는 것이 황실 관행이다. 곧 황제가 알현실에 있다는 말이 들려왔고, 우리는 외부대신과 궁내부 대신을 따라 유리로 덮인 복도를 통과해 상당히 신식이고 근대적 양식인 본관 건물로 이동하였다. 복도를 통과하면서 우리는 여자와 아이 몇몇을 볼 수 있었다. 이들은 황실 가족들로서 궁궐 밖으로 나가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이들의 외모는 그다지 관심을 끌지 않았으며, 전차로 인해 한국 아이들에게 일어난 안타까운 사건에 대해 매우 통탄하였다.

본 건물에 들어가서 화려한 유럽산 카펫 외에 다른 장식이 없는 두 개의 작은 현대식 방을 통과하였다. 두 번째 방의 문간에서 관료들은 옆드려 절하였고, 알현실에 들어갈 때도 옆드려 절하였다. 두 번째 방을 나와서 직각으로 왼쪽으로 몸을 돌리고는 일반 복도를 통과하여 알현실에 들어갔을 때 우리 앞에 황제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예상치 못한 충격을 받았다. 모든 것이 너무나 작았고 장엄한 느낌과는 거리가 멀었으며, 무엇보다도 동양적이지 않았다. 작은 나무로 된 사각형 방의 벽은 질 낮은 프랑스산 벽지로 발라져 있고, 천장은 퇴색했으며 바닥에는 밝은 붉은색과 초록색의 카펫이 깔려 있으며, 싸구려 레이스가 달린 커튼이 유리창을 덮었다. 전체적으로 우울한 느낌에 더하여 조악하게 표구한 두 개의 다색 석판화가 황제 뒤 벽에 걸려 있었다.

황제는 방의 반대쪽 끝에 놓인 괴상한 테이블보를 깐 것 외에는 평범한 현대식 테이블 건너편에 서 있었다. 그의 왼편에 황태자가 서 있었다. 우리가 잠시 놀라서 가만히 있다가 테이블을 향해 나아가자, 통역관은 우리 왼편에 자리 잡았다. 황제 본인만이 유일하게 동양의 화려함을 내뽐고 있었지만 주변 환경이 받쳐주지 않아서 안타까웠다.

황제는 중간키에 약간 뚱뚱한 편이었다. 황제는 유쾌하고 만면에 미소가 가득한 반면, 황태자는 둔해 보이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무감각해 보였다. 황제는 꽤나 서양식으로 아내와 먼저 악수를 하고 난 후 나와 악수를 하였다. 그런데 우리가 테이블 위에서 손을 뭉칠 때 재미난 일

이 벌어졌다. 황태자 얼굴에 괴로운 빛이 스쳐 지나가더니 그가 우리 손을 잡고 격하게 악수를 한 것이다. 황태자는 황제가 하는 것을 모두 따라하고 싶어 해서 아버지 손에서 빠져나가는 사람의 손을 잡고 악수를 하는 것이다.

황제는 가슴 부분의 원 안에 용이 금실로 아름답게 수놓인 험령한 노란색 견사 예복을 입고 있었다. 허리띠는 금속 바탕에 불투명한 노란색 돌로 장식되어 있으며 황제의 가슴에서 앞으로 몇 인치 튀어나와 있었다. 황제는 팔, 가슴, 등에 얇게 짜인 대나무로 만든 보호대 같은 것을 착용하였는데, 이는 더운 여름에 옷이 황제의 피부에 직접 닿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이러한 것들로 인해 황제는 실제보다 더 뚱뚱해 보였다. 머리에는 두 겹의 보라색 천으로 만들어진 것을 쓰고 있었는데, 고대 일본에서 착용하였던 것과 매우 유사하다.

한국 군대가 처음 창설되고 난 후, 대신들이 알현을 할 때 황제는 전통식 예복을 입지 않고 군복을 입었다. 그런데 외국인 사신을 접견할 때는 계속해서 익선관을 착용하고자 하였고, 외국인 공사들은 자연히 그 모습을 참을 수 없어 만약 황제가 유럽식 복장을 입을 때 익선관을 벗지 않는다면 자신들도 모자를 계속 쓰고 있겠다고 협박하였다. 그러나 한국의 사대부가 공적인 공간에서 관모를 쓰지 않는다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일이기에 그들의 요구는 애당초 불가능한 것이었다.

결국 황제는 제복 입기를 포기하고 다시 옛 어의와 익선관을 착용하기 시작하였다. 황제는 왼쪽 가슴에 금 도량을 뜻하는 커다란 훈장을 달고 있다. 훈장의 영어 이름 ‘Golden Measure’는 서울 주재 영국 공사 거빈스가 지었다. ‘Golden Rule(금칙)’이 한국명의 의미를 더 정확하게 표현하지만, 이미 그 단어가 활용되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황제는 한국 훈장 아래에 일본 훈장을 달고 있었다.

황제는 자주 웃었고 대체로 쾌활하였으며 통역을 통해 우리와 활발하게 대화를 나누었다. 우리를 소개받은 후 그는 우리의 건강 상태에 관해 질문을 하였고, 한국을 방문해서 기쁘다고 말하였다. 우리는 황제가 건강해 보인다고 말하였다. 그 후 황제는 우리가 일본에서 왔는지, 한국 이전에 몇 개국을 다녀왔는지를 물었다. 우리는 황제가 지리 정보가 부족할 것을 우려하여 예의 바르게 여러 나라를 많이 방문하였다고 말했는데, 황제에게는 만족스러운 답이 아니었는지 통역관이 재빨리 8개국이라 말을 해버렸다.

우리가 만주와 시베리아를 거쳐 여행을 하게 된 동기에 대해 말을 하자 황제는 놀라며 이는 대단한 일이고 서울의 삶도 멋지지만, 변화를 주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대답하였다. 우리는 내년에 있을 에드워드 왕의 대관식⁴에 대한 대화를 하였고, 사절단 파견을 희망하였다. 황제는 특사를 임명하기 위해 정확한 대관식 날짜가 고지되기를 기다릴 뿐이라고 답하였다. 또한 미국·영국·독일·프랑스에 대사를 파견하였다고 말하였다. 그렇게 한 것이 그에게 꽤나 만족스러운 듯 보였다.

우리가 이러한 대화를 나누는 동안, 황태자는 대화에 참여하지 않았다. 황태자는 목 부분이 짙은 초록색으로 장식된 빨간색 예복을 입고 있었고, 목 안으로 속에 입은 옷이 보였다. 빨간색 허리띠와 황제의 관모와 유사한 보라색 천의 관모를 착용하였다. 그는 서 있는 동안 몸을 좌우로 흔들었는데, 다리를 기댔 테이블이 없어서 계속 서 있기 불편하였던 것이 분명하였다.

알현이 마무리될 때 황제는 악수를 청하였고 이에 황태자도 악수를 하였으며, 황제는 웃으며 우리에게 무사귀환을 빌어 주었다. 알현실을 나오면서 관료들은 부복하였고 우리는 고개를 숙었다. 황궁을 나오면서 가장 먼저 든 생각은 한국인들이 섬기는 신적 존재이자, 야심에 가득 찬 국가들의 허수아비인, 미소 짓는 노인에 대한 불쌍한 마음이었다.

인간 사회에서 가장 조잡한 저 작은 방에 있는 그를 보고 불쌍해하지 않을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러한 연민의 감정이 생기기도 했지만, 곧이어 황제가 조정 일을 하면서 그의 지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즐거움도 상당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도 또렷이 들었다. 대신들이 각기 다른 비밀 책략들을 펼치는 것이라 해도 좋을 것이다. 그리고 황제가 노련함이나 유머가 없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도 많다.

알현이 끝나고 조정 대신이 황제와 이야기를 마무리하는 동안 우리는 대기실에 가서 앉았다. 따뜻한 샴페인 대접을 받았고, 알현하기 이전에 중단되었던 이야기를 다시 이어갔다. 우리에게 소개 차 찾아온 여러 관료와 유명 인사들에게 신경을 쓰고 있는 동안에 한국의 낮은 직급 신하들이 우리의 샴페인을 마셔버렸다.

우리는 이 사실을 황제의 건강을 위해 건배하자는 제의가 있어서 외국인인 우리만 빼고 다들 샴페인을 마시기 전까지 몰랐다. 나중에 그 대신이 매우 재미있어 하며,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매우 질이 낮은 중국산 샴페인을 주문하기 때문에 조정에서 알현할 때 격식에 따라 빈번하게 건배를 할 때면 조금이라도 이 술을 마셔야 하는 신하들로서는 곤혹스럽다고 설명하였다. 작별 인사로 악수를 하고 우리는 초록색 가마를 타고 궁을 떠나 공관으로 돌아왔다.

이튿날 우리는 대한제국 황실의 부채 한 묶음을 받았다. 무늬 없는 나무와 종이로 만들어진 부채는 예쁘고 예술적인 느낌을 주는 좋은 기념품이었다. 저녁에 궁에서 만찬이 열렸다. 유럽식 만찬이었다. 황제와 황태자는 이러한 만찬에 절대 참석하지 않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한국인이 갖는 수준의 호기심을 드러냈다.

황태자가 문뜬으로 만찬을 훑쳐보는 모습을 몇 번 들켰다. 그의 긴 견사 관복에서 나는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통해, 황태자가 손님들에게 들킨 것을 눈치 채고 황급하게 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긴 만찬이 끝나고, 궁궐의 무용수들이 공연을 준비하였다. 뭉새기고 우아하지 않은 이들 중에는 얼굴에 수두 자국이 남아 있는 사람이 많았다.

음악은 이상한 음을 내며 시끄럽게 울렸고 그들의 춤은 일본의 게이

사에게서 볼 수 있는 우아함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상당히 오랜 시간 춤 공연이 이어졌고 사람들은 준비된 술을 많이 마셨다. 마침내 무용수들이 지치고 헤어질 시간이 왔다. 황제와 신하들은 몇 시간 동안 해산하지 않으며 계속 남아 있었다. 무용의 배경 음악이 매우 듣기 싫었지만 이들은 전에 일본 조정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독일인 지휘자⁵가 연습을 시킨 한국인 악단이다.

앞서 암시하였듯이 황제는 항상 여러 나라의 공관이 궁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이사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 최근에 한국이 대영 제국과 마찰이 있었을 당시, 영국 전함 여러 척이 제물포항에 왔을 때 하루는 황제가 영국 공사를 불렀다. 그는 부드럽게 웃으며 한국의 궁이 더 컸더라면 영국 장교들이 와서 머무르고, 한국인들이 영국인들을 볼 수 있었을 텐데 그렇지 못해서 안타깝다고 말하였다. 그는 궁 근처에 방이 여러 개인 크고 멋진 집을 만들기 싫어하지 않았을까?

또 한 번은 열띤 논쟁이 있는 알현이 열렸을 때, 영국 공사가 한국 대신⁶의 방문을 받고 놀란 적이 있다. 대신은 자신이 영국 세인트 제임스 왕실 공사로 임명되었다고 소개하였다. 그는 황제가 영국 공사에게 작은 부탁을 하기 위해 자신을 보냈다고 말하였다.

런던은 한국에서 매우 먼 나라에 있으니 돈을 보내는 것이 위험하다. 그러니 거빈스 공사⁷가 영국 외교부에서 받는 월급을 자신이 받고, 거빈스 공사는 서울에 있는 동안 대한제국의 외부外部로부터 월급을 받는 식으로 조치를 취하면 편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하면 실제로 송금할 필요가 없게 된다. 황제의 입장에서 그러한 조치는 황제가 국제 관계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암시한다. 그리고 기회가 되면 언제든지 문호 개방의 장점을 취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황제는 거의 궁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그는 1년에 한 번 서울을 나서는 행차를 하지만 꼭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다. 황제의 행차는 동양식이지만, 제대로 이해되지 못한 서양식으로 꾸며진, 길이 번지르르한 화려한 행렬이다. 이 행사에서 가장 엄청난 것은 행사비를 처리하기 위해 탁지부에서 발행한 계산서이다. 하루 행사에 드는 총 비용은 70만 엔(약 35만 달러)에 육박한다. 엔화의 구매력을 감안하였을 때 굉장한 액수이다. 자세한 사항은 거의 알 수 없지만, 어찌해서 제공된 상세 내역을 보면 한 편의 코믹극이다. 외국 대표단에게 제공할 샴페인이 7만 엔(약 3만 5,000달러)까지 나간 적이 있다. 물론 막대한 액수의 돈이 대부분 착복되고, 황제도 자기 몫을 챙긴다.

황제는 매우 높은 이윤을 창출하는 또 다른 재원이 있다. 바로 민간인에게 화폐 제조 특허권을 판매하는 일이다. 2.5센트에 해당하는 5전짜리 구리 동전 주조권을 민간인에게 판매할 수 있는 권리이다. 약 4,000달러에 해당하는 8,000엔에 이 권리를 구매하면 구리 동전을 주조하는 특권을 받게 되고, 매달 약 2,000달러에 해당하는 4,000엔을 추가로 지불한다. 황제에게 이것은 매우 훌륭한 사업이다. 황제는

더 큰 이윤을 위해 주기적으로 화폐 주조권 판매를 중단하는 제도를 만들어 초기 프리미엄을 자주 다시 받을 수 있도록 해놓았다. 또한 최근에는 미국에 5전짜리 동전 200만 개의 주조를 의뢰하였다고 한다. 이렇게 하는 데 실제 드는 비용은 각 동전당 2전에 해당하는 1센트이기 때문에 이를 통해 약 3만 달러의 이익을 남길 수 있다.

외국인에게 허용되는 영업권 보유세에 대해서도 언급해야겠다. 영업권 보유자에게 실제 가치 이상으로 세금을 과하게 부과하는 경우가 빈번하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 우리가 서울에서 들은 바에 따르면 대체로 다음과 같은 일들이 생긴다고 한다. 한 영국인 관료가 한국에서 사망하면, 한국의 조정은 하늘만이 그 뜻을 알며, 그 부인은 모종의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믿는다. 이에 따라 그의 부인은 황태자의 가정교사 직책에 임명되어 공식 급여를 받는다. 그러나 그녀가 직책을 맡은 3년 동안 학생인 황태자를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추가 3년 동안 그 직책을 맡길 준비가 이루어졌다. 대한제국 황제의 옛 궁궐은 이보다 조금 작은 신축 궁궐에서 약간 떨어져 있는데, 북악산에 가깝다. 그 산에 관련된 전통적 믿음에 따르면, 산에서 마지막 나무가 사라지면 한국은 멸망한다는 것이다. 때문에 북악산에서 나무를 하는 이는 사형에 처해진다.

여전히 나무가 많이 있지만 산 정상에는 딱 한 그루의 거친 나무가 외롭게 서 있다. 이는 마치 그 예언이 이루어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 같다. 산 아래 버려진 채 남아 있는 궁을 보면 그런 느낌이 더욱 강해진다. 궁 담벼락이 몇 에이커의 지면을 둘러싸고 있고, 성곽이 주변 언덕과 숲이 우거진 한 골짜기로 깊숙이 뻗어간다. 무수한 건물, 연못, 내부 담벽, 돌이 성곽 안에 흩어져 있는 모습이 하나의 궁이라기보다 산만한 도시의 모습이다.

궁의 주 출입구는 서울에서 가장 큰 도로의 끝에 있다. 출입문은 그 아래로 널리 흩어진 천한 백성들의 집을 내려다보듯, 상당히 웅장한 경관을 연출한다. 그러나 현재 이 대문은 열리지 않는다. 대문은 원래 왕과 왕족들의 전용문이었다. 대문으로 이어지는 도로는 특이한 모양의 사자 석상 두 개로 장식되어 있다. 궁궐의 입장 허가는 궁내부에서 내린다. 일상적인 목적으로 출입을 하는 대문은 다른 편에 있다.

성벽 위로 위엄을 연출하는 높은 대문에 일본 경찰의 제복을 흉내 낸, 전혀 예상치 않은 스타일의 제복을 입은 한국인 경찰관 몇 명이 서 있다. 옛 궁에는 군인들은 없고 유일하게 경찰들이 경비를 맡고 있다. 그들은 한국어와 일본어를 약간 구사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경비로서의 권한을 갖고 여러 문의 개폐를 담당하는 것이다. 대문의 천장에는 탈색되지 않고 멋지게 날씨의 변화를 견뎌온 화려한 색의 용무늬가 장식되어 있다.

성곽 안의 것들은 돌보는 손길 없이 버려져 있다. 화려한 중국식 색으로 칠해진 여러 건물이 풀이 무성하게 자란 뜰과 새들에 의해 더럽혀

져 있다. 과거에 위대함을 상징하였던 비석들이 황량함과 비애를 더욱 강조하는 것 같다. 몇 분간 회랑과 벽을 따라 복잡한 길을 가다 보면 큰 마당이 나오고 그 가운데 용상이 있는 커다란 방(근정전)이 나온다. 이 건물에 들어가려면 몇 개의 계단을 올라야 하는데, 마당의 지면에서 떨어져 단 위에 올려져 있고 두 개의 테라스가 있다.

한국인 경찰 경비대가 대문을 열어주면, 큰 전각으로의 입장도 허가를 받은 셈이다. 방문객은 그 건물 앞에서 건축물의 단순미와 규모에 놀란다. 건물은 흰색 돌 기단 위에 놓인 붉은색의 커다란 나무 기둥을 제외하고는 텅 비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 천장과 위엄이 있는 지붕은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다. 바닥은 썩어가는 매트와 잡동사니와 다년간 쌓인 먼지로 덮여 있다.

주 출입구 바로 반대편에 왕의 연단이 놓여 있었다. 기둥 때문에 뒤로 밀려서 여섯 걸음을 걸어야 도달할 수 있는 현재의 위치에 놓인 것 같다. 연단 위에 왕좌가 놓여 있고, 그 뒤에 아름답게 조각되고 장식된 병풍(일월오봉도)이 여전히 원래 색깔을 유지한 채 세워져 있다. 이것도 왕좌와 마찬가지로 붉은색으로 칠해져 있다.

병풍 뒤에 그림이 걸려 있는데, 아직도 원래의 색깔이 살아 있었다. 왕좌 위로 천장이 아름답게 장식되어 있고 장난치며 노는 용들의 모습이 묘사되어 있다. 왕은 이 왕좌에 앉아서 테라스를 넘어 이어지는 마당에서 직급에 따라 쪽 사열한 귀족과 신하들을 내려다보았을 것이다.

근정전의 대단한 규모와 단순함과 웅장함만 보아도 과거에 실제 왕을 알현했던 모습을 어렵지 않게 상상할 수 있다.

<div><div></div></div>
1 앨프리드 스테드(Alfred Stead, 1877~1933)는 한국·중국·일본 등에 관해 많은 책과 글을 썼다. 이 글은 그가 1901년(광무 5)경 한국에 다녀간 뒤에 쓴 글이다. 2 원문에는 'Mr. McLeary Brown'으로 나오지만 'Mr. McLeavy Brown'의 잘못이어서 바로잡았다. 3 고종은 26대 왕인데 원문에는 28대로 되어 있어 바로잡았다. 4 에드워드 7세를 말한다. 그는 1901년 1월 빅토리아 여왕이 죽자 59세의 나이로 왕위에 올랐다. 그 뒤 1902년 8월 대관식을 올렸다. 5 에케르트(Franz Eckert, 1852~1916)를 말한다. 그는 독일의 작곡가이자 지휘자로 1901년 2월 한국의 군악대 교사로 초빙되어 내한하였고, 1902년 8월 민영환 작사에 곡을 붙인 대한제국 애국가를 발표하였다. 독일 음악이 한국에 들어오는 가교 역할을 하였으며 한국 현대음악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6 이한응(李漢應, 1874~1905)을 말한다. 그는 1901년(광무 5) 영국·벨기에 주차 공사관 3등 참서관에 임명되어 영국 런던으로 부임하였다. 7 1900년 5월 영국 공사 조던(John N. Jordan)이 15개월간 휴가차 본국으로 떠난 뒤 거빈스가 대리공사로 근무하게 되었다.



ENTRANCE TO THE OLD PALACE, SEOUL

Korea and her Emperor

BY ALFRED STEAD

KOREA, the cockpit of the Far East, and the nation which has given to Japan many of her finer arts, has a capital as fascinating and dirty and as incomprehensible as one would expect the cradle of such a past history to be. Seoul, the theatre of all political action, is a drab-colored even sea of thatched roofs, held within bounds by tall gray walls. Dirty, uneven lanes and alleyways divide the clusters of one-storied houses, and only the green-clad enclosures of the imperial palaces, and the legations with their foreign architecture, break the monotonous stretch of the city. The American and the British legations are almost within the Palace enclosure; the house of Mr. McLeary Brown is quite so. The Russian legation occupies a small hill overlooking and commanding the Palace. It is much more prominent than any other building, except perhaps the Catholic cathedral. The Japanese legation with its barracks is far from the present residence of the Emperor, being near the Old Palace,—which accounts perhaps for the Emperor's abandonment of it some years ago, when during the trouble with the Japanese the Empress was killed by their hand, and a year after the Emperor escaped to the Russian legation, living there twelve months under Russian protection. When the disturbances were over, he took up his residence in the present, or, as it is called, the New Palace, which was formerly the residence of the Regent, his father. Every now and then the Emperor sends notes to the American and British ministers politely inquiring when they are going to move out into other quarters, because he does not wish their presence so near the Palace. They answer, equally politely, that they were there when he came to this Palace, so it is for him to move if he is not comfortable, and the legations remain. At four o'clock every morning the Emperor retires to rest and the town wakes up. This latter because at that hour detachments of troops march round and round the Palace to the sound of drums and bugle—always the same notes over and over again. This goes on for about an hour, the men playing vigorously and marching well, and then the work of the army is over for the day. I was unable to discover what was the reason

VOL. CIV.—No. 622.—63

of this display, unless it was to show the foreign ministers that Korea has an army. During the rest of the morning there is nothing stirring in or near the Palace. About mid-day, however, the officials begin to arrive, and many change into their court dress before the Great Gate. Attended by a servant who carries a bundle in a cloth, they there leisurely and in full view of the public eye don their green gauze garments of state over their every-day ones, and change their hats for court head-gear. Then they enter the gate; on coming out the same procedure is gone through, only *vice versa*. The military officers pass in or come out of a side gate near the barracks. It is very amusing to see these officers, whose rank renders riding necessary, being hoisted upon the diminutive horses, and then jolted away, held in the saddle by two or more privates. Later in the afternoon come those persons having audience, in their green imperial chairs, and pass straight into the Palace enclosure. At night the sounds of feasting and Korean music escape from the Palace, and continue until well into the morning. The audience-room and most prized portion of the Palace is contained in a modern stone and brick building, standing in one corner of the enclosure and intensely out of place.

Li Hsi, the Emperor of Korea, is the twenty-eighth sovereign of his dynasty—a dynasty that usurped the throne of Korea some 300 years ago. The Emperor is regarded by his people as God, and his slightest word carries great weight with the lower classes. Although possessing enormous potential power, he has little actual opportunity, and has to play a careful part amongst the international wrangles that forever disturb his court.

Owing to the late habits of the Emperor, and the audiences being held in the afternoon, ours was fixed for five o'clock. Shortly before that hour we left the legation in the imperial chairs sent for us. These chairs are like the old palanquins in shape, with seats, and are colored green inside and out; the ordinary Korean chairs have no seats, and necessitate sitting on the floor. Our chairs were carried by four men, two before and two behind. Accompanied by the minister and interpreter, we were

borne along, past the walls with their soldiers, past sentries and machine-guns, to one of the gates of the Palace, where we left our chairs, and entered, after passing the gate, a small anteroom, close to the audience-chamber. The interpreter was a Europeanized Korean, clad in black frock-coat, and with his smug and greasy face surmounted by a venerable silk hat. The antechamber is contained in an old Korean house; it is very small, and Europeanized into extreme ugliness. Electric light was installed, and there was a gaudy French carpet on the floor. A beautiful Korean chair was crowded into obscurity by hideous European substitutes. The table was covered with a flaring table-cloth. The only appropriate thing which civilization had brought into that ugly room, and one which was also most apposite, was a large American stove, with the word "Invader" writ large upon its front. There were no windows, but over the openings hung Korean bamboo curtains, very fine and light.

In this room were many Korean officials, including the Minister of Foreign Affairs and the Minister of Ceremonies. After universal hand-shaking we sat down and were offered refreshments. These took the shape of Egyptian cigarettes and Japanese mineral water in large glasses. The robes of the court officials were of dark green gauze, flowing as do all Korean garments. Their head-dress was made of curious black gauze, with gauze wings projecting to right and left behind. Nearly all the officials wore great belts, very beautiful in the case of the higher dignitaries. This belt is quite stiff, and composed of metal and stones; it does not fit tightly, but being fastened close to the body at the back, it projects considerably over the wearer's chest. Most of the ministers spoke only Korean, but we were surprised to find one who spoke excellent French, and another who was master of a little English. We conversed with the former during the few minutes' delay in the anteroom, and found him remarkably well informed and intelligent. He told us that he had never been outside Korea, but had learned French by himself. We discussed the coronation of the King of England, and then drifted on to the electric cars of Seoul, recently installed

by an American firm. The official was quite distressed about the latter, because they did so much harm to the Korean children. These, having always been accustomed to play in the streets, could not understand these things which came so quickly and so quietly, and many had been maimed and killed. It was quite touching to hear him talk of the children, and he spoke with great fluency and intelligence.

The few minutes' delay which we experienced was due to the fact that the Emperor was taking a bath. The weather was stiflingly hot, and it is the imperial custom to spend most of the intervals between audiences in his bath-tub, under such conditions keeping cool.

Soon, word having come that the Emperor was in his audience-chamber, we followed the ministers for Foreign Affairs and Ceremonies through a glass-covered way into the main Palace building: this is quite new and in modern style. As we were passing through the passage we caught a glimpse of some women and children. These, being of the imperial household, are never allowed to go beyond the outer wall. The women did not appear striking, and shared to the full the general Korean feminine complaint of ugliness.

Having entered the main building, we passed through two small modern rooms, unfurnished except for flaring carpets of European manufacture. At the thresh-

old of the second room the officials all prostrated themselves, and again as we passed into the audience-chamber. From the second room we turned at right angles



THE EMPEROR OF KOREA

to the left, and passing through an ordinary doorway, entered the audience-chamber, and found ourselves in the imperial presence! It was a shock, yet hardly in the expected sense; everything was so small, so unmajestic, and, above all, so un-Oriental. Imagine a small, wooden, square room, the walls papered with bad French paper, the ceiling whitewashed, a glaring red and green carpet on the floor, and cheap-looking lace curtains draping an ordinary glass window. To add to the general depressing effect, there

were two cheaply framed chromos hanging on the wall behind the Emperor.

The Emperor himself was at the farther end of the room from the doorway, standing behind a plain modern table, unornamented except for a monstrosity of a table-cover. On his left hand stood the Crown-Prince. We advanced to the table after the momentary pause of as-

stoutness. His face is very pleasant and full of smiles, quite in contrast to that of the Crown-Prince, whose face is impassive, not to say imbecilic. The Emperor shook hands with Mrs. Stead and then with me, quite in Occidental style. A curious incident arose, however, as we were withdrawing our hands across the table. A look of distress crossed the

Crown-Prince's face, and he grabbed back the departing hands and shook them vigorously. The Crown-Prince always wishes to do whatever the Emperor does, and thus the moment his father's hand leaves yours he grasps it and shakes it too.

The Emperor was wearing a loose robe of yellow silk, beautifully embroidered with golden dragons in a circle on his chest. The imperial belt is of gold with yellow opaque stones, and projects several inches from the Emperor's breast. On his arms and on his chest and back the Emperor wears the thin Korean woven bamboo guards or shields, to hold the clothes from touching the skin in hot weather. These help to give him an appearance of stoutness greater than



THE CROWN-PRINCE OF KOREA

tonishment, and the interpreter took up his position at our left hand. The Emperor gave the only suggestions of Oriental splendor, and it seemed pitifully out of place in such surroundings. Li Hsi is of medium height and inclined to

the reality. The imperial head-dress is a two-tiered purple gauze one, very similar to those worn in olden times in Japan. After the Korean army was first organized, the Emperor abandoned his customary robes and donned a gorgeous

military uniform when he held audiences. He, however, insisted upon wearing his helmet when receiving the foreign ministers, and they, naturally not tolerating such a thing, retaliated, by threatening to retain their own hats if he would not doff his when wearing European clothes. This was obviously impossible, as it is quite out of the possibility of forgiveness for a Korean gentleman to be without a head-covering in public, and so the Emperor had to abandon his uniform and go back to the ancient robes and head-gear. His Majesty was wearing the large Korean decoration called the Golden Measure on his left breast. This decoration received the name from Mr. Gubbins, the British minister in Seoul. The more accurate rendering of the Korean title would be the "Golden Rule," but Mr. Gubbins held that that name was already appropriated. The Emperor wore, beneath the Korean decoration, the Japanese Order of the Rising Sun.

The Emperor laughed very often and was most pleasant, conversing quite animatedly with us through the interpreter. After the introduction he inquires after our health, and says that he is glad that we have come to his country. We reply that we trust his Majesty is enjoying good health. He asks then if we came from Japan, and how many states we have visited before Korea. Our reply, out of deference for the Emperor's lack of geographical knowledge, that we have visited a great many is not definite enough for his Majesty, and the interpreter promptly renders it as eight states! Our intention of travelling through Manchuria and Siberia surprises the Emperor, and he says that it is a very great undertaking, and the change from the charming life of Seoul will be great. We converse about the coronation of King Edward next year, and hope that he will send an embassy on that occasion. The Emperor assures us that he is only waiting for the official announcement of the date to reach Seoul, in order to appoint a special representative. He also informs us that he has just despatched ministers to America, Great Britain, Germany, and France. This seems to afford him the keenest satisfaction. These were the principal topics of our conversation, in which the

Crown-Prince takes no part. The robes of the Crown-Prince are red, with dark green around his neck, where the undergarments appear; his belt is also red, and his head-dress is of purple gauze, similar to the Emperor's. He sways from side to side as he stands, and it is evident that his legs cannot support him, unless he also has the table to lean upon.

The audience at an end, the Emperor again shakes hands, as does the Crown-Prince, and smilingly bids us a good journey. The officials prostrate themselves, and we bow as we leave the audience-chamber. The feeling uppermost in our minds as we leave the imperial presence is one of pity for the smiling old man, the God of his people, and the puppet of ambitious nations. One cannot help being sorry for him, there in his little room, as ugly as civilization can make it. Following this feeling of pity comes a certainty that the Emperor must be able to gain a great deal of amusement out of his position in the centre of affairs. It must be good to see the intrigues and counter-intrigues of the different ministers, and there is plenty of evidence that he is not without shrewdness and humor.

Our audience over, we returned to the anteroom and sat down again, while the minister had some more conversation with the Emperor. Warm champagne was served out to every one, and the conversation was resumed where it had been interrupted by the audience. While our attention was divided between the different ministers and dignitaries brought forward to meet us, one or other of the Korean lower officials drank our champagne! We did not notice this until later on, when the health of the Emperor was proposed, and everybody else had champagne to drink it in except the foreigners. The minister was much amused, because, as he explained later, even the sip that etiquette demands one shall drink with the toast is a *bête noire* to those having frequent audiences, because the court orders up specially bad Chinese champagne for occasions like this. After a farewell universal hand-shaking we left the Palace, and were borne away in our green chairs to the legation. The next day we received a bundle of imperial fans. These were plain wood and

plain paper, but beautifully and artistically made, and formed a pleasant memento of our meeting with the Emperor.

In the evening there was the dinner in the Palace. This was served in European style. The Emperor and the Crown-Prince are never present at these dinners, but nevertheless they take a keen interest in them, sharing to the full the general Korean curiosity. On more than one occasion the Crown-Prince was to be seen peering through the crack of the door. The instant he saw that some of the guests perceived him there was heard the rustling of his silken robes as he rapidly withdrew. After the long banquet was over, the dancing-girls of the imperial household came in ready for their work. These are intensely ugly and not graceful—many of them are marked with small-pox. The music is very discordant and loud, and the dancing has none of the grace to be found in that of

the geishas of Japan. The dancing is continued for a long time, and much drink is consumed. At last the dancers are wearied, and the time of departure has come. The Emperor and his court, however, do not retire for several hours yet, and continue to employ themselves. Although the music for the dances is so discordant, there are trained Korean bands, trained by a German instructor, formerly in the Japanese service.

As we have indicated before, the Emperor is always anxious that the legations shall move away from near his Palace; and recently, when there was much friction with Great Britain, and many British war-ships were at Chemulpo, the Emperor met the British minister one day at an audience. He told him, smiling sweetly, what a pity it was that he had not a larger house, so that the British officers could come and stay in Seoul—then the Koreans might be able to see them. Would he not like to have a nice large house built outside the Palace, where he would have more room?

At another time, when heated audiences were being held, the British minister was surprised to receive the visit of a Korean of high rank, who announced that he had been appointed as minister to the Court of St. James! He further said that the Emperor had sent him to ask a small favor. London being so far away, it was difficult and risky to send money all that way. Would it not be easy to arrange matters so that he could receive Mr. Gubbins's salary from the British Foreign Office, while Mr. Gubbins was paid in Seoul by the Korean Minister of Foreign Affairs? Then there would be no necessity for the sending of money. Such actions on the part of the Emperor seem to indicate that he takes a keen interest in the



KOREAN WOMAN IN STREET DRESS, WITH GIRL

외출복을 입고 소녀와 함께 있는 한국 여성



VISITORS ENTERING THE PALACE GATE

game of state, and can take advantage of an opening whenever it presents itself.

The Emperor scarcely ever stirs out of his Palace. He is supposed to make a royal progress through Seoul once each year, but does not always do so. This progress is gorgeous with all the tawdry display of Orientalism tinged with Occidental ideas wrongly understood. The most magnificent thing about this display is the bill which is presented to the Treasury to defray expenses. Sometimes this amounts to as much as 700,000 yen (\$350,000) for the one day's entertainment—a vast amount when the purchasing power of a yen is considered. Few or no details are given, and when they are they often partake of the nature of a farce. Such is the item of champagne for the foreign representatives, which figured once at 70,000 yen (\$35,000)! Of course most of these vast sums are misappropriated, and the Emperor has his share. He also has another source of revenue which is very profitable.

This is the sale of patents for coining money to private individuals. The right to coin five-sen ($2\frac{1}{2}$ cents) nickel pieces is the usual one granted. The purchaser pays down 5000 yen (\$4000), and he receives the privilege of coining nickels, for which privilege he pays additionally 4000 yen (\$2000) monthly. This in itself is good business for the Emperor, but he has improved upon it, and, by a system of stopping all patents periodically, he obtains frequent repayments of the initial premium! It is said also that the Emperor has recently ordered two million five-sen pieces in the United States. Of these the actual cost will be one cent (two sen) each, leaving him with a profit of some \$30,000. Mention must also be made of the sale of concessions to foreigners. These frequently cost the concessionnaires more than they are worth, but this is not always so, as may be seen by the following instance, which was told us in Seoul:

A British official having died in Korea, the court was given to understand,

Heaven alone knows why, that some compensation should be awarded the widow. She therefore was given the post of governess to the Crown-Prince, with an official salary. It is said that during the three years of her governess-ship she never once saw the Crown-Prince, as a pupil; nevertheless her engagement for another term of three years has been arranged for.

The Old Palace of the Emperor of Korea lies at some distance from the smaller New Palace, and close to the hill of Pouk Han, of which hill tradition says that when the last tree is gone from its surface the end of Korea is at hand. It is because of this tradition that it is death for any one to cut wood on Pouk Han. There are still many trees left standing, but on the summit there remains only one tree, solitary and rugged, and this gives the impression that the prophecy is not far from fulfilment. The deserted Palace at the foot of the hill seems to emphasize this feeling. The royal enclosure covers many acres of ground, and its walls run far into the hills, including at least one wooded valley. Numberless buildings, lakes, inner walls, and court-yards are scattered over the enclosed area, giving the whole the aspect rather of a scattered city than of a single palace. It must be remembered that formerly there inhabited this enclosure some 400 guards, 2000 retainers, as well as all the royal household. These would require many buildings to house them all.

The main entrance lies at the end of one of the largest streets of Seoul, and presents a most imposing spectacle, viewed down the vista of widely separated low houses. This gateway is, however, never opened now; it used to be the gate through which the King and his family alone passed. The road leading up to the gate is decorated with two quaint figures of lions in stone. Admittance is now obtained by permission of the Minister of Ceremonies, and the gate open for every-day use lies on another side of the enclosure from that of the main entrance. At the gate, which rises gradually from the wall until it has quite an imposing height, there are several Korean policemen, in pseudo-Japanese uniform, which they wear with the grace

of the unexpected. There are no soldiers guarding the Old Palace, only these police, who act also as guides. In the latter capacity their principal use is to unlock the various doors, since they can only speak Korean and a little Japanese. The ceiling of the gateway is decorated with gayly printed dragons, which seem to have stood the weather wonderfully well without fading.

Inside the wall all is uncared-for and desolate. The brilliant Chinese coloring of the various buildings seems only to accentuate the desertion and pathos of the overgrown court-yards and the bird-defiled monuments of former greatness. An intricate winding walk of several minutes through corridors and along side walls leads to the great court-yard, in the midst of which stands the great Throne Room. This building is reached by several flights of steps, and is raised above the court-yard on two terraces. The gates having been unlocked by the Korean policeman-guide, entrance is gained immediately into the vast building, and the visitor stands amazed at the grandiose simplicity and vastness of the hall. The hall seems empty, save for the great red wooden pillars resting upon their white dressed stone supports. The ceiling and lofty roof are brilliantly decorated. The floor is covered with rotting matting and rubbish and the dust of years.

Immediately opposite the main entrance is the royal dais, seemingly removed from the rest of the hall by its supporting pillars, and reached by six steps. On this dais stands the royal throne, before a beautifully carved and decorated screen. This, as the throne itself, is in red lacquer. Behind the screen again is a painted picture, retaining all its pristine vigor of coloring. Above the throne is a gorgeously decorated ceiling, upon which the Korean dragons variously disport themselves. Seated on this throne the King could look out over the terraces and the court-yard, and see all his gathered nobles and officials, close to the presence or farther removed, as befitted their rank.

The Throne Room is so splendidly massive in its simple grandeur that it is easy to imagine it as it used to be in its days of really royal audiences.

한국 그리고 황제 황제 이희의 초상화 화가와의 인터뷰

장 시르발

“드 라 네지에르가 작년에 서울에서
그린 초상화이다. … 대한제국 황제의
옥좌를 배경으로 한다.”

한국에서는 현재 러시아와 일본이 한국을 사이에 두고 외교적으로 힘
겨루기를 하고 있다. 한국은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나라이다. 적
어도 자세히는 알려져 있지 않다. 항상 풍부한 시각 자료를 제공하는
본지로서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관한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가장 중시하고 있다. 따라서 재능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는 프랑
스 화가 드 라 네지에르가 서울에 체류한 바 있을 뿐만 아니라, 황실에
들어가 황제 이희(高宗)의 초상화를 그리는 영광을 누렸다는 사실을 알
기에, 우리는 그와의 매우 상세하고 솔직한 인터뷰를 시도하였으며, 그

La Vie Illustrée

라 비 일뤼스트레
프랑스

1904. 01. 29.

표지, pp.280~283

구9750

36.4×28.2

의 친절한 성격 덕분에 인터뷰 내용은 아주 흥미로웠다.

제가 어떻게, 그리고 왜 한국에 가게 되었냐고요?

네지에르가 계속한다.

저는 두메르의 요청에 따라 인도차이나반도에 꽤나 오랫동안 머물렀
습니다. 그곳에서 안남(베트남) 황제의 초상화를 그리기도 하였습니다.
— 안남 황실과의 회합과 관련된 내용은 본지에 장 아잘베르의 기사로
실린 바 있다. — 유럽으로 돌아가기 위해 이동하던 중 타고 있던 배가
제물포에 기항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한국을 돌아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죠. 그때가 1902년 6월입니다. 그렇게 해서 서울에 도착하였고, 그
곳에서 두 달 가까이 머물렀습니다.

황제께서 프랑스 화가에게 자신의 초상화 작업을 맡기고 싶다는 희망
과 함께 사진 한 장을 제게 보내셨습니다. 저는 저에게 매우 친절하게
대해주신 궁에서 일하는 관리 한 분을 통해 여러 자세로 찍은 황제의
사진이 필요하다는 것을 전하였고 황제께서는 동의하셨습니다. 그리
고 어느 날 아침 11시경에 궁으로 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옷을 차
려 입고 가마를 타고 가서 황제가 사는 궁궐 앞에 내렸습니다. 그리고
훌륭한 유럽식 점심을 대접 받았습니다. 궁의 내관들이 저와 함께 있
었는데, 그들 중 몇몇은 프랑스어를 할 줄 알았고, 황제의 측근으로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물들이었습니다. 시간이 계속 흘렀습니다. 저
를 좀 더 기다리게 할 요량으로 황제는 무희들을 보내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황제를 만났습니다. 그는 60세가량 되어 보였습니다.¹
금색과 노란색에 돈을무늬가 새겨진 긴 비단 가운(곤룡포)을 입고 있었
는데, 옷의 앞면에는 다섯 개의 발톱을 가진 용(오조룡)이 수놓아져 있
었고 허리에는 옥 허리띠(옥대)를 매고 있었습니다. 손은 관습에 따라
매우 넓은 소매부리에 넣고 있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목에는 한
국 훈장인 큰 리본을 달았습니다. 두 개의 빨간색 줄 사이에 노란색이
채워진 넓은 리본이었습니다. 머리 모양은 두 가지 모습을 볼 수 있었
는데, 첫 번째는 머리를 땅지 않고 긴 머리에 말총으로 만든 머리띠(망
건)를 쓴 모습이고, 두 번째는 마찬가지로 말총을 매우 섬세하게 엮어
서 만든 높이가 좀 더 높은 일종의 챙 없는 모자(의선관)를 쓴 모습입니
다. 신발은 밑창을 흰색 펠트로 만든 실크 장화(목화)를 신었는데 평소

에 신고 다니는 일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접견은 어디서 이루어졌습니까?

공식 접견이 이루어지는 큰 방이었습니다. 그 방은 가구들이 마치 프
랑스 응접실처럼 갖추어져 있었고, 붉은색 옷칠로 장식된 병풍 —조각
장식이 들어간 수많은 사각 무늬로 이루어져 있음 —이 있었는데, 제
그림 속에 잘 표현되어 있는 이 상징적인 장막(병풍) 앞에서 초상화를
그리게 되었습니다. 정면 얼굴 이외에 다른 자세나 배경은 허락되지 않
았는데 그것은 대청이 훼손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곳의 가구 배치나
실내 장식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대청의 미, 즉 무엇이든 서로 짝
을 이루는 것을 정면에서 보는 시각으로 배치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림의 윤곽을 잡는 동안 제 주위에 모여 있던 내관들은 저의 붓
터치 하나하나를 살피면서 황제에게 일일이 보고하였습니다. 황제는
작업에 진전이 있는지 보기 위해 몇 차례나 움직였습니다. 한편 저는
화가畫架를 높이고 작업을 해야만 하였습니다. 황제 앞에서는 누구도
앉아 있어서는 안 되므로 선 채로 그림을 그려야 하였고 때문입니다.
저는 대한제국 황제의 공식 초상화 화가에게 황제의 사생활에 관한
몇 가지 사항을 물어보기도 하였습니다. 황제는 현재 새로 지은 궁(경운
궁)에서 살고 있고, 예전 궁(경복궁)에서는 몇 해 전 일본인들의 사주를
받은 한국 과격파에 의해 황후가 암살당한 이후로 아무도 살지 않는다
고 합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와 불안이 황제를 사로잡고 있었던 것이
죠. 혹시나 일어날지도 모르는 사태와 어둠에 대한 두려움으로 황제는
낮에 자고 저녁 무렵부터 새벽이 올 때까지 깨어 있다고 합니다.

황제는 백성들 앞에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까?

1년에 한 번이요. 이 행차는 규모 면에서 압도적입니다. 방방곡곡에서
모인 군대가 동원되어 황제가 탄 가마를 둘러싸고 호위합니다. 행렬은
서울 근교에 위치한 왕조의 조상들 묘역으로 향합니다. 그곳에서 몇
차례 절을 올리고 기원 의식 절차가 끝나면 황제는 동일한 예식에 따
라 환궁합니다. 그날 저녁에는 도시 전체가 축제를 벌입니다. 아이들은
거리로 몰려나와 각색의 램프(등)를 들고 돌아다니죠.

러일전쟁이 일어난다면 이 두 교전국, 즉 러시아나 일본에 대한 한국
군의 협조는 어느 정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십니까?

한국군의 숫자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훈련이 잘 되어 있고, 프
랑스에서 1874년 개발된 모델인 그라스 소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한제국은 프랑스 소총을 프랑스인의 중개로 구매하
였다고 합니다. 한국군은 보초를 서고 열병식도 하고 유럽식 장비도
갖추고는 있지만 여전히 활쏘기를 가르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울 근
교에는 황제의 근위병들에게 활쏘기를 가르치기 위한 발사대도 있습
니다. 또한 장교들이나 무관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필수적으로 활
쏘기를 잘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은 대한제국에서 지배자로서 어느 정도의 권력을 행사하고 있습
니까? 그리고 어떻게 그런 권력을 탈취할 수 있었죠?

지배자요? 전적으로 그렇다고는 할 수 없지만 거의 그런 상태라고 할
수 있겠네요. 서울 중심부에 있는 일본인 마을²에서 그들은 일본 천황
의 백성들로서 마치 자기 나라인 것처럼 살고 있습니다. 상점·은행·우
체국 등을 소유하고 있죠. 그리고 500여 명의 주둔군이 한국인들의
난입에 대비해 마을을 지키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 두 민족은 언제
나 서로 적이었습니다. 한 나라가 상대적으로 보다 열등한 민족일 뿐
만 아니라 게으르고 무기력하여 결국 다른 나라에 의해 침략을 당하
고 약탈당했습니다. 둘 중 전자에 해당하는 나라인 한국은 중국의 산
업과 각종 발명품들의 혜택을 입었지만 그것을 자신들의 발전에 이용
하지 못하였습니다. 반면 일본은 예를 들어 도자기에 적용되는 상감이
나 채색 기법을 자신들의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숫자도
늘어가고 있고, 보다 교묘하고, 보다 적극적이고, 보다 대답해지고 있
는 일본인들은 한국을 현대화시키고 자기 것으로 만들며 한국 땅을
잠식해 가고 있습니다. 서울의 제물포 철도(경인선)는 일본 회사에 의해
착취되고 있으며, 서울과 부산을 잇는 전신선(電信線)³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은 500킬로미터에 달하는 전신선을 한병대를 동원하여 지키고
있습니다.

서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 현대화되었습니까?

먼저 집들은 낮고, 일부는 붉은색 기와로 지붕을 덮었습니다. 길은 더럽고 진흙탕인데, 대로는 우리 나라처럼 포장이 되어 있고, 밤에는 전기로 불을 밝히며, 낮에는 트롤리가 아닌 보다 실용적인 축전기蓄電池 방식의 노면 전차⁴가 운행됩니다. 이 전차의 설치는 미국 회사가 맡았습니다. 사람들은 흰색 옷을 입고 다니는데, 입는 사람에 따라 순백색부터 거의 검은색이 되어 버린 흰색까지 다양합니다. 노란색은 황제와 황태자－이척(李熙)－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황제의 권한은 절대적입니다. 그의 통치는 사실상 대신들, 황제의 비호를 받는 자들 혹은 충신들과 같은 지배 계층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그들의 입지는 막강하고 안정적입니다. 그들의 권력은 참수형에 의한 죽음에 이르기 전까지는 계속됩니다. 군주의 호의와 무사태평함을 전적으로 남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황제의 내관들이 대신들의 영향력을 상쇄하고 있긴 합니다.

예를 들어 대신들은 내관들이 맡고 있는 후궁 관련 업무에 관여할 수 없습니다. 황제는 사실상 여러 명의 부인을 두고 있지만 사람들 눈에 띄는 경우는 드물다고 합니다.

한국에 살고 있는 프랑스인들이 있습니까? 프랑스의 영향력이 존재합니까?

한국에 프랑스인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몇몇은 매우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습니다. 우체국을 비롯하여 광업과 농업을 담당하는 행정부서의 장이 프랑스인⁵입니다. 특별히 프랑스어를 가르치는 중학교⁶도 있습니다. 학생 수는 140~150명 정도입니다.

이상은 대한제국 황제의 공식 초상화가인 드 라 네지에르가 기억하는, 자신이 그린 초상화와 모델로서의 황제와 그가 통치하는 나라에 관한 이야기를 최대한 정확하게 옮긴 내용이었습니

대한제국 황제 이회(高宗)의 공식 초상화
본지 오늘 자에 실린 본 삽화는 드 라 네지에르가 작년(1903년)에 서울에서 그린 초상화이다. 드 라 네지에르는 장 아잘베르의 기사를 통해 본지 독자들은 이미 알고 있듯이, 1902년 안남(베트남) 황제의 초상화도 공식적으로 제작한 바 있다. 지금 소개하는 초상화는 대한제국 황제의 옥좌를 배경으로 한다. 황제의 모습은 다섯 개의 성산(聖山)과 한국의 강, 숲 그리고 파도가 부서지는 바다 그림으로 둘러싸여 있다(일월오봉도). 아울러 하늘의 왼쪽에는 태양이, 오른쪽에는 달이 빛나고 있다.

1 1904년(광무 8) 당시 고종의 실제 나이는 53세였다. 2 일본인들은 땅이 질어서 이현(泥岬)이라고 불린 동네에 모여 살았다. 진고개라고도 하는데 지금의 충무로 지역이다. 3 서울과 부산 간 전신선을 '남로전선'이라 하는데 1888년(고종 25)에 개통하였다. 4 전차는 서대문과 청량리 간을 오갔는데 1898년(광무 2)에 개통하였다. 5 클레망세트(M. Clémence)를 가리킨다. 6 1895년(고종 32) 10월 프랑스인 마르텔(E. Martel)이 설립한 한성영어학교를 말한다. 1896년(건양 원년) 1월 서울 정동에 개교하였다.



La Corée et son Empereur. — Interview du peintre de S. M. Yi-Hông

La Corée qui a mis aux prises, provisoirement diplomatiques, la Russie et le Japon est peu connue, du moins dans les détails. Il importait que la *Vie Illustrée*, toujours si riche en choses vues, donnât sur le pays Coréen ses renseignements de premier ordre. Aussi sachant que M. de la Nézière, le peintre français, au talent très apprécié avait non seulement séjourné à Séoul, mais avait eu l'honneur de portraicturer S. M. Yi-Hông dans le palais impérial, suis-je allé tout uniment chercher les éléments d'une interview très poussée et, grâce à l'aimable interlocuteur, vraiment intéressante.

— Comment et pourquoi je suis allé en Corée? me dit M. de la Nézière, voici : j'étais resté, appelé par M. Doumer, assez longtemps en Indo-Chine; j'avais fait le portrait de l'Empereur d'Annam — la *Vie Illustrée* a raconté par la plume d'Ajalbert, ces sèances impérialès, — et je m'en retournais par petites étapes en Europe, quand le bateau qui me ramenait relâcha à Chemulpo. Le désir me vint de visiter la Corée. C'était en juin 1902. J'arrivai à Séoul, que j'habitai près de deux mois.

« L'Empereur manifesta le désir d'avoir son portrait de la main du peintre français et m'envoya une de ses photographies qui ne pouvait me suffire. Je demandai, par l'intermédiaire d'un très aimable fonctionnaire du palais, quelques séances de pose. Sa Majesté consentit.

Un matin, vers onze heures, je reçois un avis de me présenter au palais. Je me mets en habit et un palanquin me dépose devant la demeure de mon auguste modèle. On me sert un excellent déjeuner à l'européenne. Les eunuques, dont quelques-uns parlent français et qui sont les personnages les plus influents de l'entourage de l'Empereur, viennent me tenir compagnie. Le temps passe. Pour me faire patienter, S. M. m'envoie son corps de ballet.

« Enfin, voici le souverain. Il paraît atteindre la soixantaine. Il est vêtu d'une robe de soie brochée, or et jaune, ornée sur le devant du dragon à cinq griffes, en broderie, et retenue à la taille par une ceinture de jade. Les mains, ainsi le veut l'usage, se dissimulent complètement sous les manches très amples. Autour du cou, S. M. porte le grand cordon de l'Ordre National Coréen: un large ruban jaune entre deux bandes rouges. Double coiffure: d'abord un serre-tête en crin de cheval sur les cheveux longs, sans natte, puis une sorte de bonnet plus haut, également en crin tressé, très fin. Comme chaussures, des bottes de soie avec semelles de feutre blanc que Sa Majesté n'use guère.

— Où ont eu lieu les séances qui vous ont été accordées?
— Dans la grande salle des audiences solennelles, meublée comme nos salons, devant le paravent de laque rouge, fait de nombreux carrés sculptés, devant cette tenture symbolique que rend bien la photographie de mon tableau. Il ne fallait pas songer à trouver une autre pose, dans un autre cadre et autrement que de face. La symétrie eût été offensée, et là elle règne en maîtresse, c'est dans l'ameublement, comme dans la décoration, le triomphe du *pendant, du vis-à-vis*.

« Tandis que j'ébauchais, les eunuques autour de moi suivaient chaque coup de pinceau et tenaient Sa Majesté au courant de mon travail. L'Empereur plusieurs fois s'est dérangé pour voir si « ça avançait ». J'avais dû hausser mon chevalet, car j'opérais debout, personne ne devant s'asseoir devant le souverain. »

Je demandai alors au « peintre officiel » de l'Empereur de Corée, quelques détails sur la vie intime de son portraicturé.

— L'Empereur, reprit M. de la Nézière, habite un nouveau palais. L'ancienne demeure reste inhabitée depuis que des sectaires coréens, à l'instigation des Japonais, y ont assassiné, il y a quelques années, l'Impératrice mère. L'horreur et la peur de la mort hantent le souverain. Aussi, craignant l'ombre et la surprise possibles, dort-il le jour et veille-t-il du soir tombé jusqu'à l'aube.

— Sa Majesté se montre-t-elle à son peuple?



A SÉOUL. — SOLDATS JAPONAIS LUTTANT, NUS, DANS LA NEIGE

— Une fois par an. Mais cet exode est imposant. L'armée mobilisée, arrivée de tous les coins de l'Empire, entoure le palanquin impérial. Le cortège se rend aux environs de Séoul où se trouvent les tombeaux des ancêtres de la dynastie régnante. Après quelques prosternations et un ensemble de prières rituelles, avec le même cérémonial, l'Empereur est ramené au palais. Le soir, la ville est en fête, les enfants se répandent dans les rues, en promenant des lanternes multicolores.

— Quel pourrait être, en cas de guerre russo-japonaise, l'appoint fourni à l'un ou à l'autre des belligérants par l'armée coréenne?

— Elle n'est pas très nombreuse, mais je la sais bien exercée et munie de fusils Gras, de notre modèle de 1874. Ces fusils ont été achetés en France par l'intermédiaire d'un de nos compatriotes. Les soldats coréens montent la garde, vont à la parade, équipés à l'européenne, mais n'en sont pas moins soumis à apprendre le tir à l'arc. Il y a, aux environs de Séoul, un stand où vont s'initier au tir à l'arc les troupes de Sa Majesté. Je crois même que la connaissance de ce sport est exigée des officiers et des candidats au titre de mandarins militaires.

— Jusqu'à quel point les Japonais sont-ils, ainsi qu'on l'affirme, les maîtres du navs et comment s'en sont-ils emparé?

— Les maîtres? pas absolument, mais c'est tout comme. Il y a, au cœur même de Séoul, une ville japonaise où les sujets du Mikado sont absolument chez eux. Boutiques, banques, postes, etc., leur appartiennent. Une garnison de cinq cents hommes défend cette cité contre les incursions coréennes. Les deux peuples sont d'ailleurs des ennemis de toujours. L'un, de population inférieure, c'est vrai, mais aussi paresseux, inactif, s'est laissé envahir, exploiter par l'autre. La Corée la première, a bénéficié des inventions, de l'industrie chinoise, sans savoir su en profiter, tandis que le Japon s'est assimilé les procédés d'incrustation, de peinture sur porcelaine, etc. Chaque jour plus nombreux, plus industriels, plus actifs, plus audacieux, les Japonais ont rayonné dans le pays, le modernisant, le faisant leur. Le chemin de fer de Chemulpo à Séoul est exploité par une compagnie japonaise; japonaise également la ligne du télégraphe de Séoul à Fusan. Elle a 500 kilomètres de long et une véritable armée de gendarmes japonais la garde.

— Quel est l'aspect

de Séoul et jusqu'à quel point la ville est-elle moderne?

— Les maisons sont basses, quelques-unes recouvertes de tuiles rouges. Rues sales, boueuses et boulevards larges, pavés comme les nôtres, éclairés à l'électricité la nuit, sillonnés le jour de tramways, non pas à trolley, mais plus pratiquement, à accumulateurs. Leur installation est due à une compagnie américaine. Les habitants circulent vêtus de blanc, d'un blanc qui va, selon de celui qui le porte, de l'hermine au... noir. Le jaune est réservé à l'Empereur ou au prince impérial: S. A. Yi-Sok.

« L'autorité de l'Empereur est souveraine. Il règne par ses ministres, ses créatures, ses favoris, en réalité les gouvernants. Leur situation est considérable et généralement stable. Ils n'abandonnent leur portefeuille que pour aller à la mort par le chemin de la décapitation. C'est qu'alors ils ont vraiment abusé de leur faveur et de la nonchalance de leur maître. Les eunuques du palais contre-balaencent heureusement, l'influence des ministres. Il ne sont en aucune façon préposés à la garde du sérail. L'empereur a plusieurs femmes qu'on voit rarement.

— Ya-t-il, en Corée, une colonie, une influence française?

— Nos compatriotes sont là-bas peu nombreux; quelques-uns exercent des fonctions très importantes. Ainsi les directeurs de la Poste, des Mines, de l'Agriculture sont français. Un collège existe où notre langue est spécialement enseignée; il comprend 140 ou 150 élèves.

Tels sont, transcrits avec autant de fidélité que possible, les souvenirs de M. de La Nézière, peintre officiel de l'Empereur de Corée, sur son auguste modèle et le pays qu'il gouverne.

JEAN SYRVAL.

A SÉOUL. — L'ARMÉE JAPONAISE ET L'ARMÉE CORÉENNE



01 A LA CASERNE JAPONAISE. — SOLDATS JAPONAIS S'ESCRIMANT A LA BAÏONNETTE



02 A LA CASERNE CORÉENNE. — SOLDATS CORÉENS S'EXERÇANT AU TIR A L'AR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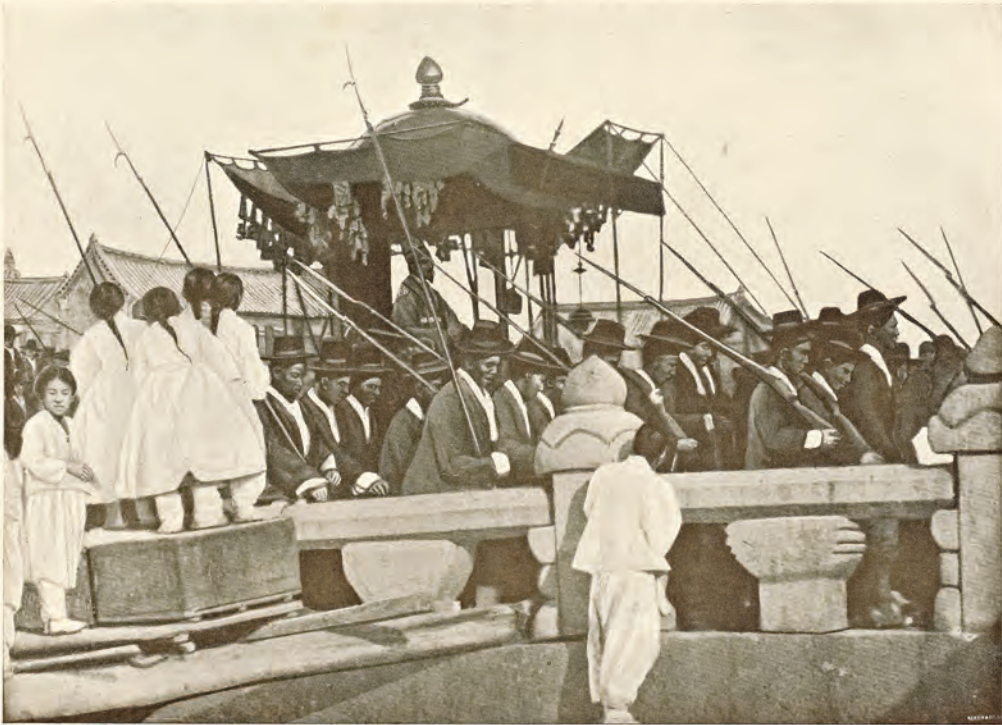


01 PORTES DANS DEUX PALANQUINS, ENTOURÉS DE BONZES EN TIARES BLANCHES ET DE SOLDATS, L'EMPEREUR DE CORÉE ET LE PRINCE HÉRITIER QUITTENT LE PALAIS IMPÉRIAL
(Photographie de notre correspondant social)

252

LA VIE ILLUSTRÉE

01 한국의 연례 행사-
황제 이희(고종)의 서울 행차
두 개의 가마(연궐)에 나눠 타고
흰 두건을 쓴 승려들과 군인들에
둘러싸인 대한제국의 황제(고종)와
황태자(순종)가 궁을 나서는 모습
02 한국의 연례 행사-
황제 이희(고종)의 서울 행차
구식 총과 갈고리 모양 창으로
무장한 군대가 호위하는 가운데
황제가 탄 가마가 서울의
한 교량으로 진입하는 모습



02 FORTEMENT ENCADRÉ PAR DES TROUPES MUNIES DE FUSILS ARCHAÏQUES ET DE LANCES EN FORME DE GAFFES, LE PALANQUIN IMPÉRIAL S'ENGAGE SUR LE PONT DE SÉOUL
(Photographie de notre correspondant social)

253

서울에서: 대한제국 황제의 집에 초대된 루스벨트 양

“과연 어떤 여행자가 루스벨트
양처럼 대한제국 황제로부터
식사 초대를 받았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앨리스 루스벨트 양은 지금 세계 일주를 하고 있다. 진정한 미국인 그
리고 미국 대통령의 딸로서 루스벨트 양은 제대로 여행을 할 줄 안다.
그녀의 노트는 감동적인 사건에 관한 여행 일기보다는 흥미로운 디테
일이나 특별한 느낌, 예상치 못한 광경 등으로 가득 차 있을 것이 분명
하다.

과연 어떤 여행자가 루스벨트 양처럼 대한제국 황제(高宗)로부터 식사
초대를 받았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고종 황제는 이
같은 행동이 한국의 오랜 관습에 어긋남에도 루스벨트 양의 알현을

Le Petit Parisien 1905. 10. 08.
표지, p.326

르 프티 파리지앵
프랑스

구9748
45.2×31.4

NOS GRAVURES

A Séoul : Miss Roosevelt se rendant chez l'empereur de Corée. — En Savoie : Un Troupeau de bœufs surpris par un éboulement. — Monument de Camille Desmoulins. — A Tulle : Monument élevé à la mémoire du sergent Lovy. — Vanderstuyft, gagnant du Bol d'Or.

Miss Alice Roosevelt parcourt le monde!... En véritable Américaine et en digne fille du président des Etats-Unis, miss Alice sait voyager, et si son carnet de notes ne contient pas de récits de drames émouvants, soyez sûrs qu'il est rempli de détails curieux, d'impressions rares et de visions inédites.

Quel voyageur pourrait, par exemple, se vanter, comme miss Roosevelt, d'avoir été reçu à la table de l'empereur de Corée?

Celui-ci, en effet, dérogeant aux antiques coutumes du pays du Matin Calme, a donné audience à la jeune Américaine, puis il l'a admise à sa table où avaient pris place, auprès de sa déjà célèbre hôtesse, le prince héritier, les princes impériaux, les ministres et les généraux de l'empire.

Miss Alice accomplit un voyage qui est loin d'être banal.

허락하였고, 그녀를 초대한 식사 자리에는 황태자(순종)와 다른 왕자들, 대신 및 장군들도 함께하였다. 루스벨트 양은 평범한 여행과는 거리가 먼 경험을 완수하였다.

Le Petit Parisien

TOUS LES JOURS
Le Petit Parisien
(six pages)
5 centimes

CHACUN SEMAINE
LE SUPPLÉMENT LITTÉRAIRE
5 centimes

SUPPLÉMENT LITTÉRAIRE ILLUSTRÉ

DIRECTION: 18, rue d'Enghien (10*), PARIS

ABONNEMENTS

PARIS ET DÉPARTEMENTS :
12 mois, 4 fr. 50. 6 mois, 2 fr. 25
UNION POSTALE :
12 mois, 5 fr. 50. 6 mois, 3 fr.



A SÉOUL

MISS ROOSEVELT SE RENDANT CHEZ L'EMPEREUR DE CORÉE

서울에서 대한제국 황제의 집에 초대된 루스벨트 양

이희, 전 대한제국 황제의 폐위

“황위는 이토 히로부미의 영향력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는 황태자에게
이양되었다. 퇴위가 이루어진
지난 주말쯤 서울에서
심각한 폭동이 발생하였다.”

1 1907년 4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제
2차 만국평화회의에 3명의 특사를 파견한 것
을 말한다.

The Illustrated
London News

더 일러스트레이티드 런던 뉴스
영국

1907. 07. 27.
p.140

구9847
40.4×28.3

대한제국의 황제가 폐위되었다. 현 상황에서 따져보면 그가 퇴위하게 된 직접적인 이유는 한국 사절단¹이 일본의 한국 지배에 대한 반대를 열강에 호소하는 데 실패하였기 때문이다. 1905년 협약(을사늑약)이 체결됨으로써 일본은 한국의 외교권을 완전히 장악하였고, 이 날은 이토 히로부미가 통감으로 임명된 날로 기억될 것이다. 고종 황제는 퇴위를 권고하였던 조정 대신회의에 호소하기 전에 러시아 공관에 보호를 요청하였지만, 궁 안에 있던 일본인들이 그를 막았다. 황위는 이토 히로부미의 영향력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는 황태자에게 이양되었다. 퇴위가 이루어진 지난 주말쯤 서울에서 심각한 폭동이 발생하였다. 여러 일본인이 사망하였고, 하세가와 장군이 질서를 회복시키고 있다. 지난 토요일에 황태자가 황위를 양위 받고 당일 오후에 열강의 대표단을 접견하였다. 이제 일본이 한국을 지배한다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

- 이희, 전 대한제국 황제의 폐위
1. 폐위된 대한제국 황제 이희
 2. 종말의 시작 : 대한제국의 황제와 황후에게 일본의 보호령이 선고됨, 1904.
 3. 서울의 궁 안에 있는 황제의 공식 초상화 : 프랑스 화가의 작품
 4. 유럽과 미국의 증군 기자를 접견하는 황제 : 『더 일라스트레이티드 런던 뉴스』의 특별 화가 프레더릭 빌리어스가 발표하는 모습, 1904.



퇴위한 대한제국 황제 이희

“서울의 황궁에서 퇴위식이
거행되었다. 이번 퇴위는 은자의
왕국이 완전히 일본의 지배하에
있다는 사실을 전 세계에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¹ 1907년 고종은 네덜란드 수도 헤이그에서 러시아의 니콜라스 2세가 소집하는 제2회 만국평화회의에 특사를 파견하여 을사늑약이 대한제국 황제의 뜻에 반하여 일본 제국의 강압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폭로하고 을사늑약을 파기하고자 하였다. 헤이그 특사는 만국평화회의에 을사늑약이 불평등 조약임을 알리기 위해 파견되었다. ² 원문에는 1906년으로 되어 있어 바로잡았다. ³ 원문에는 'Ch'yelch'yong (철종)'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오류로 뒤에 '고종'이란 묘호를 받았다.

The American
Monthly Review
of Reviews
1907. 08.
p.177
구6804
24.0×16.9

더 아메리칸 먼슬리 리뷰
오브 리뷰스
미국

지난달 헤이그 회의에 한국 대표단¹이 모습을 드러냄으로써 은자의 왕국 수도 서울에서 반일^{反日}과 관련된 혼란상이 다시 시작되었음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헤이그 회의는 이들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 직후 대한제국 관료들은 황제의 퇴진을 요구하였다. 1905년² 11월에 체결된 조약(을사늑약)에 따라 대한제국의 모든 외교 사안은 일본의 관할이기 때문에 헤이그에 특사를 보냄으로써 대한제국의 안위를 위태롭게 하였다는 주장이다. 7월 19일 서울의 황궁에서 퇴위식이 거행되었다. 이번 퇴위는 은자의 왕국이 완전히 일본의 지배하에 있다는 사실을 전 세계에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이희 또는 고종³으로 알려진 그는 1864년(양력)에 왕위에 올라 1897년 황제의 칭호를 얻었다. 1895년 부인인 왕비 민씨가 암살당한 후 자신도 부패한 신하들이나 일본의 자객에 의해 살해당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속에서 살았다.

일본이 중국에 전쟁을 선포한 1894년 7월 이전까지 세습제였던 한국의 군주제는 절대 권력이었다. 일본의 한국에 대한 영향력은 청일전쟁이 끝날 무렵 시작되어 한국·중국·러시아·영국과 잇따라 조약을 체결함으로써 기정사실이 되었다. 현재 서울에 있는 통감부의 이토 후작이 한국 통치자에게 모든 외교 사안에 대해 이른바 ‘조언’을 해주고 있다.



HI-HYEUNG, EMPEROR OF KOREA, WHO HAS ABDICATED.

[The appearance at the Hague Conference last month of a Korean delegation was the signal for renewed anti-Japanese disorder in Seoul, capital of the Hermit Kingdom. The refusal of the conference to receive these delegates was followed almost immediately by the demand on the part of the Korean ministry that the Emperor abdicate. The sending of these delegates to The Hague, it was urged, endangered the national welfare of Korea, since by the treaty of November, 1906, all the foreign affairs of Korea are under Japanese control. The abdication ceremonies took place on July 19 at the Imperial palace in Seoul. This abdication is formal acknowledgment to the world of Japan's full control of the Hermit Kingdom. Yi-Hyeung, otherwise known by his title of Ch'yelchyong, succeeded to the throne in 1864. In 1897 he assumed the title of Emperor. Ever since 1895, when his imperial consort, Queen Min, was assassinated, the Emperor has lived in the greatest fear of being murdered by some of his corrupt courtiers or by Japanese intriguers. Up to July, 1894, when war was declared by Japan against China, the monarchy, which is hereditary, was absolute. Japan's influence began at the close of that war and has been confirmed by a series of treaties with Korea, China, Russia, and England. The Japanese resident-general at Seoul, Marquis Ito, now "advises" the Korean ruler in all matters of foreign relations.]

한국의 쿠데타: 구 황제와 신 황제

서울 궁궐 내 돈덕전에서 퇴위한 황제와 계승자의 모습
중앙 창문에 흰옷을 입고 서 있는 두 사람 중 왼쪽에 있는 사람이 퇴위한 고종 황제이고, 그 옆에 새로운 황제(순종)가 서 있다. 왼쪽 창문 앞에는 어린 황태자 영친왕이 좌우에 내시를 두고 서 있다. 고종 황제는 원로회의에서 강제로 퇴위한 황제로 기억될 것이며, 그의 퇴위로 한국은 일본의 손에 완전히 넘어가게 되었다.



혼란에 빠진 한국

“러일전쟁이 끝난 후 일본은 한국에 보호령을 강제 도입하였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일본은 한국을 완전히 장악하였다.”

서울에서 봉기한 폭동을 진압한 일본군

얼마 전 한국에서 일본의 영향력을 이용한 일종의 쿠데타¹가 발생하였다. 지난 44년간 왕위에 있던 황제 이희²는 중국·러시아·일본의 끊임없는 탐욕으로부터 나라를 지켜내지 못하고 자신의 아들(순종)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말았다. 일본의 술책에 기인한 이 같은 결과에 대해 국민들 사이에서는 불만이 터져 나왔고 마침내 폭도(의병)³들이 일어났다. 한국 군대가 반란을 일으킨 것이다. 서울 도심에서 한국 군대와 일본 군대가 사실상의 전투를 벌였다.

Le Petit Journal

르 프티 주르날
프랑스

1907. 08. 04.
p.242, p.248

구9741, 구6860
45.0×31.2, 43.3×30.5

수천 명에 달한 폭도들은 총리(이완용)의 집을 포위하고 불을 질렀다. 이들을 해산시키기 위해 일본 경찰은 포병대까지 동원해야 하였다. 총리는 왕궁으로 피신하였고 다른 정부 관료들은 일본인 거주 지역으로 도망갔다. 군부대신(이병무)의 집도 폭도들에 의해 포위되었는데 일본 군이 모여 있던 폭도들에게 발포하여 수많은 사망자가 발생하였다. 러일전쟁이 끝난 후 일본은 한국에 보호령을 강제 도입하였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일본은 한국을 완전히 장악하였다. 일본이 특이할 정도로 다산多産 국가라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섬이 인구 증가로 인해 지나치게 붐비게 되자, 과도한 인구에 대한 배 출구가 필요하였다. 하와이·필리핀·미국으로 수많은 일본인이 이민을 갔지만 그것으로는 부족한 상황에 이르렀고, 미국에서는 이민을 제한하는 법까지 제정되어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반면 한국은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일본에겐 점점 더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활동 무대가 될 것이다.

현재 한국에 정착해 있는 일본인 수는 40만 명 이상으로 추산된다. 그 숫자는 지금도 매일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 하나만으로도 일본은 한국의 독립군 세력을 없애고 자신들의 활동을 방해하려는 계획을 무력화시키기에 충분한 것이다. 일본의 한국 침략에 대한 저항을 알리고자 헤이그에 갔던 대표단의 일원인 왕자 이위종李緯鍾⁴에 따르면, 황제 폐위와 황위 계승자 선택과 같은 사건은 일본이 한국에서 세력을 계속 확장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기에 벌인 일들이었다.

그는 이렇게 말하기도 하였다. “황위에 오르게 될 황태자 이척李珣(순종)은 절대로 자신의 황위를 지킬 수 없는 무능한 사람이다. 34세의 무기력한 남자이며 마치 고무처럼 조종하기 쉬운 사람이다. 현대식 교육이라곤 받아본 적도 없고, 지금까지 세상과 완전히 단절되어 살아와 아무런 능력도 없다. 앞으로 일본인의 손에서 놀아나는 꼭두각시가 될 것이고 한국 국민들에게 아무런 영향력도 행사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머지않은 미래에 자신들의 조국이 난폭한 이웃 나라에 영원히 합병되어 버리지 않을까 염려하는 한국인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마지막 무력을 행사함으로써 조국의 독립, 나아가 국가적 존재를 보존하고자 한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이다.

LES TROUBLES DE CORÉE

La garde japonaise aux prises avec les émeutiers à Séoul

Il vient de se produire, en Corée, une manière de coup d'Etat au profit de l'influence japonaise. L'empereur Yi-Yeung, qui régnait à Séoul depuis quarante-quatre ans et n'avait pas su défendre son pays contre les convoitises successives de la Chine, de la Russie et du Japon, a abdiqué au profit de son fils.

Cette décision, attribuée aux menées japonaises, a causé un grave mécontentement parmi le peuple. Un soulèvement s'est produit. Les troupes coréennes se sont mutinées. Une véritable bataille eut lieu dans les rues de la ville entre Coréens et Japonais.

Les émeutiers, au nombre de plusieurs milliers, ont cerné la résidence du premier ministre et l'ont incendiée ; il a fallu, pour les disperser, l'intervention de la police japonaise appuyée par de l'artillerie. Le premier ministre s'est réfugié au palais, et les autres membres du cabinet à la résidence japonaise. Chez le ministre de la Guerre, dont la maison a été également assiégée, les émeutiers ont été reçus à coups de feu par la garde japonaise. Il y a eu de nombreux morts.

Depuis la fin de la guerre russo-japonaise, les Nippons avaient imposé leur protectorat à la Corée. Les événements présents marquent la main-mise définitive du Japon sur ce pays. On sait que les Japonais sont un peuple singulièrement prolifique. Ils étouffent dans leurs îles, et il faut un exutoire au trop-plein de leur po-

pulation. Leur émigration, si intense, aux îles Hawaï, aux Philippines, aux Etats-Unis, est insuffisante, d'autant plus que l'Amérique leur oppose une sévère législation restrictive. La Corée, au contraire, est et sera, de plus en plus, un champ ouvert à leur activité.

On évalue actuellement à plus de 400,000 le nombre des Japonais installés en Corée. Et chaque jour il arrive de nouveaux immigrants. C'est une raison suffisante pour que le Japon tienne à réduire à rien les résistances ou les intrigues de nature à gêner son action.

S'il faut en croire le prince Yong-Oui-Yi, qui fait partie de la délégation coréenne venue à La Haye pour protester contre les agissements des Japonais en Corée, l'abdication de l'empereur et le choix de son successeur sont des événements de nature à favoriser, plus que jamais, l'expansion nipponne.

« Le prince Yi-Syek qui va monter sur le trône, dit-il, est absolument incapable de conserver le pouvoir ; c'est une homme sans énergie, d'environ trente-quatre ans, et d'un caractère aussi maniable que du caoutchouc. Son éducation n'a pas été du tout moderne. Il n'a aucune valeur et il a passé sa vie, jusqu'à présent, absolument séparé du monde. Il sera comme une poupée aux mains des Japonais, il n'aura aucune influence sur le peuple. »

On comprend, dans ces conditions, que les Coréens, qui prévoient, dans un avenir peu éloigné, l'absorption définitive de leur pays par leurs turbulents voisins, se soulèvent et usent leurs dernières forces pour tenter de conserver sinon leur indépendance, au moins leur existence nationale.

1 1907년(광무 11) 8월 고종이 강제 퇴위한 사건을 말한다. **2** 원문에는 ‘이영(Yi-Yeung)’으로 잘못 기재된 것을 바로잡았다. **3** 원문은 ‘soulèvement’이다. 기사의 저자는 ‘폭동’이라는 의미로 쓴 것 같은데 이는 당시 일어난 의병을 의미한다.

4 원문에는 ‘이용위(Yi Yong-Oui)’라고 되어 있는데 이위종의 잘못이라 바로잡았다. 그를 왕자라고 한 것은 조선 왕조와 같은 ‘이씨’인 점도 있지만, 1907년 당시 헤이그 특사 관련 신문 기사에 ‘대한제국 왕자’라고 보도되었기 때문이다.



혼란에 빠진 한국
서울에서 봉기한 폭동을
진압하는 일본군

서울 사건

“서소문 근처 막사를 지키던
병사들은 군인의 위엄과 나라의
안녕에 위배되는 군대 해산 명령에
항거하여 반란을 일으켰다.”

한 달 반 전에 있었던 서울의 비극적인 사건(고종 강제 퇴위) 당시 서울에
있었던 프랑스인이 보내온 흥미로운 사진을 싣는다. 일본이 자행한 쿠
데타의 역사를 강렬한 사진 몇 장으로 요약할 수 있다. 사진을 보낸 프
랑스인은 이 비극에 대한 글도 함께 보내주었는데 원문을 그대로 실었
다. 이는 처음으로 한국 역사의 한 장면을 전반적으로 싣는 일일 것이
다. 단도직입적인 이 보고서보다 더욱 인상적인 보고서는 없을 것이다.
일본이 한국을 보호령으로 삼은(을사늑약) 후 고종 황제는 약자가 강자
에게 저항할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인, 모든 개혁 시도에 아무것도 하지

L'Illustration	1907. 09. 07. pp.163~165
릴뤼스트라시옹 프랑스	구9730 40.8×30.2

않는 것으로 일본에 저항하였다. 하지만 대한제국의 황제는 이 같은
수동적인 저항으로는 부족하였는지 한반도 내에서 일본의 활동을 좌
절시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였다. 그중에서 가장 경솔하였던 조치는
헤이그에 사절단을 파견한 것이었다.
일본 통감(이토 히로부미)은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였다. 하지만 고종
은 계속 건강이 좋지 않다는 핑계를 대면서 이토 통감과의 면담을 피
하였다. 외교관으로서 실패한 이토의 소식을 언론이 대대적으로 보도
하였고, 일본 의회도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였다. 전반적으로 (일본 정
부의) 불만이 극에 달해 외무대신을 서울에 보내기로 결정하였다.
하야시 자작은 7월 18일 저녁에 도착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다. 당일 아
침, 고종 황제는 하야시 대신의 방문과 헤이그 사절단의 실패 소식을
듣고 당황하여 무엇이든 양보를 하겠다는 마음을 먹고 이토 후작을
불러들었다. 이토 통감은 같은 날 오후 궁에 입궐해 황제에게 조건을
제시하였다.
고종은 밤새도록 고민하였다. 밖에는 큰 거리마다 무리들이 혼란스럽
게 모여들었다. 수천 명의 사람이 위협적인 손짓과 분노에 찬 목소리로
울분을 토하는 연설가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대신들을 모두 토막
내야 한다, 모두 역적이다. 최근에 황제에게 황위를 황태자(순종)에게
양위하라고 하던 자들이 아닌가!”라며 사람들을 선동하였다.
이튿날 동양적 완곡어법으로 자발적인 양위 칙령'뿐만 아니라 이토
통감에게 민중 운동을 모두 진압할 수 있는 전권을 위임한다는 위임
장이 공포되었다. 그날 오후 시내에 위치한 종각(보신각) 주변에 사람들
이 모여들었다. 종각은 역사적으로 나라에 큰일이 생길 때마다 사람
들이 평화롭게 모이던 곳이다. 돌과 몽둥이를 손에 든 백성들은 일본
경찰을 공격하였다. 일본 경찰은 이에 맞서 무력 진압에 나섰는데 이
틀 동안 서울에서 총소리가 울려 퍼졌고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일본 당국은 벌금과 구속으로 한국 상인들을 위협하였다. 상인들이
가게 문을 열지 않을 경우, 이를 폭동이나 소요 사태로 인한 두려움 때
문이 아니라 항의와 애도의 뜻으로 간주하겠다고 겁박하였다. 일본의
공권력은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궁으로 향하는 길목과 종각 사거리에
기관총을 설치하였다.
삼엄한 호위를 받으며 이토 통감은 7월 20일 새 황제(순종) 즉위식²에

참석하기 위해 경운궁으로 향하였다. 군인들 대부분이 궁 주변에 배치된 틈을 타 백성들은 이지용, 이근호 등의 별장에 불을 질렀다. 7월 24일, 이완용은 국민들에게 매국노라는 비난을 받는 가운데 이토 통감과 한일신협약^야를 체결하였다. 간단히 말해 보호령의 잔인함이 더욱 심해진 것이다. 보호보다는 지배, 또는 식민 국가라는 표현이 더 적절할 것이다. 하야시 대신은 흡족해하며 일본으로 돌아갔다.

언론이 잠잠해진 가운데 한국군은 해산을 요구받았다. 8월 1일 일본의 보호령이라는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순종 황제는 군대 해산 조칙을 내렸다. 병영 한 개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아무런 저항 없이 무장 해제되었다. 물론 상사들에게 속아 병사들이 무기도 없이 도성 밖⁴ 열병식에 참석하였다는 주장도 있다. 일본군이 지켜보는 가운데 한국 병사들은 해고되었다.

서소문(소의문) 근처 막사를 지키던 병사들⁵은 군인의 위엄과 나라의 안녕에 위배되는 군대 해산 명령에 항거하여 반란을 일으켰다. 대대장⁶은 자결하고, 병사들은 화약고를 습격한 뒤 (일본군이 오기를) 기다렸다. 이들을 진압하기 위해 일본군이 도착하였고, 한국 군인들은 창문 너머로 일본군에게 총을 쏘다. 기관총을 가지고 지원군이 도착했다. 2시간 반 동안 격렬한 전투가 지속되었다. 한국군은 자신들을 공격해오는 일본군에 맞서 끝까지 싸웠다.

한국군 100여 명이 전사하였고 200명가량이 부상을 입었다.⁷ 일본 측도 피해가 상당했겠지만 러일전쟁 당시의 사상자 수를 함구하였던 것처럼 이번에도 공식적인 사상자 수를 알리지 않았다. 언론에 의하면 대위 1명과 부사관 2명을 포함해 총 4명이 사망하였다고 하지만 이는 아쉽게도 현실성이 없어 보인다.

많은 한국 병사가 도망쳤고 이에 곧바로 (도망친 병사들을 쫓는) 인간 사냥이 이어졌다. 불행히도 일본 경찰과 일본군 중에는 도덕이나 법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무뢰한 같은 낭인들이 섞여 있었다. 이들은 한국인들을 공포에 떨게 하려고 일본에서 보낸 자들이다. 소위 인간 사냥꾼인 이들은 기모노 속에 총을 감추고 손에는 총만큼 위험한 죽창을 들고 있었다.

낭인들은 도망친 병사들을 잡는다는 빌미로 궁핍한 백성들로부터 많은 재물을 강탈하였다. 수많은 사람을 위협하고 폭행을 가하였으며 사람들을 죽였을지도 모른다. 한국의 독립을 위해 투쟁한 ‘용감한’ 사람들의 시신이 동소문(혜화문) 밖에 버려졌다. 부모들은 유해의 신원을 확인해서 자녀의 장례식을 치렀다. 일본인들도 ‘영웅들’의 죽음에 경의를 표하였다.

이번 ‘서울 전투’는 분명 ‘양국 간의 우호 관계’를 견고히 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고, 최근에 체결된 조약(정미 7조약)도 이를 뒷받침한다. 한국의 애국자들은 평화로운 모습을 잃지 않은 채 긴 담배를 피워 물고 흡과 나무로 지은 형편없는 오두막(초가집) 앞에 구부리고 앉아 황위

찬탈자에 대해 적개심을 표하였다. 평소에는 온화한 한국인들이 과거의 승리를 되새기며 언젠가는 결국 맹렬하게 봉기할 것이다.

어찌 되었든 일본은 한국에서 힘든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돈에 눈이 멀고 방탕에 빠져 백성이나 나랏일에는 관심도 없는 대신과 고위 관리들을 매수하는 것은 비교적 수월했겠지만, 일본을 보호국이 아닌 착취국으로 보는 민중의 증오를 애정으로 바꾸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특히 최근에 발생한 사태로 인해 더욱 어려울 것이다.

이면에 실린 사진(267쪽 도판 참조)은 놀랍게도 다름 아닌 대한제국 황제의 궁(돈덕전)이다. 건물은 오얏 문장敍章으로 장식되었지만, 벽돌과 돌로 만든 벽, 넓은 창 속 공간, 굵은 철재로 된 발코니 등이 전체적으로 고급스러운 초등학교를 연상시킨다. 동양적 호화로움, 옷칠을 한 문, 그 위로 흰 지붕과 금빛 키메라상⁸을 기대하였던 이들은 실망했을지도 모른다. 어쨌든 이 세련되지 않은 서양식 무대 속에서 가련한 고종 황제가 강력한 일본에 의해 폐위를 당해 전날까지만 해도 자신이 다스리던 백성 앞에 마지막으로 서게 되었다.



1 1907년(광무 11) 7월 19일 새벽 1시에 내각대신들의 요청을 허락하고 새벽 3시에 황태자 대리(代理)의 조칙을 내리게 하였다. **2** 일본은 만국평화회의에 특사를 파견한 책임을 물어 고종을 강제 폐위시켰으나 고종이 양위한 것처럼 꾸미려고 하였다. 『순종실록』에 의하면 1907년(광무 11) 7월 18일 고종은 국사를 황태자에게 대리하게 한다는 조서령을 내렸다. 이튿날 황태자의 대리청정 진하식이 황태자는 참석하지 않고 의식만 거행하는 관정례로 치러졌고 7월 20일에는 고종 황제의 양위식이 있었다. 순종 황제의 즉위식은 8월 27일에 거행되었다. **3** 1907년 7월 24일 한일 간에 체결한 정미 7조약을 말한다. 이로써 대한제국은 일본인 차관을 두게 되어 통감의 행정권 감독을 받게 되었고 군대를 해산하게 되었다. **4** 동대문 근처에 있었던 훈련원을 말한다. **5** 서소문 안에 있던 시위보병 제1연대 제1대대를 가리킨다. **6** 시위보병 제1연대 제1대대장 박승환(朴昇煥, ?~1907)(일명 박성환이라고 한다는 말도 있음)을 가리킨다. **7** 실제 한국군의 피해는 남상덕(南相惠, 1881~1907) 등 68명이 전사하고 100여 명이 부상을 당했으며 500여 명이 포로가 되었다. **8** 키메라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머리가 셋인 동물로 양혹은 염소과 사자와 뱀의 모습을 전부 가지고 있으며 입으로는 타오르는 불과 함께 난폭한 기운을 내뿜는다.

서울의 쿠데타

01 낭인 무리가 서울로 들어 서기 위해 경찰의 신호를 기다

리는 모습

02 일본의 통감인 이토 후작이 기관총의 호위 속에서 새 황제(순종)의 즉위식이 열리는 곳으로 이동하는 모습

7 SEPTEMBRE 1907

L'ILLUSTRATION

Nº 3367 — 163

LES ÉVÉNEMENTS DE SÉOUL

Nous recevons d'un de nos compatriotes, présent à Séoul au moment des dramatiques événements qui s'y sont déroulés, il y a un mois et demi déjà, les intéressantes photographies que nous donnons ici. C'est, résumé en quelques clichés saisissants, l'histoire du coup d'Etat perpétré par les Japonais. Notre correspondant accompagne ces épreuves d'un récit du drame que nous tenons à donner tel quel, sans y changer rien. C'est, sans doute, la première relation complète que nous ayons de ce chapitre de l'histoire de la Corée. Rien ne saurait être plus émouvant que ce compte rendu sans phrases :

Depuis l'installation du protectorat japonais en Corée, S. M. Yi-Hyeung avait, à toutes les tentatives de réformes, opposé la résistance des faibles vis-à-vis des puissants, la force d'inertie.

Mais la passivité absolue ne suffit pas à l'empereur, qui tenta sans cesse, par des intrigues, de déjouer l'action des Japonais dans la péninsule. La plus grosse de ces imprudentes manœuvres fut l'envoi d'une déléga­tion à la Haye.

Le résident général voulut avoir des explications à ce sujet ; le souve­rain prétexta de successives indispositions pour refuser toute audience au marquis Ito. La nouvelle de cet insuccès du diplomate enflamma la presse et le monde parlementaire de la métropole. Le mécontentement général atteignit un tel degré que le ministre des Affaires étrangères se décida à se rendre à Séoul.

Le vicomte Hayashi devait arriver le 18 juillet au soir. Le matin même, le souverain, affolé par l'annonce de ce voyage autant que par la connais­sance de l'échec essuyé par ses délégués à la Haye, prêt à toutes les conces­sions, manda le marquis Ito. Celui-ci se rendit dans l'après-midi au palais et soumit ses conditions à l'empereur. Yi-Hyeung réfléchit toute la nui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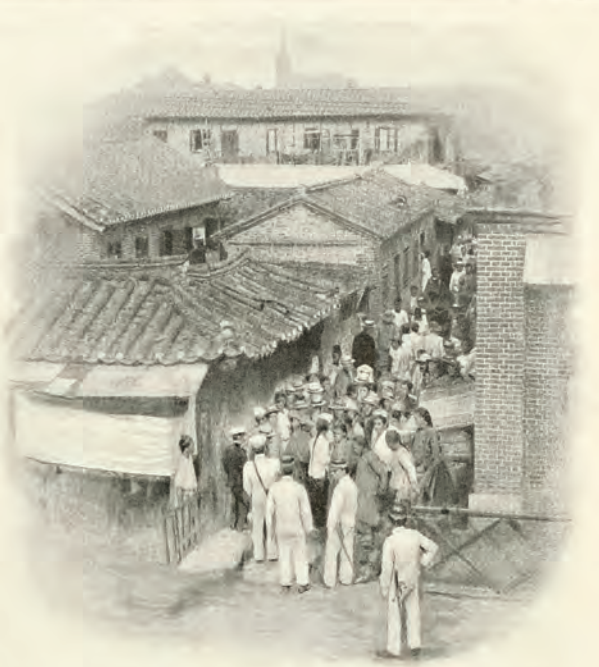
Au dehors, une foule houleuse était massée dans les larges artères de la cité ; des milliers d'hommes écoutaient des orateurs aux gestes menaçants, aux paroles étouffées par la colère. « Les ministres devaient être coupés en morceaux, disaient ces tribuns des carrefours ; c'étaient tous des traîtres ; ne venaient-ils pas de proposer à Sa Majesté d'abdiquer en faveur de son fils ! »

Le lendemain, non seulement parut le décret d'abdication volontaire — oriental euphémisme ! — mais encore l'ordre donnant au résident général pleins pouvoirs en vue de réprimer tous les mouvements populaires.

A la Grosse Cloche (centre de la ville), la foule se rassembla dans l'après-midi. Cet endroit fut, de toute antiquité, le lieu convenu où se réunissait pacifiquement le peuple lors des événements graves. Armée de pierres et de gourdins, la populace attaqua la police japonaise ; celle-ci fit usage de ses armes et, pendant deux jours, les coups de feu retentirent à Séoul. Il y eut des morts et des blessés.

L'administration japonaise ne "put" que "forcer les marchands coréens, sous la menace d'amendes et d'emprisonnement, à ouvrir leurs boutiques qu'ils avaient fermées, en signe de protestation et de deuil plus encore que par réelle crainte de troubles et d'émeutes. Les troupes japonaises rétablirent l'ordre, et, face aux routes se rendant au palais ainsi qu'au carrefour de la Grosse Cloche, des mitrailleuses furent mises en position.

Sous la protection d'une forte escorte, le marquis se rendit, le 20, au palais à l'occa­sion du couronnement du nouvel empereur.



[01] Une bande de « Soshi » attendant l'heure où la police les lâchera dans Séoul.

Profitant de ce que les forces étaient concentrées aux environs du palais, la popu­lace se rendit à la maison du président du Conseil et y mit le feu.

Le 24, ce même ministre, que le peuple accuse de trahison, signait, avec le marquis Ito, le nouveau traité de protectorat : pour être fort court, il n'en est pas moins eruelle­ment dur à la nation protégée... on devrait dire subjuguée... peut-être faudra-t-il dire



[02] LE COUP D'ÉTAT DE SÉOUL. — Le marquis Ito, résident général du Japon, se rendant, sous la protection des mitrailleuses, au couronnement du nouvel empereur.



01 LE COUP D'ÉTAT DE SÉOUL. — Parents et amis des soldats coréens révoltés, venant rechercher leurs morts en dehors de la porte de l'Est.

bientôt... asservie. Le vicomte Hayashi, satisfait, s'en retourna au Japon. La presse s'apaisa, mais réclama le licenciement de l'armée coréenne.

L'ordre impérial en fut donné le 1^{er} août, sous la pression du protectorat. Toutes les casernes, à l'exception d'une seule, furent désarmées sans opposer de résistance ; on prétend, il est vrai, que ces régiments furent trompés par leurs chefs qui leur avaient donné l'ordre de se rendre sans armes à une revue qui devait avoir lieu en dehors de la ville. Sous l'œil des troupes japonaises, ils furent licenciés.

Les soldats occupant les baraquements situés près de la petite porte de l'Ouest n'acceptèrent pas ces ordres contraires à leur dignité de soldats et au salut de la patrie ; ils se révoltèrent. Leur chef se suicida. Ils pillèrent leur poudrière et attendirent.

Les soldats japonais arrivèrent pour les désarmer ; les soldats coréens les fusillèrent par leurs fenêtres. Il fallut envoyer des renforts avec des mitrailleuses ; pendant deux heures et demie, la lutte se continua acharnée. Les Japonais donnèrent l'assaut ; les Coréens tirèrent alors leur premier et dernier coup de canon dans les rangs serrés des assaillants.

Il y eut une centaine de morts et plus de deux cents blessés du côté des Coréens ; du côté des Japonais, les pertes ont dû être considérables ; mais, fidèles au silence qu'ils observèrent en cette matière pendant la guerre russe, les Nippons n'ont pas renseigné le public sur le nombre de leurs victimes, qui ne seraient, au dire de la presse, que de quatre tués, dont un capitaine et deux sous-officiers ; mais ceci paraît malheureusement invraisemblable.

De nombreux soldats coréens s'échappèrent ; une chasse à l'homme s'organisa aussitôt. Il est regrettable qu'aux policiers et agents de la force armée japonaise, se soient mêlés les « Soshi », gens sans aveu, sans foi ni loi, venus de la métropole dans l'espoir de terroriser les Coréens. Ces pêcheurs en eau trouble étaient munis d'armes à feu cachées sous leurs kimonos et tenaient en mains, armes autrement dangereuses, des bambous taillés en sifflet et aiguës pour leur lâche besogne. Ils ont ainsi, sous prétexte de rechercher les soldats en fuite, pu voler de nombreux objets aux habitants

déjà si misérables ; fils les ont menacés, frappés, et nul ne sait s'ils n'en ont pas tué.

Les corps des « braves » morts pour défendre l'indépendance de la Corée furent exposés en dehors de la porte de l'Est ; les parents sont venus reconnaître les restes de leurs enfants et leur ont rendu les derniers devoirs ; les Japonais eux-mêmes ont rendu hommage à la mort de ces « héros ».

Il est certain, toutefois, que cette « bataille de Séoul » n'a pas contribué à cimenter : « les rapports d'amitié entre les deux peuples » que célèbre la dernière convention.

Paisibles, mais patriotes quand même, les Coréens, en fumant leurs longues pipes, accroupis devant leurs tristes cases de bone et de bois, entretiendront leurs passions hostiles contre l'usurpateur, rappelleront le souvenir des victoires anciennes et quelque jour, sans doute, se soulèveront en prouvant, hélas ! que leur cruauté peut, à l'occasion, égaler leur douceur.

Le Japon, en tout cas, assume en Corée une lourde tâche ; car, s'il lui a été relativement aisé de gagner les ministres et les hauts fonctionnaires, lesquels, ne songeant qu'à l'argent et à leurs débauches, se soucient aussi peu de leurs sujets que de leur pays, combien lui sera-t-il difficile, surtout après ces derniers événements, de changer en affection la haine d'une nation qui voit en lui non pas un protecteur, mais un exploitateur !

Nous reproduisons ci-contre une photographie dont l'aspect inattendu causera une véritable surprise. Ces murailles de briques et de pierre, ces larges baies vitrées, ces balcons de grosse ferronnerie, décorés pourtant de la fleur de cerisier héraldique, toute cette architecture qui évoque l'idée d'une luxueuse école primaire, c'est le palais de l'empereur de Corée. Quelle désillusion pour ceux qui rêvaient de faste oriental, de portes de laque, de toits retroussés, de chimères d'or ! C'est cependant dans ce décor occidental et grossier que se présenta pour la dernière fois au peuple, sur lequel il régnait la veille, le malheureux empereur Yi-Hyeung, majesté déchu, détrônée par les tout-puissants Japona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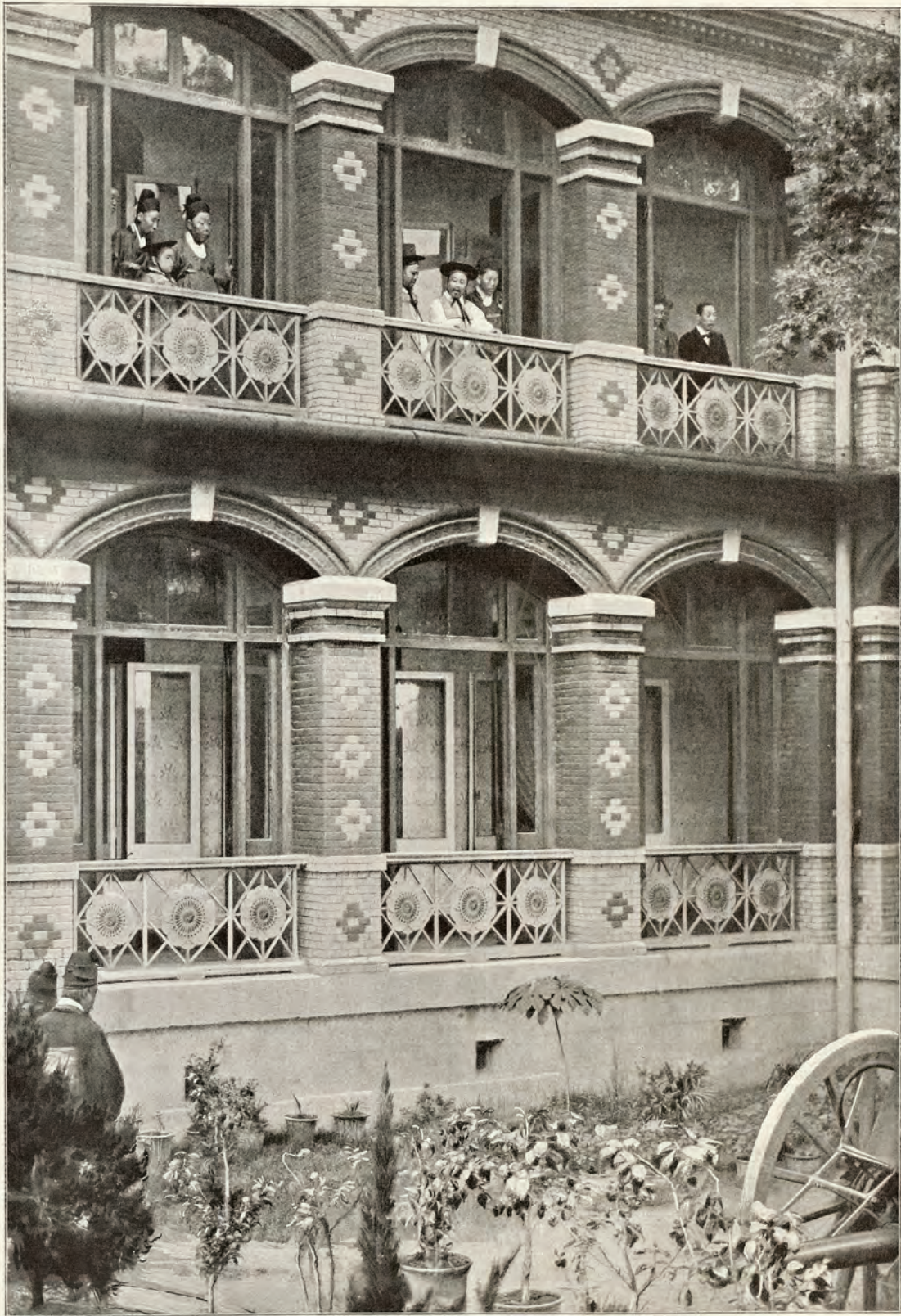
02 La caserne des soldats coréens révoltés, prise d'assaut par les japonais.



03 Après la révolte : les soldats coréens prisonniers des japonais.

서울의 쿠데타

01 반란을 일으킨 한국군의 부모와 친지들이 동문 밖에서 가족의 시신을 찾는 모습
02 반란을 일으킨 한국군의 병영을 공격하는 일본군
03 반란 후 일본군에게 잡힌 한국 군인들



LE COUP D'ÉTAT DE SÉOUL. — Dans la cour d'honneur du palais des empereurs de Corée. A la fenêtre centrale, les deux personnages habillés de blanc sont : à gauche, l'empereur Yi-Hyeung, qui vient d'abdiquer ; au milieu, le nouvel empereur. A la fenêtre de gauche, le petit prince héritier Yung-Tchin entre deux eunuques.

서울의 쿠데타

대한제국 황궁의 앞뜰
흰옷을 입고 있는 두 사람은
최근에 양위한 고종 황제(중앙)
와 새 황제(순종)(좌측)이다.
왼쪽 창문에는 내시를 양옆에
두고 황태자 영친왕이
서 있다.

한국에서의 일본인

갑작스런 한국의 사건들로 인해 정적이 감돌았다. 이 불행한 나라의 절 대적 지배자가 된 일본인들은 이제 사태가 잡음 없이 끝나기를 바랄 뿐이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닥쳤던 재난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심스럽 게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점령 초창기의 일인데, 여기에 실린 상당수 의 사진들은 통신업무국에서 상당한 보안을 요구하는 ‘춤춘 망’을 뚫고 세상에 밝혀진 자료들이다. 새로운 시대에 문명인(일본인)들이 정 복한 나라에서 행한 끔찍한 실상을 드러내는 끔찍한 사진들인 것이다. 이 사진은 전라도 담양에서 찍었다. 의병 봉기는 여러 지역에서 일어났 는데, 일본인들의 억압을 가장 많이 받고 있던 서남 지방에서 거세게 일어났다. 일본인의 어장은 공격을 받았고 주거지는 약탈당했다. 한국 정부는 이러한 사태를 초래한 자들을 저지시킬 완벽한 계획을 세웠어 야 했지만 초라하고 연약한 모습을 보이며 질서를 바로잡는 데 무능하 였다. 오히려 일본인들이 그 일을 가차 없이 처리하였고 탄압은 가혹했 다. 그들은 재판을 시능만 냈고 사태에 가담한 자들에 대해서는 대부 분 처형을 시켰는데, 특히 사진에 담긴 처형 방식은 가장 추악한 것에 속한다.

이 사진을 입수했던 앙리 부아뇌는 “세 명의 한국인은 호기심에 건설 중인 기차 선로 공사장에 갔었는데 공교롭게도 밤사이에 선로 레일 한 부분이 없어졌다. 즉각 그들은 체포되었고 재판 없이 유죄 판결을 받았

L'Illustration	1907. 08. 10. p.90, p.94
릴뤼스트라시옹 프랑스	구9729 40.6×30.5

“봉기는 여러 지역에서 일어났는데, 일본인들의 억압을 가장 많이 받고 있던 서남 지방에서 거세게 일어났다. 일본인의 어장은 공격을 받았고 주거지는 약탈당했다.”

다. 불쌍한 세 사람은 십자가에 묶인 채 50미터 사격 연습의 과녁으로 이용되었다.”고 전하였다. 사진에는 상상도 하지 못할 정도의 매우 야만 적인 행위와 모습들이 세세하게 담겨 있었다. 거리를 재는 장교의 모습, 일본 군인 여럿이 사격하는 장면, 살이 찢겨 내장까지 돌출된 사형수의 모습,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실행 결과를 수첩에 적는 모습 등. 우리는 이주인 해군 제독이 브레스트에서 베푼 축제에 참석하여, 일본인 들이 지난날 사무라이에 대한 추억과 무사들의 영웅담에 여전히 열광 하는 것을 지켜본 적이 있었다. 사실상 일본인들에게는 조상들의 잔인 한 영혼이 아직도 그들의 자손과 지금의 장난감 병정에게도 살아 있다.

Le silence, soudain, s'est fait sur les événements de Corée. Maîtres absolus, désormais, de ce malheureux pays, les Japonais n'ont que trop d'intérêt à ce que les choses se passent sans bruit, et l'on peut croire qu'ils veilleront jalousement à ce que ne se reproduise plus la mésaventure qui leur advint, presque au début de leur occupation, alors qu'un certain nombre de photographies du genre de celle que nous reproduisons ici parvinrent à franchir le «filet à mailles serrées» dont ils entouraient le service des correspondances; car de tels documents jettent un jour trop étrange sur les façons qu'ont, en pays conquis, ces civilisés de date récente. Cette photographie fut prise, à Tam-Yang, dans la province de Tjyan-la-to. Des soulèvements s'étaient produits sur divers points du pays, notamment dans les provinces du Sud-Ouest, où le joug des Nippons se faisait lourdement sentir. Les pêcheries japonaises avaient été attaquées, des habitations pillées. Le gouvernement coréen, disposant de maigres forces, mou, et naturellement enclin à envisager sans déplaisir tout ce qui pouvait créer quelque embarras aux envahisseurs, se montra impuissant à rétablir l'ordre. Les Japonais s'en chargèrent, et sans aucun ménagement. La répression fut terrible. Les exécutions se multiplièrent en masse, précédées à peine de simulacres de jugements. Celle que montre notre gravure fut parmi les plus odieuses. «Trois Coréens, a raconté M. Henri Vaugneux, qui eut en mains cette photographie, avaient eu la curiosité de s'approcher d'une voie ferrée en construction d'où, en un endroit, un rail avait été enlevé pendant la nuit; instantanément appréhendés et condamnés sans jugement, les trois malheureux furent attachés en croix et, à la distance de 50 mètres, servirent de cibles à un exercice de tir. Les péripéties diverses de cet acte d'extraordinaire sauvagerie ont été très minutieusement racontées par les éli chés, depuis l'appréciation des distances et la théorie du «feu à volonté», faites par un officier, jusqu'au moment où ce même officier, carnet de notes en mains, enregistre les résultats de l'épreuve, sans s'inquiéter de savoir si les suppliciés, déchiquetés, les entrailles pendantes, ont, oui ou non, cessé de vivre.» Au sujet des fêtes données à Brest par l'amiral Ijuin, nous notions l'enthousiasme qu'excite encore, chez les Japonais, la mémoire des vieux Samouraïs et de leurs exploits guerriers. Au fond, l'âme féroce de ces ancêtres habite encore dans leurs descendants, les petits soldats jaunes d'à présent.



조용한 아침의 나라 일본인에 의한 한국인 사형

The Illustrated
London News

더 일러스트레이티드 런던 뉴스
영국

1910. 09. 17.
표지

구9849
39.4×27.3

새로운 영토 조선을 정비하는 일본:

퇴위한 황제가
머무는 서울 궁
밖에 서 있는
천황의 군인들

서울에서 한국이 일본의 속국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사례는 많이 찾을 수 있다. 국명이 이미 '조선'으로 바뀌었고, 그 외의 다른 것들도 이처럼 극심한 변화를 겪을 것으로 보인다. 특파원들에 따르면, "철도, 도로, 관개 건설 공사가 마구잡이로 이루어진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이다. 일본에서 건너온 감독관이 중국인과 만주인 인부들을 천 명씩 감독하고, 이들은 여기저기 땅을 파고, 해집고 있다. 반면 한국인들은 그늘에 앉아서 담배를 피우고 있다."고 한다. 삽화는 폐위된 황제의 궁 밖에 서 경비를 서고 있는 일본 보초병의 모습이다. 앞 왼쪽에 있는 서울의 여자들은 자신의 외형을 감추기 위해 얇은 초록색 외투를 입고 있다. 서울의 중인층 남자들은 신기하게 생긴 검은색 말총으로 만든 모자를 쓰고서 긴 담뱃대를 물고 있다. 머리와 얼굴을 완전히 가리는 짙으로 엮어 만든 거대한 모자를 쓰고 있는 남자는 자신이 상을 치르는 중이라는 것을 모자로 알려준다. 한 집꾼이 짐을 지고 있다.

L'Illustration

릴뤼스트라시옹
프랑스

1908. 02. 29.
p.145

구9731
39.2×29.6

일본에 간 한국 황태자

“일본에 관해서라면 무엇이든지
손가락질하는 한국인들에게
유일하게 반감을 사지 않은 이토
통감은 한국인들을 능숙하게
다뤘다.”

지난 11월¹ 일본 황태자²는 일본 황제를 대신해 '주인의 신분'으로 살피기 위해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하였다. 자신의 능력인지 일본 외교관들 덕분에인지 한국의 새 유령 황제(순종)를 설득하여 그의 왕자인 한국의 황태자(영친왕 이은)를 일본으로 유학 보내기로 하였다. 서울에서는 이 사실이 알려지자 소요 사태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경험을 통해 경계심이 많아진 한국인들은 소리소문 없이 제거될 수 있다는 사실을 두려워하면서도 소요를 일으켰다. 한국의 황제는 양국 간의 평화를 위해 인질을 내어주듯이 이복동생³을 멀리 떠나보내는 데 동의한 것

같다. 일본에 관해서라면 무엇이든지 손가락질하는 한국인들에게 유일하게 반감을 사지 않은 이토 통감은 한국인들을 능숙하게 다뤘다. 그에게 크게 감동받은 순진한 대한제국 황제는 충신 이토 후작을 '대후견인'으로 임명하고 황태자를 맡기면서, 황실 혈통 왕자에게 주어지는 모든 특권을 부여하였다. 이토 통감은 황실 피후견인(영친왕 이은)을 도쿄까지 인도하였다.

위 사진(272쪽 도판 참조)은 서울에서 출발하기 전날 찍은 사진이다. 대한제국의 어린 왕자는 혼자 앉아 있고, 수많은 훈장을 달고 있는 '대후견인' 이토가 황태자 곁에 공손하게 서 있는 모습이 정지적으로 보인다. 마치 이 어린 황태자가 앞으로 일본에서 받을 대우의 맛보기라도 보여 주듯이 주변에는 한국 대신들 몇 명과 통감부 주요 관료들이 서 있다. 특히 이토 통감 뒤로는 전 파리 주재 일본 공사이자 대한제국 부통감인 소네 작작이 자리 잡고 있다.

시작은 순조롭게 이루어졌다. 대한제국의 어린 왕자는 이제 일본에 자리를 잡고 무쓰히토 천황의 후계자에 걸맞은 예우를 받고 있다. 일본인들은 그들 특유의 정중하고 우아한 예절로 어린 왕자를 대접하였다. 황태자의 개인교사는 이토 통감의 사위인 스에마쓰 작작이 맡게 되었다. 이렇듯 호사스러운 생활로 새로운 삶에 만족하는 것은 당연히 보인다. 대한제국의 황태자는 새 가정교사들이 가르치는 언어에 뛰어난 재능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겉으로나 속으로나 모든 면으로 완벽히 일본인이 되어 대한제국 왕위에 오를 것이다. 대한제국에 왕좌라는 것이 남아 있다면 말이다.

1 일본 황태자가 한국을 방문한 것은 1907년 10월 16일~20일이다. 2 일본의 요시히토(嘉仁, 1879~1926) 황태자를 가리킨다. 일본 메이지 천황의 셋째 아들로 태어났으며, 두 명의 형이 모두 죽자 1889년에 황태자가 되었고 1912년 제123대 다이쇼 천황이 되었다. 3 원문에는 '자기 아들로 잘못 되어 있어 바로잡았다.'

29 FÉVRIER 1908

L'ILLUSTRATION

N° 3392 — 145

Le marquis Ito. Le prince héritier de Corée.

A Séoul. — Le prince héritier de Corée et son « Grand Tuteur », entourés des ministres coréens et des fonctionnaires de la résidence générale du Japon.

Phot. communiquée par M. Bulet.

LE PRINCE HÉRITIER DE CORÉE AU JAPON

Lorsque, au mois de novembre dernier, le prince impérial du Japon vint faire, en Corée, représentant de son auguste père, le premier « tour du propriétaire », il sut, soit de lui-même, soit par l'entremise des diplomates nippons, persuader au souverain fantôme qui occupe désormais le trône de l'empire du Matin Calme, d'envoyer son bon petit « cousin », le prince héritier de Corée, faire son éducation au Japon. La décision, quand on la connut à Séoul, souleva quelque émotion. Les Coréens, payés pour être déliants, redoutant quelque audacieux escamotage, sinon la suppression pure et simple, poussèrent de grands cris. Leur empereur, en consentant à éloigner ainsi son fils, leur semblait livrer un otage responsable de la pacification de leur pays.

L'habileté du marquis Ito, le seul Japonais que les Coréens exceptent de l'universelle réprobation que leur inspire tout ce qui est japonais, parvint à calmer ces inquiétudes. Un sentiment touchant, mais non sans quelque candeur, inspira à l'empereur de nommer le marquis Ito, à la loyauté de qui il confiait son fils, « Grand Tuteur » du prince héritier, lui conférant, en même temps, toutes les prérogatives des princes du sang. Le marquis Ito se disposa donc à conduire à Tokio son auguste pupille. C'est à la veille de leur départ que fut prise, à Séoul, la photographie que nous reproduisons. Le petit prince coréen est seul assis. Le « Grand Tuteur », tout constellé d'ordres, se

tient debout auprès de lui, déferent, par politique, donnant ainsi à l'impérial enfant comme un avant-goût des égards qui l'attendent au Japon. Autour d'eux, quelques ministres coréens, et les principaux fonctionnaires de la résidence générale, et parmi eux, derrière le marquis Ito, le vicomte Soué, vice-résident général, ancien ministre du mikado à Paris.

Le départ s'est effectué sans incident. Le petit prince coréen est maintenant installé au Japon, entouré des honneurs qui sont réservés au fils même, à l'héritier de l'empereur Mutsu-Hito. Autour de lui, on redouble encore cette courtoisie, cette urbanité raffinée dont les Nippons semblent avoir le secret. On lui a attaché, pour diriger ses études, le légende même du marquis Ito, le vicomte Suematsu. On lui ménage une vie de soie et d'or, et il n'est rien d'étonnant à ce qu'il se plaise infiniment à cette existence nouvelle. Il fait, dit-on, de remarquables progrès dans la langue de ses nouveaux précepteurs. Et, dans quelques années, c'est un prince parfaitement japonais, de mœurs, de cœur, qui montera au trône de Corée. — s'il est encore un trône, en Corée.

LES FUNÉRAILLES DE MOUSTAFA KAMEL

Les funérailles de Moustafa pacha Kamel, le chef du nationalisme en Egypte, dont nous avons publié le portrait et la biographie dans notre numéro du 15 février, ont eu lieu le 10, au Caire.

서울에서- 대한제국의 황태자와 '대후견인'
이토가 대한제국의 대신들과 일본 통감부의
관료들에게 둘러싸인 모습
(왼쪽부터) 이토 통감, 대한제국의
황태자(영친왕)

한국 기행

조용한 아침의 나라에 등장한 자동차

서쪽으로부터 온 새로운 귀신이 한국 수도에 처음으로 나타났다.
한국 신문 『대한매일신보』의 편집장인 만함 씨는 일본과의 분쟁 관련 이야기를 몇 달 전에 우리 칼럼으로 전했다: “내가 찍은 사진은 서울 도심에서 보았던 최초의 자동차를 보여준다. 그리고 그것은 가장 최신 문명의 제품이 이렇게 멀리 떨어져고 거의 알려지지 않은 궁벽한 곳에 어떻게 침투했는지를 그림으로 보여주어 독자들의 관심을 끌 만하다. 그것은 30마력의 화이트 스팀 카이다. 이 차가 주요 도로를 따라 오는 것을 본 한국인들은 자신의 짐을 떨어뜨렸고, 이 새로운 귀신으로부터 구제되기를 기도하면서 여러 방향으로 흩어졌다. 한편 말과 황소는 그들의 주인만큼 꽤 당황하여 유일한 안전한 도피처인 가장 가까운 가게나 개인 집 안으로 달아났다.”

63

The Graphic

더 그래픽
영국

1909. 02. 20.
p.229

구9812
40.0×28.8

A MOTOR-CAR IN THE LAND OF MORNING CALM

DRAWN BY CHARLES COMBIE

FROM A PHOTOGRAPH BY ALFRED W. MARNHAM

Mr. Marnham, the editor of the Korean paper "Dai Han Mai Il Shinpo"—the story of whose trouble with the Japanese was told in our columns some months ago—writes: "My photograph shows the first automobile that has ever been seen in the city of Seoul, and it may interest your readers as illustrating how the latest product of civilisation has invaded this remote and little-known corner of the world. It is a White Steam Car of 30 h.p., and when the Koreans saw it coming along the main road they scattered in all directions, dropped their bundles, and prayed to be delivered from this new demon, while the ponies and bullocks, quite as frightened as their masters, bolted into the nearest shop or private dwelling, as their only safe place of refuge."

The New Demon from the West Makes Its First Appearance in Korea's Capital

한국에 처음 선보인 자동차가 초래한 결과

“한국인들은 게으른 만큼이나 매사에 무관심하다. 유럽 문물의 출현에도 별 관심 없이 무심할 것이라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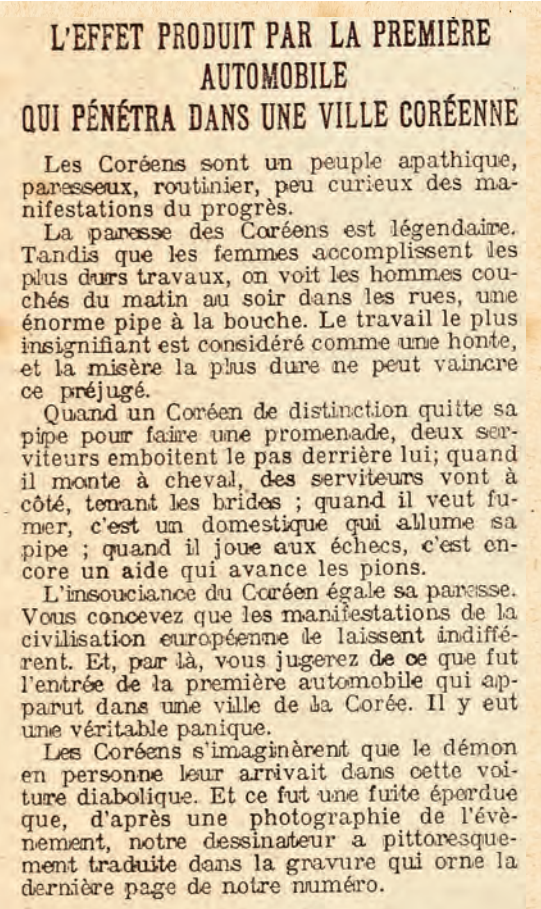
1 1903년(광무 7) 고종 황제 즉위 40주년을 기념해 미국 공사 알렌을 통해 미국제 자동차 포드(Ford) 또는 캐딜락(Cadillac)을 의전식 어차로 수입한 것이 우리나라 최초의 자동차라고 알려져 있다. 실제로 서울 도심기를 달린 최초의 자동차는 1908년 초 프랑스 공사가 입국하면서 들여온 이탈리아산 란치아(Lancia)이다.

Le Petit Journal	1909. 03. 07. p.74, p.80
르 프티 주르날 프랑스	구9742, 구6861 43.8×30.2, 45.3×31.3

한국 국민은 무기력하고 게으르며 인습에 젖어 있어 선진 문물에 대한 호기심이 거의 없다. 한국 남자들의 게으름은 놀라울 정도이다. 힘든 일은 여자들이 다 하고 남자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커다란 담뱃대를 입에 물고 길에 누워 있다. 보잘것없는 일을 하는 것을 수치스럽게 여기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큰 불행이 닥치더라도 이런 생각을 버리지 못한다.

양반 남자가 담뱃대를 내려놓고 산책이라도 하게 되면 하인 두 명이 바로 그 뒤를 따른다. 그리고 말에 오르면 하인들이 옆으로 서서 고삐를 잡는다. 담배를 피우려고 하면 하인이 불을 붙이고, 장기를 둘 때도 하인이 대신해서 말을 옮긴다. 한국인들은 게으른 만큼이나 매사에 무관심하다. 유럽 문물의 출현에도 별 관심 없이 무심할 것이라 생각된다.

그렇다면 한국 도시에 처음으로 자동차가 나타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결과는 진정한 공포 그 자체였다. 한국인들은 사람의 모습을 한 귀신이 괴물을 타고 나타났다고 생각하였다. 당시 현장 사진에 따르면 사람들은 혼비백산이 되어 달아났으며, 그 모습을 생생하게 표현한 그림이 본지 맨 마지막 장에 실려 있다.



한국에 처음 선보인 자동차가 초래한 결과

일본에서 한국으로

H. G. 폰팅

“서울은 동쪽에서 서쪽을 잇는 넓은 대로에 의해 두 지역으로 나뉜다. 이 거리는 똑같은 넓이의 또 하나의 대로에 의해 다시 양분된다. 한쪽은 궁궐 출입문에서 끝나고 다른 한쪽은 이 도시의 남대문까지 이어진다.”

나는 셋쓰 산자락의 위치 좋은 곳에 배가 분주히 드나드는 일본의 고 배항을 출발해 이즈마나다의 바닷길로 일본우선주식회사의 증기선을 타고 한국의 제물포로 향하였다. 어느 날 밤 10시 우리는 닻을 올려 출항하였고 보름달의 아름다운 달빛을 받으며 아카시 해협으로 들어갔다. 이곳은 아와지섬과 일본 본토 사이의 뱃길로 내륙해의 동쪽 주요 관문이다.

이튿날 우리는 좁은 해협을 지나가고 있었다. 이곳은 물살이 빠르고 거세게 흐르다가도 마치 거대한 호수처럼 잔잔하여 시야가 탁 트이기

Harper's Weekly 1904. 04. 16.
pp.589~591
하퍼스 위클리 미국 99772
33.0×23.7

도 하였다. 이상한 모양새의 울퉁불퉁하고 뒤틀린 소나무로 뒤덮인 섬을 지나 우리는 항해를 계속하였다. 때때로 심하게 굽이진 해협을 지날 때마다 배의 항로는 바뀌었다. 마치 사방에서 우리를 포위하는 듯한 험준하고 가파른 한국의 절벽을 향해 나아갈 때는 난파될 뻔한 일촉즉발의 위험을 겪은 적도 있다. 충돌이 일어날 것 같은 찰나에 그때까지 보이지 않던 출구가 보였다. 1초의 어긋남도 없이 바로 구령 소리가 들렸고 키의 방향이 바뀌면서 배는 한쪽으로 기울어져 선회하더니 좁은 해협으로 들어갔다.

이곳의 해류는 거세게 흐르는 강의 물살과 같았고 한가운데는 거대한 돌로 지은 등대가 서 있었다. 배 양쪽에서 돌을 단지면 거의 닻을 수 있는 거리에 예스러운 마을이 자리 잡고 있었다. 우리는 열린 문틈으로 주민들의 집 안을 볼 수 있었다. 삼판선이 해안을 따라 줄지어 있었고 남자들은 낚시를 하고 여자들은 빨래를 하거나 곡식을 타작하고 아이들은 뛰놀고 있었다.

그러나 해협의 길이가 매우 짧아서 우리는 이 모두를 기억에 담고 이내 그곳을 지나 또 다른 잔잔한 물길로 들어갔다. 그날 아침 내내 우리는 물살이 빠른 곳과 탁 트인 직선 유역을 거쳐 수많은 섬을 통과한 끝에 스오나다에 도착하였다. 내륙해에서 가장 넓은 지역으로 이곳 해안선이 수평선 위의 푸르스름한 선으로 보일 만큼 광활하였다.

그날 밤 늦게 우리는 시모노세키 해협에 도착하였다. 이곳 내륙해의 서쪽 관문인 시모노세키는 일본 역사에서 유명한 도시이다. 1860년 일명 ‘시모노세키 사건’이라는 부당한 사건으로 일본과 외국 열강과의 교류가 시작된 곳이다. 당시 영국·프랑스·네덜란드·미국 연합은 외국인들의 해상 출입을 봉쇄하고자 하였던 조슈번의 다이묘에 의해 파괴된 선박에 대한 보상과 실추된 명예 회복을 명목으로 일본 정부로부터 300만 달러를 받아냈다.

시모노세키 맞은편에는 거대한 석탄 공급소가 있는 모지항(후쿠오카현)이 있다. 우리는 이곳에 머물며 배에 석탄을 보충하였고, 모지 근처에서 폭풍우를 만나 고립되어 허리케인이 맹위를 떨치는 동안 밤새 정박해 있었다. 이튿날 아침 폭풍이 잠잠해져 넓은 바다로 향하였다. 그리고 거친 항해 후 어둑기 전에 나가사키에 도착하였다.

이곳은 세계에서 가장 아담하면서도 아름다운 항구로 손꼽힌다. 서쪽

을 제외한 사방이 쌀과 보리가 자라는 푸른 계단식 언덕으로 둘러싸여 있고 바다 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들어서면 단정하고 평평한 가옥들이 산비탈에 자리 잡고 있다. 한편, 수많은 돛배, 삼판선 그리고 증기선이 닻을 내리고 정박해 있거나 해협을 통해 드나들고 있었다. 이곳에 펼쳐진 풍경은 항상 생동감과 빼어난 아름다움을 보여준다.

나가사키를 떠난 후 우리는 또다시 매서운 폭풍과 마주하게 되었다. 폭풍은 더욱 거세져 항해한 지 4시간이 지났지만 선장은 오던 길을 되돌아가 날씨가 좋아지기를 기다리기로 하였다. 한국의 해안은 험하기 때문에 당시의 기상 상황으로는 갈 만한 곳이 아니었다.

이로 인해 또다시 16시간 동안 항해가 지연되었다. 그러나 바람이 잦아들어 다시 항해가 시작되었을 때 하늘은 눈부시게 맑았고 바람도 거의 불지 않았다. 이 눈부신 햇살 속에 한국의 해안선이 또렷이 눈에 들어왔다. 곳곳에 매우 험준한 절벽과 함께 쌀과 보리가 자라는 완만한 경사지가 바다 쪽으로 이어져 있었다.

우리는 이튿날 아침 구름 한 점 없는 쾌청한 하늘 아래 부산항으로 들어갔다. 입구에는 영국 남쪽 해안 인근의 니들스¹를 연상시키는 들쭉날쭉한 바위 봉우리가 세 개 있었다. 이 바위를 지나 평온해 보이는 만으로 들어갔다. 완전히 육지에 둘러싸인 잔잔한 바다였다. 범선들과 두 척의 작은 증기선이 한가로이 떠 있었고 그 모습이 바닷물에 거울처럼 고스란히 비치고 있었다. 만 주변 언덕은 수목이 자란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아서 우리의 출발지인 아름다운 땅 일본의 신록이 무성한 해안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우리는 부산항에서 계속 항해를 이어갔으며 배가 지나가면서 생기는 잔물결만이 유일하게 고요한 바다의 정적을 깨뜨렸다. 멀리서 보면 마치 산비탈에 무리를 이루어 자라는 독버섯 모양을 한 마을에 이르자, 수많은 삼판선이 우리를 맞이하기 위해 급히 다가왔다. 황량한 언덕 위 하얀 점들이 일렬로 천천히 움직이는 모습이 내 관심을 끌었다.

“저기 하얀 개미 떼처럼 보이는 길게 늘어선 점들은 무엇입니까?” 나는 이곳에 온 적이 있는 같은 배의 승객에게 물었다. “이곳 주민들에게요. 일본인 정착촌과 구 부산을 잇는 길을 따라 오가고 있는 거예요.”라고 알려주었다. 그 말은 사실이었다. 성능 좋은 쌍안경으로 보니 하얀 개미로 보였던 것은 흰옷을 입은 건장한 성인들이었고, 그들은 척박하고 메마른 길을 마치 유령처럼 위엄 있는 신중한 걸음으로 지나갔다.

이 이상한 행렬을 다 살펴봤을 때쯤 삼판선이 더욱 가까워졌다. 그런데 우리 배에 다가온 삼판선에는 모두 일본인이 타고 있었고 실제 모든 것이 다 일본의 모습이었다. 왜관에서의 일본 삼판선과 일본인의 모습은 내가 예상했던 그림이 전혀 아니었다. 그렇다면 한국인은 어디에 있을까? 한국 바다에 도착한 후 30분 동안 이들은 응당 있어야 할 곳에 없었다. 내가 본 바로는 평소보다 덜 북적대고 매력이 덜한 일본의 어느 항구에 와 있는 듯하였다.

그러나 그때 작은 증기선이 거룻배를 끌며 다가왔고 배 위에는 처음에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던 아주 더러운 밀가루 포대가 실려 있었다. 증기선이 더욱 가까워지자 나는 밀가루 포대가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내가 전에 보던 사람과는 전혀 달랐다. 모두 머리를 위로 올려 정수리에 얹었고 대부분은 길고 가는 턱수염이 있었다. 마침내 한국인을 보게 된 것이다.

그들은 일본인이나 중국인보다 잘생겼고 모든 면에서 그들과 달랐다. 키가 크고 뚜렷한 이목구비에 다부진 체격을 가진 이들은 배에 이미 승선하여 짐을 내리고 있는 분주하고 몸집이 작은 일본인보다 훨씬 우월한 민족인 것 같았다. 더러운 흰옷을 입은 이 잘생긴 한국인들은 처음에는 무기력하고 게을러 보였지만 거룻배로 짐을 운반할 때는 자기 몫을 다 해냈다. 이들의 노력으로 연이어 우리 배에 들어온 거룻배는 신속하게 짐을 실어 해안가 쪽으로 갈 수 있었다.

우리도 해안가로 가기 위해 삼판선을 탔다. 그리고 배에서 내렸을 때 거리에 더러운 사람들이 더 더러운 옷을 입고 돌아다니는 모습을 보지 못하였다면 여전히 일본에 있다고 생각하였을 것이다. 부산은 일본인들로 가득하였기 때문이다. 이들은 온갖 종류의 무역을 담당하고 있다.

반듯한 일본식 건물이 거리에 줄지어 서 있고 건물 안에는 단정하고 아담한 일본인 여성들이 있었다. 이곳은 일본인 정착촌인 신 부산이기 때문이다. 한국인들이 사는 구 부산은 몇 마을 떨어져 있다. 한국 상점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지만 주요 거리 주변에는 노점상이 있어 행상인들이 웅크리고 앉아 담뱃대와 거울·안경·식기·칼 등 잡다한 물건을 팔고 있었다.

더러운 옷을 입은 한국인들은 계급이 낮은 사람들이었다. 높은 계급의 한국인들은 아마 지구상 어느 나라도 따라올 수 없을 정도의 티 하나 없이 깨끗한 의복을 입는다. 이는 분명 동양에서 가장 진기한 것이고 그 옷을 입은 사람은 하나같이 마치 본인이 거리와 거리에서 본 모든 것의 주인인 양 거만한 걸음걸이로 몸을 흔들며 걷는다.

그런데 남자다운 걸음걸이에 비해 여성스러운 옷을 입은 부조화는 찬찬히 살펴볼 만하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흰옷을 입고 옷감은 크림색 비단으로 조금씩 색이 다른 경우가 있고 모두 티끌 한 점 없이 깨끗하였다. 바지는 매우 험렁하였고 발목 바로 위에서 단단히 조이고 숨을 뿜던 하얀 양말은 하얀색과 검은색 천으로 만든 샌들에 일부분이 덮인다. 여름에는 비단이나 모시로 된 얇고 비치는 천의 옷을 입고 겨드랑이 아래에서 여며 아래로 험렁하게 늘어뜨린다. 뽀뽀하게 세탁하여 마치 어린아이의 풀 먹인 드레스처럼 이상한 형태로 다리 주위에서 돌출된다.

머리 위에는 모자를 쓴다. 모자 끝이 아주 높지 않은 점만 빼면 과거 웨일스의 여성 어부들이 썼던 것과 다르지 않다. 귀족 계급인 양반이

쓰는 검은색에 윤이 나는 모자를 자세히 살펴보면 촘촘히 엮은 비단과 죽사竹絲를 사용해 그물망 모양으로 만들어 크리놀린²과 비슷하다. 한편 양반보다 낮은 계급은 말총으로 만든 모자를 썼다. 끝이 잘린 원뿔 모양은 머리에 맞지 않고 정수리 위에 멋들어지게 놓인다. 아랫부분에는 약 4인치(약 12센티미터) 폭의 둥근 챙이 있다. 모자 전체는 검은 끈이나 띠로 턱 아래에서 묶어 고정시킨다. 이처럼 특이하고 털처럼 가는 모자는 낱씨로부터 머리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역시 이상한 모양새의 스킵캡³ 위에 예를 갖추기 위해 쓴다.

거리에서나 집에서나 항상 착용하고 얇고 비치는 구조로 되어 있어 바람이 통하는 모자 기동 안으로 상투가 선명하게 보인다. 상복을 입은 경우에는 약 3피트(약 90센티미터) 폭의 가장자리가 물결 모양인 커다란 대나무로 만든 모자를 쓴다. 이 넓은 챙은 부친 3년상을 치르면서 상주가 느낄 슬픔을 안 보이게 가려준다.

한국인에게 상투는 중국인의 변발보다 더 소중하다. 상투는 약혼할 때 비로소 올릴 수 있고 그 과정은 사실 매우 고통스럽다. 두피를 밀고 머리카락을 하나로 모아 단단히 묶어 매듭을 만든다. 검은 띠로 머리 주위를 단단히 고정시킨 다음 평생 쓰게 된다. 너무 세게 조여 빼에 자국이 깊이 생기는 경우도 있다. 유일하게 기독교인들만 머리를 자르는 데, 물론 이 진기한 모자를 착용하지만 그 안에 상투는 없다.

약혼하기 전까지 남자아이는 모두 아름다운 머리카락을 길게 땅아 뒤로 늘어뜨린다. 한국의 남자아이는 여자아이와 같은 외모를 지녔다. 아름답고 가는 머리카락을 뒤로 늘어뜨린 얌전하고 잘생긴 남자아이를 처음 봤을 때 여자아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것이다.

혼인은 한국인에게 인생의 문을 열어주는 열쇠와 같다. 남자는 배우자가 생기기 전까지 나이에 상관없이 아이로 여겨진다. 따라서 자기보다 나이가 훨씬 어리더라도 결혼해서 성인이 된 남자와 함께 어울릴 수 없다. 한국에서 혼인은 말 그대로 복권과 같다. 양 당사자는 혼인에 대해 발언권이 없다. 모든 것이 중매인의 중개로 예비 신랑·신부의 부모들에 의해 정해진다. 실제 혼인을 올리기 전까지 당사자는 상대방을 볼 수 없다.

신부가 하층민이 아니라면 그녀의 남편은 아마도 아버지와 남자 형제를 제외하고 그녀가 어린 시절 이후 보게 된 유일한 남자일 것이다. 이는 한국의 여성이 7세 때부터 남성의 눈에 띄지 않도록 엄격히 격리되기 때문이다. 신부가 처음 남편을 보고 마음에 들었다면 윤이 좋은 것이다. 이후 다른 남성은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녀에게 신랑은 전부나 마찬가지이다. 반면 남편의 경우는 더 많은 자유가 허용된다.

한국에 대한 주요 평판은 일반 국민들이 게으르고 하층민들은 불결하다는 것이다. 한국의 막노동꾼을 만나면 바람이 부는 쪽으로 향하면 좀 낫지만, 한국인이 사는 곳의 불결함과 냄새는 피할 방법이 없다.

그러나 부산은 잠깐 흥미를 갖고 지나가는 곳이며 많은 지역에 일본인들이 살고 있어서 깨끗하다. 수도와 가까워질수록 한국의 더러움과 그곳의 삶의 방식을 더 많이 보게 될 것이다.

부산에 불과 10시간 머물렀지만 볼거리가 별로 없는 곳이라 둘러보기에 충분한 시간이었다. 부산항을 떠날 때쯤 티끌 하나 없이 깔끔한 내부를 지닌 반듯한 일본식 건물과 나태하고 목적 없는 삶을 근근이 살아가고 있는 한국인들의 가축우리같이 불결한 집을 본다면 누구나 호감과 반감을 동시에 느끼게 될 것이다.

그날 저녁 5시 우리는 닻을 올리고 부산을 지켜주는 커다란 바위섬을 지나 다시 항해에 나섰다. 그 후 남서쪽으로 방향을 틀어 그림자가 끊어지는 섬이라는 뜻의 절영도 남쪽 해안 주변을 빙 둘러갔다. ‘디어섬’으로도 알려진 이곳은 태평양의 잦은 태풍으로부터 부산을 지켜준다. 부산에서 해상 교전이 처음 일어났던 제물포까지 좋은 기상 상황에서 30시간이 걸리는 이 여정의 항로는 다른 나라의 항로만큼이나 힘들고 위험하다.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군도의 황량한 섬과 아찔한 낭떠러지, 뾰족한 능선은 썰물일 때는 섬이지만 바닷물이 들어오면 물에 잠겨 위험한 암초가 된다. 이 범접할 수 없는 해안은 가는 길마다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별안간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안개가 자주 발생하여 많은 뱃사람들의 희망을 무참히 짓밟는 무덤 같은 곳이다.

제물포에는 항구가 없다. 간조 때 본토와 이어지는 몇 개의 섬 그리고 홀수⁴가 가장 얇은 배만 이용할 수 있는 정박지가 있는 넓게 펼쳐진 갯벌이 이곳의 주요한 지형적 특징이다. 해안까지는 삼판선으로 한 시간 정도 걸린다.

물이 빠질 때라 갯벌은 바다를 향해 수 마일 뻗어 있었고 부두에 물이 최고 높이로 차오르자 이곳의 조수 간만의 차가 30~40피트(약 9~12미터)에 이른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썰물 때와 밀물 때의 제물포는 같은 곳이라 여기기 어려울 정도이고 질척한 갯벌 위로 물이 들어올 때는 술웨이만의 잔물결 치는 모래를 덮어버리는 속도와 거의 비슷하게 밀려온다.

서울의 항구이자 한국의 외국 교역자들의 본거지이고 현재는 주한 일본군의 본부이기도 한 제물포의 첫인상은 가장 분주하고 매우 유럽적인 면모를 보여주었다. 빨간 벽돌로 지은 커다란 창고가 해안가에 길게 늘어서 있어서, 건물 앞에 배가 정박 중인 경우 육지의 상업 활동만 보일지도 모른다.

우리가 배를 댈 돌로 지은 부두에는 열심히 일하는 막노동꾼으로 가득하였고 그들은 모두 등에 지게를 지고 있었다. 한국의 지게는 두 갈래로 갈라진 나뭇가지에 두 개의 가로대를 붙여 만든다. 툭 튀어나온 곳 위에는 엄청난 짐이 실린다.

제물포에서 이루어지는 국내 주요 교역품은 쌀과 마른 생선 그리고 보리이다. 보리는 일본과 마찬가지로 가난한 사람들의 주식이고 쌀은 이

보다 고급 음식이다. 반면 마른 생선은 모든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음식이다. 거대 선단이 이 물품을 공급하기 때문에 부두에는 보통 수십 척의 범선이 나란히 정박되어 있다.

부두 근처에서는 나무가 우거진 높은 둔덕 위에 위치한 영국 영사관이 가장 눈에 띈다. 좋은 위치에 당구대와 테니스장 그리고 시설 좋은 도서관을 갖춘 클럽은 제물포가 한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곳이 되는 데 일조하고 있다.

제물포에서 서울까지는 30마일(약 48킬로미터) 거리로 일본이 소유하고 건설한 철도로 이동한다. 철길을 따라 그림 같은 풍광이 이어진다. 구불구불한 푸른 언덕과 논이 스치며 지나가고 사이사이 드넓은 황무지가 나타난다. 땅은 분명 깊고 비옥해 보이지만 어떤 용도로도 사용한 적이 없어 보였다. 우리는 서울에서 수 마일 떨어진 한강을 건넜고 그 후 바로 열차는 서울의 성벽 아래 멈춰 섰다.

서울은 성벽으로 둘러싸인 도시로 인구는 약 25만 명이고 이 가운데 3분의 1은 넓게 퍼져 있는 외곽에 산다. 벽에는 돌로 지은 거대한 출입문이 8개가 나 있고 그 위에 탑처럼 생긴 2,3층 높이의 망루가 하나씩 세워져 있다. 기차역에서 가장 가까운 문은 ‘돈의문’으로 불리는 서대문으로 은자의 왕국의 수도로 들어가려면 바로 이 문을 통과해야 한다. 한편 수도의 이름은 우리의 압태지 발음에 ‘l’을 붙인 ‘sowl’과 발음이 똑같다. 달리 발음하는 한국인을 나는 본 적이 없다. 서울은 수도를 의미하고 그 이상 다른 것은 없다. 그러나 서울이라는 이름과 관련해 소박한 아름다움이나 참신함이 있다면 그것은 분명 이곳의 위치 때문일 것이다. 이 도시가 위치한 곳보다 경관이 훨씬 더 빼어난 곳을 찾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 도시는 울퉁불퉁하고 구불구불한 봉우리에 둘러싸인 작은 골짜기 위에 있다. 산마루 정상에는 성벽이 높이 세워져 있다. 이따금 작은 협곡 안으로 깊이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오며 가장 가파른 봉우리와 가장 높은 봉우리의 정상까지 이어져 있다.

뻗처럼 구불구불한 이 성벽 안에는 허름한 가축우리 같은 집과 화려한 궁궐, 목적 없이 빈둥대는 사람들과 바빠 움직이는 무리들, 넓은 거리와 미로 같은 골목길, 티 한 점 없는 깨끗함과 형언하기 힘들 정도의 불결함이 서로 공존하여 대조를 이룬다. 과연 이런 모습을 지구상 다른 나라에서도 볼 수 있을까 의구심이 든다.

서울은 동쪽에서 서쪽을 잇는 넓은 대로에 의해 두 지역으로 나뉜다. 이 거리는 똑같은 넓이의 또 하나의 대로에 의해 다시 양분된다. 한쪽은 궁궐 출입문에서 끝나고 다른 한쪽은 이 도시의 남대문까지 이어진다. 서대문에서 몇 분만 걸어가면 미국 공사관이 있다. 이곳에서 나는 호러스 N. 알렌 공사와 그의 부인 그리고 고든 패틱 서기관을 만났고 이들의 배려로 옛 궁궐 경내에 들어가는 특혜를 누리고 그 외 많은 호의를 받게 되었다. 매우 고맙게 생각한다.

서대문 안에 들어서자 우리는 도시 중심부로 향하는 사람들의 인파로 인해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동쪽으로 휩쓸려 갔다. 당시는 새벽녘이었고 거리에는 무거운 짐을 진 남자들과 황소로 끄뻬었다. 이들은 이 진기한 극동의 메카 한가운데 위치한 큰 대로변의 장터로 향하고 있었다. 전차선이 몇몇 중심가를 따라 놓여 있었고 몇 분마다 현대적인 미국산 전차가 우리를 지나쳐 갔다. 한국인 남자와 여자 모두 이용하고 있었다. 과거 서울의 모습은 빠르게 그 모습을 감추고 있다. 미국 전기회사의 본사인 현대적인 빨간 벽돌 건물(한미전기회사)이 도시 한가운데서 있고 그곳의 송전탑에서는 웅장한 교회와 공사 건물이 이곳 주민의 땅딸막한 집 위로 우뚝 솟은 모습을 볼 수 있다.

1 영국 화이트섬(Isle of Wight) 서쪽 해안에 위치한 바위섬이다. **2** 과거 여자들이 치미를 블록하게 하기 위해 안에 입던 틀이다. **3** 테두리 없는 베레모이다. **4** 배가 물 위에 떠 있을 때 물에 잠겨 있는 부분의 깊이를 말한다.

From Japan to Korea

By H. G. Ponting

It was from the charmingly situated and busy port of Kobe, Japan, at the foot of the mountain of Settsu, by the waters of Izuma Nada, that I embarked on one of the steamers of the Nippon-Yusen-Kaisha for Chemulpo, Korea.

At ten o'clock one night we weighed anchor, and in the glorious light of a full moon entered the Strait of Akashi, the passage between the Isle of Awaji and the mainland of Nippon, that forms the principal eastern passage to the Inland Sea. All next day we were passing through narrow channels where the current ran swift and strong, or wide and open sheets of water that seemed like enormous lakes.

Past curiously shaped islands clad with gnarled and twisted pine-trees we steamed, the vessel's course being altered at times almost every minute to navigate the tortuous winding channels. At one place the good ship appeared to be in imminent risk of being wrecked as we steered straight for a rocky and precipitous cliff of the land which apparently locked us in on all sides. Just as the crash seemed about to come the hitherto unseen opening appeared. Quickly, and timed to the second, went the word of command, hard-over went the helm, and, sharply responding to it, the vessel, heeling over, swung around and slowly glided into a narrow channel with a dashing current like that of a swift river, in the midst of which a great stone lantern stood. On either side of us were quaint villages almost within a stone's throw of the ship, and we could look through the open doors into the houses of the inhabitants. Sampans lined the shores, men were fishing, women were washing and threshing grain, children were playing. But there was time for impressions only as the narrow was a short one, and in a few minutes we had passed it by and gained another open stretch of water. All that morning we steamed through swift races and open reaches and past islands innumerable until we reached Suwo Nada, the widest part of the Inland Sea, so wide that the shores appeared only as a faint blue line on the horizon.

Late that night we arrived at the Strait of Shimonoseki, the western entrance to these landlocked waters, named from the town of Shimonoseki, famous forever in Japanese history as the spot where occurred the most unjust incident that has marked the intercourse of the foreign powers with Japan—the so-called "Shimonoseki affair," which occurred in 1860, when the war-ships of Great Britain, France,

Holland, and the United States arrived off the town, and an indemnity of \$3,000,000 was exacted from the Japanese government as recompense for injury to their prestige and damage to their ships by the Daimyo of Choshu, who had attempted to close the straits against the ships of all foreigners.

Opposite Shimonoseki lies the port of Moji, a great coaling-station, where we stayed long enough to replenish our bunke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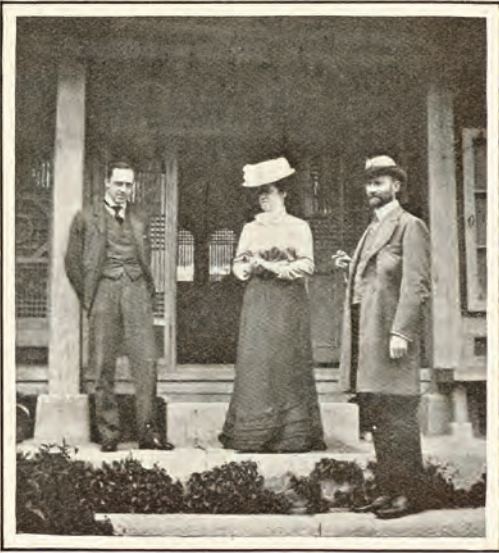
We were storm-bound near Moji, and lay at anchor all night, while a fierce hurricane raged. The next morning, the storm having abated, we made for the open sea, and, after a rough passage, arrived at Nagasaki just before dark. Nagasaki is one of the most beautiful small harbors in the world. Surrounded on all sides save the west by green terraced hills on which rice and barley crops are grown, with the neat, flat houses of the town rising up the hillsides from the sea on the right as one enters, and with numerous junks, sampans, and steamers lying at anchor or sailing in and out through the channel, the sight presented here is always one of animation and great beauty.

After leaving Nagasaki we again ran into a terrible storm, which became fiercer each minute until finally, when we were four hours out, the captain decided to turn back and wait for better weather,

as the inhospitable Korean coast was no place to be off in such weather as we were then experiencing. We were thus delayed another sixteen hours, but when the wind subsided and we again started out, it was on a clear sunshiny and almost windless day, and the coast-line stood out boldly in the strong clear light. In places the cliffs are very steep, while in others gentle slopes of rice and barley descend to the sea.

We crept into the harbor of Fusan the next morning under a sky of unfleeced azure. There are three jagged peaks of rock at the entrance which remind one of the Needles off the south of England coast. Having passed these, we entered a peaceful bay, completely landbound, on the placid waters of which a few junks and two small steamers floated lazily, their images reflected in unbroken detail in the blue mirror beneath them. All around the bay the hills are devoid of almost every vestige of woodland growth, and they presented a strong contrast to the verdant shores of the lovely land we had so recently left.

As we steamed up the harbor our widening wake was the only ripple that marred the perfect calm of the



Minister Allen (on the Right) and his Wife on the Steps of the United States Legation at Seoul
01 From stereograph by the author, copyright by C. H. Graves, Philadelphia.

589

- 01 서울의 미국 공사관 계단에서 있는 알렌 공사(오른쪽)와 그의 부인
02 나가사키에서 일본 증기선 '니폰 마루'에 석탄을 공급하는 모습
03 제물포의 항구와 양륙장
-저자의 입체 사진

water, but as we neared the town, which in the distance looks like a great batch of toadstools on the hillside, a number of sampans came hurrying out to meet us. On the barren hills a thin line of slowly moving white spots attracted my attention.

"What is that long line of specks over there that looks so much like a train of white ants?" I asked a fellow passenger who had been here before.

"Those are the natives," he replied, "and they are passing to and fro along the road that connects the Japanese settlement with Old Fusan." And, sure enough, they were, for on turning a powerful glass on the spot the white ants were seen to be full-grown human beings, clad in white, who with stately measured steps passed like ghosts along the barren sun-baked highway.

By the time we had finished our inspection of this strange procession the sampans had drawn nearer. As they approached the ship we saw that they were all manned by Japanese, and, indeed, there was a very Japanese appearance about everything. Japanese sampans with Japanese at the *yulos* were not at all what I had expected to see. Where, then, were the Koreans? During our first half hour in Korean waters they were certainly conspicuous by their absence, and, for all I could see, we might have been off some port in Japan, less bustling and less attractive than usual. Presently, however, a steam-launch approached, towing a lighter on which there were a number of what at first appeared to be animated and very dirty flour-sacks. As it came nearer I realized that the flour-sacks were men, but different from any other kind of men I had ever seen before. Each had his hair done up in a small knot on top of his head, and most of them wore long, slender beards. These, at last, were the Koreans: they are much better-looking and different in every way from the Japanese or Chinese. Tall, well featured, and well built, they seemed a very superior type to the busy little Japs who had come on board and who were already at work on the cargo. But these fine-looking men in such dirty white clothing, listless and lazy though they at first seemed to be, held their own when it came to lightering the ship, and under their combined efforts the barges, which one after another came alongside, were rapidly filled up and *yuload* shorewards.

We embarked on a sampan for the shore, and when we had landed we might still have been in Japan were it not for the numbers of dirty people in dirtier clothing who crowded the street; for Fusan swarms with Japanese, and commerce of every description is in their hands. Neat Japanese buildings with neat little women in them line the street, for this is New Fusan, the Japanese settlement, and the native town, or Old Fusan, lies a couple of miles away. Korean shops are few, but the principal streets are fringed with stalls at which the vendors squat and sell their pipes, mirrors, goggles, eating utensils, knives, and other such things.

It is only the lower classes of Koreans whose garments are dirty. The better-class Korean wears an attire the immaculate cleanliness of which is probably unexcelled anywhere on earth. It is certainly the quaintest in the Orient, and as its owner invariably swings along with a supercilious swagger, as if he and he alone were the owner of the street and all he surveyed besides, the incongruity of his manly gait contrasted with his exceedingly effeminate dress is a thing which must be seen to be thoroughly appreciated. He is clothed in white from head to foot, the white being sometimes varied by cream-colored silk, every garment being of spotless cleanliness. He wears the baggiest of baggy breeches,

tightened just above the ankles, and his padded white socks are partially enclosed in white and black cloth sandals. He wears—in summer—a silk or grass-cloth coat of gauzy texture, which is tightened under the armpits and spreads loosely from there downwards, and, being stiffly laundered, sticks out in a ridiculous manner all round his legs like the starched frock of a little child. On his head he wears a hat not unlike that formerly worn by Welsh fishermen, only the crown is not so high. The hat is black and glossy, and a close inspection of that of a yang-ban (aristocrat) showed that it was made of finely woven silk and bamboo in an open mesh that resembled crinoline, while those worn by the less prosperous are made of horse hair. The truncated cone does not fit the head, but perches jauntily on top of it. At its base is a round brim about four inches wide, and the whole is kept in place by a black cord or band tied under the chin. The office of this peculiar capillary attire is not alone to protect the head from the weather, but to form a receptacle for an equally curiously shaped skull-cap which in turn contains the topknot. This hat is worn on all occasions, both on the street and in the house, and its gauzy construction enables the topknot to be plainly seen within its airy walls.

Only when he goes into mourning does the Korean abandon this headgear, and then it is exchanged for an enormous affair of bamboo three feet or so in width, with a scalloped brim, under which sequestered retreat he conceals his sorrow for his father's death for a period of three long years.

The topknot of the Korean is to him an even more cherished possession than is the queue to a Chinaman. It is assumed only at betrothal, and its assumption is a very painful process indeed: the scalp is shaved and the hair all round is gathered together and tied tightly into a knot, while a black band is fastened round the head and worn always afterwards. So tightly is it applied that I have seen cases where it had made a deep impression even on the bone. Only the Christians cut their hair, and though the quaint hat is still retained, there is no topknot beneath it. Up to the time of betrothal all boys wear their splendid hair in a long thick plait down the back. Korean boys have a very girlish appearance, and probably there are few travellers who do not at first think that the demure and handsome boys, with magnificent thin hair hanging down their backs, are girls.

Marriage to the Korean is the key which opens to him the door of life. Up to the time he secures a partner he remains a boy—no matter what his age may be—and is not admitted to the companionship of those who, though perhaps many years his junior, have become men by marrying.

Marriage is literally, in Korea, a lottery. Neither of the parties to the contract has any voice in the matter. Everything is arranged, through the medium of a matrimonial agent, by the parents of the bride-and-groom-to-be, and not until the actual hour of the ceremony does either of the principals concerned ever see the other. Indeed, as far as the bride is concerned, unless she is of low degree, her husband is probably the only man, excepting her own father and brothers, whom she has ever seen since the days of her childhood, for in Korea a girl from the age of seven is rigidly secluded from the gaze of all masculine eyes. Lucky is the bride of Korea who may at first sight of her husband find the vision pleasing. To her he is all in all, for henceforth she will see no other man. To the husband, however, greater latitude is allowed.



02 Coaling the Japanese Steamer "Nippon Maru" at Nagasaki
From stereographs by the author, copyright by C. H. Graves, Philadelphia



03 The Harbor and Landing-place, Chemulpo

The chief subjects of remark in Korea are the laziness of the general population and the filthiness of the lower classes. It is well to keep to windward of the Korean coolie, but there is no keeping away from the squalor and smells of the native dwellings. Fusan, however, is of but passing interest, and a great portion of it is Japanese, therefore clean. We shall see more of Korean dirt and methods of living as we come nearer to the capital. We stayed but ten hours at Fusan, but that was time enough for us to see the few sights the place has to show. One leaves the port with mingled feelings of approval and disgust—approval of the neat Japanese buildings with their cleanly spotless interiors, and disgust for the filthy hovels in which the Koreans eke out their slothful, aimless existence.

At five that evening we weighed anchor and steamed once more past those great guardian rocks. Thence we turned southwest and skirted the southern shore of Chol-yong-to, the “Isle of the Interrupted Shadow,” commonly known as Deer Island, that shelters Fusan from the frequent storms of the Pacific. From Fusan to Chemulpo, where the first naval engagement of the war took place, a voyage of about thirty hours in fine weather, is probably as difficult and dangerous a course as any to be found the wide world over. A scattered archipelago of desolate islands, lofty crags, and jagged ridges—which are islands at low tide and treacherous sunken reefs at high water,—this forbidding coast, beset with danger for every mile and subject to sudden and impenetrable fogs, has been the grave of many a mariner’s hopes.

Chemulpo has no harbor. A few islands which are joined to the mainland at low tide, and a vast expanse of mud-flats with a shallow roadstead suitable only for vessels of the lightest draught, are the chief topographical features. It takes an hour or more to reach the shore in a sampan. The mud-flats extended for miles seaward, for it was low water, but the high-water mark on the wharf revealed the fact that the tide here rises and falls from thirty to forty feet. Chemulpo at high tide and Chemulpo at low tide are almost unrecognizable as the same place, and the flood sweeps in over the slimy ooze with almost the speed that it rushes over the rippled sands of the Solway Firth.

Being the port for Seoul, the capital and the headquarters of all the foreign traders in Korea, as well as the location of the present headquarters of the Japanese army in Korea, Chemulpo at first sight presents a most industrious and very European appearance.

Long rows of great red brick warehouses line the strand, and in front of them, when a ship is in port, may be seen the only evidence of genuine commercial activity in the land. The stone quay at which we disembark is crowded with eager coolies, each with a jiggy on his back. The Korean jiggy is a crutch made of two prong-shaped branches of a tree, joined together by two cross pieces, and on the projecting horns immense loads are carried.

The principal native trade of Chemulpo is in rice, dried fish, and barley. As in Japan, barley is the staple food of the poorer classes, and rice is more or less of a luxury. Dried fish, however, is the food of one and all. There are usually scores of junks moored alongside the wharves, as an immense fleet is engaged in supplying this demand.

The British consulate, on a high wooded knoll near the landing-wharf, is the most noticeable feature, and the pleasantly situated club, with billiard-tables, tennis-grounds, and a well-equipped

library, goes far towards making Chemulpo the most desirable place of residence in Korea.

From Chemulpo to Seoul is a distance of thirty miles, traversed by a railroad owned and built by the Japanese. There is a good deal of picturesque beauty along the railroad. The passing panorama is of rolling green hills and rice-fields, alternating with great barren patches which apparently have never been used for any purpose whatever, though the soil bore evidence of being deep and fertile. We crossed the river Han, a few miles out from Seoul, and shortly afterwards the train drew up under the walls of the capital.

Seoul is a walled city of nearly a quarter of a million inhabitants, about a third of whom live in extensive extra mural suburbs. The wall is pierced by eight gateways of massive stone, each with a pagoda-shaped tower of one or two stories above it. The nearest of these to the railway station is the west gate, “The Gate of Bright Amiability,” and it is by this portal that almost every visitor enters the capital of the Hermit Kingdom. The name of the city, by the way, is pronounced precisely as we would pronounce the female pig with an l added—*i. e., Sow!*. I have never heard a Korean pronounce the name in any other way.

The word means “Capital,” nothing more; but if there is small beauty or originality about the name of the city, there certainly is about its location, for anything more strikingly picturesque than the site of the Korean metropolis would indeed be difficult to find. The city stands in a little valley almost surrounded by rugged, corrugated peaks. High along the top of this mountain ridge runs the city wall. Deep into the gullies it dips, rising now and again to scale the steepest slopes and crown the summits of the loftiest pinnacles. Enclosed within this snakelike barrier is such a strange contrast between wretched hovels and splendid palaces, purposeless loafers and hurrying crowds, broad streets and labyrinthine alleys, spotless cleanliness and unspeakable filth, as I doubt could be equalled elsewhere on earth.

The capital is divided in twain by a thoroughfare of great width running the length of the city from east to west. This street is bisected by another of equal width, one end of which terminates at the Palace gates and the other at the south portal of the city. A few minutes’ walk from the west gate is the American Legation. Here I had the pleasure of meeting Dr. Horace N. Allen, the United States minister, his wife, and Mr. Gordon Paddock, secretary of the legation. Owing to the kindness of these gentlemen, I secured the valued privilege of admission to the precincts of the old palaces and many other favors, for which I am deeply grateful.

Once inside the west gate, we are drawn irresistibly eastwards by the surging stream of humanity that flows towards the centre of the city, for it is early morning, and the streets are crowded with heavily laden men and bulls bearing their burdens to the open markets on the broad thoroughfares in the heart of this quaint Far-Eastern Mecca.

Along several of the main streets are trolley-lines, and every few minutes a modern American electric car whirls past us well patronized with Koreans, both men and women.

Seoul of the past is fast becoming extinct. A modern red brick building, headquarters of the American Electric Company, rises in the centre of the town, and from its tower stately churches and legation buildings can be seen towering above the squat houses of the natives.

어두운 한국에 복음을 전하다

R. T. 코이트

The Christian

Herald

더 크리스천 헤럴드

미국

1909. 03. 11.

p.910

구6793

36.3×26.8

하였습니다. 기도와 함께 다른 선교사님과 상의한 뒤에, 우리는 체계적

인 방식으로 한국인의 귀를 솔깃하게 할 구원 활동 계획을 세워서 여

러 소책자 형태로 한국의 모든 가정에 성경을 전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사역은 체계적으로 마을과 군마다 이루어졌습니다. 사역을 기록하

였고, 그 기록은 현장에서 해당 선교사가 선택한 한국의 기독교인이

맡았습니다. 이들은 가는 곳마다 성경을 들고 다니며, 하나님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하는 이에게 하나님을 전하였습니다.

한국의 수백만 기독교인들은 시장에서 나눠주거나 호기심으로 직접

사서 본 소책자나 복음서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되었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이들을 교회로 부르심으로써, 주의 진리를 온전히 전하

고자 하는 우리의 사역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고 믿습니다.

수십만 명의 일본인이 한국에 오고 있으며, 한국에 살고 있는 일본인들

은 모든 주요 도시에 터전을 잡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험심이 더 강한,

이른바 일본에서 ‘밀려난’ 사람들로, 도덕관과 인생관이 느슨한 자들입

니다. 이들에게도 일본어로 된 복음서가 필요하며, 우리는 한국인에게

하였던 사역과 같은 노력을 이들 일본인에게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성서공회 덕분에 성서를 권당 50센트에 내놓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한국 기독교인들의 노력으로 우리는 복음을 소책자로 각 가정에 약 1

센트의 비용으로 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낮은 가격으로 한국어

성경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해주신다면 이 땅의 모든 이가 주님

을 알 때까지 우리가 주님이 흘리신 보혈로 구함을 받은 이로서 몸을

일으켜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을 널리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약속하신 바, 주님의 말씀이 하나도 헛되지 아니하며, 주께

서 기뻐하시는 대로 이루시며, 주님께서 보내신 곳이 번성하도록 하신

다 하셨습니다. 이 글을 읽는 독자 중 누구라도 이 사역에 관심이 있다

면, 테네시 내슈빌의 남장로교회 해외 사역팀의 총무인 신학박사 S. H.

체스터 목사에게 편지하시면 됩니다.

한국, 광주에서



Japanese Army Headquarters, near Seoul, Korea

한국, 서울 근교의 일본 육군 본부

SPREADING THE GOSPEL IN DARK KOREA



A Heathen Funeral in Korea

THE readers of THE CHRISTIAN HERALD may be interested in the first effort ever made, so far as I can learn, to put a copy of the Gospels into the hands of every one in Korea—this land where God has so signally blessed our work.

When I first landed in Korea I was impressed with the fact that Standard Oil seemed to be known and used in every village of the land, and sold in nearly every store. As I passed along the streets I would pass coolie after coolie carrying water, most of them in large five-gallon oil cans.

It set me to planning how we could get the Word of God as widely known and distributed. After prayer and counsel with other missionaries, we decided to begin a systematic effort to put a copy of the Gospel, with several tracts setting forth the plan of salvation in a way to catch the ear of this people, into every home. This work is being done systematically, village by village and county by county. Records are kept of the work, and it is through the agency of native Christians who are selected by the missionaries in charge on the field. These men preach as they go, and carry along Bibles to sell to those inquiring more fully.

Hundreds of Christians in Korea have been led to Christ through reading some tract or Gospel given out in the market places or purchased by some one out of curiosity. We believe that God will bless this systematic ef-

fort to thoroughly disseminate his truth by adding untold numbers to the Church. There are hundreds of thousands of Japanese coming into Korea, and they are thickly settled in all the principal towns. They are the more

adventurous, the “crowded-out” population of Japan, and they come with loose views of morals and life. These need to have the Gospel in their own tongue, and we are attempting to do the same for these as we do for the Koreans.

The Bible Society has made it possible for us to put these Gospels out for one-half cent each. With these native Christians to do the work, we can put a Gospel, with several tracts, into each home at a total cost of about one cent per home. When God has enabled us to give these people the Gospel in their own language, and at such a trifling cost as this, should we not, as Christians redeemed by his blood, rise and spread abroad the knowledge of Christ until every one shall know him? He has promised that his Word shall not return to him void but shall accomplish that which he pleases and prosper in the thing whereto he has sent it.

If any of your readers become personally interested in this work they may write to the secretary of the Southern Presbyterian Foreign Missions, Rev. S. H. Chester, D.D., Nashville, Tenn. Sincerely yours in His name,

R. T. COIT.
Kwang-ju, Korea.

한국 이교도의 장례식

한국의 새해
풍습:
서울 근처의
석전石戰



A COREAN NEW YEAR CUSTOM: STONE-FIGHTING NEAR SEOUL

가까운 장래에 사라질 것들

한국의 모자

모리스 드 페리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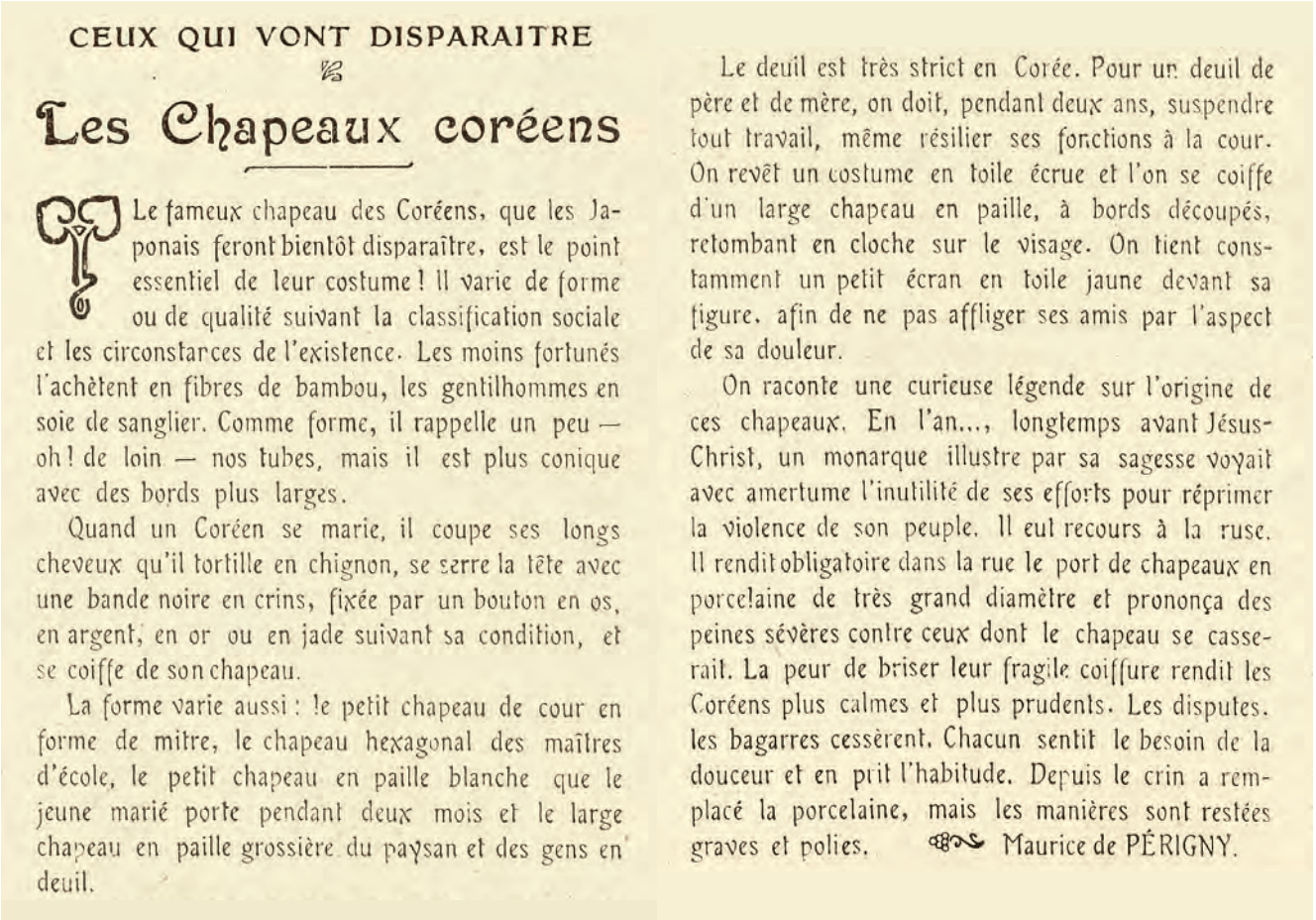
“아버지나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2년간 모든 일을 그만두어야 한다. 궁중 직책까지도 사퇴해야 한다. 염색하지 않은 삼베옷(최의褒衣)을 입고 머리에는 짚으로 만든 큰 모자를 쓴다.”

일본인들이 곧 사라지게 만들 것으로 보이는 한국인들의 모자는 그들의 의복에서 핵심적인 부분이다. 한국의 모자는 쓰는 사람의 사회 계층과 삶의 조건에 따라 그 형태와 질을 달리한다. 하층민들은 대나무 줄기로 만든 모자를, 그리고 귀족들은 멧돼지 털로 만든 모자를 사서 쓴다. 형태로 보면 프랑스에서 옛날에나 사용하였던 실크헤트¹를 떠올리게 되지만, 좀 더 원추형이고 챙이 더 넓은 모양이다. 한국 남자는 결혼을 하면 긴 머리카락을 자르고 하나로 틀어 올린(상투) 다음 머리 둘레에 말총으로 만든 검은색 띠(망건)를 두르고 단추(관

Journal des Voyages	1911. 12. 14. p.66
주르날 데 부아야주 프랑스	구9737 32.5×23.2

자)로 고정시킨다. 이때 단추는 경제력에 따라 동물의 뼈나 은, 금 또는 옥으로 만든 것을 선택한다. 마지막으로 모자를 쓴다. 모자의 형태도 다양하다. 궁에서 쓰는 작은 모자(사모)는 주교관主教冠처럼 생겼고, 학교 선생님의 모자(정자관)는 육각형 모양이며, 새신랑이 결혼 후 2개월 동안 쓰는 흰색 작은 모자(초립)는 짚으로 만든 것이고, 농부(샷, 농립)들과 상중喪中의 남자들이 쓰는 모자(물건)는 그 크기가 크고 짚으로 거칠게 짠 모양이다. 한국의 상례喪禮는 매우 엄격하다. 아버지나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2년간 모든 일을 그만두어야 한다. 궁중 직책까지도 사퇴해야 한다. 염색하지 않은 삼베옷(최의褒衣)을 입고 머리에는 짚으로 만든 큰 모자²를 쓴다. 모자는 테두리가 잘리고 종 모양처럼 얼굴로 내려오는 형태이다. 그리고 지인들이 자신의 고통스러운 얼굴을 보고 마음 아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얼굴 앞에 노란색 삼베 가리개(포션 또는 사션)³를 항상 들고 다닌다. 한국 모자에는 유래에 얹힌 재미있는 이야기가 전한다. 때는 바야흐로 기원 원년보다 훨씬 전, 지혜롭기로 유명하였던 한 군주가 백성들의 폭력성을 억누르고자 노력하였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고, 그로 인해 가슴 아파하고 있었다. 결국 한 가지 묘책을 쓰기에 이르렀다. 백성들에게 밖에 나갈 때는 지름이 매우 큰 자기齶器로 만든 모자를 쓰는 것을 의무화하고, 모자를 깨뜨리면 큰 벌을 내릴 것이라고 공표한 것이다. 모자를 깨뜨리면 안 된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힌 백성들은 조용하고 신중해졌다. 언쟁과 주먹다짐이 그쳤다. 모두가 부드럽게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것은 습관이 되어갔다. 그 후 모자는 자기 대신 말총으로 만들게 되었지만 사람들의 태도는 계속해서 진중하고 예의 바르게 유지되었다.

1 높은 크라운과 좁은 챙으로 이루어진 남성 예장용 모자이다. 2 상주(喪主)가 두건(頭巾) 위에 덧쓰는 굴건(風巾)을 말한다. 그 위에 새끼 줄에 삼 겹질을 감아 만든 수질(首絛)을 둘러쓴다. 3 천의 양쪽에 손잡이 대를 끼워서 두루마리처럼 양쪽을 말아 쉴 수 있으며 이것을 펴면 가리개가 된다.



가련하고 정다운 나라, 한국

“한국의 남성들은 건장하고 어깨가 넓으며, 황인종 특유의 심술궂음은 없다. 여성들은 날씬하고 부드러우며, 매우 뛰어난 미모의 얼굴에서 우아함이 묻어나는 여성들도 몇 명 눈에 띈다. 한국인은 항상 흰옷 차림으로 다니며 절대로 서두르는 법이 없다.”

흥미로운 이 책을 마치며 우리는 이제 점령국(일본)의 먹잇감이 된 한국이라는 나라를 알게 되었고 불쌍히 여기게 되었다. 수도 서울은 단층짜리 초가집이 무수히 늘어난 곳으로, 어디를 봐도 시골 풍경이다. 짙으로 머리를 치장한 지붕들이 연기를 내뿜는 모습은 영락없이 화목한 가정의 삶과 친근하고 평화로운 분위기를 풍긴다.

한국의 남성들은 건장하고 어깨가 넓으며, 황인종 특유의 심술궂음은 없다. 여성들은 날씬하고 부드러우며, 매우 뛰어난 미모의 얼굴에 우아함이 묻어나는 여성들도 몇 명 눈에 띈다. 한국인은 항상 흰옷 차림

L'illustration

릴뤼스트라시옹
프랑스

1904. 05. 14.
p.335

구9725
39.4×28.9

으로 다니며 절대로 서두르는 법이 없다. 일본인과 달리 표정을 찡그리거나 인상을 쓰지 않는다. 한국인은 몽상가로, 가진 것은 없어도 큰 욕심 없이 살아간다.

수도 서울의 거리는 장사꾼들로 북적인다. 동네마다 직종이 나뉘어 있다. 한쪽에는 주물 제조업자들이 철을 두드리는가 하면, 다른 쪽에서는 철물점의 상품이 반짝거린다. 제화공들도 일을 별로 서두르지 않으며, 양피지 제조공들도 기름종이로 입기에 편안한 모자나 코트를 만든다. 모자는 한국의 가정과 사회생활에서 큰 기능을 한다. 여성들은 몸을 가린 채 저녁에만 외출이 허용된다.

마찬가지로 밤중에는 한국의 가장 특색 있는 의식인 장례식이 거행된다. 대리 울음꾼(곡비)들의 울음소리로 길에는 끝없이 끔찍한 신음소리와 장송곡이 이어진다. 긴 행렬이 비통하게 거리를 행진한다. 약령이 죽은 자의 몸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온갖 주의를 기울인다. 그 뒤에는 장례가 엄숙하게 치러진다. 큰 삼베 모자(물건)를 쓰고 입을 가린 채 완전한 침묵 속에서 장례가 거행된다.

결혼식도 다소 독특한데, 여인들은 비단으로 치장하지만 신부는 짐보따리처럼 리본으로 휘감고 묶어 포장한다. 이 같은 일종의 봉인을 해제하는 것은 신랑의 몫으로, 많은 것을 허락하지 않더라도 신부가 듣고 말하며 살 수 있게 해준다. 신부는 남편의 식사를 차리고, 아무 말 없이 남편의 옷을 빨면서 살게 된다. 한국에서는 여인네들이 불평을 하면 “암탉이 운다”며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한국인은 시와 이상을 즐길 줄 아는가? 일부에서 묘사한 대로 불결하게만 살아가는 짐꾼 민족인가? 뫼크로는 조용한 아침의 나라의 아름다운 시가와 노래 몇 곡을 소개하는데, 그중 늙은 아버지를 보며 슬퍼하는 젊은 대장장이의 이야기가 인상 깊다.

이 무거운 철봉을
가는 실로 늘어뜨려
해까지 달았으면 좋겠네.
해를 읊아매 해가 지지 못하도록,
날로 하해지는 부모님의 관자놀이가
하루도 더 늙지 않았으면 하네.

한국에는 속담 문학도 있는데 한국인은 속담 속에 자신의 작은 체념을 온전히 담았다.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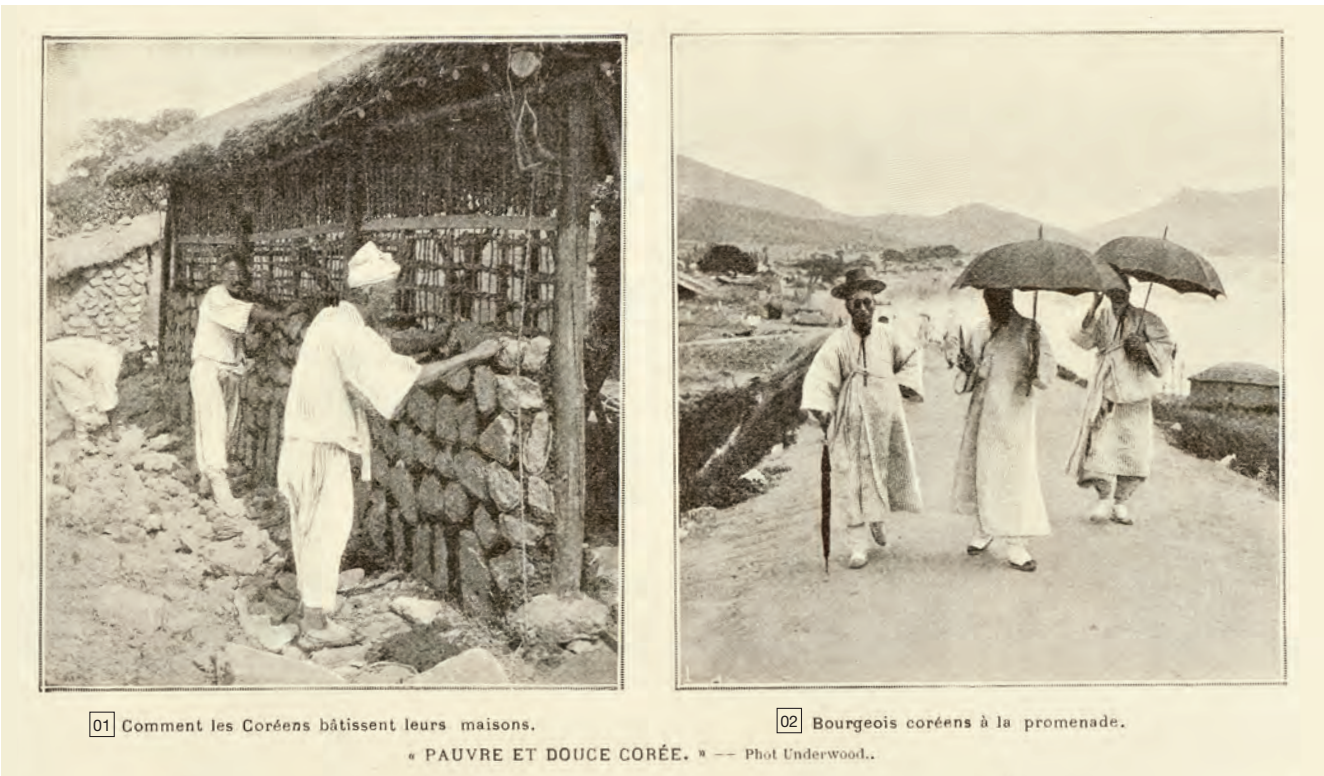
한국인은 어떻게 정치를 하는가? 일본의 학살과 명성황후 시해 사건(을미사변) 이후 대한제국 황제(고종)는 궁을 떠나 최근까지 외교 구역에 머물며 평화로이 국가를 다스렸다. 광부 출신의 총리대신 이용익의 도움을 받았는데, 출신과 학위(과거 급제)를 중시하는 한국에서 귀족도 아니고 학위도 없는 이용익은 그리 인기가 없다. 하지만 이용익은 황제의 총애를 받고 있다.

한 나라의 황제라기보다 영주라고 불러야 할 것 같은 고종은 그러저럭 돌아가는 군대를 확보하려고 노력하였지만 실패하였다. 앞서 학위에 대해 언급하였는데, 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한국에서 한층 더 대접을 받는다. 한국에서는 많은 사람이 학교에 다니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프랑스)’에 대한 애국심을 가르치는 프랑스 학교(범어학교)도 많이 찾는다.

착한 민족, 가난하고 해를 끼치지 않는 민족이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게 되었다. 한국인을 짐꾼으로 부리고 짐을 나르는 짐승에게 하듯 채찍질해댄다. 사람들은 체념한 듯 “어떤 이들은 웃기 위해 태어나고, 어떤 이들은 울기 위해 태어났다.”라고 말한다.

인도주의자이자 한국에 정통한 시인 뫼크로를 통해 우리도 한국이라

는 나라를 가련하게 생각하게 되었다. 고결한 문인들에게는 『가련하고 정다운 나라, 한국』이란 책을 소개하고자 한다. 특히 새의 날갯짓처럼 힘차게 울리는 종과 강렬한 촛불로 가득한 새벽 예배를 소개하는 장에서는 유럽의 낙원과 크리스마스에 대한 환상을 그리고 있다.



『가련하고 정다운 나라, 한국』 01 한국인들이 집을 짓는 방법 02 산책에 나선 부르주아 한국인들 - 사진 제공 언더우드

<div><div></div>MOUVEMENT LITTERAIRE</div>	
 <div><i>Pauvre et Douce Corée</i>, par Georges Ducrocq (Champion, 2 fr.). — <i>L'Empire d'Annam</i>, par Ch. Gosselin, préface de Pierre Baudin (Perrin, 5 fr.).</div>	
<div><i>Pauvre et Douce Corée</i></div> <p>En quittant ce petit livre délicieux, nous connaissons et nous plaignons la Corée, en proie maintenant au ravisseur. Séoul, la capitale, aux chaudières sans étages, qui s'étendent sur un espace indélini, a tout à fait l'aspect d'une paysanne. Avec sa coiffure de chaume et ses toits fumants, elle donne une impression de bonne vie familiale et de paix intime. Les hommes y sont vigoureux, d'épaules larges, sans l'air de méchanceté des jaunes purs; les femmes élancées et douces, quelques-unes fort belles, de visage délicat. Le Coréen marche posément, dans un blanc costume, sans les contorsions et les grimaces de ses voisins japonais. Il y a en lui du rêveur et une facilité à se contenter de peu pour sa vie matérielle. Dans les rues de la capitale règne une certaine animation marchande; les différents corps de métier sont cantonnés par quartiers. Ici, tapent sur le fer les chaudronniers; voici les quincailliers aux ustensiles reluisants; les cordonniers peu pressés dans leur travail; les parcheminiers, qui fabriquent, avec le papier huilé, chapeaux et manteaux confortables; le chapeau joue un grand rôle dans la vie domestique et sociale du Coréen. Le soir seulement, les femmes ont le droit de sortir, enveloppées.</p> <p>Pendant la nuit, pareillement, a lieu la cérémonie la plus caractéristique de la Corée, c'est-à-dire l'enterrement. Il y a des pleureurs loués, des gémissements affreux, de funèbres cantiques, toute une longue procession lamentable qui défile dans les rues. On prend toutes sortes de précautions pour chasser les diables loin</p>	<div> <div><div></div>du corps des défunts. Rien de plus sévère ensuite que le deuil, avec le bonnet de chanvre, l'immense chapeau pendant les voyages, l'écran sur la bouche et le complet silence. Curieux aussi sont les mariages avec les femmes parées de soie, mais avec la mariée enrubannée, ficelée et fermée comme un paquet! Ce sera la chose du mari qui lui permettra de se défaire de son espèce de cachetage, de parler, d'entendre, de vivre, sans lui octroyer cependant beaucoup de licence: son lot est de préparer les repas du maître et de nettoyer, sans rien dire, ses habits. On n'aime pas les femmes qui se plaignent, « les poulés qui chantent ».</div></div> <div> <div></div> <div>Est-ce que le Coréen a de la poésie et de l'idéal? Est-il uniquement ce peuple de portefaix aux habitudes malpropres que quelques-uns nous ont représenté? M. Ducrocq nous cite quelques jolies odes et chansons du Matin Calme; et celle en</div> </div> <div> <div></div> <div>sole de voir vieillir son père :</div> </div> <div> <div></div> <div>Cette barre de fer massive, Je veux l'amincir en fils tellement longs Qu'ils atteignent le soleil et qu'ils l'accrochent, Et l'empêchent de se coucher, Pour que mes parents, Dont les tempes commencent à blanchir, Ne puissent plus vieillir d'un seul jour.</div> </div> <div> <div></div> <div>Il y a aussi en Corée une littérature de proverbes, dans laquelle l'habitant du Matin Calme a mis toute son âme modeste et résignée : « Quand les baleines combattent, les crevettes ont le dos brisé. »</div> </div> <div> <div></div> <div>Quelle est la vie politique du Coréen? Depuis les massacres accomplis par les Japonais, depuis leur assassinat de l'impératrice, l'empereur a quitté son palais pour se réfugier dans le quartier des légations, d'où, jusqu'aux derniers événements, il gouvernait son paisible Etat, avec l'aide d'Y-on-ik, ancien mineur, devenu premier ministre. L'absence de gentilhommerie et de diplômes d'Y-on-ik, dans un pays où l'on tient tant compte de la noblesse et du parchemin, le rend un peu impopulaire; mais il a pour lui l'amitié</div> </div>
	<div> <div><div></div>tié du maître, le maître, une sorte de roi d'Yvetot qui s'est en vain essayé à avoir une armée faisant l'exercice. J'ai parlé des diplômes, constituant un état supérieur à celui qui les possède; c'est que les écoles sont assez fréquentées en Corée, même l'école française où l'on apprend à aimer « le plus beau pays du monde ».</div></div> <div> <div></div> <div>Bon peuple, pauvre et inoffensif, il est tombé sous l'esclavage japonais; on lui fait porter les fardeaux, on le flagelle comme une bête de somme. « Quelques-uns, dit il résigné, sont nés pour le sourire, d'autres pour les larmes ». M. Ducrocq, un humanitaire et un poète renseigné nous a fort attendri sur la Corée. Je recommande aux lettrés délicats ce charmant petit livre : <i>Pauvre et Douce Corée</i>, et tout particulièrement dans le volume une messe de minuit, où les cloches sonnent à toute volée et où les cierges flam-bent, donnant l'illusion du paradis et d'un Noël européen.</div> </div>
	<div><i>L'Empire d'Annam</i>.</div> <p>Les études — fort bien faites — sur notre colonie indo-chinoise abondent depuis quelque temps. Je signalerai en passant <i>l'Indo-Chine et son avenir économique</i>, par M. Nèton (Perrin, 3 fr. 50); <i>Au Tonkin pendant la conquête</i>, par M. Frédéric Garcin (Chapelaï, 5 fr.) et les notes curieuses que M. le docteur Challan de Belval a réunies sous ce titre : <i>Au Tonkin</i> (Pion, 7 fr. 50). Je ne puis que nommer ces livres consciencieux, tous pareillement utiles à connaître; <i>l'Empire d'Annam</i>, par M. le capitaine Gosselin, avec une vive et sage préface de M. Pierre Baudin, m'a particulière-ment retenu. L'auteur nous donne l'histoire ancienne de l'Annam proprement dit et du Tonkin, nous montre quelles luttes les Annamites ont soutenues contre la</p>

72

고요한 아침의 나라

에르네스트 로

“한국인들은 천성적으로 인내심이 강함에도 불구하고 몇 년 전부터 그들의 땅에서 행해지는 일본의 무례하고 약간은 잔인한 행위에 대해 반기를 들고 있다.”

서울의 폭동－한국을 지칭하는 시적인 표현은 어디서 유래된 것인가?－게으르고 불성실한 민족－흰색 의복－한국식 담뱃대와 일본식 담뱃대－극동 지역에서 마지막 남은 미지의 나라－관료주의를 신성시하는 곳－한국 법률－도시, 도로, 군대－한국인들의 애국심은 깨어날 것인가?

최근에 서울에서 사람들이 서로 죽고 죽이는 일이 벌어졌다. 극동 지역에서 ‘고요한 아침의 나라’라 불리는 한국이 평소의 고요함을 떨쳐 버리고 일본의 포악한 지배에 맞서 전면적으로 봉기한 것이다. 한국을

Le Petit Journal	1907. 08. 04. <p>p.242</p>
르 프티 주르날	
프랑스	구9741, 구6860 <p>45.0×31.2, 43.4×30.5</p>

지칭하는 ‘고요한 아침의 나라’라는 시적인 표현은 어디서부터 유래 된 것일까? 이에 대해 한국을 여러 차례 방문한 적이 있고 한국에 대 해 큰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있는 빌타르 드 라게리 기자에게 질문 하였다.

그는 말한다. “한국의 기후는 중국인들이 부르는 한국의 공식 명칭인 ‘고요한 아침의 나라’ 또는 ‘아침의 고요함’이라는 말 하나로 잘 표현 된다. 한국의 아침은 사계절 내내 맑고 신선하며 가볍고 투명한 공기, 부드럽고 깨끗하며 매우 빛나지만 눈이 피곤하지 않은 햇빛, 깨끗한 청록색 하늘로 표현할 수 있다. 유럽인에게는 모든 것이 즐겁기보다는 놀랍고 불편하게 느껴지는 이곳에서 유일하게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것이 바로 이 점일지도 모르겠다…”

이러한 고요함과 평온함이 이 나라 국민에게 영향을 미쳤을까? 인접 국가들과 구별되는 한국인들의 무기력하고 무관심한 성격은 기후에 서 기인한 것일까? 신체적으로 한국인들은 보통 골격이 튼튼하고 키 가 크다. 그래서 힘든 일도 잘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일과는 맞지 않는 사람들이다. 천성적으로 나태하고 게을러서 잠자고 먹고 술 마시고 담배 피우는 것과 같은 본능적인 만족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처럼 보인다. 술은 사케?라고 부르는 발효된 술을 매우 많이 마신다. 그래서 나이에 비해 일찍 늙는다.

한국에 살고 있는 한 외국 의사는 이곳에는 위생이라는 개념이 전혀 없다고 말한다. 그가 쓴 글의 일부이다. “한국인들은 절대 손을 씻거나 세수를 하는 법이 없다. 옷매무새에도 전혀 신경을 쓰지 않기 때문에 한 번은 한 영국인 여행자가 어떤 이를 가리키며 ‘자기가 만난 한국인 중에 가장 지저분한 사람’이라고 하였는데 사실 그 사람은 아주 깨끗 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사실은 이렇게 지저분한 민족이 거의 항상 흰 색 옷만 입는다는 것이다. 한국 남자의 전통 의상은 양옆에 트임이 있 는 튜닉(두루마기)과 통이 넓은 바지로 전체가 흰 면縐으로 이루어져 있 다. 입는 사람들이 천성적으로 청결에 무심함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옷인 것이다. 관리는 지칠 줄 모르고 끊임없이 빨래를 해야만 하는 여성들의 몫이다.

여자들이 하루 종일 남편의 옷을 빨고 행구고 풀을 먹이는 동안 남편

들은 햇빛 아래서 즐겁게 담배를 피운다. 한국에서 담배는 모든 사회 계층을 막론하고 가장 큰 관심사이다. 옛날, 즉 일본의 지배가 시작되기 전에 한국인들은 길이가 1미터가 넘는 매우 긴 담뱃대를 사용하였다. 그들에게 긴 담뱃대는 민족적 자부심과도 같은 것이었다. 메로빙거 왕조³ 시대 사람들에게 긴 머리카락이 자부심이었던 것과 일맥상통한다. 일본인들은 상업적 이윤을 목적으로 수 세기 동안 이어져온 한국의 담뱃대를 하루아침에 약 30센티미터 길이의 일본산 담뱃대로 바꾸게 하였다.⁴ 긴 담뱃대 사용을 금지하는 칙령을 발표한 것이다. 놀라움과 분노에 찬 한국인들은 저항하려 하였다. 하지만 긴 담뱃대를 발견하면 모두 부숴버리고 그 주인은 범죄자로 처벌하라는 명령이 경찰에 내려졌다. 결국 그때까지만 해도 지구상에서 가장 온순한 민족이었던 한국인들은 이에 복종하고 말았고 일본산 담뱃대만을 사용하게 되었다.

지금으로부터 약 30년 전부터 일본은 한국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하였고, 한국인들은 이에 굴복하는 수밖에 없었다. 한국은 극동 지역에 마지막 남은 미지의 땅이었다. 1882년⁵ 전까지 한국의 모든 항구는 유럽 국가들에 대해 닫혀 있었다. 그로부터 5년 전⁶ 일본인들만이 왕래를 시작하였고 서울에 외교 대표부를 설치하기에 이르렀다. 이홍장은 ‘고요한 아침의 나라’에서 자행될 일본인들의 행태를 예상하고는, 한국의 왕에게 일본이 얻고 있는 이익을 서양인들을 대상으로 똑같이 얻어내라고 조언하였다. 그 후 한반도의 항구들은 국제 무역을 위해 개방되었고, 외국 여행자들은 미지의 나라를 여행하며 그들만의 풍습을 마음껏 관찰할 수 있게 되었다.

인접 국가들에 비해서 사회가 열등해 보이는 것은 그들만의 기이한 풍습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단지 게으름과 인습에 젖은 제국일 뿐만 아니라 관료주의에 의해 착취되고 있는 곳이다. 빌타르 드 라게리는 말한다. “한국에는 관료들이 넘쳐난다. 하나의 도에 주요 관공서의 장이 44명이나 되고, 각각이 400명의 직원을 거느리고 있다. 이외에도 수도 서울에는 정부 각 부처와 왕궁에 속한 담당관이 1만 명에 달한다. 공무원 수가 총 14만 6,000여 명에 이르는데, 전체 인구가 967만 명이므로 공무원이 인구 65명당 1명꼴인 셈이다.” 프랑스에서도 소위 ‘세금 도둑(공무원)’들의 숫자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어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지만 아직 이렇게까지 심각한 정도는 아니다. 그러나 한국인들의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는 것은 그 많은 관료가 수천 가지 방식으로 국민을 착취한다는 것이다. 그들은 국민에게서 모든 것을 강탈할 수 있는 징발권을 갖고 있는데 과도한 금액의 세금을 징수해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다. 이들은 공직에 머무는 기간이 3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짧은 기간 동안 자신들의 미래를 보장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려고 한다. 이를 위해 최악의 권력 남용이 아무렇지도 않게 저질러지고 있고 국민은 끊임없이 착취당한다.

다음은 한국 법률에 대해 살펴보자. 한국의 법률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많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독단적인 태도에는 호의적이고 자주적 행동에는 비판적인 면을 보인다. 한국의 법률에는 모든 것이 다 기록되어 있어서 아주 사소한 과실까지도 포함하여 모든 것을 징벌한다. 누군가 황제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고개를 숙이지 않고 두 손을 들지 않거나 ‘폐하’라는 호칭을 쓰지 않으면 즉시 태형에 처해진다. 황제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러 궁에 온 사람이 의전이 정하는 방식을 착각해 실수를 한다면 역시 매질을 당하게 된다. 남자가 자신의 장모가 돌아가셨을 때 정해진 기간 동안 충분히 상복을 입고 있지 않으면 태형을 당한다. 지나치게 오랜 기간 상복을 입고 있어도 마찬가지이다. 집을 짓거나 수레·옷·항아리 등을 사용할 때 정해진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태형 10대에 처해진다.

왕궁 앞뜰에 허가 없이 들어가면 태형 100대이고, 후원에 들어가면 강제 노역에 끌려간다. 특히 왕궁 주방에는 절대 들어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몰래 들어갔다가는 하찮은 토끼처럼 목이 졸려 죽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사람들의 운수를 점치다가는 매질을 당한다. 특히 나라와 관련된 예언을 하면 감옥에 갇히게 되니 조심해야 한다. 하지만 우연히 하늘에서 천재지변의 전조를 보게 되면 재빨리 해당 기관에 알려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3년간의 강제 노역에 처해질 수 있다. 한국의 법률에는 이처럼 단순하고 고지식한 내용들이 뒤죽박죽 섞여 있지만, 몇몇 공정한 조항들도 눈에 띈다. 공정성을 갖춰야 할 시험 감독관이나 상관의 환심을 얻기 위해 술책을 꾸미는 관료, 그리고 분야를 막론하고 추천 제도를 남용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징벌이 그것이다. 한국 법률은 ‘은밀하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권력자’를 배척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 점은 우리 프랑스 법률과 비교하면 훨씬 더 현명한 조항이다.

법관이 사법적인 실수로 부당한 형을 선고하거나 공무원이 권력을 남용하여 횡포를 일삼는 경우 처벌받게 된다. 추천해야 마땅한 뛰어난 재능을 지닌 인재를 알면서도 황제에게 알리지 않은 관료는 10년 유배형에 처한다는 조항도 있다.

이처럼 정의를 바탕으로 하는 구체적인 조항들이 있긴 하지만 그 외에 수많은 조항들은 개인의 자유와 자주적 행동을 방해한다. 한국 입법자들은 어떠한 사소한 범죄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법률 맨 마지막에 다음과 같은 기괴한 조항을 포함시켰다. “누구든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한 사람은 태형 40대에 처한다.”

법률 조항이 이토록 사소한 것까지 규정하는 것은 국민 스스로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천성적으로 나태한 한국인들은 항상 보기에도 안타까운 인습에 갇혀 살아왔으며, 어느 누구도 본능적인 무기력함에서 벗어나도록 강요한 적이 없었다. 수도 서울을 포함한 전국 도시에는 지저분한 마을에 흙과 돌맹이, 짚으로 지은 오두막집들이 늘어서 있고, 사람들은 그 안에서 쓰레기와 해충이 난무하는 가운데 근근이 살아가고 있다. 도로는 크기에 따라 큰길, 중간 길, 오솔길 등 세 종류로 나뉘어 있지만, 사실 상은 모두 작은 오솔길에 속한다.

이처럼 도로의 상태가 열악한 것은 일반 국민이 여행할 때는 반드시 걸어서 다녀야 한다고 규정해 놓은 이해하기 힘든 법률과 무관하지 않다. 말을 타고 다니는 것은 귀족들에게만 허용된다. 하천의 잦은 범람으로 인해 도로 사정은 점점 더 열악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에서이다. 도로 개선은 거의 찾아볼 수 없고 교량도 부족하다. 서울로 이어진 큰길에는 우체통이 있긴 하지만 공무원과 우편국 직원들만이 사용할 수 있다.

군대를 살펴보자면, 군인으로서의 정신 자세나 복장 면에서 볼 때 매우 우스꽝스러운 사람들이 모인 집단이다. 6,000여 명이 속한 보병 부대가 서울 내 여러 병영에 나뉘어져 있다. 그리고 여기에 포병대, 공병대, 기병대 및 호위대⁷를 포함하여, 서울에는 모두 약 1만 명의 무장 군인이 있다. 그 외에 지방에는 3,000여 명의 군인이 여러 진지에 배치되어 있다. 아울러 1903년 서울에는 약 200명으로 구성된 헌병대가 조직되기도 하였다.

제복을 보면 헌병대는 용무늬가 있는 붉은색 튜닉을 입고, 기병대는 붉은색 조끼를 입는데, 모두 일본군 제복을 모방해서 만든 것이다. 무기로는 그라스,⁸ 모제르,⁹ 만리커¹⁰ 등 외국의 여러 나라에서 도입한 다양한 시스템의 소총과 일본의 최신 모델을 사용한다. 대포는 1902년 맥심¹¹을 도입하였는데, 구입할 때 파견된 기술자가 설치를 마치고 떠나자 창고에 조심스럽게 보관하였고 지금도 그 자리에 그대로 있다.

한국 포병들의 실력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제물포의 ‘장미섬(월미도)’ 요새에서 다른 나라 군함을 향해 예포를 발사할 때마다 두 번째나 세 번째 발사에서 부상당하거나 죽는 포수가 생겼고, 한 번도 정해진 발사 횟수에 성공한 적이 없을 정도이다.

일본이 이 모든 것을 개혁하고자 한다면, 즉 한국인들의 전통적인 나태함을 뿌리 뽑고 열심히 일하게 하고 훌륭한 군인을 만들기 위해서는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을 것이다. 특히나 최근 며칠간 일어난 사건들을 목격하면서 많은 생각을 했을 것이다.

한국인들은 천성적으로 인내심이 강함에도 불구하고 몇 년 전부터 그들의 땅에서 행해지는 일본의 무례하고 약간은 잔인한 행위에 대해 반기를 들고 있다. 근본적으로 온화한 민족인 한국인들을 가까이서 지켜본 결과, 그들은 일본의 에너지를 깨뜨릴 수 있는 일시적인 충동과 폭력성 그리고 관성의 힘을 지니고 있다. 이제야 깨어나고 있는 한

국민의 애국심이 스스로 무적이라고 믿고 있는 일본이라는 강력한 세력을 궁지에 몰아넣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신기한 일이 아닐 수 없다.

1 ‘조선(朝鮮)’의 한자를 풀이한 것으로 보인다. **2** 조선시대에 많이 마시던 청주, 탁주 또는 소주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3** 476년 서로마제국 멸망 후 서로마가 다스리던 각 지역에 정착한 게르만 왕국들 중 현재의 프랑스와 벨기에 지역인 갈리아에 정착한 프랑크 왕국의 첫 왕조이다. **4** 갑오개혁 당시 일본 상인들의 요구에 따라 조선 정부는 1894년(고종 31) 국민들이 즐겨 사용하던 긴 담뱃대의 사용을 금지시켰다. 이후 일본 권련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였다. **5** 1882년(고종 19) 조선 정부는 미국과의 수교 이후 서구 세력에 문호를 개방하였다. **6** 1876년(고종 13) 강화도조약이 체결되던 때를 말한다. **7** 옛날 군인들로 현제는 아가 행렬 때 황제를 호위하는 군인을 말한다. **8** 프랑스에서 보불전쟁 후 사스포(Chassepot)에 금속 탄피를 적용하여 만든 후장식 소총이다. **9** 19세기 말 독일의 P. P. 마우저가 개발한 소총이다. 1870년 대 후반 이후로는 중국에서도 제조하였다. 우리 나라에 반입된 모제르 소총은 독일과 중국 양국에서 제조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10** 1885년 오스트리아에서 개발한 후장식 연발 소총이다. **11** 1883년 허람 맥심(Hiram S. Maxim)이 특허 출원한 기관총이다.

VARIÉTÉ

Le Pays du Matin Calme

Les émeutes de Séoul. — D'où vient le nom poétique de la Corée ? — Un peuple indolent et malpropre. — Les habits blancs. — Pipes coréennes et pipes japonaises. — Le dernier pays inconnu de l'Extrême-Orient. — Terre bénie du fonctionnarisme. — Le code coréen. — Villes, routes, armée. — Le sentiment national s'éveillera-t-il en Corée ?

On s'égorgeait à Séoul, ces jours derniers. La Corée, le « Pays du Matin Calme », comme on l'appelle en Extrême-Orient, avait perdu sa sérénité coutumière et entraît en révolte ouverte contre l'influence tyrannique du Japon.

D'où vient ce nom poétique de « Pays du Matin Calme » attribué à la Corée ?... Demandons-le à M. Villetard de Lagnérie, qui a visité ces contrées à plusieurs reprises et a consacré à la Corée des études du plus vif intérêt :

« Le climat de la Corée, dit-il, est peint d'une seule touche par le nom officiel qu'elle tient des Chinois : « Pays du Matin Calme » ou de : « la Sérénité du Matin ». La limpide fraîcheur de l'atmosphère, sa légèreté, sa transparence, la douceur de la lumière, très franche et très brillante, sans pourtant fatiguer les yeux, le bleu turquoise uni d'un ciel, plus souvent pur que nuageux, caractérisent, en effet, les matinées coréennes, en toute saison, et sont peut-être le seul trait dont un Européen sente le charme dans ce pays où tout est plutôt fait pour l'étonner et l'indisposer que pour lui plaire... »

Ce calme, cette sérénité de l'atmosphère ont-ils influé sur la race qui peuple ce pays ?... Est-ce au climat que les Coréens doivent le caractère apathique et indifférent qui les distingue des peuples voisins ? Ils sont cependant, en général, solidement charpentés, de haute taille et semblent bâtis pour les rudes besognes. Mais le travail n'est pas leur fait. D'un naturel indolent et paresseux, ils partagent leur existence entre le sommeil et la satisfaction de leurs instincts : manger, boire, fumer. Ils s'alcoolisent très volontiers avec une boisson fermentée appelée *sakbê* ; aussi sont-ils décrépits avant l'âge. Un médecin des colonies qui habita ce pays remarque que l'hygiène y est tout à fait inconnue.

« Jamais, écrit-il, un Coréen ne se lave les mains ni le visage ; il est à tel point négligé dans sa tenue qu'un voyageur anglais a pu dire que l'homme le plus sale qu'il ait rencontré était un Coréen particulier, vous risqueriez la bastonnade ; gardez-vous surtout de faire des prédictions intéressant l'Etat, vous iriez en prison. Mais si, par hasard, vous voyez dans le ciel des présages de calamités pour le pays, hâtez-vous d'en faire part à qui de droit, autrement vous seriez passible de trois ans de travaux forcés.

Au milieu de ce fatras de naïvetés, le code coréen contient pourtant quelques dispositions équitables. Il prévoit des châtiments divers pour les examinateurs qui font preuve de partialité dans les examens, pour les fonctionnaires qui usent d'intrigues afin d'attirer l'attention de leurs chefs, pour tous ceux qui abusent de la recommandation. Le code coréen, plus sage que le nôtre sur ce point, réprime le « piston » ; il condamne les magistrats coupables d'erreur judiciaire à subir la peine qu'ils ont prononcée indûment, et il réprime les abus de la tyrannie des fonctionnaires. Même, il prévoit un châtiment de dix ans d'exil pour « tout fonctionnaire qui n'aurait pas informé l'empereur des talents d'un sujet méritant dont les capacités le recommandent à sa haute bienveillance ».

Mais, à côté de ces quelques articles inspirés par un réel esprit de justice, que de dispositions funestes à la liberté, à l'initiative individuelle !

Le législateur coréen était d'ailleurs si préoccupé de n'oublier aucun délit, qu'à la fin de son code il a sérieusement inséré cet article invraisemblable :

« Sera puni de quarante coups de bâton quiconque aura fait ce qu'il ne devait pas pas faire... »

pre. »

Et, détail curieux, ce peuple malpropre s'habille presque uniquement de blanc. Le costume traditionnel du Coréen se compose d'une tunique fendue sur le côté et d'un large caleçon, le tout de coton blanc. Ces vêtements exigent, malgré la négligence naturelle de ceux qui les portent, un entretien continuel. Et c'est la besogne des femmes, qui sont d'infatigables lavandières. Elles passent leurs journées à laver, rincer, froter, empresser les costumes de leurs maris, pendant que ceux-ci fument béatement leur pipe au soleil.

Car fumer est la grande préoccupation des Coréens de tout ordre et de toute classe. Autrefois — avant la main-mise du Japon sur ce pays — les indigènes du « Pays du Matin Calme » se servaient de très longues pipes, dont le tuyau dépassait un mètre. C'était, chez eux, un orgueil national, comme la longueur des cheveux chez les Mérovingiens.

Les Japonais, dans un but d'intérêt commercial, s'avisèrent, un beau jour, de réformer cet usage séculaire et d'imposer aux Coréens des pipes importées du Nippon et n'ayant pas plus de trente centimètres de long. Un édit proscrivit les longues pipes. Stupéfaction et fureur des fumeurs coréens qui voulurent résister. Mais les agents de la force publique reçurent l'ordre de briser les pipes trop longues et de punir les délinquants... Et les Coréens, qui étaient naguère encore le peuple le plus docile de la terre, finirent par se soumettre et ne fumèrent plus que la pipe japonaise.

Se soumettre... Depuis trente ans environ que l'influence japonaise a commencé à s'imposer à la Corée, les Coréens n'avaient pas fait autre chose.

Leur pays fut la dernière terre inconnue de l'Extrême-Orient. Avant 1882, ses ports étaient fermés aux Européens. Seuls, les Japonais les fréquentaient depuis cinq ans déjà et entretenaient des représentants diplomatiques à Séoul. C'est Li-Hung-Chang qui, prévoyant l'action des Japonais sur le « Pays du Matin Calme », conseilla au roi de Corée de faire aux blancs les mêmes avantages qu'aux Nippons. Dès lors, les ports de la presqu'île coréenne s'ouvrirent au commerce international, et nos voyageurs purent visiter ces curieuses contrées et étudier à loisir les mœurs de leurs habitants.

Mœurs étranges s'il en fut, et qui justifient l'état d'infériorité sociale où se trouve ce pays vis-à-vis de ses voisins.

La Corée n'est pas seulement l'empire de l'indolence et de la routine, c'est encore la terre édue de l'exploitation par le fonctionnarisme.

« Les mandarins civils y pullulent, dit

n'ayant rien qui les obligeât à secouer leur torpeur instinctive, ont vécu de tout temps confinés dans leur pitoyable routine. Leurs villes, même la capitale, Séoul, sont des villages malpropres composés de pauvres huttes de terre et de cailloux, recouvertes de chaume, et dans lesquelles le peuple végète au milieu des ordures et de la vermine. Leurs routes, qui sont divisées en trois catégories, les grandes routes, les moyennes et les sentiers, devraient, en réalité, rentrer toutes dans la dernière.

L'état déplorable de ces chemins est dû à une disposition curieuse de la loi coréenne, qui interdit au peuple de voyager autrement qu'à pied. L'autorisation de monter à cheval n'est accordée qu'aux personnages de distinction. C'est là la cause qui entrave l'amélioration des routes, que des inondations fréquentes détériorent de plus en plus. Les réparations sont très rares et les ponts manquent. Il y a des stations postales sur toutes les grandes routes qui mènent à Séoul, mais seuls les fonctionnaires et les courriers ont droit à leurs services.

Quant à l'armée coréenne, c'est un ramassis de soldats d'opéra-bouffe, dont la tenue et l'aspect martial sont des plus hilares.

Elle comprend 6,000 hommes d'infanterie, à Séoul, répartis dans différentes casernes ; et en y ajoutant l'artillerie, le génie, la cavalerie et la *kissos* (anciens soldats qui servent aujourd'hui d'escorte à l'empereur lors des sorties impériales), il y a environ 10,000 hommes armés à Séoul.

Les troupes provinciales comprennent, en outre, 3,000 hommes répartis dans les différentes places fortes.

En outre, on a fondé à Séoul, en 1903, le corps des gendarmes (200 hommes environ).

Les divers uniformes sont copiés, à la couleur près, sur les uniformes japonais :

M. Villetard de Lagnérie. Dans une seule province, on en rencontre 44 dirigeant de grands services et commandant chacun à 400 subordonnés divers. En ajoutant au total que ce foisonnement donne dans les provinces, 10,000 attachés, dans la capitale, aux ministères et au palais du roi, nous arrivons à une chiffre de 146,000 fonctionnaires vivant sur une population que les calculs les plus récents évaluent à 9 millions 670,000 habitants, soit une proportion d'un employé par 65 âmes. »

En France, où nous nous plaignons du nombre sans cesse croissant des « budgetivores », nous n'en sommes pourtant pas encore là.

Mais ce qui aggrave les charges du peuple coréen, c'est que tous ces fonctionnaires le tondent de mille et mille manières. Ils ont un droit de réquisition qui leur permet, à tout propos, de piller l'habitant, et ils ne se gênent en aucune façon pour prélever de fortes sommes sur les deniers publics dont ils ont la perception ou le maniement. Notez qu'ils ne restent que trois ans en fonctions et qu'il leur faut, par conséquent, dans ce court laps de temps, assurer leur avenir. Pour cela, les pires exactions ne leur coûtent guère, et il en résulte que le peuple est pressuré sans répit.

•••

Et le code coréen !... C'est bien le monument le plus complet qu'on ait jamais élevé en faveur de l'arbitraire et contre l'initiative. Le code coréen a tout prévu ; il unit tout, jusqu'aux moindres peccadilles. Le Coréen qui, en parlant de l'empereur, n'inclinerait pas la tête, ne lèverait pas les deux mains et n'appellerait pas le souverain « Endroit majestueux et vigoureux » recevrait incontinent tant de coups de bâton. Celui qui irait au palais pour remercier l'empereur d'une faveur reçue et se tromperait dans la formule imposée par le protocole, serait fouetté non moins vigoureusement.

Un Coréen perd sa belle-mère et ne porte pas le deuil assez longtemps : bastonnade ; il le porte trop longtemps : bastonnade également.

« Quiconque bâtit une maison ou emploie à son usage des voitures, des vêtements ou des vases, contrairement aux règles établies, reçoit cent coups de bâton. »

Ne pénétrez pas sans autorisation dans la première cour du palais impérial, vous recevriez cent coups de gourdin.

Si vous vous introduisiez dans la seconde, vous seriez envoyé aux travaux forcés; enfin, gardez-vous de vous faufiler dans les cuisines, on vous y étranglerait comme un vulgaire lapin.

Ne dites pas la bonne aventure aux particuliers, vous risqueriez la bastonnade ; gardez-vous surtout de faire des prédic-

Les divers uniformes sont copiés, à la couleur près, sur les uniformes japonais ; les gendarmes ont la tunique rouge, et les dragons, les cavaliers, la veste rouge.

L'armement comprend des fusils provenant de tous pays, de tous systèmes : Gras, Mauser, Mannlicher, japonais dernier modèle, etc., et des canons Maxim, achetés en 1902, et qui, après le départ de l'agent chargé d'en montrer le mécanisme, ont été soigneusement mis dans un entrepôt où ils sont encore.

Pour donner une idée de la valeur des artilleurs coréens, chaque fois que le fort de l'île Rose, à Tchémoulpo, a voulu répondre au salut d'un navire de guerre, il y a eu, au deuxième ou troisième coup, quelque servant blessé ou tué, et jamais on n'a pu répondre par le nombre de coups réglementaire.

Les Japonais auront fort à faire s'ils veulent réformer tout cela, arracher les Coréens à leur vènerie traditionnelle, en faire des travailleurs et des soldats.

Les événements de ces jours derniers doivent évidemment leur donner à réfléchir.

En dépit de leur longanimité naturelle, les Coréens se sont soulevés contre l'action japonaise qui se manifeste chez eux depuis quelques années avec une indiscrétion quelque peu brutale. De l'avis de ceux qui l'ont étudié de près, ce peuple, foncièrement doux, a des foudrades de violence et une force d'inertie contre lesquelles pourraient bien se briser les énergies nippones. Il serait curieux que le sentiment national, se réveillant en Corée, tint en échec cette puissance japonaise qui se croit invincible.

Ernest LAUT.

73

한국 공정에서

La Vie Illustrée

라 비 일뤼스트레

프랑스

1904. 03. 25.

pp.408~409

구9751

36.1×28.2

의 동일하다.

기생은 공식적으로 국가의 한 부서에 소속되어 지정된 특별 사무소의

통제를 받는다. 공정 약사들도 마찬가지로 동일 부서에 소속된다. 기생

들은 국가 재정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나라의 공식 만찬을 비롯해 공의 모든 연회에 참석한다. 그녀들은 글을 읽거나 시를 낭송하고 춤추고 노래한다. 완벽한 예술가이자 음악가이다.

기생들은 공식 행사에서는 다양한 색조의 얇은 비단 치마를 입는다.

상의로는 어깨를 가리면서 소매가 손보다 길고 넓은 반투명 비단으로 만든 저고리를 입는다. 보석으로 장식된 허리띠는 속옷을 입지 않은

가슴을 조이면서 혈렁하게 주름진 옷을 잡아준다. 머리 모양은 매우

복잡하고 무거우며 인위적인데, 검은색 땡은 머리를 여러 가지 은 장신구로 장식한다. 춤과 어우러지는 음악은 구슬프고 무희가 부르는 노래

도 약간은 우울하다. 무희들은 여러 가지 많은 동작을 보여주는데, 그런 중에도 발은 긴 양말(배선)에 가려져 보이지 않는다. 춤은 전혀 외설적이지 않고 선정적인 동작도 일절 찾아볼 수 없다.

한 공식적인 기회에 황제의 형인 이재선이 얼마 지나지 않아 궁에서 있을 연회의 예행연습 — 모든 의상을 갖추고 진행됨 — 을 볼 수 있도록 기자를 초대해 주었다. 기자를 태운 가마가 관아에 도착하였을 때 춤은 이미 시작된 후였다. 관리들의 의자와 무희들이 데려온 하인들 무리로 경내는 가득 차 있었고, 황실 근위대가 문 앞에서 보초를 서고 있었다. 플루트(대금)과 비올라(비파)의 떨리는 음이 공기 중에 가득하였 고, 그 구슬픈 탄식 소리는 요란한 북소리로 간간히 끊어졌다. 벽에 여러 개의 출입구가 나 있는 건물 안에서 한 무리의 무희들이 음악에 맞추어 거의 알아챌 수 없을 정도로 천천히 몸을 좌우로 흔들고 있는 것 을 볼 수 있었다.

나를 초대해 준 주최 측 인사가 자리한 천개天蓋 밑에서 보니 춤이 색 색으로 빛나고 있었다. 무희들은 모두 18명이었었는데 같은 수의 세 무리 로 나뉘어져 있었다. 햇빛이 그녀들의 반짝이는 옷에서 눈부시게 빛났 고, 유연하고 우아한 모습은 마치 반짝이는 빛이 비친 바닷물에 떠다 니는 것 같았다. 춤은 움직임이 거의 없이 이루어졌다. 무희들의 환상 적인 모습은 이 같은 느낌 속에서 전개된다.

작은 체구의 여인들은 수평 자세로 유지한 팔을 단 한순간도 풀지 않

고, 크고 무거운 머리 장식에도 피곤한 내색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 앞의 텅 빈 공간에서 매우 천천히 돌며 움직인다. 팔을 든 채로 움직이는데 그녀들이 입고 있는 얇고 혈령하게 주름진 비단옷이 펼력인다. 높이 땅아 올린 후 유약을 칠하고 보석으로 장식한 여러 개의 핀으로 고정한 신기하게 생긴 머리 장식이 햇빛을 받아 반짝인다. 이들의 춤은 시^詩와 인간의 움직임의 우아함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 예술가들의 우아한 자태에는 매혹적인 부드러움과 섬세함이 깃들어 있다. 긴 비단 옷은 최고의 우아함을 잘 드러나게 해주며, 특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옷을 갖추어 입고 춤을 추는 여인들을 — 프랑스 풍 자극에 나오는 여인들에게서 보이는 노출, 외설, 수치스러움과는 거리가 멀다 — 무한한 안도감과 즐거움 속에서 감탄하며 바라보게 된다.

그들의 동작에는 힘과 논리가 있고, 모든 자세에는 예술적 섬세함이 깃들어 있다. 휘날리는 긴 치마는 그들이 만들어내는 몸짓의 간결함을 더욱 돋보이게 만든다. 창백한 얼굴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데, 시선은 수줍고 태도는 절제되어 있다.

독특한 악기들이 내는 이상하고도 음울한 음들, 노래의 미묘한 리듬, 여인들의 미끄러지는 듯한 춤사위, 비단옷의 눈부신 광채, 치마의 강렬한 색깔, 얇은 윗옷으로 비치는 장밋빛 피부. 이 모든 것이 저항할 수 없는 감정과 열정을 불러일으키며 조용히 그렇지만 강렬하게 보는 이들을 사로잡는다.

매혹적인 모습이 천천히 미끄러지듯 다가왔다. 그리고 그녀들이 천천



01 한국의 궁정 악사들
02 황제 이희(고종)의 악단장
03 한국의 궁정 악사들 모습

히 미끄러지며 앞으로 움직임에 따라 음악은 정열적인 탄식으로 표출된다. 그리고 춤의 성격이 바뀐다. 이제 앞으로 움직이지 않고 북의 리듬에 맞추어 돌아 움직인다. 팔을 흔들면서 여러 색의 원을 만들어 돌고, 몸을 앞과 뒤로 움직인다.

그리고는 뒷걸음질로 서서히 퇴장한다. 춤추는 여인들은 자신들이 만들어내는 예술에 대해 자각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고, 음악 연주자들도 그들의 구슬픈 음악이 지니는 높은 수준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악단의 훌륭한 기량이나 춤의 구상, 재능, 공연이 모두 기술적으로 완벽한 결과를 만들어냈다.

춤이 절정에 도달하였을 때 모든 관객이 조금도 움직이지 않고 굳어버린 듯 지켜보고 있었는데, 이보다 더 큰 감탄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어느 순간이 되면 하인들이 내는 소리와 기다림에 지친 말들의 울음소리로 시간의 경과를 깨닫게 된다. 하지만 주인들의 무서운 눈초리에 하인들은 입을 다물게 된다. 그 후로 한참 동안 그 어떤 것도 우리가 빠져들었던 춤의 마법을 깨뜨릴 수는 없었다.

춤이 끝나고 나면 다음 순서를 맡은 이들이 연습을 시작하고, 그동안 이제 한가로워진 기생들은 자리에 앉아 황족과 잡담을 하면서 사랑을 먹거나 담배, 여승연 혹은 한국식 기다란 담뱃대를 입에 물고 편다. 기생들 중 여럿은 머리 장식을 풀고 돗자리 위에 누워서 눈을 감고 잠깐의 휴식 시간을 가지고, 그동안 하인들이 부채질을 해준다.



01 칼춤
02 한국의 궁정 무희들
03 호전적 의상과 종교적 의상

미국 여성의 한국 방문-8회 ‘은둔의 나라’의 작고 못생긴 여자들

『레슬리스 위클리』¹ 특파원, 엘리너 프랭클린

“한국은 남성을 위한 나라이기 때문에 여성들이 누리는 특권은 거의 없다. 여성이 죽을 때는 그들의 남편, 아버지, 아들과 같은 의식을 거치지 않을 수 있고, 여성을 위한 조문 기간은 남성에 비해 매우 짧다.”

1905년 12월 15일, 한국 서울에서

나는 한국 여성이 세상에서 가장 매력적이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 작은 ‘은둔의 나라’에 체류하는 동안 주요 일과 중 하나는 예쁜 얼굴을 부지런히 찾는 것이었다. 그런데 나는 단 한 명도 찾지 못하였다.

그들의 눈이 예쁘지 않아서가 아니다. 한국 여성들의 눈은 예쁘다. 부드러운 갈색빛을 띠고 상냥한 느낌을 준다. 얼굴의 윤곽이 투박하거나, 부드럽지 않아서가 아니다. 사실 한국 여성 중 그런 얼굴이 많긴 하

Leslie’s Weekly
1906. 01. 25.
pp.84~85
레슬리스 위클리
미국
구9781
40.7×28.3

지만, 그렇다고 모든 한국 여성이 투박하거나 거친 외모를 가진 것은 아니다. 다른 나라처럼, 서울에서도 선이 고운 얼굴을 보기도 하였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여성들은 못생겼다. 그들이 예쁘장한 눈을 가졌을 수도 있고, 작고 예쁜 코와 입 그리고 얼굴의 다른 부분들이 전부 매력적이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그들의 정신세계가 반영된 그들의 얼굴은 못생겼다. 비누와 물을 충분히 사용하고, 열심히 머리 빗질을 하면 내 기준에서 외모가 개선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 여성들은 있었다.

그러나 아마도 한국인 기준에서 자신이 가진 외모의 가능성을 최대한 실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그들이 나보다 더 잘 알 것이다. 이 낮 설고 작은 땅에서 상류층 여성을 볼 수 있는 기회는 흔치 않다. 그러나 황실과 몇몇 고관대작의 집에 출입할 수 있었던 나는 적어도 그들의 인상을 포착할 수는 있었다. 시내의 거리에서 볼 수 있는 여성들 대부분은 노비나 하인이거나 혹은 언제나 존재해왔던 기생들²이다. 그러나 그들이 누구든지 간에, 모두들 제대로 옷을 갖추어 입을 여유 없이 거리로 급하게 뛰어나온 사람들 같다. 한복을 최초로 만든 사람의 세상의 다른 옷을 본 적이 없거나, 비슷한 종류의 잘못된 비례 감각을 보여주는 옷만 본 사람들일 것이다. 한국 옷은 정말 묘사하기 힘들어서, 묘사를 시도하기보다는 그저 사진 몇 장을 올리는 것으로 대신하겠다.

옷의 허리선은 겨드랑이 밑 가슴 바로 아래인데, 한국인들조차 그 이유를 설명하지는 못한다. 분명한 것은 만약 한복이 일종의 엠파이어 실루엣³ 효과를 내거나, 하와이 여성이 입는 긴 소매 원피스인 마더 허버드⁴와 같은 것으로 발전하였다면 그렇게 나쁘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작고 짧은 상의와 분리되어 있는 상태에서 치마의 허리선이 겨드랑이 밑이 되었을 때의 그 조합은 언급할 가치조차 없다.

여성들이 입고 있는 천은 대부분 흰색이며, 가장자리는 빨간색 혹은 초록색으로 마감되어 있다. 작은 상의는 빨간색인 경우가 많지만 치마는 항상 흰색이다. 초록색 옷은 그중에서도 가장 어색한 옷이다.⁵ 이 외투는 기이한 의복의 비루함을 완성시킨다. 이 외투는 무늬가 전혀 없고 크게 꺾 뺨은 소매가 달려 있는데, 한국 여성 복식에서 가장 중요

한 옷이다. 주변 행인의 무례한 눈길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옷이다. 보이는 대로 묘사를 하면, 전체가 지저분한 흰 바탕에 표현이 불가능한 초록색으로 가장자리에 단을 대었고, 목 안쪽에는 부드럽고 묵직한 종이로 된 선을 돌렸다. 사실 이 부분이 목의 안쪽에 닿도록 입어야 하지만, 실제 이 옷을 외투처럼 입지 않는다. 나는 치령대는 크고 쓸모 없는 소매 안에 팔이 끼여져 있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매우 급한 일이 있어서 이 옷을 머리에 걸치고 나오면, 그 소매는 좌우 양쪽으로 늘어진다. 그리고 그 옷을 얼굴 가까이에 꼭 붙들어 잡아서, 올라간 작은 눈 외에는 얼굴을 드러내지 않고, 얼굴 앞쪽으로 반듯하게 내려오게 붙잡고는 잠깐 밖에 나와 모두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게 된 것을 미안하게 생각하는 사람인 양 급하게 길을 간다. 그녀는 제일 아름답지 못한 사람이다. 외투 없이, 혹은 얼굴을 가리지 않고 사진을 찍는 여자들은 어린 여자 노비이거나 기생이다. 아니면 혹은 일부 매우 급진적인 근대화 세력을 이끄는 자들의 부인이나 딸이어서 자신의 이단적 믿음을 바탕으로 한국인들이 가장 신성시하는 조상들이 물려준 원칙이나 관습을 거부하는 사람들이다. 이 불경不敬 때문에 그들은 끔찍하게 고통스러운 벌을 받기도 한다.

나는 ‘노비’라는 단어를 신중하게 사용하고자 한다. 현재 한국에는 많은 여자 노비가 있다. 16세기에 일본이 조선의 남자 노비제를 거의 철폐시키고 정부가 모든 남자의 해방을 선언하기 전에는 남녀 노비들이 있었다.⁶ 수 세기 동안 노비로 예측되어 살아온 가족에게는 재미있는 상황이 벌어진다. 여자 노비는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 혹은 자신과 결혼하고 싶어 하는 사람과 결혼할 수 있다. 그러면 그 여자 노비의 주인은 반드시 노비에게 집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 주인은 결혼한 여자 노비가 낳은 모든 자식을 소유하게 되므로,⁷ 자신의 노비의 결혼을 권장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여자 노비의 아들은 자기 아버지의 아들로서 여성 비하 의식을 체득하며, 자신이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임종할 때 눈을 감기고, 또 자신의 아들이 자신에게 동일한 임종 의식을 행하는 의미를 잘 이해하게 된다. 한국인들은 죽기 위해 산다. 그들이 살아서 받는 가장 중요한 교육은 조문과 장례 그리고 영예롭게 자신의 죽음을 맞는 의례이다. 그러나 한국은 남성을 위한 나라이기 때문에 여성들이 누리는 특권은 거의 없다. 여성이 죽을 때는 그들의 남편, 아버지, 아들과 같은 의식을 거치지 않을 수 있고, 여성을 위한 조문 기간은 남성에 비해 매우 짧다. ‘눈 감긴 자 없다’라는 흔한 한국말 표현은 ‘눈을 감겨줄 사람이 없다’라는 뜻이고, 다르게 표현하자면 ‘아들이 없다’라는 의미로 이는 한국인들에게 최고의 불행이다.

딸들은 거의 존재감이 없다. 만약 그들이 다른 종류의 삶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자신의 삶을 가장 불행하다고 여길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그러한 삶을 모른다. 세상의 어른들은 딸의 출생에 대해 다

소 분노하고, 그 여자아이는 곧바로 가족 내 남자들의 노예로서의 삶을 살게 된다. 한국에서는 여자아이에게 이름을 지어주지 않는다. 이름을 갖는 것은 개별적 존재로 인식되는 남자에게만 주어지는 명예이다. 어른들이 편의상 유년기 여자아이에게 별칭을 지어주지만, 나이가 들면서 여자아이가 남자들의 시야에서 멀어지며 여성들의 공간에 자리를 잡게 되면 그 아이는 ‘누구네’ 딸로 불린다. 이것이 그 여자가 결혼하기 전까지 인정되는 유일한 호칭이 된다. 결혼 후에는 ‘누구’의 아내가 되고, 그의 부모에게는 ‘누구네 집의 우리 딸’이 된다. 이후 아이를 낳으면, 아내라는 본분에 더하여 ‘누구’의 어머니라는 호칭이 붙게 된다. 누구의 어머니로서 죽는 것이 그녀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명예이다. 그녀는 ‘누구’의 어머니로서 땅에 묻히고, 그녀의 아들이 한국인들에게 너무나 소중한 장례 의식을 훌륭하게 치른다.

이제 이 어두운 땅에 서구 문명의 빛이 발하기 시작하고, 문자 교육이 한국 여성들에게도 어느 정도의 의미를 지니기 시작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까지도 여자를 교육시킨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한국 여성에게 교육의 필요성은 존재하지 않았다. 한국 여자가 자신의 인생에서 유일하게 참여하는 의식이란 자신을 구속시키는 결혼이라는 계약에 서명할 때뿐이다.

이들은 자신의 이름이 없기 때문에 결혼 문서에 직접 서명할 수가 없다. 따라서 그녀는 ‘누구’의 딸로서 그 문서에 기재되고, 그녀를 증명하는 표식을 남겨야 한다. 그녀가 자신의 손바닥을 문서에 펴놓으면 계약 상대방 중 한 사람이 그 손 모양대로 선을 그리고 이것(수장手掌)이 그녀의 존재를 증명한다. 이렇게 한국 여성은 인생의 두 번째 단계에 들어간다. 그녀는 전적으로 남편의 소유물이 되고 남편의 일부가 된다. 남편이 가는 곳에 따라가고, 남편의 집과 가족이 그녀의 집과 가족이다. 여기에서 예외는 영원히 주인의 소유물인 여자 몸종뿐이다.

한국인도 유교적 관점에서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이혼할 수 있다. 그러나 남편은 아내에게 명예롭게 재혼할 자유를 주어서는 안 된다. 남편은 원하는 것을 다 해도 되고, 원한다면 여러 번 재혼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가 이 나라에 존재하는 사회법을 전적으로 부정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절대 과부와 결혼할 수 없다. 재혼한 과부의 자녀는 합법적인 자녀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들은 재정적 여유가 있는 남자라면 모두 취하는 수많은 첩의 자식들보다도 더 낮은 사회적 대우를 받게 된다. 이것이 한국인들의 삶의 일면이다. 이 때문에 다른 극동 지역의 사회처럼, 한국의 상류층 여성들은 상당히 불행하다.

적법한 아내는 단 한 명이지만 원한다면 남자는 여러 명의 여자를 집에 둘 수 있다. 아내는 다른 여자를 들이는 것을 거부할 수도 있고, 남편의 첩 중 특정 여자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남편이 그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아내의 심성이 나쁘다는 이유로 이혼할 수 있다. 따라서 남편이 얼마나 비도덕적인지에 관계없이, 남편에게 아내의

그러한 심성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대부분의 정실부인은 한국인의 시각에서조차 매력이 다소 떨어진다. 이들 아버지들이 딸을 키우는 유일한 목적은 훗날 정략결혼으로 가문에 득을 보기 위해서다. 귀한 딸들의 삶의 지위는 정말 가없다. 나는 한국 부인들이 전부 매력적이지 않다고 말하려는 것은 아니다. 즉 한국인들이 보기에 매력적인 부인이 한 명도 없다는 뜻은 아니다. 그러나 일본 여성들과 마찬가지로, 이 작은 반도의 훌륭한 여성들은 상대적으로 보호를 더 받는 자매들, 즉 세계적으로 유명한 게이샤에 해당되는 여자들과 비교하였을 때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일본에서와 마찬가지로 노래하고 춤추는 어린 여자들은 한국 어디에나 있다. 이러한 여자는 한국 여성들 중 가장 운이 좋은 사람들이다. 이들은 예술과 한국적 품위에 대한 교육을 받는다. 한국에서 교육이라는 것을 받는 유일한 여성인 것이다. 이로써 이들은 상당한 장점을 가지게 되는데, 작고 부드러운 목소리의 일본 게이샤들만큼 아주 매력적이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한국 남자들에게는 일본의 게이샤보다 훨씬 더 매력적이다. 그리고 이것이 이들이 바라는 것의 전부이다. 끔찍한 한국의 옷을 예쁘고 우아하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바로 이들이다. 완벽한 무지개색의 천에 부드럽고 정교한 천으로 덧댄 옷을 입고, 이 고립된 땅에서 구할 수 있는 온갖 종류의 장신구를 달고 있다. 이들에게 인생의 임무란 향연이나 향락을 위해 모인 남성들을 기쁘고 즐겁게 하는 것이다. 이때 이상한 악기와 구슬프고 어색한 음으로 구성된 연주 곡목을 공연한다. 이들은 사람을 즐겁게 해줄 옛날 이야기와 최신 이야기를 모두 알고 있다. 정치와 궁중 비화에 대해 모르는 것이 없고, 자국의 이상하고 미개한 역사를 알고 있으며, 이상한 작은 기타 현의 울림을 반주 삼아 영웅 서사시를 읊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전 세계적으로 공통 사항인 정교한 교태의 기술을 알고 남자들이 그녀의 사랑을 미치도록 갈구하게 만들 수 있다. 양반 신분의 남자는 기생과 결혼할 수는 없지만, 첩으로 자신의 집에 들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러한 나쁜 사회 풍습을 명예로운 것으로 여기는 나라에서 이 행복은 당연한 것일 수 있다.

현재 황후(순현황귀비)라고 불리는 여성은 춤추고 노래를 부르다가 현재의 위치까지 오르게 되었다. 내 생각에 그녀는 ‘황귀비’의 자리까지 승급하였을 뿐이지, 실제 황후는 아니라고 본다. 그러나 만약 일본이 한국의 황실을 약화시켜 한국이 완전히 망하지 않는 한, 그녀의 아들은 언젠가 황위에 오를 것이다. 엄비의 화려한 경력은 수도의 한 중국인 관료를 위해 무작위로 선정된 나인에서 출발하였다.⁸ 그녀의 아버지는 궁중의 하급 시종이었고, 따라서 그녀의 본래의 지위는 정말 별 볼 일 없었다. 그러나 타고난 기품을 바탕으로 조정 중신들의 도움을 받아 마침내 입궐하여 왕비(명성황후)의 공녀가 되었다.

당시 왕비보다 더 똑똑한 여자는 한국에 없었다. 후에 일본인에게 변

을 당하게 되는⁹ 명성황후는 한눈에 엄비의 매력을 알아보았다. 왕비는 계속해서 그녀의 품계를 높여주었다. 왕비의 공녀가 되려면 도덕성에 결함이 없어야 하기에, 그녀의 전 주인들과 그녀가 낳은 아이 두 명의 아버지들은 목이 잘릴까 두려워하며 숨죽이고 있었다.

엄비가 왕을 만나게 되고, 왕이 그녀의 매력에 빠지게 될 때까지 모든 것은 즐거운 방향으로 흘러갔다. 그러나 이후 왕비의 복수를 꾀해 도망가 외딴 곳에 숨어서 세 번째 자식이자 이 나라 최초의 황자皇子¹⁰를 출산하였다. 이후, 그녀는 내가 그 직함은 잊었지만 다른 양반과 함께 조용하게 살다가 네 번째 아이를 출산한다.¹¹

1 1855년부터 1922년까지 문학 및 시사뉴스를 게재하던 주간지이다. 최초 30부를 발행하였던 주간지는 1897년에는 약 6만 5,000부를 발행하는 집지로 성장하였다. **2** 원문의 ‘courtesans’에는 애첩의 의미가 있으나 이 글의 문맥상 기생을 말하는 것 같다. **3** 1804~1815년 프랑스 나폴레옹(1세) 제정 시대를 엠펜이어 시대라 한다. 이 시대의 드레스를 엠펜이어 실루엣(Empire silhouette)이라고 부르는데, 네크라인을 크게 파고 가슴을 부풀게 하여 하이 웨이스트의 위치에서 가בע게 흘러내린다. 거기서 단으로 향하여 원만하게 넓혀져 있는 모양으로, 허리라인이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하체가 길어 보이는 효과가 있다. **4** 마더 허버드는 선교사들이 폴리네시아에도입한 옷이다. 길고 통이 크고 헐렁하고 소매가 긴데, 반나체의 원주민들이 최대한 몸을 가릴 수 있게 만든 옷으로서, 하와이·타이티·사모아 등지의 태평양 섬 주민들이 입던 옷이다. **5** 조선시대에 부녀자들이 외출할 때 내외용(内外用)으로 머리부터 내리쓴 장옷을 말한다. **6** 16세기에 노비들이 군공을 세우면 노비에서 해방시켜 벼슬을 주는 면천법(免賤法)을 의미하는 것 같으나, 조선시대 노비제는 1894년(고종 21) 갑오개혁으로 인해 공식적으로 폐지되기 전까지 남자 노비도 존재하였다. 이 부분은 작가의 오태로 보인다. **7** 노비종모법이라 한다. 조선 후기 양인이 감소하여 보다 많은 양인이 필요하게 되자, 아버지가 노비이고 어머니가 양인인 경우 그 자녀는 어머니 신분을 따라 양인화한 제도이다. **8** 이 부분은 사실과 다르게 기록되어 있다. 엄비는 한성부 서소문방 서소문에서 평민인 엄진삼(嚴鎭三)의 장녀로 태어났다. 집안이 어려워 8세 때 공녀가 되어 입궐하였고, 경복궁의 나인으로 배치되었다. **9** 명성황후가 1895년(고종 32) 10월 일본 낭인들에 의해 시해되는 을미사변을 말한다. **10** 엄비의 소생인 이은(李垕, 1897~1970)을 말하는데, 훗날 순종이 즉위한 뒤에 황태자가 되었고 1926년 순종이 죽은 뒤에는 이왕(李王)의 지위를 계승하였다. **11** 사실과 다르게 기술되어 있다. 엄비는 8세 때 궁궐에 들어왔기 때문에 시집을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따라서 이은 외에 다른 자식은 없었다.

84	LESLIE'S WEEKLY	January 25, 1906
	AN AMERICAN WOMAN'S VISIT TO KOREA—No. 8 THE UGLY LITTLE WOMEN OF THE “HERMIT KINGDOM” By Eleanor Franklin, special correspondent for Leslie's Weekly	
<p>SEOUL, KOREA, December 13th, 1905.</p> <p>[I THINK THE assertion may safely be made that the women of Korea are the most unattractive in the world. One of my chief occupations during my stay in the little “hermit kingdom” has been making a diligent search for a passably pretty face. I have failed to find one. It is not that they haven't pretty eyes; they have. Eyes of softest brown and gentlest expression. It is not that their features are coarse or irregular; for, while this may be true of many, it is not by any means true of all, and I have caught glimpses of as delicately moulded features at Seoul as in any other part of the world. But the Korean woman is just ugly. She may have fine eyes; she may have a pretty little nose and mouth, and other features that in themselves are not at all unattractive, but as she is put together, and as her mental life has made her, she is ugly. I have seen women I have thought I could improve through a liberal use of soap and water and the vigorous application of a hairbrush, but perhaps they know more about making the most of their possibilities from a Korean standpoint than I do. One doesn't ordinarily see much of the women of the better class in this strange little land, but being admitted, as I have been, to the imperial palaces and several houses of high degree, I have been at least able to receive impressions. The women who are to be seen on the streets of the cities are usually slaves or servants of a low order, or perhaps the plentiful and ever-present courtesans; but whatever they are, they, each and every one of them, look as if they had hurried out into the street without taking time to dress themselves properly. Whoever invented Korean attire had never seen any other, or had seen such specimens as were very misleading in their proportions. It is really indescribable, so I submit some photographs instead of an attempt at a description.</p> <p>They locate the Korean waist-line up under the arms and just below the breast, but for what reason even they cannot explain. This wouldn't be so bad, to be sure, if they had evolved a sort of empire effect, or even a “Mother Hubbard,” such as the Hawaiian women wear. But they went in for detached skirts and little short jackets, which make a combination quite out of the question when the waist-line is under the arms. The material for women's clothing is almost invariably white with a trimming of red or green. The little jackets are often red, but the skirt is always white, and the green comes in on the most incongruous garment of all. This is a coat which completes the ungracefulness of the strange costume. It is perfectly plain, with big, straight sleeves, and it is a woman's most valuable article of apparel. It is at once a wrap and a protection from the rude gaze of the passer-by. If I can believe the evidence of my own eyes, it is always lined and faced with a nondescript sort of green, being itself a dirty white, and it has just inside the neck a small strip of soft heavy paper. Or, at least, it is just inside what should be the neck, although, as a matter of fact, the garment is never used as a coat at all and no arms are ever seen inside the great flowing, useless sleeves. The thing is thrown over the head as if its wearer were in a great hurry, and the sleeves are allowed to hang down on either side. Then it is held closely about the face so that nothing may be visible except a pair of little slanty eyes, and with these fixed straight in front of her the woman hurries along the street, as if she had just “stepped out for a moment” and were feeling very apologetic for being seen at all. She is most unbeautiful. All the girls who have their pictures taken without this coat or with their faces uncovered are either slave girls or courtesans; or perhaps they are the wives and daughters of some very progressive modern, and feel in their little pagan hearts that they are defying all the mandates and usages of their most sacred ancestors, and bringing down upon their immodest heads some dire, distressful punishment.</p> <p>I use the word “slave” advisedly. There are many female slaves in Korea to-day, and there were slaves of both sexes until the Japanese almost annihilated the race in the sixteenth century and made it necessary for the government to declare all males free. There are families of slaves who have been in bondage for centuries, and they present a curious domestic situation. A woman slave may marry whom she pleases, or whomsoever may care to marry her, and her master must provide her a household; and, since he becomes master of all the female offspring of such alliances, it is to his advantage to encourage them. The son of a slave mother is his father's son, and is brought up with a proper contempt for women in general and a proper appreciation of the fact that he is a man and may close his father's eyes in death, and have the same proud office performed for himself by a son of his own one day. The Koreans live only to</p>	 <p>MEMBERS OF TWO RESPECTABLE AND MODERNIZED KOREAN FAMILIES.</p> <p>die, and the most important training they receive in life is that which fits them for properly mourning and burying their dead, and for approaching the great final honor of death themselves. But Korea is a country for men, and women enjoy few of its privileges. They may die, however, but they may not make such a ceremony of it as their husbands and fathers and sons do, and the period of mourning allotted to them is very brief in comparison. The familiar Korean phrase, “<i>Nun gum ginida upda</i>,” means literally “he has no eye-closer,” or, in other words, “he has no son,” and this is the greatest possible misfortune that can befall a Korean.</p> <p>Daughters count for little, and in consequence their lives would be most unhappy did they know any other sort of life. But they do not. They are received into the world with more or less resentment and are immediately dedicated to a sort of slavery to the male members of the family. The Korean girl child receives no name. This is an honor reserved for the individualized man. She is given some small pet name in babyhood for the convenience of her elders, but as soon as she becomes old enough to take her place in the women's apartments, away from the eyes of man, she becomes the daughter of “so and so,” and this is the only identification vouchsafed to her until she becomes the wife of “so and so,” and to her own parents “our daughter of the house of so and so.” When she becomes the mother of “so and so” this title is added to her wifely dignities, and when she dies it becomes her highest honor, and she is buried as the mother of “so and so,” and her son performs for her the wonderful funeral rites so dear to the Korean heart. The light of Western civilization is beginning to shine in this benighted land now, and the word education is beginning to have some meaning even to the female mind, but until recent years the thought, to a Korean, of educating a Korean woman was quite preposterous. She didn't need education. The only time in her life when she was required to take part in a proceeding, to bind herself by signature to a contract, was at her marriage. She couldn't sign her name to the marriage paper since she had no name to sign, and as the daughter of “so and so” she had been designated in the body of the document, so it only remained for her to make some identifying mark. This she accomplished by placing her hand flat upon the paper and having a perfect outline of it drawn by one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ies, and there she was. Having once done this a Korean woman enters upon her second life in life; she becomes the absolute property of her husband. She becomes what he is. His station is her station and his home and family are her home and family, except in the case of a slave, who always remains in bondage to her master.</p> <p>A Korean may divorce his wife for any one of the Confucian “just causes” for divorce, but he cannot give her freedom to honorably marry again. He may do whatever he likes and marry as often as he pleases, but he can never marry a widow unless he wishes to defy all the social laws of his country. The children of a widow who has remarried are considered illegitimate, and are lower in the social scale than are the children of the innumerable concubines kept by every man who can afford to support them. This is a feature of Korean life, as it is of life in all far-Eastern countries, and it is responsible for much misery among Korean women of the better class. A man may have but one lawful wife, but he may keep in his</p>	<p>home as many other women as he desires. The wife may object to another woman, or to some certain woman among her husband's concubines, but if he doesn't happen to agree with her he can divorce her for bad temper, so there is not likely to be much trouble of such a nature for him, no matter how deep may be his iniquities. Most lawful wives are more or less unattractive, any way, even from the Korean standpoint. They are usually the honorable daughters of men who have brought them up for the sole purpose of benefiting by their alliances with other houses, and their position in life is really pitiable. I do not mean to say that there are no “attractive” Korean wives—that is, women who would be attractive to a Korean—but, like her sister in Japan, the good woman of the little peninsula suffers by comparison with her less carefully guarded sister, who is the counterpart of the world-famous geisha girl.</p> <p>The singing and dancing girl is everywhere in Korea, as she is in Japan, and she is most fortunate of all Korean womankind. She is trained in all the arts and graces known to the Korean mind, and she is the only Korean woman who is trained at all. This gives her a great advantage. She is not attractive, like her little soft-voiced sisters of Japan, but she is far more attractive than they to the men of her own world, and this is all that is to be desired. If the awful Korean costume can be made pretty or graceful, she is the one who makes it so. She is dressed in a perfect rainbow of colors and is laden with all the softest, finest fabrics, with all the trinkets and ornaments procurable in her isolate land. Her one mission in life is to be pleasing and entertaining, and wherever men are gathered together for feasting and enjoyment, there she is also with her queer musical instruments and her repertoire of plaintive, unmelodious songs. She knows all the stories, new and old, that are likely to amuse the Korean. She is abreast of the times in politics and court intrigue. She knows the strange, wild history of her country and can walk long stories of its heroes to a twanging accompaniment on her little grotesque guitar, and last, but not least, she knows the intricate art of coquetry, that is the same the world over, and can make men mad for love of her.</p> <p>No man of noble birth can ever marry a singing girl, but he may take her into his house as an honorable concubine and live his life with her in a happiness which could not be except in a land where such a social evil is considered honorable. The woman who is now called the Empress of Korea has danced and sung her way to her present high estate. She is not really the Empress, I believe, having been raised only to the position of imperial concubine of the first class; but her son is likely to one day ascend the throne of the empire, if the Japanese do not succeed in making it so unsteady a structure that it will topple and fall entirely. Lady Om was launched into her brilliant career, I am told, as the altogether undesigned companion of a Chinese official in the capital. Her father was a palace attendant of a low order and her own standing was absolutely nothing; but by her graces she won her way into the affections of a cabinet minister and finally into the palace itself, where she became one of the Queen's attendants. There was never a more clever woman in Korea than this Queen, who was murdered by the Japanese, and it didn't take her long to recognize the little Lady Om's attractions. She conferred upon her dignity after dignity; and since the virtue of a Queen's attendant must be unquestioned, her former masters and the respective fathers of her two children kept quiet for fear of losing their devoted heads. Everything went merrily for the Lady Om until the King fell a victim to her fascinations, and then she had to flee from the Queen's just wrath and hide away in a remote corner of the kingdom, where her third, but first imperial, child was born. Then she went to live quietly with some other noble of, I've forgotten what degree, and presented a fourth child to a fourth father.</p> <p><i>Continued on page 86.</i></p>
	<p>Cuticura Treatment</p> <p>FOR TORTURING, DISFIGURING HUMORS OF THE SKIN, SCALP AND BLOOD</p> <p>Consists of warm baths with Cuticura Soap to cleanse the skin, gentle applications of Cuticura Ointment to heal the skin, and mild doses of Cuticura Resolvent Pills to cool and cleanse the blood, and put every function in a state of healthy activity. A single treatment is often sufficient to afford instant relief, permit rest and sleep, and point to a speedy cure of eczemas, rashes, irritations, and inflammations of the skin and scalp, from infancy to age, when the usual remedies and often physicians, fail.</p>	

한국의 지체 높은 신식 가족



01 WOMEN WASHING CLOTHES IN A DITCH OUTSIDE OF THE CAPITAL OF KOREA.



02 A KOREAN WOMAN IN FULL STREET ATTIRE.



03 DANCING GIRLS EMPLOYED IN A KOREAN NOBLE'S HOUSE.



04 KOREAN LADY IN HER PALANQUIN, WITH A SLAVE GIRL WALKING BESIDE HER.



05 MOTHER AND DAUGHTER "IRONING" CLOTHES IN THE KOREAN FASHION.



06 SINGING GIRLS OF SEOUL, WITH THEIR MUSICAL INSTRUMENTS.



07 DEBASED WOMAN OF SEOUL, WITH HER TWO LITTLE SLAVES.



08 ORCHESTRA OF KOREANS, WITH CURIOUS INSTRUMENTS, READY TO PLAY FOR DANCING GIRLS.

PECULIAR PEOPLE OF THE QUAIN'T CAPITAL OF KOREA.
LAUNDRESSES WITH PRIMITIVE METHODS, SINGING AND DANCING GIRLS, MUSICIANS WITH STRANGE INSTRUMENTS, AND
A GLIMPSE OF SLAVERY AT SEOUL.—Photographs from Eleanor Franklin. See opposite page.

한국의 이색적인 수도의 독특한
사람들 - 서울에서의 원시적
빨래 방식, 춤추고 노래하는 어린
기생, 이상한 악기와 악사,
그리고 노비의 모습
01 한국 수도 외곽의 개울에서
빨래하는 여자들
02 외출복 차림의 한국 여자
03 한국 양반집 기생들
04 가마 탄 양반집 여자와
그 옆에서 걸어가는 여자 몸종
05 한국식으로 다림질하는
엄마와 딸
06 서울의 기생들과 악기들
07 신분이 추락한 여자와 두 몸종
08 한국인 악단, 이상한
악기와 무희들과 함께
-엘리너 프랭클린 사진 제공

75

한국에서의 모험

폴 디부아

“러시아는 만주를 합병하면서
한국을 대륙으로부터 어느 정도
고립시켰고, 일본은 함대를 강화하고
한국의 해안을 침공하기 위해 영국과
동맹을 맺을 것이다.”

아프리카가 미지의 땅이라면 중국과 극동 지역은 환상의 나라들이다.
그러니 어찌 우리 이야기꾼들의 상상의 나라에 영감을 주지 않을 수
있겠는가? 지금부터 소개할 재미있는 이야기는 폴 디부아가 자신의
상상력으로 만들어낸 책 『라바레드 씨의 5센트』¹에 담긴 유쾌한 여러
에피소드 중 하나이다.

하지만 결국 그가 자신의 상상력으로 펴낸 이야기와 재미있는 표현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한국이라는 나라와 언제나 외국인들의
풍습을 전적으로 무시하고 자신들이 더욱 우수하다고 믿으며 살고 있

Journal des
Voyages

주르날 데 부아야주
프랑스

1901. 04. 06.
표지, pp.322~324

구9736
32.8×23.6

는 한국인들에 관한 것이다.

한국은 피상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독자들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치커리 —치커리는 갈색 가루로 만들어 먹는 것으로 커피의 홀
륭한 풍미를 망칠 뿐만 아니라 풍부한 향의 강장제를 무미한, 그저 그
런 음료수로 변질시켜 버린다. —의 원산지가 아니다?

어쨌든 코레(한국)는 시코레(치커리)와 상관이 없다. 한국은 아시아에 위
치한 긴 반도 국가이다. 대륙 쪽 끝은 남시베리아 지역과 중국 북부 지
역과 연결되어 있는데 해안가는 암석이 많고 험준하며, 한쪽으로는 일
본과 마주 보고 있고 또 다른 쪽은 지금도 유럽과 미국의 함대가 누비
고 다니고 있는 보하이만(발해만)을 굽어보고 있다. 이러한 간단한 설명
만 보더라도 이 지역 —인구는 약 1,000만 명이고 면적은 프랑스와 거
의 비슷하다. —이 러시아와 일본이 눈독을 들이고 있는 곳이라는 사
실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러시아는 만주를 합병하면서 한국을 대륙으로부터 어느 정도 고립시
켰고, 일본은 함대를 강화하고 한국의 해안을 침공하기 위해 영국과
동맹을 맺을 것이다. 캐비어의 나라(러시아)와 국화의 나라(일본) 사이의
대결이 불붙은 것이다. 누가 최후의 승자가 될 것인가? 아직은 미지수
이다. 일단 지금은 분쟁의 대상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을 전달하는 것
으로 만족하겠다.

*

**

산과 숲이 많고 각종 광물이 풍부하며 명목상으로 중국의 속국인 한
국 영토는 군사적으로나 광물·임산·해양 자원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
한 지역이다. 한편 한국인은 세계에서 가장 특이한 민족 가운데 하나
라고 할 수 있다. 이곳에서는 모든 것에 대한 사고가 불가사의에 가까
울 정도로 기묘하다고 설명할 수 있다. 이 지역을 가장 최근까지 여행
하였던 엘레나 서스티 양과 그녀의 아버지 엘리스 대령의 여행에 마칩
표를 찍게 하였던 이 별난 일화를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한국인들의
신앙을 간략하게 소개하겠다.

한국의 승려들이 이 주제에 관해 가르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처
—중국어로는 fo(佛), 힌두어로는 Bouddha(붓다) —는 모든 것보다 먼
저 존재하였다. 누군가가 최초가 되는 것, 그리고 최초의 것이 나타나

지 않으면 두 번째는 존재할 수도 없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부처는 꿈을 더 잘 꾸기 위해 직접 만들어낸 아편을 피우면서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공간에서 살고 있었다. 어느 날 그는 평소처럼 담뱃대에 넣을 아편 덩어리를 준비하다가 졸고 말았다. 그러다 그만 실수로 작은 덩어리를 끝없이 깊은 심연으로 떨어뜨렸고 그것이 지구가 되었다.

덩어리는 계속 떨어져 나가 우주가 끝나는 곳의 유리벽에 부딪혀 산산조각 나버렸다. 그러자 그는 마치 배의 돛대처럼 긴 손톱을 가진 자신의 손을 뺀어 12개의 옥 기둥을 일으켜서 세계를 지탱하게 하였다. 하지만 기둥이 너무 짧아 재앙을 막기엔 역부족이었다. 그러자 그는 다시 네 마리의 흰 코끼리에게 기둥을 기대게 한 다음 거북의 등껍질 위에 올려놓았다. 그 뒤 거북은 천상의 무한한 행복의 우유 바다³에서 헤엄치게 되었다. 이야기는 궁처럼 생긴 땅 덩어리가 우주 속에서 균형을 잡을 수 있는 것은 기둥, 코끼리, 거북 등이 모두 힘을 합쳐 노력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위에서 보았듯이 이보다 더 간단하고 있음직한 이야기를 찾기관 어려울 것이다. 적어도 이것은 한국인들의 생각이다. 또 다른 특이한 점이 있다. 한국은 티베트와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슬프지만 여성으로서는 특권일 수도 있다. 그것은 여성의 수가 매우 적다는 것이다. 대략 남성 6명에 여성은 1명꼴로 추정된다.

그 결과呢? 터키처럼 이곳에도 배우자를 여러 명 두는 복혼제가 존재한다. 터키와 다른 점은 터키는 남자가 여러 명의 부인을 가지지만 한국은 여자가 남편을 여럿 둔다는 점이다. 한마디로 한국 여성들은 일처다부제(polyandry)를 행하며 살아가고 있다. 참고로 ‘polyandry’－Poly(many)＋andry(men)－라는 말은 그리스어 어원의 수수께끼를 깊이 연구한 학자들이 사용하는 용어이다. 정확히 말하자면 한국이 다른 나라의 종속국 상태에 처해 있는 현재의 국가적 고난은 이 같은 일처다부제 관습에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사소한 원인에서 시작되었지만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그럼 그 이야기를 시작해보겠다.

엘리스 대령과 그의 딸 엘레나 서스티 양은－참고로 엘레나 양은 모든 이들이 꿈꾸는 가장 매력적인 젊은 아가씨이다.－한국의 풍습이나 관습, 의복 등을 살펴보겠다는 희망을 가지고 한국 땅을 두루 구경하며 다녔다. 그런데 진짜 목적은 여행을 마치고 런던으로 돌아가서 왕립지리학회에서 획기적인 발표를 하려는 것이었다. 어떤 이들은 그들이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비밀리에 진행되는 임무를 수행 중이었다고 주장하지만… 이 점에 대해서는 더 이야기하지 않겠다.

어느 날 오후 4시경, 두 사람은 수도인 서울에 도착해 소개장을 가지고 찾아간 차^茶 중개인인 진씨<陳氏> 노인 집에 묵게 되었다. 노인은 두 손님을 프랑스 사람들의 표현을 빌자면 ‘두 팔 벌려’ 환영하지는 않았다. 대신 ‘혀를 내밀며’ 환영하였다. 한국의 풍습에 따르면 주인이 손님의

이마와 턱을 충분히 훑아 주는 것이 가장 세련된 예절이기 때문이다. 대령이 후에 이러한 풍습에 불쾌하였다고 단언한 점으로 미뤄 그의 주장이 과장된 것은 아닌 것 같다.

“제 집이 당신 집입니다!” 노인이 말하였다. “감사합니다.” 엘리스 대령이 얼굴을 닦으며 대답하였다. “하지만 당신 집을 빼앗을 순 없죠. 저희에게 저녁 식사만 주시고 잠만 재워주시면 됩니다.” “여행자가 원하는 것이 곧 신의 뜻입니다.”

진씨 노인은 바로 하인들을 불러 손님들을 화려한 방으로 안내하였다. 그 방에는 몸을 씻는 데 사용할 물은 아주 작은 접시에 담겨 있는 반면, 찰로 만든 술은 거대한 그릇에 채워져 있었다. “한국에서는 씻지는 않고 술만 마시는가 보군.” 대령이 심각하게 말하였다. 씻은 후 여행으로 엉망이 된 옷차림을 그럭저럭 매만진 다음, 두 영국인은 모두가 같이 사용하는 응접실로 나갔다.

그곳은 응접실이라고 하기보다는 좀 더 공용의 의미가 큰 홀이라고 볼 수 있었다. 가구라고 할 만한 것은 동물 털로 뒤덮인 조잡하게 만든 긴 의자와 세련되지 못한 모양의 테이블밖에 없었다. 그 방에서 가장 고급스러운 장식은 라이스페이퍼⁴ 위에 채색을 한 족자였다. 이 극동 지역에서 만든 족자는 20여 년 전부터 유럽에 범람하고 있다.

노인은 비싼 자줏빛의 자수가 놓인 소매가 넓은 윗도리로 갈아입고, 마치 족장처럼 세 명의 남편과 함께 있는 자신의 딸과 네 명의 아들들에게 둘러싸인 채 손님들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네 아들들은 털이 덩수룩하고 거친 거인 같은 외모를 지니고 있었는데, 노인은 약간은 거만한 태도로 그들이 아직 미혼이라고 말하였다.

다음은 엘리스 대령이 이 한국인들의 외모를 묘사하는 내용이다. “못생긴 것으로 말하자면, 평평한 얼굴에 찻어진 눈, 납작한 코를 가진 그들을 이길 사람이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 못생긴 얼굴은 너무나 혐오스러운 불결함 때문에 백배는 더 가중된다. 모두가 마치 화덕에 갇혀 있는 것처럼 길고 넓은 튜닉⁵을 입었는데, 튜닉에는 머리를 넣기 위한 구멍만 하나 뚫려 있다. 그리고 한껏 땀을 부렸지만 머리카락은 엉켜있고 생전 털어내지 않은 듯한 먼지와 기름기가 묻쳐 생긴 밀가루 반죽 같은 것이 둘러붙어 굳어 있다.”

“한국인들의 피부 색깔은 노란색이라고 말해야 할까? 아니면 갈색? 흰색? 두꺼운 때가 피부를 가리고 있어 피부색을 정확히 말할 수가 없다. 물론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물과 위생 관리를 불안중에 가까울 정도로 중시한다고 주장한다.”

“엘레나와 나는 괴물 같은 사람들이 젊은 물소 같은 눈을 하고 우리에게 다가와 환영의 의미로 우리를 마구 훑아댈 때 구역질이 났다.” “다행히 우리 소지품 중에는 약간의 석탄산^{石炭酸}⁶이 있었고, 그것으로 우리를 오염시킨 이 집 사람들 주변의 모든 것에 퍼져 있는 온갖 종류의 세균들을 우리 몸에서 빨리 제거하고 싶다는 바람뿐이었다.”

어쨌든 두 여행자는 혐오감이 들기도 하였지만 좋은 표정을 유지하기 위해 애썼다. 한편 노인은 처음에는 중국 해안 지역에서 사용하는 이해하기 힘든 언어로 말하다가 점차 순수한 한국어로만 말하기 시작하였고 그의 이야기는 끝없이 계속되었다. 두 영국인은 물론 한마디도 이해할 수 없었다.

그 뒤 그야말로 괴상한 장면이 연출되었다. 이야기인즉슨 이렇다. 진씨 노인은 한동안 점잖게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을 하였다. 엘리스 대령은 집주인을 기분 나쁘게 하고 싶지 않아 동의하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러자 얼굴이 밝아진 노인은 큰 손짓으로 자신의 딸과 세 명의 사위를 가리키면서 또다시 이야기를 길게 늘어놓았다. 사려 깊은 엘리스 대령은 말하였다.

“예스, 예스. 당신은 정말 현명하신 분입니다. 정말 말씀을 유창하게 잘하시는군요. 비록 저는 한마디도 못 알아듣지만요.”

거기 모인 사람들도 영어를 이해하진 못하였지만 대령의 몸동작은 명확하게 알 수 있었다. 그는 집주인의 말에 동의하고 긍정으로 대답하였다. 노인의 딸은 누런 이를 드러내며 크게 웃었다. 그리고 자신처럼 기뻐하지 않고 있는 남편들을 끝이 갈고리 모양으로 생긴 신발⁷을 벗어 들어 세계 치고는 더 크게 웃어댔다. 그러자 이번에는 그녀의 세 남편들이 과장된 몸짓으로 미친 듯이 웃기 시작하였다. 그 뒤 다시 조용해지자 집주인은 엘레나 양에게 몸짓을 하며 이전과 마찬가지로 이해할 수 없는 말을 이어갔다. 아버지의 반응을 봐두었던 엘레나 양도 친절하게 계속해서 “예스”로 대꾸하였다.

그녀는 긍정의 몸짓으로 고개를 숙이느라 녹초가 될 지경이었다. ‘예스’라는 말이 그렇게도 사람을 웃기는 힘이 있었단 말인가! 지금까지는 전혀 알지 못하였던 힘이 아닌가! 집주인의 네 아들들은 큰 소리로 기쁨을 표하였다. 그들의 거친 웃음소리는 마치 늑대의 울음소리처럼 방 전체에 울려 퍼졌다.

그 뒤 하인들이 들어와 이상하게 생긴 음식들을 테이블 위에 펼쳐놓았고, 노인은 손님들에게 같이 식사를 하자고 권하였다. 두 영국인은 근심스러운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먹기를 감행하였다. 그들은 그곳에 모인 사람들의 눈이 기이한 표정과 함께 자신들에게 고정되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식사는 별 문제 없이 끝났다. 이어 사람들이 토기 항아리를 들고 왔는데 찰로 만든 술이 넘치도록 가득 차 있었다. 모두들 술잔을 채우고 마셨다.

갑자기 진씨 노인이 일어나더니 알 수 없는 극동 지역 언어를 다시 쓰며 말하였다. “고명하신 여행자분들, 인간들의 아버지이신 부처님께서 당신들을 나에게 보내시어 내 집을 축복하셨습니다.”

“참으로 친절하시군요.” 영국인들이 중얼거렸다. 그런데 노인은 손짓

으로 그들을 조용히 시켰다. “한국인들은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땅이 거칠어 생산성이 낮지요.” “당신은 우리를 마치 왕처럼 맞아주었습니다.” 대령은 예의 바르게 말하였다. 노인의 더러운 얼굴이 밝아졌고 그의 작은 눈은 마치 석류석처럼 빛났다. “저는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서양에서 온 당신들, 스스로의 즐거움을 위해 세계를 돌아다니고 있는 당신들은 부자입니다. 황금의 신들께서 당신들 짐 속에 많은 냥^兩—중국 화폐 단위로서 1냥은 32~37프랑의 가치에 해당한다. —을 쌓아두셨군요.”

대령은 이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자신이 집주인의 생각을 알아차렸다고 믿었다. 즉, 집주인이 아마도 자신이 베푼 관대한 행위에 대한 보답을 우회적으로 권유하고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이에 재빨리 대답하였다. “당신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가 가진 돈 일부를 기쁜 마음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약속에 대해 예기치 않은 반응이 나타났다. 모두가 둘러앉은 테이블 주위로 큰 웃음이 터진 것이다. “왜 그렇게 웃으십니까? 제가 지금 뭔가 웃긴 말을 하였나요?” 그러자 노인은 침착한 태도로 천천히 말하였다.

“이 젊은것들을 용서하십시오. 재미있는 것만 밝힌다니까요. 어쨌든 당신 대답은 확실히 재미있었습니다.”

“제가요?” 영국인이 놀라 물었다.

“네, 당신이요.”

“무슨 말씀이신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고백하지만 지금 들은 당신의 말이 제 머리로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손님의 바람은 신성한 것입니다. 당신이 원하시니 설명해 드리지요.”

“네, 말씀해 주십시오.”

엘리스 대령과 엘레나 양은 웬지 모를 불편한 감정을 느끼면서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집중하여 말을 이어가는 노인에게 시선을 고정하였다. 노인은 온정이 넘치는 투로 말을 이어갔다.

“방금 제게 당신 재산의 일부를 주겠다고 하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 제 가족들이 웃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너무나 당연하죠.”

“저는 계속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것은 당신이 기억력이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님은 분명 이해하였을 겁니다.”

그러나 엘레나 양도 부정의 의미로 자신의 금발머리를 좌우로 흔들자, 노인은 설득력 있게 신에게 호소하는 듯한 몸짓을 취하며 천장 대들보를 향해 두 팔을 들었다.

“그렇게 기억력이 없으신 선생을 이제부터 제가 지켜드리게 되었으니 선생으로서는 대단한 행운이신 겁니다. 아니면 누구든 선생을 빈털터리로 만들었을 테지요. 하지만 이제 안심하십시오. 이제부터 제가 선생

을 보호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손님들의 어리둥절한 표정을 알아차리지 못한 노인은 말을 계속하였다.

“제 자식들이 즐거워하였던 이유를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이 아이들은 당신이 당신 재산의 일부를 제게 주겠다는 약속을 해서 웃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도 스스로 인정하시겠지만, 이미 모든 것을 다 주겠다고 말해놓고서는 다시 일부를 주겠다고 말하는 것이 우스웠던 것입니다.”

“모든 것들요?” 대령이 더듬거리며 말하였다.

“그럼요.”

“저는 결코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없습니다.”

“아, 그렇게 정신이 없으시다니요! 좀 전에 우리나라 관습에 따라 당신을 제 딸의 네 번째 남편으로 삼겠다고 말하였을 때 당신은 동의하였 습니다.”

“네?” 대령은 절망적으로 소리치며 그제야 자신이 곤경에 처하였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라오첸(전씨 노인)은 침착하게 말을 이어나갔다. “그리고 당신의 딸을 제 네 아들들의 신부로 삼겠다고 말하였을 때도 동의하셨습니다.”

그 순간 엘레나 양은 기절하였다.

아름다운 엘레나 양에게는 참으로 다행스럽게도 침착하고 결단력 있는 아버지 엘리스 대령이 있었다. 그는 조금이라도 노골적으로 반대하는 태도를 보이면 위험할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먼저 엘레나에 대한 응급치료를 한 후, 집주인의 갑작스러운 결혼 제안에 크게 만족 해하는 체하면서 기쁨의 표시로 실 새 없이 술잔을 권하였다. 그로부터 2시간 후, 그 자리에 있던 한국인 모두가 만취 상태가 되었다. 두 영국인 부녀는 그들이 술이 깼 때까지 쓰러져 있도록 내버려둔 채 근처에 있던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망쳤다.

그렇다면 다음 이야기는 어떻게 전개될까? 일단코 아무도 예상치 못하였던 일이 벌어졌는데, 그것은 바로 러시아가 한국 정부를 장악하게 된 것이었다. 술에서 깨어난 전씨 노인의 가족들은 영국인들이 자신들을 가지고 놀았음을 깨달았다. 그들은 곧 사람들을 모아 러시아 공사관을 포위하였고, 엘리스 대령과 엘레나 양은 갇은 어려움 끝에 겨우 공사관을 빠져나올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러시아 공사와 서기관이 부상을 입었다.

이에 러시아 황제는 러시아를 대표하는 공사가 당한 모욕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였다. 이에 한국인들은 책략을 꾸미고 시간을 지체하였지만, 끝내는 무력 충돌로 이어져 러시아가 중국을 대신해 한국 정부에 대한 지배권을 차지하게 되었다.

이로써 한반도는 거대한 러시아 제국에 종속되었고, 부동항을 갖고자

하였던 러시아의 오래된 야망을 실현시켜주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 이 같은 정치적 전개에 대해 영국 정부는 분노하였고, 온갖 신문과 잡지에 대령과 딸 엘레나가 영국의 이익을 위해 희생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비난하는 기사를 내보냈지만 엘레나 양은 너무나 행복해 하였고 자신의 행동을 전혀 후회하지 않았다.

한편 그녀는 친절한 프랑스 해군 장교와 결혼해 서로 사랑하며 잘 살고 있다. 이 모험을 통해 엘레나는 한 가지 정신적 외상을 갖게 되었다. 석탄 상인이나 굴뚝 청소부 혹은 누구든 얼굴이 지저분한 사람을 보기만 하면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불안에 몸을 떨면서 이렇게 소리치는 것이다.

“아, 맏소사! 한국 사람인가 봐.”

1 폴 디부아(Paul d'Ivoi, 1856~1915)가 쓴 모험 소설 시리즈 『기상천외한 여행』의 첫 번째 책이다. 앙리 사브릴라(Henri Chabrilat)와 공동 집필하였다(1894). 라바레드 씨가 달랑 5센트만 가지고 세계 여행을 하는 모험담을 그린 소설이다. 2 치커리는 프랑스어로 시코레(chicorée)라고 한다. 치커리 분말은 뿌리를 가공하여 만드는데 값이 싸기 때문에 커피와 섞어서 마시기도 하고, 카페인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커피 대용으로 마시기도 한다. 한국을 뜻하는 프랑스어 코레(Corée)와 치커리를 뜻하는 시코레의 발음이 유사하기 때문에 나온 이야기이다. 3 우유 바다에 약초를 넣고 휘저어 영원히 살 수 있는 장생 불사의 영약인 암리타를 만들었다는 힌두교 전설이 있다. 4 라이스페이퍼(rice paper)는 질이 좋은 얇은 종이의 하나로 아마, 무명, 짚 따위를 원료로 만든다. 5 튜닉이란 라틴어로 ‘속옷’을 뜻하는 튜니카(tunica)에서 파생되었다고 한다. 그리스·로마 시대에 착용한 소매 달린 혹은 소매 없는 통자이며 길이는 무릎에 닿을 정도이고 장식이 거의 없는 느슨한 의복을 말한다. 속옷 또는 겹옷, 평상복으로 이용되었다. 6 석탄산(carbolic acid)은 페놀(phenol)이라고도 하는데, 1864년 영국의 외과의사 리스터가 소개한 세계 최초의 소독약을 말한다. 7 조선시대 사대부가의 부인들이 신었던 가족으로 만든 신발인 ‘운혜’를 가리킨다.

UNE Aventure en Corée

Si l'Afrique est la terre du mystère, la Chine et l'Extrême-Orient sont les pays de la fantaisie. Comment n'inspireraient-ils pas l'imagination de nos conteurs ? Voici un amusant récit où celle de M. Paul d'Ivoi a mis en action un de ces épisodes rejouissants qui ont fait le succès des Cinq Sous de Lavarède.

Mais, à travers l'anecdote que sa fantaisie lui a suggérée et qu'il raconte en termes si plaisants, c'est bien un coin de Corée qu'il nous montre et des Coréens toujours parfaitement dédaigneux des mœurs de leurs hôtes étrangers et convaincus de leur propre supériorité.

La Corée n'est pas, ainsi que le pourrait penser un lecteur superficiel, le pays d'origine de la chicorée, cette poudre brune avec laquelle on détruit le goût exquis du café, on transforme le tonique parfumé en insipide émoullient.

Non. La Corée est une longue presqu'île asiatique, bornée du côté continental par le Sud sibérien et le Nord chinois, et dont les côtes rocheuses, accidentées, font face au Japon d'une part, tout en commandant, d'autre part, le golfe du P'e-Tchi-Li, que sillonnent encore les flottes de guerre d'Europe et d'Amérique. On comprend par ce simple exposé que cette contrée, peuplée de dix millions d'habitants, d'une superficie sensiblement égale à celle de la France, soit convoitée par les Russes et les Japonais.

Ceux-là, en annexant la Mandchourie, ont à peu près isolé la Corée du continent; ceux-ci renforcent leur flotte, signent un traité d'alliance avec l'Angleterre pour attaquer du côté de la mer.

La lutte est ouverte entre les pays du caviar et la patrie des chrysanthèmes. A qui appartiendra le dernier mot? Mystère. Pour l'instant, il s'agit seulement de donner une idée approximative de l'objet du litige.

Contrée montagneuse, boisée, riche en minerais variés, gouvernée par un vice-

roi, nominalement vassal de la Chine, le territoire coréen a une importance militaire, minière, forestière et maritime de premier ordre.

Sa population est d'ailleurs l'une des plus étranges qui soit au monde. Les idées sur toutes choses y sont d'une bizarrerie voisine du fantastique.

Avant de narrer l'anecdote cocasse qui mit fin au voyage de miss Elena Thursty et de son père, le colonel Ellis, les plus récents explorateurs de la région, nous voulons indiquer succinctement la croyance religieuse des Coréens.

Voici ce qu'enseignent à ce sujet les bonzes de Seoul :

Havo (le Fò des Chinois, le Bouddha des Hindous) existait avant toutes choses, parce qu'il est naturel que quelqu'un soit le premier, et que l'on ne conçoit pas un second si le premier ne se montre pas.

Donc Havo vivait dans l'espace vide, fumant l'opium qu'il avait inventé pour faciliter son rêve. Un jour, le dieu s'endormit en préparant la boulette opiacée pour sa pipe. Un faux mouvement précipita la petite sphère dans l'abîme de l'infini et elle devint la terre.

Celle-ci continuait à tomber. Elle se fût brisée en miettes contre les parois de verre qui limitent l'univers. Alors Havo étendit sa main, aux ongles longs comme les mâts d'une jonque, et 12 colonnes de jade surgirent, soutenant le monde. Mais, trop courts, ces supports n'eussent pas empêché la catastrophe. Havo les appuya sur quatre éléphants blancs, qu'il jucha sur la carapace d'une tortue, nageant à la surface de l'océan de lait des mille félicités célestes.

Et voilà. Si la terrestre boule se tient en équilibre dans l'espace, c'est parce que colonnes, éléphants, tortue, etc., unissent leurs efforts pour obtenir ce résultat.

Comme on le voit, il n'est pas possible de trouver système plus simple et plus vraisemblable... C'est du moins l'avis des Coréens.

Autre singularité.

La presque île asiatique partage avec le

Thibet le triste privilège d'être pauvre en femmes. On compte environ six hommes contre un spécimen du sexe faible.

Conséquence : la polygamie existe tout comme chez les Turcs, avec cette variante qu'un Turc a plusieurs épouses, tandis qu'une Coréenne a plusieurs maris. Elle est polyandre, comme disent les lettrés qui ont approfondi les mystères des racines grecques.

Et précisément, les tribulations actuelles de la vice-royauté de Corée viennent de cet usage. Petites causes, grands effets. Voici l'histoire.

Le colonel Ellis et sa fille, miss Elena Thursty — entre parenthèses, cette dernière étant une des plus charmantes *young ladies* qui se puisse rêver, — parcouraient la Corée en touristes, désireux de noter les mœurs, coutumes, costumes, etc., dans le but avoué de faire, à leur retour à Londres, une conférence sensationnelle à la Société royale de Géographie.

Certains prétendent que leur mission avait un but politique secret... N'insistons pas sur ce point.

Un soir, vers quatre heures, les voyageurs parvinrent à Seoul, capitale du pays, et descendirent chez un certain Lao-Chen, courtier en thé, pour lequel ils avaient une lettre de recommandation.

Celui-ci les accueillit non pas à bras ouverts, comme on dirait chez nous, mais à *langue sortie*, car l'usage, la politesse raffinée exigent que l'hôte lèche abondamment le front et le menton de ceux qu'il reçoit.

Le colonel déclare cette coutume désagréable et son affirmation ne semble pas exagérée.

« Ma maison est à toi ! s'écria Lao-Chen.

— Je te remercie, répliqua Ellis en s'essuyant le visage; mais je ne veux pas t'en priver. Fais-nous seulement servir le repas du soir et accorde-nous l'hospitalité pour la nuit.

— Les désirs du voyageur sont les volontés d'Havo lui-même. »

Sur ce, Lao-Chen appela ses serviteurs et fit conduire les touristes dans les chambres d'apparat, où ceux-ci remarquèrent que l'eau pour la toilette était versée dans de minuscules soucoupes, tandis que l'eau-de-vie de riz remplissait un énorme récipient.

« En Corée, on boit plus qu'on ne se lave, » nota gravement le colonel.

Leurs ablutions terminées, le désordre apporté à leur mise par le voyage étant réparé tant bien que mal, les Anglais revinrent au salon commun.

Plus commun que salon, le hall ainsi désigné avait pour tous meubles des bancs grossiers recouverts de fourrures, une table mal équerrie. L'ornementation luxueuse de la pièce consistait en *kake-monos*, ces enluminures sur papier de riz, dont les Extrême-Orientaux ont inondé la vieille Europe, depuis une vingtaine d'années.

Lao-Chen les y attendait, revêtu de la casaque à larges manches, aux riches broderies pourprées, et, entouré, tel un patriarche, par sa fille flanquée de ses *trois maris* et par ses quatre fils, géants hirsutes et sauvages, encore célibataires, se déclara non sans orgueil le chef de la famille.

Voici le portrait que trace de ces gens le colonel Ellis :

« Pour être laids, ils étaient laids, avec leurs faces aplaties, leurs yeux bridés, leur nez camard ; mais cette laideur était centuplée par la plus repoussante saleté. Tous, emprisonnés comme dans un fourreau, en une tunique longue, percée d'une ouverture par laquelle passe la tête, avaient les cheveux emmêlés, agglutinés par une sorte de pâte faite des poussières jamais enlevées et de la graisse qu'y ajoute leur étrange coquetterie.

« Le teint de ces Coréens était-il jaune, ou brun, ou blanc ? Il me serait impossible de préciser ce détail, tellement la peau disparaissait sous un email crasseux. Évidemment ces personnages professaient pour l'eau et les soins de propreté un respect voisin de la terreur.

« Elena et moi eûmes un haut-le-cœur lorsque ces monstres s'approchèrent, avec des yeux de jeunes buffles, et nous lèchèrent copieusement en signe de bienvenue.

« Heureusement, une petite provision d'acide phénique figurait au nombre de nos bagages et nous avions l'espérance de nous débarrasser bientôt des microbes de toute nature dont nous contaminait le voisinage de nos hôtes. »

Quoi qu'il en soit, les voyageurs durent faire bon visage, malgré leur dégoût, et Lao-Chen, qui jusqu'alors s'était exprimé dans une sorte de « sabir » usité le long des côtes chinoises, commença en pur coréen un interminable discours, auquel naturellement les Anglais ne comprirent goutte.

Et la scène funambulesque dont nous allons essayer de donner l'idée se produisit :

Lao-Chen débite une période pompeuse, mais inintelligible.

LE COLONEL ELLIS, *craignant de mécontenter son hôte en ne l'approuvant pas* : « Yes, vous devez certainement avoir raison. »

Lao-Chen, dont le visage s'éclaire et dont la main désigne en un geste large sa fille et ses trois époux, lance de nouveau une longue phrase.

LE COLONEL ELLIS, *empressé* : « Yes, yes, vous êtes évidemment un sage, et j'apprécie votre éloquence, bien que je n'en discerne pas le moindre mot. »

Si la langue britannique n'est pas familière aux assistants, les gestes du colonel sont clairs. L'Anglais approuve, il répond par l'affirmative.

Et la *demoiselle* Lao-Chen rit aux éclats, montrant ses dents jaunes ; et ses maris ne paraissant pas aussi réjouis qu'elle-même, elle retire son sabot à la pointe recourbée, les en frappe violemment, puis se reprend à rire de plus belle.

Cette fois, les trois époux se livrent à toutes les contorsions de la plus folle hilarité.

Puis le silence se rétablit, et Lao-Chen, indiquant du geste qu'il s'adresse à miss Elena, reprend sur nouveaux frais un discours aussi incompréhensible que celui qui l'a précédé.

Avertie par l'exemple de son père, la gentille voyageuse riposte par des « yes » incessants.

Elle s'épuise à incliner la tête en mouvements affirmatifs.

Puissance comique du mot « yes » ! Puissance insoupçonnée jusqu'alors ! Les quatre fils Lao-Chen manifestent une joie bruyante. Leurs rires rauques sonnent dans la salle comme des hurlements de loups.

Après quoi des serviteurs entrent, déposent sur la table des mets bizarres, et Lao-Chen invite ses hôtes à partager son repas.

Ceux-ci s'exécutent, non sans une secrète inquiétude. Il semble à miss Elena, au colonel, que les yeux des assistants se fixent sur eux avec une expression singulière.

Le repas se termine cependant sans encombre.

On apporte une jarre de terre, pleine à débord d'alcool de riz. On emplit les coupes, on boit.

Soudain, Lao-Chen se lève, et reprenant l'usage du « sabir » de l'Extrême-Orient :

« Illustres voyageurs, dit-il, Havo, père des êtres, a béni ma demeure quand il vous a envoyés vers moi.

— Trop aimable, en vérité, » murmurent les Anglais.

Mais le Coréen leur impose silence de la main.

« Les Coréens sont de pauvres gens, leur sol est rude et peu productif... »

— Tu nous as reçus comme un vice-roi, » déclare poliment le colonel.

La face sale du patriarche s'éclaire, ses petits yeux brillent comme des escarboucles.

« J'ai fait de mon mieux. Vous autres, gens de l'Occident, qui parcourez la terre pour votre plaisir, vous êtes riches. Les dieux de l'or amoncellent les taëls (unité monétaire chinoise valant de 32 à 37 francs, dans vos coffres. »

Le colonel, à ces mots, hoche la tête. Il croit deviner la pensée de son hôte. Celui-ci, sans doute, adresse une invite détournée à sa générosité. Aussi s'empresse-t-il de répliquer :

« Ce me sera un bonheur de te donner une part de mon argent pour te remercier. »

La promesse a un effet inattendu. Une tempête de rires s'élève autour de la table.

« Pourquoi riez-vous ? Ai-je dit quelque mot drôle à ce point ? »

Et Lao-Chen, demeuré imperturbable, reprend doucement :

« Excuse cette jeunesse. Cela ne pense qu'à s'amuser. Du reste, tu as été tout à fait amusant dans ta réponse.

— Moi ? s'exclame l'Anglais stupéfait.

— Toi-même.

— Serais-tu assez bon pour m'expliquer tes paroles qui, je l'avoue, frappent mes oreilles sans présenter de sens à mon esprit.

— Les désirs de l'hôte sont sacrés. Puisque tu le désires, je m'explique.

— Pour moi, j'écoute. »

Le colonel Ellis, miss Elena, éprouvant un vague sentiment de malaise, se penchent en avant, fixent avidement leurs regards sur leur interlocuteur.

Et, paternelle, le Coréen poursuit :

« Ne m'offrais-tu pas tout à l'heure une part de ton argent ? »

— Effectivement.

— La gaieté de ma famille est donc toute naturelle, toute justifiée.

— Je continue à ne pas être de cet avis.

— C'est que tu as la mémoire courte. Ta fille sûrement a tout deviné. »

Mais comme Elena secoue négativement sa tête blonde, Lao-Chen lève les bras vers les solives du plafond, en un geste d'éloquent appel aux divinités.

« Avec si peu de souvenir, c'est un grand bonheur pour toi que je te protège désormais, tu te serais laissé dépouiller par le premier venu. Mais, rassure-toi. Je suis là maintenant pour te défendre. »

Puis, sans paraître remarquer l'air ahuri de ses hôtes, le vieux courtier en thé reprit :

« Mais revenons à la gaieté des miens. Ces enfants ont ri lorsque tu me promettais une part de ta fortune, parce que, tu le reconnaitras toi-même, il était drôle de m'offrir un morceau, après m'avoir donné tout.

— Tout ? bégaya le colonel.

— Sans doute.

— J'en ai jamais fait pareille promesse.

— O distrait ! éternel distrait ! Tout à

l'heure, tu as approuvé mes paroles lorsque, selon la coutume de ce pays, je te déclarai le quatrième époux de ma fille.

— Hein ! clama désespérément l'Anglais, comprenant enfin dans quel guépier on l'avait entraîné.

— Et quand, poursuivit imperturbablement Lao-Chen, je proclamai ta fille épouse de mes quatre fils. »

Du coup, miss Elena s'évanouit.

**

Par bonheur pour la jolie fille d'Albion, le colonel Ellis était homme de sang-froid, de résolution.

Il comprit que toute résistance ouverte serait dangereuse. Les premiers soins donnés à Elena, il affecta une vive satisfaction de la surprise matrimoniale imaginée par son hôte, et proposa — en signe de réjouissance — de nombreuses libations d'alcool de riz.

Au bout de deux heures, tous les Coréens étaient ivres-morts.

Les touristes les laissèrent couvrir leur eau-de-vie et s'enfuirent pour aller se réfugier au consulat russe, dont les bâtiments étaient proches.

Or, savez-vous ce qui advint de l'aventure ?

La chose la plus inattendue à coup sûr : la mainmise par la Russie sur l'administration coréenne.

En effet, au sortir de l'ivresse, la famille Lao-Chen se rendit compte qu'elle avait été jouée. Elle amena la population et assiégea le consulat russe, d'où Ellis et Elena ne purent s'échapper qu'à grand-peine.

Le consul russe, son chancelier furent blessés.

Letsar demanda réparation de l'insulte faite à son représentant. Les Coréens rusèrent, attermoyèrent, tant et si bien que, à la suite d'un coup de force, la Russie se substitua à la Chine dans le contrôle de l'administration.

Et voilà comment la presqu'île de la Corée est en passe de devenir l'une des provinces du vaste empire moscovite et de doter celui-ci de ce qui fut sa séculaire ambition : de ports de mer jamais fermés par les glaces.

Bien que le léopard britannique enrage de ce dénouement politique ; bien que les gazettes, magazines aient reproché à miss Elena, à son père, de ne pas s'être sacrifiés à l'intérêt anglais, la gentille jeune fille est parfaitement heureuse et ne regrette rien.

Elle a épousé un aimable officier de la marine française. Ils s'adorent.

De l'aventure, elle n'a conservé qu'une petite originalité. Elena ne peut voir un charbonnier, un ramoneur, un être quelconque au visage barbouillé, sans se voiler les yeux, sans murmurer avec un frisson d'angoisse :

« Oh ! ciel ! un Coréen. »

PAUL D'IVOI.

Journal des Voyages

ET DES AVENTURES DE TERRE ET DE MER
(SUR TERRE ET SUR MER: MONDE PITTORESQUE: TERRE ILLUSTRÉE réunies)
DIMANCHE 6 AVRIL 1901

Journal hebdomadaire. * ABONNEMENTS: 07 AN: PARIS, SEINE ET SEINE-A-DEUX, 8 fr. — DÉPARTEMENTS, 10 fr. — UNION POSTALE, 17 fr. 50 rue Saint-Joseph, 12, Paris, 9.



한국에서의 모험

인명 색인

Personal Name Index

가

고든, 찰스 조지

(Gordon, Charles George, 1833~1885)

영국 육군 장교이다. '중국인 고든(Chinese Gordon)'으로도 알려져 있다. 1860년대 초 태평천국운동을 중국 병사들과 함께 진압하는 데 공을 세웠다. 79쪽

고든

고무라 주타로(小村壽太郎, 1855~1911)

일본의 외교관이다. 청일전쟁 후 변리공사로서 조선에 근무하며 을미사변의 선후책을 강구하였고, 1910년 한일 병합조약을 추진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하였다. 112쪽

고무라 주타로

귀인 장씨(貴人 張氏, ?~?)

조선의 제26대 왕 고종의 후궁이다. 17세에 궁궐에 들어와 고종의 승은을 입었지만 임신한 채 쫓겨나 궁 밖에서 의화군(義和君)을 낳았다. 의화군이 10살이 되던 1887년 경 남대문 밖에서 생을 마감하였다고 전하나 명확하지 않다. 116, 227쪽

장씨

그레이트하우스, 클래런스

(Greathouse, Clarence R., 1846~1899)

미국의 법률가이다. 을미사변 당시 고등재판소 임시 법률 고문으로 임명되어 재판을 담당하였으며 이후에도 각종 재판에서 감독 및 자문 역할을 수행하였다. 양화진외국인 선교사묘원에 매장되었다. 229쪽

클래런스

그리피스, 윌리엄 엘리엇

(Griffis, William Elliot, 1843~1928)

미국의 동양학자이자 선교사, 작가이다. 1870년 일본의 초청으로 일본 내 학교 설립을 감독하였다. 일본에 관한 글을 많이 작성하여 일본 및 미국 언론에 기고하였다. 한국을 '은둔의 나라'로 표현한 최초의 글 『한국: 은둔의 나라(Corea: the Hermit Nation)』(1882년)의 저자이기도 하다. 49쪽

엘리엇

김옥균(金玉均, 1851~1894)

조선 말기의 정치가이다. 박규수 등의 영향을 받아 근대적 개혁을 위한 개화사상을 형성하였다. 일본의 근대화 실정을 시찰하기 위해 1881년(고종 18) 일본에 건너갔으며, 1882년(고종 19) 9월 수신사 박영효의 고문이 되어 다시 일본을 방문하였다. 이후 1884년(고종 21) 갑신정변을 주도하였으나 실패하자 박영효·서광범·서재필 등과 함께 일본으로 망명하였다. 그 뒤 상하이로 건너갔으나 자객 홍중우에게 암살당하였다. 11, 60~62쪽

김옥균

네지에르, 조제프 드 라

(Nézière, Joseph de La, 1873~1944)

프랑스 화가이자 작가이다. 아프리카·중동·극동 지역 등을 여행하며 많은 작품을 남겼다. 한국에 머무는 동안 고종의 공식 초상화를 그렸다. 14, 246, 248, 297쪽

다이, 윌리엄 맥켄타이어

(Dye, William McEntyre, 1831~1899)

미국 군인이다. 한국의 연구공원에서 사란을 양성했으며 을미사변 당시 미군 소위로 왕궁 수비의 책임을 맡았다. 한국 최초의 영문 잡지 『코리안 리포지터리(The Korean Repository)』에 수차례에 걸쳐 농업 관계 논문을 게재하였다. 229쪽

맥켄타이어

데니, 오언(Denny, Owen N., 1838~1900)

미국의 외교관이다. 조선 말기 외교 고문으로, 이홍장의 추천을 받아 뮐렌도르프의 후임으로 파견되었다. 1886~1890년까지 조선에 머무르면서 조선에 대한 청의 내정 간섭에 반대했으며 1888년에는 조로수호통상 조약을 주선하여 조선 측 대표의 한 사람으로 조약 문서에 서명하였다. 이 때문에 이홍장의 미움을 받아 조선 정부 외교 고문직에서 파면되었다. 66쪽

뮐렌도르프

두메르, 폴(Doumer, Paul, 1857~1932)

프랑스의 정치가이다. 1897년부터 5년간 인도차이나 총독을 지냈다. 246쪽

두메르

디부아, 폴(D'Ivoi, Paul, 1856~1915)

프랑스 기자이자 소설가이다. 1894년부터 모험 소설 시리즈 『기상천외한 여행(Voyages Excentriques)』을 펴내 큰 성공을 거두었다. 305쪽

디부아

딘스모어, 휴(Dinsmore, Hugh A., 1850~1930)

미국의 변호사이다. 1887년 서울에 도착한 뒤 1890년까지 변리공사로 재직하였다. 공사직을 퇴직한 뒤에는 1905년까지 미국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으로 활동하였으며, 의원직을 물러난 후에는 다시 변호사로 활동하였다. 66쪽

디스모어

라게리, 빌타르 드(Laguérie, Villetard de, ?~?)

프랑스 언론인이다. 프랑스 유력 일간지 『르 탕(Le Temps)』의 기자로 청일전쟁 중군 국동 특파원으로 파견되어 1895년 3월 한국에 들어와 약 1년간 체류하면서 을미사변을 경험하였다. 그 뒤 3년 후 1898년 프랑스에서 『한국 독립인가, 러시아 혹은 일본의 손에 넘어갈 것인가(La Corée)』라는 책을 발간하였다. 116, 293, 294쪽

라게리

로, 프레더릭 퍼디난드

(Low, Frederick Ferdinand, 1828~1894)

미국의 정치인이다. 1870년 베이징 주재 미국 공사로 부임한 뒤 미 해군 아시아 함대 사령관 존 로저스와 조선 원정 계획을 수립하였다. 30, 35, 49쪽

로저스

로스니, 레옹 드(Rosny, Léon de, 1837~1914)

프랑스의 민속학자이자 동양학자이다. 유럽의 한국학 태동의 선구자 중 한 명이다. 165쪽

로저스, 존(Rodgers, John, 1812~1882)

미국 군인으로 남북전쟁 당시 북군 해군으로 활약했다. 신미양요 당시 미국 해군 아시아 함대를 이끌고 조선을 침략하였다. 10, 11, 30, 33~36, 39, 49, 50쪽

로저스

로즈, 피에르 귀스타브

(Roze, Pierre Gustave, 1812~1883)

프랑스 인도차이나 함대 사령관이다. 1866년(고종 3) 조선의 천주교 박해 소식을 전해 듣고, 같은 해 8월 프리모 게호 등 군함 3척을 이끌고 한강을 거슬러 가다가 몰려났으며, 10월에 다시 7척의 함대를 이끌고 울라와 강화성을 손에 넣었다(병인양요). 10, 22, 23, 26, 36쪽

로즈

루스벨트 롱워스, 앨리스 리

(Roosevelt Longworth, Alice Lee, 1884~1980)

미국 제26대 대통령 시어도어 루스벨트의 외동딸이다. 1905년(광무 9) 9월 경운궁(현 덕수궁)을 방문해 고종 황제를 직접 알현하는 등 활발한 외교 활동을 펼쳤다. 14, 253, 254쪽

루스벨트 롱워스

리드, 에드워드 제임스

(Reed, Edward James, 1830~1906)

영국의 군함 설계자, 작가, 정치인이자 철도업계의 거물이 다. 1863년부터 1870년까지 영국 해군 조선 총감을 지냈다. 64쪽

리드

매키, 휴 윌슨(McKee, Hugh Wilson, 1844~1871)

미국 캔터키 출신의 미 해군 중위로 신미양요 당시 참전했다가 전사하였다. 미국 해군사관학교 출신의 첫 전사자로 서, 지금도 아나폴리스 미 해군사관학교 교회 앞에 그의 추념비가 서 있다. 30, 31, 33, 41~43, 50쪽

매키

맥글린, 에드워드(McGlynn, Edward, 1837~1900)

맥글린

미국 가톨릭 신부이자 사회개혁가이다. 진보적 성향을 가지고 사회 개혁을 추구하다 가톨릭 교단에서 퇴출되었다가 복직되기도 하였다. 1887년에 '빈곤퇴치협회(Anti-Poverty Society)'를 조직하고 회장을 맡아 운영하였다. 80쪽

맥글린

메릴, 헨리(Merill, Henry F., ?~?)

미국인 세무사이다. 1885년 뮐렌도르프의 뒤를 이어 조선의 제2대 총세무사로 임명되어 1889년까지 세관의 감독 및 수출입 상황 조사 등을 관장하였다. 한국 이름은 묵현리(墨賢理)이다. 66쪽

메릴

명성황후(明成皇后, 1851~1895)

조선의 제26대 왕 고종의 왕비로 성은 민씨(閔氏)이다. 19세기 말 국내외적 혼란기에 정치적 영역을 확대하여 국정 운영을 주도하였다. 1895년(고종 32) 일본의 공권력 집단이 경복궁을 습격하여 살해당했다. 1897년(광무 1) 고종의 황제 즉위와 대한제국 선포 직후 황후로 추존되었다.

11, 12, 14, 112, 115, 116, 227, 291, 302쪽

모스, 제임스(Morse, James R., ?~?)

미국의 상인이다. 일본 체류 중 한국에 들어와 철도창조조약을 체결하였으나 파기되자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경인철도 부설권을 받았다. 결국 자금 부족으로 공사를 중단하고 일본인 경인철도 합자회사에 부설권을 팔았다. 12, 229쪽

모스

모ffet, 새뮤얼(Moffet, Samuel A., 1864~1939)

미국의 북장로회 선교사이다. 1890년경 한국에 들어와 평양에서 전도 활동을 펼쳤고 1903년(광무 7) 10월 중의 여학교를 설립하였다. 218쪽

모ffet

뮐렌도르프, 파울 게오르크 폰

(Möllendorff, Paul Georg von, 1848~1901)

독일의 외교관이다. 중국 주재 독일 영사관에서 근무하던 중 이홍장의 추천으로 조선의 통리아문 참의·협판을 역임하면서 외교와 세관 업무를 맡았다. 1885년(고종 22) 조선에 러시아 세력을 끌어들었다는 이유로 이홍장의 압력을 받아 해임되었다. 한국 이름은 목인덕(穆麟德)이다. 69쪽

뮐렌도르프

무쓰히토(睦仁, 1852~1912)

일본의 제122대 천황이다. 즉위 이듬해 연호를 메이지(明治)로 고치고 1869년 에도(江戸)를 도쿄로 개명하며 최고 통치권자로서 왕정복고를 실현하였다. 또한 메이지 신정부를 수립하는 메이지유신에 성공하였다. 271쪽

무쓰히토

미우라 고로(三浦梧樓, 1846~1926)

일본의 군인이자 정치가이다. 명성황후를 시해하고 그 시신을 불태우는 국제적 범죄를 저지른 범인이다. 229쪽

미우라 고로

민겸호(閔謙鎬, 1838~1882)

조선 말기의 문신이다. 명성황후의 오빠로 권력을 잡고 여러 요직을 역임했으며 신식 군대인 별기군을 창설했다. 임오군란 당시 궁중에 난입한 군인들에 의해 살해되었 다. 60쪽

민겸호

민영소(閔泳韶, 1852~1917)

조선 말기의 문신이다. 병조판서로 있을 때 이일직에게 일본 망명 중인 김옥균·박영효의 암살을 교사했으나 실패하였다. 다시 홍중우를 상하이에 밀파하여 김옥균을 살해하였다. 국권 피탈 후 자작 작위를 받았다. 74쪽

민영소

민영익(閔泳翊, 1860~1914)

조선 말기 명성황후의 친정 조카로서 개화 업무를 이끌었다. 일본에 3개월간 머물며 개화 문물을 견학했고, 중국 텐진에도 파견되어 해관 사무를 교섭했으며 보빙사로 임명되어 미국 아서 대통령을 예방하였다. 61, 74, 229쪽

민영익

민영환(閔泳煥, 1861~1905)

조선 말기의 문신이다. 민겸호의 아들로 영국·독일·러시아·프랑스·이탈리아·오스트리아 등 6개국 특명 전권공사로 임명되어 러시아 황제에게 고종의 친서를 전달하고 각국 외교 사절을 예방하였다. 을사늑약 체결 이후에는 조약의 파기를 요구하며 죽음으로 항거하였다. 60쪽

민영환

바라, 샤를 루이(Varat, Charles Louis, 1842~1893)

프랑스의 지리학자이자 민속학자이다. 1888년(고종 25) 50일 동안 조선을 방문한 후 여행기를 출간하였다. 160, 164, 173, 174쪽

바라

박내원(朴來元, 1860~1935)

조선 말기에 천주교 황해도 공소 회장이었다. 파리외방전교회 소속의 신부들을 은신하게 하여 가산을 몰수당하기도 하였다. 142쪽

박내원

박영효(朴泳孝, 1861~1939)

조선 말기의 정치가이다. 철종의 딸 영혜옹주(永惠翁主)와 결혼하여 부마가 되었다. 개화사상을 받아들였고 일본에 수신사로 다녀왔다. 1884년(고종 21) 갑신정변을 주도했으나 실패한 후 일본에 망명했다가 1894년(고종 31) 갑오개혁 당시 귀국하여 정계에 복귀하였다. 하지만 1895년(고종 32) 반역 음모 사건 때문에 다시 일본으로 망명하였다. 일제강점기에는 후작 작위를 받았다. 227쪽

박영효

박정양(朴定陽, 1841~1904)

조선 말기의 문신이다. 1881년(고종 18) 조사 시찰단을 조직하여 일본의 문물을 시찰하였다. 1887년(고종 24) 초대 주미 전권대사에 임명되어 1889년(고종 26)까지 미국에서 외교 활동을 펼쳤다. 갑오개혁 때 군국기무처의 회의원이 되고 제2차 김홍집 내각의 학부대신을 지냈으며 김홍집 내각 붕괴 후 을미개혁을 추진하였다. 11, 66, 227쪽

박정양

베르뇌, 시메옹 프랑수아

(Berneux, Siméon-François, 1814~1866)

파리외방전교회 소속의 프랑스 선교사이다. 조선의 천주교 박해 때 순교한 한국 천주교의 103위 성인 중 한 명이다. 한국 이름은 장경일(張敬一)이다. 147쪽

베르뇌

브라운, 존 맥리비(Brown, John McLeavy, 1835~1926)

아일랜드 출신의 세무사이다. 20년 동안 청에서 해관 세무사로 근무하던 중 1893년(고종 30)에 조선의 해관 세무사로 임명되었다. 1905년(광무 9)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이 한국에서의 지배력을 강화할 때까지 약 10년 동안 한국의 해관 사무를 담당하였다. 229, 233쪽

브라운

비토, 펠리스(Beato, Felice, 1832~1909)

이탈리아 태생의 영국 사진작가이다. 동아시아의 사진을 촬영한 최초의 사진작가 중 한 명으로 꼽힌다. 30쪽

비토

비토

비토

비토

샤이에 롱 베이, 찰스

(Chaillé-Long Bey, Charles, 1842~1917)

미국의 외교관이다. 1890년대 초 주한 미국 공사관의 서기관, 총영사, 대리공사를 지냈다. 『고려 또는 조선, 고요한 아침의 나라』라는 책을 펴냈다. 15, 74, 76, 161쪽

샤이에 롱 베이

서광범(徐光範, 1859~1897)

서광범

조선 말기의 정치가이다. 일찍이 일본·미국·유럽 등 선진 문물을 접하여 근대화 사상이 강하였다. 1884년(고종 21) 개화당의 일원으로 갑신정변을 일으켰으나 실패하자 일본으로 망명하였다. 후에 귀국하여 김홍집 내각에서 활약하였다. 주미 특명 전권공사로 발령받았다가 친러 정부에 의해 해임된 후 병으로 미국에서 사망하였다. 60, 61쪽

서광범

서재필(徐載弼, 1864~1951)

개화기의 정치가이자 독립운동가이다. 김옥균·서광범·박영효 등과 함께 갑신정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으나, 실패하자 일본에 망명하였다가 미국으로 건너갔다. 귀국 후에는 1896년(간양 원년) 4월 7일 '독립신문'을 창간하였으며, 1896년 7월 2일 독립협회를 창설하였다. 228쪽

서재필

소네 아라스케(曾禰荒助, 1849~1910)

일본의 정치가이다. 조선통감부 부통감으로 조선에 부임하였다. 1909년 이토 히로부미의 후임으로 제2대 통감에 임명되었다. 271쪽

소네 아라스케

쇼, 새뮤얼(Shaw, Samuel, 1754~1794)

미군 장교이자 외교관으로 1784년 중국 영사로 부임하여 중국과의 통상을 개시하였다. 49쪽

쇼

순종(純宗, 이척李坫, 1874~1926)

대한제국의 제2대 황제이다. 고종과 명성황후 사이의 둘째 아들로 1897년(광무 1) 대한제국의 수립에 따라 황태자로 책봉되었다. 1907년(광무 11) 고종의 양위를 받아 대한제국의 황제로 즉위하였다. 14, 15, 116, 227, 248, 252, 253, 260, 263~265, 267, 271쪽

순종

순종

순종

순헌황귀비 엄씨(純獻皇貴妃 嚴氏, 1854~1911)

조선의 제26대 왕 고종의 후궁이다. 8세에 입궐하여 고종의 눈에 들자 명성황후에 의해 궁 밖으로 쫓겨났다. 을미사변 직후 다시 궁에 들어와 고종의 총애를 받아 영친왕 이은(李璠)을 1897년(광무 1)에 출산한 이후 상궁에서 귀인(1897년), 순빈(1900년), 순비(1901년)로 승급하였고 1903년(광무 7)에는 황귀비로 책봉되었다. 228쪽

순헌황귀비

순헌황귀비

순헌황귀비

슈펠트, 로버트 윌슨(Shufeldt, Robert Wilson, 1850~1934)

미국의 해군 제독이자 외교관이다. 1882년 5월 7일 미국 전권대사의 자격으로 군함 스와타라호를 이끌고 인천항으로 와서 조선 측의 전권대신인 신헌 및 부관 김홍집과 조미 수호통상조약을 체결하였다. 49, 50, 76, 183쪽

슈펠트

슈펠트

스에마쓰 겐초(末松謙澄, 1855~1920)

일본의 정치가이자 언론인이다. 메이지 시대와 다이쇼 시대에 활동했으며 초대 내각 총리대신 이토 히로부미의 사위이다. 271쪽

스에마쓰 겐초

스에마쓰 겐초

스에마쓰 겐초

스에마쓰 겐초

스트리플링, **알프레드 버트**(Stripling, Alfred Burt, 1838~1904)영국인 세무사이다. 1883년(고종 20) 인천 해관에서 초대 세무사로 근무하다가 1885년(고종 22) 윌렌도르프를 대신하여 해관 총세무사 서리를 맡았다. 그 뒤 최초 경찰 조직의 고문을 지내기도 하였다. 양화진의국인선교사묘원 에 매장되었다. 69쪽

스페예르, **알렉시스 드**(Speyer, Alexei de, 1854~1916)러시아 외교관이다. 1885년(고종 22) 조선에 파견되었고, 조선 외교 고문 윌렌도르프와 제휴하여 명성황후에게 친 러 정책을 추진하도록 권유하였다. 1885년(고종 22) 영국 이 거문도를 점령하자 영국 함대 사령관 도벨 중장과 일본 나가사키에서 교섭하였고, 그 후 재차 내한하여 한러 비밀 협약을 체결하려다 실패하였다. 1898년(광무 2)에는 친러 파의 이범진 등과 수구파 정부를 움직여 부산 절영도의 조차권을 비롯하여 한러은행 설립 등을 획책하였다. 228쪽

신정왕후(神貞王后, 1808~1890)조선 제24대 왕 헌종의 어머니이다. 1819년(순조 19) 세자빈에 책봉되었고 1834년(순조 34) 아들 현종이 즉위하자 왕대비가 되었으며 1857년(철종 8) 대왕대비가 되었다. 1863년(철종 14) 철종이 승하하자 흥선대원군의 둘째 아들(고종)을 즉위하게 하여 대왕대비로서 수렴청정하였다. 12, 116, 123, 227쪽

심이택(沈履澤, 1832~?)조선 말기의 문신이다. 1857년(철종 8) 문과에 급제한 뒤에 관직에 진출하여 이조참의, 성균관대사성, 전라도관찰사, 한성판윤, 호조·이조판서 등을 거쳐 내무독판에 올랐다. 81, 82쪽

아서, **체스터 앨런**(Arthur, Chester Alan, 1829~1886)미국의 제21대 대통령이다. 1881년부터 1885년까지 재임하였다. 49쪽

아잘베르, **장**(Ajalbert, Jean, 1864~1947)프랑스의 작가이자 미술 평론가이다. 246쪽

아펜젤러, **헨리 거하드**(Appenzeller, Henry Gerhard, 1858~1902)미국 출신 감리교 목사이다. 1885년(고종 22) 조선에 입국하여 선교사로 활동하였다. 선교사가 세운 최초의 근대사학인 배재학당(현 배재중학교, 배재고등학교, 배재대학교)의 설립자이다. 한국 이름은 아편설라(亞扁薛羅)이다. 양화진의국인선교사묘원에 매장되었다. 229쪽

안경수(安翊壽, 1853~1900)조선 말기의 문신이다. 1887년(고종 24)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의 주사로 발탁되어 최초의 주일 공사 민영준(閔泳駿)의 통역관이 되었다. 1895년(고종 32) 4월 명성황후의 신임을 받아 경무사와 군부대신을 역임하였으나 을미사변 이후 해임되었다. 1898년(광무 2) 황제 양위 음모가 발각되자 일본으로 망명하였다가 1900년(광무 4) 귀국 후 교수형에 처해졌다. 227쪽

알렌, **호러스 뉴턴**(Allen, Horace Newton, 1858~1932)미국의 선교사이자 외교관이다. 주한 미국 공사관 소속 의사로 있으면서 선교 사업을 하다가, 갑신정변으로 부상당한 민영익을 치료한 것을 계기로 왕실 의사, 고종의 정치고문, 광혜원 의사와 교수 등으로 활동하였다. 주한 미국 공사관의 서기관을 거쳐 주한 미국 공사관 전권공사에 이르렀으며, 운산 광산 채굴권, 경인철도 부설권 등 여러 이권을 미국에 넘겨주었다. 을사늑약 체결 후 미국으로 귀국하여 의사로서 여생을 보냈다. 66, 126, 141, 142, 229, 279, 280쪽

언더우드, **호러스 그랜트**(Underwood, Horace Grant, 1859~1916)미국 북장로회 선교사로 1885년(고종 22) H. G. 아펜젤러목사와 함께 조선에 들어왔다. 광혜원에서 물라·화학을 가르쳤으며 서울 새문안교회와 기독교사회를 세웠다. 기독교청회(YMCA)를 조직하였고 경신학교에 대학부를 개설하여 연희전문학교로 발전시켰다. 한국 이름은 원두우(元杜尤)이다. 83쪽

에케르트, **프란츠**(Eckert, Franz, 1852~1916)독일의 작곡가이자 지휘자이다. 1901년(광무 5) 2월 한국의 군악대 교사로 초빙되어 내한하였고, 1902년(광무 6) 8월 민영환 작사에 곡을 붙인 대한제국 애국가를 발표하였다. 독일 음악이 한국에 들어오는 가교 역할을 하였으며 한국 현대음악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237쪽

오시마 요시마사(大島義昌, 1850~1926)일본의 조슈 번사이자 화족, 군인이다. 관동도독, 군사참의관, 제3사단장 등을 역임하였다. 93쪽

요시히토(嘉仁, 1879~1926)일본의 제123대 천황이다. 일본 메이지 천황의 셋째 아들로 두 형이 모두 죽자 1889년에 황태자가 되었고 1912년에 천황이 되었다. 연호는 다이쇼(大正)이다. 14, 271쪽

위안스카이(袁世凱, 1859~1916)청 말기의 무관, 군인이며 중화민국 초기의 정치가이다. 신해혁명 때 실권을 잡아 임시 총통이 되었고, 이후 초대 대총통에 취임하였으며, 스스로 황제라 칭하였다. 임오군란 이후에는 조선에 주재하면서 내정 간섭을 하였다. 61쪽

윌리엄스, **웰스**(Williams, S. Wells, 1812~1884)미국의 언어학자, 선교사, 중국학자이다. 1855년 중국 주재 미국 공사관 비서관으로 임명되어 탕진조약 체결 등에 공로를 세웠다. 50쪽

의화군(義和團, **이강**李塏, 1877~1955)고종의 다섯째 아들로 어머니는 귀인 장씨이다. 1891년(고종 28) 12월 의화군에 봉해졌다. 1894년(고종 31)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을 축하하는 보병대사로 임명되어 일본에 다녀왔다. 영국·독일·러시아·이탈리아·프랑스·오스트리아 등을 방문했으며 미국에서 유학했다. 국권 피탈 이후 1919년 상해 임시정부로의 탈출을 모의하였지만 만주에서 일본 경찰에게 발각되어 한국으로 송환되었다. 227쪽

이근호(李根濤, 1861~1923)조선 말기 무신이다. 을사오적 중 한 명인 군부대신 이근택(李根澤)의 아우이다. 중추원 부의장, 법무대신 등 요직을 지냈으며 국권 피탈 후 일본 정부로부터 남작 작위를 받았다. 264쪽

이노우에 가오루(井上馨, 1836~1915)일본의 정치가이다. 이토 히로부미와 함께 양이론(攘夷論)을 주장하였지만 영국 유학 생활 중 서양 문명을 직접 경험한 뒤 개국론자로 바뀌었다. 특명전권 부변리대신(副辦理大臣)으로 한국에 와서 조일수호조규를 체결했고, 전권대사로 한성조약을 체결하였다. 일본 내각에서 내무대신, 대장대신 등의 요직을 지냈다. 청일전쟁 때 주한 일본 공사로 부임하였다. 117, 229쪽

이병무(李秉武, 1864~1926)조선 말기의 무신이다. 이완용 내각의 군부대신임시서리시중무관장이었다. 고종의 양위와 대한제국 근대 해산에 협조하였으며, 이후 자작 작위를 받았다. 260쪽

이상재(李商在, 1850~1927)조선 말기의 정치가이자 사회운동가이다. 박정양이 초대 주미 전권대사에 임명되자 그를 따라 미국으로 건너가 1등서기관으로 근무하였다. 귀국 후 갑오개혁 당시 학무국장, 학부참사관 등을 지냈고, 1896년(건양 원년) 의정부 총무국장으로서 독립협회를 조직하고 부회장이 되어 만민공동회를 개최하였다. 66쪽

이완용(李完用, 1858~1926)조선 말기의 정치가이다. 주차 미국 참사관으로 미국으로 건너갔으나 병을 얻어 이듬해 귀국하여 요양 생활을 하였다. 이후 이조참의, 외무참의를 역임하였다. 일본의 힘이 점점 강해지자 친일파 정치인으로 돌아섰고, 1905년(광무 9)에는 을사늑약을 주도하였으며 1907년에는 총리 대신으로서 고종의 퇴위를 강요하는 등 일본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였다. 66, 260, 264쪽

이용익(李容翊, 1854~1907)조선 말기의 정치가이다. 양반 신분에 속하지만 집안이 한미하여 과거에 응시할 형편이 되지 않자, 각지를 떠돌아다니며 보부상으로 전전하다가 우연히 투자의 금광에서 많은 금맥을 발굴하여 거부가 되었다. 대한제국 당시 대표적인 친러파 관료였으며, 고종과 명성황후를 돕고 개화파의 지도자로 활동하였다. 291쪽

이위중(李璉鍾, 1887~?)조선 말기의 외교관이다. 1907년 6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만국평화회의에 이준·이상설과 함께 특사로 파견되었다. 260쪽

이은(李垕, 1897~1970)대한제국의 마지막 황태자이다. 고종의 일곱째 아들이며 어머니는 순헌황귀비 엄씨이다. 1900년(광무 4) 영친왕(英親王)이라는 봉호를 받았으며, 이복형인 순종이 즉위한 뒤에는 형인 의친왕(義親王)을 제치고 황태자가 되었다. 1926년 순종이 죽은 뒤에는 이왕(李王)의 자위를 계승하였다. 14, 271쪽

이일직(李逸植, ?~?)조선 말기의 정객이다. 갑신정변 실패 후 일본으로 망명한 김옥균과 박영효 등을 대역죄인으로 규정하고 암살 계획을 세웠다. 김옥균의 암살에는 성공하였지만 박영효의 암살은 발각되어 한국으로 압송되었다. 61, 62쪽

이재선(李載先, ?~1881)조선 말기의 왕족이다. 흥선대원군의 서자이자 고종의 이복형이다. 1881년(고종 18) 흥선대원군의 추증 세력이 그를 추대하려다 발각되어 사사(賜死)되었으나, 순종 즉위 후 1907년 8월 원은군(完恩君)에 추봉되었다. 17, 297쪽

이지용(李址鎭, 1870~1928)조선 말기 친일파 대신으로 을사오적 중 한 명이다. 1905년 내부대신으로 을사늑약에 찬성하여 조인에 서명하였다. 국권 피탈 후 일본 정부로부터 백작 작위를 받았다. 264쪽

이채연(李采淵, 1861~1900)조선 말기의 문신이다. 번역관으로 미국에 다녀온 후 서기관이 되었다. 제2차 김홍집 내각에 참여했으며 한성판윤을 연임하면서 최초로 서울의 도시 계획을 추진하였고 독립협회 창립에 참여하였다. 1898년(광무 2)에는 한성전기회사 사의 사장으로 취임하였다. 66쪽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 1841~1909)일본의 정치가이다. 제국주의에 의한 아시아 침략에 앞장서 조선에 을사늑약을 강요하고 헤이그 특사 사건을 빌미로 고종을 강제로 퇴위시켰다. 일본에서는 근대화를 이끈 인물로 평가되지만, 조선 식민지화를 주도한 원흉으로서 1909년 중국 하얼빈에서 안중근에게 저격당하여 사망하였다. 14, 181, 255, 257, 263, 264, 271, 272쪽

이하영(李夏榮, 1858~1929)조선 말기의 문신이다. 주미 공사관 서기관, 주일 전권공사, 중추원의장 등을 역임하였다. 1904년 외부대신이 되어 충청도·황해도·평안도의 어로권을 일본에 부여하고 제1차 한일협약 등 이권을 일본에 넘겨주었다. 1910년 국권이 피탈되자 일본으로부터 자작을 받고 조선총독부 중추원 고문을 지냈다. 66쪽

이한응(李漢應, 1874~1905)조선 말기의 관료이다. 1901년(광무 5) 영국-벨기에 주차 공사관 3등참사관에 임명되어 영국 런던으로 부임하였다. 1905년 을사늑약이 강제 체결되어 외교권을 강탈당하자 자결하였다. 237쪽

이홍장(李鴻章, 1823~1901)청 말기의 한족계 정치가이다. 태평천국의 난 이후 정계의 실력자로 등장하였으며 청의 부국강병을 위해 양무운동을 주도하였다. 조선에 위안스카이를 파견하고 윌렌도르프 등 외국인 고문을 보내어 조선의 내정과 외교에 관여했다. 청일전쟁을 계기로 실각하였다. 93, 105, 181, 294쪽

조병식(趙秉式, 1823~1907)조선 말기의 문신이다. 1888년(고종 25) 조선 대표로 러시아 대표 베베르와 조로육로통상조약을 체결하였다. 충청도관찰사로 있을 때 동학교도를 탄압하여 동학농민운동의 원인이 되었고, 황국협회를 선동해 독립협회 타도에 나서기도 하였다. 1890년 주일 특명 전권공사를 지냈다. 11, 74쪽

국

캐번디시, **알프레드 에드워드 존**(Cavendish, Alfred Edward John, 1859~1943)청일전쟁 당시 중국군 공사관원이었다. 『한국과 신성한 백두산(Korea and the Sacred White Mountain)』이라는 책을 저술하였다. 74쪽

코이트, **로버트 손웰**(Coit, Robert Thornwell, ?~1932)미국의 선교사이다. 1907년 한국에 와서 주로 광주 선교부와 순천 선교부에서 선교 활동을 펼쳤다. 두 아들이 이질로 사망하였지만 귀국하지 않고 보성과 장흥에 많은 교회를 세우고 1932년 아내와 함께 미국으로 귀국하였다. 한국 이름은 고라복(高羅福)이다. 283쪽

클리블랜드, **스티븐 그로버**(Cleveland, Stephen Grover, 1837~1908)미국의 제22대와 제24대 대통령이다. 66, 229쪽

E

투르나퐁, **폴**(Tournafond, Paul, ?~?)프랑스 지리학자로 1885년 『한국(La Corée)』이라는 책을 펴냈다. 173쪽

표

파셋, **제이컵 슬롯**(Fassett, Jacob Sloat, 1853~1924)미국 출신으로 사업가, 변호사, 하원의원이었다. 한국의 광산업에 투자를 하기도 하였다. 178, 229쪽

페리, **매슈 캘브레이스**(Perry, Matthew Calbraith, 1794~1858)쇄국정책을 펼치던 에도 시대의 일본에 함대를 이끌고 가서 무력시위를 벌여 1854년 미일화친조약을 체결, 일본을 개항하게 한 인물이다. 35, 49쪽

페비거, **존 카슨**(Febiger, John Carson, 1821~1898)미국 해군 소장으로서 1868년(고종 5) 제너럴서먼호 사건의 사후 조사를 위해 평양을 방문하였다. 36쪽

포크, **조지 클레이턴**(Foulk, George Clayton, 1856~1893)미국의 군인이자 외교관이다. 조선에 파견된 미국 공사관의 무관으로, 대리공사를 역임하였다. 61쪽

프랭클린 이건, **엘리너**(Franklin Egan, Eleanor, 1879~1925)미국의 언론인이다. 여성 중군기자로서 20여 년 동안 전쟁과 외교에 관련된 글을 기고하였다. 17, 300쪽

하

하나부사 요시모토(花房義實, 1842~1917)일본의 외교관이다. 1877년(고종 14)에 조선 주재 대리공사에 임명되었다. 60, 61쪽

하세가와 요시미치(長谷川好道, 1850~1924)일본의 군인, 정치인, 외교관이다. 1916년부터 1919년까지 제2대 조선 총독을 지냈다. 223, 255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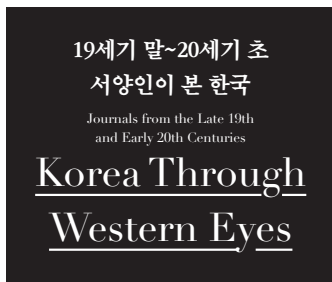
하야시 다다스(林董, 1850~1913)일본의 외교관이다. 주영 일본 공사 재임 중 1902년 영일동맹을 체결하였고, 외무대신으로 재직 당시 1907년 7월 헤이그 특사 사건 직후 서울에 와서 이토 통감에게 일본 정부의 처리 방침을 설명하고, 한국 정부에 책임을 추궁하였다. 201, 263, 264쪽

허치슨(Hutchison, W. D., ?~?)영국인 영어 교사이다. 해관원 영어 교사와 제2대 총세무사의 수행 실장, 해군사관학교의 효시인 통제영학당(統制營學堂)의 영어 교사를 역임하였다. 양화진외국인선교사묘원에 매장되었다. 69쪽

힐버트, **호머 베잘렐**(Hulbert, Homer Bezaleel, 1863~1949)미국의 감리교 선교사이자 교육자이다. 1886년(고종 23) 내한하여 육영공원에서 외국어를 가르쳤다. 을사늑약 후 고종의 밀서를 휴대하고 미국에 돌아가 국무장관과 대통령을 면담하려 하였으나 실패하였다. 『한국평론』을 창간하여 일본을 규탄하였고, 고종에게 헤이그 밀사 파견을 건의하는 등 한국의 국권 회복 운동에 적극 협력하였다. 한국 이름은 할보(韓浦)이다. 229쪽

헤론, **존**(Heron, John W., 1856~1890)미국의 선교사이자 의사이다. 1885년(고종 22) 조선에 파견된 미국 북장로회 소속 최초의 선교사로 고종의 주치의 를 거쳐 제중원의 제2대 원장으로 활동하다가 사망하였다. 한국 이름은 헤론(憲論)이다. 66쪽

홍종우(洪鍾宇, 1854~?)조선 말기의 정객이다. 조선인 최초로 프랑스에 유학하여 법률을 공부하였다. 도쿄에서 이일직(李逸植)을 만나 김옥균을 암살하는 일에 가담해 줄 것을 권유받았다. 이에 김옥균을 상하이로 유인하여 1894년(고종 31) 상하이 미국 조계 내의 일본 호텔에 투숙한 김옥균을 권총으로 살해하였다. 그 뒤 김옥균의 시체를 가지고 귀국하였다. 62, 99쪽



국립중앙박물관 역사자료총서 17
(대한제국 자료집 2)

기획 서윤희
편집 이재정, 서윤희
논고 서윤희
번역 (총괄) 이소연 / (영어) 이소연, 이자경, 김해윤 / (불어) 이정아, 곽소라
감수 이계형
교열·교정 정다운, 이재영, 강유현, 황치영

발행처 국립중앙박물관
140-026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로 137
전화 02-2077-9000 팩스 02-2077-9925

발행일 2017년 12월 27일

제작 (주)늘와

ISBN 978-89-8164-170-2 94910 (비매품)

ISBN 978-89-8164-054-5 (세트)

© 2017 국립중앙박물관

이 책의 저작권은 국립중앙박물관에 있습니다.

이 책에 담긴 내용은 국립중앙박물관의 허가를 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